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1호 2021.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

강인욱 |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9

양시은 |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55

김상민 | 통화(通化)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101

강현숙 |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149

이종수 |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191

논문

박장호 | 부여계 · 한(漢)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231

김봉준 |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緖籌辦夷務始末)』·『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의 해제(解題)와 조선 관련 문건 267

백시진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307

김선호 | 북한의 경계 · 국경 인식과 북 · 중 접경지역 경비(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353

김유리 | 최근 대만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 변화 – 101과강 『선수역사(選修歷史)』와 108과강 『역사(歷史)2』 비교 분석 38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심영신 ▮ 선택과 적응
– 6세기 후반 상장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439
박민수 ▮ 구미 학계의 '청조(淸朝)' 인식과 서술
– 『케임브리지 중국사 9권,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조』를 중심으로 485

서평

노중국 ▮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씨제 정비와 일본의 『신찬성씨록』
– 역주 『신찬성씨록』(동북아역사재단, 2020) 상·중·하 출간에 부쳐 52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5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A Study on Historical Inheritance Relations of Old Choson and Goguryeo Analyzed the Wanfabozi site in Tonghua, Jilin

Kang Inuk ▮ Wanfabozi Site and the Transition of Trade Network System during Late Old Chosun and Early Goguryeo 9

Yang Sieun ▮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guryeo Pottery through the Wanfabozi Site in Tonghua 55

Kim Sangmin ▮ Interrelation of the Ironware Cultures in Late Gojoseon and Early Goguryeo Based on the Ironware of Wanfabozi in the TongHua Region 101

Kang Hyunsook ▮ Discussion on the Emergence of Goguryeo Stone Mound Tombs through Review the Tombs Were Excavated Wanfabozi Site of Tonghua, Jilin China 149

Lee Jongsu ▮ A Review of the Fili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Burial Grave of Tongwha Wanfabozi Ruins 191

Articles

Park Jangho ▮ Buyeo and Han Dynasty Relics and Influence in the Midwest Region 231

Kim Bongjun ▮ The Bibliography of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Korean Related Documentation 267

Paek Sijin ▮ Abe and Post-Truth Politics: Den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Responsibility 307

Kim Seonho ▮ North Korea's Perception of Border and Security Activities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and China, 1945~1947: Focusing on the Border Guards 353

Kim Yuryee ▮ 'Rece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aiwanese History Textbooks': A Comparative Analysis of Taiwan's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According to the History Course in 2011 & 2018 389

Yeoung shin Shim ▮ Choice and Adaptation: The Identity of Sino-Sogdians in the Late Sixth Century Seen Through Sino-Sogdian Funerary Art 439

Park Minsu ▮ Americ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Qing History: A Critical Analysis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485

Book Review

Noh Choongkook ▮ Reorganization of the Family Surname System in East Asian Countries and《Shinsen Shōjiroku》of Ancient Japan 5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강인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묘제의 구성과 변천
III. 무덤으로 본 만발발자 사회의 특성
IV. 동북아시아 고대 사회의 변동과 만발발자 사회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요령 통화 만발발자는 최근에 보고된 비파형동검에서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지는 전환기 시점에 통화 일대의 문화적 변천 및 사회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기대를 받고 있다. 만발발자는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고 그 상황들이 약보고서로 조금씩 보도되었다.[1]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물론 북한이나 한국학계에서 이 유적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만발발자는 청동기시대(=고조선시기)에서 고구려에 이르는 문화들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고 그 묘제가 토광묘에서 고구려식 적석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고구려 적석총의 등장과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요동지역의 적석총과 고구려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된 이래 많은 학자들은 그 가능성에 주목했다. 즉, 강상-누상-와룡천 등으로 이어지는 요동반도 끝의 적석묘는 동북아시아 전체로 놓고 볼 때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고구려의 적석묘와 가장 가까우며 외형상 그 묘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가설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문제제기이다.[2] 다만,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었던 차에 만발발자의 발굴성과가 알려졌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지만[3] 그 전모

---

* 투고: 2021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昊華·志新, 1988, 「通化萬發撥子遺址復查報告」, 『博物館研究』 3; 王綿厚, 2001, 「通化市萬發撥子遺址的考古與民族學考察」, 『北方文物』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 「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 『考古』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田野考古集粹』, 文物出版社.

2 박경철, 1997, 「B.C. 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 『한국사연구』 98호; 박경철, 2010, 「압록강 중·상류유역 적석총축조집단의 존재양태」, 『선사와 고대』 32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저간의 관심은 최근에 발표된 만발발자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서[4]를 리뷰한 최근 한국 학계의 연구[5]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간행된 정식보고서는 발굴이 된 이후 한참 뒤에 다른 고고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며 자료가 가지는 한계 또한 노출되었다.[6] 그럼에도 이 유적이 가지는 상징성은 결코 적지 않다. 만발발자 유적은 고구려의 초기 발흥지에서 멀지 않은 통화지역에 신석기시대에서 고구려시기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서 문화가 퇴적되었다. 초기 고구려의 중심지역에서는 벗어난 곳에 위치하며, 발굴된 무덤이 반영하는 사회적인 집중도가 그리 크지 않다. 즉, 만발발자의 의의는 거시적인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의 문화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전환기에 만발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응방식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만발발자 유적은 길림 통화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년간(1997~1999) 체계적으로 조사된 다층위 유적이다. 단편적인 약보고 이후 최종적으로 발간된 정식보고서에서는 만발발자의 전체 층위를 모두 6개로 나누었는데, 그 시기는 각각 1기(신석기시대 말기)-2기(상주시기)-3기(춘추전국)-4기(서한시대)-5기(위진시기)-6기(명대) 등에 해당된다. 이에 필자는 만발발자 유적에서 고구려에서 초기 고구려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보고서 편년기준 3기 후반~4기[7]에 해당하는

---

3 王綿厚, 2001, 앞의 글; 오강원, 2004, 「만발발자를 통해 본 통화지역 선원사문화의 전개와 초기 고구려 문화의 형성과정」, 『북방사논총』 1집; 김성철, 2009,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호, 사회과학출판사.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5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보고-통화 만발발자유지 고고발굴보고」, 『야외고고학』 37호, 한국문화유산협회; 하문식,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東洋學』 81.

6 만발발자의 유물과 도면들은 발굴 이후 장기간 길림성 고고연구소에 보관되었으며, 최종 보고서는 佘靜(현 東北師範大)의 주도로 완성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원전 4~1세기에 축조된 다양한 무덤과 출토유물의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 시기는 후기 고조선에서 초기 고구려의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통화지역의 주민집단이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변화라는 흐름에서 어떻게 원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초기 고구려 집단에 편입되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고구려 기원에 대한 통설 대신에 기원전 4세기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문화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과 만발발자라는 지역사회의 변천을 비교 검토하여 후기 고조선에서 초기 고구려로 전환되는 시점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인 변화에 주목해보겠다.

Ⅱ. 묘제의 구성과 변천

1. 주요 묘제

기원전 4~1세기 단계에서는 이미 약보고로 소개되었던 초세장형 집단 토광묘(16.7×2.3m)인 21호를 비롯하여 석관묘와 적석총 계열이 다수 발굴되었다. 다양한 묘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공반유물과 장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3기는 주거유적 중심의 3기 전반기와 무덤 위주의 3기 후반기로 세분된다. 하지만 3기의 전반과 후반은 유적의 성격이 주거지에서 무덤으로 바뀌며 그 연대도 기원전 8~5세기와 기원전 4~3세기대로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3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것은 고고학적 편년체계로 본다면 매우 부자연스럽다. 아마 이렇게 이질적인 시기를 3기의 전반과 후반으로 배치시킨 것은 중국 왕조체계에 익숙한 보고자들이 '춘추~전국시대'를 염두에 둔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고고학 상황을 본다면 3기 말과 4기를 묶어서 하나의 문화 문화단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보고자의 단계명칭을 따라서 서술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토광묘

토광묘는 모두 21기가 발견되었는데, 무덤의 방식은 모두 동일하다. 장방형의 묘광을 파서 시신을 안치했으며, 별다른 목곽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깊이는 단인장의 경우 30cm 내외로 매우 얕은 편이며, 다인장은 70~80cm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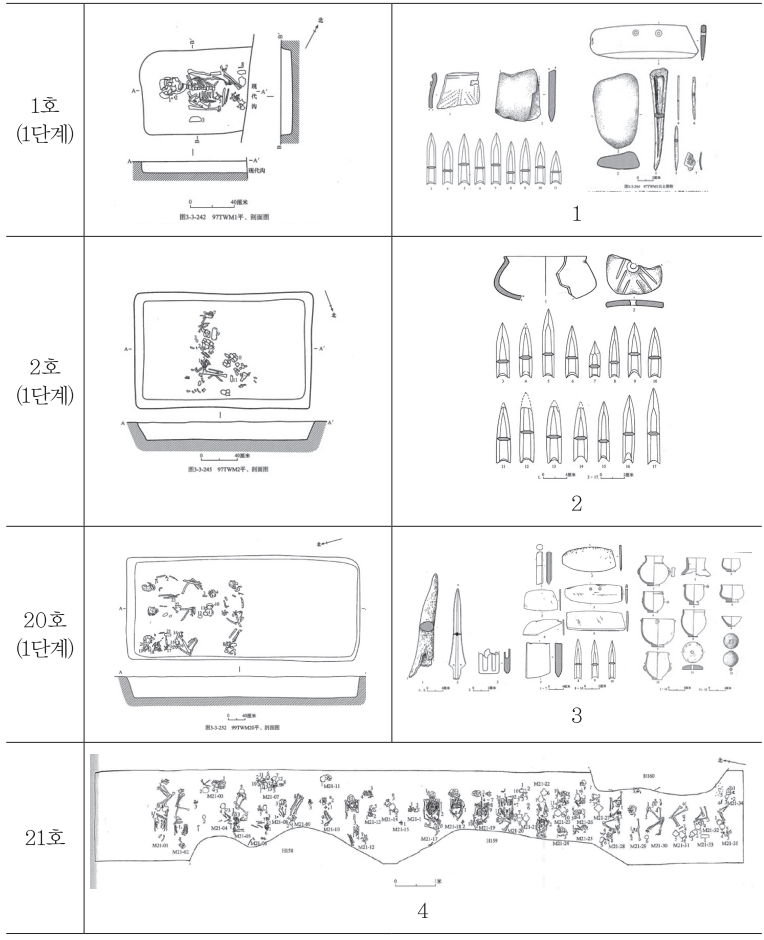


그림 1 토광묘 계열(1– 단인장 1호, 2–2인장 2호묘, 3– 4인장 20호묘, 4–21호 집단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봉분은 없다. 장법은 단인, 2인장, 다인장 등이 있으며, 시신의 안치방법은 2차장, 신전장, 굴신장 등 매우 다양하다. 18호묘와 같이 하나의 무덤에서 측신과 앙신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무덤 간에 중복이 없으며 다인장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각 무덤의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각 무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단인장인 1호(그림 1-1)[8]는 단인신전앙와장으로 묘광의 깊이는 25cm, 폭은 60cm 정도이다. 무덤의 오른쪽에 자라껍질, 토기편, 골침, 석부 등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신전장으로 99TW54호묘는 만발발자의 특징 중 하나인 머리가 제거된 채 신전장을 한 무두신전장이다. 그 크기는 206×76cm에 깊이는 45cm이다. 남성이며 토기 3건, 어망추 7기, 석기 2개와 함께 청동단추 1기, 청동모 1기가 발견되었다.

(2) 2인장인 2호(그림 1-2)는 면적 200×130cm의 크기에 깊이는 30~35cm로 매우 얕다. 토기 1기, 어망추 1기, 석촉 15점과 타제석기, 갈돌봉 어망추 등이 있다. 또 다른 2인장으로 4호묘는 시신을 굴신해서 매장했다. 크기는 180×120cm이며 깊이는 85cm이다. 35세가량의 여성과 아이의 인골이 발견되어서 모자합장묘로 추정된다. 주요 유물로는 토기 2기, 석기 6건(석도, 석부), 돼지견갑골 등이 있다. 단인장과 마찬가지로 무두신전장도 확인된다. 18호묘의 경우 180×90×105cm의 규모로 모두 두개골이 없으며 4지골만이 발견되었다. 토기 4건에 석기 16건이 발견되었다.

(3) 집단토광묘로는 20호와 21호(그림 1-3, 4)가 있다. 먼저 20호는 4인을

8 이 무덤의 일련 번호에는 1999년도에 통화 만발발자에서 발굴했다는 뜻의 약호인 97TW가 병기되었지만, 편의상 이를 생략한다. 그 외에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모든 무덤의 번호는 모두 보고서에 따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매장했으며, 그와 인접하여 가장 대형무덤인 20호묘가 있다. 그 크기는 560×245cm에 깊이가 70cm이다. 유물로는 토기 12건, 석기 10건, 골제 도병1기, 서황산둔식의 청동검 1점 등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집단 토광묘인 M21호는 무덤 상반부 기준으로 16.7×2.5m이고 긴 토광을 팠으며, 모두 35구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각각 신전장 또는 굴신장으로 개별적으로 안치되었으며, 일체의 장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묘광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매장되었으며, 각 시신 간의 부장품 분포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어서 모두 25점으로 토기 12점, 석착 1점, 석도 5점, 석부 1점, 화살촉 3점, 청동기 2점 등이다. 다만 19호와 20호의 여성 인골에서 녹송석 장식 1점, 옥관 2점, 마노 1점 등이 발견되었고, 동검을 1점 부장한 예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덤은 남자는 석도, 여자는 방추차 등 성별에 따라 평소에 쓰는 생활도구와 토기 1점 내외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연령 역시 1년 미만의 유아부터 60세의 노년까지 다양한 이 무덤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무덤이 아니라 단기간에 일반인들을 차례로 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석관묘

석관묘는 모두 12기가 확인되었다. 단인장이 주류를 이루며 2인장은 1기(추정)뿐이다.

40호묘의 경우 282×154cm이며 깊이 40cm이다. 1인의 신전장이며 유물은 돌구슬 1개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석관묘는 토기 1점, 석기 1~2점으로 유물이 매우 빈약하다. 비교적 부장품이 풍부한 무덤인 56호묘(그림 2-1)는 236×114cm에 깊이는 76cm이며, 청동팔찌 6기, 청동환 2기, 유리제 이전(耳塡) 2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석관묘 중에 아동묘로는 크기가 84×54cm에 불과한 60호가 있으며 옥구슬 1점만 출토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석곽석관묘

석곽석관묘로는 36호묘(그림 2-2)가 있는데, 비슷한 예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형태이다. 다른 석관묘와 달리 석곽이 따로 설치되었는데, 그 규모는 304×232×74cm로 매우 넓은 편이다. 시신은 층층이 모두 3층에 걸쳐서 2인씩 6명을 묻었다. 최하층은 앙와신전장으로 2인을 묻었으며 그 위의 2층은 모두 화장을 했다. 출토 유물로는 토기 다수, 호 3점, 관 4점, 석착 1점, 동전 1점, 돌장식 1점, 구슬 2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묘제의 변화는 결국 석관묘라고 하는 장법에서 기인한다. 12기 중에서 화장의 흔적은 4기에서 발견되었다. 만발발자의 무덤에서는 먼저 인골을 묻고 한데 모아서 다인장으로 바꾸는 풍습이 유지되면서 석곽에서는 화장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4) 대석개묘

모두 4기가 조사되었다. 그중 2기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도 토기 1기, 석기 1~2점으로 빈약한 편이다. 34호묘(그림 2-3)는 2인이 신전장으로 안치되었다. 개석은 325×180cm에 두께는 35~40cm이다. 묘광은 200×80cm에 깊이 20cm이다. 남자의 두개골 위편에 10세 내외의 유아 두개골도 함께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토기 2건, 석촉 3건, 타제석부(괭이) 2건이 발견되었다. 35호는 개석은 225×195cm에 두께는 35~40cm이다. 주변에 적석이나 별다른 매장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골은 화장한 흔적이 있다. 유물은 토기 1건, 석촉 3기, 방추차 1건 등이 있다.

한편, 대석개묘 중에서 규모도 크며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41호(그림 2-4)는 묘광의 크기가 300×130×40cm이며 위에는 개석이 덮여 있다. 출토 유물로는 방추차 2점, 청동기 1점과 함께 만발발자에서 출토된 유일한 철기인 주조철부 1점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만발발자의 무덤은 매우 다양하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유물은 매우 빈약하며 각 묘제 간의 유물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토기는 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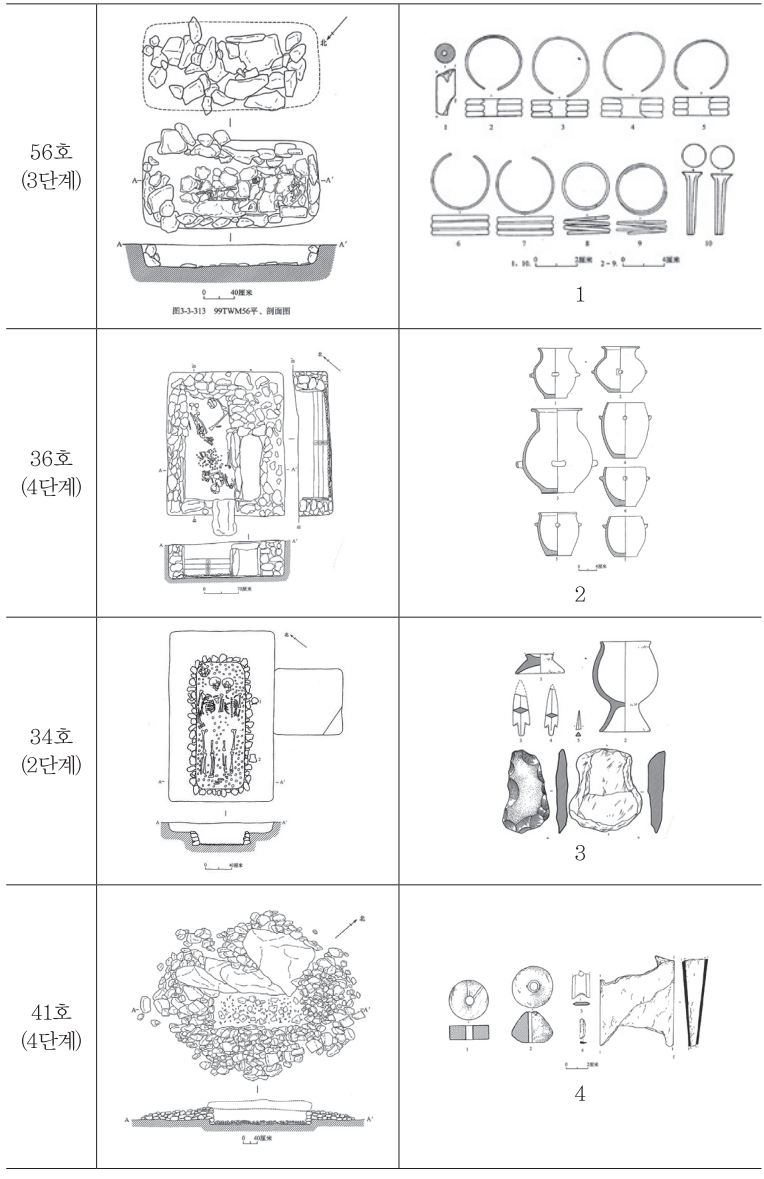


그림 2 석관묘(1), 석관석곽묘(2) 및 대석개묘(3,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완, 발형 등으로 나뉘는데, 4인이 묻힌 20호를 제외하면 평균 1인당 1~2개 정도이며 토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석기는 실제 노동도구가 그대로 묻히는 경향이 있다. 타제석기류(석핵)와 괭이류, 석촉, 석착, 석부 등이 있다. 다만 전체 석기 구성에서 특히 석도와 갈돌류가 매우 많다. 석도의 경우 수확구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농사와 관련된 증거는 거의 없다. 대신에 사냥(석촉)과 관련된 유물이 많다는 점과 연결시켜본다면 석도는 가죽을 가공하는 데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후 모피 가공과 관련해서 살펴보겠다. 그 밖에 어망추(어로)와 방추차(직조) 관련 유물도 많다.

청동기로는 동검 2점, 동모 1기, 동경 2건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단추, 팔찌 등 장신구류가 발견되었다. 장신구 관련으로는 옥구슬, 토제 및 유리제 이전, 돼지송곳니 장식 등이 있는데, 대부분 1~2점으로 그 수량이 적다.

2. 무덤의 분기와 편년

만발발자의 보고서(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9]도 자인하고 있는 바, 결실된 유물도 있고 보고서의 기술과 도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그 영향으로 보고자는 대부분의 문화층 분류와 유물에 대한 형식분류나 편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 각 시기를 표시한 무덤 일람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무덤 간의 중복관계가 없으며 유물상도 빈약하기 때문에 무덤 간의 서열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편년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보고자가 제시한 거의 유일하게 제시한 편년적 근거는 Ⅵ구역의 무덤들에서 확인된 층위적 관계이다. 보고자에 따르면 Ⅵ구역에서 비교적 문화층의 퇴적이 두껍게 되었으며 층위를 달리하여 토광묘들이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집단 토광묘인 20호와 21호가 층위를 달리하여 이른 시

9 이 글에서 만발발자에 대한 정보와 유구 분석은 따로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으며, 2019년에 출판된 정식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인 5층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토광묘들은 그보다 늦은 4층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이를 근거로 각 무덤에서 발견된 공반 토기도 이 분류에 근거하여 유물을 A와 B조로 세분했으며, 나머지 유물들도 비슷한 편년체계를 적용했다. 다만, A와 B조 사이에 뚜렷하게 연대를 세분할 정도로 시기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물 자체의 형식적 변천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만발발자 유적 자체가 주는 한계로 보고자의 편년을 재분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이 글의 주목적은 무덤의 세부적인 편년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흐름을 보고 주민들의 생계경제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고자가 제시한 무덤의 분류와 분기를 기본으로 그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보고자의 편년체계를 따르면 기원전 4~1세기는 크게 6시기로 세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전국 말기의 전반), 2기(기원전 3세기 후반, 전국 말기의 후반), 3기(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전국~서한 초), 4기(기원전 2세기 중후반, 서한 초 중기), 5단계(기원전 1세기~서기 1세기, 서한 말 동한 초), 6단계(3~5세기, 위진시기) 등으로 나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9, 표 2). 이에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흐름은 보고자의 큰 흐름을 따르되 세부적인 단계별 문화상은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구성해보겠다.

1) 1단계: 집단토광묘와 토광묘

Ⅵ구역에서 A조에 해당하는 집단토광묘인 21호와 4인장인 20호, 그리고 다른 무덤과 위치를 달리하여 서편 유적인 Ⅱ구역에 위치한 1~4호를 포함한다. 토기의 경우 돌기가 붙은 관과 호 위주로 단기간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 2단계와의 유물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 2단계(기원전 4~3세기)

수혈토광묘(15기), 석관묘(3기), 대석개묘(4기) 등이 있다. 수혈토광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물의 양도 많다. 토광묘는 Ⅵ구역에서 B조가 해당한다. 이 외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관묘(6기)와 대석개묘(4기)도 함께 포함되어서 본격적으로 묘제의 다양성이 시작된다. 39,43호묘의 경우와 같이 유물이 아예 없는 경우나 그 유물의 수가 매우 적어서 실제로 토광묘 집단과 같은 2단계인지를 분명히 획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석촉, 타제괭이, 돼지송곳니 장식과 같은 명백한 이른 시기의 특징이 보이는 유적(대석개묘 34, 35호, 석관묘 42호)도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즉, 2단계)부터 석관묘와 대석개묘가 토광묘 집단과 그 위치를 달리하여 존재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3) 3단계(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전반)

이 시기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보고자는 이 시기부터 수혈토광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토광묘를 대신하는 석관묘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무덤의 축조지역도 다르다. 따라서 Ⅱ구역과 Ⅵ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축조된 토광묘도 이 시기 계속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2단계의 무덤으로는 석관묘 3기(53, 55, 56호)가 있는데 묘제는 아직 3단계 이후에 등장하는 화장의 풍습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에 토광묘에서 주로 보이는 장법인 다인 직지장을 사용했으며 유물은 소량이지만 대부분 장신구(옥구슬, 은귀걸이, 팔찌) 등이다. 묘제와 장신구 위주의 유물상으로 변화하지만 무덤의 형태와 장법은 이전 1단계를 유지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4) 4~5단계(기원전 2세기 중후반)

수혈토광묘는 사라지고 석관묘와 석곽묘 4기, 대석개묘 2기가 등장한다. 이 시기부터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화장이 등장한다. 석관묘는 다인장을 위한 석곽묘(46호)로 대형화가 되고 대석개묘의 경우 화장을 하고 팔찌, 청동기 등 유물도 함께 부장된다. 이종수(2020)은 이 석곽묘 46호를 길림 관마산 유적과 유사성을 강조하여 대석개묘의 일부로 보았다. 실제로 위에서 본 석관묘들과는 화장이 일반화되어서 1단계의 천장풍습을 발전시켜서 화장으로 다인장을 처리했다. 화장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36호의 경우 먼저 매장을 한 후 다시 화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누층적으로 시신을 쌓는 다인장을 했다. 41호의 경우 화장하여 인골을 한쪽으로 치운 흔적이 있다.

4, 5단계는 각각 무기단식 적석총(37호)과 기단식적석총(29호)묘가 발견되어 본격적인 고구려의 묘제로 진입한 이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Ⅲ. 무덤으로 본 만발발자 사회의 특성

1. 시기별 무덤의 축조 상황

만발발자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덤 간의 중복 없이 다양한 묘제가 수백 년간 지속되어왔다는 데에 있다. 이 전환기의 시점에 만발발자의 무덤 구역은 점진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묘제의 양식도 토광묘에서 석관묘와 대석개묘로 바뀐다. 만발발자에서 다양한 묘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입지를 달리하며 변천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구역 및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토광묘는 일부 서부 산등성이에도 축조가 되었지만 대부분 동쪽 산의 서편에 밀집되어서 분포한다. 원보고서에 각 구역을 표시한 평면도가 없기 때문에 서술된 기록을 근거로 볼 때 대체로 서편의 Ⅱ구역과 Ⅵ구역에서 먼저 축조되었다가 점차 그 입지조건이 바뀌어 석관묘와 대석개묘 단계가 되면서 주변을 조망하는 입지조건인 동편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축조됨을 알 수 있다.

Ⅱ구는 가장 이른 단계로 1단계에 해당하는 무덤 4기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무덤은 입지를 동편의 Ⅵ구역으로 옮겼는데, 먼저 20, 21호의 집단 토광묘를 만들고 이후 토광묘와 석관묘를 같이 축조했다.

Ⅴ, Ⅷ구역에서는 석관묘와 대석개묘를 축조했다. 다만 대석개묘가 다른 석관묘와 다른 차별적인 지위의 성격은 떨어진다. 예컨대 40호는 유물이 없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무덤구역의 발굴구역 및 단계(서쪽에서 동쪽 정상 방향에 따라 서술)

구역	위치	무덤호수	양식	단계
Ⅱ구역	서부 산등성이	1, 2, 3, 4(1단계)	토광묘	1단계
Ⅵ구역	동부 산의 서편	20, 21(1단계)	집단토광묘	1단계
		17, 18, 19, 22, 23, 25, 26, 27, 28, 31, 32, 49, 50, 52, 54(2단계)	토광묘	2단계
		51, 53, 55 (3단계)	석관묘	3단계
Ⅴ구역	동부	42, 47, 48(2단계) 55, 56(3단계) 44, 45, 46(4단계),	석관묘	2, 3, 4단계
		36(4단계)	석관석곽묘	
		41(4단계)	대석개적석묘	
Ⅶ구역	동부 산 정상	34, 35(2단계)	대석개묘	2단계
		37(5단계)	무기단적석총	5단계
Ⅷ구역	동부 산 정상	40(3단계), 44(4단계)	석관묘	2, 3, 4단계
		39, 43(2단계) 38(4단계)	대석개묘	

44호에 옥구슬 1개만 부장되었다. 또 다른 대석개묘 38, 39, 43호는 모두 유물이 없다. 반면에 석관석곽묘인 36호는 3층에 걸쳐서 6구의 인골을 안치하고 유물도 토기, 석착, 동전, 구슬 등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Ⅴ, Ⅶ구역의 유적 분포와 유물 상황을 종합하면 토광묘를 축조하던 집단이 2단계 시기에 석관묘와 대석개묘 축조집단으로 변화하면서 무덤구역에서도 변화가 생긴 부분을 잘 반영한다.

Ⅶ구역에서는 대석개묘(2단계)와 무기단식 적석묘(5단계)가 함께 축조되었다. 이 지역은 유적의 동쪽 산 정상에 위치한다. 34호와 35호묘는 차별적인 입지에 세워진 대석개묘이며 유물의 수도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영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구역에서 그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구역별·무덤별 축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축조방향
Ⅱ구역						서쪽에서 동쪽 산등성이로
Ⅵ구역						
Ⅴ구역						
Ⅷ구역						
Ⅶ구역						

: 토광묘, : 석관묘, : 석관석곽묘, : 대석개묘, : 무기단적석총

한참 시기가 떨어지는 5단계의 초기 고구려식 무기단식 적석총이 축조되었다. 즉, 토광묘 축조가 끝나고 석관묘와 대석개묘가 축조되는 시점부터 Ⅷ구역은 만발발자 사회의 최고위층을 위한 무덤구역으로 마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묘제의 축조를 세분해보면 '토광묘 → 집단토광묘 → 대석개묘/석관묘 → 초기 고구려 적석총'이라는 4시기를 거친다. 이러한 변천에서 주목할 부분은 집단토광묘 출현 이후 등장한 석관묘는 얇은 석판을 넣는 것이 아니라 토광묘의 벽을 보강하는 성격에 가까운 석곽묘 또는 위석묘에 가깝다는 점이다. 즉, 석관묘는 새로운 묘제의 유입이 아니라 대석개묘 집단의 유입에 따라 묘제에 변화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3단계에 등장한 대석개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이 대석개묘의 등장과 함께 사회분화가 심화되어서 독자적인 구역(동부 산의 정상, Ⅶ, Ⅷ구역)에서 별도로 무덤을 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는 초기 고구려의 적석총(37호묘)으로 이어졌다. 즉, 고조선 후기의 토광묘는 곧바로 초기 고구려로 이어지지 않고 대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묘 계통의 문화를 거쳐서 이어진다.

2. 장법의 검토

시신의 안치방법은 앙신장, 굴신장, 무두신전장, 이차장 등이다. 심지어 두향도 일정하지 않다(표 5 참조). 그럼에도 각 묘제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며 서로 중복 없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묘역 조성의 특징은 만발발자의 사람들이 다양한 묘제의 여러 계통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무덤을 공유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발발자 유적에서 두드러지는 매장풍습의 특징인 ① 집단토광묘, ② 머리 부분을 제거한 무덤인 무두장(無頭葬), ③ 잦은 천장, ④ 화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첫 번째로 집단토광묘의 성격을 살펴보면, M21호는 무덤 상반부 기준으로 16.7×2.5m로 긴 토광에 일렬로 35구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집단 매장과 달리 이 무덤은 전쟁과 같은 이유로 살해된 흔적이 없이 하나의 친족집단이 일시에 매장된 양상이다.

이 무덤은 거의 일자로 가지런하게 발굴을 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순차적·개별적으로 묻혀 있다. 만약 이들을 오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묻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묻은 봉토를 다시 파는 과정에서 먼저 묻은 인골이 약간 파손되거나 위치가 이동되는 것은 당연하며, 덮은 흙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봉토 및 묘광 바닥 레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묘광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인골들은 한번에 묻힌 것이다. 또한 묻힌 인골들도 다른 곳에 가매장한 것을 옮긴 2차장의 흔적도 없다. 즉, 한번 묻은 후에 추가적으로 이 무덤을 관리하거나 매장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유구의 중첩 또한 주목된다. 토광묘에서 이후 유구의 중복 상황은 이 21호가 유일하다. H158, H159, H160 등 3개의 회갱이 21호를 파괴했는데, 이 회갱의 퇴적토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거하여 보고자는 21호와 같은 시기인 3기 후반(필자 분류의 1단계에 해당)으로 보았다. 즉, 21호 집단묘가 축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 구역의 무덤이 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의 무덤구역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Ⅱ구역에 토광묘를 만들던 집단이 전염병과 같은 요인으로 한 집단이 단기간에 죽고, 토광묘라는 묘제의 특성을 유지한 채 일시에 한 씨족과 같은 만발발자의 친족집단이 단기간에 죽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인은 제시된 증거로 볼 때 강력한 무력 사용의 흔적이 없으며 적대세력의 훼손과 같은 행위나 후손의 무덤관리가 없다. 이 상황은 전염병과 같은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설치류 동물과 접촉하고 그들의 모피를 가공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페스트 관련 질병은 시대를 관통하여 자주 등장했다. 필자는 최근에[10] 통료 망하 하민 유적에서 발굴된 주거지에 매장된 집단 매장의 흔적이 페스트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한 예는 1910~1911년에 만주리의 모피가공 집단에서 시작하여 동정철도를 따라 사방으로 확산된 만주페스트가 창궐하여서 공식적으로 6만여 명이 사망한 바도 있다.[11] 후술하겠지만, 만발발자 집단은 모피의 취합과 가공을 주요 생계경제로 삼았던 집단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집단토광묘의 등장은 전염병과 같은 친족의 몰살 등 인구 급감의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묘제인 토광묘를 일시에 넓게 만드는 식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대석개묘와 석관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촉발하고 새로운 무덤 구역의 설정과 연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만발발자에는 무두장이 많이 보인다. 상나라 무덤의 순장을 연상하며 전쟁의 흔적으로 상정할 가능성[12]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만발발자의 경우는 무기의 비율이 빈약하여 기타 유물에서도 전쟁의 증거는 거의 없기 때문

10 강인욱, 2021, 「전염병을 이겨낸 신석기시대의 사람」, 『테라 인코그니타』, 창비.

11 Shen, Y., 2019, "Pneumonic Plague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International Fur Trade: The Retreat of Tarbagan Marmots from Northwest Manchuria, 1900s-30s",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4(3), pp. 291~322.

12 하문식, 2020,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당시 사회에서의 갈등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한 폭력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무두장의 경우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장례풍습의 하나로 보인다. 예컨대 터키의 차탈 휘익에서는 샤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성인 여성을 일단 매장을 하고 육탈이 되면 다시 발굴하여 두개골만 집으로 가져간 흔적이 있다.[13] 친족들의 공동묘에서 머리를 제거한 고분들은 시베리아 일대에서 신석기시대 이래로 널리 보이는 풍습이다(그림 3-4). 반면에 명백한 전쟁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나라 무덤의 경우 사지가 묶인 채 무질서하게 순장갱에 던져진 모습으로(그림 3-3) 그 차이가 뚜렷하다. 단순하게 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증거로 판단할 수 없으며 매장 상황과 부장유물의 비교 등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만발발자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장의 흔적과 함께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시신을 2차적으로 처리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의 묘인 49호묘(그림 3)의 경우를 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을 보면 그 매장습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무덤의 경우 목이 없음에도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손가락 뼈가 제대로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옥도 오른쪽 가슴편에 제대로 붙어 있다. 또한 묘광의 크기를 보면 실제 머리 부분의 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에는 온전히 시신을 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을 보면 시신의 좌측 갈비뼈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고 등뼈가 뒤틀려 있다. 이는 이미 묻혀 있는 시신 위에 압력을 가하여 머리 부분을 제거한 과정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각 무덤은 서로 다양한 가족(또는 씨족)단위로 무덤을 축조하고 관리했으며, 상당히 평등한 상태에서 전쟁 대신에 다양한 생계경제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천장(=이장)이라는 풍습이다. 천장은 먼저 인골을 묻어서 육탈된 후에 그 인골들을 한쪽으로 치우거나 다른 무덤 등으로 옮긴 2차장의 한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인골이 남고 유물들은 한쪽으로 밀어서 옮겨놓기도 한다. 예컨대, 22호묘의 경우 195×75cm에 깊이가 90cm에 이르러서 1인용으로는

13 하랄트 하르만 저, 강인욱 해제, 2021, 『문명은 왜 사라지는가』, 돌베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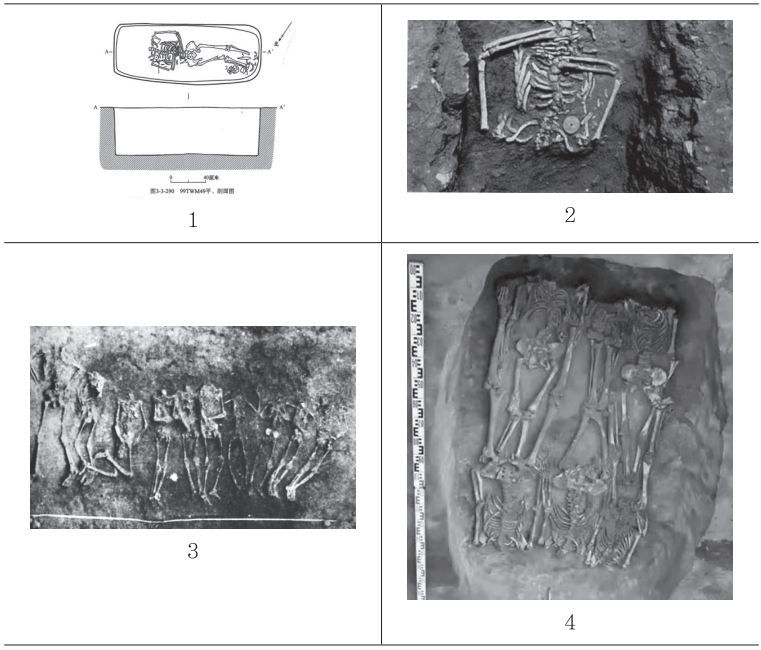


그림 3 무두장인 49호묘(1, 2)과 은허 후가장100호대묘(侯家庄1001號大墓)의 절두 순장묘(3) 기원전 20세기경 서부시베리아 오딘초보문화의 머리가 잘린 채 매장된 친족의 집단매장묘(4)

큰 편이다. 하지만 손가락 뼈 몇 점만 발견되었고, 공반유물인 토기 2점과 석기 4점은 무덤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발견되었다. 아마 추가로 무덤에 매장을 준비하여 정리해놓고 다시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 주목할 부분은 천장은 토광묘에서 이루어지며, 화장은 석관묘와 대석개묘와 같은 석묘에서만 주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즉, 천장은 토광묘로 대표되는 기존의 집단을 대표하며 화장은 대석개묘로 대표되는 이후 문화의 유입과 관련되어 있다. 두 계통의 다른 집단이 매장습속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무덤의 부장품

만발발자에서는 다양한 묘제가 공존하지만, 상대적으로 각 장법 간의 유물 차이는 거의 없다. 묘제 이외에 집단 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토기의 경우 만발발자에서는 묘제를 불문하고 대체로 이중구연 심발형토기관과 호(壺)의 조합으로 매장되었다. 또한 남녀 성별 사이의 유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각 무덤의 유물은 빈약한 편이며 계층화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청동무기를 부장한 무덤들은 예외적인 예로 볼 수도 있다. 수혈토광묘인 54호 무덤에는 청동모 1기와 토기 3건을 부장했으며, 4인을 매장한 20호묘에는 토기와 함께 청동검 1기 등이 있다. 석관묘에서 56호묘(236×114×76cm)의 깊이는 76cm이며 청동팔찌 6기, 청동환 2기, 유리제 이전 2기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유리와 청동기와 같은 유물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계급 또는 부의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차이가 뚜렷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특별한 유물들이 부장된 무덤들은 무덤의 길이가 약 2m 내외이며 깊이 76cm로 다소 큰 편이다. 하지만 다인장의 경우가 많으며 묘제의 입지조건이나 축조 위치에서 다른 무덤들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동기 1~2점만으로 사회복합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분의 차이를 상징하는 유물보다는 실제 생업경제에 종사하던 도구가 주요한 부장유물로 선택되었음이 만발발자의 사회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더 유효하다. 이 시기는 청동기는 물론 철기가 널리 사용된 시기임에도 각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무기나 장신구는 많지 않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노동도구의 부장이 일반적이다. 무덤의 출토유물을 보면 석핵과 긁개류의 타제석기가 여전히 사용되며 농사와 관련된 도구는 거의 없고 다양한 어망추(어로), 사냥(석촉), 석핵(가죽의 가공) 등이 발견된다. 이것을 빈약한 무기의 부장과 연결시켜볼 때 당시 만발발자의 주민들은 전쟁과 같은 집단 간의 갈등보다는 사냥, 어로, 가죽가공, 농사 등 다양한 생계경제에 종사를 하던 사람들이 공존하였음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시 사회의 복합도의 변화는 2단계 이후가 되면서 무기 대신 은제, 유리제, 옥구슬 등의 장신구류가 증가하는 양상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3, 4단계가 묘제의 규격화, 대규모화, 화장(=번소) 풍습이 널리 적용되는 등 장제의 통합 등이 이루어지면서 부장품에도 변화가 보인다. 노동도구 대신에 유리로 만든 이전, 청동팔찌, 단검과 같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물의 부장 예가 많아진다.

이상과 같은 만발발자 유적의 부장품은 후기 고조선 시기(1단계)에는 사회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은 토광묘 집단 위주로 전쟁 및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생계경제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이후 고구려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월한 입지조건의 무덤이 등장하며, 새로운 체계로의 통합이 진행되고 동시에 개인 장신구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의 부장이 강화되는 식으로 변화한다.

Ⅳ. 동북아시아 고대 사회의 변동과 만발발자 사회

1. 만발발자 유적의 생계경제와 모피무역

만발발자 후기 고조선의 묘제의 변천은 당시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을 의미하며, 다양한 집단의 발흥과 재편을 의미한다. 즉, 기원전 4~3세기의 문화 변동은 전 유라시아적이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통화 일대의 지역사회에도 미쳤다. 통화지역에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지역적인 변동 상황을 간취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원거리 간의 네트워크가 필수인 모피교역임이 주장된 바 있다.[14] 만발발자에서는 실제로 자세하게 동물뼈의 출토 상황이 보고되어서 그 자세한 내막을 살펴볼 수 있다. 만발발자에서는 모두 41,179점의 동물뼈가 출토되었고 그중 6,088건을 분석했다. 신석기시대 이래로 다양한 동물뼈가 나왔지만, 특히 3기와 4기에 동물뼈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즉, 기원전 4~3세기를 기점으로 만

14 강인욱, 201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발자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동물자원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보고된 만발발자의 동물뼈를 보면 포유류 동물 27종이 확인되었다(표 3). 이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뼈의 분석 결과 만발발자의 사람들은 돼지를 중심으로 가축을 키웠으며, 사슴도 목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혼강과 금창하 유역에서 수렵과 목축 및 모피 사냥 등을 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산과

〈표 3〉 만발발자의 동물뼈 통계(파란색은 모피동물)

종류	표본수	최소개체수	종류	표본수	최소개체수
고슴도치속 *Erinaceus* sp.	1	1	경골어 *Osteicthyes*	13	7
산토끼속 *Lepus* sp.	14	8	말 *Equus caballus*	3	1
개속 Canis familiαris	22	7	돼지 *Sus* scrofα	2,101	85
늑대속 *Carnis lupus*	1	1	집돼지 S. *scrofa* domesticα	1,324	47
너구리속 Nyctereutes sp.	13	7	사향노루 *Moscheles moschiferus*	20	5
붉은 여우 *Vulpes* vulpes	4	2	작은노루 Muntiacus *sp.*	1	1
승냥이속 *Cuon* sp.	2	1	말사슴 (*red deer*)*Cervus elaphlls*	1,204	56
곰속 *Ursidae*	10	4	꽃사슴 Cervus nippon	19	6
담비 *Martes* martes	3	2	노루 *Capreolus capreolus*	1,215	64
족제비 *Mustela sibirica*	17	7	물소 *Bubalus sp.*	1	1
오소리 *Meles meles*	69	33	소 *Bos sp.*	8	3
수달 *Lutra lutra*	2	1	야생닭(적색야계) *Gallus gallus*	4	3
시라소니 *Lynx lynx*	1	1	자라속 Amydα sp.	10	3
호랑이 Panthera tigris	6	5	총계	6,088	3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사냥 및 가축들로는 멧돼지, 집돼지, 노루, 붉은 사슴 등이었다. 이들 동물뼈는 그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더러 특정한 부위(肱骨, 股骨, 肩甲骨, 趾骨, 腕骨)들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서 별도의 고기나 동물의 가공을 1차로 하고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만발발자 유적으로 가져온 증거로 볼 수 있다.

동물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로 다양한 모피동물의 존재이다. 보고된 동물뼈 중에는 호랑이(Panthera tigris), 너구리속(Nyctereutes sp.) 붉은 여우(Vulpes vulpes), 승냥이속(Cuon sp.), 곰속(Ursidae), 담비(Martes martes), 족제비(Mustela sibirica), 오소리(Meles meles), 수달(Lutra lutra), 시라소니(Lynx lynx) 등 매우 다양한 모피동물의 뼈가 발견되었다. 이 모피동물뼈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모피동물은 매우 사납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산다. 또한 모피동물의 경우 대부분 사냥을 하면 현장에서 그 가죽을 벗겨 오기 때문에 모피골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모피동물뼈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 만발발자의 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모피동물의 사냥 또는 가공에 종사했음을 실증한다.

특히, 주목되는 모피 동물뼈는 오소리와 호랑이다. 오소리의 뼈는 33개체분(최소개체수 기준)이 발견되어서 모피류 동물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다. 오소리나 족제비는 개과이기 때문에 가죽 이외에도 고기로도 효용이 있다는 점에서 모피 이외의 식량자원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소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족제비 역시 포악하다. 만발발자 일대의 풍부한 어족 자원 및 사냥동물과 가축들을 감안하면 오소리와 족제비를 주요한 식량원으로 삼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오소리와 족제비 뼈의 출토량이 매우 많은 것은 당시 해당 동물의 모피를 채취하기 위하여 길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보통 모피의 경우 최상의 질을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기다렸다가 도살하기도 한다. 밍크의 경우 최상의 모피가 나오는 시간은 prime time이라고 하여 약 3일이라고 한다.[15] 즉, 당시 만발발자의 주민들은 양질의 모피를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 오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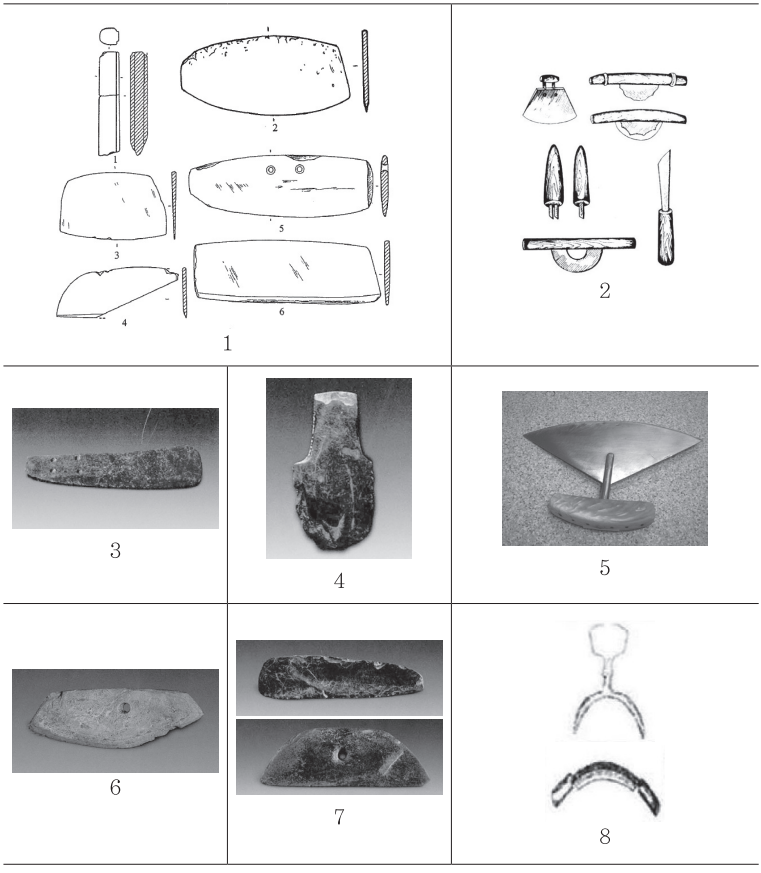


그림 4 만발발자 출토의 석도와 모피가공도구 비교(1–만발발자 20호 출토 석도 각종, 2–시베리아 민족지의 모피가공도구(출처: http://artyx.ru/books/item/f00/s00/z0000039/st014.shtml) 3–5호 구상유구, 4–24호 주거지(이상 1~2단계), 6–47호(2단계), 7–18호(2단계), 8–조선시대의 가죽가공도구(안보연·홍나영, 2008)

15 강인욱, 201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와 족제비를 키우고 가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호랑이의 경우 사냥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만발발자에서는 5개체분(최소개체수)이 발견되었다. 이는 『관자』의 기록 문피를 비롯하여 고대 사회에서 얼룩무늬의 호랑이과 모피를 귀하게 여겼음을 실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이므로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모피동물뼈과 관련되어 만발발자에서 출토된 다양한 석기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덤의 주요한 부장품으로 석기가 상당히 많은데 농사의 증거는 거의 없어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석도가 발견되는 것이 주목된다. 27호 토광묘의 경우 갈돌과 석핵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21호 집단묘 안에서도 전형적인 반월형석도에서 삼각형의 조각칼 모양까지 일정한 형식학적인 정형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석도가 부장되었다. 이 다양한 석도들을 일관되게 남한 고고학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농경도구로 간주할 수는 없다. 또한 다양한 수량의 석도에 비해서 만발발자에서는 일부 갈돌을 제외하면 농사와 관련 있는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음도 주목된다. 실제로 이 지역의 지형 또한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산악지형이라는 점과 기원전 3~2세기 단계에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확대로 이미 철제 농기구가 많이 보급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다양한 석도들은 민족지 증거로 볼 때 모피 가공의 도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반월형으로 날이 한쪽으로만 발달한 칼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에서 가죽을 가공하는 대표적인 칼로 사용된다. 예컨대 알래스카의 이뉴이트인들은 이러한 반달 모양의 칼을 지금도 사용하는데, 그 명칭은 울루(ulu)이다. 이는 가죽뿐 아니라 만능의 칼로 휴대하면서 애용하는 칼이다(그림 4-8). 이와 같이 만발발자의 주요한 생계경제는 모피를 중심으로 하는 사냥 경제였으며, 이는 만발발자 사회가 다양한 묘제가 공존하면서 사회복합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과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들은 통화지역이라고 하는 산악이 발달한 지형에서 농업 대신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생산경제를 이루며 살았던 집단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만발발자의 교역 네트워크

모피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아주 고립되고 험한 한대의 산악지역이지만, 모피의 주요한 소비지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온대의 국가이다.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모피교역은 온대의 문명지역과 한대의 모피산지 사이에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원거리 교역에 근거한다.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모피교역의 모델은 이미 필자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16]

필자의 모델에 근거하여 만발발자 유적을 보면 그 위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된다. 만발발자는 명도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중개지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백두산 일대의 모피 산지에 근접한다. 또한 모피교역의 중개지에 해당하는 위원 용연동이나 환인 추수동과 같이 위신재와 철제 농기구가 없고 모피 가공도구만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만발발자의 무덤 위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만발발자는 모피동물을 사냥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피교역 모델에 따라서 만발발자 사회를 본다면 이들은 원피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모피 가공집단(fur gathering zone)'에 해당하며, 명도전과 철제 농기구가 발견된 위원 용연동과 같은 집단은 '모피 소매상(middleman)'에 가깝다.

한편, 만발발자를 중심으로 신빈에서 통화에 이르는 지역에 기존에 알려진 적백송 고성지[17]와 함께 다양한 거점 요새와 봉수대가 발견되었다.[18] 최근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서 연-진한시대의 거점과 성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바,[19] 고조선과 함께 거점 위주로 확산된 전국~한대의 중원세력의 확장도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연해주 니콜라예프카 출토의 칠원일근 화폐 및 오수전과 반량전

16 강인욱, 2011. 앞의 글.

17 王義學, 2008.「赤柏松古城考古發現及其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學位論文.

18 李樹林·李妍, 2012,「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東北史地』 2, 9~15쪽.

19 遼寧省文物局 編著, 2017,『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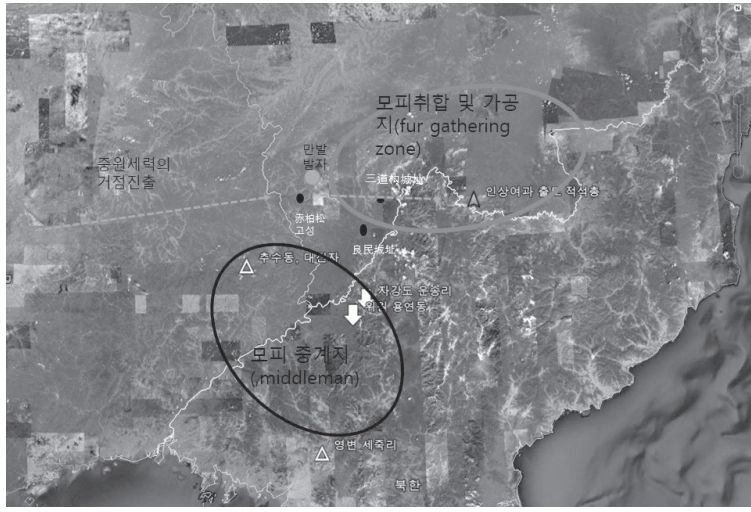


그림 5 기원전 4~1세기 무역 네트워크의 확산과 만발발자

출토 사례 및 장백 팔도구의 인상여과 등 연해주와 두만강 중원계 유물의 유입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즉, 고조선이 모피무역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압록강 중상류에서 장백산맥에 이르는 여러 집단의 사람들은 고조선은 물론 중국의 여러 세력 등과 다양한 경로로 모피교역을 행했다고 생각된다. 만발발자 사회는 서로 다양한 배경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며 모피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 네트워크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이러한 만발발자의 지리적 이점과 산물의 다양성은 후기 고조선 이전부터 교역의 네트워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춘추시기의 층위에서 골제 재갈멈치를 들 수 있다(그림 6). 이 재갈멈치는 보고자 편년에 따르면 춘추시기인 '만발발자 3기 초반'(보고자 편년안)으로 편년되는 I구 6층에서 발견되었는데, 하가점상층문화 대랍간구 651호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기원전 1000년기에 동아시아에서 골제 재갈은 대체로 감숙회랑 일대의 양랑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에 이르는 중국 북방 장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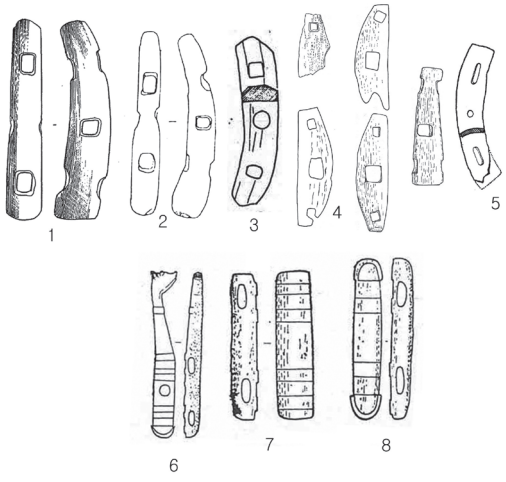


그림 6 만발발자 재갈멈치와 비교 1–만발발자 2–건평 대랍한구651 3, 4–조양 십이대영자 5–심양 정가와자 6, 7, 8–영하 팽현 우가장 NW2

지대에서 요서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널리 발견된다. 만발발자 출토의 유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요동~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말재갈이며, 실제로 만발발자 유적에서 말뼈가 1개체 나오는 등 가장 확실한 기마문화가 확인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재갈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인 일대의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서 기마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다른 지역(아마 요서지역)과의 교역과 운송 과정에서 말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도입된 증거로 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교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유물로 본계 양가에서 출토된 십이대영자 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다뉴경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계 지역은 상보촌 유형으로 대표되는 고위급의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지는 반면에 만발발자에서는 적극적인 복합사회로의 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만발발자는 기원전 1000년기 전반의 비파형동검 단계부터 모피를 생산하고 취합하는 자신들만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만발발자와 동북아시아의 시기별 네트워크 변천도

단계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만발발자	만발발자 편년
Ⅰ기 (고조선 전기, 기원전 8~4세기)	하가점상층문화와의 내륙 네트워크/ 요동반도-산동반도의 해상 네트워크	요서지역과 소규모 교역 네트워크(골제 재갈멈치, 본계 지역의 다뉴경 등) 해상교역 증거는 없음	제3층 전기
Ⅱ기 (고조선 후기,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영역화에 따른 내륙 네트워크 가동 전국~한대 중원세력 진출(적백송 고성 등) 압록강 상류의 고구려 적석총 세력 발흥	토광묘 및 집단토광묘의 등장	제3층 후기 (1~2단계)
Ⅲ기 (초기 고구려 기원전 2~1세기)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 네트워크로 재편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적석총 등장	토광묘 소멸, 대석개묘 발흥, 이후 적석총으로 통합	제4층 (3~4단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3.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만발발자

고구려의 적석묘 기원과 관련하여 별다른 물질문화의 유사성이 없이 요동지역 적석묘 집단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기원을 상정하는 주장들이 있었다. 이 요동기원설은 학자에 따라 구체적인 설의 전개는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한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통적 유사성과 적석묘, 화장풍습 등 보편적으로 널리 보이는 무덤의 특징에 근거할 뿐, 구체적인 유물의 유사성은 전혀 없다. 만발발자의 발굴로 고조선의 쇠퇴와 고구려의 등장 과정을 규명하는 자료로 주목받고,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만발발자에서 고구려 계통의 고인돌은 고조선 후기의 토광묘를 대체하지 않고 그 사이에 대석개묘 계통의 세력이 개입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만발발자 적석총보다 이른 시기인 간구자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팔도구 호로도촌과 같은 기원전 3~2세기대에 적석총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즉, 현재로서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발달한 적석총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접촉하며 초기 고구려 적석총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동지역 기원설의 문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요동지역과 통화 일대의 자연지리적 환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요동반도 끝에서 번성한 적석묘 세력은 매우 배타적이며 독특한 생계경제로 대문구문화 후기 단계부터 세형동검단계인 기원전 3~2세기대까지 존속해왔다. 물론, 그 사이에 산 정상에서 강가 하안대지까지 입지조건은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기본적으로 적석을 하여 집단묘를 만드는 전통은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필자가 아는 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일대에서 이렇게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끊임없이 하나의 묘제를 유지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비파형동검의 석관묘가 요중지역에서 남하했을 때에도 일부 석관묘가 개별적으로 축조되었을 시점(쌍타자 석관묘)에도 강상 및 누상과 같은 적석묘를 주요한 묘제로 유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적석묘의 전통은 비파형동검시기를 거쳐서 한나라 시기 패묘(貝墓)가 쓰이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된 묘제를 유지하는 상황은 요동반도의 대련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산동지역과의 해상교역 및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내륙지역과는 절연되었고 대신에 해상을 통한 다양한 교역을 기반으로 주변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묘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요동기원설을 주장하는 경우 요동반도 지구에서 적석총이 사라지는 시점인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하여 초기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이 등장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든다. 기원전 4세기 말~3세기는 요동반도뿐 아니라 동북지역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화적인 변동이 일어났고, 다양한 묘제가 변화하던 시점이다. 따라서 거리와 환경적인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한 묘제의 유사성만으로 기원을 주장하기는 부족하다. 고구려 적석총의 요동기원설이 증명되려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해상교역권으로 수천 년간 이어오던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이질적인 지리환경으로 이주하여 적석묘를 만들어서 고구려의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두 지역 간의 시간과 공간을 메워주는 유적 또는 유사한 유물들로 보강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동반도 적석총과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유물들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만 본다면 고구려계 적석총으로 가장 연대가 확실한 것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이다. 장백현 팔도구 호로도촌의 파괴된 적석총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조나라 재상 인상여의 꺽창은 적석총의 절대연대와 관련하여 좋은 예가 된다. 호로도촌에서 출토된 이 인상여의 꺽창에는 조(趙) 혜문왕(惠文王) 20년이라는 명문(기원전 279년)이 새겨져 있어서 민지회맹 사건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20] 또한 연해주 니콜라예프카 유적에서 조형검파두 동검과 함께 전국시대 위나라의 원전 '칠원일근(기원전 361~328년 주조)'도 출토되었다. 니콜라예프카 출토의 동전은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칠원일근이다. 칠원일근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한정된 기간에서 주조된 동전이 연해주에서 출토되었음은 전세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압록강 중상류, 나아가서 연해주 일대로 확산되는 중원지역과의 교역 네트워크는 요령성 서부와 길림성 동부 지역 깊숙이 진출하는 중원의 여러 거점 유적들과도 연결된다. 최근까지의 조사를 보면 전국시대 말기에 축조된 중원세력의 거점과 봉수들이 통화지역 일대까지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적어도 기원전 4세기 후반기부터 기원전 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압록강 중상류 지역, 나아가서 우수리강 일대의 토착세력들은 중국과의 교역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위신재를 주고받을 정도로 성장했음은 분명하다. 이미 중국과 모피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내륙 네트워크라는 관점에

20 강인욱. 2018b, 「기원전 4~ 3 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한국상고사학보』, 99, 71~1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5〉 만발발자 무덤 속성 일람표

번호	무덤형식	두향	규격 (무덤 바닥 기준) (cm)	시신	장법	성별	연령 (세)	부장품							시기	기타
								토기	석기	골각기	청동	어망추	방추차	유리/옥/이빨 장식		
1호	장방형수혈	243	90×60×25	앙신굴지	1인장	남	55	1	석촉 9, 석착 1 석기 1, 석도 1	골추 1, 골침 1, 골촉 2, 자라껍질					3세기 (전국 말기~전단)	I
2호	장방형수혈	133	180×110×35	?	2인장	?	?	발 1	석촉 15, 석도 3, 삽 1, 착 1	골추 1		2		멧돼지 어금니 1	3세기 (전국 말기~전단)	I
3호	장방형수혈	180	80×50×70	?	1인 2차장	남	30		석부 1						3세기 (전국 말기~전단)	I
4호	장방형수혈	10	180×100×120	앙신굴지	2인	여 1, 유아 1	35	관 1, 완 1	석도 5, 석부 1	돼지 견갑골 1					3세기 (전국 말기~전단)	I
17호	제형수혈	112	134×40×120	앙신직지	단인	?	6	관 1							전국 말기	II
18호	장방형수혈	112	180×90×105	측신굴지 및 앙신굴지	2인	?	?	완 2, 관 1	도 6, 촉 2, 부 1, 삽 1,			1			전국 말기	II
19호	장방형수혈	112	150×70×108	?	단인	?	?	관 1	도 1, 촉 2						전국 말기	II
20호	장방형수혈	12	530× 230×120	앙신굴지	4인	3남 1녀	30, 30, 35, 50	호 2, 발 2, 관 5, 완 1	착 1, 도 5, 부 1, 촉 3	1	동검 1, 검초 1	2			전국 전기	I
22호	장방형수혈	23	195×75×90	천장묘	?	?	?	관 1, 호 1	촉 4						전국 말기	II
23호	장방형수혈	110	150×50×40	천장묘	?	?	?	관 1	도 2			1			전국 말기	II

25호	장방형수혈	117	144×96×94	천장묘	?	?	?	완 2, 관 2							전국 말기	Ⅱ
26호	장방형수혈	110	174× 88~75	천장묘	?	?	?								전국 말기	Ⅱ
27호	장방형수혈	110	216×96×95	무두단인장				완 1, 관 1	석핵 1, 갈돌 1,		동경 2				전국 말기	Ⅱ
28호	장방형수혈	340	230×90×49	천장	?	?	?	호 1, 관 1, 완,				1	1		전국 말기	Ⅱ
31	장방형수혈	10	156×66×69	천장	?	?	?	완 1, 과 3, 호 1	도 1						전국 말기	Ⅱ
32	장방형수혈	355	180×40×50	천장	?	?	?	관 1							전국 말기	Ⅱ
49	장방형수혈	55	165×65×90	무두단인장	앙신굴지	여	?	관 2	도 1				2	돼지송곳니 1	전국 말기	Ⅱ
50	장방형수혈	50	134×74×105	단인	앙신직지	?	?					1			전국 말기	Ⅱ
52	장방형수혈	30	140×62×65	단인	앙신직지	여	?						1		전국 말기	Ⅱ
54	장방형수혈	65	202×70×95	무두단인	앙신굴지	남	?	관 1, 완 1, 호 1	겸 1, 부 1	추 1	모 1, 단추 1	7			전국 말기	Ⅱ
40	석관묘	64	282×154 234×96×40	단인	앙신직지	남	45							옥구슬 1	전국~한 초	Ⅲ
42	석관묘	45	220×94 186×49×46	단인	앙신굴지	여	?	호 1						돼지어금니 1	전국 말기	Ⅱ
44	석관묘	77	210×80×36 (묘실)	?	화장	?	?								서한조 중기	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호	무덤형식	두향	규격 (무덤 바닥 기준) (cm)	시신	장법	성별	연령 (세)	부장품							시기	기타
								토기	석기	골각기	청동	어망추	방추차	유리/옥/이빨 장식		
45	석관묘	55	224×104 196×86×30	?	화장						단검 1				서한조 중기	Ⅳ
46	석관묘	50	260×122 226×100×30	2인(?)	화장				관 1, 호 1	마연돌 1					서한조 중기	Ⅳ
47	석관묘	47	232×115 226×94×30	단인	앙신	여			관 1	도 1, 겸 1					전국 말기	Ⅱ
48	석관묘	45	249×84 220×60×40	단인	앙신굴지	여					단추 1		2		전국 말기	Ⅱ
51	석관	60	84×54 44×30×26	단인	측신굴지	?	4~5							옥구슬 1	전국~한 초	Ⅲ
53	석관	75	141×58 131×41×35	단인	앙신직지	?	?							옥구슬	전국~한 초	Ⅲ
55	석관	55	152×90 120×54×34	단인	?	?	?		관 1		팔찌 1				전국~한 초	Ⅲ
56	석관	45	236×114 174×76×30	단인	직지	?	?				팔찌 6			은귀걸이 2, 옥구슬 1, 유리제 이전 2	전국~한 초	Ⅲ

36	석곽석관묘	59	304×232×74 240× 160	누층다인 (2×3인)	화장-화장-직지장	1남 1녀 (최하층)		호 3 관 4		착 1	동전 1			돌장식 1, 구슬 2	서한조 중	Ⅳ
34	대석개묘	52	200×80×20	2인장	앙신직지	1남 1녀	?	관 2	촉 3, 괭이 2						전국 말~후	Ⅱ
35	대석개묘	40	270×164×40	화장	?	?	?	호 1	촉 3				1		전국 말~후	Ⅱ
39	대석개묘	0	134×80×38	천장	?	?	?								전국 말~후	Ⅱ
43	대석개묘	77	234×90×30	천장	?	?	?								전국 말~후	Ⅱ
38	대석개적석묘	70	210×80×60	화장	?	?	?	관 1, 호 1							서한조 중기	Ⅳ
41	대석개적석묘	39	300×130×40	천장	?	?	?		촉 1		청동기 1, 철부 1		2		서한조 중기	Ⅳ
37	무단식적석총	90	194×136×45	화장	?	?	?	관 2			청동기 1		1	토제 이전 2, 옥구슬 9	서한 말~동한 초	Ⅴ
29	기단적석	60		다인화장											위진	Ⅵ

서 볼 수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을 중심으로 내륙 네트워크를 가동한 상황[21]도 이러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만발발자에서 기원전 4~3세기대에 적석총 계열은 없다. 대신에 이 시기에 통화 일대에는 대석개묘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이 확인되었다.[22] 즉, 만발발자 유적이 보여주는 무덤의 변천은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적석총 집단이 통화지역으로 진출하여 대석개묘 집단과 공존하다 점차 그 세력을 동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조선 후기 단계에 통화 일대에는 고조선계 토광묘, 중원세력의 거점, 대석개묘 집단들이 각자의 교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2~1세기대로 넘어가면서 압록강 중상류에서 발흥한 초기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적석총 집단으로 통합되었다(표 4). 이 모든 과정은 통화지역은 물론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확산된 모피로 대표되는 산간 교역 네트워크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만발발자의 약보고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 국내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증명하는 '미싱링크'를 채울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발발자의 지역사회는 계급의 분화가 크지 않은 채 여러 집단이 공존하며, 농업 대신에 모피가공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생계경제에 종사하던 집단이 주축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4세기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만주와 중국 북방 일대의 변화, 그리고 고조선-고구려의 전환기라는 거시적인 역사의 변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피무역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교역 네트워크와 그를 뒷받침하는 물품의 조달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만발발자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만발발자의 의의는 최근 역사와 문화학계에서 주로

---

21 강인욱, 2018a,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 106, 46~75쪽. 이 시기 이렇게 내륙 네트워크가 발흥하는 것은 연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하여 齊나라로 대표되는 산동반도를 거점으로 하는 해상 네트워크는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피의 산지로 無終이 등장하며 연과 진나라의 거점이 요북지역을 따라서 형성되는 등(二龍湖 유적 등)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는 문헌과 고고학적 유적으로 간취된다.

22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의되고 있는 글로컬리즘의 예로도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글로컬리즘은 주로 문학, 역사, 문화인류학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그 시대도 주로 근현대에 집중된다.[23] 하지만 만발발자가 가지는 의미 역시 글로컬리즘의 맥락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만발발자라는 유적의 변화상은 거시적으로 거대한 정치 집단의 헤게모니와 연동하는 동시에 각 지리 환경에 적응한 각 유적들의 다양한 생계경제와 교역 네트워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컬리즘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과 지역성의 동시적 고찰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시기적으로 고조선~고구려에 걸치는 유적을 곧바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국가적 연관성으로 연결시키거나 단편적인 묘제의 유사성으로 요동반도와 고조선의 연관성을 무리하게 추론하려는 시도가 강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특정한 유적이 고조선, 고구려와 같은 거대한 국가와 시대의 변화를 오롯이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발발자 유적은 먼저 각 유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들과 연계된 광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시적인 변동으로 해석해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V. 맺음말

기원전 4~2세기의 문화적 변동은 매우 폭넓은 유라시아적 변화였다. 중국 북방에서는 장성의 본격적인 건설로 대표되는 중원 제후국의 영역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의 북방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사카계 문화와 흉노의 발흥이 본격화되었고, 연나라의 동쪽에는 고조선도 발흥하여 영역화된 세력을 키웠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인 동시에 매우 지역적이기도 하여서 각 지역

23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까지 민족학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체재선전에 이용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민유기, 2011, 「프랑스의 민속학 전통과 현대 민족학의 특성」, 『역사민속학』 35집, 75~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다 새로운 문화의 도입과 네트워크로 재편되었다. 만발발자 유적은 이러한 고조선 후기의 변화에서 고구려의 발흥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통시적으로 보여주며 통화지역 지역문화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로컬적인 의의를 띤다.

무덤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변동의 시기 만발발자 유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4세기경에 만발발자 집단은 토광묘를 축조하고 있었다(Ⅱ구역). 이들은 2단계가 되면서 모피무역으로 야기된 전염병으로 추정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집단 내부의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20, 21호의 집단토광묘). 이 시점을 기점으로 무덤의 축조 입지는 유적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옮겨지고, 토광묘 집단 이외에 대석개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집단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었고, 입지를 달리하여 구릉의 정상에 대석개묘와 적석총을 축조하는 등 사회는 새롭게 전환되어 통합되어갔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묘제의 통합을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전까지 요서지역과도 연결되었던 만발발자의 네트워크가 해체되었고, 대석개묘 집단의 유입을 거쳐서 그 동쪽의 고구려로 대표되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 집단의 네트워크로 편입되었다.

고조선 후기 단계에 혼하에서 압록강 중상류에 이르는 지역은 전국시대 말기 제후국들의 거점 구축, 선 부여의 등장(서황산둔), 초기 고구려의 적석총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물질문화(철기)의 도입과 세형동검의 사용 등 물질문화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지역 간 네트워크와 주민의 이동, 교역관계 등의 성립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통화 만발발자는 통화와 환인 일대의 초기 고구려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통화 일대는 명도전이 출토되는 압록강 중~하류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며, 산악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농업보다는 어로, 사냥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지역은 고조선이 발흥하던 시점에 모피의 1차 취합 및 가공을 하던 집단으로 기능했다. 만발발자는 비파형동검 전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토광묘 위주의 후기 고조선에서 대석개묘와 적석총으로 대표되는 초기 고구려로 이르는 과정이라는 동아시아의 거시적인 문화변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화지역이라는 독특한 조건에 적응하며 살았던 지역집단의 모습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극명하게 보여준다. 개별 유적의 형성 과정과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지역적 적응방산을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역사와 문화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글로컬리즘적인 접근과 맞닿는다.

이제까지 만발발자 유적을 가설적인 수준에서 진전이 없었던 초기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문제와 고조선-고구려의 계승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만발발자 유적에서 보듯이 묘제의 기원 및 계통과 같은 문제를 1~2개의 유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신에 각 지역의 지리 환경에 맞게 주민집단이 적응을 하고 다양한 지역과 교역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피무역과 압록강 수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해는 이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하는 열쇠가 되며, 나아가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등으로 이어지는 예맥문화권의 변화 과정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하랄트 하르만 저, 강인욱 해제, 2021, 『문명은 왜 사라지는가』, 돌베개.

논문

강인욱,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 64호.

_____, 2018a,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 106.

_____, 2018b, 「기원전 4~ 3 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한국상고사학보』, 99.

_____, 2021, 「전염병을 이겨낸 신석기시대의 사람」, 『테라 인코그니타』, 창비.

김성철, 2009,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호, 사회과학출판사.

민유기, 2011, 「프랑스의 민속학 전통과 현대 민족학의 특성」, 『역사민속학』 35집.

박경철, 1997, 「B.C. 1000年紀 後半 積石塚築造集團의 政治的 存在樣式」, 『한국사연구』 98호.

_____, 2010, 「압록강 중·상류유역 적석총축조집단의 존재양태」, 『선사와 고대』 32호.

안보연, 2005,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보연·홍나영, 2008,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과정과 기술」, 『服飾』 58-8.

오강원, 2004, 「만발발자를 통해 본 통화지역 선원사문화의 전개와 초기 고구려 문화의 형성과정」, 『북방사논총』 1집.

王綿厚, 2001,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고구려발해연구』 12집, 고구려발해학회.

이성제, 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4.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보고-통화 만발발자유지 고고발굴보고」, 『야외고고학』 37호, 한국문화유산협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후석, 2015,「요령식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의 변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병진, 2020,「기원전 4~2세기 요동 정세와 고구려의 성립」,『역사와실학』71집.
지병목, 2007,「高句麗 基源의 考古學的 考察」.『고구려발해연구』, 27호.
하문식, 2020,「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東洋學』81.
홍순권, 2010,「글로컬리즘과 지역문화연구」,『석당논총』46.

賈瑩·朱泓·金旭東·趙殿坤, 2006,「通化萬發撥子墓葬顱骨人种的類型」,『社會科學戰線』2.
金旭東, 2015,「中國境內鴨綠江流域兩漢時期遺址的文化性質與年代研究」,『慶祝魏存成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通化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3,「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考古』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田野考古集粹』, 文物出版社.
樊聖英, 2009,「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中國考古學年鑒2008』.
邵春華·滿承志·柳嵐, 1987,「赤柏松漢城調查」,『博物館研究』3, 1987.
王綿厚, 2001,「通化市萬發撥子遺址的考古與民族學考察」,『北方文物』3.
王義學, 2008,「赤柏松古城考古發現及其相關問題研究」, 吉林大學學位論文.
遼寧省文物局 編著, 2017,『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李樹林·李妍, 2012,「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東北史地』2.
李新全, 2009,「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東北史地』2009-1.
朱永剛, 2002,「吉林省及相隣地區出土銅劍的聚類分析」,『邊疆考古研究』1.
朱泓·賈瑩·金旭東·趙殿坤, 2004,「通化萬發撥子遺址春秋戰國時期叢葬墓顱骨的觀察與測量」,『邊疆考古研究』1,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湯卓煒·金旭東·楊立新, 2004,「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地學環境考古研究」,『邊疆考古研究』2.
昊華·志新, 1988,「通化萬發撥子遺址復查報告」,『博物館研究』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hen, Y., 2019, “Pneumonic Plague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International Fur Trade: The Retreat of Tarbagan Marmots from Northwest Manchuria, 1900s-30s”,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강인욱

무덤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변동의 시기 만발발자 유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4세기경에 만발발자 집단은 토광묘를 축조하고 있었다(Ⅱ구역). 이들은 2단계가 되면서 모피무역으로 야기된 전염병으로 추정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20, 21호의 집단토광묘의 예에서 보듯이 집단 내부의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무덤의 축조 입지는 유적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옮겨졌고, 토광묘 집단 이외에 대석개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집단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었고, 입지를 달리하여 구릉의 정상에 대석개묘와 적석총을 축조하는 등 사회는 새롭게 전환되어 통합되어갔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묘제의 통합을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전까지 요서지역과도 연결되었던 만발발자의 네트워크가 해체되었고, 대석개묘 집단의 유입을 거쳐서 그 동쪽의 고구려로 대표되는 압록강 중상류지역 집단의 네트워크로 편입되었다.

통화 만발발자는 통화와 환인 일대가 후기 고조선의 영향을 벗어나 초기 고구려 세력에 편입되는 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통화 일대는 명도전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토되는 압록강 중~하류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며, 산악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농업보다는 어로, 사냥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지역은 고조선이 발흥하던 시점에 모피의 1차 취합 및 가공을 하던 집단으로 기능했다. 만발발자는 비파형 동검 전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토광묘 위주의 후기 고조선에서 대석개묘와 적석총으로 대표되는 초기 고구려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동아시아의 거시적인 문화 변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화 지역이라는 독특한 조건에 적응하며 살았던 지역 집단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제어: 만발발자 유적, 고조선, 부여, 고구려, 모피무역, 고대 네트워크, 집단장, 대석개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Wanfabozi Site and the Transition of Trade Network System during Late Old Chosun and Early Goguryeo

Kang Inuk

The Wanfabozi, Tonghua, is one of most significant site that shows the change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early Goguryeo forces around the Tonghua and Huanren area. The Tonghua region was located far from the middle and downstream of the Yalu River, where hoards with knife money (mingdaoqian) were found. It was highly mountainous, and the ratio of fishing and hunting was very high compared to agriculture. An analysis of animal remains found bones of various fur animals other than pigs raised as livestock, which is extremely unusual.

This area functioned as a group that performed the primary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fur at the time of the rise of Gojoseon. Moreover, various other unique goods were traded, given the nature of the mountain region. The area grew through the Chinese state's fort-centered expansion (for example, the chibaisong fortress site o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onghua region) and traded with various regions such as Gojoseon, early Goguryeo, and Buyeo due to the changes of northern China in the 3rd and 2nd centuries B.C. However, this was the group in charge of production, and the power did not expand around them. This i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various memorial services coexisted in one space without overlapping across different zones. Besides,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social status among the relics of each tomb. The Wanfabozi society rapidly changed with the advent of the early Goguryeo group as represented by piled-stone tombs, reflecting the progression of social complexity and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pit tombs to stone mound tombs can be regarded as a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early Goguryeo took over the network with the collapse of the Gojoseon network.

In this way, Wanfabozi illustrates a macroscopic cultural change in East Asia, starting from the early stage of the lute-shaped bronze dagger to the late Gojoseon, centered on pit tombs, and the early Goguryeo, represented by stone-covered tombs and stone mound tombs. At the same time, this area clearly shows the appearance of a local group that lived and adapted to the unique conditions of the Tonghua area. It meets the definition of a glocalistic approach, which is recently emerging in history and culture studies. It enables researchers to identify the formation process and flow of individual remains and then understand the regional adaptation diffusion based on the macroscopic historical flow.

Keywords: Wanfabozi, Gojoseon, Buyeo, Goguryeo, fur trade, ancient network, group burial, capstone tomb(大石盖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만발발자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Ⅲ. 주변 유적 출토 토기와의 비교
Ⅳ.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문제 검토
Ⅴ.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04년 중국과 북한 소재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오녀산성(五女山城), 국내성(國內城), 환도산성(丸都山城) 및 집안(集安)지역 고구려 왕릉을 비롯한 주요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 2002~2007년까지 5년간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된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남한 학계의 대응,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한 고구려 유적의 발굴조사 및 보고서 간행 등으로 인해 최근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는 더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토기 또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국가 성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대세론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구려 건국 전후에 해당하는 토기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고서가 발간된 통화(通化) 만발발자 유적(萬發撥子遺址)[1]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고구려, 그리고 명대(明代)까지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이 지역 고고문화의 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부터 고구려까지 무덤과 생활유구가 공존하고 있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적 계통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기획 의도에 따라 만발발자 유적 보고서

* 투고: 2021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수록된 고구려 토기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고구려가 발원한 혼강(琿江) 유역 및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고구려 토기의 기원 혹은 형성 과정의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만발발자 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1. 통화 만발발자 유적[2]

만발발자 유적은 행정구역상 중국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금창진(金廠鎭) 동창구(東昌區) 약진촌(躍進村)과 환통향(環通鄕) 강남촌(江南村)의 경계 지점에 있다. 유적은 서쪽의 혼강과 남쪽의 금창하(金廠河)가 만나는 지점의 능선 하단부에 입지한다. 서쪽의 나지막한 구릉에는 생활유구가, 동쪽의 비교적 높은 산지에는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명칭은 1960년 1차 문물조사 당시에는 왕팔발자(王八脖子) 유적이었으나, 199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87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가 발굴을 실시하였는데, 당시의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1997~1999년까지 3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는 20년이 지난 2019년에 발간되었다.

1990년대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20기, 수혈(灰坑) 137기, 구상유구(灰溝) 9기, 환호(環山圍溝) 1기, 무덤(토광묘 21기, 석관묘 11기, 석곽석관묘 1기, 대개석묘 4기, 대개석적석묘 2기, 무단석광적석묘 1기, 방단적석묘 1기) 56기가 확인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물 일부는 2017년에 개관한 통화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사 성과는 1999년 중국의 10대 발굴(全國十大考古

2 『通化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科學出版社)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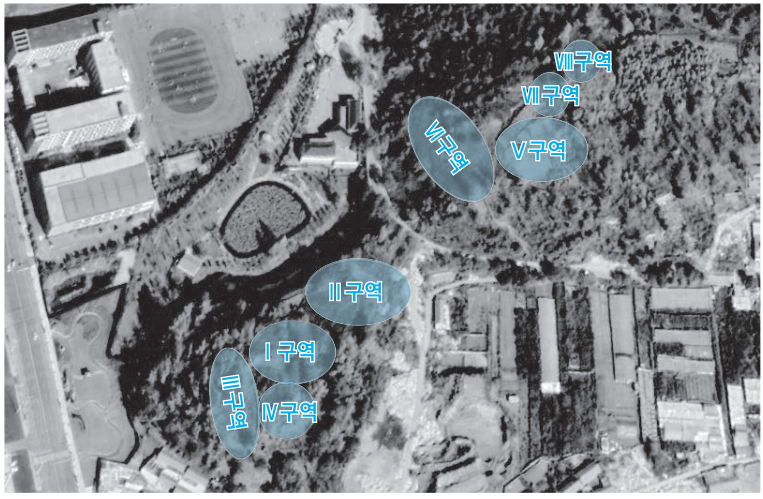


사진 1 만발발자유적의 발굴구역도(이종수, 2020: 그림 2)

新發現)에 선정되었으며, 유적은 2001년에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다.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명대까지 총 6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기는 신석기시대(후기), 제2기는 상(商) 후기~서주(西周)시기: 청동기시대 전기, 제3기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 청동기시대 후기, 제4기는 서한(西漢)~양한(兩漢) 교체시기: 초기철기시대~고구려 초기, 제5기는 위진(魏晋)시기: 고구려 중기, 제6기는 명대에 해당한다. 이 중 고구려와 관련한 제4기와 제5기의 문화층은 Ⅰ~Ⅳ구역과 Ⅵ구역에 분포한다.

제4기 문화층에서는 Ⅰ구역: 주거지 1기, 수혈 17기, Ⅱ구역: 주거지 2기, 수혈 14기, 구상유구 2기, Ⅲ구역: 수혈 1기, Ⅴ구역: 무덤 4기, Ⅷ구역: 무덤 2기가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얕은 수혈 혹은 토벽체의 지상 주거 구조로, 오녀산성 제3기와 동일하게 쪽구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뚜막과 유사한 시설은 설치된 예가 있다. 무덤은 석관묘[3] 3기, 석곽(석관)묘 2기, 대개석적석묘(大蓋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積石墓) 1기, 무단석광적석묘(無壇石壙積石墓) 1기가 있는데, 석관묘와 석곽석관묘, 대개석적석묘의 구조는 같지 않으나 지하에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화장(火葬)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이들 무덤에 4개의 파수가 부착된 심발(罐)과 가로형 띠 손잡이(橫橋耳)가 부착된 호(壺)가 부장되었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묘제가 병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4기의 출토 유물 중 토기, 석기, 골각기는 제3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후기 유물의 형태와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철기는 철촉과 철제 괭이(鐵钁, 주조철부)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Ⅰ구역에서 발견된 유엽형(柳葉形) 철촉(도 3-4-4-7)은 하북성(河北省)의 연하도(燕下都) 유적, 환인 고려묘자(高麗墓子) 고분군 15호묘와 19호묘, 망강루(望江樓)고분군 6호묘 등의 출토품과도 유사하여, 제4기는 초기철기시대(고구려 건국 전후)로 추정된다.

제5기 문화층에서는 Ⅰ구역: 주거지 1기, 수혈 14기, 구상유구 2기, Ⅱ구역: 수혈 1기, 구상유구 1기, 환호 1기, Ⅳ구역: 주거지 2기, 수혈 1기, Ⅵ구역: 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오녀산성 제4기와 동일하게 장방형 평면의 얕은 수혈에 쪽구들이 갖춰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주거지 중 2기는 ㄱ자형 쪽구들이고, 나머지 1기는 아궁이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으로 쪽구들이 연결된 곡척형(曲尺形)으로, 연도(烟道)는 모두 2열로 구성되어 있다. 구상유구(灰溝)와 환호(環山圍溝)는 띠 모양이거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무덤은 3층 계단의 분구를 가진 방단적석총(方壇積石墓) 1기만 확인되었다.

제5기에서도 토기, 철기, 청동기, 석기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오녀산성 제4기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고구려 중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토기로만 보면 고구려 전기에서 중후기까지 거의 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 보고서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판석으로 석관을 짜는 방식이 아닌 묘광의 네 벽에 크기가 다른 돌을 기대어 쌓은 구조의 무덤을 지칭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만발발자 유적 출토 토기 검토

만발발자 유적에서 고구려 토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문화층은 제4기와 제5기이다. 수량과 기종은 많지 않으나, 생활유적과 무덤에서 기형의 차이가 확인된다.

〈표 1〉 만발발자 유적 출토 토기 속성표[4]

속성 기종		표면색				태토		성형	정면			문양	파수								계
		적갈	황갈	흑갈	회색	협사	니질	수제	말광	마연	소면	암문	반이+수이	반이2	횡이2	맹이2	수교이	반이	맹이	횡교이	
4기 생활유구	파수부호(罐)	1	1			2					1		2								2
	파수부장경호(小罐)	1	1			2											2				2
	(장동)호(罐)		1				1														1
	심발(小罐)		1		1	2					1							1			2
	소형심발(小杯)				1	1												1			1
	발(盌,罐)	1	1			2					2										2
	완(盌)		2	3		2	1		1	1	3										5
	컵형토기(盅)	1					1														1
	소형컵형토기(盅)	1				1		1		1											1
	잔(杯)		1			1					1										1
	소형잔(小杯)		1				1	1		1											1
	두형토기(豆)			3		3				2	1										3
	소형원저토기(小圜底器)	1				1		1													1

4 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토기를 중심으로 속성표를 작성하였으며, 동체부 파편 등은 제외하였다. 생활유적은 문화층,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등을 총칭한 것이다. 표면색의 적갈은 적색과 적갈색, 황갈은 황색과 황갈색 및 갈색, 흑갈은 흑색과 흑갈색을 합친 것이다. 수제는 보고서에 기재된 것만 표시하였다. 파수 속성에 2라고 표시된 것은 2쌍을 의미한다. 반이(鞍耳)는 돌기형파수를, 수이(竪耳) 또는 수교이(竪橋耳)는 종위상 파수 내지는 종위대상파수를, 횡이(橫耳) 또는 횡교이(橫橋耳)는 횡위상 파수 내지는 횡위대상파수를, 맹이(盲耳)는 흔적형 파수를 지칭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기 무덤	파수부장경호(壺)	2	1	2		3	2							1	3					1	5
	파수부심발(罐)	1	6	1		4	4	1						6				1			8
제4기 계		9	16	9	2	24	10	4	1	5	9		2	7	3		2	3	2	1	36
5기 생활유구	장동호(壺)		1				1			1		1									1
	파수부장경호(壺)			1			1		1										1		1
	동이(罐)				1		1														1
	완(盌)		2	1		1	2	1	1												3
	두형토기(豆)		1	1		1	1		1		1										2
	소형심발(小罐)		1	1			1									1	1				2
	소형잔(小杯)		4			1	3	1													4
	종지(小盤)	1					1	1													1
제5기 계		1	9	4		3	11	3	3	1	1	1				1	1		1		14

1) 제4기 문화층 토기의 양상

제4기의 생활유적 출토 토기[5]로는 파수부호(罐), 심발(罐), 발(盌)과 완(盌), 잔(杯), 두형토기(豆)와 비실용기로서 각종 소형토기가 있다. 무덤 출토 토기는 파수부호(壺)와 파수부심발(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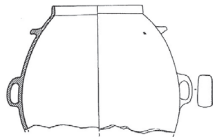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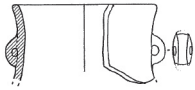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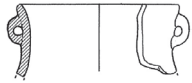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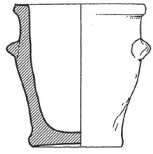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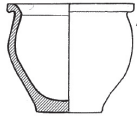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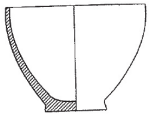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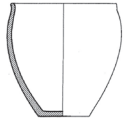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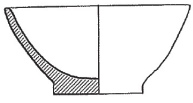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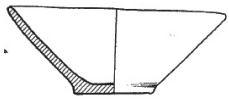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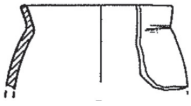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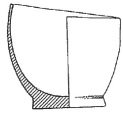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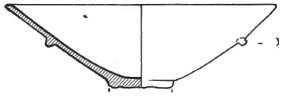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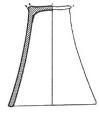
제4기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종 구성이 다양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동기시대(제3기)의 토기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태토는 모래가 혼입된 점토가 대부분이지만, 니질도 일부 확인된다. 조질태토에는 운모나 활석분(滑石粉)이 혼입되기도 한다. 색조는 적갈색, 황색, 흑갈색, 회색인데, 갈색 계통이 대다수이다. 파수는 청동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대상 혹은 돌기형(鑿耳)이 부착된다.

보고서에 수록된 토기 기종은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용 검토를 위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5 중국의 토기 기종 분류 방식이 우리나라와 달라,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문은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에 따른 명칭을, 괄호 안은 보고서의 명칭을 따랐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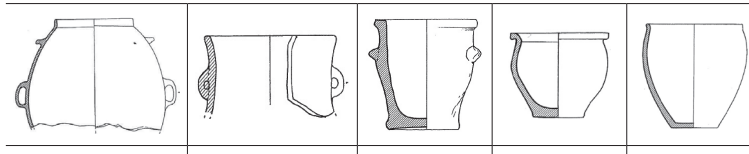
〈표 2〉 제4기 생활유적 출토 토기(축척부동)

기종	도면	도면
파수부호 (罐)	 도3－4－1－1	 도3－4－1－2
파수부장경호 I (小罐)	 도3－4－80	 도3－4－69
심발 (小罐)	 도3－4－33－1	 도3－4－91－1
발 (盌)	 도3－4－1－6	 도3－4－55－1
완 (盌)	 도3－4－5－1	 도3－4－26－2
좌: 호(罐) 우: 잔(杯)	 도3－4－1－5	 도3－4－5－3
두형토기(豆)	 도3－4－91－2	 도3－4－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선 관(罐)은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유형(파수부호)은 약간 길쭉한 돌기형파수(帶鋬耳)와 종방향 대상파수(竪橋耳)가 부착된 것이다. 제3기의 토기와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경부는 조금 길어지며, 동체 상단부의 파수가 약간 짧아지는 정도이다. ②유형(장경호)은 약간 외반되는 구연부 아래에 소형의 종방향 파수가 부착된 것으로, 역시 청동기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③유형(심발)은 방형의 구순을 가진 구연부와 동체부 상단에 작은 돌기형파수가 부착된 것이다. ④유형은 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며, 세부 형태도 같지 않다. 이들 중 ③과 ④유형은 제4기에 새롭게 등장한 기형이다.

완(盌)은 대족(臺足)이 부착된 것과 평저인 것으로 나뉜다. 대부완(대족완)은 제3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고, 평저완은 새롭게 출현하였다. Ⅱ구역 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평저완(표 2의 도3-4-26-1과 2)은 보산문화(寶山文化)[6] 영향을



① 유형 도3－4－1－1	② 유형 도3－4－80	③ 유형 도3－4－33－1	④ 유형－1[7] 도3－4－91－1	④ 유형－2 도3－4－55－1

그림 1 제4기 문화층 출토 관(罐)의 네 유형(축척부동)

6 보산문화는 천산산맥의 북쪽과 길림합달령 일대에서 대략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유행한 대개석묘(대석개묘)와 두형토기를 표지로 하는 초기철기문화를 말한다. 두형토기는 대각의 내부가 비어 있는 공심형(空心形)과 속이 들어차 있는 실심형(實心形)으로 나뉜다. 공심형에는 투공이 뚫려있는 것도 있다. 보산문화와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 문화를 요령성에서는 양천문화(凉泉文化)라 부른다. 이종수,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東洋學』 53, 6쪽.

7 보고서에서는 해당 심발을 한대(漢代) 무덤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곤토령문화(滾兎嶺文化)시기의 유적으로 알려진 흑룡강성(黑龍江省) 집현현(集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8]

두형토기(陶豆)는 제3기에도 확인되지만, 나팔형(喇叭形) 대각(臺座)의 끝이 좀 더 외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구역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두형토기(표 2의 도3-4-91-2)는 기벽이 직선적(斜直壁)이어서 청동기시대부터 유행하던 곡선형의 기벽을 가진 배신(弧腹豆盤)과는 차이를 보이며, 보산문화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신기종으로 보고 있다. 배신부 외면에는 퇴화되어 흔적만 남은 가로형 손잡이(盲耳)가 남아 있다.

손으로 제작한 소형토기(手制小陶)는 높이가 2cm 내외로, 제3기에서도 확인되는 컵형토기(盅)[9]와 완(盌) 외에 두형토기, 원저토기,[10] 잔(小杯), 심발(小杯) 등의 새로운 기형이 확인된다. 잔(小陶杯)은 다시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 유형은 직선적으로 경사진 컵 형태이고, ②유형은 그림 1-③유형의 축소 형태이다.

제4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토기(표 3)는 (심)발과 (장경)호로 모두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생활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형으로, 부장용으로 별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마련된 석관묘(C유형)와 석곽석관묘, 대개석적석묘는

縣) 영흥성지(永紅城址)의 수혈(H3)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흥성지 출토품(高愛霞, 2007, 「黑龍江省集賢縣永紅城址一,二,三號灰坑淸理簡報」, 『北方文物』 2007-2)은 2점 모두 완(盌)으로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심발과는 전혀 다른 기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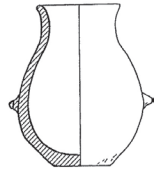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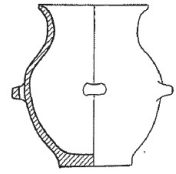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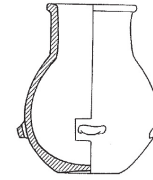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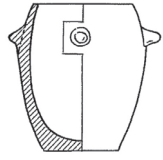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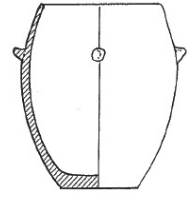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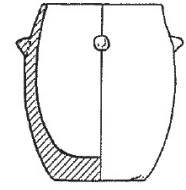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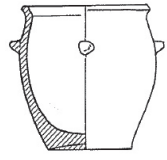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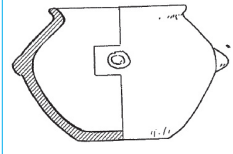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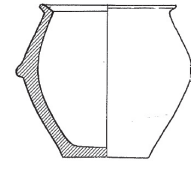
8 起俊傑·金旭東, 2014, 「吉林九台市關馬山M1的時代, 文化性質及相關問題」, 『考古』 2014-3.

9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물(도3-4-1-3)을 장백현(長白縣)의 간구자고분군(干溝子墓地) 출토 천복관(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도11-6)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크기 및 형태에서도 차이가 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10 보고서에서는 해당 유물(도3-4-5-4)을 환인 오녀산성의 제3기 고구려 컵형토기(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1996~1999, 2003年度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도84-6)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크기 및 형태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제4기 무덤 출토 토기(축척부동)

기종	도면	도면	도면
파수부 (장경)호 (壺) Ⅱ	 도3－4－103－2 석관묘(M46)	 도3－4－106－1 석곽묘(M36)	 도3－4－109－2 대개석적석묘(M38)
파수부 (심)발 (罐)	 도3－4－103－1 석관묘(M46)	 도3－4－106－4 석곽묘(M36)	 도3－4－109－1 대개석적석묘(M38)
	 도3－4－106－5 석곽묘(M36)	 도3－4－113－1 무단석광적석묘(M37)	 도3－4－113－2 무단석광적석묘(M37)

(심)발과 장경호의 세트 부장을 기본으로 한다. 3개 유형의 무덤 모두 화장이 이루어졌고, 4개의 돌기형파수가 부착된 심발(四鋬耳罐)과 4개의 가로형 손잡이가 부착된 호(四橫耳壺)가 공통적으로 부장되어 있으므로 각 무덤의 축조 시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4개의 파수가 부착된 심발과 호는 신빈(新賓)의 왕청문(旺淸門) 용두산(龍頭山) 석개묘(石蓋墓) 1호묘와 2호묘에서도 출토(그림 2)되었는데, 안테나식 철검이나 말종방울 등의 유물로 볼 때 용두산 고분군의 조성 연대는 기원전 3세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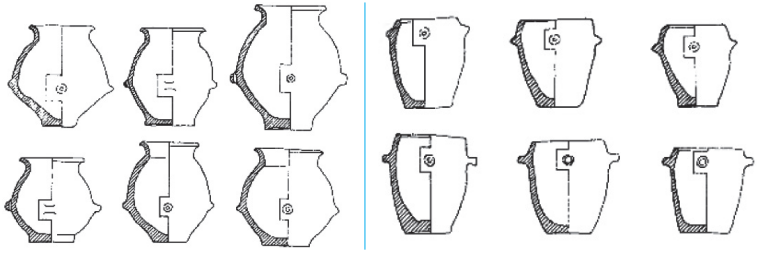


그림 2 신빈 용두산 2호 석개묘 출토 토기 각종(하문식, 2008: 그림 13, 14)

이후로 추정된다.[11] 이들 토기 역시 높이가 10~1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생활용이 아닌 명기(冥器)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마련된 무단석광적석묘(37호묘)는 앞서 언급한 3개 유형의 묘제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무덤에서는 4개와 2개의 돌기형파수가 부착된 심발(표 3의 도3-4-113-1, 2)이 출토되었다. 환인 풍가보자(馮家堡子)고분군의 5호묘(대개석적석묘)와 8호묘(대개석묘) 출토 토기(그림 8, 9)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유적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상당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제3기 문화층 출토 토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만발발자 유적의 제3기 토기는 기본적으로 마성자(馬城子) 문화[12]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11 하문식, 2008, 「渾河 유역 고인돌의 특이 구조와 성격」, 『東洋學』 43, 23쪽.

12 마성자문화는 태자하(太子河) 중상류역 주변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묘(洞窟墓) 출토 유물을 표지로 한다. 동굴묘는 토광묘 혹은 석관묘로, 단인장의 여러 무덤이 모여 있는 집단묘의 특징을 보인다. 장가보(張家堡) A동굴유적처럼 50여 기의 무덤이 한 동굴에서 발견된 예도 있지만 대부분 20기 내외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주로 토기류가 발견되며, 석부, 석착, 돌자귀와 같은 석기류와 청동환이나 청동귀걸이 같은 소형의 청동제 장식품도 소량 확인된다.
한편, 마성자문화의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는 압록강 중상류와 하류를 거쳐 남한 청동기시대 조기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알려진 미송리식 토기의 발생 또한 마성자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으로 보인다.

제3기의 생활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형은 (심)발(罐), 호, 완 등이며, 이 밖에도 두형토기, 시루, 옹형토기, 대부발(圈足鉢), 미송리형토기(弦紋壺), 정(鼎), 력(鬲)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대상파수가 유행하는데, (심)발과 호에는 횡방향 대상파수(橫橋耳), 종방향 대상파수(竪橋耳), 매의 부리 모양(鷹嘴鋬耳) 혹은 일반적인 돌기형파수(鋬耳), 흔적만 남은 맹이(盲耳) 등의 파수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파수는 횡방향에 비해 종방향이, 돌기형파수는 길이가 짧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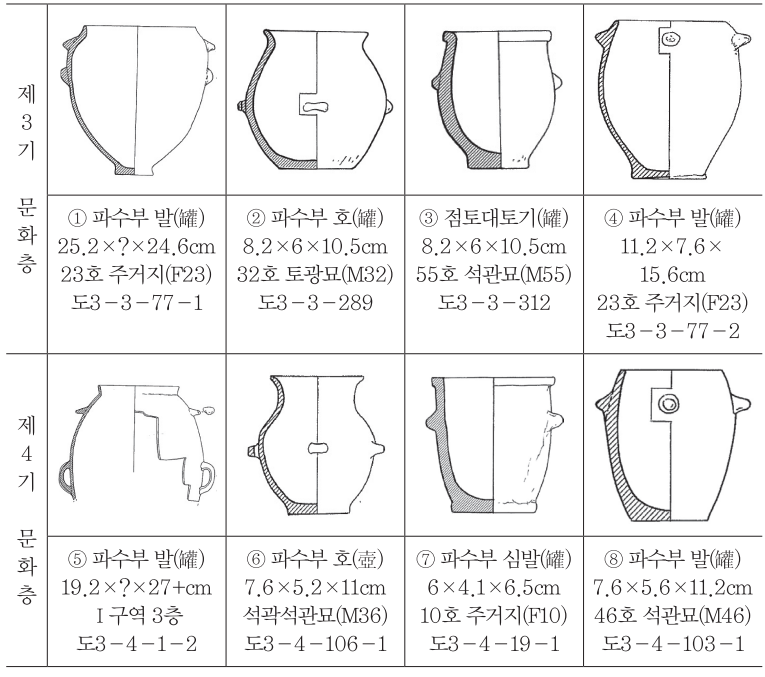


그림 3 제3기와 제4기 문화층 출토 토기의 형태 비교(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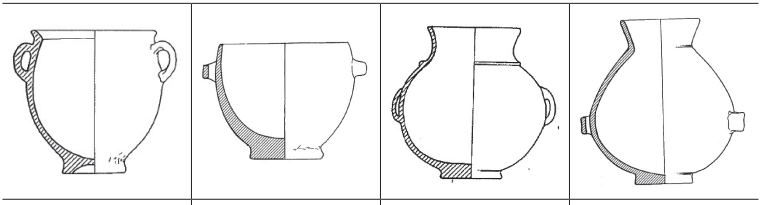
승옥, 2015,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 시기가 늦다. 상단부에 돌기형파수, 복부에 대상파수가 부착되는 발(그림 3-①, ⑤)은 비교적 큰 편으로, 무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실생활 용기이다. 완은 굽이 달린 것(假圈足)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통굽은 드물고 들린굽이 대부분이다. 두형토기는 나팔형 대각에 얕은 호형(弧形)의 기벽을 가진 접시(盤) 형태와 구멍이 뚫린 대각에 접시가 비교적 깊은 형태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제4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빚은(手捏法) 소형 토기들이 발견된다.

제3기의 무덤으로는 토광묘, 석관묘, 대개석묘가 있는데, (심)발, 호, 완 등이 일정한 조합을 이루며 부장된다. 호는 경부에서 동체부로 전환되는 지점에 1조의 돌대(凸棱)가 돌아가는 것(그림 4-③)이 많다. (심)발과 호에는 파수가 부착되는데, 횡방향 및 종방향 대상파수가 다수를 차지한다(그림 4). 다만, 집장토광묘(20호묘와 21호묘)에서는 종방향 대상파수부 호 외에도 돌기형파수(乳丁耳)가 부착된 발도 상당수이다. 호의 저부에는 얕은 통굽(그림 4-③, ④)이 형성되어 있으며, 발과 완에는 통굽 혹은 들린굽(그림 4-①)이 부착된 것이 상당수이다. 이 밖에도 B유형 석관묘에 속하는 55호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그림 3-③) 1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3기 청동기시대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굽(臺足)이 형성된 저부가 많은 반면, 제4기 초기철기시대에는 점차 평저로 변한



① 파수부 발(罐)	② 파수부 발(罐)	③ 파수부 호(壺)	④ 파수부 호(壺)
12×6×13.6cm	12.4×6.2×10.6cm	9.2×6.2×15.2cm	9.8×7×20.6cm
Ⅱ구역 제4층	154호 수혈(H154)	20호 토광묘(M20)	28호 토광묘(M28)
도3-3-27-1	도3-3-217	도3-3-253-1	도3-3-286-1

그림 4 제3기 문화층 출토 대상파수부 토기 각종(축척부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그림 3). 그리고 외반 구연의 파수부 호(그림 3-②와 ⑥)는 동체부가 구체화(球體化)되면서 목이 길어지는(長頸化) 양상이 확인된다. 또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다수 확인되었던 횡방향 대상파수는 제4기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마성자문화로부터 이어지는 재지적 전통에 북쪽(길림)에서 내려온 보산문화(양천문화) 영향으로 두형토기 등이 추가되고, 이후 철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무덤에는 실생활 용기가 아닌 명기로 제작된 토기가 부장되며, 이는 용두산 석개묘나 환인 풍가보자고분군 등의 출토품과 유사하다. 토기의 형태나 묘제, 그리고 다른 유물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4기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를 중심으로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로 추정된다. 즉,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토기는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적석계 무덤을 조영하던 토착 집단이 고구려로 통합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고구려 국가성립기 통화지역 고구려 기층문화의 한 단면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제5기 문화층 출토 토기의 양상

제5기 문화층의 생활유적 출토 토기(표 4)는 종류가 많지 않다. 기본 기종으로는 호(壺), 동이(罐), 완, 두형토기[13] 등이 있고, 비실용기로서의 소형토기는 완, 심발, 잔(小陶杯), 종지(小陶盤)가 있다. 무덤(방단적석묘)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 제5기의 토기는 니질태토를 기본으로 하며, 잔석립이 혼입된 것도 있다. 색깔은 황색과 흑색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면은 정면(抹光)하거나 마연(磨光)한 것도 상당수며, 소성 온도가 높아 기벽이 비교적 단단하다.

호는 2개체가 보고되었다.[14] 장동호(표 4의 도3-5-1-1)는 고구려 중기 이후

---

13 두형토기는 지역적인 전통이 유지되고 있거나 앞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 제5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 도3-5-1-2의 토기는 동체부에 작은 흔적 파수(盲耳)가 부착되고, 굽이 있는 저부를 가진 직구호라는 점에서 고구려가 아닌 청동기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등장하는 기형으로, 경부에 사격자 암문(暗文)이 시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5세기 중후반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표 4의 도3-5-36-1)는 1개체가 출토되었다. 외반 구연에 구단부는 별다른 처리 없이 마무리하였다. 동이 역시 고구려 중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생활용기 중 하나인데, 경부에서 견부로의 꺾임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아, 4~5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완은 평저인 것과 통굽이 있는 것으로 나뉜다. 굽이 있는 완(표 4의 도3-5-16-1)은 청동기시대부터 유행하던 것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28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완과 유사하다. 저부에 약하게 굽이 형성되어 있는 완(표 4의 도3-5-1-3과 4)은 제5기에 새롭게 등장한 기형으로, 동체부의 기벽이 비교적 곧게 경사진 것(斜直腹)이 특징이며, 저부가 비교적 두껍다.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중후기의 완은 구경과 저경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안쪽면의 바닥 부분이 편평한데, 만발발자 유적 출토 완은 내면이 경사져 있어 고구려 중기보다는 고구려 건국 전후 혹은 이에 가까운 시기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제4기로 보고된 평저완(표 4의 도3-4-1-7)은 형태나 제작기법으로 볼 때 초기철기시대보다는 고구려 중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형토기 중에는 파수부 심발(小罐: 표 4의 도3-5-26-1)이 확인된다. 동체부에는 퇴화되어 흔적만 남은 파수(盲耳)와 돌기형파수(鑿耳)가 부착되어 있다. 제4기의 돌기형파수가 부착된 발과 종방향 파수가 부착된 발에서 발전한 것으로, 동체부의 크기가 작아 파수는 기능을 상실하고 흔적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실용기로 보기 어려운 소형으로, 고구려 중기보다는 고구려 건국 전후기에 해당하거나 이를 충실히 모방한 의례용 토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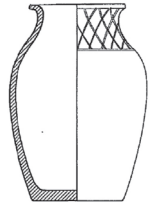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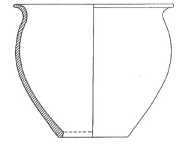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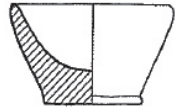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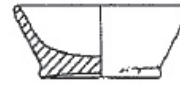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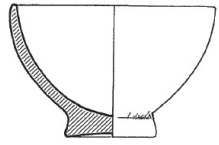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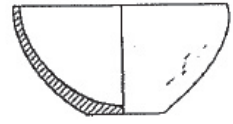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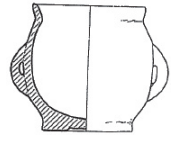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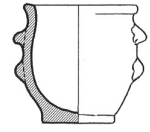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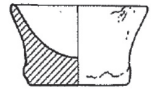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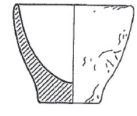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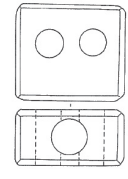
이 밖에도 직육면체 토기(陶多孔器)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고구려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기형이다. 줄을 꼬는 도구[15]로 보기도 하나, 그 기능은 아직까지

대 후기(제3기)로 판단된다.

15 趙裏萌, 2016,「多孔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제5기 문화층 출토 토기(축척부동)

기종	도면	도면
좌: 장동호(壺) 우: 동이(罐)	 도3－5－1－1	 도3－5－36－1
완 (盌)	 도3－5－1－3	 도3－5－1－4
	 도3－5－16－1	 도3－4－1－7
소형 파수부 심발 (小罐)	 도3－5－16－18	 도3－5－26－1
소형 잔 (小杯)	 도3－5－9－11	 도3－5－16－5
좌: 종지(小盤) 우: 직육면체(多孔器)	 도3－5－16－7	 도3－5－1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불분명하다. 인근의 자안산성(自安山城)이나 무순(撫順) 고이산성(高爾山城)을 비롯하여 연천 호로고루 등에서 출토되었고, 발해 유적에서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5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고구려 성립기부터 고구려 중후기까지 고구려 전 시기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재지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고구려 건국 전후의 토기는 굽이 형성된 완과 파수부 심발 등이고, 중기 이후의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는 장동호, 동이, 직육면체토기 등이다. 환인 오녀산성이나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출토 토기와 비교해볼 때 장동호와 동이는 대략 5세기대로 추정되며, 직육면체 토기는 고구려 후기로 편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구려 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현상은 고구려 건국 이후 만발발자 유적이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Ⅲ. 주변 유적 출토 토기와의 비교

만발발자유적은 Ⅱ구역의 청동기시대 토광묘(M1~M4호)를 제외한 모든 무덤이 유적의 동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고구려 시기까지 이 일대에 거주하던 집단은 주거 공간과 무덤 공간을 분리하였던 것이다. 석관묘는 구릉의 중부 남사면에, 대개석묘와 적석묘 계통은 산 정상부에 중복 없이 입지하고 있어, 기 조성된 무덤에 대한 인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C형 석관묘와 석곽석관묘, 대개석적석묘가 공존했으며, 고구려 건국 시기인 기원전후에는 무기단석광적석총(무단석광적석묘)이 축조되었고, 고구려 중기로 접어들며 점차 발전하여 계단석광적석총(방단적석묘)이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기철기시대로 비정되는 제4기의 무덤에는 파수부 (심)발(罐)과 파수부 (장경)호(壺)가 세트로 부장되었는데, 이 토기는 일상생활용이 아니고 명기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작된 것이다. 심발과 호가 함께 부장되는 풍습은 흉노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화장(火葬) 역시 중국 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부터 고구려 초기까지 확인되는 보편적인 장례 풍습이다.

이에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문화층 토기와 비슷한 시기의 주변 유적 출토 토기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건국한 환인 일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총은 망강루고분군이 있고, 이보다 앞선 시기의 주요 유적으로는 장백 간구자고분군과 환인 풍가보자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 만발발자 유적과 유사한 시기의 생활유적은 환인 추수동(抽水洞) 유적과 왕의구(王義溝) 유적 등이 있다.

1. 장백 간구자고분군(干溝子墓地)[16]

장백 간구자고분군은 현재까지 알려진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길림성 장백현 십사도구(十四道溝) 간구자촌의 하곡 충적대지 위에 입지한다. 여러 기의 무덤이 연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두 52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고구려의 연접묘는 방형 평면인 적석총의 한 변에 잇대어 무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지만, 간구자고분군은 중앙부에 있는 원형 평면 적석묘의 둘레를 돌아가며 4~6개의 반원형 평면 적석묘가 연접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무덤을 추가하면서 많게는 십수 기가 이어진 집단묘이다. 연접 적석총의 전체 평면은 원형, 반원형, 부채꼴로 나뉜다. 묘광 평면은 장방형이나 타원형이며, 바닥에는 작은 냇돌을 한층 얕게 깔았다. 인골은 화장 후에 매장하였으며, 깨진 돌로 봉하고 뚜껑을 덮었는데, 목질 장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유적에서는 전국 말기부터 진한(秦漢)시기에 유행한 화폐인 반량전(半兩

1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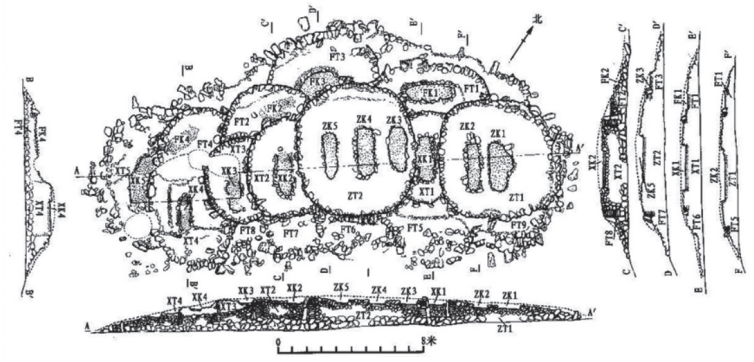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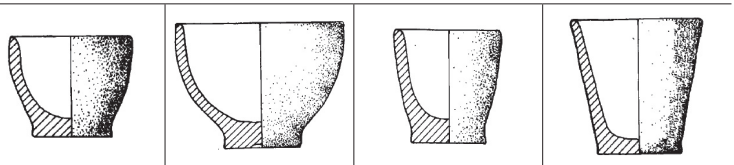


그림 5 간구자 AM2호 적석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도5)

錢), 일화전(一化錢) 등과 함께 철제 괭이(鐵钁)와 도자(鐵刀) 등이 출토되었다. 오수전(五銖錢)을 비롯한 동한 시기의 화폐는 출토되지 않아, 고분군은 전국 말기에서 서한, 즉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전후한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간구자고분군은 비록 집단묘이기는 하나, 기본 단위 적석묘의 구조와 철기의 부장, 그리고 유적의 시공간적인 위치 등에서 고구려 초기 적석총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연결고리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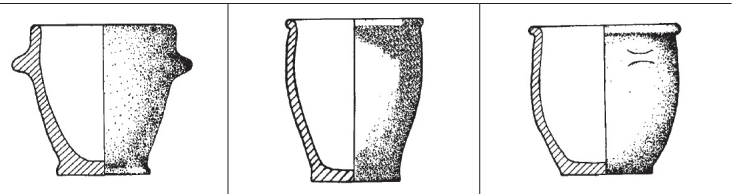
간구자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본적으로 부장을 위해 소형으로 제작하였으며, 모래가 혼입된 조질 태토(夾砂陶)에 갈색 계통이 주를 이룬다. 손으로 제작하여 토기의 두께와 규격은 일정하지 않다. 문양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체로 기벽을 잘 정면(抹光)하였다. 토기(罐)는 39점이 출토되었는데, 발굴 보고자는 동체부의 깊이에 따라 깊은 것(深腹)과 얕은 것(淺腹)으로 구분하였다. 토기 중 일부는 만발발자 유적 제4기와 제5기의 소형토기류(컵형토기, 잔) 및 완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완(천복관, 도11-1) 7×4.6×5.8cm	② 완(천복관, 도12-6) 6.5×5.6×9.5cm	③ 잔(심복관, 도11-3) 6.8×5×7.2cm	④ 잔(심복관, 도12-3) 8.9×4.8×9.2cm

그림 6 간구자고분군 출토 토기 각종(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① 심발(심복관, 도12-1) 9.6×6.4×10cm	② 심발(심복관, 도12-2) 9.7×6.5×11.8cm	③ 심발(천복관, 도12-8) 9.9×6×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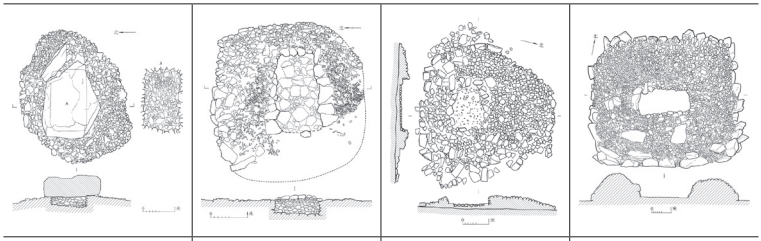
그림 7 간구자고분군 출토 토기 각종(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2. 환인 풍가보자고분군(馮家堡子墓地)[17]

풍가보자고분군은 요녕성 환인현 화래진(華萊鎭) 풍가보자촌 주변의 대지에 위치한다. 3구역에 걸쳐 모두 35기가량의 무덤이 분포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4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무단석광적석묘(M3호~M8호, M10묘~M13호), 방단석광적석묘(기단석광적석총 M2호), 방단석실적석묘(기단

1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遼寧桓仁縣馮家堡子積石墓羣的發掘」,『考古』201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M5호(도11) 대개석적석묘 | ② M4호(도9) 무단석광적석묘[18] | ③ M13호(도18) 무단석광적석묘[19] | ④ M2호(도5) 방단석광적석묘

그림 8 풍가보자유적의 각종 고분 유형(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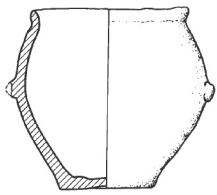
석실적석총: M1호, M9호)와 무단석실적석묘(무기단석실적석총: M14호)가 확인되었다.

무단석광적석묘를 다시 대개석묘(개석식 지석묘: M6호~M8호), 대개석적석묘(M3호, M5호), 무단석광적석묘(M4호)로 세분하기도 한다.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의 구분은 뚜껑돌의 존부(存否)에 따른 것인데, 대개석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 M3호묘(대개석적석묘)와 M4호묘(무단석광적석묘)는 무덤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구역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발발자 유적 제4기에도 두 묘제가 병존하고 있어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단석광적석묘와 방단석실적석묘, 무단석실적석묘는 모두 고구려 건국 이후의 묘제이다. 결국 풍가보자고분군은 고구려 건국 이전 시기부터 고구려 시기의 묘제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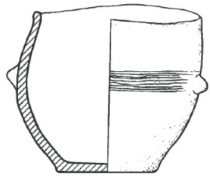
18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마련되어 있어 대개석적석묘의 뚜껑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 무덤 바깥에 놓여진 2매의 큰 판석을 뚜껑돌(蓋石)로 보아, 대개석적석묘로 보기도 한다. M12호묘와 마찬가지로 적석분구묘로, 지상에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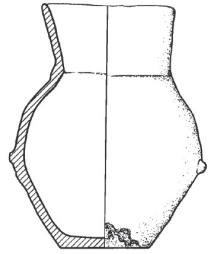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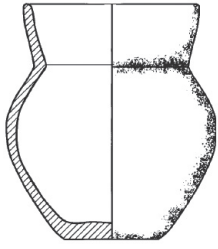
① 심발(A형罐)
M5호, 도19－1
11.3×6.9×1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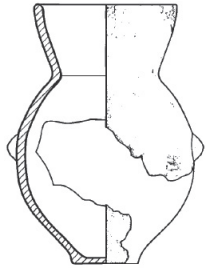
② 심발(B형罐)
M5호, 도19－4
12.3×7.4×1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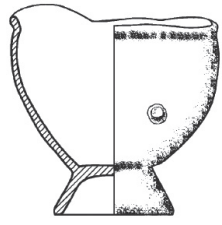
③ 호(C형壺)
M5호, 도19－6
10.3×6.7×1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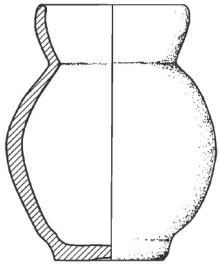
④ 호(A형罐)
M13호, 도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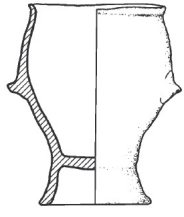
⑤ 호(B형壺)
M13호, 도19－9
9.4×4.4×17.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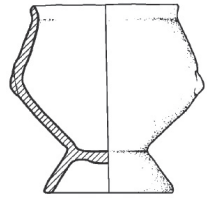
⑥ 대부발(A형豆)
M13호, 도19－10
15.9×9.2×16.1cm



⑦ 호(A형壺)
M4호, 도19－3
10.4×7.6×18.2cm



⑧ 대부발(C형豆)
M4호, 도19－11
10.6×8.6×15.4cm



⑨ 대부발(B형豆)
M4호, 도19－12
11×9.6×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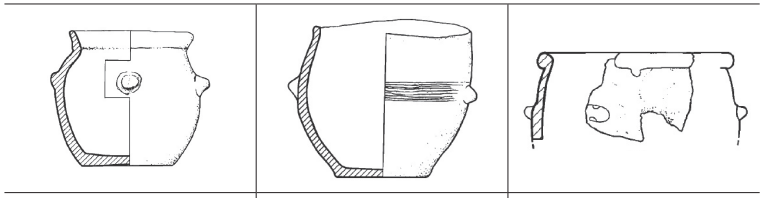
그림 9 풍가보자유적의 무단석광적석묘 출토 토기 각종(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풍가보자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그림 9)는 18점으로, 모두 고구려 건국 이전 시기의 무덤인 무단석광적석묘에서 출토되었다. 기종은 심발(罐), 호(壺), 대부발(豆)이고, 손으로 제작하였으며, 갈색 계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발굴보고에는 심발(罐)을 구연 형태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A형과 B형은 구연부와 경부에서 보이는 형태적 차이를 근거로 분류하였으며, C형은 원형점토대토기이다. M8호묘에서 출토된 심발(그림 10-①)은 4개의 돌기형(유두형) 파수가 부착되어 있는데,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무덤에서 출토된 파수부심발과 형태가 유사하다. M5호묘에서 출토된 심발(그림 10-②) 역시 만발발자 유적 M37호묘(무단석광적석묘) 출토 파수부심발과 형태가 유사하다.

장경호(壺)는 경부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발형(鉢形)의 목이 A형(그림 9-⑦), 호형(弧形)의 목이 B형(그림 9-⑤), 직선적으로 경사진(斜直形) 목이 C형(그림 9-③)이다. 호는 대체로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태토(夾細砂)로 제작하였는데, 불균등한 소성이 관찰되며, 기벽은 대체로 잘 정면(抹光)하였다. 풍가보자고분군에서 출토된 장경호와 두형토기로 보고된 대부발은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만발발자 유적의 제3기 출토품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파수의 부착 여부는 차이가 있어 기원전 3세기대로 추정된다.



① A형 심발(罐) M8호묘, 도19－7 9.5×7×10.3cm	② B형 심발(罐) M5호묘, 도19－4 12.3×7.4×12.2cm	③ C형 심발(罐)_점토대토기 M12호묘, 도19－13 구경 12cm

그림 10 풍가보자고분군 심발(罐)의 유형(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환인 추수동 유적(抽水洞遺址)[20]

추수동 유적은 요녕성 환인현 사도하자향(四道河子鄕) 대전자촌(大甸子村)에 위치한다. 북쪽의 산사면에 입지하는데, 1994년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2기와 수혈 5기가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 원형(F1호)과 방형(F2호)이 있으며, 1호 주거지는 반수혈이지만, 2호 주거지는 지면에 석축으로 기초를 삼았다.



그림 11 추수동 유적 출토 유물 각종(武家昌·王俊輝, 2003: 도4)

20 武家昌·王俊輝, 2003,「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北方文物』200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도전(明刀錢) 280매와 철기가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추수동유적에서는 모래가 혼입된 갈색토기와 승문이 타날된 회색토기, 대상파수(橋狀耳)나 고리형파수(環耳),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4. 환인 왕의구 유적(王義溝遺址)[21]

왕의구 유적은 환인현 북전자향(北甸子鄉) 북전자촌 인근의 작은 산비탈에 위치한다. 혼강의 주요 지류인 부이강(富爾江)의 강안 절벽 위에 해당한다. 2006년과 2007년 조사 당시 방형 주거지 25기, 수혈(회갱) 22기, 구상유구(회구) 3기, 무덤 3기가 발견되었다. 이후 요녕성문물고고연구원(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에서 실시한 2019년도 4차 조사[22]에서는 주거지 1기, 수혈 3기, 구상유구 1기가



① 왕의구 유적 전경
(©요녕성문물고고연구원)



② 1호주거지 출토 유물
(©요녕성문물고고연구원)

사진 2 환인 왕의구 유적

21 樊聖英, 2008, 「桓仁縣王義構高句麗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 2007, 文物出版社; 樊聖英, 2009a, 「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8,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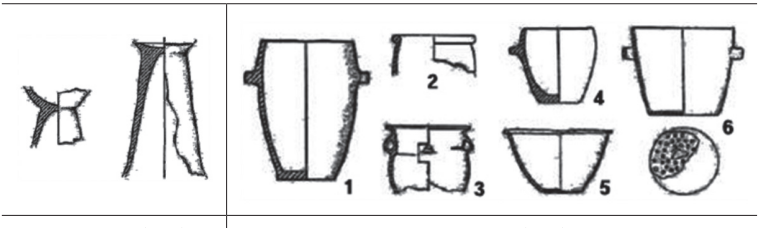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추가로 확인되었다. 철제 낫(鎌), 괭이(钁), 도끼(斧) 등이 출토되어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와 유사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왕의구 유적은 13호와 17호 주거지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이르며, 나머지 23기의 주거지는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도 1호 주거지에서는 벽체는 점토로 쌓고 뚜껑돌을 올린 쪽구들이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한쪽에만 파수가 부착된 적갈색 심발(單耳杯) 1점과 황갈색 시루(甑) 1점, 그리고 토제 어망추와 방추차, 마제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체로 모래가 혼입된 태토(夾砂陶)이며, 니질토기는 극소수이다. 색조는 주로 황갈색, 적갈색, 회갈색이고, 마연된 토기는 거의 없다. 심발(罐), 시루, 완(盆), 두(豆), 발(鉢), 잔(杯) 등의 기종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토대토기와 승문회색토기도 소량 확인된다. 봉성(鳳城) 유가보자(劉家堡子) 유적, 무순(撫順) 연화보(蓮花堡) 유적, 환인 추수동 유적과 유사한 양상이다.

두형토기(그림 12-①)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유물로 보산문화와 밀접하게 관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점토대토기(그림 12-②-2, 사진 2-②) 역시 초기철기시대에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유행



① 두형토기(전기) ② 토기 각종(후기)

그림 12 환인 왕의구 유적 출토 토기의 시대적 구분(王志剛, 2016, 도1-16)

22 http://www.chinanews.com/cul/2020/01-17/9062897.s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던 기종이다. 이 밖에도 봉상형 파수(棒狀耳)가 부착된 토기(그림 12-②-1)는 두만강 유역에서 초기철기시대부터 고구려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던 것이다.

한편, 왕의구 유적에서는 인근의 산두자(山頭子) 1호묘(대개석적석묘)와 함께 무단석광적석묘와 방단광실적석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무덤에서는 종방향 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竪耳罐) 1점(그림 12-②-3)이 출토되었는데, 오녀산성 3기와 하고성자토성의 H1 수혈, 무순 청원(淸原) 임가보(任家堡) 석관묘 그리고 국내성 성벽과 성 내부에서 출토된 이른 시기의 심발과 동일한 형태이다. 진쉬둥(金旭東)은 왕의구 유적 후기 문화층에 해당하는 유물의 양상을 '왕의구 유형(王義溝類型)'으로 지칭하며 서한 중기에서 동한 초기로 편년하고 있다.[23] 왕쯔강(王志剛)은 왕의구 유형의 상한을 서한 중기, 즉 고구려 건국 이전으로 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 하한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로 파악하고 있다.[24] 하한을 늦춰 잡는 것은 오녀산성 3기의 하한 때문인데, 함께 출토된 동이(그림 12-②-5)가 고구려 중기에 등장하는 기종이므로 그 하한은 4세기까지도 내려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구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유행하던 토기와 함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환인지역의 초기철기시대 토기 전통이 고구려까지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5. 환인 망강루고분군(望江樓積石墓地)[25]

망강루적석총은 환인현 아하향(雅河鄕) 석합달촌(石哈達村)의 북쪽 산 구릉, 혼

23 金旭東, 2011,「西流松花江,鴨綠江流域兩漢時期考古學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미공개); 王志剛, 2016,「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에서 재인용.

24 王志剛, 2016, 위의 글, 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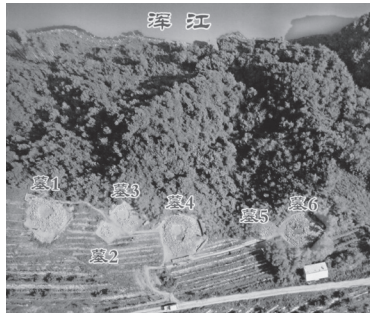
25 李新全, 2005,「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고구려 문화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의 강안절벽 바로 위에 위치한다. 2004년에 6기의 적석총을 발굴조사하였는데, 모두 타원형 평면의 무기단석광적석묘로, 1호묘, 4호묘(15×13×1.6m), 6호묘(13.5×13×1.5m)가 상대적으로 크다. 4호묘는 암반을 얕게 파고 돌을 깐 다음 지상에 시신을 안치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지상에 돌을 깔고 시신을 안치한 뒤 다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였다.

고분군에서는 토기를 비롯하여 유리구슬 목걸이 장식(珠飾), 금제 귀걸이 장식(金製耳飾), 청동 방울, 청동 차관(車轄), 운주(雲珠), 철제 괭이(鐵钁), 철제 재갈(馬銜), 철제 낚싯바늘, 철촉, 이진(耳瑱)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금제 귀걸이 장식이나 유리 목걸이 장식, 청동 방울, 이진 등은 부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강루고분군은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되는 고구려 국가성립기의 적석총으로,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 유구의 내용과 출토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는 4개의 파수가 부착된 장경호가 주류를 차지한다.



① 유적 전경(ⓒ오녀산성박물관)



② 망강루 출토 유물(ⓒ요녕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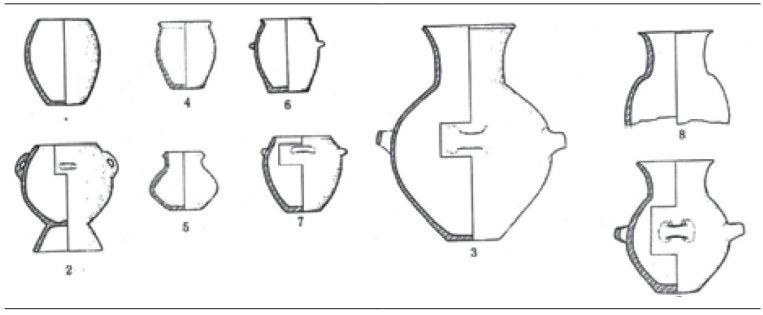
사진 3 환인 망강루고분군

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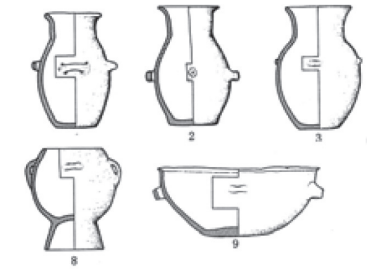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호묘에서는 심발도 확인되고, 대각이 달린 것도 있다. 장경호의 기본 형태는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무덤 출토 토기와 유사하지만, 파수의 형태나 부착 위치는 다르다. 망강루고분군 출토 장경호의 파수는 대체로 동체부 중앙에 부착된 반면, 만발발자 유적 출토 장경호는 동체 하단부에 있다. 또한 만발발자 유적 출토품은 돌기형파수를 기본으로 하나, 망강루고분군은 횡방향 대상파수가 기본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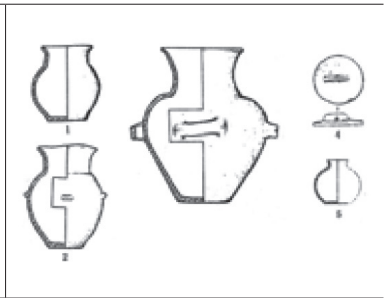
또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사이장경호는 유수(楡樹) 노하심(老河深)고분군의 중층(2기) 혹은 서풍(西風) 서차구(西岔溝)고분군 출토 토기와도 기형과 제작기법 면이 유사하며, 부여 계통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신



① 1호묘



② 4호묘



③ 6호묘

그림 13 환인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孫顯, 2012: 도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빈 용두산 석개묘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이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2호묘에서는 안테나식 손잡이를 가진 동병철검(銅柄鐵劍)이 출토되어 서풍 서차구고분군과도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병철검은 망강루고분군에서도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27] 형태적인 특징만으로 보면 서차구고분군-용두산고분군-망강루고분군 순으로 편년해볼 수 있다.

한편,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는 오녀산성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녀산성에서는 종방향 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 토기가 주를 이룬다. 만발발자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생활유적과 무덤이라는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6. 환인 오녀산성(五女山城)[28]

오녀산성은 환인 시가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오녀산(해발 806m)에 위치한다. 오녀산의 정상부는 남북 길이 600m, 동서 너비 110~200m가량의 넓은 평탄지이며, 사방이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성은 정상부와 완만하게 경사진 동쪽 산비탈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제1기 문화층은 신석기시대 후기, 제2기 문화층은 청동기시대 후기, 제3기 문화층은 고구려 전기, 제4기 문화층은 고구려 중기에서 후기,[29] 제5기 문화층은 금대에 해당한다. 제3기 문화층은 Ⅱ, Ⅳ구역과 Ⅲ구역의 대형 건물지 부근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1호 대형 초석 건물지(J1)와 수혈(H5, H10, H11), 평면형태 원형계 혹은 말갈장

26 王綿厚, 2009,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論高句麗起源和早期文化的內涵與分佈」, 『東北史地』 2009-6, 35쪽; 孫顥,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111쪽.

27 오강원, 2015,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기술 혁신과 고분 구조와 장제의 전환-환일 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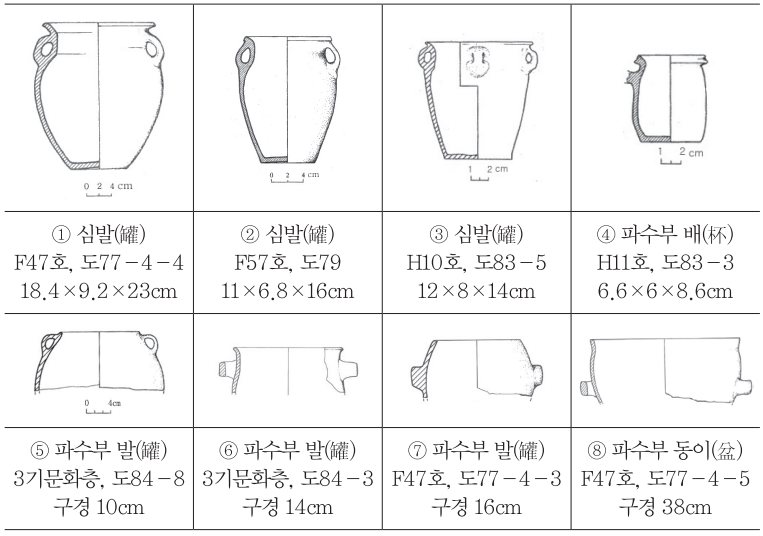
2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앞의 책.

29 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형인 수혈 주거지(F35, F36, F47, F57)가 이에 해당한다. 주거지에는 노지(F35)나 간단한 부뚜막 시설(F47)만 설치되었으며 쪽구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3기 문화층 출토 토기(그림 14)의 최소 개체수는 25점이다. 모두 가는 모래가 섞인 조질 태토로, 니질 태토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는 손으로 빚어 제작하였고, 평저를 기본으로 한다. 색조는 황색(황갈색) 계통과 회색(회갈색) 계통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인된 기종으로는 심발, 호, 동이, 합, 그리고 컵형토기가 있으며, 심발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개 혹은 4개의 파수가 경부 바로 아래에 부착된 토기가 많이 확인되는데, 특히 종방향 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위 대상파수부 심발은 인근의 환인 왕의구 유적이나 집안 국내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만발발자 유적이나 환인 망강루적석총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파수부 발 또는 파수부 동이 등은 토기의 형태나 파수의 특징을 고려



① 심발(罐) F47호, 도77－4－4 18.4×9.2×23cm	② 심발(罐) F57호, 도79 11×6.8×16cm	③ 심발(罐) H10호, 도83－5 12×8×14cm	④ 파수부 배(杯) H11호, 도83－3 6.6×6×8.6cm
⑤ 파수부 발(罐) 3기문화층, 도84－8 구경 10cm	⑥ 파수부 발(罐) 3기문화층, 도84－3 구경 14cm	⑦ 파수부 발(罐) F47호, 도77－4－3 구경 16cm	⑧ 파수부 동이(盆) F47호, 도77－4－5 구경 38cm

그림 14 환인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전기 토기(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볼 때, 만발발자유적을 비롯한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 전통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문제 검토

고구려 토기의 기원 및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단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고구려의 국가 형성은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적석묘를 조영하였던 초기철기시대의 재지 세력을 기반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주몽이 부여 출신이라고 하지만 토광묘를 기반으로 하는 부여의 묘제 전통은 고구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 초기 적석총인 환인 망강루고분군의 적석총에서 부여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서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순발은 기형의 측면에서 압록강 중류지역 및 혼강유역 일대 청동기시대 토기인 공귀리유형 및 미송리형토기에서 고구려 토기 연원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30]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 요소인 대상파수(교상파수)의 연원을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찾은 것으로, 청동기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대상파수가 초기철기시대까지도 지역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고구려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니질태토와 마연기법(磨硏技法) 등의 요소는 전국 말에서 한나라 초기 회도(灰陶) 제작기법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데,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철기문화가 요동지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고구려 토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진 재래의 지역 전통을 바탕으로 철기문화와 함께 새롭게 들어온 토기 제작기술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30 박순발,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硏究』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종택은 박순발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고구려 형성기의 토기는 사립이 섞인 조질태토가 대부분이므로 니질태토라는 일반화보다는 니질화(泥質化)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 북한의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 유적의 상층에서 출토된 토기를 표지유물로 하는 노남리형토기를 고구려 토기의 초현형(初現型)으로 제시하면서, 노남리 유적이 청동기시대부터 고구려 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한 연대는 기원전 2세기까지 올려볼 수 있으나 하한 연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31]

지금까지도 고구려 초기 토기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는 잔석립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앞서 언급된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니질태토와 마연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성자 동굴유적을 시작으로 요동 북부와 동부 지역에 널리 퍼진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니질태토와 마연기법 혹은 기벽을 다듬어 윤을 내는 이른바 말광기법(抹光技法)이 관찰된다. 이는 만발발자 유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토기는 잔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된다.

이처럼 환인 오녀산성을 위시한 국가성립기 고구려 유적의 토기에서는 니질태토와 마연기법이 확인되지 않아 이 두 요소는 재지적 전통의 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철기문화의 도입과 함께 한반도에 전해진 토기 제작기술, 즉 니질화된 태토, 타날기법, 가마의 사용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 역시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

사실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자료의 밀도 있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혼강 유역의 초기철기시대 ~ 고구려 초기 유적의 출토품을 대상으로 실마리를 줄 것으로 기

31 최종택, 2015, 「고구려 토기의 형성과 변천 과정 연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하였으나, 고구려 초기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현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고구려 건국의 핵심 지역이며, 고구려 초기 토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환인 오녀산성 제3기 문화층과 망강루고분군 출토품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초기철기시대 및 고구려 초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재지적 전통이 고구려 토기 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건국 전후 시점에 조성된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비교한 결과, 우선 생활유적과 무덤 출토 토기는 형태와 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기철기시대의 여러 유형의 적석계 무덤에서는 부장용으로 별도 제작된 소형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생활유적 출토 토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장경)호와 (심)발의 세트 구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생활유적과 무덤에서 보이는 차이는 오녀산성과 망강루고분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구려 초기에도 초기철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생활용 토기와 의례용 토기를 구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녀산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종방향 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은 혼강과 압록강 일대 고구려 전기 토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기종으로, 환인 왕의구 유적과 하고성자토성, 집안 국내성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반면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이 토기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심발과 소형 장경호에 부착된 작은 종방향 대상파수가 확인되었다. 물론 오녀산성 출토 심발은 고구려가 발원한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토기와는 기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그 연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횡방향 대상파수가 부착된 발이나 동이 역시 환인과 통화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초기철기시대 토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없었고, 토기의 전체적인 형태나 파수는 오히려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고구려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오녀산성에서 출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 고구려 토기는 파수나 일부 기형에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지는 재지적 전통의 요소가 계승되었으며, 종방향 대상파수부 심발과 같은 일부 기종은 고구려 성립과 함께 새롭게 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고구려 초기 적석총을 대표하는 환인의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만발발자 유적의 제4기 초기철기시대 적석계 무덤 출토품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또 대상파수를 제외한다면 환인 풍가보자고분군 출토품과도 기형적인 면에서 유사하여, 오녀산성과는 달리 혼강 유역의 재지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망강루고분군 출토 파수부장경호(사이장경호)는 서풍 서차구고분군이나 유수 노하심고분군 등과 같은 부여 관련 유적 출토품과도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 장식이나 동령, 유리제 이전(耳璫) 및 동병철검 등은 서차구고분군이나 노하심고분군에서도 모두 확인되고 있어, 이 토기 또한 부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신빈 용두산 석개묘에서도 동병철검과 함께 유사한 토기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구려 토기 성립의 계통 문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Ⅴ. 맺음말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및 고구려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적 계통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만발발자유적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고구려가 발원한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초기철기시대에서 고구려 초기에 이르는 토기 자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의 단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孫顥, 2012, 앞의 글, 1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결과, 우선 만발발자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만으로 고구려 토기의 기원 문제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는 제4기 문화층 출토 토기는 기본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토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청동기시대와는 달리 저부의 굽이 사라지면서 점차 평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횡방향 대상파수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제4기의 적석계 무덤에서는 (심)발과 (장경)호의 세트 부장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실용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부장용으로 별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적석계 무덤은 묘제의 유형이 다름에도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공통적으로 부장되고 있었는데, 출토된 토기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지상에 매장주체부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맥을 같이하는 무단석광적석묘에서도 동일한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지적 전통은 고구려 건국 이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유적과 유물의 집중도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만발발자 일대에 거주하였던 집단이 고구려 건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고구려 초기 토기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인 오녀산성의 제3기 문화층,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를 만발발자 유적을 포함한 고구려 건국 전후 시점 유적 출토 토기와 비교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에 형성된 재지적 전통, 즉 기본적인 형태와 파수 등의 요소가 고구려 토기에도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생활유적에서 주로 발견된 종방향 대상파수 부착 심발은 초기철기시대의 토기 제작 전통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기존에는 고구려 토기가 한나라를 위시한 중원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고구려 초기 토기는 주로 잔석립이 혼입된 태토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기에 고구려 토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알려진 니질태토와 마연기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특징은 오히려 마성자 동굴유적을 시작으로 요동 북부와 동부 지역에 널리 퍼진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말광기법(抹光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法) 등과 함께 유행하였는데, 초기철기시대에서 고구려 초기가 되면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철기문화의 도입과 함께 니질화된 태토, 타날기법, 가마의 사용 등과 같은 토기 제작의 새로운 기술적 요소 또한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반면 망강루고분군을 비롯한 혼강 유역의 적석계 무덤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토기가 고구려 초기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망강루고분군의 여러 유물은 부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문화적 계통 문제는 토기뿐만 아니라 묘제와 금속기 등 다양한 물질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 글에서는 토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은 고구려 연구에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하면, 고구려 토기는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집단이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지던 토기 제작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부여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중국동북지역 고고조사 현황 -『중국고고학연감』(2000~2010)을 중심으로』.

김승옥, 2015, 「묘제의 특징과 변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오강원, 2015a,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기술 혁신과 고분 구조와 장제의 전환-환일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_____, 2015b,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물질문화와 주변 세계-고분 부장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李新全 저, 강현숙 역, 2018, 「요동지역 적석묘의 변천」,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 문화』, 진인진.

최종택, 2015, 「고구려 토기의 형성과 변천 과정 연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樊聖英, 2008, 「桓仁縣王義構高句麗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鑑』 2007, 文物出版社.

_____, 2009a, 「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8, 文物出版社.

_____, 2009b, 「桓仁縣馮家堡子高句麗墓群」, 『中國考古學年鑒』 2008,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1996~1999, 2003年度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논문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정원철 역), 2006, 「길림 장백현 간구자 묘지 발굴 간보」, 『高句麗渤海研究』 24.
박순발,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양시은, 2005, 「환인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양상과 성격」, 『북방사논총(東北亞歷史論叢)』 3.
_____,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王綿厚, 2001,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渤海研究』 12.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동북아역사논총(북방사논총)』 1.
이종수,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東洋學』 53.
_____,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 報告」-」, 『야외고고학』 37.
최종택, 1998, 「高句麗 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문식, 2008, 「渾河 유역 고인돌의 특이 구조와 성격」, 『東洋學』 43.
_____,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백산학보』 115.
_____,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東洋學』 81.

高愛霞, 2007, 「黑龍江省集賢縣永紅城址一,二,三號灰坑清理簡報」, 『北方文物』 2007-2.
起俊傑·金旭東, 2014, 「吉林九台市關馬山M1的時代, 文化性質及相關問題」, 『考古』 2014-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武家昌·王俊輝,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003-2.
孫顥,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王綿厚, 2009,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論高句麗起源和早期文化的內涵與分佈」, 『東北史地』 2009-6.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遼寧桓仁縣馮家堡子積石墓羣的發掘」,『考古』2016-9.
李新全, 2009,「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東北史地』2009-1.
趙裏萌, 2016,「多孔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양시은

만발발자 유적은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화적 계통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만발발자유적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의 단서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건국 직전 시점인 제4기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는 토기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토기 전통을 계승하면서 저부의 굽과 파수 같은 일부 요소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4기의 적석계 무덤에는 묘제의 유형이 다름에도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공통적으로 부장되고 있다. 이는 지상에 매장주체부를 갖춘 무단석광적석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통해 토기의 재지적 전통이 고구려 건국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유적에서 고구려 시기의 유구와 유물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만발발자 일대에 거주하였던 집단은 고구려 건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글에서는 고구려 건국의 핵심 유적인 환인 오녀산성의 제3기 문화층과 망강루고분군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유적 자료를 만발발자 유적과 비교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을 검토해보았다. 고구려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종방향 대상파수 부착 심발은 초기철기시대의 토기 제작 전통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철기문화의 도입과 함께 니질화된 태토, 타날기법, 가마의 사용 등과 같은 토기 제작의 새로운 기술적 요소 또한 잔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한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이 또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웠다. 반면 망강루고분군을 비롯한 혼강 유역의 적석계 무덤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토기가 고구려 초기까지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토기를 포함한 망강루고분군의 여러 유물은 부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집단이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지던 토기 제작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부여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 토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문화의 계통 문제는 토기뿐만 아니라 묘제와 금속기 등 다양한 물질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구려, 토기, 만발발자 유적, 오녀산성, 망강루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guryeo Pottery through the Wanfabozi Site in Tonghua

Yang Sieun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guryeo pottery, focusing on the Wanfabozi Site in Tonghua city of Jilin Province, China. That site is the important historical site for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Gojoseon and Goguryeo.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ottery from the Early Iron Age of Wanfabozi Site, it was found that some elements such as the mounted base and the handles were changing while inheriting the tradition of pottery from the Bronze Age. In the stone-typed tombs of the 4th period, similar types of pottery were commonly buried despite the different types of tombs. This burial pattern of pottery was also found in the Stone Mound Tomb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oguryeo Kingdom. So, it was possible to guess that the historical tradition of pottery continued until after Goguryeo. However, it seems that the group that lived in the Wanfabozi Site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founding process of Goguryeo due to the lower proportion of remains in Goguryeo period.

Meanwhile, this paper examined various pottery from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guryeo, including the Wunü Mountain Fortress and the Wangjianlou Site, which are the core site of Goguryeo, to clarify the origins of Goguryeo pottery. As a result, the deep bowl with vertical band shaped handle was difficult to find a direct link with the tradition of pottery in the early Iron Age.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some of the pottery from the stone-typed tombs, including the Wangjianlou Site, continued to the traditions of the lat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until the early Goguryeo period.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as various relics of Wangjianlou Site, including pottery, are closely related to Buyeo.

In conclusion, Goguryeo pottery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external influences including Buyeo, although the group that lived in the Hun River basin and the upper middle of Yalu River inherited some of the pottery production tradition from the late Bronze Age. Of courese, the issue of the origin and formation of Goguryeo culture should be comprehensively dealt with not only pottery but also various archaeological records such as tombs and metalwares.

Keywords: Goguryeo, Pottery, Wanfabozi Site, Wunü Mountain Fortress, Wangjianlou Sit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화(通化)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김상민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조교수

I. 머리말
II. 통화 만발발자 유적 철기의 출토 양상
III. 만발발자 유적 철기문화의 시·공간적 검토
IV. 천산산맥 이동지역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전개 양상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요동지역 철기문화는 전국 연나라 철기의 유입과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거친다. 연나라 철기의 유입기에는 현지의 청동제 무기와 철제 농공구가 공반되는 양상을 띠지만, 이후 한나라 문물의 등장과 함께 철제 농공구의 현지적 변형, 철제 무기류의 등장이 이루어진다. 이는 전한대에 설치된 군치소를 중심으로 한 철기생산과 지역 거점 단위의 유통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동시기 천산산맥 이동인 압록강 유역 일대의 철기는 재지적 기종의 존재, 연계철기의 변형 등 지역성이 뚜렷해진다.[1] 전한대 이후 요동지역은 다양한 토착집단에 의해 철기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로남리·토성리 유적의 철기생산 흔적은 그 사례일 수 있다.

그동안 요동지역 철기문화는 이른바 '세죽리-연화보문화' 속 연나라 철기의 등장과 전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동지역 내 철기문화의 현지화와 지역성,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일례이다.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 가운데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미진하다. 필자 역시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

---

* 투고: 2021년 1월 11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인 중국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관계(NAHF-2020_기획연구-33)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다. 기획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선미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교열에 김동일(목포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혜경(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두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5, 101~1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원전 2~1세기 요동지역의 현지 세력의 하나인 부여,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는 고구려 물질문화까지 살필 수 없었던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초기 고구려 물질자료의 특징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대 고구려의 철기 양상이 불투명하다는 이남규의 지적[2]처럼 고조선 후기와 초기 고구려를 연결해주는 자료의 공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상세히 보고된 국내성, 오녀산성 등의 3~4세기대 철기 양상을 남한 내 출토된 고구려 유적과 비교하여 고구려 철기문화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한편, 북한학계의 경우 일찍부터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철기문화의 특징을 살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정백운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고고학 자료라는 관점에서 철기를 집성하였다. 또한 한반도 철기문화의 기원이 중국 전국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4] 이후의 북한 고고학 연구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시기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백운의 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에서 출판한 고고학 개론서인 『조선고고학개요』에서도 확인된다.[5] 여기서는 한반도 철기의 사용시기를 기원전 5~4세기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연구가 황기덕의 성과이다. 황기덕

2 이남규, 2018, 「고구려 제철문화의 특성」, 『고구려발해연구』 62, 고구려발해학회, 30쪽.

3 박장식, 2004, 「高句麗의 鐵器製作 技術體系에 대한 硏究」, 『고구려연구』 18집, 고구려연구회; 차순철, 2004,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 『북방사논총』 2호, 고구려연구재단; 김보람, 2017, 「고구려 철촉의 편년 연구」, 『馬韓百濟文化』 30; 이남규, 2018, 위의 글.

4 정백운, 1957, 『조선 금속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출판사, 39쪽; 정백운, 1958, 「우리나라에서 철기 사용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 3, 과학원출판사, 57쪽.

5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153~154쪽; 박진욱, 1988, 『조선 고고학 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8~1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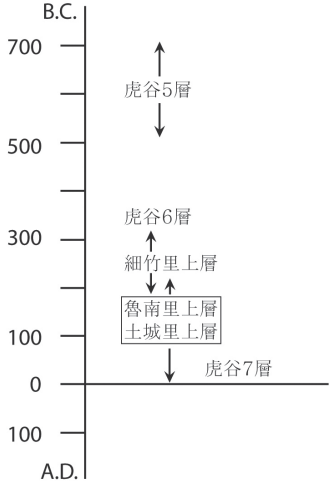


그림 1 황기덕의 유적편년표

출처: 小田富士雄 외, 1983/수정.

은 당시까지 철기가 출토된 유적의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철기의 사용 개시기를 상향하였다.[6] 유적의 시기 관계를 호곡 5층-호곡 6층-세죽리 상층-로남리·토성리 상층-호곡 7층 순으로 보고 호곡 5층의 시기를 기원전 8~7세기까지 상향하였다(그림 1). 그럼에도 두만강 유역의 호곡유적 5층의 시기를 상향하는 것에 비해 압록강 유역의 세죽리 유적과 로남리·토성리 유적의 시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정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연구자들에 의해 철기의 유입과 사용시기를 더욱 상향하려는 연구경향을 띠고 있음에도 압록강 중하류역의 유적을 대상으로는 시기의 편차는 크지 않다. 이것은 후기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압록강, 독로강 유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중 로남리, 중강 토성리 유적의 조사에 대한 소개[7]에서 고구려 성립기의 제철기술과 관련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한편, 최근 보고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가설적 연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쪽 구역에 해당하는 1구역에서 출토된 철기와 관련 유물의 형식학적 분석과 층위별 검

6 황기덕, 1981, 「우리나라에서 철생산의 시작」, 『역사과학』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0쪽.

7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57~60쪽; 정찬영, 1983, 『압록강, 독로강류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1~52쪽, 10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증, 동쪽 구역에서 확인된 적석묘 계통인 99Ⅳ TWM29와 99TWM41 내 부장된 철기의 비교 분석은 고조선 후기에서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만발발자 유적의 철기류와 일괄자료를 살피며, 철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촉에 주목하고자 한다. 석촉에서 철촉으로 재질 변화와 함께 보이는 형식학적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시간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분묘 내 부장된 철기류의 특징을 살피며, 요하의 동쪽인 천산산맥과 압록강 일대의 주변 유적들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지역 간의 상호관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는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위치와 주로 다루는 유적은 〈그림 2〉와 같다. 이 글을 통해 후기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독자적 발전 과정의 추이를 살필 수 있길 기대한다.

Ⅱ. 통화 만발발자 유적 철기의 출토 양상

1. 만발발자 유적 철기의 출토 현황

만발발자유적 내 출토된 철기는 보고서의 시대구분에 의하면, 전한대부터 출토된다. 대개석적석묘로 분류된 M41에서 주조철부편, 주거지로 볼 수 있는 F4에서는 주조철부가 출토되었다. 또한 1구역의 T396, 2구역의 T436, 3구역의 T555, 6구역의 T788의 3층과 4층에서 철촉 중심의 출토 양상이 확인된다. 이후 위진시기에 방단적석묘 내에서 주조철부, 철촉, 철제 환두부가 부장되었으며, 수혈과 구상유구인 H1과 G4 내에서 철환(鐵環)과 철정(鐵釘), 편자[蹄掌] 등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1, 2, 4구역을 중심으로 2층 내 철기의 출토가 확인되는데, 철촉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釘)으로 기술된 봉상철기와 편자의 출토가 눈에 띈다. 보고서의 시대비정으로 본다면, 전한대~양한교체기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후, 위진시기는 기원 3~5세기로 볼 수 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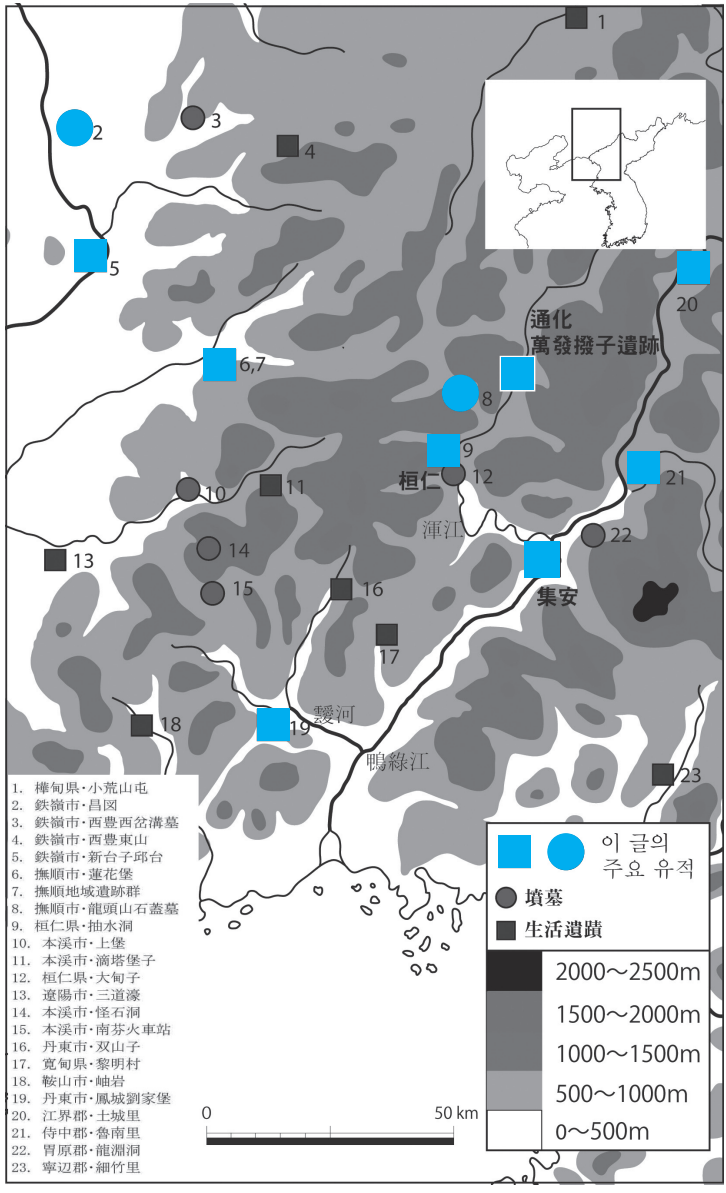


그림 2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위치와 이 글의 주요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만발발자 유적 내 철기의 출토 현황(회색: 분석대상)

구역	출토 위치	유구	기종	공반·일괄유물	보고서 시대구분
1	97TWT306②	地層	鏃 1		위진시기
	97TWT335②	地層	鏃 1, 錐 1	옥석제 추 1, 石刀 1, 토제 어망추 1	위진시기
	97TWT369②	地層	釘 1	銅器 1, 鉢 2	위진시기
	97TWT399②	地層	鏃 1	청동 숟가락 1, 녹각제 착 1, 숫돌 1, 石斧 1	위진시기
	97TWT396③	地層	鏃 1	陶盞 1, 石短劍 1	서한~동한
	97ⅠTWH1	수혈	環 1, 釘 1	소형 罐 1, 토제 어망추 2, 토제구슬 1, 녹각제 착 1, 석제 어망추 5, 石鏃 7, 석착 1, 숫돌 3	위진시기
2	97TWT347②	地層	鏃 1	평기와 1, 弦紋토기편 1, 어망추 1, 石劍柄 1	위진시기
	97TWT376②	地層	鏃 1	어망추 1, 평기와 1	위진시기
	97TWT436②	地層	釘 1	石斧 2	위진시기
	97TWT467②	地層	鏃 1	石鏃 2	위진시기
	97TWT499②	地層	活環 1	骨錐 1, 石鏃 1, 어망추 1, 토제 구슬 1, 방추차 1	위진시기
	97TWT436③	地層	鏃 1	방추차 1	서한~동한
	97ⅡTWF4	주거지	鐵斧 1	鉢 2, 어망추 2, 갈판 1, 石鏃 2, 石料 1, 石餠 1, 石球 1, 찍개 1, 石器 1, 骨甲片 3	서한~동한
	97ⅡTWG4	구상유구	편자 1	어망추 29, 陶飾 2, 방추차 2, 陶鼎足 1, 토제 용범 1, 석제 어망추 14, 현무암 덩어리 1, 石器 1, 石錘 1, 검파두식 1, 긁개 2, 石鏃 13, 石斧 3, 석제 자귀 1, 石刀 3, 석착 1, 숫돌 6, 石餠 2, 숫돌 1, 卜骨 1, 골제 비녀 2, 骨錐 10, 골제 구슬 2, 이빨 장식 1	위진시기
	97ⅡTWH84	수혈	釘 1	숫돌 1, 토제 어망추 3	위진시기
3	98TWT555③	地層	鏃 1	石短劍 1, 어망추 1, 紋飾陶片 1	위진시기
	98TWT555④	地層	釘 1	石鏃 2, 어망추 2, 陶鉞形器 1, 弦紋 토기편 1	서한~동한
	98TWM7 (長方形竪穴土坑墓)	墓葬	刀 1		명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역	출토 위치	유구	기종	공반·일괄유물	보고서 시대구분
	98TWM11 (梯方形竪穴土坑墓)	墓葬	鎬 1, 鏃 18, 刀 1, 錐 1, 環 3, 帶鉤 1, 插環 1, 扣環 1	石器 1, 銅弔鍋 1, 骨板 1, 淸化盤 1	명대
	98TWM12 (長方形竪穴土坑墓)	墓葬	環 2, 목·철제 궁시 1, 궁시 장식 1, 鏃 5, 刀 1, 環鉤 2, 鐵錐 1(침통 등)	마노석 덩어리 1, 銅活環 2, 銅環 2, 골제 단추 7, 竹節形飾 1, 납제 귀걸이 2, 청동 침통	명대
	98TWM13 (梯方形竪穴土坑墓)	墓葬	가위 1	청동 반지 1, 銅環 9, 골제 단추 2, 납제 귀걸이 1	명대
	98TWM14 (梯方形竪穴土坑墓)	墓葬	족집게 1, 骨柄鐵刀 1, 鏃 6, 刀 1, 錐 1, 環 4, 火鍊 1, 허리띠 고리 3, 창날 1	銅活環 2, 銅環 6, 銅指環 2, 청동 화폐 1(원풍통보), 銅箍 1, 銅穿釘 1, 골제 단추 2, 骨錐套 1, 骨板 1, 鑽孔骨片 1	명대
4	98TWT139②	地層	鏃 1	없음	위진시기
	98TWT140②	地層	鏃 2, 鐵器 2, 方釘 1, 鐵滓 1	紋飾陶片 1, 鹿角器 1	위진시기
	98TWT207②	地層	鏃 1	없음	위진시기
	98TWT229②	地層	鏃 1	石鎌 1	위진시기
	98TWT255②	地層	鏃 1, 刀 1	없음	위진시기
	98TWT256②	地層	鏃 2	없음	위진시기
	98TWT257②	地層	鎖 1, 편자 1, 方釘 1	陶多孔器 1, 석제 추(활석제) 1	위진시기
5	99TWM41 (大蓋石積石墓)	墓葬	鐵斧 1	방추차 2, 石鏃 1, 靑銅器 1	서한~동한
6	99TWT788③	地層	鏃 1	石鏃 1	서한~동한
	99ⅥTWM29 (方檀積石墓)	墓葬	鐵斧 1, 帶環 1, 鏃 1	방추차 1, 鉛彈子 2	위진시기
채집			鐵斧 1, 劍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8] 주조철부가 비교적 장기간 부장되었다는 점, 철기 중에서 철촉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조철부는 모두 동형식이지만, 파편이거나 공부나 인부가 훼손된 채 출토되었다. 철촉은 비교적 다양한 평면형태를 띠지만 경부가 짧은 것과 긴 것, 인부형이 유엽형(柳葉形)인 것과 착두형(鑿頭形)인 것이 다수이다. 반면, 명대의 철기는 3구역의 분묘에 집중된다. 철도, 철촉 등 무기류가 다량 부장되는데, 토광묘라는 무덤구조가 비교적 일률적인 장축방향을 띠며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동시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반되는 자기와 화폐 등으로 보아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는 고구려 성립기의 대상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유구별 철기의 출토 양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발발자 유적의 철기는 대부분 트렌치 내부의 문화층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로 인해 철기가 출토된 평면적 위치와 층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적 내 3층과 일부의 4층이 서한~양한교체기, 2층은 위진시기로 비정되고 있으나, 층위 간 선후관계는 인정되지만 시기를 단정하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구 내 출토된 철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묘는 유적의 동쪽인 5구역과 6구역에 집중되며, 이 글에서 다루는 M41호와 M29호도 마찬가지이다. 대개석적석묘로 분류된 M41호는 반지하식의 매장주체부의 주변으로 약 20~40cm 적석된 벽면 위에 판재의 개석을 덮은 형태로 주조철부의 파편과 무경식 석촉, 청동편, 방추차가 함께 출토되었다. 반면 M29호묘의 경우 방형으로

8 보고서에서는 중국 고대사의 국명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종수는 보고서의 연대를 참고하여 전한대~양한교체기(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위진시기(기원 3~5세기)로 제시하였다.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 報告」」, 『야외고고학』 37, 149~1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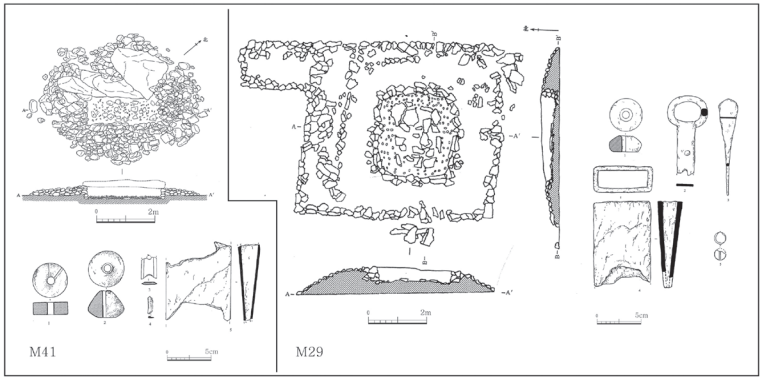


그림 3 만발발자 유적 무덤 내 부장된 철기류

구획된 방단적석묘로 방형의 매장시설이 지상에 구축되어 있다. 주조철부와 함께 철촉, 결합식으로 보이는 철제 환두부, 방추차가 함께 출토되었다. 주조철부와 촉, 방추차가 공반되는 공통적 요소도 있지만 화살촉의 재질 변화가 주목된다. 적석묘의 매장시설의 위치와 구획성, 화살촉의 재질 변화 등을 고려하면 M41호가 M29호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M41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연문화적 요소로 비정하고 공반된 석촉 등의 석기를 토착문화로 보면서도 한 문화와 토착문화적 요소가 병존한다고 기술되어 있다.[9] 또한 보고서에서 비정한 시기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두 무덤에서 보이는 기종 구성의 특징이 비정된 시기처럼 큰 시차를 두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한편, 수혈유구 내 철기가 출토된 사례는 F4, G4, H1이 있다. 모두 2구역에 위치하는데, F4는 서한~양한교체기, 나머지 G4와 H1은 위진시기로 보았다. 먼저 주거지로 보이는 F4에서는 공부가 결실된 주조철부와 함께 발형토기 2점과 석촉 2점, 석검편 어망추, 재가공한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주조철부는 공부

9 吉林省文物研究所,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524~5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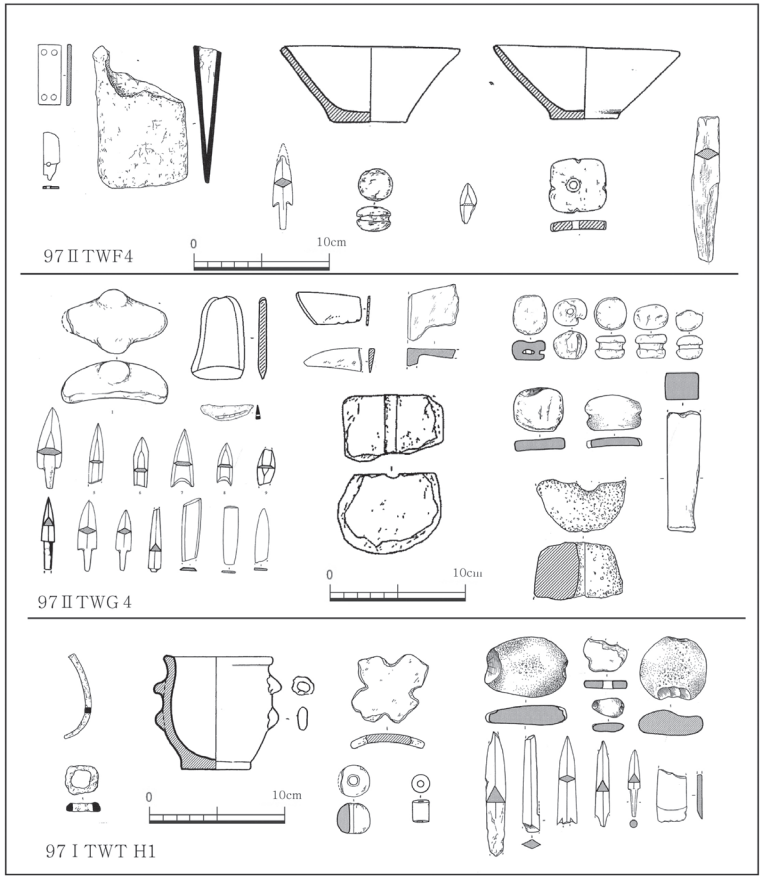


그림 4 수혈 유구 내 출토 철기류

에서 인부로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며, 공부가 인부의 선단까지 깊게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무경식과 유경식의 석촉이 출토되며, 미완성된 석검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조철부와 같은 농공구의 철기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하지만 아직 지역 내 석제를 소재로 한 도구를 제작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G4와 H1, H84에서 확인된 철제품은 편자편과 철정(鐵釘), 철환(鐵環)과 같은 기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4와는 다른 철기의 기종 구성을 띤다.

수혈유구 내 출토된 철기는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며 시대를 비정하였다. F4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를 평면 장방형의 연식(燕式)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함께 출토된 골갑을 흑룡강성 영흥(永紅) 유적의 골갑과 비교하여 서한대로 비정하였다. G4의 철제 편자는 집안 JSZM호묘의 편자를 근거로 기원 1세기대로 보았으며, 함께 출토된 어망추를 근거로 오녀산성 4기층인 기원 4~5세기대로 비정하였다. 또한 H1의 철정과 철환은 오녀산성 4기층과 유사하며, 한 대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골갑(F4)과 어망추(G4) 등을 상대 비교하여 시기를 비정한 점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골갑이 출토된 유적이 속한 문화유형이 서한시대에 해당하므로 F4의 시기를 서한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흑룡강성이라는 원거리 문화유형과의 상대비교라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한 유적을 지칭하지 않고 어망추의 형태가 위진시기에 해당하는 점은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수혈유구에서 함께 출토된 유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경식과 유경식의 철촉이 출토되는 점, 석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 고식의 검파두식과 소형 관(罐)이 출토되는 점 등은 오히려 보고자의 비정한 시대에 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Ⅲ. 만발발자 유적 철기문화의 시·공간적 검토

1. 화살촉을 통해 본 만발발자 유적 철기의 변천 단계

이 글에서는 유적 내 다수를 띠는 철촉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철기와 함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석촉을 포함하여 석재에서 철재로의 재질 변화 시점, 화살촉의 형식 변화 속에서 만발발자 유적 내 철기의 등장과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고구려 성립기 요동지역 내에서 보이는 파편철기의 유통과 재가공이라는 관점에서 주조철부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화살촉의 분류와 변화 양상

이번에 보고된 만발발자유적 내 출토된 철촉과 철기류와 공반되거나 같은 층위로 보고된 석촉을 포함하여 화살촉의 형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질로 석제품과 철제품으로 대별한 후 경부의 유무 및 길이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10]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만발발자 유적 화살촉의 분류

분류		기준
석촉	무경석촉	촉신의 길이가 5cm 이하의 경부가 없는 것
	단경석촉1	전체 길이가 5cm 내외이며, 경부 길이가 2cm 이하인 것
	단경석촉2	전체 길이가 8cm 내외이며, 경부 길이가 2~4cm 내외인 것
철촉	단경철촉	전체 길이가 6~8cm 내외이며, 경부 길이가 2~4cm 내외인 것
	장경철촉	전체 길이가 8cm 이상이며, 경부 길이가 5cm 이상인 것

〈표 3〉 만발발자 유적 내 화살촉의 현황

재질	연번	출토 위치 보고번호	길이(cm)			형태		분류
			전장	경부	촉신부	평면형	단면형	
석촉	1	97Ⅱ TWG4:5	3	0	3	역자형	육각	무경석촉
	2	97Ⅱ TWG4:35	3.7	0	3.7	역자형	육각	
	3	97Ⅱ TWG4:74	4.2	0	4.2	역자형	육각	
	4	97Ⅱ TWG4:57	4.3	0	4.3	유엽형	편평	
	5	97TWT499②:17	4.4	0	4.4	유엽형	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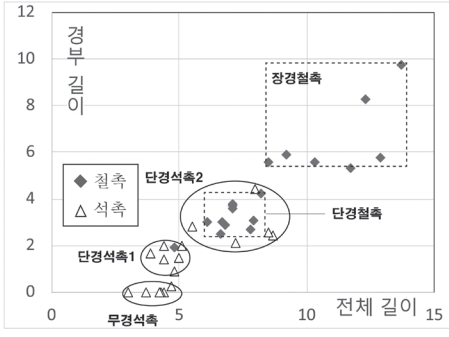
10 이 밖에도 촉신부의 평면형과 단면형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만발발자유적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세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향후 천산산맥 이동의 압록강 중하류지역의 유적으로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세분해가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질	연번	출토 위치 보고번호	길이(cm)			형태		분류
			전장	경부	촉신부	평면형	단면형	
석촉	6	97 Ⅱ TWG4;51	4.7	0.25	4.25	유엽형	삼각	단경 석촉 1
	7	99TWT788③;1	4.8	0.91	4.25	유엽형	마름모	
	8	97 Ⅱ TWG4;75	4.4	1.37	3	유엽형	마름모	
	9	97 Ⅱ TWG4;77	5	1.5	3.5	유엽형	마름모	
	10	98TWT555④;19	3.9	1.63	2.36	유엽형	마름모	
	11	97 Ⅰ TWH1;14	4.4	1.98	2.88	유엽형	삼각	
	12	97 Ⅱ TWG4;10	5.1	2	3.18	유엽형	삼각	
	13	97TWT467②;13	7.2	2.1	8.8	유엽형	마름모	단경 석촉 2
	14	97 Ⅰ TWH1;27	8.7	2.4	7.26	유엽형	삼각	
	15	98TWT555④;9	8.5	2.54	6	유엽형	삼각	
	16	97 Ⅱ TWF4;3	5.5	2.8	2	유엽형	마름모	
	17	97TWT467②;12	8	4.4	7.6	역자형	육각	
철촉	1	98TWT140②;2	4.8	1.9	3.2	착두형	편평	단경 철촉
	2	98TWT255②;2	6.1	3	3.3	착두형	편평	
	3	97TWT306②:4	6.6	2.5	3.83	유엽형	마름모	
	4	97TWT399②;18	6.7	3	3.7	유엽형	마름모	
	5	97TWT396③;4	6.8	2.9	3.8	유엽형	마름모	
	6	98TWT229②;2	7.1	3.6	4	유엽형	편평	
	7	98TWT140②;1	7.1	3.7	3.8	유엽형	마름모	
	8	98TWT207②;1	7.1	3.8	3.7	유엽형	마름모	
	9	98TWT256②;1	7.8	2.66	5.55	착두형	편평	장경 철촉
	10	97TWT347②;2	7.9	3.1	4.6	유엽형	마름모	
	11	97TWT335②;9	8.2	4.2	3.8	유엽형	마름모	
	12	99TWT788③;4	8.5	5.6	3	능형	편평	
	13	98TWT256②;2	9.1	4.9	4.2	유엽형	마름모	
	14	98TWT139②;3	9.2	5.9	3.8	추형	마름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질	연번	출토 위치 보고번호	길이(cm)			형태		분류
			전장	경부	촉신부	평면형	단면형	
철촉	15	99ⅥTWM29:2	10.3	5.57	4.42	능형	편평	장경 철촉
	16	97TWT436③:3	11.7	5.3	6.4	추형	마름모	
	17	97TWT376②:35	12.3	8.25	4	능형	편평	
	18	97TWT467②:14	12.9	5.75	7.12	추형	마름모	
	19	98TWT555③:11	13.7	9.75	4.25	착두형	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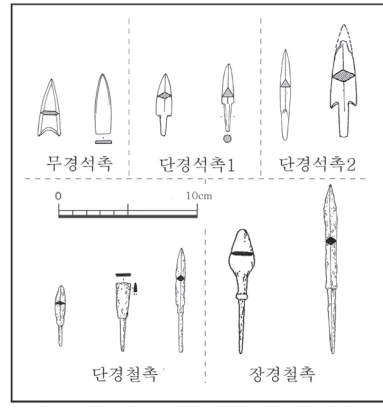


그림 5 만발발자 출토 화살촉의 분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무경촉에서 유경촉으로 변화하는 석촉의 변화 양상[11]이나 단경촉에서 장경촉으로 변화하는 철촉의 양상[12]을 참고하면, 무경석촉 → 단경석촉 → 단경철촉 → 장경철촉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단경석

11 손준호, 2007, 「마제석촉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 『한국고고학보』 62, 99~101쪽.

12 김보람, 2017, 앞의 글, 170~1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촉1·2는 유엽형의 평면형에 마름모의 단면형을 띠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단경철촉 역시 동일한 특징의 촉신부가 다수이다. 또한 단경석촉2와 단경철촉은 크기의 차이 없이 재질만 변화하는 듯한 양상을 띤다. 물론 단경철촉의 촉신 중에는 유엽형과 함께 착두형이라는 석촉에서 보이지 않은 형태가 등장하며, 장경화되면서 다양한 촉신의 속성을 드러낸다. 다양한 촉신부 속성은 장경화된 철촉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경촉의 경우 석촉의 외형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화살촉의 변화에 따른 철기문화의 획기와 편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석촉은 무경식에서 유경식으로 변화가 상정되지만, 유구와 층위에서 보이는 석촉의 일괄성은 무경+단경1, 무경+단경2, 단경1+단경2의 조합으로 뚜렷한 형식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발발자 유적 내 출토된 석촉은 97TWT467 2층 출토품과 99TWT788 3층의 사례를 제외하고 철촉과 공반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석촉에서 철촉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반면 연계 주조철부, 철정(鐵釘)으로 명기된 봉상의 철기(이하, 봉상철기), 편자 등과 함께 출토되거나, 석촉은 대부분 석부나 석착 등의 농공구류와 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H1 내 함께 출토된 다이관(多耳罐)은 M55의 이관(耳罐), M20의 다이관과 비교되며, F4의 소발은 M4, M20의 그것과 유사하다. 공반된 토기와 유사성을 보인 M4, M20, M55는 보고서에서 춘추전국시대의 무덤으로 설정되는데, 석착 등의 농공구류가 부장되는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석촉과 철기가 공반되는 유구와 층위는 유적 내 가장 이른 단계의 철기문화로 볼 수 있다.

석촉이 철촉으로 대체되면서 이후 만발발자 유적 내 보이는 철기류의 주요 기종은 철촉으로 분명해진다. 단경촉은 유엽형의 평면에 마름모형의 단면을 띠는 촉신부로 획일화된 점이 눈에 띈다. 주조제 철제품 및 봉상철기 등 앞서 보이던 철기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함께 출토된 석기 역시 석검이 출토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유엽형 이외에도 착두형, 도자형의 평면형을 띠는 철촉도 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되는데, 97WT140 2층은 유엽형과 착두형의 철촉이 함께 출토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착두형 철촉의 등장과 함께 촉신부 단면형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특히 97WT140 2층에서는 철촉은 슬래그, 철판, 단면이 오각형을 띠는 미상철기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단경촉이 출토되는 단계에 독자적인 철기생산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장경촉의 등장과 함께 촉신부나 경부가 길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촉신부의 평면형은 착두형, 유엽형, 능형, 추형으로 다양해진다. 능형과 추형을 띠는 장경촉은 오녀산성에서 출토되며, 특히 97TWT139 2층의 장경촉은 오녀산성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환도산성이나 국내성 등에서 보이는 광형(廣形), 삼익형(三翼形)의 촉신형이나 길이 15cm 이상의 장경촉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화살촉의 변화 양상을 기초로 철기문화의 획기를 정리하면, 1기는 석촉과 함께 주조철부, 봉상철기 등이 소수 보이는 시기, 2기는 유엽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단경촉이 주체가 되는 시기, 3기는 장경촉이 등장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요동지역 내 연계 주조철부의 등장시점, 함께 출토된 다이관과 소발(小鉢)이 유적 내 비교적 이른 시기 무덤에 부장된다는 점, G4 석촉과 함께 출토된 검파두식의 시간성을 고려하면 기원전 3~2세기로 볼 수 있으나 그 하한시기는 기원전 2세기대 전반으로 비정해둔다. M41과 F4, H1, G4에서 출토된 철기와 일괄유물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M41호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편은 무순(撫順) 하협심(河夾心)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는데,[13] 무순 하협심 M2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대로 비정된다. 그럼에도 G4가 구상유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인 폐기가 이루어졌을 수 있어 유구의 시기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G4에서 출토된 편자

13 하문식, 2020,「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東洋學』81, 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만발발자 유적 철기문화의 단계 설정

단계	출토지점	주조철부	기타철기	석촉							철촉				토기류					석기류	비고
				무경촉		단경촉1		단경촉2			단경촉		장경촉		小罐	鉢	토기편				
				육각	편평	삼각	마름모	마름모	삼각	육각	마름모	편평형	편평형	마름모			이형토편	弦紋토편	와편		
1기	97ⅡTWF4	○		○				◎								◎	○			석검편	
	97ⅡTWG4		○	●	○	◎	◎													석도편 검파두식	미상철기
	97ⅠTWH1		○			◎		◎	○						○		○			석착편	봉상철기 철환
	97TWT369②		○													◎				동촉편?	봉상철기
	97TWT555④		○				○		○									○		석부편	
	97TWT436②		○																	석착편 석부	鐵釘 (봉상철기?)
2기	97TWT335②		○								○						○			석도편	봉상철기
	97TWT306②										○										
	97TWT347②										○							○	○	석검편	

2기	97TWT396③											○				○			석검편		
	98TWT207②										○										
	97TWT399②										○									동사	
	98TWT140②			○								○					○			미상철기 주조철편 슬래그	
	98TWT229②											○							석검		
	98TWT255②			○								○							철도자?		
3기	97TWT376②												○			○					
	98TWT555③												○			○			석검편		
	99TWT788③								○				○								
	97TWT467②							○			○				○						
	98TWT256②											○			○						
	97TWT436③			○											○				미상철기		
	98TWT139②														○						

(●: 다수, ◎: 2~3점, ○: 1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5〉 유구 내 출토 철기류의 시간성

단계	무덤		수혈유구		
	M41	M29	F4	H1	G4
선행기	○		○	○	●
1기	●		●	●	●
2기		●	○	○	○
3기		○			○
3기 이후					○

(●: 중심시기, ○: 추정시기)

편은 1기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기는 요동지역 철촉이 출토되는 시점을 봉성(鳳城) 유가보자(劉家堡子) 유적에서 출토된 공부(銎部)가 변형된 주조철부와 함께 출토된 두의(豆) 형식, 환인(桓仁) 추수(抽水) 유적에서 함께 출토된 포전, 명도전, 반량전의 조합을 고려하면 기원전 2세기 중후엽을 상한으로 둘 수 있다. 또한 착두형 철촉의 등장과 편평형의 단면형태를 띠는 철촉의 등장시점을 고려하면 기원전후까지로 비정해 둔다. M29의 연계 주조철부와 철촉 역시 2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3기에서 보이는 장경촉은 고구려의 도성인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등에서 자주 보이는데, 착두형과 유엽형을 띠는 세장형 장경촉은 환인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한다.[14] 그럼에도 다수의 철도나 철모 등 이기류가 출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기원 3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기의 연대는 기원 1~2세기대 정도로 비정해둔다.

14 최종택, 2020, 「Ⅵ. 고구려의 유물」,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3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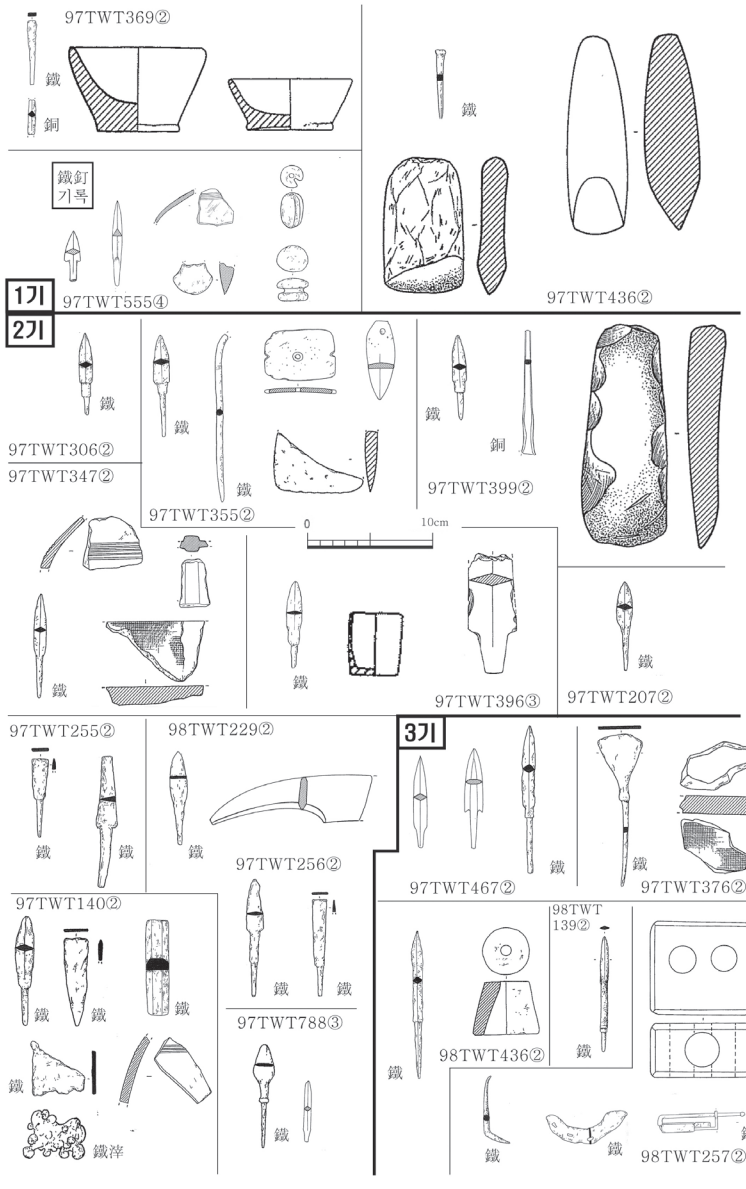


그림 6 만발발자 유적의 단계별 철기류와 일괄유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만발발자 유적의 시기별 공간 변화

만발발자 유적의 보고서에는 각 구역별 그리드와 트렌치의 위치, 유구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형 내 구역별 그리드나 유구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적 중앙을 가르는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을 각각 서부와 동부로 나누고, 서부에는 Ⅰ~Ⅳ구역, 동부에는 Ⅴ~Ⅷ구역을 구획하였다. 그리드 번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조사 당시 그리드 설정 기준 역시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종수는 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근거로 발굴구역의 위치를 항공사진에 표시한 바 있는데,[15] 이를 참고하여 항공사진과 보고서의 구역별 그리드를 같은 스케일로 맞추어 위치를 잡아보았다.[16]

〈그림 7〉과 같이 추정한 유적 내 구획된 그리드와 유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서부는 구상유구의 안쪽으로 생활유구가, 동부에서는 무덤이 집중되는 양상이 눈에 띈다.[17] 도로 양쪽의 두 구릉 내 다른 성격의 유구가 조성된다는 점은 유적 형성 이후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생활 공간과 무덤 공간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덤은 서부보다는 동부에 집중되는데,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토광묘 계통은 서부에 일부와 동부의 Ⅵ구 서쪽 그리드에 집중된다. 이후 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등 석제를 이용한 무덤은 Ⅵ구역의 동쪽부터 Ⅴ구역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Ⅴ구역의 북쪽인 Ⅶ구역과 Ⅷ구역으로 서한시기의 적석묘 계통이 확인된다. 1기인 M41은 동부 안쪽에 해당하는 Ⅴ구역으로 앞서 언급한 무덤의 조성 양상에 거의 맞아떨어지는 반면, 2기로 비정한 M29의 위

15 이종수, 2020, 앞의 글, 134쪽.

16 〈그림 7〉의 구역별 그리드의 위치는 시기별 공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격법을 전제로 그리드의 방향과 보고서상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구역 위치를 비정한 것이다. 분명히 실제 구획된 그리드와는 오차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유적 내 철기가 출토되는 위치의 공간 변화를 살피기 위한 참고자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7 서부의 Ⅲ구역 내 보고서상 명대로 분류된 무덤이 존재하긴 하지만, 유적의 형성부터 위진시기까지는 서부와 동부의 공간적 성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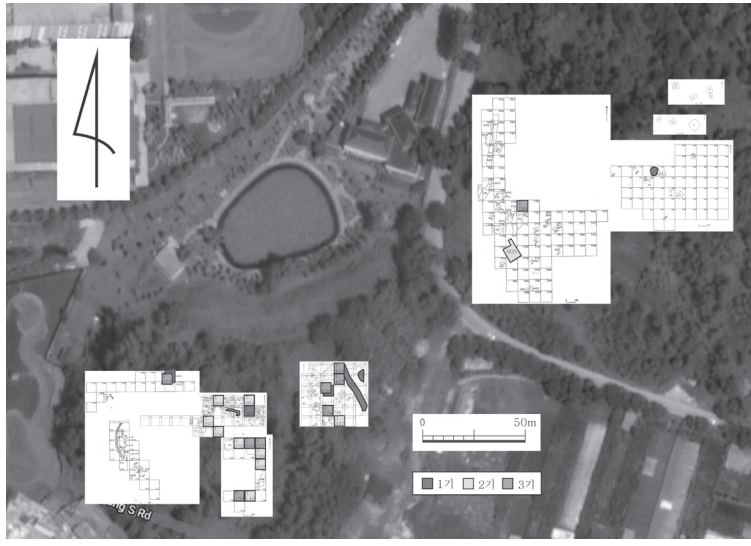


그림 7 만발발자 유적의 시기별 공간 변화

치는 Ⅵ구역의 서쪽으로 무덤 공간에 속하지만 서에서 동쪽으로 시간성을 보이는 다른 무덤과는 다른 맥락으로 보인다.

시기별 철기의 출토 위치를 살펴보면, 1기의 철기와 관련 유구는 서부의 정상부에 열을 지어 형성되었는데, 서부의 동사면에 위치한 구상유구인 G4와 그 주변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양상을 띤다. G4의 출토유물 중에서도 토제 용범편, 석제 지석 등의 존재가 주목된다. 2기의 철기는 서부의 구릉 정상부에 해당하는 Ⅰ구역과 그 남사면인 Ⅳ구역에 집중된다. 특히 Ⅳ구역의 경사면 하단부로 추정되는 T140의 2층에서 출토된 슬래그와 철편은 Ⅳ구역 내 철기생산유구의 존재를 추정케 한다. 반면, 3기의 철기는 1~2기의 출토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부의 동쪽 일대에 집중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만발발자 유적의 시기별 공간의 점유는 무덤과 생활유적 모두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18] 철기가 출토된 유구만 대상으로 하면 구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인 의미를 밝힐 수 없다. 다만 하나 주목되는 점은 늦어도 2기의 어느 시점에 T140의 2층에서 보이는 슬래그와 철편, G4의 토제 용범편, 석제 지석은 철기생산과 관련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이다. 기원전 2세기 요동지역 내에서 재가공과 관련된 주조제품이 출토되는 점, 기원전 1세기 시중 로남리 유적 등 독자적인 제련공정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발발자 유적에서 보이는 유물 구성 역시 같은 맥락의 산물일 수 있다고도 여겨진다.

Ⅳ. 천산산맥 이동지역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전개 양상

1. 천산산맥 이동지역 철기문화의 확산 과정

전국시대 후기 연나라 철기문화는 동북아시아 각지로 확산된다. 이때 확산된 연나라의 철기 분포는 요령지역 전역뿐만 아니라 길림성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이른다. 이 시기는 문헌기록[19]으로 연나라 소왕(昭王, 기원전 311~279)대 사건임을 고려해 기원전 3세기경으로 비정되고 있다. 요동지역으로 확산된 연나라 철기는 천산산맥 이동지역이 다수이며,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襄平, 현재의 요양시 일대)과 그 주변에서 철기가 출토된 사례는 많지 않다. 요서지역과 달리 철기가 유입 단계부터 부장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연산철기와 명도전 등 연나라 물

18 이 글에서는 철기가 출토된 유구를 중심으로 시기에 따른 공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무덤의 경우 토광묘-석관묘-대석개묘-대석개 적석묘 등 어느 정도 유형화된 구조의 분포를 염두하고 시간성에 따른 분포를 살필 수 있었지만, 생활유구의 경우 철기가 출토된 유구의 시기에 따른 분포만 보았다. 향후 만발발자 유적에 다양한 물질문화를 포함하여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

19 『三國志』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질문화와 동검, 재지계 토기류가 함께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주조철부 2점이 세트로 부장되는 현상은 연나라의 부장 풍습의 영향으로 본다.[20]

이 같은 요동지역 내 철기의 부장 양상을 통해 연나라 철기문화가 요서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철기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동지역의 부장 철기는 연나라에 의해 위신재로 사여되면서 연나라의 철기 부장 풍습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연산철기가 부장되는 분묘의 위치를 고려하면, 연나라의 중앙과 거리를 둔 요동군의 입장에서는 여타의 지역과 다른 영역 지배방식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지역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영역을 유지하는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후 한나라가 성립되면서 동북아시아는 점진적으로 한나라 철기문화의 영향권으로 들어선다. 이 과정에서 철기문화의 지역성이 강화되는데, 한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천산산맥 서쪽인 요서와 요동반도에서는 인부가 넓어진 한식 철부(ⅠA-6형 철부[21])와 철삽 등 한식철기 일색인 반면, 천산산맥 이동지역인 압록강 중하류와 혼강(渾江) 일대, 요하 상류의 철기는 다소 이질적인 특징도 확인된다. 이조돌대 주조철부(ⅠA-3형 철부)의 공부(銎部)가 변형된다는 점, 다량의 반월형 철도가 출토된다는 점, 철기의 재가공 흔적이 관찰된다는 점, 봉상철기와 주조철편이 출토된다는 점은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특히 반월형 철도는 요서의 조양 원대자 유적에서 보이지만, 주로 천산산맥 동쪽으로 분포한다. 관전 쌍산자 유적에서는 다량의 반월형 철도가 출토되고 있어 압록강 유역이 반원형 철도 생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주조철부의 분포를 보더라도 변형된 이조돌대 주조철부는 압록강 유역 중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을 참고한다면 비한식(非漢式) 철기의 생산과 유통범위는 압록강 하류역과 그 주변으로 추정된다.

---

20 村上恭通, 2003,「黃海をめぐる鐵技術·文化の展開」,『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Ⅲ, 同成社, 84~85쪽.

21 철기류의 형식은 김상민의 분류안을 적용한다. 김상민, 2020,『동북아 초기철기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서경문화사, 50~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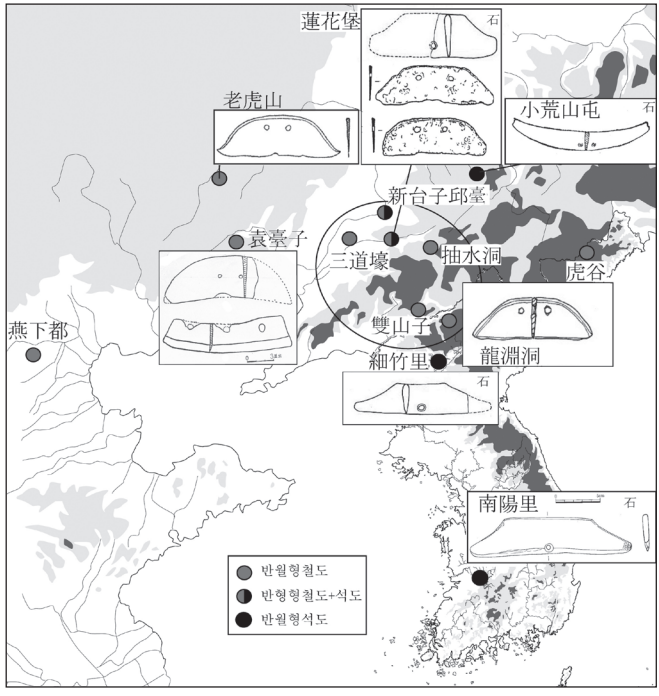


그림 8 반월형 철도의 분포범위

출처: 김상민, 2020.

결국 기원전 2세기경 요령지역 내 철기문화의 지역적 차이는 철기생산기술의 보유와 관련된 것이다. 천산산맥 이동지역은 비교적 한나라 철기생산거점과 거리를 두고 있어 한나라 철기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당시 철기문화의 중심지였던 한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음에도 재지적인 철기가 존재한다는 점은 지역 내 철기생산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로부터 유입된 철기를 그들만의 기술로써 생산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압록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철기의 재가공이 시도되고 반월형 철도가 등장하는 등의 특징은 연나라의 철기를 모방하여 지역 내 제작기술의 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산산맥 이동지역의 비한식 철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2세기경 비한식 철기가 분포하는 압록강 유역권은 후기 고조선의 철기문화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낙랑군 설치 이후 한나라 철기문화는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확산된다. 이전 시기보다 한나라 철기문화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천산산맥 이동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지역 내 철기를 전형적인 한나라 철기문화로 보기는 어렵다. 요양 삼도호 유적처럼 취락 내 철겸, 철삽, 철서(鐵鋤), 철초(鐵鍬) 등 다양한 농공구류가 출토되고 있지만, 분묘 내 부장되는 양상은 많지 않다.

압록강 중류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없으나 시중 로남리 유적으로 대표되는 철기 생산유적이 존재한다. 로남리 유적에서는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어 고구려 철기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그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 보이는 재지적인 철기와 함께 철기생산과 관련된 적극적인 근거가 되는 유적임에 틀림없다.

2. 혼강 유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초기 고구려

초기 고구려의 등장과 관련하여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 압록강과 혼강이 합수되는 집안 일대는 중요한 거점이다. 압록강 중류역은 도성과 수많은 적석총을 통해 오랫동안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성으로 대표되는 압록강 중류역이 도약하는 배경은 혼강 유역 지역 세력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환인 대전자(大甸子) 유적·오녀산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일찍부터 초기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으로 주목받았다. 환인지역의 과도적 금속문화의 담당자가 곧바로 적석총을 축조하는 원고구려사회로 발전하여 고구려 성립의 한 축이 되었고, 압록강 중류역의 적석묘 축조집단의 담당자를 후기금속문화(철기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본다.[22] 환인과 집안의 상호 간의 계승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압록강 중류역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혼강 유역의 지역 세력 간의 상호 계승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원인은 혼강 유역의 지역 세력이 성장하는 배경을 철기문화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유적 내 보고된 철기의 수량이 적어 그 특징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고된 만발발자 유적을 자료에 포함하더라도 혼강 유역 내 철기문화의 특징이 미약하여 지역 간의 상호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무덤 내 부장된 주조철부와 앞서 분석한 철촉을 통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만발발자 유적의 주조철부는 인부나 공부가 훼손된 채 부장되는데, 여타의 요동지역 무덤의 경우 거의 온전한 형태의 철부가 부장된다. 이 같은 훼손된 주조철부는 기원전 2세기 요동지역 취락 내 보이는 현상으로, 봉성 유가보자 유적에서는 훼손된 주조철부가 출토된 사례가 많다. 만발발자 유적의 주조철부를 잔존 양상과 인각의 상관성을 고려해 복원하면 길이 약 11cm 내외, 인폭 6cm 내외의 소형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주조철부를 길이와 인폭을 고려해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은데, 철령 적가촌묘, 본계 괴석동 유적, 연하도 채집품과 계량적 유사성이 가장 높다. 또한 완주 갈동 6호묘의 그것과도 비교될 수 있다. 관련 유적 주조철부가 각각 확산단계 2~3기[23]의 과도기 정도인 기원전 3세기 전후이다. 만발발자 유적의 훼손된 주조철부가 기원전 3세기 전후 소형 주조철부의 확산과 함께 유입된 것인지, 기원전 2세기대 요동지역 취락 내 보이는 훼손된 주조철부의 유통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만발발자 유적은 천산산맥 이동 여타의 지역과 달리 주조철부를 비롯한 철기가 완전한 형태로 보이지 않는데, 철기가 유입되는 시점이 비교적 늦었을 수 있다. 훼손된 주조철부를 부장하는 양상은 철기의 희소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22 지병목, 2005, 「高句麗 成立期의 考古學的 背景 - 묘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91~92쪽.

23 김상민, 2020, 앞의 책, 3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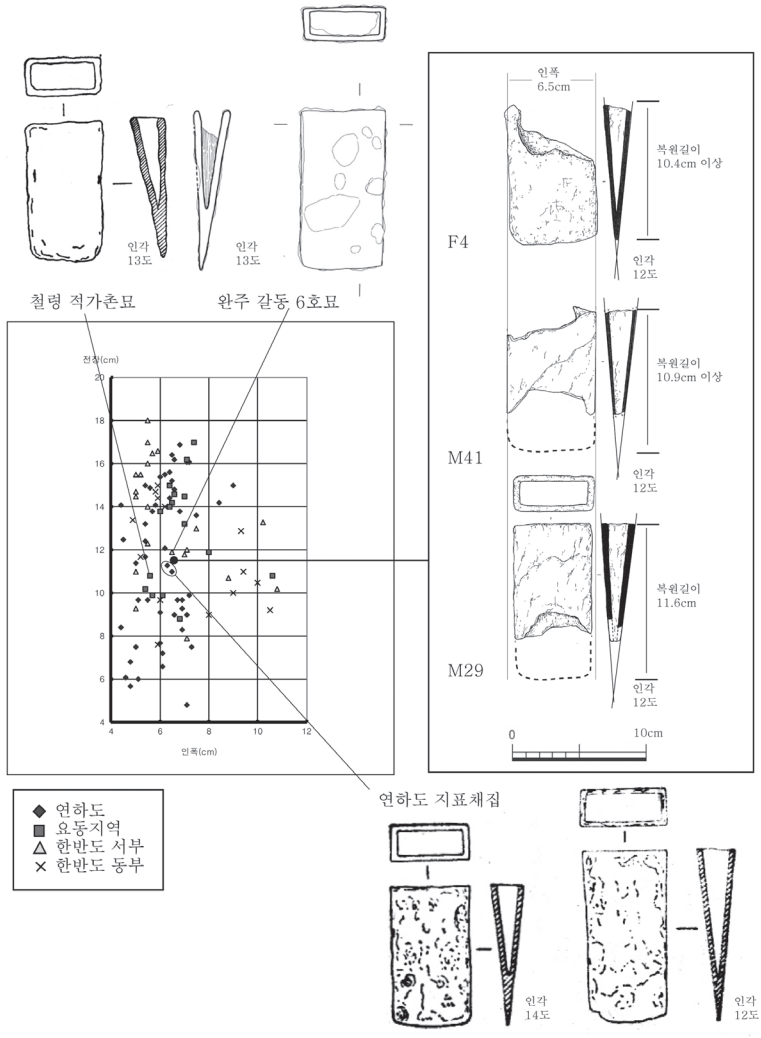


그림 9 요동지역 일대 주조철부와의 비교검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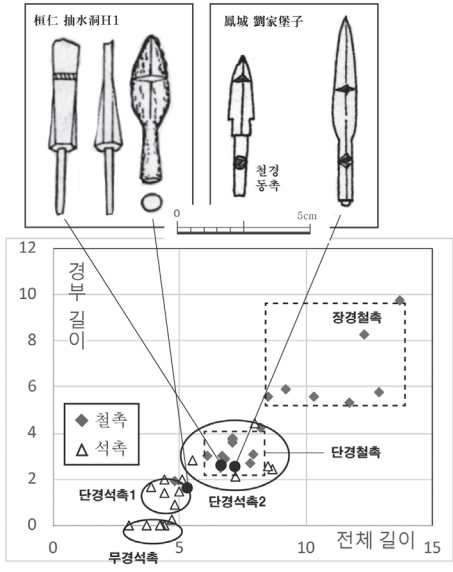


그림 10 주변지역 철촉과의 비교 검토

둘째, 만발발자 유적 내 출토된 화살촉은 동촉이나 철경동촉이 보이지 않는다. 요동지역의 취락에서는 철령 구대, 무순 연화보, 요양 삼도호 유적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동촉, 철경동촉이 확인된다. 구대유적의 경우 층위를 통해 삼익형동촉+반월형석도+주조철부가 출토된 상층에서 철경동촉+반월형철도+판상철기가 출토되기도 하여 재질에 따른 기종의 대체와 형식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97TWT467 2층에서 함께 출토된 단경석촉1, 단경석촉2, 장경촉은 석촉에서 철촉으로 급진적 변화를 추정케 한다.

만발발자 유적 내 철기문화의 획기로 주목하였던 단경철촉은 유엽형과 역자형이 출토되는데, 이 같은 단경철촉이 출토된 사례는 요동지역 내에서도 희소한 편이다. 만발발자 유적과 같은 수계인 환인 추수동 유적 H1에서 출토된 두 철촉 역시 같은 인부형을 띠는 단경철촉이다. 또한 압록강 하류인 봉성 유가보자 유적에서도 유엽형의 인부를 띠는 단경철촉이 출토된 바 있다. 혼강 중상류와 애하(靉河) 유역에서 보이는 착두형과 유엽형을 띠는 단경철촉이 출토되는 현상은 요동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다른 철기의 유행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착두형과 유엽형의 단경철촉은 전술한 비한식 철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유적에서 보이는 철촉의 유사성은 혼강 유역과 애하 유역의 지역집단 간에 상호교류의 존재를 추정한다. 다만 유가보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더욱 다양한 기종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철경동촉이나 차축구 등 한나라에서 유행하던 기종이 포함되고 있어 더욱 선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안 오도령구문(五道領溝門) 유적에서는 다수의 청동기와 함께 2점의 착두형 철촉이 출토되었다. 이를 근거로 기원전 3세기경 집안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중류역이 원고구려사회의 기본적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으며, 오도령구문의 적석묘 축조집단이 이미 철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24] 오도령구문 유적의 철촉은 〈그림 11〉의 13번이 길이 15cm(인부 길이 4cm), 〈그림 11〉의 14번이 길이 12cm(인부 길이 3cm)로 모두 장경철촉에 속한다. 이른바 고구려식이라고도 하는 전형적인 착두형 장경철촉이라는 점에서 보고된 청동기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25] 보고서에 의하면 민공(民工)이 청동기를 발견한 이후 유구를 조사하면서 추가된 유물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적석총과 청동기, 철기의 일괄성을 답보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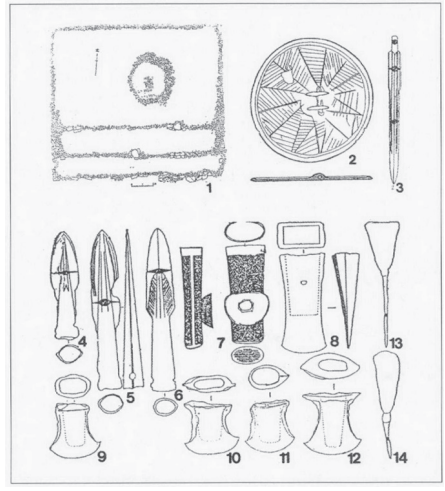


그림 11 집안 오도령구문 유적의 유구와 유물

출처: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이남규, 2005, 재인용.

24 지병목, 2005, 앞의 글, 93쪽.

25 오도령구문 유적의 철기와 청동기의 일괄성에 대해 중국과 일본 연구자의 경우 동시기로, 북한과 국내 연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는 이남규(2005)에 의해 정리된 바 있는데, 그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남규,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 鐵器文化의 展開樣相」,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발발자 유적과 추수동 유적의 단경철촉에 착두형의 촉신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혼강 중상류지역의 철기문화가 초기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몇 안 되는 철기 중 훼손된 주조철부와 철촉에 주목하여 혼강 유역 철기문화의 특징을 살피면서 비교될 수 있는 유적은 환인 추수동 유적과 봉성 유가보자 유적이다. 두 유적은 모두 김상민의 요동지역 취락 2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2세기경으로 편년된다.[26] 혼강 유역 내 철기문화의 본격적인 도입은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환인 추수동 유적의 2층에서는 변형된 이조돌대를 띠는 주조철부, 철도(鐵刀), 철도자, 철촉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같은 문화층 내에서 명도전 포전, 반량전이 확인된다. 무문계 재지토기와 마제석기류가 다수 출토되는 등 철기를 포함한 지역색이 강한 지역임에도 중국계 화폐를 혼용하고 있는 점[27]에 주목한다면, 환인지역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나라 철기문화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하문식에 의해 소개된 왕의구(王義溝) 유적[28]에서는 연나라산 주조제 농공구편과 함께 철촉, 철조(鐵釣), 한나라 철관에서 제작한 주조철부 등이 확인된다. 2007년 보고된 환인 왕의구 유적[29]의 유물 기종과 거의 대응하고 있다.[30] 또한 최근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왕의구 4차 조사 출토품 중에도 인부

---

26 김상민, 2017, 앞의 글, 95쪽.

27 古澤義久, 2010,「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円錢の展開」,『古文化談叢』64, 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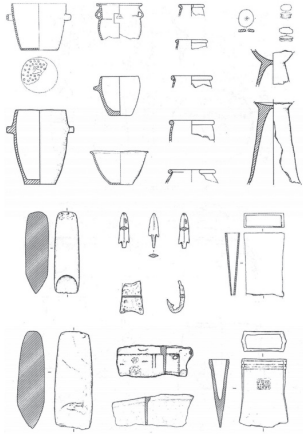
28 하문식, 2019,「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白山學報』115, 268~269쪽.

29 樊聖英, 2007,「桓仁縣王義溝高句麗時期遺址」,『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187~188쪽.

30 2007년도 번성영에 의해 소개된 환인 왕의구 유적에는 "철기는 이미 대다수가 온전치 않고, 표면의 부식이 심한 상태이다. 그러나 구분이 가능한 기형으로는 鎌, 刀, 斧, 釣, 鏃, 釘 등이 있다"라고 기술되었다. 樊聖英, 2007, 위의 글, 1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결실된 주조철부를 포함한다. 철기류의 면면을 보면 연나라의 주조철겸과 철부, 공부에 돌대가 돌아가는 주조철부[31]와 철촉, 철관에서 제작된 주조철부라는 구성은 왕의구 유적 내 철기의 생산지에 대한 다양성을 추정할 수 있다. 공반유물에서도 고구려 성립 이전 유행하던 재지적 특징의 절두형 봉상파수이(棒狀把手耳) 심발이나 원형계 점토대토기와 함께 기벽이 얇아진 외래적 특징의 발이 함께 보인다. 또한 주조제 철기가 훼손된 채 출토되는 만발발자 유적과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4차 조사 출토품

그림 12 왕의구 유적 출토유물

출처: (좌) 하문식, 2019, 재인용, (우) 中國新聞网, 2020. 1. 20.[32]

31 왕의구 4차 조사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대형으로 공부에 단과 같은 돌대가 돌아가는 형태이다. 기존 주조철부 분류안(김상민, 2020, 앞의 책)의 ⅠA-4형에 해당한다. 이 같은 형식의 주조철부는 그간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유적 등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금강유역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정식 보고가 아니므로 자료의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어 아쉽지만, 향후 추가된 보고를 통해 한반도 서남부지역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자료로 기대된다.

32 www.sohu.com/a/368091046_199807(검색일: 2020. 1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의구 유적의 유물로 보고된 자료의 일괄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지만, 적어도 만발발자 유적을 포함한 혼강 중류역에서 보이는 철기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만발발자 유적에서 보이는 철기류의 특징은 혼강 중류역의 철기문화와 맥을 같이하며, 특히 훼손된 주조제 철기류(재가공)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혼강 중류역의 철기문화는 유엽형 단경철촉의 출현과 함께 독자적인 철기문화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기원전 2세기경 혼강 중류역의 환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철기문화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색은 환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고구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른바 위만조선의 지역정치체 중 하나였던 혼강 중류역 지역집단의 확장 과정에서 초기 고구려의 성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3. 후기 고조선과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전개 과정 속에서 보이는 후기 고조선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된 대상은 전형적인 연나라 철기에서 변용된 주조제품의 존재이다. 전형적인 이조돌대는 보이지 않고 퇴화되거나 돌대의 수가 부정형한 사례, 원제작된 주조품의 외형을 변형하거나 수리하여 재활용한 사례 등을 근거로 하였다. 연나라 철기의 변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안산(鞍山) 수암(岫岩) 유적이다. 수암 유적에서는 연나라 철기[燕産 鐵器], 변형된 연나라 철기[燕系 鐵器], Ⅱ-2형 철부·철서(鐵鋤)와 같은 한나라 철기[漢式 鐵器]가 공반되어 연나라 철기문화에서 한나라의 철기문화로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33] 요동지역 내 연나라 철기의 전통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지역성에 대해 무라카미 야스유키는 "한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 무제(武帝)에 의해 철관(鐵官)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연 장성(長城) 내 후방 지원적인 생산 공방에서 공급된 연계 철기가 한인(漢人) 경영의

33 김상민, 2020, 앞의 책, 3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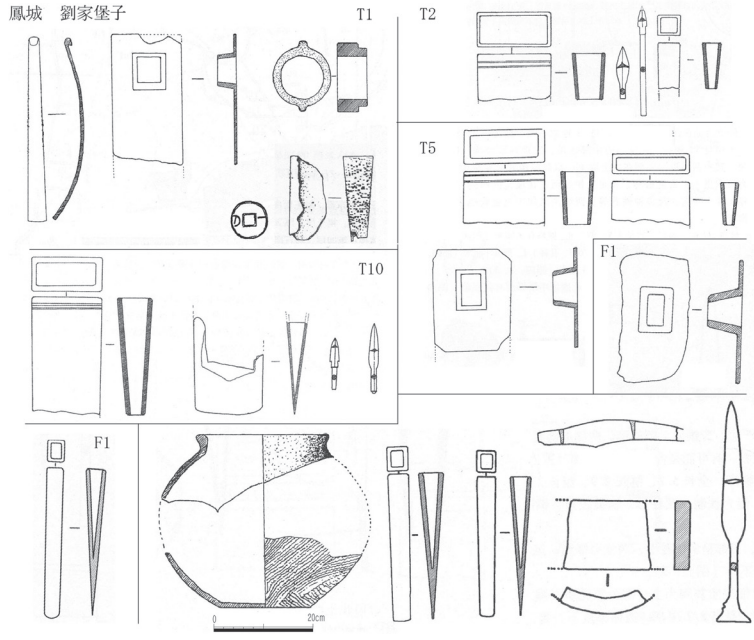


그림 13 봉성 유가보자 유적 철기와 일괄 자료

출처: 김상민, 2020.

거점에 분여되어왔다"[34]는 견해를 제시하였다.[35] 이것은 연나라 멸망 이후 요동 지역은 한 왕조에 의해 「연국(燕國)」으로 봉건되어, 그 봉건제 속에서 연나라의 기술이나 공인 조직이 그대로 잔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 무제(기원전 141~87)가 중앙정부체제의 일환으로 철관을 설치

34 논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漢王朝が成立し, 武帝による鐵官設置以前は長城内の後方支援的な生産工房から供給された燕系鐵器が漢人經營の據点に分與されていた"

35 村上恭通, 2012, 「中國·漢民族とその周邊域における初期鐵器の諸問題」, 『みずほ』 43, 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시 지방 생산조직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급변한다. 요동지역이 전한 초기 봉건제 속에서 관리되었던 기간 동안 후기 고조선계 세력을 비롯한 지역 세력은 적극적으로 철기생산기술의 발전을 꾀하였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대 천산산맥 이동과 압록강 중하류역에서 보이는 재지적 철기의 등장은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은 시간과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청동기시대부터 공동의 유물복합을 기본축으로 한다. 그중 혼강 중상류권역은 여러 지역의 유물 요소가 다양하게 복합되어 독특한 지역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36] 환인 추수동 유적과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가 혼강 중상류권역 철기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기원전 2세기대 이후 물질자료에서도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공존한다. 그리고 외래적 요소에 한나라 철기의 특징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인의 북서쪽에 위치한 신빈(新賓) 용두산(龍頭山) 석개묘는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37] 용두산 석개묘와 고구려의 적석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38] 부여 등 비한식 문화의 남하와 관련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신빈 일대의 소자하(蘇子河) 유역은 용두산 석개묘와 관련한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최근 황지(荒地) 소괴석(小塊石) 유적,[39] 승리(勝利) 용두산 유적, 조가(趙家) 유적 등에서도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한 철기가 출

36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過程」, 『高句麗渤海硏究』 43, 39쪽.

37 肖景全, 2010, 「新賓旺淸門鎭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161쪽.

38 吳江原, 2012, 앞의 글, 40~42쪽.

39 2010년도 무순박물관 자료조사를 통해 연화보 유적 철기류와 함께 신빈 하북만구(河北灣構) 유적, 소괴석 유적의 자료를 실견한 바 있다. 이것들은 세죽리-연화보 유형에 해당하는 철기로 외형이 탈탄(脫炭)되어 코팅된 듯한 현상, 장방형 철초(鐵鍬)의 결실된 기부를 재가공한 현상 등을 관찰한 바 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논고에 보고되었다.
小林靑樹 外, 2011, 「遼東における靑銅器鐵器の調査と成果」, 『中國考古學』 十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된 점이 확인된다. 소자하 유역의 취락 내 보이는 철기는 연화보문화와의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다.[40]

오녀산성 3기층에서 철삽으로 대표되는 한식 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후에 한나라 철기문화의 본격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혼강 중상류권역의 지역 세력은 후기 고조선과 관련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연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 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애하 유역의 봉성 유가보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혼강 중류역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철경동촉, 차축구 등의 한식철기도 보이지만, 주조철부 공부(銎部)의 변형과 파손된 양상, 단경철촉의 존재, 내경하는 인부를 가진 철도 등 추수동 유적과 만발발자 유적에서 보이는 철기의 특징과 유사성도 확인된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보이는 두 지역 간의 문화적 친연성은 초기철기시대 각 지역 수장들 간의 다양한 교류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3~2세기에는 연(燕), 진(秦), 한(漢)이라는 중국 세력이 본인들의 지배 방식에 따라 주민 이주나 군사 주둔 등의 방식으로 요동지역을 압박함에 따른 공동 대응이라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화적 친연성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41]

압록강 유역 내 지역집단 간 교류 등 문화적 친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 중후엽에 철기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등장한다. 동시기 철기생산유적은 시중 로남리 유적과 중강 토성리 유적이 존재하는데, 보고자는 두 유적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성격의 제철유적으로 보았다. 제철로의 형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노(爐)는 석재와 점토를 혼합하여 구축하였다. 장방형 석축은 점토덩어리와 철광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석축의 중앙에서는 강하게 열을 받은 흔적이 확인된다. 석축의 주변으로 점토덩어리와 철괴, 슬래그[鐵

40 하문식, 2019, 앞의 글, 275쪽.

41 吳江原, 2012, 앞의 글, 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滓], 재가 층을 이룬다. 토성리 유적 역시 로남리 유적의 제철로와 동일한 구조라고 언급되지만, 도면이나 사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로남리 유적보다 규모가 크고 슬래그의 양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규모 제련공방으로 추정하였다.[42]

두 유적은 석재와 점토를 혼합하여 노를 구축하였다는 점, 괴련철을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중국대륙의 제련로와 다른 특징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노의 구체적인 형상은 복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2세기 후엽에는 재지적인 제련기술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3]

이처럼 압록강 유역과 그 주변에서 보이는 '지역집단 간의 교류 증가·문화적 친연성 강화'와 '철생산기술의 공유·독자적인 철기생산'이라는 현상은 압록강 중류역 지역집단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초기 고구려 문화의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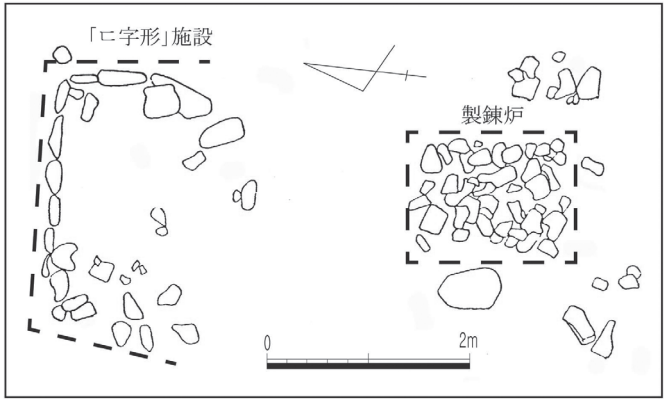


그림 14 시중 로남리 유적의 제철 관련 시설

출처: 김상민, 2020.

42 정찬영, 1973, 앞의 글, 57~60쪽.

43 김상민, 2020, 앞의 책, 3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되었을 것이다.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는 압록강 중하류권역, 혼강 유역에 존재하던 지역집단의 상호교류 및 연합적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각 지역집단이 보유한 비한식계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각 지역 내 보이는 비한식계 철기문화를 후기 고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비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하는 시점부터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는 지역색을 띠는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역 단위로 점진적인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지역단위로 발전해오던 철기문화는 당시 중원의 사회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역 간 연합된 대응 속에서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 물질문화의 유대가 강해졌을 것이다.

더불어 진한 교체기라는 혼란 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을 철·철기생산기술이 지역집단 간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철기생산 전문거점(시중 로남리·중강 토성리)의 등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생산 전문거점의 등장은 압록강 유역 철기문화를 더욱 급격하게 발전시켰을 것이며,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는 기원전 2세기 대부터 시작된 천산산맥 이동지역의 후기 고조선 세력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압록강 중류역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보고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철기를 재검토하며, 천산산맥 이동지역에 존재하는 철기문화의 지역성이 갖는 의미, 그중에서도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핀 후 천산산맥 이동지역에서 출토된 철기를 대상으로 비교해가며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정리하면 만발발자 유적 내 보이는 철기문화의 분기는 1~3기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의 시간성은 기원전 3~2세기 전반,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기원전후, 기원 1~2세기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대략적인 시간성에 기초해 천산산맥 이동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는 압록강 중하류권역, 혼강 유역에 존재하던 지역 세력의 상호교류 및 연합적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각 지역 세력에서 보이는 비한식계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하는 시점부터 천산산맥 이동지역에는 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각 지역 단위로 재가공을 포함한 철기 제작이 이루어진다. 혼강 중상류지역과 애하 유역에서 보이는 철기 기종과 특징의 유사성은 지역 단위의 철기문화 지역 간 교류 강화에 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지역 간 물질문화의 유대가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진한 교체기라는 혼란 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을 철생산과 철기생산기술을 지역 세력 간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 시중 로남리 유적과 같은 철기생산 전문거점의 등장인 것이다. 천산산맥 이동의 후기 고조선 지역 세력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민, 2020, 『동북아 초기철기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서경문화사.

박진욱, 1988, 『조선 고고학 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정백운, 1957, 『조선 금속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출판사.

정찬영, 1983, 『압록강, 독로강류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吉林省文物研究所,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논문

姜賢淑, 2003, 「高句麗 古墳」,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제 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김보람, 2017, 「고구려 철촉의 편년 연구」, 『馬韓百濟文化』 30.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5.

리병선, 1961,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유적 발굴 중간보고」, 『문화유산』 5, 사회과학원출판사.

박장식, 2004, 「高句麗의 鐵器製作 技術體系에 대한 硏究」, 『고구려연구』 18집, 고구려연구회.

손준호, 2007, 「마제석촉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 『한국고고학보』 62.

이남규,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 鐵器文化의 展開樣相」,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_____, 2018, 「고구려 제철문화의 특성」, 『고구려발해연구』 62, 고구려발해학회.

이현주, 1993, 「3~4세기대 철촉에 대하여」, 『博物館硏究論文集』, 釜山直轄市立博物館.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 報告」, 『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고고학』 37.
여호규,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 過程」, 『동북아역사논총』 1.
_____,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王綿厚, 2001, 「通化 萬發撥子 遺址에 관한 考古學的 觀察」, 『高句麗渤海研究』 12.
정백운, 1958, 「우리나라에서 철기 사용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 3, 과학원출판사.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사회과학출판사.
지병목, 2005, 「高句麗 成立期의 考古學的 背景-묘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차순철, 2004,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 『북방사논총』 2호, 고구려연구재단.
최종택, 2020, 「Ⅵ. 고구려의 유물」,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하문식,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白山學報』 115.
_____,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東洋學』 81.
황기덕, 1981, 「우리나라에서 철생산의 시작」, 『역사과학』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馮永謙, 2010, 「鳳城劉家堡西漢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武家昌 外,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期.
裵耀軍, 1989, 「遼寧昌圖縣發見戰國, 漢代靑銅器及鐵器」, 『考古』 4期.
樊聖英, 2007, 「桓仁縣王義溝高句麗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王增新, 1964, 「遼寧撫順市蓮花堡遺址發掘」, 『考古』 6期.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靑銅短劍墓」, 『考古』 5期.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鐵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2期.
肖景全, 2010, 「新賓旺淸門鎭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想民, 2010,「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初期鐵器時代の編年再考」, 平成22年度九州史學會發表要旨.
古澤義久, 2010,「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円錢の展開」,『古文化談叢』64.
小林靑樹 外, 2011,「遼東における靑銅器鐵器の調査と成果」,『中國考古學』十一.
小田富士雄 外, 1983,「朝鮮の初期鐵器文化とその成果」,『日本製鐵論集』, 示人社.
村上恭通, 2003,「黃海をめぐる鐵技術·文化の展開」,『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Ⅲ, 同成社. 84~85쪽.
_____, 2012,「中國·漢民族とその周邊域における初期鐵器の諸問題」,『みずほ』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통화(通化)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 철기를 통해 본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

김상민

이 글에서는 최근 보고된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재검토하여 천산산맥 이동지역에 존재하는 철기문화의 지역성을 검토하고, 후기 고조선~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와 일괄자료를 살피며, 철기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철촉에 주목하여 형식학적 변화 양상과 함께 시간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분묘 내 부장된 철기류의 특징을 살피며, 요하의 동쪽인 천산산맥과 압록강 일대의 주변 유적들과 상호비교하여 지역 간의 상호관계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만발발자 유적 내 보이는 철기문화의 분기는 1~3기로 구분되는데, 그 시간성은 각각 기원전 3~2세기 전반,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기원전후, 기원 1~2세기대로 설정된다. 이상의 시간적 축을 기초하여 만발발자 유적 내 철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혼강 중류역의 철기문화는 훼손된 주조제 철제품(재가공)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 유엽형 단경철촉의 출현과 함께 독자적인 철기문화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전 2세기경 혼강 중류역의 환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철기문화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색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환인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고구려 철기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였을 것이다.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는 압록강 중하류권역, 혼강 유역에 존재하던 지역 세력의 상호교류 및 연합적 대응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각 지역 세력이 가지고 있던 비한식계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진한 교체기라는 혼란 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된 철기생산기술을 공유하면서 초기 고구려의 철기문화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통화 만발발자 유적, 혼강 유역, 환인, 단경철촉, 주조철부, 고조선, 고구려, 철기생산기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Interrelation of the Ironware Cultures in Late Gojoseon and Early Goguryeo Based on the Ironware of Wanfabozi in the TongHua Region

Kim Sangmin

This paper reconsidered the ironware excavated from Wanfabozi in the TongHua region reported recently to review the locality of the ironware culture existing in east region of Qian Mountains and to address the interrelation of the ironware cultures in Late Gojoseon and Early Goguryeo. Accordingly, the ironware excavated from Wanfabozi and the association materials were addressed, and the aspect of typological transition and the temporality were extracted by taking note of the iron arrowhead taking up the most of the ironware.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onware buried together inside the tomb were addressed,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gions by correlating the remains from Qian Mountains located in the east of the Liao River with those around the Amnok River was estimated.

The periods of the ironware culture shown inside Wanfabozi a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ategorized into periods 1 to 3. Temporality is set as the third century BC to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century BC, the mid-second century BC to around AD, and the first century AD to the second century AD respectively. In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onware inside Wanfabozi based on the above temporal axes, the ironware culture in the midstream region of the Hun River was started with the emergence of the missing cast ironware (re-processing), and the independent ironware culture was establish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Rhyu leaf-shaped short-necked iron arrowhead. The diversity of the ironware culture created around Huanren in the midstream region of the Hun River around the second century BC and the local character found therein served as the momentum to create the identity of the ironware culture in early years of Goguryeo around the Huanren region.

The ironware culture in early years of Goguryeo began to be created during the mutual exchange and united response of the regional influence that existed in the mid- and down-stream regions of the Amnok River and the basin of the Hun River. Growth was achieved on the basis of the non-Han style ironware culture possessed by each regional influence, and the ironware culture in early years of Goguryeo was presumably completed by sharing the iron-making technology iron-making technology required the most desperately in the chaos of the Qin-Han transition period.

Keywords: Wanfabozi in the TongHua region, Hun River basin, Huanren, short-necked iron arrowhead, cast ironware, Gojoseon, Goguryeo, iron-making technolog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강현숙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된 제 논의
III. 만발발자 유적 Ⅲ, Ⅳ기 분묘 검토
IV. 만발발자 유적의 Ⅲ, Ⅳ기 분묘와 고구려 초기 적석총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초기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압록강 중하류역의 제한된 범위에 분포하는 적석총을 중국 동북의 여타지역과 구별되는 고구려 고유 묘제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초기 적석총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적석총의 출현과 초기 적석총의 구조와 장법, 그리고 무기단적석총에서 기단적석총으로 분화에 대한 설명 등이 그것으로, 이는 고구려 족원, 국가 형성과 성장 등과 결부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적석총의 출현에 초점을 두고 만발발자 유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유적이 자리한 통화 일대가 졸본성이나 국내성에서 북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의 주요 경유지이며, 만발발자 유적의 남쪽에 있는 통화 하룡두 유적을 포함하여 강연지역 일대를 졸본천으로 비정하는[1] 등 주몽의 남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만발발자 유적은 대개석묘에 이어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2] 방단적석묘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고 있으며, 대개석적석묘와 무단석광적석묘는 시간적으로 고구려 형성기와 중복될 뿐 아니라 대개석적석묘는 환인, 혼강 유역 고구려 적석총의 연원이 되

---

* 투고: 2021년 1월 8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재심사 완료: 2021년 2월 22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調查」, 『東北史地』 2006-6.

2 대개석묘는 석개묘라고도 불리며, 대개석적석묘는 석개적석묘, 석개석광적석묘, 석광석개적석묘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무단석광적석묘는 지상에 분구를 가진 무덤으로 墳과 墓의 개념을 적용하자면 무단석광적석총이 된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무덤의 구조가 잘 반영된 명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만발발자 유적 검토가 글의 주요 내용이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무덤 형식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도[3]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보고된 무덤이 수적으로 적어서 추론과 검증에서의 한계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는 고구려 형성을 즈음한 시기와 병행하며, 이 기간 중에 동일 유적에서 다양한 무덤형식이 시간적 중복관계나 병행관계를 갖고 있고, 무덤 형식의 일부는 장법이나 부장품에서 특징을 공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자료 중에서 만발발자 유적은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글의 목적에 두고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의 무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된 제 논의

1. 일원설(一元說): 요동반도 청동기시대 적석묘 기원설

일원설은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구하는 단선적 입장으로, 요동반도 남단 강상과 루상의 청동기시대 적석묘가 고구려 적석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 견해이다.

청동기시대 적석묘는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여순-대련지구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성이 강한 무덤 형식이다. 특히 요동반도 남단에는 신석기시대 말로 비정되는 노철산(老鐵山) 적석묘와 장군산(將軍山) 적석묘에 이어 청동기시대의 우가촌(于家村) 타두(陀頭) 적석묘, 강상(崗上) 적석묘와 루상(樓上) 적석묘, 와룡촌(臥龍村) 적석묘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축조된 곳이다(그림 1).

이 가운데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으로서 주목을 받은 것은 북한과 중국이 공

3 李新全, 2009,「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東北史地』200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

동으로 조사한 강상과 루상 적석묘이다. 여러 기의 무덤이 함께 군을 이루는 집단묘로, 주검은 지상에 놓이고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하였고, 무덤에서 화장이 행해졌다. 지상에 주검이 안치되고, 무덤에 돌을 덮고, 화장이 행해졌다는 점은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특징을 공유하여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의 연장선상에서 고구려 적석총을 이해하였으나, 이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중국과는 결을 달리한다.

중국에서는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적석묘가 고구려 적석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4] 북한에서는 비파형 청동단검이 강상과 루상의 적석묘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적석묘를 고조선의 묘제로 보고, 고구려 적석총은 고조선의 묘제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5] 여기서 더 나아가 요동지

4 徐光輝, 1996,「遼東石構墓葬的類型及相互關系」,『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의 석붕(石棚)을 포함한 북방식 지석묘를 고조선의 묘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횡혈식 구조의 석실적석총(돌간돌무덤)도 북방식 고인돌에서 기원을 구하여 고구려 묘제가 고조선의 묘제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6] 즉, 중국 요동반도 청동기시대의 적석묘나 서북한의 북방식 지석묘 모두 고조선의 묘제라는 입장에서 고구려 적석총이 고조선의 묘제를 계승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요동반도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구하는 일원설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첫째, 중국 요동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적석묘와 북방식 지석묘(석붕)가 분포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무덤인 적석묘와 석붕, 석개묘(대석묘, 蓋石式 支石墓) 가운데, 석붕과 석개묘는 분포지를 공유하지만, 적석묘와는 분포지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포를 달리하는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 무덤 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분포를 달리하는 무덤을 모두 고조선 묘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적석총의 요동반도 남단 기원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요동반도 남단 적석묘와 압록강 중하류역의 고구려 적석총 사이의 공간적 공백을 메울 만한 적석묘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 중 가장 늦은 시기로 보는 와룡촌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에는 200여 년이 넘는 시간 공백이 있고, 이를 메울 만한 관전 사평가나 조가보자, 포자연 유적 등은 지하 매장부라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의 시간 공백을 메울 만한 적석묘 자료가 확실하지 않지만, 구조와 장법이 고구려 적석총과 가장 유사한 무덤이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

5 정찬영, 1967, 「고구려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6 주영헌, 1962,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이원설(二元說):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 이원설

이원설은 근래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상류역에서의 조사 성과에 따른 것으로[7]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압록강 중하류역의 적석총은 장백 간구자 적석총에서 발전하였고, 간구자 적석총은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연원하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압록강 중하류역의 장백 간구자 적석총 기원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 기원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장백 간구자 적석총은 원형 평면의 적석총이 연접된 집단묘로, 무덤 내에서 화장이 행해졌다. 여기에서 출토된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화폐와 한대 철기로 미루어 간구자 적석총은 전한대로 연대비정된다. 따라서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와 고구려 적석총 사이의 시간적인 공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압록강 중하류역 여러 곳에 무리 지어 분포하는 적석총 가운데 아직까지 간구자 적석총과 같은 무덤형식은 확인되지 않아서 오히려 공간상의 공백은 더 넓혀졌다.

이원설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환인을 포함한 혼강 유역으로, 혼강 유역의 석개석광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이 연원했다는 설명이다(그림 2). 혼강 유역의 석개석광적석묘는 지하에 묘광을 파고 커다란 돌로 덮은 후 다시 돌을 쌓은 무덤으로 석객석광적석묘에 해당되는 환인의 산두자 1호 무덤이나 풍가보자 5호, 12호, 13호, 14호, 15호 무덤 등이 석광적석총인 환인 망강루 4호분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석개석광적석묘에서 석개가 사라지면서 환인 망강루 4호분과 같은 지하식 묘광의 석광적석총으로 되었다는 설명이지만, 앞서 언급된 환인의 석개석광적석묘는 적석분구라기보다는 묘광 주위와 대개석(덮개돌) 주변에 돌을 돌려 묘역을 만든 것으로 부석식석개묘 또는 위석식석개묘에 해당되어 적석분구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주장대로 환인과 혼강 유역

7 李新全, 2009,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석광적석총이 석개석광적석묘에서 덮개돌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여도,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의 영향을 받아 석개묘가 석개석광적석묘로 발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원설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으로 변화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분포지를 공유하지 않았던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가 요동지역의 석개묘의 결합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석개석광적석묘에서 석개가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인과 혼강 유역의 석개석광적석묘와 장백의 간구자 적석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결국 중국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일원설이나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하류역으로 적석총의 지역을 나누어 각각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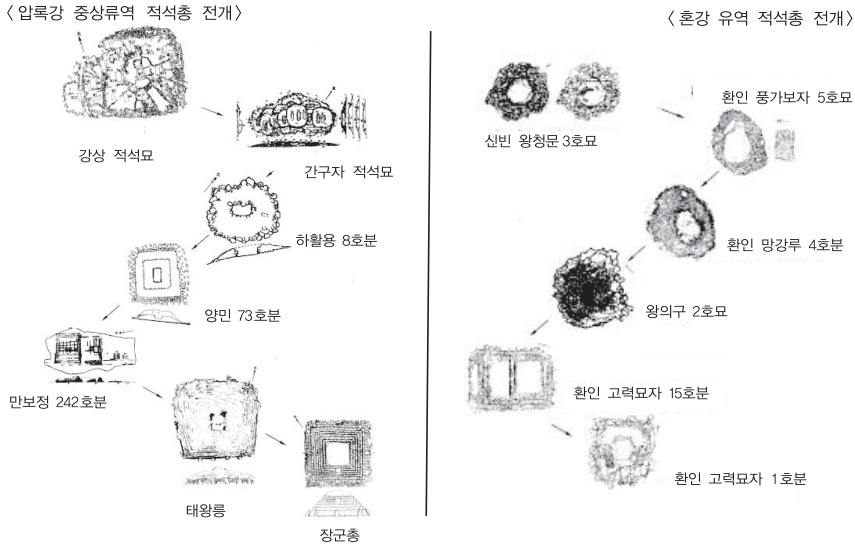


그림 2 압록강 중상류역과 혼강 유역 적석총의 전개(출전: 李新全, 200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을 설명한 이원설 모두 시간과 공간적 공백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공간적으로 고구려 초기 범위로 추정되는 혼강 유역의 초기철기시대를 전후한 유적에서 단편적이지만 석개묘나 석개적석묘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석묘와 개석적석묘가 확인된 만발발자 유적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복합설: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한 자체 발전설

복합설은 시간에 따른 변화 속에서 무덤의 여러 요소가 결합하거나 부가되면서 고구려 적석총으로 발전하였다는 자체 발전 입장이다.

이 견해는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대석개묘, 석개적석묘, 토광석곽묘, 석관묘에서 화장이 관찰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8] 춘추전국시대 다인합장의 토갱묘와 토갱석곽묘, 토갱석곽석관묘는 서단산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계문화이며, 전국시대 말에서 전한 초를 거치면서 출현한 화장을 한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와 적석묘는 맥계의 무덤으로 보아서 맥계 묘제와 예계의 요소가 결합하면서 고구려 적석총으로 자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석적석묘는 대개석묘와 고구려 적석총의 과도기 묘제로 설명하였다.

예계 무덤에 시간에 따라서 맥계의 무덤이 더해지면서 고구려 적석총으로 발전하였다는 이러한 설명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계 무덤으로 본 토갱묘나 토갱석곽묘, 토갱석곽석관묘는 만발발자 유적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지만, 동시기 병존하는 맥계 무덤으로 본 대개석묘는 물론, 대개석적석묘로의 전개나 화장의 출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원

8 王綿厚, 2005, 「고구려문화와 중국 동북 예맥계 청동문화의 연원관계」,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중국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적석묘, 석붕, 석개묘 분포

설과 마찬가지로 대개석묘에 적석이 부가되는 과정이나 개석이 사라지고 적석분구로 전개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구려 묘제를 나누어서 각각의 기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건국 이전의 오부문화(五部文化)는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며, 이 일대의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통화 일대의 석관묘, 압록강 유역 장백, 혼강시, 집안현 일대의 적석묘, 그리고 유하, 해룡, 무송, 정우 일대의 석붕묘가 있다고 보고, 고구려 적석총은 청동기시대 압록강 유역의 적석묘에서, 방단계제 석실묘는 석붕묘에서 그리고 봉토석실분은 석관묘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았다.[9] 이는 고구려 묘제의 변천과정 속에서 일부 구조 속성의 유사성으로 시간에 따른 고분의 기원을

9 李殿福, 1994, 「青銅時代至唐代集安地區墓葬變遷」, 『東北考古研究(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설명한 것이다. 압록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적석묘에서 고구려 적석총이 기원했다는 해석도 고분자료로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순, 신빈, 환인으로 이어지는 적석이 부가된 석붕묘(적석석붕묘)나 석개석관묘(적석석개묘)는 적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구려 적석총과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고구려 적석총과의 시간적·공간적 공백이다(그림 3).

청동기시대의 적석묘, 석붕, 대석개묘는 물론, 청동기와 무문토기의 목긴단지, 횡교이(橫橋耳), 수교이(竪橋耳) 등 기형적 특징을 가진 토기의 분포는 혼강 수계에서는 고구려 적석총과 공간적으로 일부 중복되지만, 적석총의 최대 분포지인 압록강 중하류역과는 공간적 중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복합설도 요동반도 적석묘에서 기원했다는 일원설이나 이원설과 마찬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Ⅲ. 만발발자 유적 Ⅲ, Ⅳ기 분묘 검토

만발발자 유적은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의 작은 구릉에 위치하며, 유적의 동남쪽으로 흐르는 금창하(金廠河)가 혼강으로 들어가 남류하여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현재 유적은 통화와 집안을 연결하는 도로에 의해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 Ⅰ구역에서 Ⅳ구역까지는 서구에, Ⅴ구역에서 Ⅷ구역까지는 동구에 자리한다. 분묘는 주로 동구에 분포하고, 서구에는 생활 유구가 주로 분포한다.

Ⅲ기와 Ⅳ기의 분묘는 총 53기가 확인되었고,[10] Ⅲ기의 분묘가 33기(62.3%)로 절대 다수를 점한다. 춘추에서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Ⅲ기는, 전, 후 두 시기

10 보고서의 표 2-3-1과 표 2-3-2에 제시된 무덤의 수가 맞지 않으나, 보고된 Ⅲ기에서 5기문화층의 무덤 기수는 표 2-3-3에 제시된 수치와 맞아서 무덤 기수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묘제의 이름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만발발자 유적의 설명에서는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나뉘어 Ⅲ기의 후기가 청동기 만기에서 초기철기에 해당되며 고구려 형성 전인 선고구려(先高句麗)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Ⅳ기는 전, 후 양한 시대로 고고학 시기 구분에 따르면 초기철기시대에서 고구려 초, 전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구려 형성을 전후한 시기와 Ⅲ기의 후기와 Ⅳ기가 대응된다.

1. 구조

1) 수혈토갱묘

수혈토갱묘는 지하에 묘광을 파고, 주검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묘광에 흙을 채워 매장을 마감한 직장토광묘(直葬土壙墓)에 해당된다. Ⅲ기에서만 확인되며, Ⅱ구역에서 4기(Ⅱ-1~4호)와 Ⅵ구역에서 17기(Ⅵ-17~23, 25~28, 31, 32, 49, 50, 52, 54호) 등 21기가 확인되었다[11](그림 4).

묘광은 장방형 평면이며, 평균 길이는 대략 174cm 정도이다. 35인이 합장된 Ⅵ-21호 묘는 길이 16.5m, 4인이 합장된 Ⅵ-20호 묘는 길이 530m이다. 너비는 합장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합장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길이 64cm 정도이다. 묘광의 깊이는 획일적이지 않다.

주검은 앙신직지, 앙신굴지, 측신굴지 등의 자세를 하고 있고, 앙신자세의 경우 두 손을 복부에 모은 채로 확인된다. 여러 주검 자세는 Ⅵ-21호 묘에서 확인되어 주검의 자세와 주민집단 간의 상관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앙신굴지>굴지>측신굴지 순으로 선호되었다. 묘광 내에서 특정 자세끼리의 군집을 보이지 않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장법은 단장, 합장과 주검을 이동한 천장(遷葬) 등이 보고되었다. 단장이

11 보고서에서 무덤의 편호는 조사 연도(1997년과 1999년), 구역(Ⅰ~Ⅷ)과 통화 만발발자의 영문 머리자(TW), 무덤(M) 그리고 무덤의 번호순으로 되어 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구역과 무덤번호만 기입하고자 한다. Ⅲ장에 제시된 그림의 유구와 유물은 만발발자 유적 보고서의 도면을 필자가 편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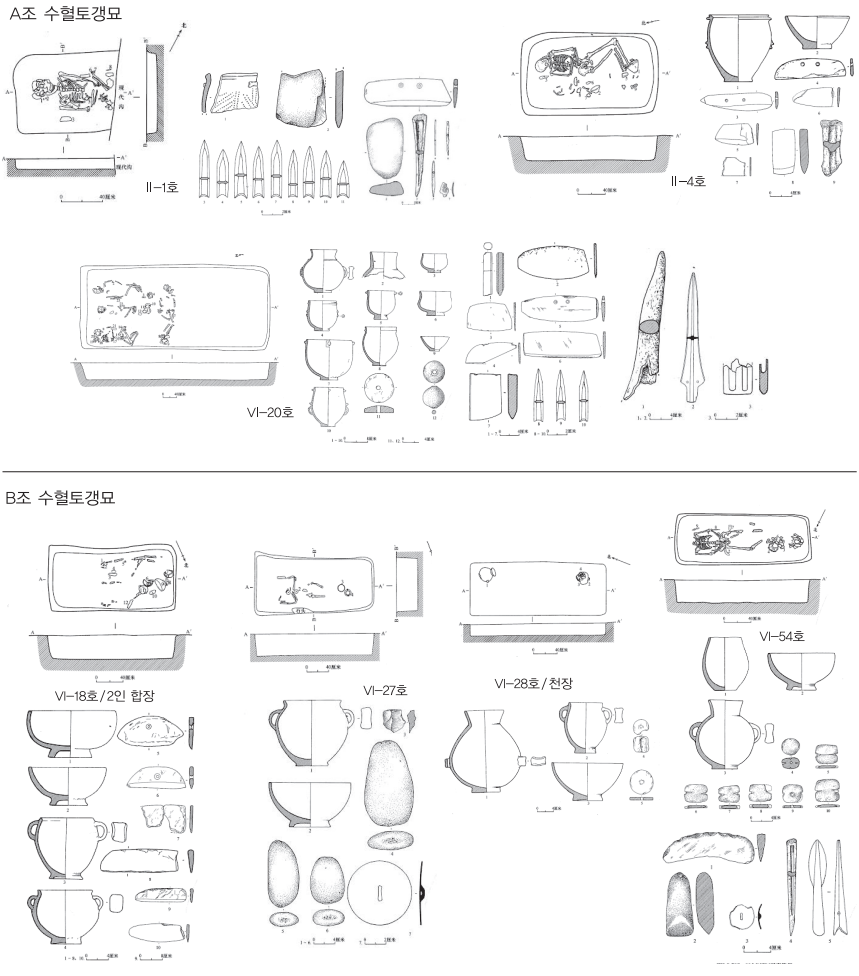


그림 4 수혈토갱묘 A조와 B조

8기(38.1%)로 가장 많지만, 합장(6기/28.6%)이나 천장(7기/33.3%)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는 않으며 이는 수혈토갱묘가 확인된 모든 구역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고서에서는 층위와 토기 형식에 따라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이는 수혈토갱묘를 A, B 두 부류로 나누었다. A조 수혈토갱묘는 Ⅱ구역의 수혈토갱묘 4기와 Ⅵ구역의 수혈토갱묘 2기(Ⅵ-20, 21호)를 포함한 6기이고, B조 수혈토갱묘는 Ⅵ구역에서만 15기가 확인되었다(Ⅵ-17, 18, 19, 22, 23, 25, 26, 27, 28, 31, 32, 49, 50, 52, 54호). A조와 B조 수혈토갱묘의 장법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다인합장은 B조에서는 2인 합장된 두 기(Ⅵ-18,26호)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B조가 A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점하여서 A조와 B조 사이에 차이가 있다.

2) 석관묘

석관묘는 Ⅷ구역에서 40호와 44호, Ⅴ구역의 42, 47, 48, 55, 56호, 45호와 46호 그리고 Ⅵ구역의 51, 53호 등 11기가 확인되었다. Ⅲ기로 비정된 석관묘는 8기이고 Ⅳ기로 비정된 것은 3기이다(그림 5). 무덤은 지하에 장방형 묘광을 파고, 묘광의 벽을 따라 돌아가면서 크기가 다른 돌을 기대어 쌓은 후 주검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흙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것으로, 묘광은 흙을 채우거나 흙과 돌을 섞어 채웠다.

보고서에서는 석관묘라고 하였지만, 중국 요동지역이나 길림 서단산문화에서 확인되는 밀폐된 상자형 석관묘는 아니다. Ⅴ-40호나 42호, 47호 무덤은 네 모서리가 둥글게 돌아가며, Ⅵ-51호 무덤은 동장벽과 남장벽의 일부는 벽석이 없으며, Ⅵ-53호 무덤은 서단벽의 벽석이 없다. Ⅴ-46호 무덤은 벽석이 결실되거나 네 벽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처럼 벽의 네 모서리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벽석도 정연하지 못하고 벽석이 없는 것 등의 양상은 Ⅲ기나 Ⅳ기로 비정된 석관묘 모두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석관묘라고 할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보고서에서 명명한 대로 석관묘라는 명칭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석관은 구조적으로는 Ⅲ기나 Ⅳ기의 차이는 없다. Ⅲ기 석관묘는 평균 길이 192cm, 평균 너비 73.5cm로 평면형태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6:1 정도인 장방형이며, Ⅳ기 석관묘는 평균 길이 210.7cm, 너비 88.67cm, 평균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 기는 2.6:1이며, 나머지 두 기는 각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6:1, 2.1:1이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아니다. 묘광의 깊이도 마찬가지여서 소아무덤인 소형묘 Ⅵ-51호 무덤을 제외하고는 묘광 깊이는 대개 30~56cm 사이로 평균 깊이 36.4cm이다.

다만, 바닥시설에서 세부적 차이가 있다. 바닥에 돌을 깔지 않는 석관 4기는 (Ⅴ-42호, 47호, 48호, Ⅵ-53호) 벽석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수혈토갱묘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바닥에 운모혈암 판석을 깔고 그 위에 주검을 안치한 Ⅴ-56호 석관묘에서는 유리제 이전과 은제 이환이 착장된 상태로 출토되어서 Ⅲ기의 다른 석관묘들과는 시기를 달리할 것이다. 이는 층위 검토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석관은 바닥시설 유무에 따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장법은 단인장이며, 주검은 앙신직지 또는 앙신반굴지 자세이다. 수혈토갱묘에서 보이는 측신굴지나 굴지자세는 보이지 않고 다인합장이나 천장도 보이지 않는다. 바닥시설이 있는 Ⅵ-44호 무덤은 주검의 오른쪽 발 아래 부근에 불에 탄 뼈들이 모여 있어서 화장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묘광 내에서의 화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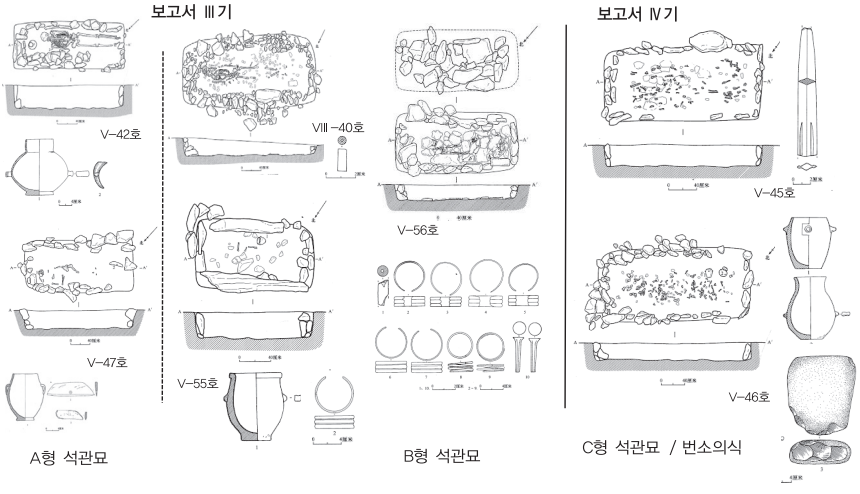


그림 5 석관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고서의 Ⅳ기로 비정된 여러 형식의 무덤에서 관찰되는 장법이어서 화장이 행해진 바닥시설 있는 석관묘는 바닥시설 없는 석관묘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석관묘는 구조나 크기, 형태보다는 바닥시설과 화장의 여부에 따라서 세분 가능하다. A조 석관묘는 바닥시설이 없고, B조 석관묘는 바닥시설이 있으며 화장이 행해지지 않았고, C조는 바닥시설이 있고 화장이 행해진 석관묘이다. 석관묘의 A조가 가장 이를 것이며 B조와 C조는 등장시점에서의 선후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적으로 중복되기도 할 것이다.

3) 대개석묘

대개석묘는 석붕, 적석묘와 함께 중국 요동지역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형식의 하나로 지상에 드러난 커다란 개석에 의해 석개묘 또는 대석개묘로 불린다. 구조에 초점을 두면, 지하 석관을 가진 개석식 지석묘에 해당되며, 지석이 없다는 점에서 남방식 지석묘(기반식 지석묘)와는 구별된다. 축조방법은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크기가 서로 다른 돌로 네 벽을 만들어 주검을 안치하고, 지상의 개석은 석관의 덮개돌 역할과 함께 무덤의 표식이 된다. 만발발자 유적의 대개석개묘는 매장부 구조와 축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세분된다(그림 6).

A형 대개석묘는 격벽이 있는 이른바 서단산형 석관을 매장부로 한 것으로 Ⅶ-35호와 Ⅷ-43호 두 기가 보고되었다. 지하의 석관은 네 벽에 완벽하게 돌을 쌓은 밀폐된 상자형이 아니라 만발발자 유적의 석관묘와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었지만, 석관 내부 중간에 돌을 세운 격벽이 매장과 부장공간을 분리하였다. 격벽으로 매장부 공간을 분리한 것은 길림지역 청동기시대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적인 구조이다.

B형 대개석묘는 지하 매장부는 석관묘 B조와 같으며, 대개석 주위에 돌을 돌려서 묘역식 대개석묘라고 할 수 있다. 지하 매장부 석관은 다르지만 지상에 드러난 형상은 북한의 침촌리형 지석묘와 유사하다. Ⅷ-39호 한 기가 보고되었으며, 여기서는 인골과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고서에서는 천장한 무덤으로 추정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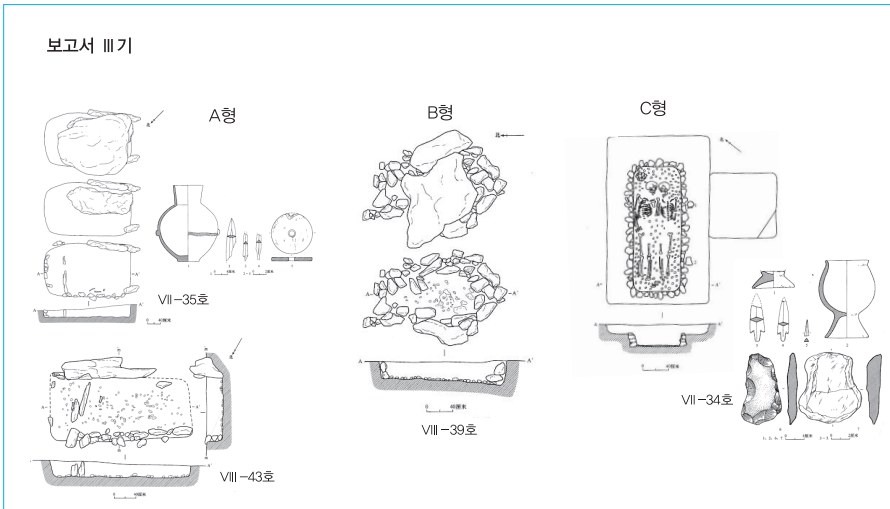


그림 6 대개석묘

C형 대개석묘는 2단 굴광을 한 후 하단에 석관을 만든 이단굴광 대개석묘로 Ⅶ-34호 무덤이 이에 해당된다. 2단 굴광을 한 석관과 석관의 장벽 한쪽에 별도로 마련된 부관에는 토기와 석제 괭이(石鎬) 각 한 점이 부장되었다. 석관 내에 남녀가 안치되고 한쪽에 어린아이가 안치되어 가족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고배는 부여 노하심 중층의 115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 기형이어서 C형 대개석묘는 A, B형 대개석묘보다는 늦을 것이다.

4) 석곽석관묘

석곽석관묘는 Ⅳ기로 비정된 Ⅴ-36호 무덤 한 기만 보고되었다. 무덤은 지하에 장방형 구덩이를 판 후 크기를 달리하는 대, 소 자연석을 이용하여 묘광 내에 석곽을 만들고, 석곽 네 벽의 안쪽으로 운모편암 판상석을 세워 상자 모양의 석관을 만든 관,곽의 2중구조이며, 석곽의 개석이 없다(그림 7). 묘광은 길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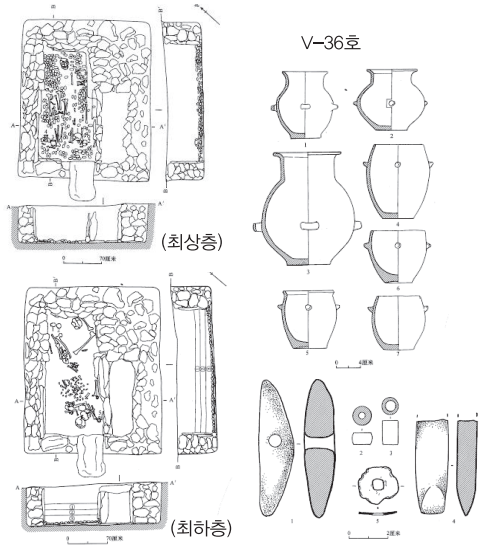


그림 7 석곽석관묘

304cm, 너비 232cm이고 깊이는 70~74cm이며, 석관 옆으로 장방형의 곁칸이 부가되어서 석곽은 전체 길이 240cm, 너비 160cm, 석관은 길이 220cm, 너비 154cm로 석관묘에 비해 너비가 넓어진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다.

다인합장무덤으로, 석관 내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두 사람씩 세 차례에 걸쳐 중층적으로 총 6인이 매장되었다. 맨 아래층에 운모혈암 판석을 깔고 그 위에 작은 냇돌을 한 겹 깐 후 주검 2인을 안치하고, 그 위에 다시 냇돌을 한 겹 깔고 2인을 안치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냇돌을 한 겹 깐 후 주검을 안치하였다. 주검을 안치할 때마다 화장을 하여 불에 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매 층마다 번소의식이 행해졌다. 주검 안치를 마친 후 운모혈암판석을 7겹으로 쌓아 덮어 묘광 높이까지 쌓고, 그 위에 커다란 석재를 덮었다고 하지만 덮개돌로 사용되었을 덮개돌은 도면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흙을 25cm 정도 두께로 덮어 봉토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구조에 초점을 두면 곁칸(邊箱)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 석곽봉토묘라고 할 수 있다.

곁칸은 석곽의 남벽 중간에서 서단벽 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길이 75cm, 너비 50cm, 두께 20cm의 화강암석판으로 만든 장방형이다. 길이 140cm, 너비 45cm, 두께 15cm의 운포혈암 판석을 덮은 곁칸에는 개 한 마리가 부장되어서 곁칸은 개의 순생(殉牲)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의 순생은 A조 수혈토갱묘에서도 확인된다. 35인이 합장된 Ⅵ-21호 수혈토갱묘의 26번째 인골 옆에서 개의 두개골이 출토되었다.

부장품은 주로 토기와 석기로 토기의 주요 기종은 호와 관이다. 토기에서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주검을 안치한 후 불을 지펴 어느 정도 불길이 잦아진 후에 토기를 매납하고, 흙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토기는 대상의 횡교이를 가진 사이장경호와 동체 상부에 맹이(돌기)가 있는 심발(관)로, 기종 구성과 기형은 Ⅳ기로 비정된 대개석적석묘에 부장된 토기와 유사하다. 최상층에서 불명의 동전 한 점이 출토되어서 전국만기 이후로 연대비정해볼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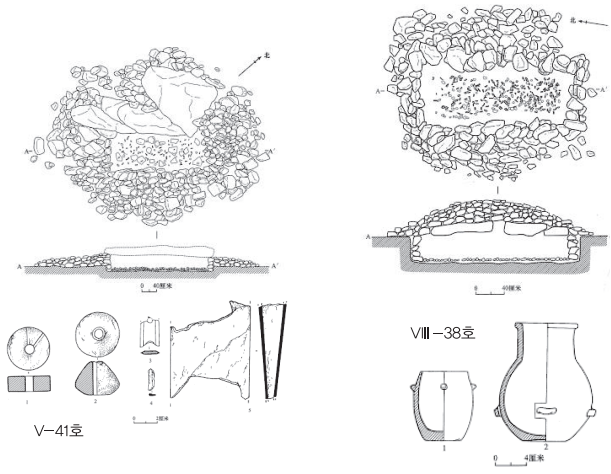
5) 대개석적석묘

대개석적석묘는 서로 다른 구역에서 각 한 기씩(Ⅷ-38호와 Ⅴ-41호) 두 기가 보고되었고, 화장 장속을 공유하지만, 무덤 축조과정과 구조는 서로 다르다(그림 8).

Ⅷ-38호 무덤은 지하에 석관을 만들고 덮개돌(대개석)을 덮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쌓아 적석분구를 만든 분구식 대개석적석묘이다. 묘광은 길이 210cm, 너비 80cm이고, 3매로 깨진 덮개돌은 복원 길이 225cm, 너비 120cm, 두께 15~20cm로 묘광보다 약간 크다. 주검은 돌이 깔린 묘광 바닥에 안치되고, 흙을 채우면서 번소의식을 한 후 돌과 흙을 섞어서 묘광을 채우고 덮개돌을 얹은 후 적석 분구를 형성한 것으로 묘광 내에서 출토된 토기 관과 횡교이가 부착된 사이장경호는 석곽석관묘 출토 토기와 같은 양상이다.

Ⅴ-41호 무덤은 조사하기 전에 적석무지 사이에 백운암질의 대개석이 깨진 채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적석무지가 대개석을 덮지 않은 것으로 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묘역식 대개석적석묘　　분구식 대개석적석묘

그림 8 대개석적석묘

이며, 이는 보고된 도면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묘광 주위에 돌을 쌓아 묘역을 형성한 후 커다란 덮개돌을 얹은 묘역식 대개석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침촌리형 지석묘와도 유사하다. 대개석은 길이 340cm, 너비 130cm, 두께 40~50cm로 후중하고, 대개석 아래에 드러난 묘광은 길이 310cm, 너비 130cm, 깊이 40cm이다. 장방형으로 구덩이를 판 후 묘광 벽의 한쪽에 대형 석재를 세우고, 나머지 세 벽은 크기가 서로 다른 돌로 쌓았다. 석관 내부 바닥에는 운모혈암판석을 깔고 그 위에 두께 10cm 정도로 냇돌을 더 깔았다. 따라서 매장부는 지하식 석관으로, 석관은 바닥에 돌을 깐 B조나 C조 석관과 같다. 주검을 안치한 후 깨진 돌과 흑회색 고운 모래가 섞인 흙으로 묘광을 채웠다. 묘광 주위에 소량의 불에 탄 인골편이 있어 보고자는 천장의 잔존물로 추정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묘광 내 부장품은 없지만 묘광 밖의 돌무지에서 토기와 석촉, 청동편과 철곽(鐵鑊, 괭이)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토기의 기형은 알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무단석광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는 Ⅶ-37호 한 기가 보고되었다(그림 9). 분구는 방대형이며 남북 길이 480cm, 동서 너비 500cm, 잔존 높이는 50cm로 Ⅳ기로 비정된 무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묘광은 분구 중앙에 위치하며, 분구와 묘광의 장축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고구려 적석총과는 차이가 있다. 묘광은 길이 194cm, 너비 136cm의 장방형이며, 깊이는 35~45cm이다. 묘광 바닥에 황갈색 점토를 15cm 정도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다시 10cm 두께로 잔돌을 깔았다. 황갈색 점토를 당시 지표로 추정하는 것으로 미루어 매장부는 지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 깔린 매장부에 주검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불을 붙이고 흙을 덮고 깨진 돌로 묘광을 봉하였다. 장구는 알 수 없으며, 함몰된 돌구덩이(石壙)가 남아 있다. 묘광 주위에 커다란 돌을 돌려 묘역을 만들고 묘광과 묘역 사이를 깨진 돌로 채우고 쌓아서 방대형 분구를 만들었다.

묘광에서 불에 탄 인골은 백색과 회남색을 띠며, 무덤 내에 여러 사람을 안치한 것으로 보아 다인화장묘로 판단하였지만, 인골의 불에 탄 정도는 번소된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불에 태워진 잔존 인골 상태만으로는 다인합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묘광 내에서 출토된 토제 이전이 한 쌍(2점)인 점으로 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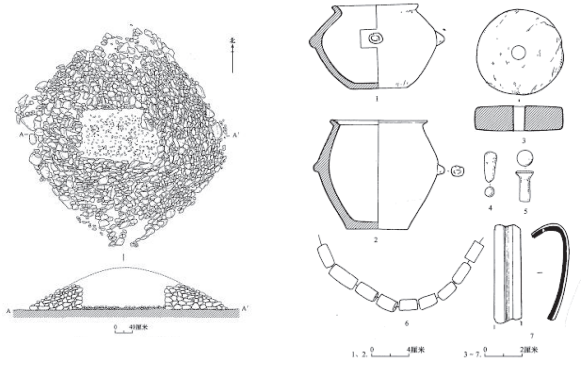


그림 9 무단석광적석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1인 단인장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장품도 불에 타서 녹송석 구슬은 변색되었고, 흙으로 빚은 이전과 토제 방추차와 녹송석구슬 1관(串) 외에도 용도 불명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적석 사이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동체 중앙에 맹이가 있는 기종으로 대개석적석묘나 석곽석관묘 출토 토기보다는 조금 늦을 것이다.

2. 장법(葬法)

장법은 여러 가지가 확인되며, 일부 장속은 시간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먼저, 주검은 무단석광적석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식 묘광에 별도의 장구 없이 안치된다. 자세는 앙신직지, 앙신굴지, 측신굴지, 앙신반굴지 등이 있고, 앙신직지 자세의 경우 대개 두 손을 복부 근처에 모은 상태로 확인된다. Ⅲ기로 비정된 35개체의 인골이 확인된 A조 수혈토갱묘 Ⅵ-21호에서는 앙신굴지>굴지>측신굴지 자세 순이어서 앙신굴지 자세가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앙신직지 자세는 1인 단인장에서 주로 확인된다.

매장은 1인 단인장과 2인 이상의 다인합장이 있다. 주검이 남아 있는 무덤으로 볼 때 단인장이 가장 많은 수를 점하며, 단인장은 석관묘에서 선호되었다. 2인 합장은 Ⅲ기와 Ⅳ기 무덤 모두에서 확인되며, Ⅲ기로 비정된 Ⅶ-34호 대개석묘는 남녀가 얼굴을 마주하는 앙신직지 자세로 매납되어서 동시합장의 가능성과 함께 묘광 한쪽에 치우쳐 매장된 어린아이로 미루어 가족장의 모습도 상정된다.

다인합장은 수혈토갱묘에서 두드러지며 4인 이상의 다인합장은 수혈토갱묘에서만 확인된다. 4인이 합장된 Ⅵ-20호 수혈토갱묘에서는 묘광의 반 정도 공간은 비워두고 반 정도 되는 공간에 4인이 안치되었다. 3인은 묘광의 장축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안치되고, 3인의 발치에 묘광의 장축과 직교하여 1인이 안치되어서 남은 빈 공간은 추가로 합장될 공간으로 추정되며, 다차에 걸친 다인합장임을 유추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차의 다인합장은 수혈토갱묘에서는 동일 평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석곽석관묘에서는 중층적으로 이루어졌다. Ⅴ-36호 석곽석관묘는 2인씩 세 차례에 걸쳐 바닥에서 위로 가면서 총 6인이 합장되었다. 이러한 중층적 다인합장은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유일한 예이다. 다차의 다인합장이 수혈토갱묘에서 보이고, 개 순생은 Ⅵ-21호 수혈토갱묘 26호 인골에서도 보이므로 장속에 초점을 두면 석곽석관묘, 수혈토갱묘와 연결될 가능성을 상정해볼 만하다.

천장은 무덤에서 주검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유해가 남아 있지 않거나 소량의 뼈가 남아 있는 경우 천장으로 판단하였다. A조와 B조 수혈토갱묘에서만 천장이 확인되며, 천장의 이유나 천장된 유해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외에도 일부 주검에서는 두개골이 확인되지 않는데, 묘광 내의 상태를 보면 두개골이 잘린 채 매장되었다기보다는 앙신직지나 앙신반굴지 상태에서 두개골만 이동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부분 천장의 한 형태로 볼 여지도 있다. 두개골이 없는 무덤은 수혈토갱묘 B조에 해당되는 Ⅵ-27호, 49호, 54호 무덤과 바닥시설이 있는 B조 석관묘 Ⅵ-53호에서도 확인되어, 수혈토갱묘 B조와 석관묘 B조 사이의 관계가 주목되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화장은 2차장으로서 세골장이 아니라 주검을 매장한 후에 묘광에 불을 지펴 주검을 태운 것으로 매장 절차의 한 과정으로 번소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은 수혈토갱묘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보고서에서 Ⅳ기로 비정한 석관묘와 석곽석관묘, 대개석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에서 확인된다. 무덤이 곧 화장터가 되는 이러한 방식의 장법은 주검을 태움으로써 주검이 자유롭게 된다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북방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장속이다. 요동지역의 화장도 비슷한 관념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화장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시공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전기로 비정되는 마성자문화의 동혈묘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에서 관찰되며, 초기철기시대의 신빈 왕청문 용두산 암혈석개묘와 길림의 유수 노하심 중층의 토광묘, 그리고 고구려 초기 적석총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번소의식으로서 화장은 중국 동북지방의 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랜 전통을 가진 장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Ⅲ기의 무덤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주목된다.

3. 부장품

부장품은 석기와 토기가 중심이 된다. 석기를 대표하는 것은 석촉이다. 석촉은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나 팔 부근에 부장되며, Ⅱ-1호 수혈토갱묘에는 왼쪽 다리 아래쪽으로 석촉과 골촉이 다발로 주머니에 담겨 부장되기도 하였다. 석촉은 무경식과 유경식으로 대별되며, A조 수혈토갱묘에는 무경식 석촉이, B조 수혈토갱묘와 석관묘, 개석묘, 개석적석묘에는 유경식 석촉이 부장되었다. 무경식에서 유경식으로 시간에 따른 석촉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A조 수혈토갱묘가 만발발자 유적의 분묘 중 상대적으로 먼저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석촉과 함께 다수를 점하는 석기는 석도이다. 석도는 직인(直刃)의 장방형, 장주형(長舟形) 등 여러 형태이며 날은 편인(偏刃)도 있지만 합인(蛤刃)도 있다. 이 외에도 석부와 석제 어망추와 방추차 등이 있고, 골촉과 골추, 골착, 골비 등 골기가 있으며 생활도구가 주가 된다.

토기는 관과 호, 발이나 완의 조합이 보이지만, 관과 호 또는 관과 배, 완 등이 1~2점 부장된다(그림 10).

수혈토갱묘에서는 발치 아래에서 1~3점의 토기가 출토된다. 35인이 합장된 Ⅵ-21호 수혈토갱묘의 경우 9기의 주검에서(25.7%)는 토기 부장이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26기의 주검에는 도호, 도관, 도완이나 도발, 도배 등이 부장되었다. 기종 구성은 B조 수혈토갱묘와 석관묘 모두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토기가 부장된 무덤의 빈도는 수혈토갱묘가 석관묘보다 높다.

Ⅲ기로 보고된 무덤 중 A조 수혈토갱묘의 토기는 대상(帶狀)이나 환상(環狀) 수교이호(竪橋耳壺)(보고서에서는 관)와 구연부 아래 2중 돌대가 있는 발, 그리고 굽이 있는 완으로 이와 유사한 기형의 토기는 B조 수혈토갱묘나 Ⅲ기 석관묘 토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B조 수혈토갱묘 출토 토기 호의 수교이 속성은 A조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혈토갱묘에서도 보이지만 횡교이는 A조 수혈토갱묘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이다. 특히 Ⅵ-28호 무덤의 대상(帶狀) 횡교이(橫橋耳)는 요동지역의 현문호(弦紋壺)와 기형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A조 수혈토갱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종이다. 현문호와 기형적으로 유사한 기종은 A조 석관묘 Ⅴ-42호에서도 출토되어 A조 석관묘와 B조 수혈토갱묘와의 시간적 병행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다. 한편, B조 석관묘에서 토기 부장의 빈도는 높지 않는데, Ⅴ-55호 석관묘에서는 점토대 토기와 청동팔찌가 출토되었고, 청동팔찌는 이전이 출토된 Ⅴ-56호 석관묘의 청동팔찌와 같아서 B조 석관묘는 A조 석관묘보다 늦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무덤은 Ⅳ기까지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개석묘에서도 토기 부장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출토된 대부발과 장경호는 보고서에서 같은 Ⅲ기로 비정한 수혈토갱묘나 석관묘의 부장 토기와는 기종과 기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Ⅳ기로 비정된 무덤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부장된 토기는 비슷한 기형의 호와 발이어서 토기문화는 공유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토기를 기준으로 볼 때 만발발자 유적은 A조 수혈토갱묘 → B조 수혈토갱묘, A조 석관묘 → B조 석관묘 → C조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개석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의 선후관계가 상정되며, B조 석관묘와 대개석묘가 병존했을 가능성과 함께 B조 석관묘의 일부는 Ⅳ기의 무덤과 병존했을 것이다.

청동제품은 그 수량도 종류도 단순하다. A조 수혈토갱묘 Ⅵ-20호 무덤에서는 재가공되어 동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파형동검 한 점과[12] 함께 검초(劍鞘)로 보고된 청동편이 출토되었으며, Ⅵ-21호 무덤에 매장된 19호, 20호 인골에서 청동환, 22호 인골에서는 청동수식이 출토되었다. B조 수혈토갱묘인 Ⅵ-27호에서는 무늬가 없는 동경 1점, Ⅵ-54호에서는 비파형 동모와 동제 단추가 출토되었다. Ⅴ-45호 석관에서는 세형동검으로 추정되는 검신편이

12 이 청동기를 과형동검으로 보고 요령식 동과의 모티브가 반영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석, 2020, 「혼강유역 청동단검문화의 특징과 성격-세형동검문화 단계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관계』, 동북아역사재단워크숍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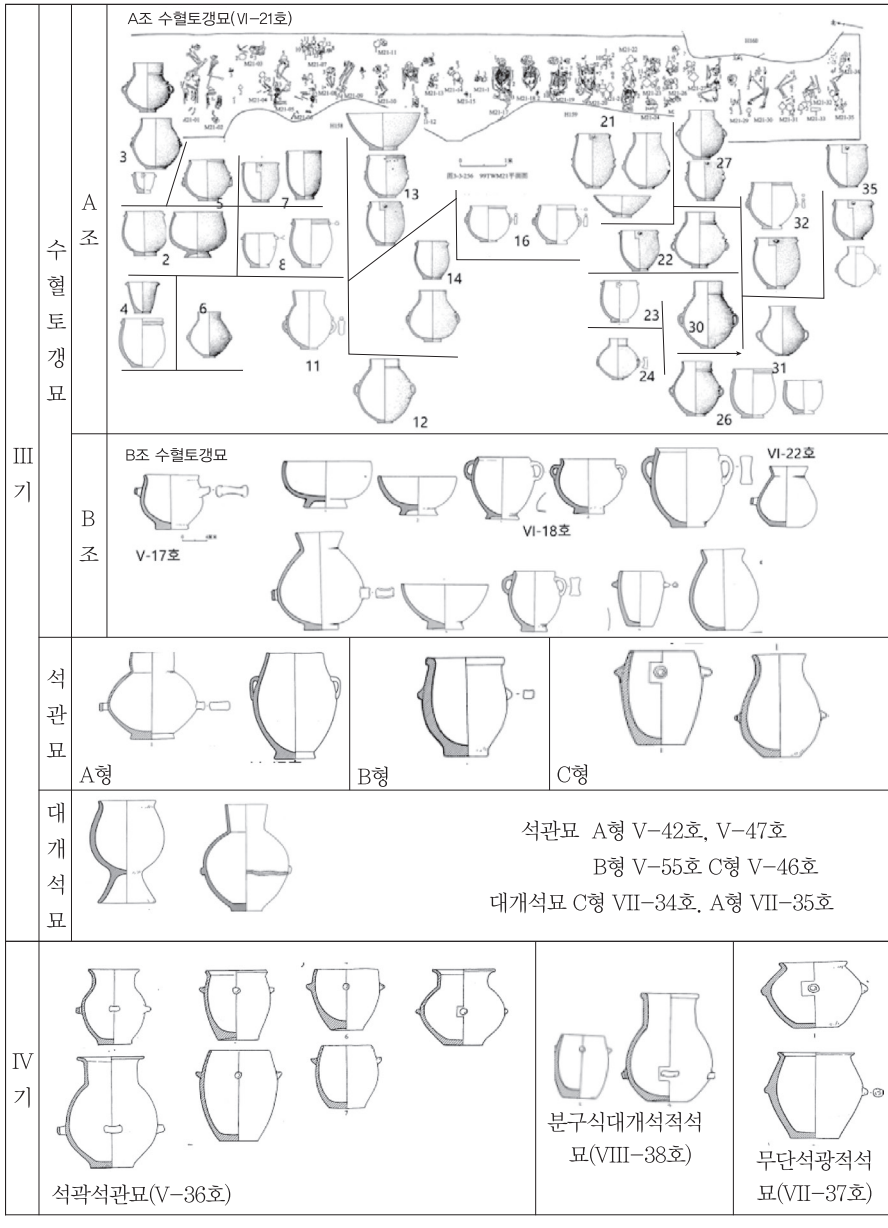


그림 10 만발발자 유적 III기 비정 무덤 출토 토기(C형 석관묘는 IV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토되었다. 청동유물에 초점을 두고 보면 만발발자 유적은 청동기문화의 주변부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면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녹송석 등 옥석제품이나 야생돼지 이빨 등 재질을 달리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지만 주로 수혈토갱묘에서 출토되었고, 이에 비해 다른 무덤형식에서의 부장품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어서 부장품에 반영된 의미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유리제 이전, 또는 점토대 토기, 장경호와 횡집선문이 결합된 특정 기종의 토기는 분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분묘 간의 층서관계

보고서에서는 유물을 기준으로 분묘의 시기를 Ⅲ기와 Ⅳ기로 나누었으나(표 1), 노출된 분묘의 층위 상황이 이를 방증하지는 않는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Ⅲ기의 무덤 중에는 Ⅳ기의 부장품과 같은 시기의 것이 출토되기도 하고, 동일 시기에서 층위상의 선후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서구의 산기슭에 위치하는 Ⅱ구역에서는 11개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Ⅱ-4호묘는 6층 아래에서 노출되었고, 보고서에서는 6층을 청동기시대 만기로 비정하

〈표 1〉 구역별 무덤의 분포 양상

구역	서구	동구			
	Ⅱ	Ⅴ	Ⅵ	Ⅶ	Ⅷ
Ⅲ기－하	수혈토갱묘 A	석관묘 A, B	수혈토갱묘 A, B, 석관묘 A, B	대개석묘 B, C	석관묘 B A, B형 대개석묘
Ⅳ기		석관묘 C 석곽석관묘 묘역식대개석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	석관묘 C 분구식대개석적석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 나머지 Ⅱ-1, 2, 3호 무덤은 모두 현대층인 1b층 아래에서 노출되었다. 시기 비정과 노출된 상황이 잘 부합되지는 않는다. 동구의 Ⅴ구역에서는 여러 형식의 무덤이 확인되었으나, 무덤 간의 중복은 없다. Ⅴ구역에서는 6개 퇴적층이 확인되었고, 4층과 5층을 청동기시대 만기층으로 해석하였다. 묘역식 대개석적석묘인 Ⅴ-41호 한 기만 묘광이 지표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Ⅲ, Ⅳ기로 비정된 석관묘와 석곽석관묘는 현대 경작층인 1층 아래에서 확인되어 Ⅴ구역 무덤들도 층위와 시기 비정도 정합되지는 않는다. 산 정상에 자리하는 Ⅶ구역의 무덤들은 모두 지표 아래에서 확인된다. A형과 B형 대개석묘인 Ⅶ-34호와 35호 무덤은 Ⅲ기로, 무단석광적석묘인 Ⅶ-37호는 Ⅳ기로 비정하였지만 층서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구의 산 정상에 자리한 Ⅷ구역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는 Ⅷ-43호 대개석묘와 39호 대개석묘는 Ⅲ기로, 대응하는 Ⅷ-38호와 Ⅷ-44호 무덤은 Ⅳ기로 비정하였지만 모두 경작층 아래에서 확인되어 층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Ⅵ구역은 7개의 층위가 확인되었고, 여기서 노출된 19기의 무덤은 모두 Ⅲ기로 비정되었지만, 무덤의 출토 맥락은 서로 다르다. 먼저, 수혈토갱묘 A

〈표 2〉 Ⅵ구역 층위별 분묘 분포

	수혈토갱묘		석관묘	
	A조	B조	A조	B조
1층		Ⅵ-32, 52		Ⅵ-53
2층				
3층				
4층	Ⅵ-17, 18, 19, 22, 23, 25, 26, 27, 27, 31, 49, 50, 52, 54		Ⅵ-51	
5층	Ⅵ-20, 21			
6층				
7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와 B조 사이의 선후관계는 층서에 의해 확인되었다(표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조의 Ⅵ-20호와 21호 두 기는 청동기 만기층으로 비정된 5층 아래에서 노출되었고, B조 수혈토갱묘는 15기 가운데 Ⅵ-32호와 52호를 제외하면 모두 4층 아래에서 노출되어 A조와 B조 수혈토갱묘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 보고서에서 Ⅲ기로 비정된 석관묘 2기 가운데 바닥시설이 없는 A조 석관묘 Ⅵ-51호는 4층 아래에서 B조 수혈토갱묘 Ⅵ-50호와 52호 사이에 자리하며, 바닥시설이 있는 B조 석관묘 Ⅵ-53호 석관묘는 현대 경작층이 1층 아래에서 노출되었다. 따라서 B조 수혈토갱묘와 A조 석관묘의 동시성이 인정되며, A조와 B조 석관묘 사이의 선후관계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층서관계로 선후가 확인된 것은 Ⅵ구역에서 수혈토갱묘 A조와 B조, 그리고 석관묘 A조와 B조이며, 나머지 무덤들의 시기 비정은 층서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만발발자 유적에서 Ⅲ기와 Ⅳ기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분묘에 이러한 시기 구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 대표적 예가 Ⅲ기로 비정된 Ⅴ-56호 석관묘에서는 유리제 이전과 은환이 착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같은 Ⅲ기로 비정된 석관묘 부장품과 차이가 있고, 이전은 재질이 다르지만 Ⅳ기로 비정된 Ⅶ-37호 무단석광적석묘에서도 출토되었다. 이전은 한대의 장옥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Ⅲ기로 비정된 무덤 중에는 Ⅳ기에 해당되는 예도 있으므로 개별 무덤의 시기 구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Ⅳ. 만발발자 유적의 Ⅲ, Ⅳ기 분묘와 고구려 초기 적석총

1. Ⅲ, Ⅳ기 분묘 간의 종횡(縱橫)관계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Ⅲ기와 Ⅳ기로 비정된 여러 형식의 무덤을 매장부와 지상의 표식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수혈토갱묘계 무덤, 석관묘계 무덤, 대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묘계 무덤으로 대별되며, 각각은 구조와 장법에 따라 세분된다.

수혈토갱묘계 무덤은 부장 토기를 기준으로 A조와 B조로 세분되며, 각각의 선후관계는 층서로 밝혀졌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지만, 수혈토갱묘 두 조는 축조방식과 단인장, 합장, 천장 등의 장법과 부장품 조합이 공통되어서 시간적 계기성이 인정된다.

석관묘계 무덤은 석관묘와 석곽석관묘가 있다. 석관묘는 다시 바닥시설과 장법에 따라서 세분되어 바닥시설 없는 A형은 층위에 의해 수혈토갱묘 B조와 시간적으로 병행관계를 가지며,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를 공유한다. 바닥시설 있는 B형 석관묘는 A형 석관묘와 선후관계를 가지며, C형 석관묘는 B형 석관묘와 구조는 같지만 화장이라는 장속의 차이를 보인다. B형 석관묘에서 점토대구연토기가 부장되어서 병존하는 수혈토갱묘 B조보다는 시간적으로 늦을 것으로 보인다. C형 석관묘는 석곽석관묘나 대개석적석묘의 부장토기와 기종과 기형의 특징을 공유하며, 이는 환인 망강루 적석총에서도 출토된 토기와도 유사하다.

석곽석관묘는 지하 매장부를 돌로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석관묘계 무덤 범주에 해당되며 C형 석관묘와는 화장과 부장토기에서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다차에 걸친 다인합장이나 개 순생은 A조 수혈토갱묘계 무덤에서 관찰되는 속성으로 A조 수혈토갱묘와는 시간 공백이 커서 양자의 관련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석관묘와 수혈토갱묘의 매장방식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석관묘와 수혈토갱묘의 구조와 장법, 장속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대개석묘계 무덤은 지상에 커다란 돌로 표식하였다는 점에서 대개석묘와 대개석적석묘로 대별되며, 축조과정을 고려해보면 각각은 세분 가능하다. 먼저, 격벽을 가진 매장부의 A형 대개석묘는 구조적으로는 길림지역 서단산문화 석관의 격벽이, 부장토기는 요동지역의 장경호에 현문호의 무늬가 결합된 것으로, 서단산문화와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무덤형식이다. 대개석묘 B형은 묘광 주위에 돌을 돌리고 큰 덮개돌을 얹은 것으로, 묘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 대개석묘로 볼 수 있다. 요동지역의 대개석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요동 청동기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 C형 대개석묘는 2단굴광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형식과 차이를 보이며, 출토된 대부호는 노하심 중층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기형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C형 대개석묘는 대개석묘 A형, B형보다는 늦게 출현하였을 것이다.

대개석적석묘는 대개석묘 주위에 돌이 부가된 것으로 축조과정을 기준으로 묘역식대개석적석묘와 분구식대개석적석묘로 세분된다. 묘역식대개석묘는 구조적으로 B형 대개석묘와 연결되며, 분구식대개석적석묘나 적석부가 대개석을 덮었다는 점에서 대개석묘나 묘역식대개석적석묘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개석적석묘의 두 가지 형식에서는 화장이 행해졌고, 분구식대개석적석묘의 부장토기에서 C형 석관묘, 석곽석관묘와 기종과 기형적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적석 분구는 선행 묘제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요소로, 비슷한 시기로 비정되는 환인 망강루 적석총을 고려해보면 무단석광적석총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 무덤의 종횡관계는 〈그림 11〉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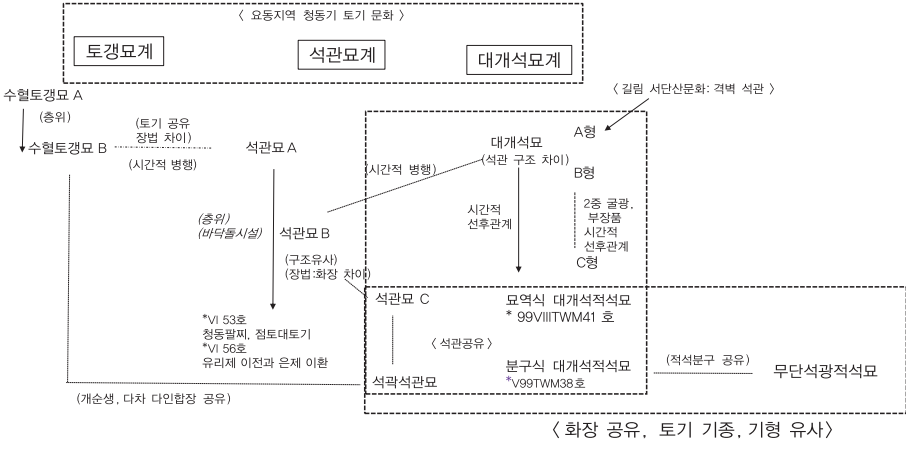


그림 11 만발발자 분묘의 종횡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정리되며, 무덤 형식은 각각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Ⅰ단계는 수혈토갱묘 A조가 단독으로 조성된 시기로, A조 수혈토갱묘는 서구와 동구에 조성된다.

Ⅱ단계는 무덤의 중심이 동구로 이동하며, 수혈토갱묘 B조가 수혈토갱묘 A조를 대체하면서 존속하는 한편, 석관묘 A형과 대개석묘 A형이 출현하여 세 무덤이 병존한다. 무덤 형식은 다르지만 세 형식의 무덤은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문화라는 점에서 특징을 공유한다. 수혈토갱묘 B조 Ⅴ-28호 무덤 출토 대상횡교이호와 석관묘 A조 Ⅴ-42호 무덤의 대상횡교이호는 요동지역의 이른바 현문호와 기형적으로 연결되며, 석관묘 A조의 Ⅴ-47호 무덤의 수교이호는 수혈토갱묘 B조의 수교이호와 대체적으로 유사기형이다. 따라서 Ⅵ구역뿐 아니라 Ⅴ구역에서도 석관묘 A조는 B조 수혈토갱묘와 시간적 병행관계로 추정된다. 대개석묘 A형 Ⅷ-35호 무덤에서 출토된 동체 중앙에 집선횡선문대가 시문된 장경호는 요동의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무덤의 장경호와 현문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서 기원전 5~4세기로 비정해볼 수 있으며, 석관에 격벽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길림지역 서단산문화의 요소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단계는 지하 매장의 석관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수혈토갱묘 B조는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수혈토갱묘 B조와 병존했던 석관묘 A형은 석관묘 B형으로 대체되었다. 대개석묘 B형은 이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석묘는 요동지역 대개석묘에서 보이는 것으로, 대개석묘 B형은 점토대토기가 부장되었다는 점에서 석관묘 B형과 병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개석묘 A형과 B형이 계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근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Ⅳ단계는 구조와 장법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시기로, 돌로 축조된 여러 무덤 형식이 병존한다. Ⅲ단계의 석관묘 B형이 지속되는 한편 석관묘 C형, 석곽석관묘, 대개석묘 C형과 묘역식대개석적석묘와 분구식대개석적석묘가 이 단계에 출현하여 병존하였다. Ⅳ단계의 무덤은 화장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석관묘 B형과 대개석묘 C형에서는 화장이 행해지지 않았다. 석관묘 B형 Ⅵ-56호 무덤에 부장된 유리제 이전은 한대 장옥의 하나이며, 대개석묘 C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 Ⅶ-34호에서는 부여 노하심 중층 115호 출토품과 유사한 기형의 대부호가 부장되어 보고서에서 Ⅲ기로 비정하였지만, 부장유물로 미루어 기원전 2세기대로 연대비정된다. 화장이 행해진 무덤으로는 석관묘 C형과 석곽석관묘, 분구식 대개석적석묘가 있다. 이 무덤들은 부장토기의 기종과 기형에서 특징을 공유하며, 공유되는 토기는 무단석광적석총인 환인 망강루 적석총 4호와 6호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로 비정된다. 그러나 석관묘 C형 Ⅴ-45호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으로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2세기 중엽경으로 연대비정되어[13] 석곽석관묘나 분구식대개석적석묘보다 먼저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도 기원전 3세기 말이나 기원전 2세기 중엽 즈음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Ⅳ단계의 병존하는 여러 형식의 무덤은 화장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뉘며, 앞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형식의 무덤이 묘지를 공유하여 장속의 차

〈표 3〉 만발발자 유적 분묘의 전개

	수혈토갱묘		석관묘			대개석묘			석관석관묘	대개석적석묘		전개단계	보고서
	A	B	A	B	C	A	B	C		묘역석	적석분구		
6C												Ⅰ	
5C												Ⅱ	Ⅲ
4C												Ⅲ	
3C												Ⅳ	Ⅳ
2C													
0 BCE													

13 이후석, 2020,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족속 또는 집단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묘지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장속 선택의 다양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병존하는 석관묘 B형과 석관묘 C형은 화장의 채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일 뿐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은 같다. 묘역식대개석적석묘나 대개석묘 B형도 마찬가지로, 묘역식대개석적석묘는 대개석 아래 돌을 돌린 대개석묘 B형과 구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무덤 형식의 차이는 족속의 차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장을 선택적으로 채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장품도 중국 중원식을 선택하거나 부여식 기물이 채용되기도 하는 등 선택이 있었다. 따라서 Ⅳ단계의 여러 형식의 무덤은 족속의 차이라기보다는 구조와 장속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구식대개석적석묘는 지하식 석관과 대개석, 적석분구가 결합된 무덤으로, 대개석 위를 덮은 적석분구라는 점에서 대개석묘나 대개석적석묘와 구별된다. 오히려 적석분구라는 관점에서 동시기 병존하였을 고구려 무단적석총의 영향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한다.

〈표 3〉과 같이 네 단계의 전개과정을 보이는 만발발자 유적의 Ⅲ, Ⅳ기 분묘는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의 변천과정과 대응되면서 수혈토갱묘에서 수혈석관묘와 대개석묘로 전개되고, 대개석묘에 길림지역 서단산문화요소가 결합되고, 기원전 3세기 말을 경유하면서 새롭게 화장이라는 장속이 선택적으로 결합되었다. 여기에 부여의 토기 영향과 중국 중원의 한의 요소들이 부장품으로 더해진다. 결국 수혈토갱묘계의 다인합장과 개 순생의 장속, 석관묘계, 대개석묘계 무덤의 구조와 장법, 부장기물 등에서 부여와 중국 중원의 요소들이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덤형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하여

만발발자 유적의 Ⅲ, Ⅳ기 분묘는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Ⅳ단계가 고구려 형성을 즈음한 시기와 병행관계에 있다. Ⅳ단계에 조성된 여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식의 무덤 가운데 부여 노하심 중층 115호 무덤과 유사한 대부호가 부장된 대개석묘 C형 Ⅷ-34호 무덤과 세형동검편이 부장된 석관묘 C형 Ⅴ-45호 무덤은 고구려 형성 전으로 볼 수 있지만, 석관묘 B형과 석곽석관묘, 분구식대개석적석묘는 환인망강루 4호나 6호 적석총에 부장된 토기나 이전으로 보아 고구려 형성기에 위치 지을 수 있다.

고구려 형성기에 병존하는 무덤 가운데 석관묘 B형은 동시기 선호되었던 번소의식으로서 화장을 택하지 않았다. 화장을 택한 석곽석관묘와 분구식대개석적묘들은 매장부와 지상의 표식이라는 점에서 상사, 상이점이 있지만 화장이라는 점은 고구려 초기 적석총에서도 관찰되는 속성이어서 고구려 적석총이 어느 특정 형식의 무덤과 계승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구려 적석총을 특징짓는 세 요소는 지상 매장부, 적석분구, 번소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동반도 남단의 청동기시대 적석묘 기원설이 이러한 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며, 이 세 요소를 나누어 설명한 견해가 이원설이나 복합설이다. 적석총의 구성 요소 중 만발발자 분묘에서 가장 먼저 선택된 것은 화장이다. 화장은 주검을 안치한 후 묘광을 채우는 과정에서 행해진 매장 절차의 한 과정으로, 묘광이 화장터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화장은 중국 요동지역에서는 청동기 전기에 해당되는 마성자문화에서 보인다. 마성자문화는 태자하 중상류역의 요양, 본계, 신빈 등지에서 확인되며, 마성자문화를 대표하는 무덤은 동혈묘이다. 동혈묘는 동굴 내에 매장된 여러 형식의 무덤을 총칭하는 것으로, 동굴 내에서는 토갱묘와 석관묘가 관찰된다. 동혈 내 석관묘는 토광묘에 돌을 돌린 것으로 판상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요동지방이나 요북지방의 청동기시대 상자형 석관은 아니다. 다만, 만발발자의 수혈토갱묘나 석관묘와는 축조에서 유사성이 있고, 장속도 단인장과 합장, 천장 또는 간골장이 확인되어 만발발자 수혈토갱묘와 연결 가능성은 있다. 토기에서도 요동지역 청동기시대의 산성자문화 토기와의 관련이 인정된다. 산성자문화로 대표되는 토기문화는 요동지역뿐 아니라 요북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며, 환인 풍가보자 석개석광적석묘인 2호나 5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의 구연부는 요동지역 현문호와 연결되어 혼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계를 따라 환인과 통화 일대로 요동지역의 토기문화가 확산되었을 개연성은 상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화장이 만발발자 분묘에서는 기원전 3세기 말경에 확인되는 데 반해 마성자문화는 대략 기원전 1800년 전에서 1100년 사이로 비정되어서 양자 간의 시간공백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만발발자 무덤에서 보이는 화장을 요동지역 마성자문화와 연결시킬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번소의식과 요동지역 마성자-산성자문화를 연결시킬 수도 없다.

다음으로 적석분구를 보면, 이원설 입장은 고구려 적석총의 연원을 환인일대의 적석석개석광묘에서 구하였고,[14] 거슬러 가면 석개석광묘와 연결된다. 석개석광묘는 환인의 산두자(山頭子)1호분, 용두산 암혈석개묘, 풍가보자, 대전자 청동단검묘[15] 외에도 신빈 왕청문의 용두산 암혈석개묘 등에서 확인되고, 이 무덤들에서는 화장도 확인된다. 따라서 혼강 수계에서 적석과 화장이 시간으로 공반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왕청문 2호 무덤의 동병철검이나 대전자 청동단검묘의 세형동검과 명도전으로 미루어 기원전 4~3세기로 비정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 이 무덤들은 적석분구를 형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하 매장부라는 점에서 고구려 적석총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원론 입장에서 환인 망강루4호 적석총과 연결된다고 본 풍가보자 4호와 5호 무덤은 묘광 주위에 적석이 부가된 묘역식대개석적석묘로 지상의 표식은 대개석이다. 기원전 4~3세기경에 혼강수계의 대개석묘나 묘역식대개석적석묘에서 화장이 행해졌음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적석분구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

만발발자의 Ⅳ단계 무덤 중 석관묘 B형이나 대개석묘 C형에서는 화장을 선택하지 않았고, 분구가 없는 석곽석관묘에서 화장을 택한 것을 보면, 화장이 선택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적석과 화장의 연원을 나누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요동지역의 대개석묘나 석붕이 청동기시대 적석묘의 적석

14 李新全, 2009, 앞의 글.

15 梁志龍 · 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선택적으로 채용하면서 대개석적석묘나 적석석붕묘가 조성된 후에 화장이 부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대개석묘나 석붕묘의 결합 가능성이 상정되는 무순 산용의 석개적석묘나 석개석실적석묘에서 아직까지 화장이 관찰되지 않아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적석총의 출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매장부이다. 적석총의 매장부는 지상식의 석광으로 석관과는 구별된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광은 석관이나 석곽과는 달리 돌 구덩이라는 의미로 적석부의 함몰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석개석광적석묘 또는 석개석광묘의 지하식 석관을 고구려 적석총의 지상식 석광에 대응시킬 수는 없다.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 여러 형식의 분묘 가운데 지상 매장부를 가진 것은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와 석붕(북방식 지석묘)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는 분포지를 공유하지 않는다. 만약 대개석묘와 적석이 결합하였듯이 요동지역에서 석붕과 적석의 결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을 단선적 발전의 일원론이나 지역을 나누어 설명하는 이원론보다는 적석분구, 지상 매장부, 번소의식으로서 화장 세 요소가 선택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다. 만발발자 유적의 Ⅳ단계에 병존하는 여러 형식의 무덤이 시사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결국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 무덤으로부터 유추해볼 때 고구려 적석총은 기원전 3세기를 경과하면서 여러 형식의 무덤 간에 선택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 이러한 가설은 당분간 쉽게 증명될 것 같지는 않다. 요동지역은 물론, 혼강 유역이나 압록강 중하류역의 전국시대에서 진한 교체기의 유적 조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 일대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친 유적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함께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Ⅴ. 맺음말

고구려 고분 연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중의 하나가 초기 적석총에 관한 것이다. 적석총이 중국 동북지역의 압록강 중하류역과 지류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중국 동북지역의 선행묘제와는 구조나 장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작 적석총의 기원과 초기 적석총의 구조와 장법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혼강 수계의 고구려 형성을 즈음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이로부터 초기 적석총에 관한 여러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대에서 만발발자 유적의 무덤을 검토하였지만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보고된 무덤 가운데 고구려 형성을 즈음한 시기의 분묘 자료가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출토된 유물도 극히 소량이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발발자 유적의 분묘에서 보이듯이 Ⅲ단계에 해당되는 여러 무덤 형식은 토기문화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지만 무덤 구조나 장속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Ⅳ단계에 해당되는 무덤은 다양한 형식이 병존하고, 구조, 장속과 토기 및 부장품 일부에서 선택적 결합이 관찰된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총의 등장도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요소가 선택적이고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발발자 유적의 분묘를 통해 볼 때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이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되지만, 적석총의 출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혼강이나 압록강 중하류역의 전국시대에서 진한교체기의 물질문화가 매우 복잡한 데 비해 자료는 충분하지 못하여 시공상의 경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덤에서 보이는 시공을 초월한 복잡다난(複雜多難)한 양상에 대한 설명은 이 일대 고고 자료가 축적된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혼강이나 압록강 중하류역 일대 자료의 축적을 기대하면서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과정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오대양, 2020,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万发拔子遺阯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논문

오강원, 2004, 「萬發拔子를 통하여 본 통화지역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1.

王綿厚, 2005, 「고구려문화와 중국 동북 예맥계 청동문화의 연원관계」,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4.

이후석, 2020, 「혼강유역 청동단검문화의 특징과 성격-세형동검문화단계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화 만발발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관계』, 동북아역사재단워크숍 자료집.

정찬영, 1967, 「고구려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주영헌, 1962,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徐光輝, 1996, 「遼東石構墓葬的類型及相互關系」,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李殿福, 1994, 「青銅時代至唐代集安地區墓葬變遷」, 『東北考古研究(2)』.

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調查」, 『東北史地』 2006-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강현숙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고구려 형성을 전후하여 여러 형식의 무덤이 조사되어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의 분묘를 검토하고, 그 결과로부터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만발발자 유적의 Ⅲ기와 Ⅳ기의 분묘는 수혈토갱묘계와 석관묘계 그리고 대개석묘계 무덤으로 대별되며, 각각은 종횡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어 고구려 형성을 전후한 시기의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는 화장, 분구적석, 부장품 등에서 선택적인 결합을 보여준다. 그중 고구려 적석총의 연원으로 지목되었던 대개석적석묘는 지상 매장부의 적석분구를 가진 적석총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구려 초기 적석총과 동시기의 무덤인 화장을 공유한 석곽석관묘도 지하 매장부나 분구 적석 등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적석총도 어느 특정한 무덤에서 연원하였다기보다는 지상 매장부, 분구적석, 매장 절차로서의 화장 등의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주요 요소인 지하 매장부, 분구적석, 화장 등의 요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결합되었는지는 만발발자의 여러 형식의 무덤 자료로부터 유추할 수 없었다. 이는 혼강이나 압록강 중하류역의 전국시대에서 진한교체기의 물질문화가 매우 복잡한 데 비해 물질자료는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데 기인한 것으로 자료가 축적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고구려 적석총, 만발발자 유적, 수혈토갱묘, 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화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Discussion on the Emergence of Goguryeo Stone Mound Tombs through Review the Tombs Were Excavated Wanfabozi Site of Tonghua, Jilin China

Kang Hyunsook

Various types of tombs at Wanfabozi site assumed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Goguryeo, are expected to explain the emergence of Goguryeo stone mound tomb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vance the discussion on the emergence of Goguryeo Stone mound tombs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e tomb of Wanfabozi sites.

The tombs of the Wanfabozi site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arthen tombs(수혈토갱묘), stone coffin(석관묘), stone coffin covered with large stone(대개석묘). And the each of tomb's groups are divided into sub-groups and each sub-group has a spatio-temporal relationship. Among them, the stone coffin covered with large stone and stone graveyard(대개석적석묘) which was said preceding form of the Goguryeo Stone mound tombs, is structurally different from the Goguryeo Stone mound tombs. Although sharing the crematio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urial process is different between the double-layer sarcophagus(석곽석관묘) and Goguryeo Stone mound tombs. Therefore, it was inffered that the Goguryeo Stone mound tombs were not derived from only a specific grave, but rather a complex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such as burial process, stone mound and cremation by passing time.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infer how elements of the early Goguryeo Stone mound tombs were combined from the various types of tombs at Wanfabozi sites. It is because that the material culture of the 4-3century BCE was very complex in the reaches of the Hun rivers(혼하) and Yalu rivers, but the excavated material datas were distributed and fragmented. It is considered a problem to be solved if data is accumulated.

Keywords: Goguryeo Stone mound tomb, Wanfabozi site, earthen tombs(수혈토갱묘), stone coffin(석관묘), stone coffin covered with large stone(대개석묘), stone coffin covered with large stone and stone graveyard(대개석적석묘), crem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이종수 | 단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II. 조사 현황
III. 무덤의 특징과 계통
IV. 무덤의 성격 및 후대로의 영향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만발발자(萬發撥子) 유적은 길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금창진(金廠鎭) 동창구(東昌區)의 혼강(渾江) 연안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1956년 처음 발견되어 간략한 지표조사만 이루어졌다가 1987년과 1997~1999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에 의해 2차에 걸친 정밀 발굴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주거지 20기, 수혈유구 137기, 구상유구 9기, 환호 1기, 무덤 56기가 발굴되었고, 토기를 비롯한 석기, 청동기, 철기, 골각기 등 유물 6,942점이 출토되었다.[1]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명·청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혼재한 복합유적으로 통화지역 물질문화의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고구려 물질문화의 기원 및 계승 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무덤과 생활유구가 함께 확인되므로 고구려 이전 시기와 고구려 시기 취락의 전체적인 생활상과 문화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커다란 의의가 있다.[2]

이 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구 중의 하나가 제Ⅵ구역에서 조사된 20호와 21호이다. 이들 무덤은 여러 사람을 하나의 대형 토광에 묻은 집장묘(集葬墓)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20호에는 4인, 21호에는 35인이 매장되어 있다. 집장묘는 사전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하나의 목관 혹은 하나의 묘광에 묻은 무덤"을 의미한다. 합장묘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매장된 사람 수

---

* 투고: 2020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위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중국 통화 만발발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 프로젝트의 결과물임.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 이종수,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통화 만발발자유지 고고발굴 보고」-」, 『야외고고학』 37호, 한국문화유산협회, 1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많다는 점에서 군장묘(群葬墓), 집합매장묘, 다인합장묘라고도 불리며, 중국에서는 총장묘(叢葬墓)라 칭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장묘는 친연 관계(부부, 부자, 형제자매 등)의 사람을 하나의 묘광에 묻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 2인 혹은 3인이며, 많게는 4인이 함께 묻히기도 한다. 반면에 집장묘는 매장인 수가 합장묘에 비해 많은데, 적게는 4~5인부터 많게는 수십 명이 함께 묻혀 있다. 매장된 사람들도 가까운 혈연적 관계보다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취족이장(聚族而葬)"으로 동일 씨족 혹은 동일 집단의 구성원을 한곳에 매장하는 형식을 의미한다.[3]

필자가 이 유형의 무덤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기원전 4~3세기경 이 지역에 갑자기 출현한 토광묘의 기원과 집장묘 조영 원인을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최근 학계에서 제기된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와 석촌동고분군 대형토광묘의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초기 고구려문화의 백제 계승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만발발자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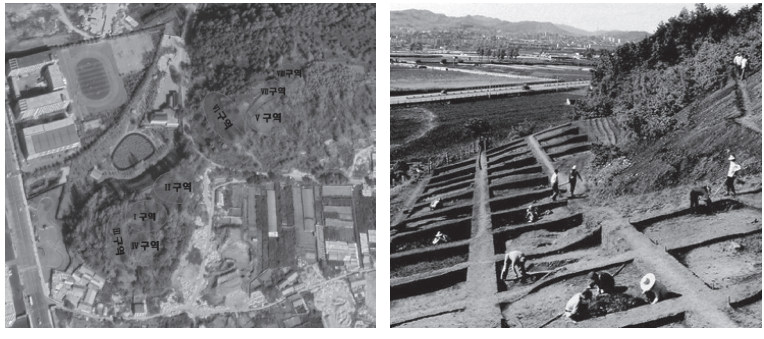


그림 1 통화 만발발자 유적 발굴 구역도 및 Ⅵ구역 발굴 모습

출처: 이종수, 2020, [그림 2] 및 『田野考古集粹』, 30쪽 사진 5.

3 朱柯, 2019, 「叢葬墓初步研究-以鮮卑早期墓葬爲例」, 『新絲路:上旬』 4, 陝西省社會發展研究會, 1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광묘와 집장묘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지역 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계통적 기원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토광묘 사용집단의 성격과 집장묘 조영 배경, 그리고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와 백제 석촌동고분군 대형토광묘를 비교 분석하여 두 무덤 간에 계승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사 현황[4]

통화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모두 21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는데, Ⅱ구역에서 4기, Ⅵ구역에서 17기가 확인되었다. Ⅱ구역에 위치한 1~4호의 경우 서쪽 구릉 평탄면에 입지해 있는데, 구역의 북동쪽(1호), 중앙(2·3호), 남서쪽(4호) 등에 일정한 규칙성 없이 각자 흩어져 있다. Ⅵ구역에 위치한 17기의 토광묘는 모두 동쪽 구릉 중부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에 입지해 있다. 집장묘인 20호와 21호는 구역의 가장 북쪽에 입지해 있으며, 나머지 무덤들(17·18·19·22·23·25·26·27·28·31·32·49·50·52·54호)은 대부분 중남부에 일정한 규칙성 없이 배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석관묘 2기와 대형적석묘가 같은 구역에서 확인된다.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모든 무덤들 간에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사람들은 이전 시기에 조영된 무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장묘인 20호는 평면이 장방형으로 묘 입구의 길이는 560cm, 너비 245cm, 지표면에서의 깊이는 70cm이다. 바닥의 길이는 530cm, 너비 230cm, 깊이는 120cm이다. 장구를 갖추지 않았으며, 4명이 매장되어 있다. 3인(남성, 여성, 남성)의 머리 방향은 등고선과 같은 북쪽을 향해 있으며, 3인의 발 아래 1인(남성)의 머리 방향은 동쪽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4인의 인골은 두개골

4 이하 유적 현황 내용은 "이종수, 2020, 앞의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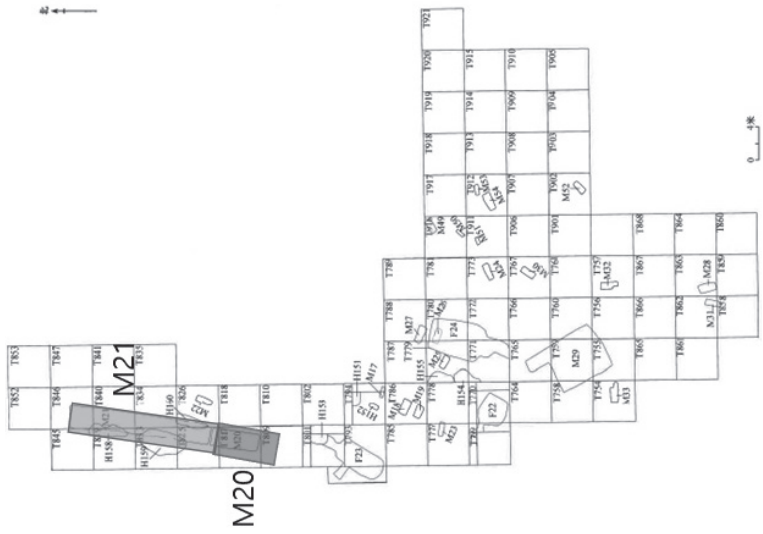


그림 2 Ⅵ구역 유구 평면도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2-1-9 수정 인용.

과 사지 뼈가 잘 남아 있으며, 매장 방식은 모두 얼굴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고, 양팔을 나란히 내리고, 두 다리는 한쪽으로 굽혀 묻는 앙신굴지(仰身屈肢)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매장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호 인골은 30세 좌우의 남성으로 머리 방향은 북쪽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해 있다. 사자의 좌측 어깨 부분과 팔 사이에 석촉 4점, 골촉 3점, 이빨 장식품 1점 등이 놓여 있으며, 우측 팔 부분에 청동단검 1점, 다리 아래에 석착 1점, 관(罐) 1점이 놓여 있다. 2호 인골은 30세 전후의 여성으로 머리 방향은 북쪽이며, 얼굴은 동쪽을 향해 있어 1호 남성과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사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석도 1점, 좌측 엉덩이 부근에 토제 방추차 2점, 발 아래에 석부, 호(壺), 관 각각 1점이 놓여 있다. 3호 인골은 50세 전후의 남성으로 머리 방향은 북쪽이다. 머리 우측에 관 1점, 발(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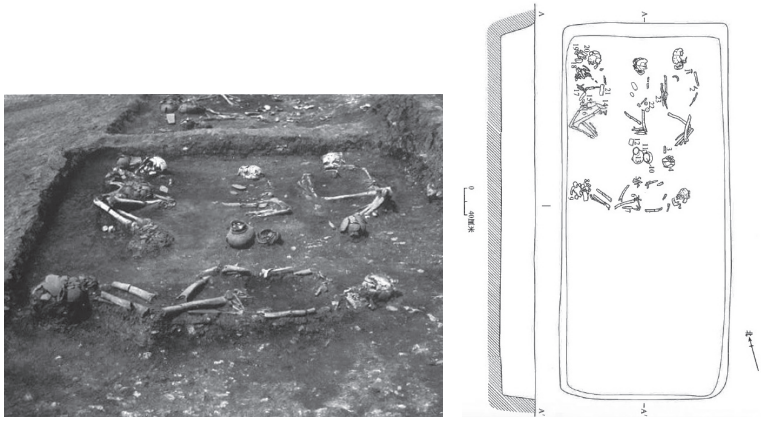


그림 3 20호 조사 모습 및 평면도

출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판38-1 및 도3-3-252.

1점, 우측 팔 부근에 석도 1점, 하복부 부근에 관 1점, 발 1점, 석도 1점, 좌측 팔 부근에 석도 1점이 놓여 있다. 4호 인골은 35세 좌우의 남성으로 머리 방향은 서쪽이며, 1~3호 인골의 발 아래에 가로로 놓여 있다. 사자 흉부 우측에서 뼈 도구 1점, 왼손 부근에서 청동검집 1점, 발 아래에 호와 관 각 1점이 안치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25점으로 토기 12점, 석착 1점, 석도 5점, 석부 1점, 화살촉 3점, 청동기 2점, 뼈도구 1점 등이다. 토기는 운모가 비짐된 홍갈색 혹은 회갈색이 주를 이루며, 진흙질의 황색도 일부 확인된다. 기종으로는 호, 관, 발 등이 있으며, 한 사람당 적게는 1점부터 많게는 4점까지 매납되어 있다. 호는 구연부가 벌어져 있고, 경부가 길며, 경부와 복부가 만나는 지점에 한 줄의 돌대문이 장식되어 있다. 복부에 세로 방향의 손잡이 혹은 꼭지 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바닥은 편평하다. 발은 벌어진 구연부에 경부와 복부의 경계가 명확하며, 굽을 갖추고 있다. 관은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손잡이가 세로 방향인 것, 넓적한 판 형태의 손잡이가 2개 혹은 4개 달린 것, 여러 개의 손잡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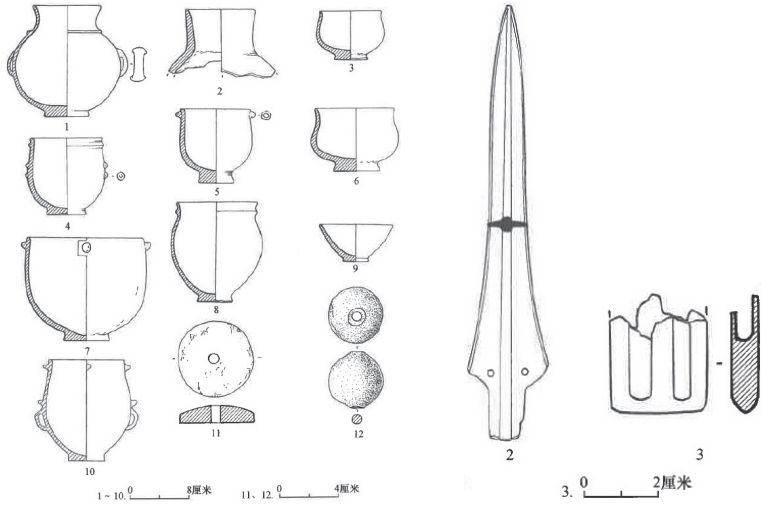


그림 4 20호 출토유물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3-3-253·255.

가 붙어 있는 것, 손잡이가 없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완(碗)은 얕은 굽이 특징적이다. 석기 중에는 판암으로 제작된 장방형 혹은 반월형 석도가 특징적이며, 화살촉은 모두 삼각만입식만 확인된다. 청동단검은 검신이 유엽형(柳葉形)이며, 등척의 융기가 높은 편이다. 검신과 검병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2개의 둥근 구멍이 나 있으며, 병부 일부는 훼손되어 있다. 잔존 전체 길이는 23.1cm이다. 청동단검 검집은 잔편으로 형태는 장방형이며, 표면에 두 줄의 움푹 파인 홈이 나 있다.

21호는 말각장방형으로 동쪽이 약간 높고 서쪽이 약간 낮은 비스듬한 형태이다. 묘광 벽면은 수직이며, 지표에서부터 65~75cm 깊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묘광의 깊이는 2~25cm로 얕은 편이다. 무덤 상면부의 길이는 1,670cm, 너비 250cm, 무덤 바닥면의 길이는 1,650cm, 너비는 230cm이며, 방향은 12°로 20호 무덤과 같다. 무덤 매납토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들과 회황색의 점토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섞여 있다. 무덤 서쪽은 158호와 159호 수혈유구에 의해, 동쪽은 160호 수혈유구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내부의 인골과 부장품은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세부적인 매장 양상을 살펴보면, 긴 세장방형의 묘광 안에는 모두 35인이 매장되어 있다. 인골은 묘광 내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북측의 인골은 비교적 가지런하게 정리된 반면에 남측의 인골은 두개골과 사지골이 흩어져 있다. 머리 방향은 일정하지 않은데, 8구는 서쪽,[5] 18구는 동쪽,[6] 4구는 남쪽,[7] 3구[8]는 북쪽을 향해 있으며, 나머지 2구는 방향을 알 수 없다. 머리 방향이 서쪽을 향한 인골은 대부분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을 향한 인골은 가운데와 남측에 배치되어 있다. 남북 방향의 두향을 가진 인골은 대부분 유아 혹은 미성년자의 인골로 성인의 머리 위 혹은 발 아래에 가로로 놓여 있다. 장식은 일차장이 대부분이나 골격이 흩어져 있거나 일정하지 않은 인골의 경우 이차장일 가능성도 있다. 시신 안치 방법은 상반신은 두 손을 교차하여 복부에 올려놓고, 다리는 모아서 무릎을 한쪽으로 굽혀서 묻은 앙신굴지 형태이다.

인골의 성별은 체질인류학적 측정 결과 남자 4인(5·17·18·29호) 여자 3인(14·19·20호)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골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략적이나마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 석도·석부 등의 생산도구와 석촉·골촉 등의 사냥도구가 매장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방추차가 매납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호 무덤의 여성 인골 주변에서 방추차가 발견되고, 21호 무덤의 3인 여성 인골 주변에서도 모두 방추차가 확인되고 있어 방추차가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유물임을 알 수 있다. 21호 무덤의 경우 여성으로 확인된 3구를 제외하고 12구(2·4·8·10·13·15·21·22·24·27·31·32·

5 머리 방향이 서쪽인 인골은 1·2·4·5·6·8·9·22번이다.

6 머리 방향이 동쪽인 인골은 10·12·13·14·15·17·18·19·20·21·23·25·26·28·29·30·32·35번이다.

7 머리 방향이 남쪽인 인골은 3·11·33·34번이다.

8 머리 방향이 북쪽인 인골은 7·16·24번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4호)는 주변에서 방추차가 확인되고 있어 이 무덤에 묻힌 35명 중 적어도 16명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은 6개월~60세까지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이에 따른 매장유물상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장품의 배치는 무덤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머리 상부에는 관·발 등의 토기류, 상반신 부위에는 장신구와 석공구류, 허리와 대퇴부 부위에는 무기류·생산공구·장신구류, 다리 아래에 토기류와 동물 뼈 혹은 이빨을 놓고 있다. 부장유물의 질과 양으로 볼 때, 19~22호 인골이 주목된다. 19호와 20호 인골은 25~30세 정도의 여성으로 머리 부분에 청동제 고리와 옥



그림 5 21호 조사 모습 및 유구 평면도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판 40 및 도3-3-2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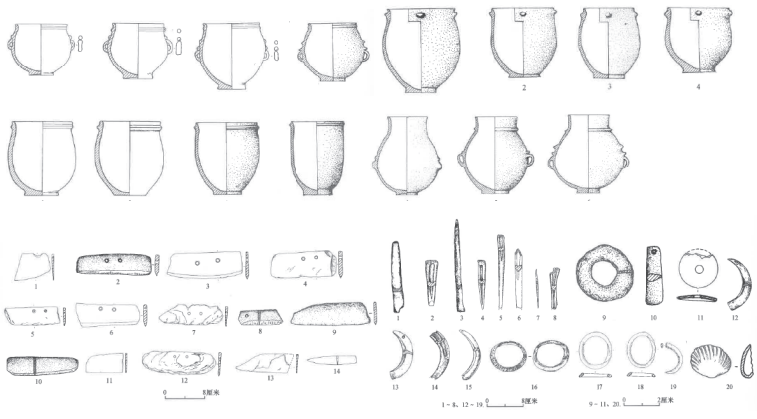


그림 6 M21 출토 유물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3-3-257~264,266,270 수정 후 인용(축척부동).

으로 만든 고리가 놓여 있고, 흉부에는 녹송석관·옥관·마노관·백석관 등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장식, 손목에는 조개껍질로 만든 팔찌 등이 출토되고 있어 신분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는 운모가 비짐된 홍갈색 혹은 회갈색이 주를 이루며, 진흙질의 황색도 일부 확인된다. 유물조합은 관+호 조합이 가장 많으며, 관+호+발 조합도 일부 확인된다. 호와 관은 20호에서 출토된 양상과 동일하다. 토제 어망추의 수량은 매우 적다. 석기는 마제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 돌화살촉은 삼각만입식만 출토되고 있으며, 수량이 많은 편이다. 돌칼 역시 수량이 많고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 밖에도 돌도끼, 돌끌, 돌자귀, 어망추 등이 출토되고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뼈 제품은 끌, 송곳, 화살촉이 다수를 점하며, 청동기는 청동 고리, 청동 단추장식 등이 소량 확인된다. 이 밖에도 일정 수량의 조개껍질 장식과 이빨 장식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무덤의 특징과 계통

1. 무덤의 특징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광묘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토광묘의 층위를 검토해보면, 보고서에서는 Ⅰ구역 ④~⑦층, Ⅱ구역 ④~⑦층, Ⅲ구역 ⑤·⑥층, Ⅴ구역 ④·⑤층, Ⅵ구역 ④~⑥층을 토광묘와 같은 시기의 문화층으로 파악하고, 이들 문화층에서 모두 117기(주거지 11기, 수혈유구 68기, 구상유구 5기, 무덤 33기)의 유구가 조사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9] 그러나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Ⅱ구역 1~3호는 1층 아래에서, 4호는 가장 하부인 6층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Ⅵ구역의 경우도 20호와 21호는 5층 아래에서 시작되고, 나머지 토광묘들은 모두 4층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다. 보고서의 분류 기준이 조사 당시의 층위 자료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유물 정리 과정에서 각각의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를 상호 비교하여 유구의 시기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술된 층위 관련 자료는 분명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주거지와 수혈유구, 문화층 출토 혹은 수습 유물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혼재되어 정확한 편년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Ⅵ구역의 경우 층위상으로 토광묘 간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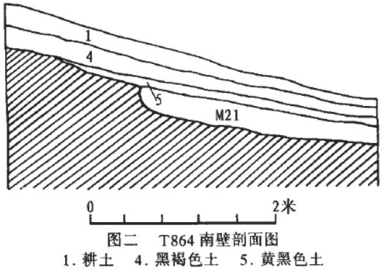


그림 7 M20·M21 토층 현황

출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도2-1-8 재인용.

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앞의 책, 5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장제상에서도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무덤에서 일차장이 사용되고, Ⅵ구역 4층 아래에서 시작되는 일부 무덤의 경우 인골을 이장해 간 천장묘[10]와 두개골이 없는 인골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매장 방법도 Ⅵ구역 5층 출토 무덤은 앙신굴지장이 주로 이용된 반면, 4층 아래 무덤은 앙신굴지장과 함께 두 손을 복부에 교차해 놓은 앙신반굴지장, 몸을 옆으로 눕힌 측신굴지장, 바로 펴 묻은 앙신직지장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출토유물에서도 시간적 차이가 확인된다. 5층의 이른 단계 토광묘에서는 관+호 혹은 관+호+발 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4층의 늦은 단계에는 발을 대신하여 완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른 단계 출토 토기는 기종을 불문하고 이중의 구연, 판 모양 손잡이나 꼭지 모양 손잡이 혹은 세로 방향 손잡이 등이 달리고, 굽이 있는 바닥, 돌대문 장식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 늦은 단계에서는 판 모양 손잡이와 꼭지 모양 손잡이가 사라지고, 세로 방향 손잡이와 더불어 가로 방향 손잡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완의 경우 기존에 비해 굽 내부를 오목하게 파낸 점이 차이를 보이며, 호의 경우도 최대경이 하부로 내려가고, 가로 방향 손잡이가 부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석기도 이른 단계 토광묘에서는 삼각만입식 석촉만 출토되는 반면, 늦은 단계 무덤에서는 삼각만입식 석촉과 함께 유경식 석촉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에서는 Ⅵ구역 5층을 기준으로 한 이른 단계는 A조, Ⅵ구역 4층을 기준으로 한 늦은 단계는 B조로 구분하고 있는데, A조는 6기(97ⅡTWM1~4, 99ⅥTWM20, 99ⅥTWM21), B조는 나머지 15기가 해당된다.[11]

앞에서 토광묘의 경우 A조와 B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동 시기의 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 즉, Ⅱ구역에

10 보고서에서는 M3, M22, M23, M25, M28, M31, M32 등 7기로 파악하였으나, M3의 경우 묘광 내부에 두개골을 비롯한 다양한 골격이 잔존해 있어 일차장 무덤으로 볼 수 있다.

1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앞의 책, 510~5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11호와 16호 두 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발굴 평면도를 통해 보면 제3층에서 시작하는 원형 주거지가 제4층에 위치한 11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들어가 있어 그 시간적 순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Ⅵ구역의 경우 B조에 해당되는 26호 무덤이 23호 주거지 하부에서 확인되어, B조 무덤이 주거지에 비해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두 구역 모두 무덤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거지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무덤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 토광묘제가 유입된 후 가장 먼저 서쪽 구릉의 Ⅱ구역에 A조 토광묘가 사용된다. 이후 어떠한 이유로 인해 동쪽 구릉에 집장묘가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동쪽 구릉에 B조 토광묘가 석관묘·대개석묘와 함께 조영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토광묘의 시간적 범위를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요동지역에서 아무리 빠르게 보아도 기원전 6세기경 되어서야 토광묘가 처음 등장하고 기원전 5세경에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만발발자 유적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무덤 형식인 A조 토광묘의 연대는 빨라도 기원전 4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원전 4세기경에 만발발자 유적에 A조 토광묘가 유입되어 처음에는 서쪽 구릉인 Ⅱ구역에서 사용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동쪽 구릉의 Ⅵ구역에 20호와 21호 같은 집장묘가 조영되고,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B조 토광묘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석관묘와 대개석묘 등이 함께 사용되다가 기원전 2세기경에는 적석묘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B조 토광묘 일부에서 묘광 내부에 석재가 들어가 있거나(23호), 바닥에 돌을 깐 현상(52호) 등이 확인되고 있어 토광묘에서 점차 석축묘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대개석묘에서 적석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개석묘 주변에 점차 적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이 가능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토광묘의 계통

기원전 4세기 전후한 시점에 만발발자 유적에서 처음 출현하는 토광묘의 계통을 찾는 작업은 토광묘 축조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기원전 5~3세기경 천산산맥과 길림합달령을 포함한 장백산맥 일대는 지석묘·석관묘·대개석묘·적석묘 등 돌을 사용하여 무덤을 제작하는 석축묘가 유행하였다. 장백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한 통화지역 역시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지석묘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발발자유적에서 발견된 토광묘는 이 지역에 새롭게 출현한 문화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요소의 수용은 발명(invention)과 발견(discovery) 등의 내재적 요인과 전파(diffusion)와 주민이동(migration) 등의 외재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표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면 토광묘제가 혼강유역에서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출현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전파 혹은 주민이동 등의 외재적 요인에 의한 유입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 토광묘의 출현과 전파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동지역의 토광묘 출현은 정가와자(鄭家窪子)유형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가와자유형은 방형의 화덕을 갖춘 수혈 주거지, 순수토광묘 혹은 토광목(관)묘,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정가와자식 청동단검, 기하학문 선형동부, 다뉴동경 등을 문화지표로 하고 있다.[12] 정가와자유형 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 계통 무덤으로는 정가와자 토광묘(2호), 3지점 토광묘(659호), 심양 마패보(馬貝堡) 토광묘, 심양 남탑(南塔) 토광묘, 심양 열료로(熱鬧路) 토광묘 5기, 법고(法庫) 상둔(上屯) 토광묘, 무순 단동로(丹東路)·장군보(將軍堡) 토광묘, 요양 양갑산(亮甲山) 토광묘 6기, 해성(海城) 대둔(大屯)·하협하(夏夾河) 토광묘, 철령 구

12 이후석, 2020, 「정가와자유형 네트워크의 확산과 상호작용」, 『백산학보』 118호, 1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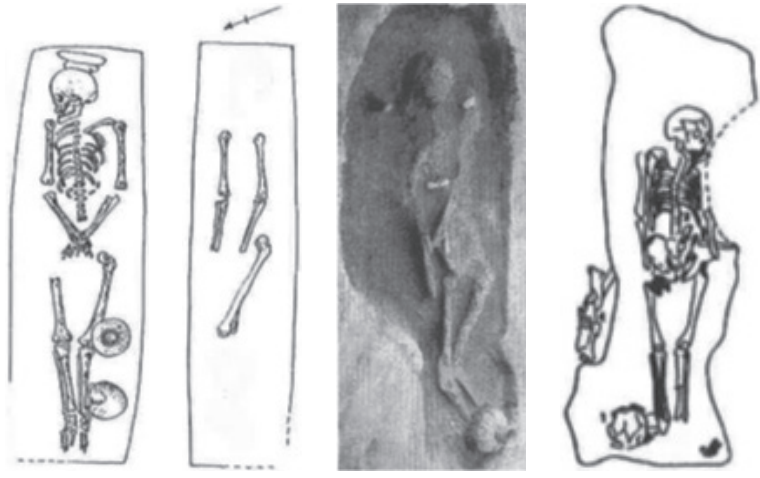


그림 8 요동지역 출토 토광묘(1, 2 이도하자고분군 5호, 7호, 3, 4 정가와자 2호, 659호)

대(九臺) 토광묘 3기, 본계 남분 토광묘 1기 등이 있다.[13]

일반적으로 요동지역의 토광묘는 요서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서지역에서 토광묘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 유적, 화상구(和尙溝) 유적, 건평(建平) 포수영자(炮手營子) 유적, 금주(錦州) 오금당(烏金塘) 유적 등이 있으며, 특히 금주지역의 경우 토광묘가 중심 묘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4] 이들 토광묘가 점차 요동지역에 전파되는데, 그 유입 연대는 대략 춘추시대 후기인 기원전 6세기 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15] 토광묘가 요동지역으로 처음 유입될 당시에는 주로 요하와 혼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용

13 이후석, 2020, 위의 글, 155쪽 〈표 1〉 참조.
14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15 이후석, 2020, 앞의 글,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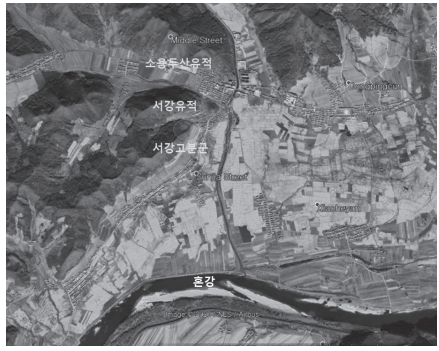
되며, 요동 산악지대와 요동 남단 그리고 서북한 지역은 여전히 석관묘·대개석묘·적석묘 등의 석축계통 무덤이 이용되고 있다. 기원전 5~3세기경에는 점차 천산산맥 이동지역과 요남지역, 서북한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혼강 유역 역시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혼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만발발자 유적 이외의 또 다른 토광묘 유적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통화현과 환인현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강(西江) 유적을 들 수 있다,[16] 이 유적은 생활유적과 고분군으로 구분되는데, 생활유적은 2개의 소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높이 20m 내외인 단독 구릉 서쪽 사면부에 입지해 있다. 유적이 입지한 구릉과 서북쪽의 주능선 사이가 움푹 들어가 마치 거북이 목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형조건이 만발발자 유적과 유사하다. 고분군은 생활유적에서 서쪽으로 1km 거리의 동평소학교(東平小學校) 뒷산 사면부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은 대략 1,000m^2 정도이다. 이 지역의 자연지형은 동·북·서쪽은 용두산(龍頭山)이 감싸고, 남쪽은 혼강을 사이에 두고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 유적은 1980년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처음 발견되었으며, 당시 수습조사가 이루어져 토광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무덤 내부에서 관·호·완·배 등의 토기편과 석검·석촉·석부·석도 등의 석기류, 녹송석주·토제 어망추 등이 수습되었다. 토기의 경우 만발발자 A조 토광묘에서 주로 보이는 이중 구연, 판 형태 손잡이, 꼭지 형태 손잡이 등과 함께 B조 토광묘에서만 보이는 굽 내부가 오목하게 들어간 완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반면에 화살촉은 모두 유경식만 확인된다. 무덤의 자세한 구조는 파악할 수 없지만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만발발자 유적 토광묘와 동일한 시기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혼강 주변의 주요 거점 지역에는 토광묘를 사용하는 집단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16 吉林省文物志編纂會, 1987, 『通化縣文物志』, 通化市印刷廠, 26~30쪽, 69~7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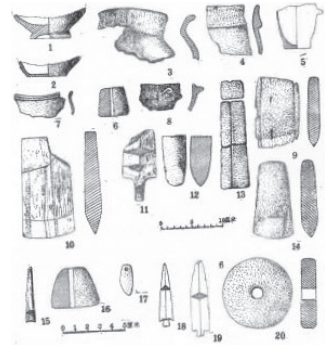


그림 9 서강유적 위치도 및 출토유물

출처: 구글지도; 吉林省文物志編纂會, 1987, 도15 인용.

Ⅳ. 무덤의 성격 및 후대로의 영향

1. 사용집단 분석

만발발자 유적의 경우 21호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체질인류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발굴조사 이후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에서 21호에서 출토된 4명의 남성 개체와 2명의 여성 개체를 수습하여 체질인류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17] 남성의 두개골은 대부분 계란형 혹은 타원형이고, 미궁(眉弓)[18]이 발달되어 있으며, 경사진 이마 뼈, 매우 큰 비권각(鼻顴角),

17 이하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朱泓 · 賈瑩 · 金旭東 · 趙殿坤, 2004, 「通化萬發撥子遺址春秋戰國時期叢葬墓顱骨的觀察與測量」, 『邊疆考古研究』 3,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賈瑩 · 朱泓 · 金旭東 · 趙殿坤, 2006, 「通化萬發撥子墓葬顱骨人種的類型」, 『社會科學戰線』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교적 높고 넓은 광대뼈, 광대뼈와 목선 사이의 큰 꺾임, 비교적 높은 실상능(失狀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 이전 동북지역에는 "고화북유형(古華北類型)"과 "고동북유형(古東北類型)" 두 가지 인종학적 유형이 존재하며, 기원전 3세기 이후에는 찰뢰락이(扎賚諾爾) 유적과 남양가영자(南楊家營子) 유적을 대표로 하는 "북아몽골유형(北亞蒙古類型)"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고동북유형의 주민집단으로는 서단산문화, 묘후산문화, 평양묘장, 정가와자유형, 관마산 무덤 등이 대표적이며, 고화북유형은 고태산문화, 순산둔문화, 하가점상층문화 주민집단을 들 수 있다. 북아몽골인종은 선비와 거란 등의 북방초원지역에 거주하던 집단을 의미한다.

21호 출토 인골을 위의 주민 집단 인골과 비교한 결과 고동북유형에 가까운 것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사용된 기타 토광묘와 석관묘·대개석묘에서 출토된 인골 역시 두개골 체질 특징상 21호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외래 종족유형의 유입과 혼거로 인한 명확한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인골들은 모두 높은 두개골, 넓은 얼굴, 편평한 얼굴 면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고동북유형으로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공유하던 종족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만발발자 유적에서 생활하던 주민 집단은 당시 요동과 장백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고조선 혹은 예맥계 종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요동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요소인 토광묘제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화요소의 유입은 주로 압록강과 혼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형의 개별 토광묘가 어느 한 시점에 갑작스레 대형 집장묘로 변형되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지역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4~3세기경 동북아 일대는 다양한 여러 문화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문화 변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고조선과 동북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18 이마의 안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뼈가 융기한 부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던 연, 그리고 몽골초원에서 요서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흉노 등이 서로 전쟁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가와자유형 문화를 향유하던 고조선은 주변지역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 기원전 3세기경에는 압록강 중상류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혼강 유역 주변에서 당시 고조선의 중심 묘제인 토광묘가 확인된다는 점은 이 지역이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밀접한 교류나 교역 관계에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당시 통화지역과 고조선 중심지 사이에 교역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무엇이었을까? 후대 진변한의 경우 지역 특산품인 철을 통해 위만조선 혹은 낙랑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원 제후국 및 흉노와의 교역에서 고조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물품이 모피였다는 견해가 주목된다.[19] 모피의 유통에는 다양한 중간 매개자가 필요한데 산지에서 모피를 수합하고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거래소, 모피를 가공하는 공방, 현지로 공급하는 루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발발자 유적의 경우 유적 내에서 붉은여우, 담비, 오소리, 족제비 등 다량의 모피동물 뼈가 출토되고 있고, 모피 가공에 사용된 돌칼과 무역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에 장착된 재갈멈치 등이 출토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배가시켜준다.[20] 즉,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기원전 4~3세기경 혼강 유역의 모피 중간집하지로 주변 지역에서 사냥한 모피동물을 수합하고 가공하여 공급하는 집단이 거주하던 취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한국고대학회, 249쪽.

20 강인욱, 2020, 「만발발자유적으로 본 후기고조선의 확산과 고구려의 발흥」, 『통화 만발발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워크숍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집장묘의 성격

만발발자 유적의 경우 단인장 혹은 2인합장의 토광묘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매장된 집장묘로 변화되고, 그 이후에 다시 단인장 혹은 2인합장 형태의 토광묘가 사용되고 있다. 20호와 21호의 경우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장제적 특징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동일 시기에 조영된 하나의 무덤으로 볼 수 있으며, 무덤 사이의 격벽은 매장자의 신분을 구분하는 선으로 볼 수 있다. 20호, 21호와 같은 대형 집장묘는 지금까지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차장에 의한 집단매장이 아닌 하나의 대형 묘광에 일차장으로 나란히 묻힌 경우는 전무하다. 집단 매장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다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정상적 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정상적 사망이란 사람 혹은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 비자연적인 사망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전쟁에 의한 집단 사망의 결과, 둘째, 장례습속에 의한 집단 사망의 결과, 셋째, 지진, 수해, 화재, 급성 전염병 등 자연재해에 의한 집단 사망의 결과 등이다.[21]

첫째, 전쟁에 의한 결과로 조영된 집장묘의 경우 대부분 매장된 인골에 시신의 해체, 외상이나 상처, 둔기에 의한 가격 등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집장묘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국 연의 연하도유적 집장묘를 들 수 있다.[22] 이 무덤은 연하도 성 남쪽에서 모두 14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무덤에는 모두 두개골만 매납되어 있는데, 1973년에 조사된 5호 집장묘의 경우 1,446구의 두개골이 확인되었다. 유구 일부가 훼손된 것을 고려하면 대략 2,000여 구의 두개골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에 구제 발굴이 이루어진 1호 집장묘의 경우 300여 구의 두개골이 발굴되었다. 5호 집장묘의 두개골은 보존이 비교적 잘되

21 朱永剛·吉平, 2016,「內蒙古哈民忙哈遺址房址內大批人骨遺骸死因蠡測」,『考古與文物』5, 78쪽.

22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燕下都』,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있는데, 221구에 대한 두개골 감정 결과, 미성년자의 두개골은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17~18세 이상이며, 55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8~35세의 청장년층이 80%를 차지하며, 여성은 딱 1구만 확인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연대는 대략 전국 중기의 후단(기원전 351~300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23]

이 무덤이 주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연나라



그림 10 연하도 집장묘 전경 및 발굴 모습

출처: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下冊 圖版160; 新華社 보도자료 인용.

23 石永士, 1996,「初論燕下都大中型墓葬的分期-兼談人頭骨叢葬的年代及其性質」,『遼海文物學刊』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相) 자지(子之)와 왕자 평(平-후대의 소왕)의 정치적 대립과 내란(기원전 315년)으로 인해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사망한 이들의 머리를 모아 묻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당시에는 '헌수봉제(獻首封祭)'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죽은 이들의 머리를 모아 한곳에 묻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들 집장묘에 묻힌 이들은 "적국수급(敵國首級)"이며, 연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제(齊)나라를 정벌할 당시에 죽인 제나라 병사들의 머리를 모아 묻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24]

연나라 집장묘와 만발발자 집장묘를 비교해보면, 그 성격과 매장 방식, 문화요소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원 관계를 연결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경우 인골에서도 전쟁의 결과로 인한 훼손이나 상처 혹은 둔기에 의한 가격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쟁의 결과로 인해 조영된 무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장례습속에 의한 결과로 조영된 집장묘는 평양묘장(平洋墓葬)[25]과 완공(完工)무덤[26]등에서 확인된다. 평양묘장 전창(塼廠)고분군 111호의 경우 길이 252cm, 너비 200cm, 깊이 96cm의 장방형 묘광 안에 45인이 매장되어 있는데, 모두 이차장으로 일정한 규칙하에 4개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연령은 영아에서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하며, 각 층 사이에 부장품이 안치되어 있다. 부장품의 종류로는 호·발 등의 토기류, 동포(銅泡)·철삭(鐵削) 등의 금속기, 석제 혹은 뼈로 제작된 화살촉·골미(骨弭) 등의 무기류, 구슬장식·바다조개 껍질 장식·민물조개 껍질 장식 등의 장신구류가 주를 이루며, 특징적으로 말머리 1점과 말 하악골 2점이 함께 매납되어 있다.[27]

---

24 趙化成, 1996, 「"燕下都人頭骨叢葬遺迹"性質芻議」, 『中國文物報』, 4月21日 第3版.

25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郝思德·楊志軍·李陳奇), 2011, 『平洋墓葬』(2版), 文物出版社.

26 潘行榮, 1962, 「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葬」, 『考古』 11.

2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郝思德·楊志軍·李陳奇), 2011, 앞의 책, 35~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른 시기의 선비계 무덤인 완공무덤은 1961년과 1963년 두 차례 발굴이 이루어져 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28] 하나의 무덤에 적게는 10인에서 많게는 20인이 넘는 인골이 묻혀 있다. 특히 1A호와 1B호의 경우 상부의 묘광(1A호) 아래에 다시 하나의 묘광(1B호)을 판 이중 묘광으로 조성되어 있다. 먼저 하부 묘광에 26인을 묻은 후, 그 위에 화수피껍질을 깔아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4인을 매장하고 있다. 장식은 이차장과 일차장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인골은 일정한 규칙성이 없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1A호에는 말 머리뼈, 소 머리뼈, 토기, 석기,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과 화수피로 제작한 그릇 등 총 4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1B호에서는 다량의 말·소·개 등의 뼈와 함께 토기, 석기, 골기, 청동기, 철기, 은기, 구슬장식, 화수피 그릇, 부서진 칠기 등 2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일부 연구자는 이들 무덤에 매장된 사람들은 모두 동일 대가족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있다.[29] 이러한 다인집장 습속은 후대의 남양가영자 무덤에서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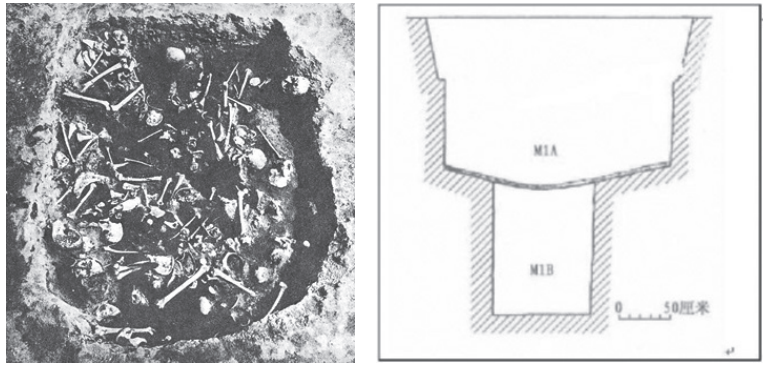


그림 11 평양 전창고분군 111호(좌) 및 완공 고분군 1A와 1B 단면도(우)

출처: 좌: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郝思德·楊志軍·李陳奇), 2011, 도판12, 우: 潘玲, 2007, 도6 재인용.

28 李作智, 1965,「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淸理簡報」,『考古』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고 있는데,[30] 공통적으로 소·말·개 등의 동물뼈를 매납하는 동물 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북방초원지대에서 유행하던 매장습속으로 파악하고 있다.[31]

이러한 무덤들은 대부분 다차장 장례습속에 의해 조영된 가족 공동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만발발자 집장묘와 비교하면 무덤의 구조와 매장 양상 출토유물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통적 연원 역시 연결되지 않는다.

셋째, 자연재해에 의한 결과이다. 자연재해 중 지진, 수해, 화재의 경우 만말발자 유적에서 입증할 만한 흔적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염병에 의한 집단 매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는 내몽골 합민망합(哈民忙哈)[32] 유적과 묘자구(廟子溝) 유적[33]에서 확인된다. 합민망합 유적은 신석기시대 대형 취락으로 내몽골 과좌중기(科左中旗) 합민예근촌(哈民艾勒村) 동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10만m^2의 범위 중 6,000m^2 정도를 발굴한 결과 주거지 54기, 회갱(灰坑) 57기, 무덤 12기, 환호 2줄이 조사되었다. 무덤은 모두 동시기에 해당되는데, 2기의 합장묘를 제외하면 모두 단인장 무덤으로 부장품은 소량에 불과하다. 이들 무덤은 대부분 주거지 주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 가장 큰 특징은 8기의 주거지에서 181구의 인골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주거지는 취락의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규모는 일정치 않다. 인골은 주거지 내부에 일정한 배치 양상 없이 겹겹이 쌓여 어지럽게 널려 있다. 특히 40호 주거지의 경우 18.5m^2의 면적에 가장 많은 97구의 인골이 매장되어 있다. 이들

29 朱柯, 2019, 앞의 글, 137~138쪽.

30 劉觀民·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考古隊, 1964, 「內蒙古巴林左旗南楊家營子遺址和墓葬」, 『考古』 1.

31 潘玲, 2007, 「完工墓地的文化性質和年代」, 『考古』 9.

32 朱永剛·吉平, 2016, 앞의 글.

33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3, 『廟子溝與大壕溝-新石器時代聚落遺址發掘報告(下)』,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골에 대한 강점 결과 시신의 훼손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살육행위에 의한 집단 사망이나 화재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34]

이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에 대해 취락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발생 초기에는 사망자들을 그들의 장례습속에 따라 주거지 주변에 매장하였는데, 점차 사망자 수가 늘어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검을 주거지에 집단 매장하고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하였다.[35] 인류학적 연구 결과 인골의 연령이 주로 미성년과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역시 미성년과 중장년층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의한 사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묘자구(廟子溝) 유적 역시 주거지 내부의 저장시설에 20여 구의 인골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데, 이들 인골 역시 연령층이 낮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의한 집단 매장으로 추정하였다.[36]

합민망합 유적의 경우 전염병의 종류를 페스트로 추정하고 있다. 즉,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뼈를 분석한 결과 설치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림 12 합민망합 유적 전경 및 주거지 F40 전경

출처: 좌: 2013년 필자 촬영, 우: 朱永剛 · 吉平, 2016, 도3 재인용.

34 朱永剛 · 吉平, 2016, 앞의 글, 76~78쪽.

35 朱永剛 · 吉平, 2016, 위의 글, 79쪽.

3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3, 앞의 책, 545~55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통해 당시 개체수가 많고 유적 주변에서 쉽게 포획할 수 있는 설치류 동물을 식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설치류 동물에 붙어 있던 벼룩을 통해 페스트균이 사람들에게 전이되었고, 주변으로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높은 치사율로 인해 취락에서 거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생존한 사람들은 사망자들을 한곳에 모아 불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37]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경우 앞의 두 유적처럼 주거지 내부에 인골을 집단 폐기한 현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하나의 묘광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의한 비자연적 사망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특히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이 모피의 중간 집산지라는 점에서 페스트에 의한 집단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북지역에서 페스트가 크게 유행했던 1910~1911년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페스트는 처음 만주리(滿洲里)에서 시작하여 철로를 따라 남쪽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는데, 그 과정에서 6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당시 페스트의 최초 감염자는 설치류의 한 종류인 마못(Marmots)을 사냥하던 수렵인이었다. 국제 모피값이 폭등하자 수많은 한족이 타르바간 지역으로 들어와 마못을 사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페스트균에 감염된 마못도 함께 포획되면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38] 이를 통해 보면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모피의 중간집산지로서 설치류 동물을 포획하거나 모피를 얻는 과정에서 페스트균에 감염되어 마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한곳에 매장하기 위해 집장묘가 조영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페스트 이외의 기타 다른 역병에 의해 조영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는데, 모피 교역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화나 집단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역병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다. 즉, 기원

37 朱永剛 · 吉平, 2016, 앞의 글, 81쪽.

38 Yubin Shen, 2019, Pneumonic Plague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International Fur Trade: The Retreat of Tarbagan Marmots from Northwest Manchuria, 1900s-30s,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4(3), 291~3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 243년에 중국 전역에 전염병이 유행[39]하였다는 기록과 당시 모피의 주 소비층이 중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역과정에서 중국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해보면 만발발자 유적은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문화(정가와자유형)의 영향으로 토광묘가 처음 유입되었고, 처음에는 서쪽 구릉의 Ⅱ구역에 조영되다가, 이후 전염병에 의해 동쪽 구릉에 대형 집장묘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동쪽 구릉에 B형 토광묘와 함께 석관묘, 대개석묘 등의 무덤이 새롭게 조영되고 있다. 이러한 무덤의 시간적 추이를 감안하여 당시의 사회 양상을 추론해보면, 기원전 4~3세기경 만발발자 유적은 모피 무역의 중간 집하지로서 주로 모피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취락이었다. 고조선 및 주변 지역과의 교류 과정에서 토광묘가 유입되어 사용되다가, 모피와 관련된 설치류 동물 혹은 교류과정에서 전염병이 유입되어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그 결과 지배층의 무덤인 20호와 일반계층의 무덤인 21호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자 이 지역에 다시 기존의 토광묘 사용집단을 비롯하여 석관묘 사용집단, 대개석묘 사용집단이 함께 거주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축조되다가, 점차 고구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무덤 역시 적석묘로 바뀌게 된다.

3. 후대로의 계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작성 목적 중에 하나가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와 석촌동 3호 적석총 하부에서 발견된 대형토광묘를 비교하여 선고구려문화의 백제 계승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석촌동고분군 대형토광묘는 1986년 발굴조사 중 이미 파괴된 적석총의 하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

39 이현숙, 2007, 「환경, 역병, 권력 : 남북조의 역병」,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동양사학회, 75~9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조사 당시 양쪽 끝부분이 이미 파괴되어 있었으며, 잔존 규모는 폭 2.6~3.2m, 길이 10m 정도, 깊이 0.8m 내외이다. 이 대형 토광 안에서 모두 8개의 목관이 확인되었다.

무덤의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보고서에는 하나의 대형 토광을 남북 방향으로 굴착한 후 목관을 동시에 안치하고 목관들 사이를 회청색 뻘흙 혹은 논흙과 같은 점토질이 강한 토양으로 채워 다진 후, 그 위에 토광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메우고 상부에 1~2층의 잡석을 쌓아 묘역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40] 그러나 발굴과정에서 대형 토광의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개별 묘광의 크기와 형태도 일치하지 않고, 목관의 받침목이 대형 토광의 굴광선 아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형 토광의 벽선보다 더 크게 수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41] 그러나 『석촌동고분군Ⅲ』의 사진 5(대형 토광묘 하강 작업 사진)를 보면 대형 토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최하층에 일렬로 배치된 개별 토광묘일 가능성이 높다.[42]

두 무덤의 특징을 비교해보아도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 무덤의 구조가 순수 토광묘와 관곽이 사용된 토광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덤의 장축 역시 북동-서남향과 서북-동남향으로 차이를 보인다. 머리 방향은 만발발자의 경우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 반면, 석촌동은 모두 동남쪽을 향해 있다. 장식 역시 앙신굴지장과 앙신직지장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도 부장품의 배치와 출토유물에서도 동질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두 유적 간에 300~400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석촌동 대형 토광묘를 집장묘 성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유적 문화내용상의 상사성은 찾아볼 수 없다. 문헌상으로는 백제 건국세력의 출

40 김원룡·임영진, 1986, 『석촌동 3호분(적석총)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특별시·석촌동발굴조사단, 1987, 『석촌동고분군발굴조사보고』.

41 이선복·조가영, 2015, 『석촌동고분군Ⅲ』, 서울대학교박물관, 19쪽.

42 이종수, 2017, 「석촌동 토광묘의 기원과 부여고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3 대형토광묘 전경 및 조사모습

출처: 이선복·조가영, 2015, 사진5 인용.

자가 혼강 유역의 환인 일대라는 점에서 그 계통성을 연결시킬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고고학적으로 두 지역의 문화적 계통성을 확인시켜줄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만발발자 유적 토광묘와 집장묘의 특징, 기원과 성격, 그리고 후대로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만발발자 유적은 기원전 4~3세기를 기점으로 청동기사회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유적에 무덤 유구가 조영되었는데, 토광묘를 시작으로 석관묘, 대석개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축조되었다.

만발발자 유적에서 조사된 토광묘는 모두 21기로 모두 관곽을 사용하지 않은 장방형의 순수 토광묘이다. 무덤은 일정한 규칙성 없이 배치되어 있으며, 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덤들 간에 중복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중 집장묘인 20호와 21호는 유적 동쪽 구릉의 서사면에 입지해 있는데, 토층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 20호에는 4인, 21호에는 35인이 매장되어 있다. 연령은 6개월 영아에서부터 60세까지 다양하게 확인되나 대부분 영유아 혹은 장년층에 해당된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20호는 지배층 무덤, 21호는 일반 계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토광묘에 사용된 장제는 단인장·2인합장·집장묘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일차장이 이용되었다. 다만 B조 무덤의 경우 천장묘나 두개골이 없는 무덤이 다수 확인된다. 매장 방법은 A조의 경우 모두 앙신굴지장이며, B조 무덤은 앙신반굴지장, 측신굴지장, 앙신직지장 등이 사용되었다. 부장품의 배치 양상은 A·B조 모두 머리 상부에서 토기류, 상반신에는 석촉, 석부, 석도, 청동단검, 이빨 장식 등의 석제 공구류와 장신구, 허리와 다리 주변에는 방추차, 석도, 동경, 청동단추 등의 생산공구와 장신구, 발 아래에는 관, 호 등의 토기와 함께 동물 뼈를 놓았다. 특히 돼지 뼈의 매납은 당시에 동물 순생 혹은 그 전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덤의 시간적 변화 양상은 층위 관계와 출토유물을 통해 A·B 두 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A조 무덤은 6기(집장묘 포함), B조는 15기이다. 무덤의 시간적 추이는 처음 만발발자 유적에 A조 토광묘가 유입되어 사용되다가 어느 시점에 집장묘가 조영되고 있다. 이후 잠시 시간을 두고 B조 토광묘가 다시 사용되었는데, 당시에 석관묘와 대개석묘 등이 유입되어 함께 사용되었다.

토광묘의 기원은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동지역의 토광묘는 대략 기원전 5세기 전후하여 요서지역에서 기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다가 기원전 4~3세기경에 점차 천산산맥 이동지역과 요남지역을 비롯한 서북한지역까지 전파되었다. 혼강 유역 역시 기원전 4세경에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혼강 유역의 또 다른 토광묘 유적인 서강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발발자 유적 주민집단은 체질인류학적으로 고동북유형에 해당되며,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동과 장백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고조선 혹은 예맥계 종족 계통으로 볼 수 있다. 유적의 성격은 다량의 모피동물 뼈와 모피 가공에 사용된 석도,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말의 재갈멈치 등이 출토되고 있어 모피 중간집하지로 비정할 수 있다. 즉, 주변지역에서 사냥한 모피동물을 수합하고 가공하여 다시 수요처에 공급하는 무역집단이 거주했던 취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장묘는 비정상적 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자연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는 전쟁, 장례습속,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전쟁의 결과로 조영된 예(연나라 집장묘)와 장례습속에 의해 만들어진 예(평양묘장·완공무덤)의 비교 결과 그 성격과 매장방식, 문화요소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원인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자연재해 중 전염병에 의한 결과로 조영된 예(합민망합 유적·묘자구 유적)의 경우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설치류가 번식하고 이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페스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의 연령이 주로 면역력이 약한 미성년과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입증해준다. 만발발자 유적의 경우 모피의 중간 집하지라는 점에서 설치류에 의한 페스트 전염을 상정해볼 수 있으며, 또한 연령층이 영유아와 중장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증명해준다. 이는 동북지역에서 페스트가 크게 유행했던 1910~1911년 당시 최초 전파자가 마못 사냥꾼이었다는 점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기원전 243년에 중국 전역에 전염병이 유행하였다는 기록, 당시 모피의 주 소비층이 중국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모피 무역 과정에서 외부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구려문화의 백제 계승과 관련하여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와 석촌동고분군 대형토광묘를 비교해보면 무덤의 구조와 형식, 장식과 장제, 부장품의 종류와 매납 위치, 출토유물 등에서 양자 간의 동질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문헌상으로는 백제 건국세력의 출자가 혼강 유역의 환인 일대라는 점에서 그 계통성을 연결시킬 수 있으나, 문화내용과 시간상으로 두 지역의 문화적 계통성을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김원룡·임영진, 1986, 『석촌동 3호분(적석총)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특별시·석촌동발굴조사단, 1987, 『석촌동고분군발굴조사보고』.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이선복·조가영, 2015, 『석촌동고분군Ⅲ』, 서울대학교박물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纂會, 1987, 『通化縣文物志』, 通化市印刷廠.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3, 『廟子溝與大壕溝-新石器時代聚落遺址發掘報告(下)』,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郝思德·楊志軍·李陳奇), 2011, 『平洋墓葬』(2版), 文物出版社.

논문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한국고대사학회.

_____, 2020, 「만발발자유적으로 본 후기고조선의 확산과 고구려의 발흥」, 『통화 만발발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고구려 계승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워크숍 자료집.

박선미, 2014, 「서구학계의 고대 교류사 이론의 현황」, 『한국고대사연구』 73, 한국고대사학회.

이종수, 2017, 「석촌동 토광묘의 기원과 부여고분」,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20,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通化 萬發撥子遺址 考古發掘 報告」-」, 『야외고고학』 37호, 한국문화유산협회.

이현숙, 2007, 「환경·역병·권력 : 남북조의 역병」,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 동양사학회.
이후석, 2020,「정가와자유형 네트워크의 확산과 상호작용」,『백산학보』118호, 백산학회.
하문식, 2020,「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연구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東洋學』81집,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賈瑩·朱泓·金旭東·趙殿坤, 2006,「通化萬發撥子墓葬顱骨人種的類型」,『社會科學戰線』2.
金旭東·趙殿坤·董峰, 2003,「吉林通化市萬發撥子遺址二十一號墓的發掘」,『考古』8.
潘玲, 2007,「完工墓地的文化性質和年代」,『考古』9.
潘行榮, 1962,「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索木發現古墓葬」,『考古』11.
石永士, 1996,「初論燕下都大中型墓葬的分期-兼談人頭骨叢葬的年代及其性質」,『遼海文物學刊』2.
劉觀民·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內蒙古考古隊, 1964,「內蒙古巴林左旗南楊家營子遺址和墓葬」,『考古』1.
李作智, 1965,「內蒙古陳巴爾虎旗完工古墓淸理簡報」,『考古』6.
趙化成, 1996,「"燕下都人頭骨叢葬遺迹"性質芻議」,『中國文物報』, 4月21日 第3版.
朱永剛·吉平, 2016,「內蒙古哈民忙哈遺址房址內大批人骨遺骸死因蠡測」,『考古與文物』5.
朱泓·賈瑩·金旭東·趙展坤, 2004,「通化萬發拔子遺址春秋戰國時期叢葬墓顱骨的觀察與測量」,『邊疆考古硏究』3, 吉林大學邊疆考古硏究中心.
朱柯, 2019,「叢葬墓初步硏究-以鮮卑早期墓葬爲例」,『新絲路:上旬』4, 陝西省社會發展硏究會.
郝思德·楊志軍·李陳奇, 1989,「黑龍江泰來縣戰鬪墓地發掘簡報」,『考古』12.

Shen, Yubin, 2019, Pneumonic Plague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International Fur Trade: The Retreat of Tarbagan Marmots from Northwest Manchuria, 1900s-30s,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이종수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고구려 물질문화의 기원 및 계승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기원전 4~3세기경에 출현한 토광묘와 집장묘는 선고구려문화의 기원과 백제 계승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자료이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21기의 토광묘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관곽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토광묘이며, 이른 시기의 A조 토광묘와 늦은 시기의 B조 토광묘로 구분된다. 집장묘인 20호와 21호는 하나의 묘광에 4인과 35인이 매장되어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20호는 지배층 무덤, 21호는 일반 계층을 집단 매장한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무덤의 시간적 추이는 기원전 4세기경 처음으로 만발발자 유적에 A조 토광묘가 출현하며, 이후 B조 토광묘로 변화하면서 기원전 3세기경까지 석관묘, 대개석묘 등과 함께 사용되다가 기원전 2세기경에는 적석묘로 전환되고 있다.

만발발자 토광묘의 기원은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가와자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기원전 5세기경 요서 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유입된 토광묘가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기원전 4세기경에는 혼강 유역까지 전파되었다. 만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자 유적 토광묘 사용집단은 체질인류학적으로 고동북유형에 속하며, 당시 요동과 장백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고조선 혹은 예맥계 종족으로 볼 수 있다. 유적에서 다량의 설치류 동물 뼈와 가공에 사용되는 석기, 운송에 사용되던 말 재갈 멈치 등이 출토되고 있고, 당시 이 지역의 특산품이 모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발발자 유적의 성격은 혼강 유역의 모피 중간집하지로 볼 수 있으며, 주민집단은 주로 주변지역에서 사냥한 모피동물을 수합하고 가공하여 공급하는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장묘는 비정상적 사망에 의한 결과로,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긴급 상황에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민망합 유적과 1910년대 동북지역 페스트 유행 자료를 통해 보면 설치류 동물과 관련된 페스트 창궐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기타 다른 전염병에 의한 결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선고구려문화의 백제 계승과 관련하여 석촌동고분군 대형 토광묘와 비교해본 결과 문화내용과 시간적으로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아 계승성을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제어: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 고조선, 정가와자유형, 모피무역, 전염병, 설치류, 페스트, 백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view of the Fili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Burial Grave of Tongwha Wanfabozi Ruins

Lee Jongsu

Tongwha Wanfabozi ruins of pit burial and mass graves provide important data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ancient Goguryeo cul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ion of Baekje.

In these ruins, 21 pit burials were found, divided into early group A pit burials and late group B pit burials. Among them, the mass graves are M20 and M21, and 4 and 35 people are buried in one grave pit.

Group A pit burials first appeared in Wanfabozi ruins around the 4th century BC, and later changed into group B pit burials, and were used together with stonecoffin tombs and Dolmen until around the 3rd century BC, and then converted to stone-mound tombs by the 2nd century BC.

The origin of the pit burial of the Wanfabozi ruins can be found in the Zhengjiawozi Type in Liaodong reg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ojoseon culture. The group using the Wanfabozi ruins pit burial belonged to the Paleo-Northeast type in Physical anthropology, and it can be seen as a Gojoseon or Yemaek-type race that lived in the Liaodong and Changbaek Mountains at that time.

The character of Wanfabozi ruins is the middle collection of fur in the Hon River basin, and can be understood as a community engaged in the livelihood of collecting, processing, and supplying hunted fur animals.

The background of the mass graves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in emergency situations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die due to an epidemic. The type of infectious disease is most likely a plague associated with ro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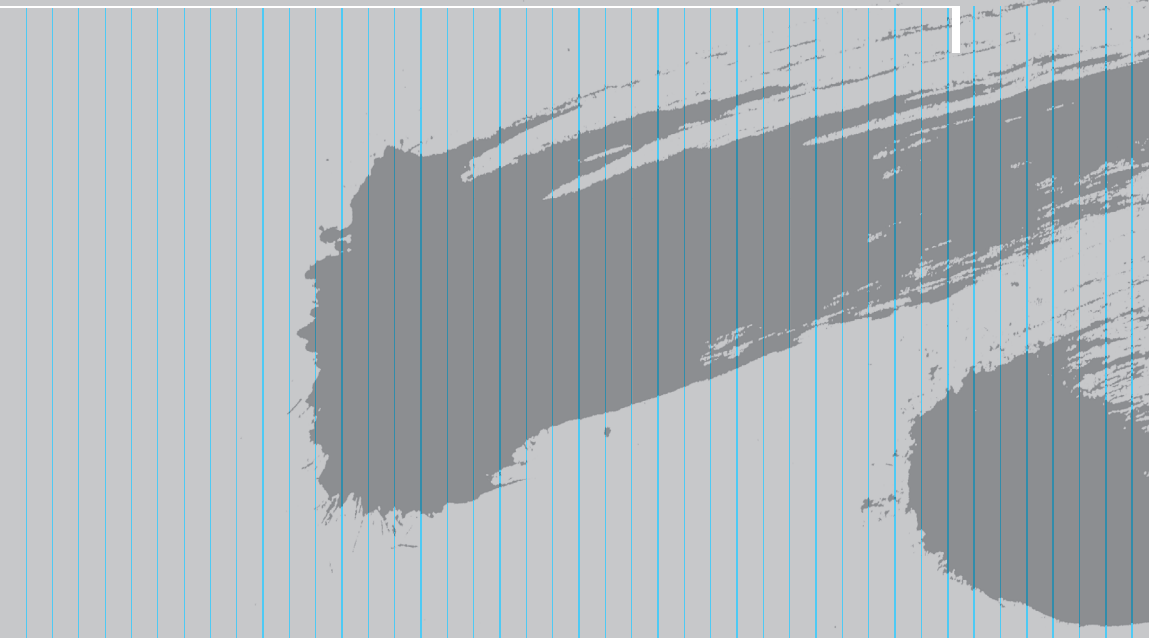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culture to Baekje, a comparison with the large-scale pit bourial in Seokchon-dong Ancient Tombs shows that the commonalities and succession between the two is not confirmed in terms of culture content and time.

Keywords: Tonghua, Wanfabozi Remains, Collective burial grave(Mass graves), Gojoseon, Zhengjiawozi Type, Fur trade, Infectious diseases, Rodents, Pest, Baekj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여계·한(漢)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박장호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중서부지역 부여계(夫餘系)와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양상
Ⅲ. 부여계 및 한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Ⅳ.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서부지역 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에는 유개대부호와 원저옹, 철장검, 관부돌출형철모로 대표되는 진변한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고, 새롭게 출현하는 재지계 유물로서 단경호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유물만이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재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유물의 존재도 확인된다.

이 유물은 토기와 함께 철기류와 장신구류 등이 확인되는데, 김포지역을 중심으로는 다량으로 부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충청내륙지역에서는 소량만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동남부지역의 진변한계 유물과는 다른 양상이며, 이 유물들을 살펴보면 요녕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 일대에 있었던 부여와의 관련성이 있는 유물과 서북부지역의 낙랑군과 관련된 유물, 산동지역 등과 같은 한(漢)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된다.

중서부지역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부여계와 한식계 유물에 대한 연구는 개별 유적 내 유물의 계통과 성격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부여계 유물에 대한 연구는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가 길림(吉林)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부여-고구려 계통의 귀걸이라는 견해[1]와 청주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에 대하여 길림의 유수노하심(楡樹老河深) 유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연구[2]가 있다.

한식계 유물에 대한 연구는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검단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철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3] 서북부지역에서 제작되어

---

* 투고: 2021년 1월 17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이한상, 2013,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 유적 Ⅱ』,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 성정용, 2016, 「淸州一帶의 馬韓·百濟古墳과 그 性格」, 『충북문화재연구』 제9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입된 토기와 재지에서 제작된 토기로 구분되며, 산동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토기도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한강하류지역의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검단지구 유적에서 출토되는 부여계, 한식계 유물과 미호천 일대의 청주 오송 유적과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부여계·한식계 유물을 대상으로 하여 유물의 양상을 파악하고,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세력에 대하여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세력들이 어떠한 성격의 세력인지에 대하여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중서부지역 부여계(夫餘系)와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양상

1. 부여계(夫餘系) 유물의 양상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부여계 유물은 청주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과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가 있다.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는 총 3점으로, 2-9지점 1호에서 2점, 1-11지점 12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금제귀걸이는 매장주체부 목관 내 단벽 쪽에서 경식(구슬류)과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가 직접 착장하였던 것으로 보고자는 판단하고 있다.[4] 금판을 길이 약 3cm의 사다리꼴로 오려서 위쪽은 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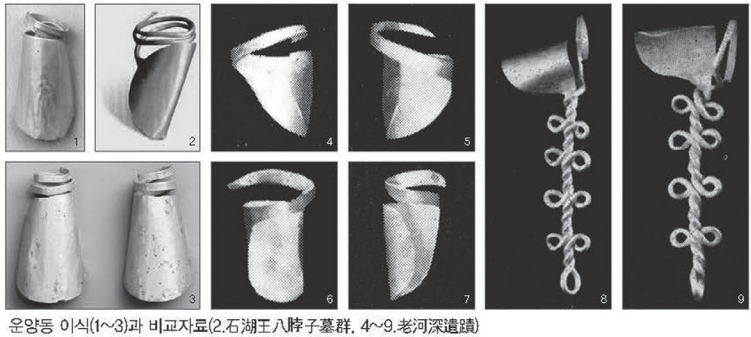
3 김길식, 2013,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의 성격과 무기 집중화의 배경」, 『김포 운양동 유적 Ⅰ』,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정인성, 2013, 「漢江 下流域 雲北洞 유적의 漢式遺物로 본 大中交易의 한 형태」,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敎博物館志』 제9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정인성,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質易陶器'白色土器'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원사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한성백제박물관; 이용범, 2018,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 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 17, 중부고고학회.

4 김기옥, 2013, 「Ⅵ. 고찰 1. 김포 운양동 분구묘」, 『김포 운양동 유적 Ⅰ』, (재)한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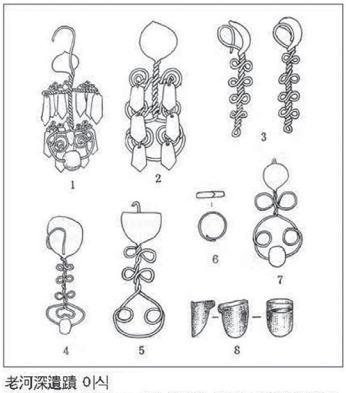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으로 감고 아래쪽은 양 끝을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이와 유사한 금제 귀걸이의 형식으로는 중국 길림성의 유수노하심 유적과 압록강 중류의 운봉 수몰지구 고구려고분이 있다.

금제귀걸이는 형태적으로 보아 부여계 귀걸이로 판단되며, 부여 세력과 마한 세력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큰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금제귀걸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삼국시대에 들어가야만 금제귀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입품으로 판



운양동 이식(1~3)과 비교자료(2.石湖王八脖子墓群, 4~9.老河深遺蹟)



老河深遺蹟 이식
(1.1호묘, 2.수집품, 3.56호묘, 4.69호묘, 5.105호묘, 6.97호묘, 7.13호묘, 8.93호묘)



老河深遺蹟 이식과 이전
(1.54호묘, 2.97호묘, 3.125호묘, 4.102호묘, 5.113호묘, 6.111호묘, 7.65호묘, 8.9.76호묘)

그림 1 김포 운양동 유적 출토 금제귀걸이와 비교자료

출처: 이한상, 20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할 수 있다.

부여계 유물은 금제귀걸이뿐 아니라 청주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이 있다. 청주 오송 유적의 동병철검은 합주식 동병철검으로 검 손잡이는 이청규의 동병철검 분류에서 A형으로 검파형태는 죽절형이다. 표면에는 원형의 돌기가 검파 전체에서 확인된다. 합주식 동병철검은 청주 오송 유적에서 출토되



김포 운양동 12호묘와 금제이식



김포 운양동 1호묘와 금제이식

그림 2 김포 운양동 유적 출토 부여계 금제귀걸이

출처: 이한상, 20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 전에는 한반도에서 출토 사례가 없고, 중국동북지역의 길림을 중심으로 요동 동부 일부지역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요녕성(遼寧省)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 유적과 길림성(吉林省) 유수노하심 유적이 있다. 출토되는 철장검은 검파두식이 쌍조형이나 원주형이 확인되는데 청주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동병철검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길림 유수노하심 유적에서 출토된 원주형 검파두식을 가지는 동병철검이다. 청주 오송 유적의 동병철검은 원주형의 검파두식은 확인되지 않지만 검파의 형태나 표면에서 확인되는 돌기가 유수노하심 유적의 동병철검 1점에서 확인되고 있어 유수노하심(부여)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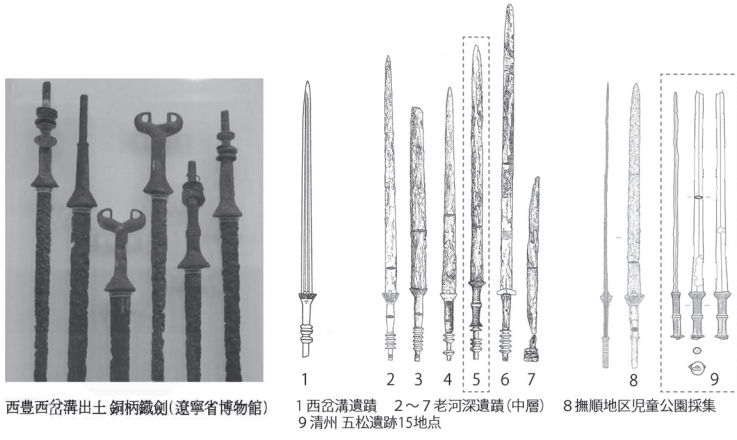


그림 3 중국동북지역과 청주의 동병철검 비교

출처: 이청규, 2013; 村松洋介, 2019.

5 많은 연구자들이 吉林省 楡樹老河深 유적의 연대를 서기전 1세기 전후로 보고 있고, 동병철검이 출토된 청주 오송 유적 15지점 17호 토광묘의 연대를 서기 2세기대로 보고 있어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로서는 전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4 청주 오송 유적 15지점 17호 토광묘 출토 동병철검 및 공반유물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유사한 형태의 동병철검이 길림지역에서 확인되지만 길림지역에서만 합주식 동병철검이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요동 동부지역에서 비슷한 형식의 동병철검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여와 호서마한이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하였다기보다는 요동 동부지역이나 서북부지역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평양 토성동 유적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동병동검이 출토되기 때문에 요동 동부지역과 서북부지역을 통하여 호서마한이 북방지역과 교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여계 유물의 존재는 중서부지역의 재지 세력이 동남부지역과의 교류관계만이 아니라 중국동북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물이 직접적으로 길림지역이나 요동 동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서북부지역을 통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양상은 중서부지역에 부여계 유물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중원계 유물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경유지를 통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성정용은 청주 오송 유적의 동병철검과 김포 운양동 유적의 금제귀걸이, 청주 봉명동과 충주 금릉동 유적의 재갈을 분석하여 유수노하심 유적(부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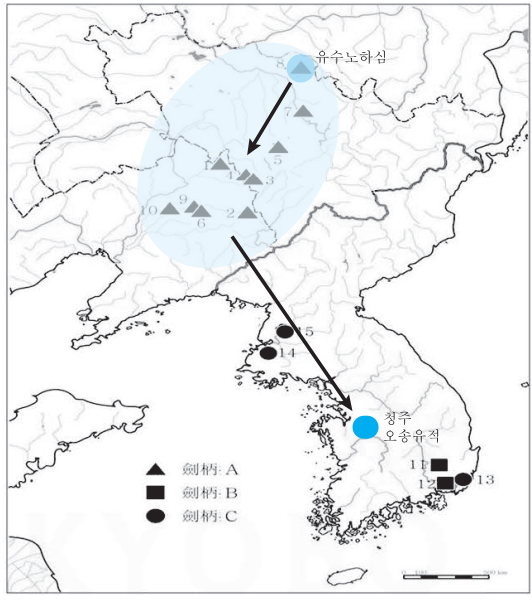


그림 5 부여계 유물의 교류 루트

출처: 이청규, 2013 도면 전제 후 수정.

과의 교류관계를 언급하면서 북방지역과의 교류관계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양한 교류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6]

2. 한식계(漢式系) 유물의 양상

중서부지역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유물 중 한식계 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지역은 김포지역이다. 김포지역은 부여계 금제귀걸이와 진변한계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

6 성정용, 2016,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는 외래계 유물은 한식계 유물이다. 이 유물들은 낙랑군이나 대방군에서 유입되었다고 생각되며, 중국 산동반도 일대에서 유입되는 유물도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한식계 토기는 주로 평양 일대의 분묘나 낙랑토성 등에서 보이는 낙랑토기의 제도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기이다. 낙랑토기는 점토의 성격을 기준으로 니질계, 활석혼입계, 석영혼입계 토기로 구분 가능하다.

니질계 토기에는 원통형토기, 고배형토기, 완형토기, 분형토기, 시루형토기와 같은 식기류나 일상용기류가 많고, 부뚜막형 토기와 같은 부장용토기도 포함된다. 성형방법은 대부분 노끈을 감은 내박자와 타날구로 1차 성형하므로, 이 공정을 거친 토기의 내면에는 가로로 연속되는 노끈 압흔이 남고 외면에는 세로방향의 타날흔이 남는 것이 보편적이다. 1차 성형에 이은 2차 성형공정에서는 토기 종류에 따라서 타날과 회전물손질이 선별적으로 채용된다. 1차 성형공정에서 노끈 감은 내박자(內拍子)를 사용하는 사례는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한반도 서북지역, 즉 낙랑군의 강역에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기술 속성이다.

활석혼입계 토기는 정형토기나 화분형토기, 심발형토기 등 취사용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성형방법은 틀에 포를 덮어 씌운 다음 점토를 두르고 두드려서 성형하는 '형뜨기' 기법이 일반적이다. 물론 기형의 완성은 형뜨기만으로 한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연부의 조정에서는 점토띠 쌓기와 회전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석영혼입계 토기는 석영암반에서 형성된 점토와 비짐을 사용하여 점토소지를 만들었으며 소지에 철분 함량이 대단히 낮은 점이 더해져 소성후의 색조가 백색을 띠는 토기로 백색토기 혹은 백도라고 부른다. 소수의 일상용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대형의 저장용 토기로 특화되어 사용되었으며, 중국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출토 사례가 많은 편이다. 성형방법은 형뜨기 성형이 없으며 점토띠쌓기와 타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니질계 토기들과는 달리 1차 성형에서 만들어진 모양을 2차 성형공정에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 시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내박자는 문양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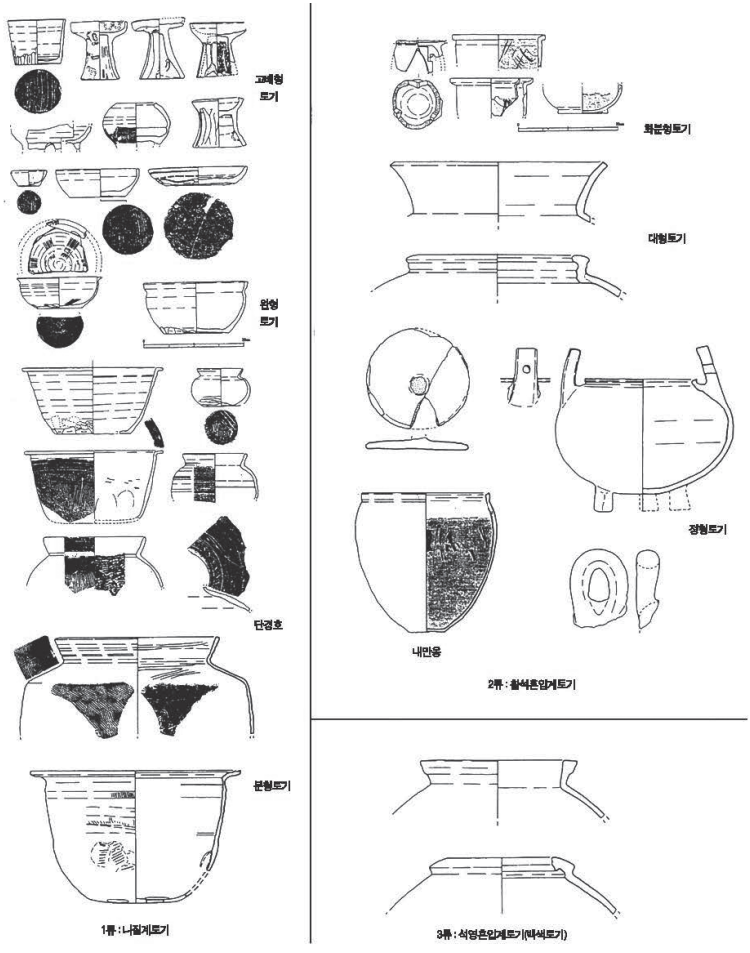


그림 6 낙랑토성 출토 토기의 종류

출처: 정인성 외, 2014.

없는 둥근 것이 채용된다.[7]

7 정인성 외, 2014,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8, 진인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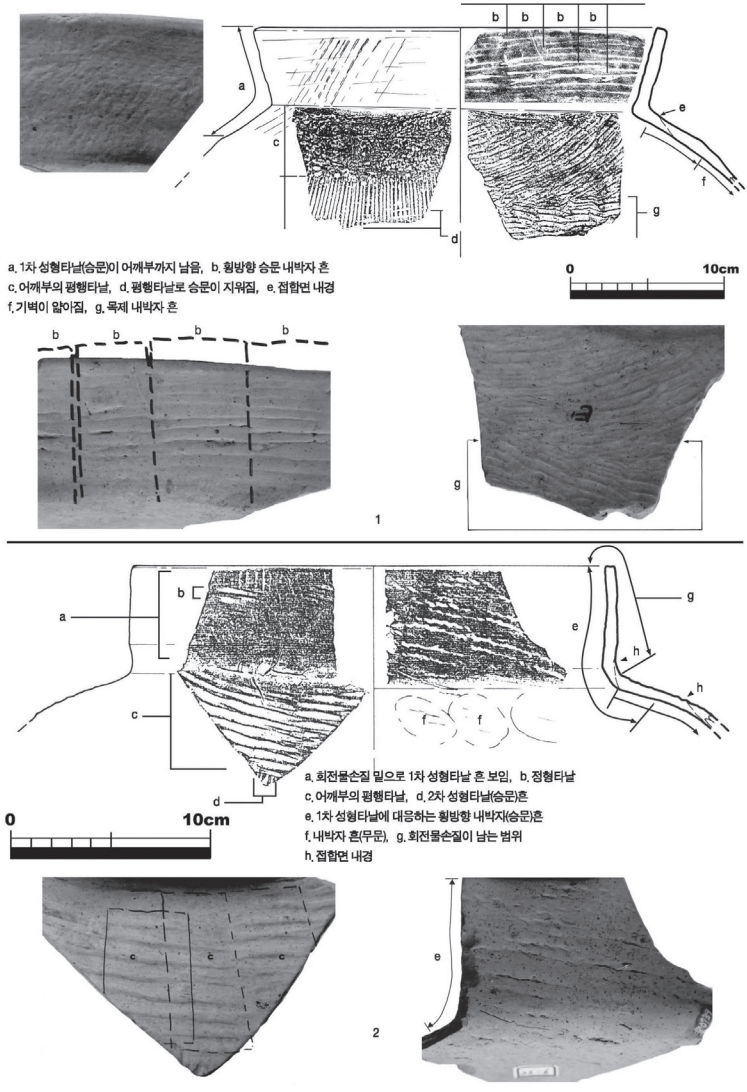


그림 7 니질계 토기의 제작흔

출처: 정인성 외, 20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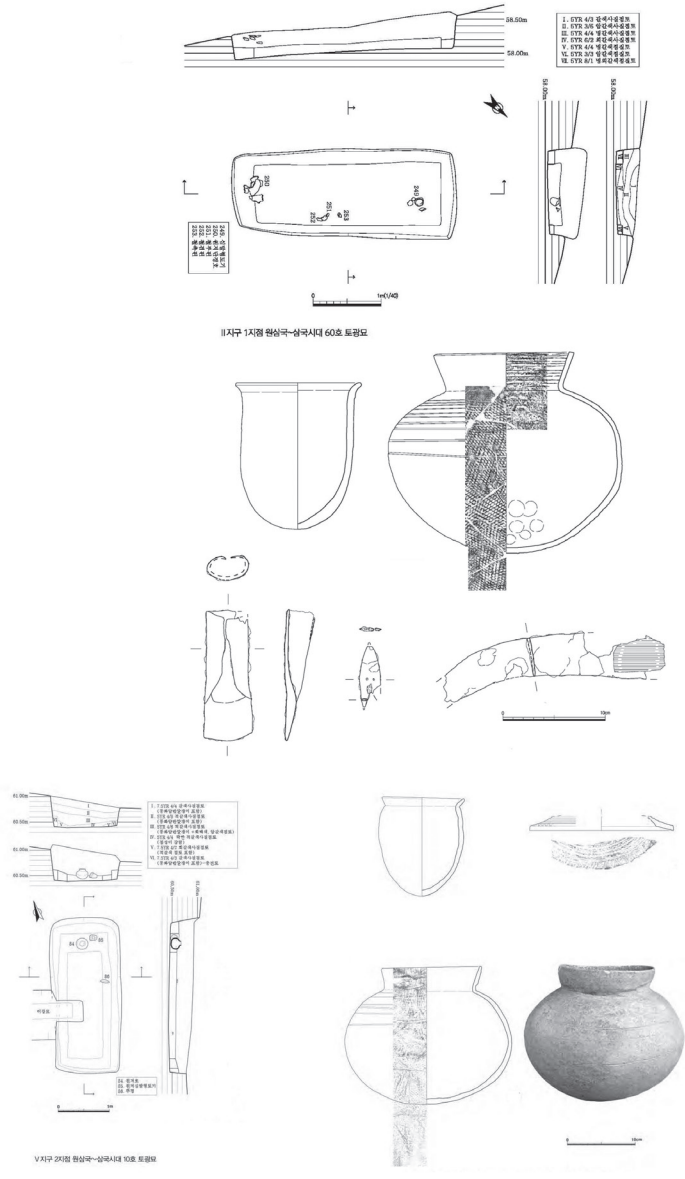


그림 8 청주 송절동 유적 목곽묘 출토 한식계 토기와 공반유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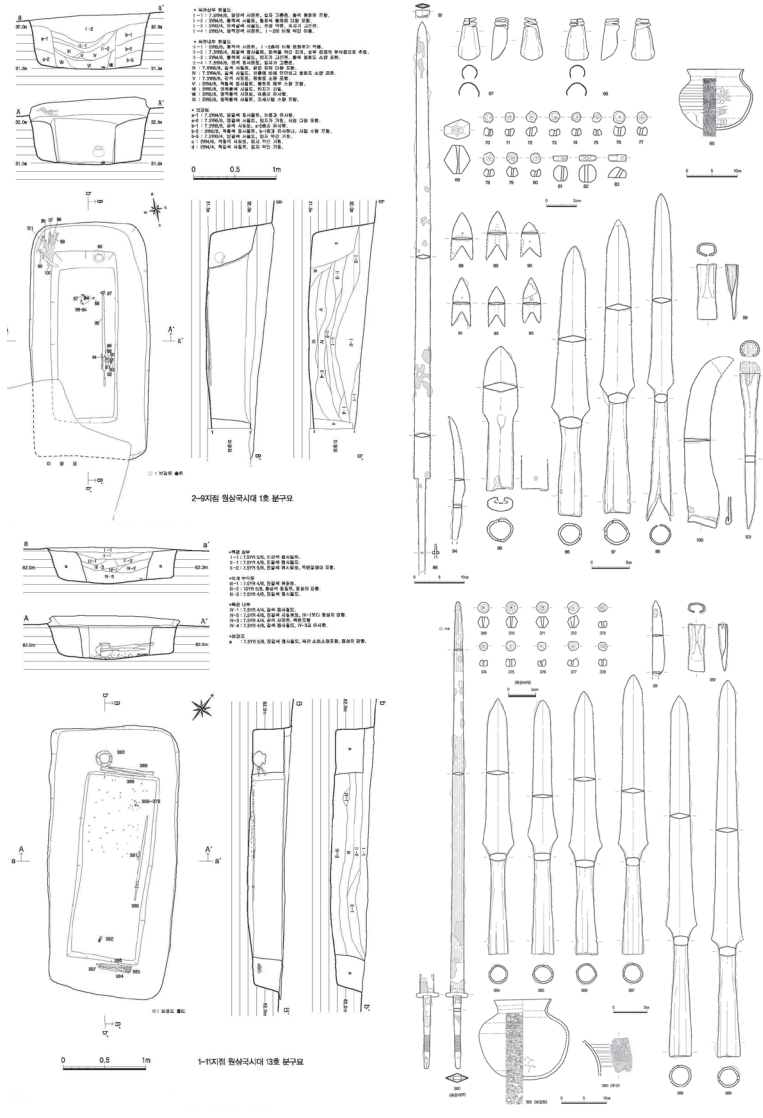


그림 9 김포 운양동 유적 분구묘 출토 한식계 토기와 공반유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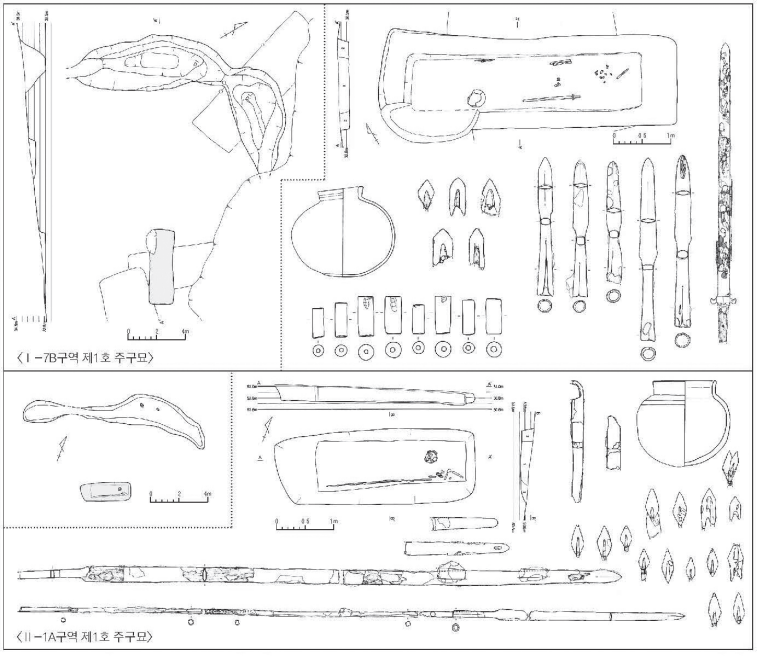


그림 10 인천 검단지구 유적 철장검 출토 주구묘

출처: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한식계 유물 중에서 토기류는 니질계 단경호와 분형토기, 석영혼입계토기인 백색토기(옹) 등이 출토되는데 주로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니질계 토기의 경우 제작방식은 낙랑토성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토기의 기형이나 태토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그렇기에 한강하류역인 김포 일대에서 출토되는 니질계 토기는 재지에서 생산된 토기로 볼 수 있다. 한강하류역의 주거지나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한식계 토기에서도 재지생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어 니질계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강하류역에 한식계 토기제작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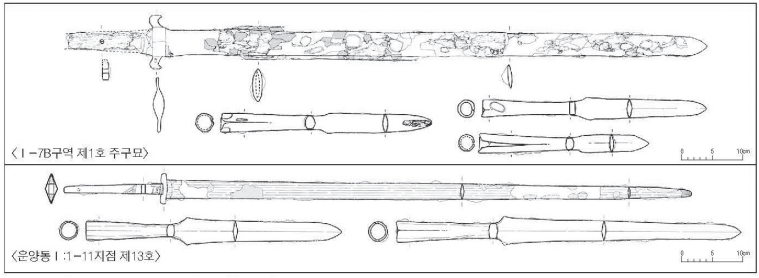


그림 11 인천 검단지구와 김포 운양동 철장검 비교

출처: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있다.[8]

충청내륙지역에서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니질계 단경호가 2점 출토되었는데 재지에서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경부에서 승문타날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군현에서 생산된 유물이 아니라 재지에서 생산된 한식계 토기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강하류역인 김포 일대에서 생산된 토기가 청주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석영혼입계토기인 백색토기(옹)는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검단지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기존의 견해는 니질계 토기와 함께 낙랑토기의 범주로서 판단하였지만 최근 정인성[9]은 백색토기를 평양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아니라 산동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견해대로라면 한강하류역에서 한식계 토기가 서북부지역의 낙랑군이나 대방군 등의 군현을 통해 유입된 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동지역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통

8 鄭仁盛, 2012, 「雲北洞 遺蹟의 中國系 遺物」, 『인천 운북동 유적』, (재)한강문화재연구원.

9 정인성,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質易陶器 '白色土器'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원사시대 사회 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한성백제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2 평양 석암리 9호묘 출토 한식계 철장검

출처: 정인성 외, 20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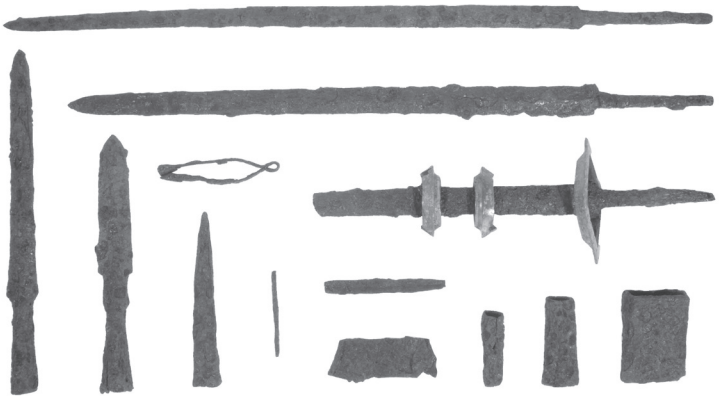


그림 13 서산 예천동 유적 18-1호 철기류 일괄

출처: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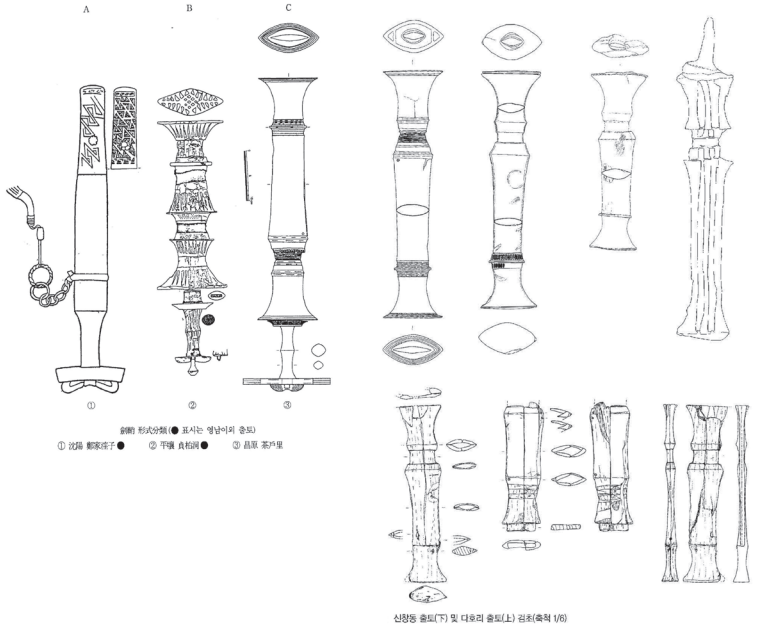


그림 14 검초의 형식과 한반도 남부의 검초

출처: 이청규, 1997; 박영성, 20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한식계 토기 중 일부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강하류역에서 토기류는 분묘에서 다량 부장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주로 부장되는 유물은 철기류이다. 그중 한식계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철장검이 있다. 철장검은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검단지구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김포 운양동 유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장검은 총 7점이 출토되었는데 1-11지점 13호에서 출토된 철장검은 청동제 검격이 확인되고, 2-9지점 1호의 철장검은 청동제 초미금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인천 검단지구에서도 청동제 검격이 확인되는 철장검이 1-7b구역 1호 주구묘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청동제 검격과 초미금구를 사용하는 철장검은 한식(漢式) 철기로서 중원지역이나 군현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동남부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외에 한식계는 아니지만 낙랑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칠초철장검의 존재가 확인된다.

서산 예천동 유적 18-1호에서는 청동제 검초금구와 함께 청동제 심부(鐔部)가 확인되는 철장검이 출토되었다. 이 검초금구와 심부는 세형동검문화권에서 주로 확인되는 검 부속구로 별주식 동병동검이나 별주식 동병철검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물이다. 이러한 검 부속구는 서북부지역이나 동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데 세형동검이나 철단검에서 사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서산 예천동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은 유일하게 철장검에 검초금구가 사용된 것으로 이 철장검이 세형동검문화권에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초금구의 형태가 동남부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 동남부지역보다는 서북부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부여계 및 한식계 유물의 성격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중서부지역에서 부여계와 한식계 유물은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다수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물은 충청내륙지역에서도 출토되는데 그 수량은 많지 않다.

이러한 부여계 및 한식계 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존재할 수 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유입 과정에 대해 추정해보면 교류에 의한 유입과 유이민 집단의 이주에 의한 유입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한식계나 부여계 유물의 대다수는 재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지에서 모방하여 생산한 것은 토기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특히 부여계 유물의 경우 수량이 많지 않고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길림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유물로 볼 수 있다.

산동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석영혼입계토기(백색토기)도 평양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거의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고 태토도 고령토(카오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지에서 생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유물이다.

한식계 철장검도 재지에서 생산하였다고 보기에는 김포 일대에서만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유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렇듯 부여계 및 한식계 유물은 재지에서 생산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여러 과정을 통하여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된 유물로 생각된다.

특히 김포지역의 경우 낙랑군이나 대방군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산동지역과도 직접적인 교역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포 일대로 교류를 통하여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충청내륙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김포 일대에서 충청내륙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Ⅲ. 부여계 및 한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1. 외래계 유물로 본 중서부지역의 세력

중서부지역에서 외래계 유물들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2개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한식계 유물이 대량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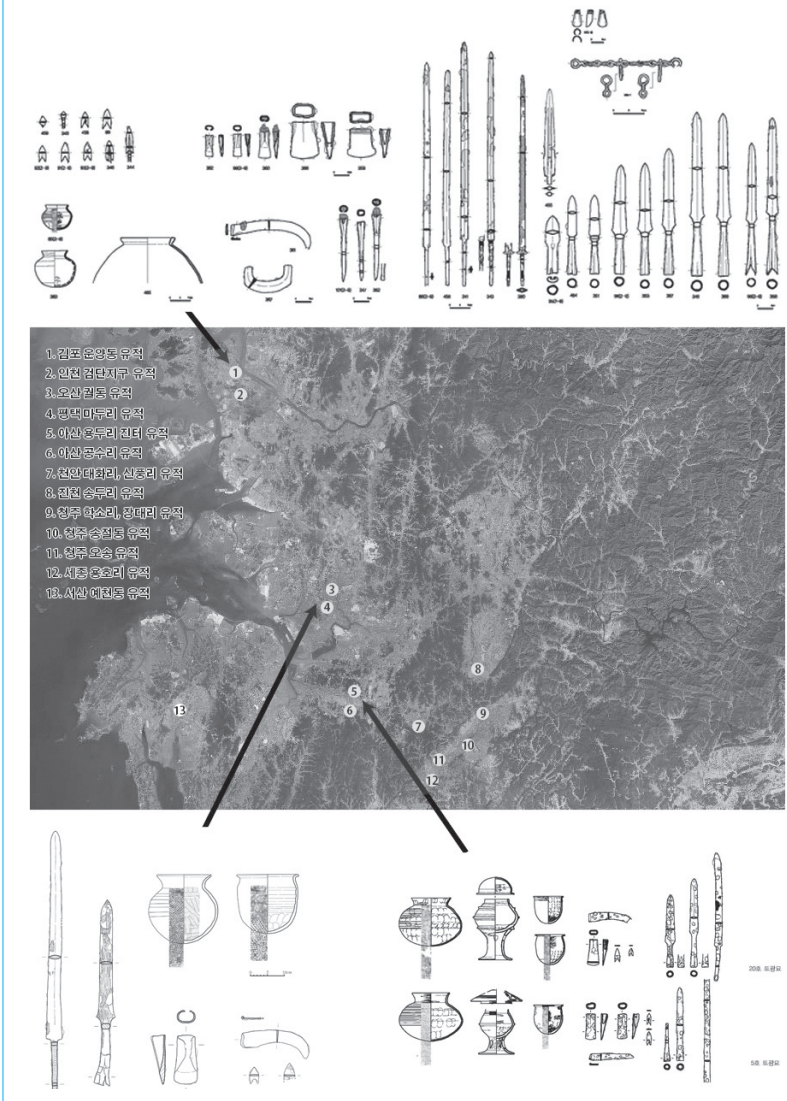


그림 15 중서부지역의 세력과 범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토되는 분묘를 조영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내륙지역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진변한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이다.

먼저 김포 일대의 유적을 살펴보면 김포 운양동 유적을 중심으로 인천 검단지구 일대에서 다수의 분구묘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을 살펴보면 토기는 낙랑계 토기로 볼 수 있는 니질계토기와 산동지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석영혼입계토기, 일명 '백색토기'라고 불리는 토기가 출토되고, 철기로는 중원계 철검에서 확인되는 검초금구와 청동제나 옥제격(鬲)이 달린 철장검이 출토되고, 동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단관식철모와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된다. 장신구류 중에서는 금제귀걸이가 출토되는 이러한 형태는 부여계로 길림의 유수노하심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

김포 일대의 분구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중원계, 부여계, 진변한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이 중원계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원계 유물들이 다량으로 부장되는 지역은 김포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으로 김포와 인천 일대에 중원계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충청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보이는 유적을 살펴보면 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에 원저단경호와 유개대부호, 원저옹, 철장검, 관부돌출형철모, 동물형대구 등이 부장되는데 이 유물이 출토되는 지점을 정리해보면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남부지역과 충북내륙지역, 충남내륙지역을 거치는 분포권역이 확인된다. 이 분포권역은 일정조건을 공유하는 집단이 충청내륙지역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세력은 비슷한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으로 크게 주구묘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성격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는 두 세력이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무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원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김포 일대는 한강의 하류역에 해당하는 지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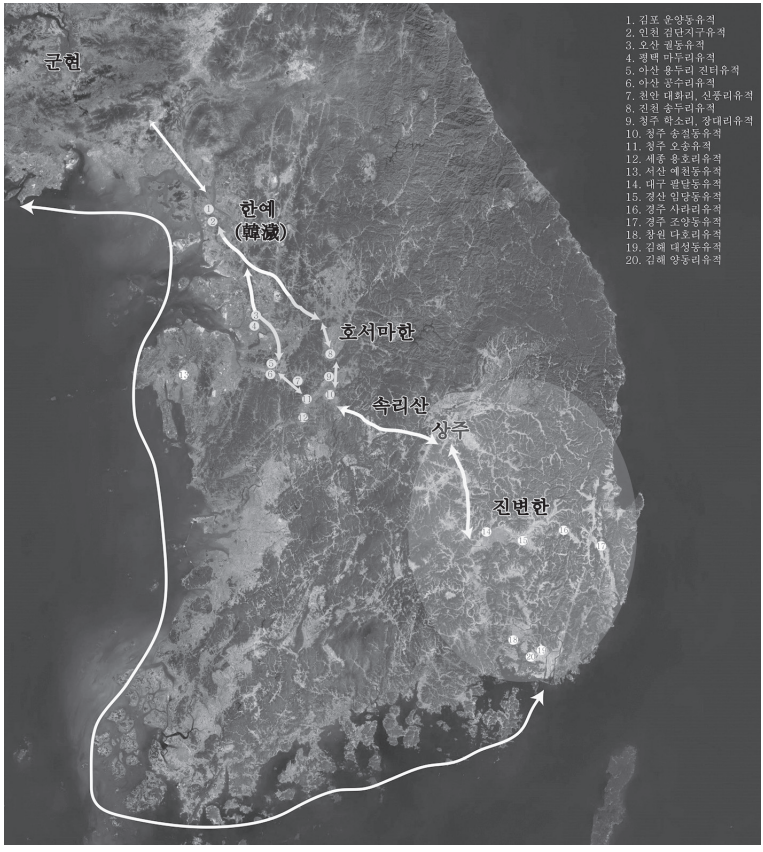


그림 16 삼한의 교류 대상과 루트

으로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내륙지역보다 낙랑군이나 대방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해당한다. 또한 산동반도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낙랑·대방군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유물의 양상도 중원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며 진변한계 유물이 일부 부장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진변한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충청내륙지역에는 낙랑군이나 대방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동남부지역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군현과 교역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중원계 유물보다는 진변한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김포지역과 충청내륙지역의 유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이며 주 교역의 대상이 주로 부장되는 유물이라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다.

2. 중서부지역 세력과 '한예(韓濊)'

문헌에서 삼한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환령지말(桓靈之末)과 관련된 기사이다.

> 『삼국지』 30, 韓傳
> 桓靈之末, 韓濊强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
> [後漢의]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과 濊가 강성하여 [漢의]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郡縣의]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 建安 연간(A.D. 196~220; 百濟 肖古王 31~仇首王 7)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敞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韓·濊에 있던]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에 복속되었다.[10]

『삼국지』 한전에 나오는 한예(韓濊)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과 예'(韓·濊)로

10 국사편찬위원회,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읽는 것이 일반적이나 윤용구[11]는 한예(韓濊)를 한과 예로 읽는 것은 후한서 한전의 독법을 따른 것으로 따로 읽으면 여러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과 예가 강성하여 군현민의 통제가 어려워져 발생한 유민이 한국으로만 유입되는 점과 군대를 일으켜 한과 예를 정벌하였지만 대방군에 복속된 것은 예가 빠진 한만인 점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예(韓濊)는 '한과 예'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지(韓地) 내(內)의 예(濊)'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군현에서 공격한 한예는 한과 예가 아니라 한에 속한 예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한예의 범위에 대하여 대방군이 설치된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군현고지(郡縣故址)와 한(韓)까지 이르는 완충지대에 이르는 지역과 군현에 가까운 마한의 근군제국(近郡諸國)이 정벌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주장을 수용하여본다면 '한예'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존재하였던 '한(韓)' 내부의 '예(濊)' 세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고고학계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던 '한예강성(韓濊强盛)'이라는 내용은 중서부지역의 마한(馬韓)이나 삼한(三韓)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고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세력을 보면 미호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진변한계 유물을 재지화시킨 세력은 '한예'가 아니라 '한'이라고 볼 수 있고 '마한' 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12] 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계 유물이 많이 확인되는 세력은 한강하류역에 위치하던 '한예' 세력

11 윤용구, 2018,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재)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12 미호천 일대에 있었던 마한세력에 대하여 문헌에서 천안 일대로 비정되고 있는 목지국과 관련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문헌과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과제로서 남기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한강하류역에 위치하는 세력이 '한예' 세력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적 상황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된다.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한강하류에 대규모의 무덤을 조영한 세력은 서기 2세기 중엽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서기 3세기 후엽까지 무덤을 조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한예'가 강성하였다는 환령지말에 해당하는 시기로 김포지역에서 가장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는 서기 2세기 중후엽경이다. 그리고 대방군이 공격하여 한예를 멸하였다는 시기와 김포 일대에서 분묘가 거의 조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 거기에 유이민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중원계, 부여계 유물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내륙지역에서는 중원계와 부여계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강하류역에는 낙랑계 니질토기와 화분형토기, 산동지역 백색토기뿐 아니라 한식계의 철장검이 출토되고, 부여계 금제귀걸이가 출토되는 등 군현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유물이 다량 부장된다. 이러한 양상은 군현과의 교역을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유이민 집단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이민을 통하여 중원계 유물의 유입을 추정해본다면 삼국지 한전과 후한서 한전에서 나오는 '한예'로의 유이민 유입에 대한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군현에서 '한예'를 공격하여 정벌하였다는 내용과도 유적의 상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서기 2세기 전엽부터 서기 3세기 후엽까지 무덤을 조영하였던 세력이 서기 3세기 전엽부터 무덤의 축조와 유물의 부장수량이 떨어지게 되고 서기 3세기 후엽 이후에는 더 이상 무덤을 조영하지 않는 양상이 확인된다. 낙랑군과 산동반도, 부여 등과 교류하였던 세력이 갑자기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군현에 의한 정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양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한강유역에 있었던 '한예' 중에 하나의 세력이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무덤을 조영하였던 세력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김포지역의 세력이 '한예'라면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진변한계 유물을 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하는 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충청내륙지역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목관(곽)묘와 주구목관(곽)묘를 조영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유적과 유물의 양상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충청내륙지역은 목지국이라고 비정되어왔던 천안, 아산 일대와 최근 대규모 발굴조사로 인하여 조사된 청주 송절동 유적과 청주 오송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진변한계 유물만이 아니라 부여계 동병철검이 출토되기도 한다. 이 세력이 한강하류지역의 세력과 다른 점은 서기 4세기대까지는 주구목관(곽)묘를 지속적으로 조영하다가 서기 4세기 후반부터는 백제의 영향에 의해 석실묘가 들어오고 백제계 유물과 중국제 청자가 유입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충청내륙지역에 존재한 세력은 근초고왕에 의해 정복되었던 마한 세력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Ⅳ. 맺음말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중서부지역에는 진변한계 유물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계와 한식계 유물이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다수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부여계와 한식계 유물은 충청내륙지역에서도 출토되는데 그 수량은 많지 않다. 한식계나 부여계 유물의 대다수는 재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재지에서 모방하여 생산한 것은 토기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특히 김포지역의 경우 낙랑군이나 대방군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산동지역과도 직접적인 교역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포 일대로 교류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충청내륙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김포 일대에서 충청내륙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서부지역에는 진변한과 관련된 무덤과 유물, 중원계 유물과 부여계 유물, 재지 세력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서부지역에서 외래계 유물들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2개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중원계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분묘를 조영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내륙지역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진변한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이다.

이 두 세력은 비슷한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으로 크게 주구묘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성격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는 두 세력이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무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원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김포 일대는 한강의 하류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내륙지역보다 낙랑군이나 대방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다. 또한 산동반도와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낙랑·대방군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유물의 양상도 중원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며 진변한계 유물이 일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진변한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충청내륙지역은 낙랑군이나 대방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동남부지역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군현과 교역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중원계 유물보다는 진변한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김포지역과 충청내륙지역의 유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이며, 주 교역 대상이 주로 부장되는 유물이라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집단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최근 연구성과에서 한예(韓濊)는 '한과 예'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지(韓地) 내(內)의 예(濊)'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수용하여본다면 '한예(韓濊)'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존재하였던 '한(韓)' 내부의 '예(濊)' 세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진변한계 유물을 재지화시킨 세력은 '한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아니라 '한'이라고 볼 수 있고 '마한(馬韓)' 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계 유물이 많이 확인되는 세력은 한강하류역에 위치하던 '한예' 세력 중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

충청내륙지역은 목지국이라고 비정되어왔던 천안, 아산 일대와 최근 대규모 발굴조사로 인하여 조사된 청주 송절동 유적과 청주 오송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진변한계 유물만이 아니라 부여계 동병철검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세력이 김포지역의 세력과 다른 점은 서기 4세기대까지는 주구목관(곽)묘를 지속적으로 조영하다가 서기 4세기 후반부터는 백제의 영향에 의해 석실묘가 들어오고 백제계 유물과 중국제 청자가 유입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충청내륙지역에 존재한 세력은 근초고왕에 의해 정복되었던 마한 세력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DB

국사편찬위원회,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인성 외, 2014,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8, 진인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마한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0, 진인진.

2. 논문 및 발표문

김기옥, 2013, 「Ⅵ. 고찰 1. 김포 운양동 분구묘」, 『김포 운양동 유적 Ⅰ』, (재)한강문화재연구원.

김길식, 2013,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의 성격과 무기 집중화의 배경」, 『김포 운양동 유적 Ⅰ』,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박영성, 2013, 「한반도 남부지역 劍鞘 연구」, 『考古學志』 第19輯, 국립중앙박물관.

박장호, 2016, 「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내 동남부계 문화적 요소에 대한 검토」, 『제29회 고분문화연구회 발표자료집』, 고분문화연구회.

_____, 2018,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과 변천」, 『야외고고학』 31집,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_____, 2020a, 「중서부지역 출토 진변한계 물질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b, 「호서지역 출토 청동기로 본 마한의 대외교류」, 『民族文化論叢』 第74輯,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서현주, 2019, 「마한 문화의 전개와 변화 양상」, 『湖西考古學報』 第61輯, 湖西考古學會.

成正鏞, 2000, 「中西部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6, 「中西部地域 原三國時代 土器樣相」, 『韓國考古學報』 第60輯, 韓國考古學會.

_____, 2016, 「淸州一帶의 馬韓·百濟古墳과 그 性格」, 『충북문화재연구』 제9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윤용구, 2018,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재)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이용범, 2018,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 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 17, 중부고고학회.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 21號, 嶺南考古學會.

_____, 2013, 「中國東北地域과 韓半島의 合鑄式 銅柄 銅劍·鐵劍에 對하여」, 『白山學報』 第97號, 白山學會.

이한상, 2013,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유적 Ⅱ』, (재)한강문화재연구원.

鄭仁盛, 2012, 「雲北洞 遺蹟의 中國系 遺物」, 『인천 운북동 유적』, (재)한강문화재연구원.

_____, 2013, 「漢江 下流域 雲北洞 유적의 漢式遺物로 본 大中交易의 한 형태」,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敎博物館志』 제9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_____,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質易陶器 '白色土器'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원사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한성백제박물관.

村松洋介, 2019, 「칼럼 8. 북방에서 온 문화(동병철검)」, 『호서의 마한 미지의 역사를 깨우다』 2019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국립청주박물관.

3. 보고서 및 약식보고서

(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인천 검단지구 유적』.

(재)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서산 예천동 유적』.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12지점-』.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3a, 『김포 운양동유적』Ⅰ.

_____, 2013b, 『김포 운양동유적』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부여계·한(漢)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박장호

중서부지역에는 진변한과 관련된 무덤과 유물, 중원계 유물과 부여계 유물, 재지 세력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중서부지역에서 외래계 유물들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2개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중원계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분묘를 조영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내륙지역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진변한계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이다.

이 두 세력은 비슷한 무덤을 조영하는 세력으로 크게 주구묘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성격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는 두 세력이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무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원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김포 일대는 한강의 하류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내륙지역보다 낙랑군이나 대방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해당한다. 또한 산동반도와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낙랑·대방군과의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유물의 양상도 중원계 유물이 주로 부장되며 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변한계 유물이 일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진변한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충청내륙지역은 낙랑군이나 대방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동남부지역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군현과 교역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중원계 유물보다는 진변한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단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최근 연구성과에서 한예(韓濊)는 '한과 예'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지(韓地) 내(內)의 예(濊)'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수용하여본다면 '한예'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존재하였던 '한(韓)' 내부의 '예(濊)' 세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진변한계 유물을 재지화시킨 세력은 '한예'가 아니라 '한'이라고 볼 수 있고 '마한(馬韓)' 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계 유물이 많이 확인되는 세력은 한강하류역에 위치하던 '한예' 세력 중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

주제어: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부여계, 한식계, 한예(韓濊), 마한(馬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Buyeo and Han Dynasty Relics and Influence in the Midwest Region

Park Jangho

In the midwest region, tombs and relics related to Jinbyeonhan, relics of Joongwon and Buyeo, and local powers are mixed.

Looking at the pattern in which alien relics are identified in the Midwest,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forces. One is a force that contrasts tombs in which large amounts of relics of the Jungwon family are excavated in the Gimpo area, and the other is a force in the inland area of Chungcheong, and the other is a force in the inland area of Chungcheong, where a large number of artifacts from Jinbyeon limit are excavated.

These two forces are forces that contrast similar tombs and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e Jugumyo lineage. However, differences are confirm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cs buried in the tomb. This is thought to be a phenomenon in which the results of the selective acceptance of the two forces appear in the tomb, and I think the reas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this appearance is related to the geographical part.

The Gimpo area, where many relics of the Joongwon family are excavated, is an area that is located downstream of the Han River and is geographically closer to Nakrang-gun or Daebang-gun than the inland Chungcheong area centered on Mihocheon. It is also an area where you can directly interact with the Shandong Peninsula. It can be assumed that exchanges with Nakrang-Daebang Army were frequent according to these geographic conditions. However, as for the aspect of the relics, it is confirmed that the relics of the Joongwon-type are mainly buried, and the relics of the Jinbyeon-limited are partially buried.

On the other hand, in the inland area of Chungcheong where many artifacts of the Jinbyon limit are excavated, there is a little distance from Nakrang-gun or Daebang-gun, and in order to trade with Gunhyeon and Gunhyeon in the southeastern region, it must pass through the inland area of Chungcheong.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number of excavated artifacts of Jinbyon-limi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Joongwon-gye.

Looking at this group through the literature, it is argued that the recent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Han Ye (韓濊) should be read not as 'Han and Ye', but as 'The 濊 of the Korean Locals'. Accepting this argumen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韓濊' is a '濊' force within the 'Korea' that existed in the region centered on the Han River and the Imjin River Basin.

The force that re-interpreted the relics of the true Byeon limit identified around Mihocheon is not "韓濊" but "韓", and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馬韓" force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ces in which many Jungwon-based relics, centered on the Gimpo area, are identified as one of the "韓濊" forces located in the lower Han River station.

Keywords: Midwest region, Three Kingdoms period, Buyeo, Han Dynasty, 韓濊, 馬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緖籌辦夷務始末)』·『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의 해제(解題)와 조선 관련 문건

김봉준 | 국립대만대학 역사계 박사후선인

I. 머리말
II. 『주판이무시말』의 편찬과 배경
III. 『광서주판이무시말』의 가치와 구성
IV. 한국 근대 외교사 연구에의 활용 방안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대외사무와 관련된 문서는 고도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일반에 쉽게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기밀보장이 해제되어 대외관계문서들이 일반에 일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수집·정리·해제하는 작업에는 적지 않은 인력과 자원이 소모되기에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준으로 편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유로 결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개인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대량의 대외관계문서들을 다루는 작업을 이끌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1]

청말 군기장경(軍機章京)[2]을 지낸 왕옌웨이(王彦威)는 군기처 문서고에 있

---

* 투고: 2021년 1월 12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朱梅光, 2008, 「關於三朝『始末』保密情況深析」, 『甘肅社會科學』, 甘肅省社會科學院, 88쪽. 19세기 청 정부의 대외관계문서의 기밀유지와 문서의 편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른바 청대 官修編纂에 해당하는 작업은 實錄을 편찬하는 사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료집을 편찬하는 일은 부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특성상 實錄과 夷務始末의 작업은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實錄과 夷務始末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당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실록과 시말을 함께 제작하는 작업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작에는 특별히 황제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도 있었다. 특히 외교문서와 같이 누설에 민감한 문건을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황제의 명과 재가를 받아야 하였다. 즉, 일개 관원이 주도할 수 없었다. 즉, 이무시말과 같은 대외관계 자료들은 애초에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안을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한 제한적인 열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장지동의 『書目答問』이나 『淸史稿 藝文志』에서 夷務始末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반대로 이렇게 대외관계 문서의 정리와 편찬에 청 정부가 제한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朱梅光의 주장과는 달리 劉耿生은 대외사무의 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무시말의 편찬에 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劉耿生, 1984, 「淸代外交檔案史料匯編『籌辦夷務始末』簡述」, 『北京檔案』, 北京市檔案學會, 6쪽.

2 山腰敏寬가 편집한 사전에는 軍機章京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군기처에 속한 관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광서연간의 대외사무와 관련한 문건 가운데 상유(上諭), 주접(奏摺), 정기(廷寄), 자문(咨文), 조약문(條約文), 조회(照會), 전보(電報) 등을 수집하여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緒籌辦夷務始末)』[3](이하 『광서이무시말』로 약칭)을 작성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왕량(王亮)은 부친의 성과를 다시 편집하고 선통연간의 문건과 참고자료를 더 보태어 민국 23년(1934)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를 간행하여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현재도 한국의 대외관계 및 외교사 연구자들은 대만의 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공간(公刊)된 사료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당(朝鮮檔)』·『주한사관보존당안(駐韓使館保存檔案)』 등은 조선과 청의 국경 및 통상 문제에 관해 참고 가치가 높은 사료로 관련 연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중앙연구원 이외의 대만 자료, 특히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문헌관(文獻館), 국사관(國史館), 국민당(國民黨) 당사관(黨史館)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로서 군기대신 아래서 사무를 보조하는 직책이다. 滿漢 각각 16명을 정원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山腰敏寬 編, 2006, 『中國歷史公文書讀解辭典』, 東京: 汲古書院, 58쪽). 그러나 邱遠猷의 설명은 좀 더 자세하다. 군기장경은 內閣中書와 各府院의 郎中, 員外郎, 主事 등 관원 중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총 32명과 4개의 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山腰敏寬의 설명과는 다르며 좀 더 자세하다. 군기장경의 주요 업무는 일상적인 사무에서부터 문서의 처리, 檔冊의 기록이며, 특히 文稿와 諭旨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왕옌웨이가 군기처의 문건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기장경의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유사시에는 황제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단독으로 出京하여 정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조정의 중요 사안을 관찰하고 심지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하여 군기장경은 관원들 사이에서 '小軍機'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邱遠猷 等 主編, 1991, 『中國近代官制詞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4쪽.

3 대만 고궁박물관 문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 전체의 수는 총 69卷이다. 이 자료의 명칭은 『光緒朝夷務始末記』, 『洋務始末』, 『光緒籌辦夷務始末』, 『光緒夷務始末』 등으로 다양하나 문헌관의 소장 목록에는 『光緒朝夷務始末記』로 명기하고 있다. 고궁박물원 판본의 앞 몇 권의 표지는 『洋務始末』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편집자인 왕량에 의한 것으로 이후의 권과 표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활용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4]

현재 대만(臺灣) 고궁박물원 문헌관에서 소장 중인 『광서주판이무시말』[5]은 『청계외교사료』의 저본이 되는 사료로서 광서 원년(光緒元年, 1875)부터 광서(光緒) 24년(1898)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외교·교섭사무 외에도 군사, 해관, 광무 등 당시 주요 현안을 망라하고 있는 중요 사료이다. 『광서주판이무시말』의 편집자인 왕옌웨이는 광서 12년부터 군기처에 근무하면서 공가(公暇)를 이용하여 대외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건을 정리·편집하여 처음에는 『양무시말(洋務始末)』이라는 이름으로 자료집을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이무시말(夷務始末)』로 고쳐 작성하였다.

청 말의 "이무(夷務)" 혹은 "양무(洋務)"라 지칭하는 사안들은 단순히 외국과 관련된 사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광서이무시말』과 수록된 문건들은 당시 청 조정 내에서 논의되었던 현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이 문건들을 모은 『광서이무시말』은 따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6]

---

4 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관련 문건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대만의 자료에 관해서는 직접 대만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구논문 등이 있으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문과 서적만 간추려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권석봉, 1967, 「중국 중앙연구원 소장 조선당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 『동양사학연구』2, 43~74쪽; 국사편찬위원회, 2016,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중국·대만 자료 편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川島眞, 1997, 「臺灣における史料公開現況-外交部檔案資訊處·國防部史政局を中心に」, 『近代中國研究彙報』, 東洋文庫; 林滿紅 主編, 1995, 『臺灣所藏中華民國經濟檔案』,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이 가운데 임만홍의 저서는 전반적인 대만 연구소와 자료고의 설명도 하고 있어 대만 소장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고려대에서 수행한 "『駐朝鮮使館檔』 소송 안건의 탈초, 정본화 및 DB화" 작업과 그 결과물 역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5 표제와 소장명은 『光緒籌辦夷務始末記』, 『光緒夷務始末』, 『洋務始末』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光緒夷務始末』로 통칭하였다.

6 馮明珠, 1987, 「故宮博物院所藏「光緒朝籌辦夷務始末記」述介」, 『故宮學術季刊』 第五卷第二期(冬季號), 85~86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 자료는 光緒朝 外交史料 219卷, 宣統朝 外交史料 24卷, 西巡大事記 12卷, 清季外交年鑑 12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 고궁박물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광서이무시말』의 표지에는 각각 필사 담당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각 권의 분량과 편집 방식 등이 균일하지 않고 오·탈자와 수정표기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완고(完稿)의 형태라기보다는 초고(草稿)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아울러 몇 권은 보관 상태 등이 좋지 않아 열람이 불가 혹은 제한이 있거나 열람은 가능하더라도 글자의 판독이 불가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앞서 도광(道光)·동치(同治)·함풍(咸豐) 삼조(三朝)의 관방사료(官方史料)인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이하 『삼조이무시말(三朝夷務始末)』로 통칭)은 이미 세간에 공개되어 여러 사료집에 인용되어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서연간의 대외관계 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청계외교사료』는 왕옌웨이·왕량 부자의 개인 편찬물이지만 그 수록 문건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료에 대해 장팅푸는 왕옌웨이가 군기장경[7]을 역임한 바 있지만 『삼조이무시말』과는 달리 편찬에 관하여 조정의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학술계와 정부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료의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두 자료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 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8]

이렇듯 사료에 혹평과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서연간의 대외정책과

地圖 16幅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총 259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7 군기장경이 외교문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군기처에 직접 전달 및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시 대외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담하는 기관은 총리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총리아문에서도 수발된 문서를 다루는 장경들은 司務廳과 淸檔房의 章京들로 이들이 국내외에서 수발된 문건을 관장하였다(李文杰, 2017, 『中國近代外交官群體的形成(1861-1911)』, 三聯書店, 122~123쪽). 그래서 군기처의 장경인 왕량이 군기처를 수발자로 하고 있는 문서 이외에 총리아문의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蔣廷黻, 1932. 10. 10, 「外交史及外交史料」, 『天津大公報-文學副刊』 249; 蔣廷黻, 1965, 『蔣廷黻選集』 第一冊, 臺北: 文星書店, 1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련된 문건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는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즈윈(張志雲) 등과 같은 학자들은 『광서주판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에 동일한 중요성을 두고 수록된 중복 문건 등을 하나의 자료로 정리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9] 이렇게 함으로써 『삼조이무시말』을 이어 그 전통과 명맥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국에서는 동주(東洲) 이용희(李用熙)가 『청계외교사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1966년에 『근세한국외교문서총목(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 외국편(外國編)』을 간행하면서 『삼조주판이무시말』과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청선통조중일교섭사료(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이문충공전집(李文忠公全集)』 등 국외 자료와 함께 여기에 수록된 근현대 한국과 관련된 문건의 목록을 정리한 바 있다.[10] 이용희의 설명에 따르면, 광서 원년(1875) 정월부터 광서 30년(1904) 4월까지의 자료는 왕옌웨이가 정리하였고, 아들인 왕량이 광서 30년 5월부터 선통 3년까지를 보충하였다.[11] 그러나 실제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구성과 수록문건을 비교해보면, 두 자료 사이에 많은 차이

9 張志雲 等, 2013, 「瞭解中西交往的關鍵史料-『籌辦夷務始末』的編纂與流布」, 『古今論衡』 24, 86~87쪽.

10 『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에 있는 목록의 구성을 참고하였을 때, 당시 이용희가 참고한 판본은 1964년에 대만 문해출판사에서 총 9冊의 구성으로 출간한 文海版으로 보인다. 이용희가 편집한 자료목록 역시 북경에서 나온 '北京版'을 참고하지 않고 대만의 '洋裝本'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이용희 編, 1966, 『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 外國編』, 국회도서관, 19쪽). 이후의 장에서 판본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판본은 앞서 북평판을 교정·교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光緖朝外交史料(二百十八卷)·宣統朝外交史料(二十四卷)·淸末外交年鑑(四卷)·西巡大事記(十一卷)·淸季外交史料索引(二卷)·邊疆劃界摺地圖(十六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용희는 「거문도 점령외교 綜攷」[이용희 著, 2018,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동주 이용희 전집 4), 75~133쪽]에서 『청계외교사료』에 있는 관련 문건들을 활용한 바 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처음 『청계외교사료』를 활용한 연구성과로 보인다.

11 왕옌웨이는 1904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문건의 마지막 연도와 일치한다. 1904년부터 1911년 이후의 문건과 정리 및 『청계외교사료』의 출간작업은 순전히 아들인 왕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계외교사료』는 아들인 왕량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34년에 왕량이 『청계외교사료』를 북경에서 출판하면서 『광서이무시말』을 『청계외교사료』에 포함시켰다고도 언급하였다. 포함된 문건은 『광서이무시말』에서 광서 원년(1875)부터 광서 24년(1898)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12] 참고로 『청계외교사료』에는 광서 34년(1908)까지의 문건들이 추가되어 있으며 청조(淸朝)의 마지막 해인 선통 3년(1911)의 문건들도 수록되어 있다.

펑밍주(馮明珠)의 해제에서도 『청계외교사료』의 앞 182권은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 대부분과 중복된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 고궁박물원 문헌관에 소장되어 있는 『광서이무시말』은 광서 30년 4월까지의 문건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왕옌웨이의 시기에 자료 대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계외교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서이무시말』의 문건들과 형식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에 수록된 광서-선통연간의 조청관계와 관련한 문건 중에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청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1894년부터 1898년까지의 문건들도 수록되어 있다.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 전후 시기까지 양국 사이에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여기에 수록하고 있는 문건을 통해 양국 간의 교섭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갑오전쟁 전후 변화된 양국의 지위·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청 조정의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1890년 후반 양국 국교 재개의 전후 과정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과 대만에 남아 있는 사료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료의 문건을 참고한다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에는 광서연간의 조선 및 속국 정책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중

12 펑밍주는 왕옌웨이는 필사만 한 것이지 편집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실제 책으로 엮은 것은 왕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처음부터 왕옌웨이가 군기처에서 문서를 선별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한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을 통해 당시 청의 대내외 정책에 관련한 논의와 그 맥락을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광서이무시말』의 문건들은 관련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외관계 자료에도 해당 시기의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함께 비교·대조할 수 있다면 당시 양국 관계의 진상을 규명하는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주판이무시말』의 편찬과 배경

1. 『삼조이무시말』과 『광서이무시말』의 관계

우선 『광서이무시말』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광(道光)·함풍(咸豊)·동치(同治) 연간의 『삼조주판이무시말』의 제작 배경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광서이무시말』의 가치는 전 삼조의 이무시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광서이무시말』에 전 삼조의 이무시말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그 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1920년대 『삼조이무시말』이 오늘날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장팅푸(蔣廷黻)의 업적과 사료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삼조이무시말』에 대한 장팅푸의 정리·편집 과정 그리고 그가 이 사료에 내린 평가를 먼저 되짚어 살펴보는 것은 해당 사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삼조이무시말』의 공개 과정에 대한 궈팅이(郭廷以)의 설명을 간략하게 보면, 1926년 1월 북경 고궁박물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군기처 당안들이 대고전(大高展)으로 이장되었고, 1927년 문헌관 측에서 대고전의 자료들을 관련 학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그리고 공개한 자료 중에 『삼조이무시말』이 있었기에 비로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13]

이렇게 공개된 『삼조이무시말』은 처음에 내각(內閣)과 군기대신(軍機大臣)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봉(所奉)한 유지(諭旨)와 내외신공(內外臣工)의 접주(接奏)를 근거로 삼아 제작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료는 외국(外國)의 서(書)와 의민(義民)의 신찰(信札)을 포함하여 이무(夷務)와 관련된 문건을 편년기월(編年紀月)의 형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14] 이무시말의 체례(體例)는 기거주(起居注)와는 다르며, 실록(實錄), 성훈(聖訓)과 유사하다. 실록에서 유지(諭旨)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주장(奏章)은 약소하다는 특징이 있다면 이무시말에서는 주장의 비중이 높다.

『도광주판이무시말(道光籌辦夷務始末)』의 제작에 참여한 자오윈(趙昀)은 "이무(夷務)가 날로 번잡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략(方略)이 아직 책으로 엮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후 누적될 문건과 사실의 누실에 대비하여 당시의 진주(陳奏) 등을 모아 기록하고 한 자라고 놓치지 않고, 또 한 자라도 바꾸지 않으면서 책 하나로 모았으니 이를 주판이무시말이라 명명하였다"고 하며 제작과 편집의 기원을 밝힌 바 있다.[15] 즉, 『삼조주판이무시말』은 이러한 원칙하에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서이무시말』의 체례 역시 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삼조주판이무시말』의 개요를 〈표 1〉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이후 1960~1970년대에 중국이 아닌 대만에서 『삼조주판이무시말』이 재차 정리·영인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간행된 것은 미국과 대만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미국의 아주협회(亞洲協會)는 대만 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대만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서구와 관련이 있는 외교 사료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편찬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장팅푸, 궈팅이와 같은 대만 연구자들과 페어뱅크와 같은 미국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

13 郭廷以, 1966, 「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道光咸豐兩朝籌辦夷務始末補遺』,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2쪽.

14 文經 等 主編, 齊思和 等 整理, 1964, 「凡例」, 『籌辦夷務始末·道光朝』 卷一, 北京: 中華書局, 1~3쪽.

15 趙昀 編, 趙繼元 等 補編, 1998, 『逐翁自訂年譜』(『北京圖書館藏珍本年譜叢刊』 第155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3a~23b쪽.

16 張志雲 等, 2013. 6, 앞의 글, 84쪽: 이 논문은 광서이무시말을 제외한 三朝의 夷務始末의 편찬과 배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삼조(三朝:道光·咸豐·同治)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의 개요

표제	도광주판이무시말 (道光籌辦夷務始末)	함풍주판이무시말 (咸豐籌辦夷務始末)	동치주판이무시말 (同治籌辦夷務始末)
제작 시기 / 편집자	함풍 6년 9월(1856. 10.) / 文慶 등	동치 6년 4월(1867. 5.) / 賈楨 등	광서 6년 8월(1880. 9.) / 寶鋆 등
수록 기간	도광 16년 4월 27일 (1836. 6. 10.) ~ 도광 29년 12월 7일 (1850. 1. 19.)	도광 20년 1월 23일 (1850. 3. 6.) ~ 함풍 11년 6월 2일 (1861. 7. 9.)	함풍 11년 7월 18일 (1861. 7. 9.) ~ 동치 13년 12월 5일 (1874. 1. 12.)
卷/件/字의 수	80卷/2,719件/ 약 220萬字	80卷/2,988件/ 약 200萬字	100卷/3,258件/ 약 250萬字

으며, 그 결과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삼조주판이무시말』과 『청대주판이무시말색인(淸代籌辦夷務始末索引)』[17]의 편찬 등과 같은 성과를 배출해 내었다.[18]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료의 출판과 판본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7 David Nelson Rowe ed, 1960, *Index to Ch'ing Tai Ch'ou Pan I Wu Shih Mo*(淸代籌辦夷務始末索引), Hamden, CT: Shoe String Press(이하 『始末索引』로 약칭)은 최초로 이무시말의 자료들을 체계에 따라 분류한 성과이다. 『始末索引』의 기호 표기와 관련하여, 『始末索引』의 영어표기는 기본적으로 웨이드-자일로 표기되었다. 예를 들어, 琦善 CH'I SHAN: N(MA) tk 2/28a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N은 인명을 지칭하고, MA는 만주족임을 말한다. 그리고 tk는 『道光夷務始末』로 道光의 웨이드-자일 발음인 to-kuang을 뜻한다. 2는 『道光夷務始末』의 제2권, 28은 28 페이지, a는 앞면, 그 뒤에 있는 2는 行을 의미한다.

18 또한 대만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당시 대만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정치상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양국 관계는 대만학계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쳤다. 사학 연구 부분에서는 페어뱅크(J. K. Fairbank)와 장티푸가 대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John King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費正淸硏究中心)와 Harvard East Asian Monograph의 성립에 보탬이 되었다. 1970년대 이전의 대만과 미국의 문화합작과 당시 대만학계와 관련해서는 정문상, 2012, 「냉전과 타이완 학계의 중국근대사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54,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문상, 2015, 「곽정이의 근대중국론과 대만의 문화냉전」,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근현대사학회; 정문상, 2016, 「1955~1965년 타이완 역사학계의 풍경」, 『아시아문화연구』 42,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등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삼조주판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판본

『청계외교사료』는 왕량이 정리·편집한 자료이나 실제 출판은 민국시기인 1928년 11월 21일 북경정분회(北京政分會)의 허가와 지원을 받아 결정되었다. 당시 도광, 함풍, 동치, 광서연간 『주판이무시말』 출간의 건의안이 있었으며, 이후 재정부와 외교부 등에서 출자하여 출간이 진행되었다.[19] 대만에서 간행한 『삼조주판이무시말』은 왕량이 출간한 북평 고궁박물원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판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출간된 『삼조주판이무시말』의 판본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대북국풍출판사(臺北國風出版社)의 국풍판(國風版, 1963년 초판 출판), ② 대북문해출판사(臺北文海出版社)의 문해판(文海版, 1971년 초판 출판), ③ 대북대련국풍출판사(臺北臺聯國風出版社)의 대련국풍판(臺聯國風版, 1972년 초판 출판), ④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의 고적판(古籍版, 2008년 초판 출판), ⑤ 호남사범대학출판사(湖南師範大學出版部)의 호남판(湖南版, 2015년 출판) 등이 있다.[20] 각 판본은 동일한 저본을 바탕으로 간행되었지만 표점의 유무와 편집 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풍판을 전면 수정하여 다시 간행한 대련국풍판을 제외한 세 판본에는 목록, 표제, 색인이 없으며, 글자가 작고 표점이 없어 문건의 내용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양력(陽曆) 부기(付記) 없이 간지(干支)과 음력(陰曆)으로만 일자가 명기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련국풍판에는 수록 문건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색인목록에 정리해두어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 다만, 당시 『시말색인(始末索引)』이 이미 출간되어 있어 대련국풍판의 색인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

19 湖北師範大學出版社 編, 2015, 「影印道咸同光四朝夷務始末之建議」, 『世界日報』, 1928년 12월 10일자 기사, 2쪽; 해당 기사는 朱梅光, 2008, 「近代中國外交史學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論文, 63쪽에서 재인용하였다.

20 각 판본의 약칭은 저자가 구분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울러 위와 같은 영인본이 아닌 배자인쇄본(排字印刷本)으로는 대만은행 경제연구실(臺灣銀行經濟研究室)에서 편집한 『주판이무시말선집(籌辦夷務始末選輯)』(1964)과 『주판이무시말선집보편(籌辦夷務始末選輯補編)』(1967) 그리고 중화서국(中華書局)의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 道光, 咸豐, 同治)』(2008, 2014 재출판)이 출간되었다. 이 중 『주판이무시말선집』은 새로이 표점을 추가하였으며, 양력을 음력과 병기하고, 대만과 관련된 문건을 위주로 편집하여 대만사와 관련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1958년 대북(臺北)의 문해출판사(文海出版社)에서 출간한 『근대중국사료총간(近代中國史料叢刊)』의 판본에는 장제스(蔣介石), 후스(胡適) 등 당시 중화민국의 정치·학술계 주요 인사들이 쓴 서언(序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계외교사료』는 『광서이무시말』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며, 아직 『광서이무시말』이 정식으로 공간(公刊)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미 간행된 『청계외교사료』의 판본을 가지고 그 출판의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계외교사료』의 첫 간행과 판본은 왕량에 의해 1933~1935년에 북평외교사료편찬처(北平外交史料編纂處)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북평판(北平版)은 편집자인 왕량의 기획에 따라 총 218권(卷)으로 엮어져 있으며, 부록도 따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선통조외교사료[淸宣統朝外交史料(二十四卷)]·서순대사기[西巡大事記(十一卷·卷首一卷)]·청계외교연감[淸季外交年鑑(四卷)]·청대약장분류표[淸代約章分類表(一卷)]·청계외교사료색인[淸季外交史料索引(十二卷)]·청광선양조조약일람표[淸光宣兩朝條約一覽表(一卷)]도 추가하여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후 1964년에는 대만 문해출판사에서 총 9책의 구성으로 『청계외교사료』를 다시 출판하였다. 앞서 북평판을 교정·교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광서조외교사료[光緖朝外交史料(二百十八卷)]·청선통조외교사료·청말외교연감·서순대사기·청계외교사료색인·변강획계접지도[邊疆劃界摺地圖(十六幅)]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해판은 1985년에 『근대중국사료총간(近代中國史料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叢刊)』에 포함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근대중국사료총간』의 삼편(三篇)에 해당하는 이 총간판(叢刊版)은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계외교연감·변강획계도(邊疆劃界圖)·청말외교연감·서순대사기·청계외교사료색인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과 체제상 북평판과는 차이가 있으나 앞서의 문해판과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21]

앞서 대만은행 경제연구실에서 『주판이무시말선집』과 『주판이무시말선집보편』을 출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64년에 대만은행 경제연구실에서 다시 『청계외교사료선집』을 출간한 바 있다.[22] 『청계외교사료선집』은 1964년에 간행된 『대만문헌총간(臺灣文獻叢刊)』 제4집(第四輯)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1993년에 대만성문헌위원회(臺灣省文獻委員會)에서 간행한 『대만역사문헌총간(臺灣歷史文獻叢刊)』에도 다시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주판이무시말선집보편』은 앞서 『주판이무시말선집』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관련된 문건을 위주로 편집되어 있어 대만 이외의 문건을 이용하는 것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2009년에는 대만의 한진자신계통공사(漢珍資訊系統公司)에서 문해판을 디지털화하여 CD 등 매체로 출간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자료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원문의 표점 등을 누락한 채 입력한 상태로 있으며, 또한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근래 중국 대륙에서의 『청계외교사료』의 출판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87년 북경의 서목문헌출판사(書目文獻出版社)에서 출간한 서목판(書目

---

21 文海版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冊: 第1~24卷(光緒 元年 正月~6年 12月), 2冊: 第25~52卷(光緒 7年 正月~10年 12月), 3冊: 第53~78卷(光緒 11年 正月~14年 12月), 4冊: 第79~110卷(光緒 15年 正月~21年 4月), 5冊: 第111~145卷(光緒 21年 4月~26年 12月), 6冊: 第146~181卷(光緒 27年 正月~29年 12月), 7冊: 第182~218卷(光緒 30年 正月~34年 12月), 8冊: 第1~24卷(宣統 元年 正月~3年 12月), 9冊: 淸末外交年鑑·西巡大事記, 10冊: 史料索引·邊疆劃界圖.

22 大通書局에서 출판하였으며, 분량은 총 376쪽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版)은 북평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구성에서는 다른 판본과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 서목판은 색인을 추가하고 문건의 일자에 양력·음력을 모두 표기하였다. 또한 매월(每月)의 표기를 달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함으로써 해당 사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표점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문서의 독해에도 편리하다. 중국의 초성수자도서관(超星數字圖書館)에서도 대만과 같이 이 판본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제작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 천진(天津)의 학원출판사(學苑出版社)에서도 『청계외교사료전서(淸季外交史料全書)』를 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계외교사료』의 판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판본은 2015년에 호남사범대학출판사(湖南師範大學出版社)에서 출간한 호남판(湖南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호남판은 표점과 색인 등에서 가장 최신의 체제를 갖춘 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색과 활용도를 제고한 판본이다.[23]

참고로 1960~1970년대 대만의 외교사료 편찬과 관련하여, 대만에서 편찬된 외교사료집 편찬 성과 가운데 궈팅이가 편집한 『사국신당(四國新檔)』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국신당』은 당시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총리아문당안의 문건을 위주로 편집한 자료로써 아주협회(亞洲協會)의 지원을 받고 궈팅이가 편찬을 주도한 것이다. 이 사료집은 도광 30년(1850)부터 동치 2년(1863)까지 총리아문의 문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수록된 문건의 형식으로는 조서(詔書)·주소(奏疏)·함찰(函札)·자문(咨文)·조회(照會) 등이 있다.[24] 1966년 10월에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며, 최근 2015년에 다시 영인되어 출간되었다.[25] 이 자료의 전체 3,403건의 자료 중

23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방한했을 때 기증한 중국 자료 등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시진핑 기증도서 코너에서 소장하고 있다.

24 『사국신당』의 출판과 동시에 장팅푸가 편집한 『道光咸豐兩朝籌辦夷務始末補遺』도 함께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료집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大事年表가 『道光咸豐兩朝籌辦夷務始末補遺』에 수록되어 있다.

25 1966년본과 2015년본은 내용과 형식에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 정도에 해당하는 1,307건이 『주판이무시말』과 중복되며, 출입자(出入字) 등이 있어 상태가 불완전한 714건을 제외한 1,382건은 『사국신당』에만 수록된 문건이다.[26] 이 『사국신당』 역시 2015년에 대만에서 POD(publish on demand)로 소량이 다시 재판된 바 있다.

『사국신당』에 수록된 문건과 내용은 『주판이무시말』에 수록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문건의 편집과 구성은 상이하다. 우선 『사국신당』은 영국당[英國檔(제1·2책)], 아국당[俄國檔(제3책)], 법국당(法國檔), 미국당(美國檔), 판리무국(辦理撫局, 모두 제4책에 포함) 등으로 관련 국가별로 문건을 편집하였으며, 각 문건에 통일편호(統一編號)를 붙여 수발일자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리무국은 통일편호가 아닌 별도의 기호로 정리하였다. 총리아문의 사무와 관련된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Ⅲ. 『광서주판이무시말』의 가치와 구성

1. 『광서주판이무시말』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이미 평가와 출판이 이루어진 『삼조주판이무시말』과는 달리 『광서이무시말』은 후대에 어떠한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삼조의 이무시말과는 대조적으로 장팅푸는 『광서이무시말』의 가치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우선 장팅푸가 『광서이무시말』에 대해 남긴 평가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

26 郭廷以 等 編, 1966, 「例言」, 『四國新檔』,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2쪽. 이 『사국신당』은 실제 『광서이무시말』과 중복되는 문건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구분을 위해 『사국신당』에서는 문건의 첫째 行, 段에 ㊍로 따로 표기를 해두었으며, 출입자가 있는 문건에도 마찬가지로 ※와 같은 부호로 표시를 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原輯者인 王彦威 선생과 新編者인 王希隱(亮) 선생은 모두 私人이며, 어떠한 학술과 정부기관을 대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인이 어떻게 약간의 외교문건을 얻을 수 있었는가? 편찬자가 이미 출판한 60책 가운데, 글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衙門檔案에서 기록해왔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용은 어디에 있으며, 私人의 도덕심은 어디에 있냐고 할 수 있는가? 이후 외국이 우리나라와 감히 문건을 주고받으려 하겠는가?[27]

즉, 위와 같이 장팅푸는 왕옌웨이·왕량 부자의 신분을 언급하면서 관원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정부의 문건을 함부로 취급한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외교문서와 같은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할 문건을 개인의 판단으로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장팅푸는 평생 단 한 번도 왕씨 부자가 편찬한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를 공개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장팅푸의 부정적인 평가가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광서이무시말』의 평가와 활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87년 대만 고궁박물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광서이무시말』에 대해 연구한 펑밍주 역시 왕옌웨이가 어떻게 아문당안(衙門檔案)을 반출하여 『광서이무시말』을 제작하였는지 그 내막을 소상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기록물을 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한 것의 여부를 의심하면서 장팅푸의 견해에 부연하고 있다.[28] 특히 아들인 왕량이 굳이 『광서이무시말』을 두고 『청계외교사료』를 따로 출간한 사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관련된 의문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광서이무시말』을 다룬 기존 연구에 관해, 앞서 언급한 펑밍주가 자료의 형식과 이 자료의 일부를 저본으로 활용한 『청계외교사료』와의 비교를 위

27 蔣廷黻, 2017, 「外交史及外交史料」, 『中國近代史論集: 蔣廷黻外交史著作選』, 臺北: 新銳文創, 167쪽.

28 馮明珠, 1987, 앞의 글,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로 연구한 논문을 1987년 『고궁학술계간(故宮學術季刊)』에 게재한 바 있다.[29] 펑밍주의 연구성과는 이 사료의 제작 배경과 과정보다는 주로 『광서이무시말』의 형식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자료의 형식에 관해서는 펑밍주의 연구를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광서이무시말』의 존재를 당시 학식이 넓은 쉬스창(徐世昌)조차도 『청계외교사료』의 서언(序言)에서 "도(道)·함(咸)·동(同) 삼조(三朝)의 이무시말(籌辦夷務)은 모두 기록이 있으며, 시기를 나누어 서술하였기에 그나마 본말(本末)이 있다. 애석하게도 그 이후와 광서(光緖)·선통(宣統)에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광서이무시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30] 쉬스창의 글을 참고한다면, 부친인 왕옌웨이가 편집해놓은 『광서이무시말』을 아들인 왕량이 『청계외교사료』로 편찬하기 위해 공간(公刊)하지 않았거나 미정리인 상태로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광서이무시말』이 『청계외교사료』로 정리되어 나오면서 저본인 『광서이무시말』의 가치와 활용이 모호해진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펑밍주는 왕옌웨이가 『청계외교사료』의 앞 182권이 『광서이무시말』과 중복됨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자료의 취사선택한 기준과 경위에 관해서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왕옌웨이가 혹 정부의 자료를 자신의 업적으로 하려 한 것인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1]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이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에 수록된 문건들의 중요성과 가치에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팅

29 馮明珠, 1987, 앞의 글, 85~111쪽. 1987년에 작성된 펑밍주의 논문에서는 광서 22년(1896) 이후부터 광서 24년(1898)까지의 12권과 필사가 완료되지 않은 2권은 아직 公刊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서 22년 정월부터 광서 24년 12월까지의 해당 문건은 1985년 文海出版社에서 재판된 『청계외교사료』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30 王彦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1987, 『淸季外交史料』,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쪽.

31 馮明珠, 1987, 앞의 글,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푸 등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차치하고 현재 『청계외교사료』가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평가가 자료의 가치와 활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32]

또한 장팅푸는 청계외교사료가 출판되면서 서문과 출간사를 작성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회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삼조주판이무시말』의 출판은 중국 외교사의 학술혁명이라고 극찬하며 『삼조주판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가 있어 전 세계의 학자들이 대만의 학술에 주목할 수 있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장팅푸는 『삼조주판이무시말』과 『광서이무시말』·『청계외교사료』를 구분하면서 두 사료의 가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장팅푸는 『삼조주판이무시말』은 관서(官書)로서 정부의 인력과 자원이 투여되어 완성된 사료이고,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는 왕옌웨이·왕량 부자 개인이 편찬한 사찬(私撰)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장팅푸는 청조가 멸망하면서 정부의 주도로 이무시말과 같은 자료를 이어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대외관계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는 왕옌웨이 부자의 노력만큼은 인정한 것이다.[33] 다시 말해, 장팅푸의 평가에 따르면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는 개인의 저작에 속하며, 조정의 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작한 관찬사료(官撰史料)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의 중요문서를 개인이 누출하여 이를 공간(公刊)했다는 사실은 향후 외교 사안과 교섭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료에 수록된 문건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따져본다면, 『삼조주판이무시말』의 명맥을 잇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왕옌웨이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작의 동기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즉, 이 사료의 편찬목적과 배경에

32 王彦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1987, 앞의 책, 5쪽.

33 주판이무시말의 편찬과 유통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張志雲 等은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왕량 부자의 『청계외교사료』를 『삼조주판이무시말』과 함께 傳統文獻으로 구분하지 않고 近人論著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張志雲 等, 2013. 6, 앞의 글, 112~1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해, 해당 사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청계외교사료』에 대한 이용희의 평가 역시 장팅푸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편집과 체례(體例)를 중심으로 보면서 『청계외교사료』가 개인의 편집과 저작물로 인해 누락과 오기가 적지 않으며, 생략한 부분이 많아 이용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할 시에는 『광선양조중일교섭사료(光宣兩朝中日交涉史料)』나 『이문충공전집』 등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청계외교사료』에는 다른 사료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예부(禮部)를 수발자로 하는 조선 관련 문건이 있어 도움이 된다는 점 역시 밝히고 있다.[34] 다만 김용구는 불완전한 편집과 구성 방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 등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평하였다.[35]

현재 『청계외교사료』를 디지털화하여 검색 등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판본에 따라 문건의 표점과 같은 편집 방식에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문건의 분류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정리와 활용에 대한 작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2. 『광서주판이무시말』의 편찬 배경

우선 왕옌웨이는 『청계외교사료』에 수록되어 있는 자서(自序)에서 『광서이무시말』의 편찬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으며, 『광서이무시말』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장팅푸, 궈팅이 등의 설명도 참고하자면 아래와 같다.

---

34 이용희 편, 1966, 앞의 책, 14쪽.

35 김용구, 2002, 『외교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원,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왕옌웨이는 광서 12년(1886)에 軍機章京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北平圖書館 主任 袁守和의 소개로 『삼조주판이무시말』을 열람할 수 있었으며, 그는 즉시 이 사료의 가치를 중하게 매겼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조가 도광·함풍·동치 삼조의 이무시말이 편찬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아직 大庫에 있는 문건들 중에는 정리·付刻되지 않은 문건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公暇를 이용하여 광서 원년에서 30년까지의 문건들을 모아 따로 기록하였다.[36]

처음 왕옌웨이는 『주판양무시말기(籌辦洋務始末記)』라는 제목을 붙여 사료집을 만들었으나 이후 『광서주판이무시말기(光緒籌辦夷務始末記)』로 정정하였다. 왕옌웨이가 정리한 기록들은 군기처에서 소장하고 있던 대신들의 상주(上奏), 주접(奏摺), 자문(咨文), 조약문(條約文), 조회(照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삼조이무시말』에는 없는 전보문(電報文)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광서연간부터 전선(電線)을 활용한 통신이 가능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아울러 서언(序言)에서는 청불전쟁, 갑오전쟁, 무술변법 등 19세기 말의 중요 사안을 위주로 문건들을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대만 고궁박물원 문헌관에 소장하고 있는 『광서이무시말』은 왕옌웨이가 광서연간의 군기처 및 총리아문의 관련 문건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들인 왕량이 부친의 정리작업을 이어 문건들을 재편집하고 여기에 선통연간의 문건과 기타 자료들을 추가하여 『청계외교사료』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청계외교사료』에서는 청 말 광서·선통 연간(1875~1908)의 문건을 함께 수록하게 된 것이다. 『광서이무시말』은 왕옌웨이가 군기장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에 확보한 문건을 필사하여 편찬한 자료이다. 그러나 실제 수록된 문건을 보면 왕량이 이어 정리·편집한 『청계외교사료』에는 『광서이무시말』에 수록하고 있는 문건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수록 문건과 편집 방식 등에서 두 사료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6 王彦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1987, 앞의 책,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고 자료 간의 차이 등이 확연하지만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문헌적 가치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37] 청 말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무시말의 편찬을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편집자의 지위와 출판 의도만 고려하여 사료집과 수록된 문건의 가치가 폄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광서이무시말』의 구성과 분류 등 형식적인 부분과 문건 수록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광서주판이무시말』의 구성과 수록 형식

『광서이무시말』은 총 6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안년편차(按年編次), 분별찬록(分別纂錄)",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청계외교사료』 역시 동일한 구성을 따르고 있다.[38] 각 권은 필사와 정리의 상태에 따라 크게 복초본(復抄本), 복초미완본(復抄未完本), 전청본(全淸本), 비열본(批閱本)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사료의 가치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크게 관건이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몇 권을 제외하면 권호의 차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전청본, 비열본과 달리 복초본, 복초미완본에는 누락된 문건이 있고 시기 또한 빠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우선 대만 고궁박물원 문헌관에서 지정한 편호(編號)를 통해 각 권의 전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량에서도 앞의 두 형식과 비교하면 균일하다고는 할

37 John E, Schrecker, 1971,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ism: Germany in Shantu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쉬레커(Schrecker)와 같은 연구자는 19세기 말 중국에서 主權 개념의 도입을 증명하기 위해 『청계외교사료』의 문건을 주요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

38 王彦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2015, 『淸季外交史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없지만, 정리와 편집이 되기 전의 상태에 가까운 판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 2〉에 대만 고궁박물원 문헌관에 있는 『광서이무시말』의 구성과 문건의 수록 기간을 정리하였다. 이후 본문에서 인용하는 수록 문건의 일자(日子)·편호(編戶) 등은 고궁박물원에서 표기된 것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둔다.

〈표 2〉 『광서이무시말』의 구성과 해당 기간

순서	소장번호 (編號)	분량 (페이지)	수록문건의 기간	표지
1	108000049	96	광서 원년(1875) 정월 초5일 ~ 광서 원년 정월 21일	第一本
2	108000050	36	광서 원년 3월 22일 ~ 광서 원년 4월 26일	第三本
3	108000051	41	광서 원년 6월 9일 ~ 광서 원년 7월 초9일	第四本
4	108000052	52	광서 원년 7월 24일 ~ 광서 원년 8월 25일	第五本
5	108000053	45	광서 원년 9월 12일 ~ 광서 원년 10월 초9일	第六本
6	108000054	54	광서 2년(1876) 정월 초7일 ~ 광서 2년 2월 15일	第七本
7	108000055	42	광서 2년 4월 초6일 ~ 광서 2년 5월 25일	第八本
8	108000056	42	광서 2년 7월 초4일 ~ 광서 2년 7월 18일	第九本
9	108000057	20	광서 2년 9월 12일 ~ 광서 2년 9월 17일	第十本
10	108000058	60	광서 2년 10월 29일 ~ 광서 2년 12월 15일	第十一本
11	108000059	10	광서 3년(1877) 정월 초6일	第十二本
12	108000060	30	광서 3년 4월 초3일 ~ 광서 3년 4월 12일	第十三本
13	108000061	20	광서 4년(1878) 정월 12일	第十四本
14	108000062	256	광서 7년(1881) 6월 16일 ~ 광서 7년 12월 28일	표기 없음
15	108000063	90	광서 8년(1882) 정월 초6일 ~ 광서 8년 3월 초8일	표기 없음
16	108000064	82	광서 8년 8월 초5일 ~ 광서 8년 8월 20일	표기 없음
17	108000065	80	광서 9년(1883) 정월 12일 ~ 광서 9년 2월 14일	표기 없음
18	108000066	217	광서 9년 4월 초4일 ~ 광서 9년 6월 24일	표기 없음
19	108000067	166	광서 9년 7월 초1일 ~ 광서 9년 8월 30일	표기 없음
20	108000068	225	광서 9년 9월 초1일 ~ 광서 9년 9월 29일	표기 없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순서	소장번호 (編號)	분량 (페이지)	수록문건의 기간	표지
21	108000069	* 열람 불가(보존상태 불량)		
22	108000070	127	광서 10년(1884) 정월 초3일 ~ 광서 10년 2월 24일	표기 없음
23	108000071	156	광서 10년 3월 초7일 ~ 광서 10년 3월 24일	표기 없음
24	108000072	15	광서 10년 4월 21일 ~ 광서 10년 4월 22일	표기 없음
25	108000073	227	광서 10년 4월 초1일 ~ 광서 10년 4월 20일	표기 없음
26	108000074	136	광서 10년 8월 초1일 ~ 광서 10년 8월 30일	표기 없음
27	108000075	122	광서 10년 9월 초1일 ~ 광서 10년 9월 13일	표기 없음
28	108000076	124	광서 10년 9월 8일 ~ 광서 10년 9월 27일	표기 없음
29	108000077	156	광서 10년 10월 초1일 ~ 광서 10년 11월 11일	표기 없음
30	108000078	163	광서 10년 11월 21일 ~ 광서 10년 12월 30일	표기 없음
31	108000079	88	광서 11년(1885) 정월 초2일 ~ 광서 11년 정월 22일	표기 없음
32	108000080	42	광서 11년 2월 초1일 ~ 광서 11년 2월 초6일	표기 없음
33	108000081	135	광서 11년 3월 초1일 ~ 광서 11년 3월 23일	표기 없음
34	108000082	101	광서 11년 4월 초1일 ~ 광서 11년 4월 28일	표기 없음
35	108000083	124	광서 11년 5월 초4일 ~ 광서 11년 6월 초6일	표기 없음
36	108000084	179	광서 11년 6월 14일 ~ 광서 11년 6월 28일	표기 없음
37	108000085	124	광서 11년 7월 초1일 ~ 광서 11년 7월 20일	표기 없음
38	108000086	100	광서 11년 8월 11일 ~ 광서 11년 9월 초7일	표기 없음
39	108000087	265	광서 11년 10월 초2일 ~ 광서 11년 12월 25일	표기 없음
40	108000088	14	광서 12년(1886) 정월 초1일 ~ 광서 12년 정월 초6일	표기 없음
41	108000089	142	광서 12년 4월 초1일 ~ 광서 12년 6월 17일	표기 없음
42	108000090	66	광서 12년 7월 초3일 ~ 광서 12년 8월 24일	표기 없음
43	108000091	260	광서 14년(1888) 정월 초2일 ~ 광서 14년 6월 28일	표기 없음
44	108000092	270	광서 14년 7월 초1일 ~ 광서 14년 12월 26일	표기 없음
45	108000093	288	광서 15년(1889) 정월 초1일 ~ 광서 15년 6월 30일	표기 없음
46	108000094	192	광서 15년 7월 초10일 ~ 광서15년 12월 28일	표기 없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순서	소장번호 (編號)	분량 (페이지)	수록문건의 기간	표지
47	108000095	172	광서 16년(1890) 정월 초4일 ~ 광서 16년 5월 28일	표기 없음
48	108000096	216	광서 16년 6월 초9일 ~ 광서 16년 12월 25일	표기 없음
49	108000097	286	광서 17년(1891) 2월 초3일 ~ 광서 17년 12월 26일	표기 없음
50	108000098	217	광서 18년(1892) 4월 25일 ~ 광서 18년 12월 22일, ※ 광서 21년(1895) 윤5월 16일자, 12월 24, 25일자 문건 첨부	표기 없음
51	108000099	191	광서 19년(1893) 정월 21일 ~ 광서 19년 12월 17일	표기 없음
52	108000100	24	광서 19년 정월 21일 ~ 광서 19년 3월 15일(중복)	표기 없음
53	108000101	261	광서 21년(1895) 정월 초10일 ~ 광서 21년 2월 29일	표기 없음
54	108000102	276	광서 21년 3월 초1일 ~ 광서 21년 4월 29일	표기 없음
55	108000103	338	광서 21년 5월 초1일 ~ 광서 21년 6월 29일	표기 없음
56	108000104	314	광서 21년 7월 초1일 ~ 광서 21년 9월 28일	표기 없음
57	108000105	201	광서 21년 10월 초4일 ~ 광서 21년 12월 26일	표기 없음
58	108000106	304	광서 21년 12월 29일 ~ 광서 22년(1896) 3월 29일	표기 없음
59	108000107	228	광서 22년 4월 12일 ~ 광서 22년 7월 28일	표기 없음
60	108000108	209	광서22년 8월 초6일 ~ 광서 22년 12월 25일	표기 없음
61	108000109	285	광서 23년(1897) 정월 초3일 ~ 광서 23년 6월 27일	표기 없음
62	108000110	282	광서 23년 7월 초3일 ~ 광서 23년 12월 28일	표기 없음
63	108000111	272	광서 24년(1898) 정월 초1일 ~ 광서 24년 2월 28일	표기 없음
64	108000112	263	광서 24년 3월 초2일 ~ 광서 24년 4월 29일	표기 없음
65	108000113	229	광서 24년 5월 초1일 ~ 광서 24년 5월 30일	표기 없음
66	108000114	206	광서 24년 6월 초1일 ~ 광서 24년 6월 29일	표기 없음
67	108000115	322	광서 24년 7월 초1일 ~ 광서 24년 7월 29일	표기 없음
68	108000116	234	광서 24년 7월 27일 ~ 광서 24년 8월 29일	표기 없음
69	108000117	259	광서 24년 9월 초1일 ~ 광서 24년 12월 24일	표기 없음

* 出典: 대만 고궁박물원 문헌관 소장 『光緒籌辦夷務始末記』[10800049-108000117]. 고궁박물원 문헌관의 자료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광서이무시말』의 책들 가운데 第二本과 같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 책들은 해당 자료들이 북경에서 대북으로 이송되던 전후 시기에 이미 戰亂과 漏失 등 여러 사유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를 참고로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를 비교해보면, 『광서이무시말』은 광서 원년(1875)에서 광서 24년(1898) 기간의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반면 『청계외교사료』는 『광서이무시말』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광서 24년까지의 문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선통연간의 문건을 추가하였다. 『광판이무시말』의 수록문건은 왕옌웨이가 군기처의 당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건들을 취사선택한 것이나 이를 초고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기에 구성과 분량이 균일하지 않으며, 연도·순서가 순차에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또한 왕량이 이후 민국시기에 『청계외교사료』를 간행하면서 다시 문건을 편집한 것으로 인해 두 자료 간 수록상에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각 관원들의 상주와 헌책 등이 『청계외교사료』에서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또한 『광서이무시말』에는 대외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재정(財政)·광무(鑛務)·선정(船政) 등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거나 외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록하고 있지만 『청계외교사료』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반대로, 『광서이무시말』에는 군기처를 수발자로 한 문서의 건수가 『청계외교사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즉, 『청계외교사료』가 『광서이무시말』을 저본으로 삼고 있지만 수록하고 있는 문건과 그 유형을 보면 이 두 사료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서이무시말』의 광서연간에 해당하는 문건은 『청계외교사료』에 비해 분량이 많으나, 그 가운데 일부는 유실되거나 열람이 불가한 상태여서 이 사료를 활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를 모두 교차·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표기한 문건의 기간은 문건이 연속적으로 누락되어 있거나 해당 기간의 권이 소실되어 문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기간만 대략 구분하여 표기한 것이다. 중복되는 기간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청계외교사료』에서는 볼 수 없는 문건들을 실제 『광서이무시말』에 다수 수록하고 있다.

문서의 누락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고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3〉『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수록 문건과 기간 대조

『광서이무시말』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간	『청계외교사료』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간
광서 원년 11월~12월	(외교사료 4)
광서 2년 3월~4월(일부)	(외교사료 5)
(이무시말8[108000055])	**광서 2년 4월~5월**
광서 3년 8, 9, 10, 11월	(외교사료 11, 12)
광서 4년 전월	(외교사료 13, 14)
광서 5년 전월	(외교사료 15, 16, 17, 18)
광서 6년 전월	(외교사료 19, 20, 21, 22, 23, 24)
광서 7년 정월, 2, 3, 4, 5월	(외교사료 25)
(이무시말14[108000062])	**광서 7년 6, 7, 윤7, 10, 11, 12월**
광서 8년 4, 5, 7, 9, 10, 11, 12월	(외교사료 27, 28, 29, 30)
(이무시말16[108000064])	광서 8년 8월
광서 9년 2(일부), 3월	(외교사료 31, 32)
광서 9년 11월, 12월	(외교사료 37, 38)
광서 10년 윤5, 6, 9(전반)월	(외교사료 41, 42, 43, 44, 48)
(이무시말28[108000076])	**광서 10년 9(후반)월**
광서 11년 정월(후반), 2월	(외교사료 54, 55, 56)
(이무시말36[108000084])	**광서 11년 6, 7월**
광서 12년 정월, 2, 3, 9, 10, 11, 12월	(외교사료 63, 64, 65, 66, 69)
광서 13년 전월	(외교사료 71, 72, 73, 74)
(이무시말46[108000094])	**광서 15년 7, 8, 9, 10, 11, 12월**
광서 19년 4월 이후	(외교사료 89~103)
광서 20년 전월	
(이무시말57[108000105])	**광서 21년 10월(후반)**
광서 24년 윤3월	(외교사료 131)
(이무시말65, 67, 68[108000113, 115, 116])	**광서 24년 5, 7월**

* 出典: 괄호 안은 대비되는 사료에서 보충하여 참고할 수 있는 卷號를 뜻한다. 이 표는 대만 고궁박물원 문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광서이무시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대조하고 있는 『청계외교사료』는 『淸季外交史料』 卷1~5(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7)를 참고하였다. 자세한 문건의 제목과 수록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물원 문헌관 좡지파(莊吉發)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료들이 대만으로 이송될 당시 전란 등으로 인해 유실된 경우이다. 둘째, 왕옌웨이와 왕량이 대를 이어 자료를 편집·제작하면서 각 편집자의 편집 의도와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두 사료의 비교와 대조는 이 사료를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왕옌웨이는 각 관료들의 상주와 헌책에 관한 문건을 그대로 『광서이무시말』에 수록한 반면에 왕량이 이후에 편집한 『청계외교사료』에는 이러한 상주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청 조정 내부의 논의를 알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주문을 그대로 수록한 『광서이무시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왕옌웨이가 총리아문(總署)을 수발자로 한 문건을 위주로 편집하였다면 왕량은 여기에 군기처(樞垣)를 수발자로 하는 문건도 추가하였다.

Ⅳ. 한국 근대 외교사 연구에의 활용 방안

1. 청의 속국·속지 정책과 조선

이 장에서는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에서 당시 청의 속국과 그 정책의 논의에서 조선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청의 속국 및 변경 정책에 관한 논의 속에서 조선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청의 속국 정책의 수립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근대 한국의 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문건들은 광서 원년(1875)부터 광서 24년(1898)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다. 『청계외교사료』에는 광서연간의 후반과 선통연간의 자료(1904)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광서이무시말』에서 수록하고 있는 문건을 분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먼저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문건 중에서 속국(屬國) 및 속방(屬邦)으로 명기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서이무시말』의 문건에서는 미얀마,[39] 조선, 베트남(安南),[40] 유구[41] 등을 속국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속지(屬地)에는 서장[42]과 대만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우선 속국과 그 정책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언급한 사례는 광서 원년(1875) 12월 19일자 일본 측의 조회에서 최초로 볼 수 있다. 이 조회는 조일수호조규와 관련하여 청과 일본의 논쟁을 다루고 있으며,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그 땅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朝鮮雖中國屬邦其地不隸中國)"라는 언급에서 조선을 속국으로 명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광서 2년 정월 간에 있었던 조회는 일본 측 대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발신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조선은 속국이 아니며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하려는 청과 이를 부정하려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설정하려는 양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을 자국의 속국으로 인정하려는 청 조정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

---

39 王家壁 上奏, 『광서이무시말』[108000051], 광서 원년 6월 23일, 014~016쪽; 미얀마를 청의 속국으로 언급한 것은 『광서이무시말』에서 최초로 속국을 언급한 사례이다. 영국과 미얀마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40 베트남을 청의 속국으로 언급한 것은 『광서이무시말』의 광서 8년 3월 증기택의 上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上奏文에는 프랑스와 베트남의 분쟁과 관련하여, 증기택이 "中國保全屬國"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간섭을 제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광서이무시말』 광서9년 5월 17일자 이홍장의 上奏에는 베트남 사안의 중요성과 프랑스가 베트남을 자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의 속방임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다.

41 유구를 속국으로 지칭한 것은 『청계외교사료』의 광서 6년 9월 25일 혁흔의 上奏에서 보인다. 다만 유구의 경우에는 "名屬華, 實屬日"이라고 언급하면서 유구는 청의 속국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청 조정에서 당시 유구의 이중적인 지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광서 14년 정월 30일자 文碩의 上奏에는 영국과의 변경 문제를 다루면서 "西藏爲中國屬地"로 명기하여 이 지역의 영유와 통치를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중반의 기간 동안 이 서장 지역의 屬割을 두고 청과 영국, 러시아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 임오군란과 관련한 『광서이무시말』 광서 8년 8월 12일자 이홍장의 상주에는 "조선은 대청의 속국으로 대대로 번봉의 자리를 지켜왔다(朝鮮爲大淸屬國, 世守藩封)"고 표현하면서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언급하고 있다. 당시 임오군란으로 인해 조선과 그 주변 국가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홍장은 조선에서의 청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조선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듬해인 광서 9년 4월 초6일자 상주에서 저우더룬(周德潤)은 번봉(藩封) 정책에 대한 헌책을 올리면서 "중국에서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외국으로, 속국은 모두 만국공법을 필히 금지해야 한다(中國所爲屬國卽外國. 屬國皆萬國公法所必禁者也)"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청 관료의 시각에서 속국은 곧 청의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만국공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이 상주는 동시에 1883년 프랑스의 개입과 임오군란 등의 정황 속에서 청 조정과 관료들이 어떠한 태도로 속국과 만국공법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43]

이어지는 천치타이(陳啓泰)의 상주에서도 "중국이 번속을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中朝保護藩屬不能不動)"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여기서는 베트남과 조선 그리고 유구를 묶어 속방으로 언급하였다.[44] 특히 임오군란과 청불전쟁을 기점으로 조선과 베트남 등 주변국을 속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쉬샹(徐相), 천바오천(陳寶琛), 우따청(吳大澂) 등의 상주에서도 조선과 베트남을 속국으로 묶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위기를 경계하며 이들 속국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쉬상의 상주에는 임오군란 이후 조공제도의 허실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 속방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함을 주장하였다.[45]

---

43 周德潤 上奏, 『광서이무시말』[108000066], 광서 9년 9월 초6일, 020~031쪽.

44 陳啓泰 上奏, 『광서이무시말』[108000066], 광서 9년 9월 초9일, 038~044쪽.

45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건은 다음과 같다. 『광서이무시말』[108000067] 광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면, 속지에 관한 논의는 속국의 문제와는 달리 변경 자체의 문제와 좀 더 밀접한 관련 선상에 놓여 있었다. 광서 10년 4월 초8일자 상유에서는 베트남 경계 방비를 강화할 것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남 변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속지의 사분오열에 대한 위기를 강조하면서 속지가 없으면 국체를 보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광서 1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이미 청불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시기이므로 당시 청은 속국인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며, 앞서 같은 해 4월 초4일자 홍량핑(洪良品)의 상주에서는 200년간 베트남이 우리의 속국이었으므로 보호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서남 변경의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즉, 1880년대 들어 청은 잇따른 속방의 상실로 인해 속지와 변경이 위험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속지는 속방보다 본토의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변경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를 다시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 청의 대외 및 변방 정책은 속방(속국)-속지(변경)-본토의 영역을 정립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정책과 그 논의는 이 속방에 해당하는 논의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순망치한"과 "외번진삭(外藩盡削)"의 위기에 따라 청 조정에서는 베트남과 조선 그리고 대만과 같이 청의 '문호(門戶)'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이는 광서연간의 속국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선 관련 문건의 유형과 사안

우선 『광서이무시말』의 문건 가운데 조선이 언급되거나 주요 수발자로 조선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속방 및 변경에 관련된 사안 혹은 임오군란 및 갑오전쟁

9년 8월의 초10일자 陳啓泰의 上奏(089~097쪽); 8월 12일자 徐相의 上奏(098~104쪽); 8월 20일자 陳寶琛의 上奏(126~130쪽); 8월 20일자 張樹聲의 上奏(134~145쪽); 9월 20일자 倪文蔚의 上奏[108000068](068-071); 10월 초7일자 吳大澂의 上奏(137~140쪽)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같이 조선과 직접 연관된 사안의 경우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동북지역의 삼성(三省: 吉林, 奉天, 黑龍江) 및 동부 연안의 주요 거점(煙台, 登州, 萊州)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동북지문호(東北之門戶)'인 조선을 언급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베트남, 유구 등 속방들이 프랑스와 일본 등 국가에게 침입·병탄을 당했을 때, 변강 및 속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조선을 언급하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유구처분(琉球處分, 1872)과 목단사(牧丹社) 사건(1874) 이후 청이 점차 일본을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제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당시 함풍연간 이래 청 조정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론(海防論)과도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46] 청불전쟁 이후에 있었던 황티팡(黃體芳)의 상주에서도 조선의 위기가 곧 동북 성경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은 '동북의 문호'로서 본토와 속지의 보전과도 연관이 되는 국가로 본 것이다.[47] 속국(속방)과 속지에 대한 청 조정의 정책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조선에서의 주요 사건과 연관된 사례이다. 청은 1870년대 당시에도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이 속국인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1880년대에 들어 청은 조선에 대한 타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조선을 자국의 속방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간섭을 전개하였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을 기점으로 하여 청 내부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조선마저 속국의 반열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조선의 중요 지역에 각각 해관(海關) 개설을 지도하고 상민들을 관리할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등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문건 중에는 임오군란과 같은 사안에 대해

---

46 丁寶楨 上奏, 『광서이무시말』[108000053], 광서 원년 10월 초7일, 035~045쪽.
47 黃體芳 上奏, 『광서이무시말』[108000083], 광서 11년 5월 16일, 079~08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향후 조선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하여 소상히 알 수 있는 청 조정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김명규(金明圭)[48] 등 조선왕실의 측근 및 관료와의 대화 등을 담고 있는 대화록 등은 이 시기 조청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V. 맺음말

『청계외교사료』는 청 말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료이다. 『청계외교사료』는 『광서이무시말』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나 이 두 사료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각각 사료의 편집자인 왕옌웨이·왕량 부자의 편집 의도와 목적에 기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갑오전쟁·중일전쟁 등 전란(戰亂)과 여러 상황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청계외교사료』와는 달리 『광서이무시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 청 관원들의 헌책과 상주는 당시 대외정책과 내부정책이 긴밀한 인과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부연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러한 상주문은 당시 현안에 대한 청 조정의 내부 논의들과 청 관료들의 현실 인식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는 곧 대외정책의 수립과도 연관되며 조선, 베트남, 유구 등 청의 속방과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본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조선과 관련된 문건들은 이러한 청 조정 내부의 논의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광서연간에 조선에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전쟁 등 동아시아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 사안의 원인과

48 원문에는 金明春으로 오기되어 있다(照錄, 『광서이무시말』[108000095], 광서 15년 10월 26일, 042~053쪽). 『외교사료』에는 정정되어 있다(『외교사료』 82 1696~1699쪽). 이 밖에 勘界 관련한 문건에서도 조선 측 관료인 '李重夏'를 '李金夏'로 잘못 명기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과로 인한 영향은 주변국들의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된 문건들은 이러한 여파들을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가 된다.

참고로, 1960년대 『청계외교사료』 등 외교 사료의 출간에는 당시 미국과 동아시아의 학술교류라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만의 중앙연구원, 한국의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의 동양문고 등의 사료 정리와 학술에 미친 미국과의 관계는 현대 동아시아의 학술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자,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 및 정보 수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외교사 연구는 기간(旣刊)된 사료에 의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의존하고 있는 정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한된 연구범주와 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정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 『광서이무시말』이 미간(未刊)된 자료이지만, 이를 저본으로 공간(公刊)된 『청계외교사료』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광서중일교섭사료』에 비해 문건 자체의 분량이 적고 다양한 수발 주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광서이무시말』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들은 당시 청 조정의 중요 현안들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리고 『화안(華案)』·『영안(英案)』 등의 조선 측의 사료들과 비교·대조하여 취합한다면, 심도 있는 관점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계중일한관계사료』·『광서중일교섭사료』의 문건들과 비교해 보면, 향후 좀 더 상세한 대조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광서이무시말』의 문건은 조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국 및 조선에 관련한 사안과 관련한 청 조정 내부의 논의와 정책 결정의 배경을 파악하는 부분에 해당 문건들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청의 대외관계 및 속국과 관련한 정책 논의에 대조선(對朝鮮)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되짚어볼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郭廷以 等編, 1966,『四國新檔』,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文經 等 主編, 1964, 齊思和等 整理,『籌辦夷務始末·道光朝』, 北京: 中華書局.

王彦威 纂輯, 王亮 編, 王敬立 校, 1987,『清季外交史料』, 書目文獻出版社.

_____, 王敬立 校, 2015,『清季外交史料』, 湖南師範大學出版社.

王彦威 編, 臺灣 故宮博物院 文獻館 所藏,『光緒籌辦夷務始末』[108000049-117].

趙昫 編, 趙繼元等 補編, 1998,『逐翁自訂年譜』(『北京圖書館藏珍本年譜叢刊』 第155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66,『道光咸豐兩朝籌辦夷務始末補遺』,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단행본

권석봉, 1986,『淸末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김용구, 2002,『외교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원.

이용희 編, 1966,『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 外國編』, 국회도서관.

邱遠猷 等 主編, 1991,『中國近代官制詞典』, 北京圖書館出版社.

林滿紅 主編, 1995,『臺灣所藏中華民國經濟檔案』,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山腰敏寬 編, 2006,『中國歷史公文書讀解辭典』, 汲古書院.

蔣廷黻, 1965,『蔣廷黻選集』, 文星書店.

_____, 2017,『中國近代史論集: 蔣廷黻外交史著作選』, 新銳文創.

朱梅光, 2008,『近代中國外交史學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論文.

Rowe, David Nelson, 1960, *Index to Ch'ing Tai Ch'ou Pan I Wu Shih Mo.* Hamden, CT: Shoe String Press.

Schrecker, John E., 1971,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ism: Germany 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hantu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

국사편찬위원회, 2016,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중국·대만 자료 편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권석봉, 1967, 「중국 중앙연구원 소장 조선당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 『동양사학연구』 2.

정문상, 2012, 「냉전과 타이완 학계의 중국근대사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54, 중국근현대사학회.

_____, 2015, 「곽정이의 근대중국론과 대만의 문화냉전」, 『중국근현대사연구』 68, 중국근현대사학회.

_____, 2016, 「1955~1965년 타이완 역사학계의 풍경」, 『아시아문화연구』 42,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劉耿生, 1984, 「清代外交檔案史料匯編『籌辦夷務始末』簡述」, 『北京檔案』, 北京市檔案學會.

張志雲 等, 2013. 6, 「瞭解中西交往的關鍵史料-『籌辦夷務始末』的編纂與流布」, 『古今論衡』 24.

朱梅光, 2008, 「關於三朝『始末』保密情況深析」, 『甘肅社會科學』, 甘肅省社會科學院, 2008-1.

馮明珠, 1987, 「故宮博物院所藏「光緒朝籌辦夷務始末記」述介」, 『故宮學術季刊』 第五卷第二期(冬季號).

川島眞, 1997, 「臺灣における史料公開現況-外交部檔案資訊處·國防部史政局を中心に」, 『近代中國研究彙報』, 東洋文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緖籌辦夷務始末)』·『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의 해제(解題)와 조선 관련 문건

김봉준

현재 대만(臺灣)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 문헌관(文獻館)에서 소장 중인 『광서주판이무시말(光緖籌辦夷務始末)』은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의 원본이 되는 자료이다. 청 말 군기장경(軍機章京)을 지낸 왕옌웨이(王彦威)는 군기처 문서고에 있는 광서 연간의 중요 문건들 중 상유(上諭), 주접(奏摺), 정기(廷寄), 자문(咨文), 조약문(條約文), 조회(照會), 전보(電報) 등을 수집하여 『광서주판이무시말』을 편찬하였다. 『광서주판이무시말』은 광서 원년(1875)부터 광서 24년(1898)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외교·교섭사무 외에도 군사, 해관, 광무 등 당시 주요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는 중요 사료이다. 이후 아들인 왕량은 부친이 이룬 성과를 다시 편집하고, 1904년까지의 선통연간(宣統年間)의 문건과 참고자료를 추가하여 민국(民國) 23년(1934)에 『청계외교사료』를 간행하였다. 『청계외교사료』는 왕량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청 말의 대외관계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도광(道光)·동치(同治)·함풍(咸豐) 삼조(三朝)의 관방사료(官方史料)인 『주판이무시말(籌辦夷務始末)』은 이미 공개되고 여러 사료집에 인용되어 관련 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서연간의 대외관계 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청계외교사료』는 왕옌웨이·왕량 부자의 개인 편찬물이지만 수록된 문건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료에 대해 장팅푸(蔣廷黻)는 왕옌웨이가 군기처(樞省)의 장경을 역임한 바가 있지만 조정의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학술계와 정부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료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자료가 광서 연간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문건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는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 『광서이무시말』과 『청계외교사료』의 구성과 수록된 문건을 비교해보면, 두 자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료에는 19세기 말 조선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현실을 재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주제어: 광서주판이무시말, 조청관계, 외교문서, 왕옌웨이, 대외정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Bibliography of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and the Korean Related Documentation

Kim Bongjun

The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s current collection of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光緒籌辦夷務始末』) is the original source books of *Qing Ji Wai Jiao Shi Liao*(『淸季外交史料』). Wang Yan Wei(王彦威), a former official of the Office of Military and Political Affairs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he compiled the critical documents by collecting important documents in the government archives, which covers important foreign affairs from 1876 to 1898.

The government data,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has already been released to the public and cited in various source, which can be said to be highly utilized in related research fields. In addition,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which contains documents on external relations between *Qing Ji Wai Jiao Shi Liao*, is a personal compilation of Wang Yan Wei and Wang Liang(王亮), but is also used for related research in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documen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is data covers most of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reign of Gwang xu(光緖), but comparing the composition of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and *Qing Ji Wai Jiao Shi Liao* with the other document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istorical materials. In addition, this Historical material contains documents related to Joseon in the late 19th century, allowing us to reconsider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t modern time.

Keywords: Guang Xu Chou Ban Yi Wu Shi Mo, Korean-Sino Relation, Diplomatic Document, Wang Yan Wei, Foreign Polic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백시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I. 머리말
II. 아베 내각 결성 이전
III. 제1차 아베 내각
IV. 제2차 아베 내각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는 총리직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사임을 표명하였다.[1]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건강 악화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미비 및 경제 악화로 지지율이 떨어지자[2]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3]이라는 해석 또한 이뤄졌다. 일본 총리의 사임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일으켰다. 이른바 세계 3위 경제 규모의 최장기 총리가 사임한 데다가 차기 정권이 아베 정권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아베의 후임으로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한 스가 요시히데가 지목되었다. 그는 당대표 선거운동부터 아베노믹스 지속 등을 공략으로 내세우고[4]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아베 정권 계승이 자신의 사명이라 밝혔다.[5]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가 실각한 이후에도 일본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해가 필요하다.

---

* 투고: 2021년 1월 17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 발표」, 『BBC코리아』, 2020년 8월 28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943673(검색일: 2020. 11. 15.).

2 「世論調査「安倍首相いつまで?」回答者の45%が辞任求める」, 『毎日新聞』, 2020년 7월 24일, https://mainichi.jp/articles/20200724/k00/00m/040/117000c(검색일: 2020. 11. 15).

3 「安倍首相辞任表明 小田嶋隆さん, 荻原博子さん, プチ鹿島さんの話」, 『毎日新聞』, 2020년 8월 29일, https://mainichi.jp/articles/20200829/ddm/041/010/082000c(검색일: 2020년 11월 15일).

4 박명섭, 2020. 9. 3, 「日 차기 총리, 스가 요시히데 유력 …"아베노믹스 지속"」, 『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134454(검색일: 2021. 3. 2.).

5 首相官邸, 2020(令和 2年). 9. 16,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0/0916kaiken.html(검색일: 2021. 3.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베 신조는 제2차 내각을 결성한 이후 줄곧 전시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그는 2013년 9월 26일 유엔총회연설에서 분쟁과 전시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2014년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이행을 위해 215만 달러를 기부하여 상위 공여 국가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29일 "안보리결의안 제1325호 등의 수행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현재는 2차 행동계획을 실행 중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전시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과 달리, 문제의 역사적 뿌리[6]로 인식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이하 2015년 한일합의)」를 성사시킨 뒤 2016년 1월 유엔 기구에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제출했다.[7]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 역사수정주의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8] 즉, 아베 내각은 전시여성폭력문제는 긍정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부정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인다. 아베 내각의 모순된 입장은 왜 나타난 것인가. 또한 어떠한 과정에서 구성되었을까.

아베 내각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구는 크게 일본 정치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아베 내각을 분석하거나, 아베 내각의 관련 정책·입장을 분석한 연구로 나뉜다. 우선 아베 내각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남상구[9]는 전후 일본 정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언급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 해결에 대한 잘못된 전제들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

6 정진성, 2003,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한국여성학』, 19권 2호, 40쪽.

7 이수민·문재연, 2016. 2. 2,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논리는① 日 '軍 관여'는 강제연행과 다르다?」,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2000539(검색일: 2018. 5. 20.).

8 야마구치 도모미 외, 2017,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어문학사.

9 남상구, 2014,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은 1965년으로 당시에는 원호법의 굴레 안에서 다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역사수정주의가 더욱 팽창되었다. 이종국[10]은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 종전 60년(1995)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각총리대신담화(이하 아베 담화)'의 성격을 정리했다. 이종국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베 담화는 '피해자로서의 일본'이라는 상을 구성하고, 식민지 지배, 침략과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군사국가 일본'을 목표로서 주장한다고 설명한다. 이종국의 아베 담화 내용 정리에는 일리가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긍정하는 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와 부정의 아베 담화라는 이분적인 틀로서만 설명하여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훈[11]은 역대 일본 총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언설을 분석하여 아베 내각 이후 본격적인 부인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책 혹은 대응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고노담화 검증보고서, 2015년 한일합의 등 아베 정권의 직접적인 대응을 다룬 연구와 더불어,[12] 관련 정책을 통해 문제 부인의 양상을 조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모토야마 히사코[13]는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해 부진했던 반면, 제2차 아베 내각이 "친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정리한다. 제2차 아베 내각은 "여성이 빛나는 사회" 등의 정책을 통해 일본을 "여성의 결백한 지지자"로 이미지화한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아베 내각의

10 이종국, 2016,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의 "합의" 형성과 한계-주요"담화"를 소재로」,『한일군사문화연구』 21호.

11 이상훈, 2019,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정치적 언설의 영향」, 『日本研究』.

12 남상구, 2014, 앞의 글; 조윤수,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48호.

13 Hisako Motoyama, 2018, Formulating Japan's UNSCR 1325 national action plan and forgetting the "comfort women",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임 인정 및 조처를 요구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모토야마 히사코의 연구는 제1차, 제2차 아베 내각의 입장 변화의 요인과 정책 효과를 보인다는 면에서는 주요하다. 하지만 "친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져 이 외의 정책 및 대응에 대한 분석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아베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국회 회의록, 기자회견 자료 및 청서 등의 정책 자료이다. 우선 국회회의록을 통해 아베 내각 주요 인사들의 일본군'위안부' 및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국회 회의는 내각 및 의원 간의 질의로 구성되기에 주요 인사의 발언뿐 아니라 질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기자회견 및 정부 정책 자료는 주로 일본 내각 홈페이지 "총리관저"와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며, 정부 정책 자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안을 포함하여 일본 외무성의 청서자료, 연간 계획 및 평가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아베 정권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탈진실(Post-truth)[14] 현상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탈진실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나 미국 대선을 계기로 주요하게 사용된 용어로 제인 수이터(J. Suiter)는 사실에 기반한 반박이나 팩트체크는 단순한 주장이라는 근거로 무시되는 동시에 감정에 대한 호소가 여론을 지배한다고 설명한다.[15] 여기서 진실 혹은 사실은 단순 반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보다 탈진실은 특정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실이 퇴색되는 현상이다. 탈진실은 불가변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탈진실은 가정을 검증하는 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종속'되어 의혹을 제기하고 잘못된 정보가 고의적으로 유포되어 특정 집단이나 이데올로기가 옹호된다.[16] 일본군'위안

14 탈진실의 원어는 Post-truth로 "진실 이후" 혹은 포스트트루스로 번역된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문들은 탈진실로 표현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도 탈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5 J. Suiter, 2016, "*Post-truth Politics*", *Political Insight*, 7(3), p. 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문제와 탈진실 사태에 대한 연구 또한 진척되고 있는데, 김부자[17]는 일본 학계에서 증언을 탈맥락화하거나 식민지모순을 비가시화시켜 평화비의 의미를 왜곡하고, 일본 언론 등이 혐한론과 함께 평화비를 비난하는 점을 들어 탈진실의 정치학이라 정리했다. 강성현[18]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게 된 배경을 한일 우파 역사수정주의의 연대로 설명하면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요 주장과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그리고 주장들이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과정을 탈진실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밝힌다.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참조하여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탈진실 현상을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 일본 정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부정론이 확산되는 과정과 아베 신조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는 과정(Ⅱ장), 이후 1차 아베 내각(Ⅲ장)과 제2, 3, 4차 아베 내각의 주요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Ⅳ장).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모순적 발언이 구성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항 담론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Ⅱ. 아베 내각 결성 이전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아베 신조가 등장한 배경

1993년 아베 신조가 정치를 시작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제국의 전쟁책임, 식민지 지배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창 시작되고 있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로서 최초로

16 리 매킨타이어, 2019, 『포스트트루스』, 두리반, 전자책 인용, http://www.yes24.com/Product/goods/78234458.

17 김부자, 2017,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33(3).

18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개 증언하고, 1992년 6월 도쿄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이 여러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었다. 다카하시 데쓰야가 당시 김학순의 커밍아웃을 '(역사인식논쟁이 일어나는)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 레벨의 담론이 등장했다'고 설명할 정도였다.[19] 김학순이 일본 법정에서 증언하고 2개월 뒤, 1992년 8월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고, 1993년 필리핀의 피해자 18명, 재일조선인 송신도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더욱 확산되었다.[20]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전쟁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규합하기 시작했다. 1993년 8월 4일 고노담화가 발표되고 1주일 뒤 당시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토는 "나 자신에게는 침략전쟁이었다, 문제적인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21] 호소카와 개인 자격으로 침략전쟁을 인정한 발언이었지만 일본 정치사상 최초로 총리가 전쟁 책임을 인정한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 우익들은 "일본은 침략 국가가 아님을 알리는 국민집회"를 개최했고, 자민당은 1993년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에는 당시 중의원 의원 10명을 비롯하여 아베 신조, 제4차 아베 내각에서 내각특명담당대신을 맡은 에토 세이이치, 2015년 한일합의를 성사시킨 기시다 후미오 등이 포함되었다. 역사검토위원회는 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해 '침략'에 대한 대응을 탐구하면서 일제의 책임성을 무마하는 논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 발표에 맞춰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大東亞戰爭の總

19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임성모 옮김, 2009,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20쪽.

20 일본 국회에서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다음 해 1991년에는 12회가량 논의가 되었지만 1992년에는 64회 발언이 이루어졌다.

21 俵義文, 2013, 「安倍首相の歷史認識の來歷をさぐる」, 『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 かもがわ出版, 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括)』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일방적인 일본을 단죄하고 자학적 역사인식을 강요하기까지 다다른 것은 범죄적 행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일본인 자신의 역사인식을 되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2]

다음 해 1996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면서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하는 등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자유주의사관연구회'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스는 1996년 10월 문부대신에게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고 보수잡지 『보이스(*Voice*)』에도 서신을 보냈다.[23] 1996년 12월 후지오카의 의견에 동조한 지식인, 문화인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설립하였고, 『제군』, 『정론』 등 보수 잡지들의 공격 또한 이어졌다. 그리고 과거 역사검토위원회에 속하였던 젊은 의원들이 모여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하 젊은의원모임)을 발족했다.[24] 아소 내각에서 재무상을 맡았던 나카가와 쇼이치가 회장을 맡고 에토 세이이치는 간사장을, 아베 신조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젊은의원모임의 멤버들은 연구회를 개최하면서 난징 대학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논지를 정리했다.

이 속에서 아베 신조는 두각을 나타냈다.[25]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 상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를 왜곡하는 발언을 과감없이 펼쳤다. 그는 4차 세미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째서 성폭력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치한사건을 병렬시킬 수 없고, '위안부' 문제를 통해 성폭력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억지라 주장

22 板垣正, 1995, 「あとがき」, 歷史·檢討委員會 編集, 『大東亞戰爭の總括』, 展轉社, 445쪽.

23 함동주, 2003,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 인식」, 『일본역사연구』 17권 1호, 34쪽.

24 니시노 루미코, 2005, 「일본에 있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과 싸움」,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53쪽.

25 横田 一, 2007, 「安倍總理の「原点回歸」-「慰安婦」の强制性をめぐって」, 『世界』 765號, 72~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26] 즉,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를 성매매로 전제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했다. 이후 그는 고노 관방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고노 요헤이가 고노 담화 탄생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 아베 신조는 '조사의 중요성', 강제동원 증명 여부에 주목했다. 이들은 아홉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다른 보수 정치인들에게 역사수정주의적 의식을 전파시키고, 국회에서 강하게 발언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1993년 중견 보수 정치인들이 뿌린 씨가 또 다른 역사수정주의자를 재생산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 문제에 보다 예민하게 대처하면서 발언의 장을 국회로 확대했다.

2. 총리 취임 전 아베 신조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아베 신조는 연구회에서 습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에서도 강한 비난을 일삼았다.[27] 가령, 아베 신조는 1997년 5월 27일 국회 결산위원회에서 강제동원을 증명할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일본군'위안부'교과서 검증에 강하게 반발한다.

> 아베 신조: 일명 종군위안부라는 것, 이 강제라는 측면이 없으면 특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강제성을 검증하는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열여섯 명의 전위안부들의 증언입니다만, 이는 역시 저희 공부회에서 이시하라 전 부장관이 강사로 와 증언하셨습니다만, 이미 이 열여섯 명에게 청취를 할 때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는 실제 이야기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백히 이는

26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 1997, 『歴史教科書への疑問』,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 216쪽.

27 당시 논의 내용은 『역사교과서에의 의문(歴史教科書への疑問)』(1997)으로 출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교적 배려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되어서, 관방장관담화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 책으로 내, 이 내용이 이미 엉망이란 것을 종군위안부의 기술을 해야 한다는 주오대학의 요시미 교수도 이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책이나 증언, TV에서도 그는 증언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라 쿠마라스와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근거는 이 요시다 세이지라는 인물의 책이나 증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이미 부서져 있음에도 관방장관담화가 태어나고 교과서에 기술이 실리게 되었다. 이는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이 사람(조사 당시 증언한 16명의 증언자)들은 이름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진위를 밝히지 않았다. 왜 진위를 밝히지 않았는지 부장관(이시하라 노부오)에게 질문했지만, 이미 그런 것이었다, 도저히 추가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열여섯 명 중에는 아마도 한국 측이 조사했던, 한국 측이 보상을 하니 그중에서 대충 된다고 결정한 사람도 몇 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측조차 이 사람의 발언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 말하면서 뺀 사람 중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 그 사람들 본인은 경우에 따라 중간 업자 등에 속아 강제당한 것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꼭 거짓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검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합니다.[28]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검증을 반대한다. 여기서 강제동원을 밝힐 수 있는 요소는 1) 공문서 2) 증언이다.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밝히는 공문

28 『참의원 결산위원회제2분과회』, 1996. 5.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의 존재는 입증된 바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해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베에게 공문서는 그 자체로 사실을 담보하는 객관적 존재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군'위안부'책임을 구획하는 범위를 강제동원 여부에 한정한다. 여기서 강제동원이란 "중간 업자 등에 속아 강제당한 것"이 아닌, 오로지 관헌의 힘으로만 일어난 일이다. 즉, 관과 민간의 철저한 이분 구조를 제시하면서 관 이외의 대상이 조금이라도 관여한 경우 일본 제국의 책임은 면피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특기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에 의한 성매매로 치환되고, 일본 제국이 위안소를 관리 및 운영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초점이 흐려진다. 민간 책임이 강조되다 보면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처럼 표상된다. 고노 담화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하기보다 '외교적 배려'이자 한일 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대로 아베 신조는 증언에 대해 위증, 거짓을 전제한다. 단, 국회라는 공적 자리에서 위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경우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문자적 부인을 적극 사용한다. 코언에 따르면 문자적 부인은 국가가 과거에 제시되거나 기록된 것 이상은 부인하고, 증언자 혹은 관찰자의 신뢰성, 객관성, 신용도를 공격하는 행위로,[29] 사실 자체, 또는 사실에 관한 지식 자체가 부인된다.[30] 아베 신조는 요시다 세이지에 대해서는 강제동원에 대한 증언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꾼'이라 비난한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사실을 증언한 당사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증언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증언자들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위안부'증언은 신뢰성 유무로만

29 스탠리 코언 지음, 조효제 옮김,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창비, 238쪽.
30 스탠리 코언 지음, 조효제 옮김, 2009, 위의 책, 5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1990년대 초기 일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증언 조사가 착수되었다. 이때부터 증언은 "살아 있는 자료"로 읽히며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았고, 증언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트라우마 경험과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31] 그리고 증언을 통해 위안소를 둘러싼 폭력의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기존 실증주의적 역사학계와 일본정부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을 구성하고, 언어화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가시화했다.[32] 하지만 아베 신조를 비롯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위안부'증언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검토 여부만 물어, 여성 고유의 경험의 맥락은 삭제되고 축소되어버린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논의의 장에서 아예 삭제된다.

2006년 아베 신조는 총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일본군'위안부'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노 담화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리고 2006년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부인 담론이 국회라는 공적 장에서 본격적으로 구성되었다.

Ⅲ. 제1차 아베 내각

1. 광의와 협의라는 틀로 이루어진 부인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대해 강하게 발언하면서 '싸우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나갔다.[33] 아베 신조의

31 김수진, 2013,「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여성학논집』30권 1호, 40~43쪽.

32 이나영, 2016,「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한국사회학』50권 5호, 28쪽.

33 박용채, 2006. 6. 19,「굳어지는 아베 대세론」,『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191800341&code=97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매파적 성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고이즈미가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게 아베를 내각관방장관으로 추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아베 신조의 납치사건에 대한 발언은 일본 사회 내 단단한 지지층을 만들어내고 자민당 대표로 지목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2002년 8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표하자, 내각관방 부장관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에게 납치 사실 인정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지율 50%를 유지하였고[34] 2006년 9월 총리로 지목되었다. 그는 역대 최연소, 첫 전후세대 태생 총리라는 타이틀로 제1차 내각을 시작했다.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자 일본 신임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질문이 줄지어 이어졌다. 아베 신조가 자민당 당대표 선거에서 고노 담화 재검토 의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5일 민주당 간 나오키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베 신조는 강제성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 간 나오키(민주당): (아베 총리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는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 이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현재의 내각·정부는 이러한 생각(고노 담화)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인가요?
>
> ○ 아베 신조(자유민주당):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관방장관 담화가 나오게 된 의미, 의의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라 불리는 것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03(검색일: 2021. 1. 15.).

34 이재준, 2006. 9. 14, 「일본 차기총리 아베 지지 54% … 요미우리 여론조사」,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179264(검색일: 2021. 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협의(狹義)상의 강제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협의의 강제성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에서 강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의 강제성의 결과로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이라는 것 중에 다양한 강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직접적인 강제가 아니라도 광의의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에 실제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논의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협의의 강제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후, 말하자면 광의의 강제성으로 논의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날 아베 신조는 협의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넣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질문자 공산당 시이 가즈오 의원이 고노 담화에서 언급하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되묻자, 아베 신조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 아베 신조(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과 광의의 강제성이 있었던 거죠. 즉, 집에 쳐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위안부가) 되었던 점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광의의 강제성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표 1〉 광의의 강제성과 협의의 강제성의 이분 구조

질문	강제의 종류	내용	강제의 주체	선택 요인		주체 표상
무엇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는가?	광의의 강제성	환경의 제약에 따른 본인의 선택	사회적 환경, 맥락	자율	➡	창녀
	협의의 강제성	납치, 약취	일본 정부 혹은 일본군	강제		일반 여성 (처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강제성을 협의와 광의로 이분하고, 협의의 강제성을 납치와 약취에 의한 강제로, 광의의 강제성을 환경적 요인 혹은 사회적 제약에 따른 피해라 설명한다. 이 중 납치·약취는 실질적 증거가 없기에 협의의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베 신조의 주된 논리이다.

아베 신조가 제시한 강제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는 틀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협의와 광의의 강제라는 틀은 ① 동원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리되어 ② 개인의 선택 유무에 따라 일본 제국의 책임 유무 혹은 피해 가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속에서 개인이 주된 행위자로 조명되고, 일본군'위안부'는 '위안부' 이전에 어떠한 여성이었는가, 즉 본인이 선택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주된 질문 거리로 남는다. 그리고 아베 신조가 제시하는 협의와 광의의 틀 안에서는 두 가지 모습의 '위안부'만 존재한다. 납치 혹은 약취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위안부'가 되기를 선택한 여성 그 둘뿐이다.

아베 신조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광의와 협의로 분류하고 실증하려는 시도는 해석적 부인의 법형식주의와 맞닿아 있다. 법형식주의는 법률적 관행들을 이용하여 인권 침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법을 최소한으로 해석하여 사건 부합 여부를 따진다. 한 단계 올라가 마술적 법형식주의를 통해 국가는 불법을 규정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 전제한다.[35] 이처럼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피해를 강제동원 여부라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문서라는 형식만 인정한다.

하지만 요시미 요시아키가 지적했듯, 협의에 의한 강제 동원과 관련한 증거들은 이미 존재하며 공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스마랑 사건에서는 약취, 강요가 확인되었고, 산시성 사건의 경우 일본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36] 더군

35 스탠리 코언, 2009, 앞의 책, 243~245쪽.

36 요시미 요시아키 외, 2014, 「고노 담화, 그 의의와 문제점」,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33~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나 당사자의 선택이 전제되어 공창제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피해의 구조는 여전히 지속된다. 일본 제국은 자발성이라는 기제를 이용하여 공창제를 구축하고 여성을 도구화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에게 예창기 소개업공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성매매가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행위라 반박하며 인신매매가 아니라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공창제에서 폐업의 자유는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했으며, '그들이 강요받았던 빚에 얽매인 성매매 생활, 그것을 공인한 공창제도는 1930년대 이미 금지해야 하는 제도로 여겨졌다'.[37]

더군다나 박정애(2019)가 지적했듯 역사적 상상력이 빈곤한 현 상황에서는 위안소와 공창 간 관계는 쉽게 논의될 수 없다. 공창제는 일본 제국의 부국강병과 성병 예방을 위한 국가 관리 성매매시스템으로,[38] 일본 정부는 성매매를 창기, 예기, 작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용인하고 관리했다. 일본 정부는 공창제 이용에 따른 요금 및 시간 등을 정했는데, 공창제의 규정은 위안소 규정과 유사했다. 이런 연유로 일본군 중 위안소를 공창제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위안소와 공창을 분리하였던 사실, 혹은 총동원체제에서 '위안처' 기능 여부를 판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공창제도와 위안소제도 간 혼종이 있었다 하여 이 둘을 가볍게 동일시할 수는 없다.[39]

따라서 공창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위안소 제도에 대한 관점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매춘, 공창제, 성노예 간의 차이, 공통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덧붙여 송연옥(2017)은 일본군'위안부'와 공창제를 분리하는 재현들은 '우익들의 위안부 공격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강력한 논파를 하기 위해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와는 다르다고 주

37 오노자와 아카네, 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공창제도」,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80쪽.

38 박정애, 2019,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페미니즘연구』 19권 2호, 62쪽.

39 박정애, 2019, 위의 글, 64~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40] 따라서 ① 공창제와 위안소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과 ②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규정짓는 틀은 보다 섬세해져야 한다. 하지만 강제의 요인을 '환경'으로 설명하면, 일본 제국이 구축한 폭력의 구조와 이 속에 내제하는 제2차, 제3차의 폭력은 탈정치화·비가시화된다. 즉, 여성이 전쟁을 위해서는 강간당해도 괜찮다는 인식, 여성의 선택권이 일부라도 주어지는 듯 보이면 강간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합리화·제도화했던 일본 제국의 역할은 '환경'과 '맥락'이라는 틀 속에서 가려진다. 그리고 여성이 조금이라도 '선택'을 한 경우, 일본군'위안부'는 공창제로서, 혹은 창녀로서 읽혀진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군과 관에 의하지 않은 '업자'라는 존재를 강조하면서 일본 제국이 일본군 위안소를 관리·경영했던 '사실'은 소거한다. 그리고 광의의 강제성의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 광의의 강제성을 구축한 주체가 일본 제국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 또한 없다. 이 지점에서 일본 제국의 위치 자체가 사라지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또한 삭제되어 버린다.

2. 직접적인 부인에 대한 반향

아베 내각은 2007년 3월 16일 「쓰지모토 기요미군 제출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인식에 관한 질문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고노 담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틀을 구성했다. 각의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고노 담화는 계승하지만, 1992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관계 자료조사 및 관련자 증언청취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위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고 결정했

40 송연옥, 2017,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41] 그리고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7년 각의 결정을 참고하라고 반복하여 대답한다. 이렇게 아베 내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이 '협의의 강제성'이 아닌 '광의의 강제성'에 의한 일이라고 내각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화했다.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의 제도화 노력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은 그간의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성과[42]를 이루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2000년 국제전범여성법정 이후로 운동의 방향이 국제사회로 확대되어갔고, 2007년 즈음부터는 각국의 결의안을 통과되기 시작했다. 즉, UN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토대로 국제사회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국의 결의안 통과 운동 등을 벌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여성문제, 전시여성폭력문제로 알리려 노력했다. 정대협의 경우 미국, 독일 등지에서 국제 증언집회를 개최하거나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했다.[43] 이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뭇매를 맞는 '실패'를 경험했다.

2007년 1월 31일 혼다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기습 상정하고, 운동사회는 2월 네덜란드계 피해자 얀 오헤른과 한국의 김군자, 이용수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ABC방송,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문회를 보도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더욱 널리 알려졌다.[44] 하지만 아베 신조는 당해 3월 참의원에서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언하며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사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41 일본 외무성, 2007. 3. 16, 「衆議院議員辻元清美君提出安倍首相の「慰安婦」問題への認識に關する質問に對する答弁書」,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24_000308.html(검색일: 2018. 5. 13.).

42 당시 일본 각지 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해결 결의안이 통과되는 시기였다는 것도 언급한다.

43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4 김동찬, 2014, 「'미 국회 결의안 121'을 위한 운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국언론은 아베 신조의 발언을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하여 시민사회 운동은 탄력을 입고 워싱턴 포스트에 직접 사설을 개제하기도 했다.

미국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위기를 느낀 아베 총리는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4월 워싱턴에 방문하여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머리를 조아렸다.[45] 이후 일본 우익들의 비난 광고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각 지역에서 활발히 문제를 알리며 지지 의원 수를 늘려갔고,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해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21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크게 회자되고 이후 다른 나라의 결의안 통과 운동에 조력을 얻는다. 11월 28일 캐나다 연방의회, 12월 13일 유럽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대응이 도리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일본공산당 오가타 야스오는 2007년 6월 28일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인정을 애매하게 표명하니 도리어 하원의원에서 결의서가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46] 아베 내각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고배'를 들던 와중, 2007년 말 아베 총리는 내각 비리 스캔들과 테러대책특별조치 연장법을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건강 악화'라는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했다.

2006년에서 2007년 아베 신조가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 아베 내각은 광의와 협의의 강제성이라는 틀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시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미국, EU, 네덜란드뿐 아니라 일본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즉,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면적

---

45 신경렬, 2007. 4. 28,「아베, "위안부에 연민"어정쩡한 사과」,『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49593&plink=OLDURL (검색일: 2021. 1. 15.).

46 『참의원 북한납치등에 의한 특별위원회』, 2007. 6. 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 부인행위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제1차 아베 내각의 과오는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일종의 '후퇴'이자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5년 뒤 아베 내각이 다시 들어서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Ⅳ. 제2차 아베 내각

1. 학술이란 명목하 책임 부정

1) 정치와 학문의 이분화, 책임으로부터 분리

아베 신조는 사퇴 이후 '창생『일본』'의 회장을 맡으며 '진보수'를 자칭하고 지지기반을 늘려나갔다. 2012년 자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고노담화 재검토와 새로운 담화 발표를 공약으로 삼았다.[47] 하지만 제2차 아베 내각이 설립된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1차 아베 내각과 같은 강경한 방식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동정"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최소화하겠다고 되풀이한다.

2013년 2월 7일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은 아베 신조가 당선 이전 고노 담화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담화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앞선 주장과 현 아베 내각의 "고노 담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되지 않는지 질문했다. 아베 신조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위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정치 차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20세기는 많은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었던 시대로 21세기는 여성인권을 지킬 수 있는 시대로 만들고

47 나카노 고이치, 2016,『우경화하는 일본정치』,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145~1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48] 아베 내각이 책임 인정과 고노 담화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 애매한 자세를 취하자, 사회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는 2013년 5월 15일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계승 여부를 물었다.

○ 후쿠시마 미즈호: (무라야마 담화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이 문구를 변경하는지, 이건 중요합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총리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위안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제대로 계속되는 건지, 문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아베 신조 지금까지 관방장관도 답변했습니다만, 아베 내각으로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동시에 이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아베 내각의 입장입니다.

○ 후쿠시마 미즈호: 총리 발언은 이 위원회에서도 꽤 바뀌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왜 이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역시 상당히, 이걸(무라야마 담화를) 바꾸진 않을까라는 불안을 안겨주네요. …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이건 답습하십니까.

…

○ 스가 요시히데: (고노 담화에 대해)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아베 내각 또한 역대내각과 같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이 문제를 정치문제화·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회 아베 내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의결정된 경위에 입각하여 내외 역사학자, 지식인의 손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학술적 관점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답변드립니다.[49]

후쿠시마의 일본제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

48 『중의원 예산위원회』, 2013. 2. 7.
49 『참의원 예산위원회』, 2013. 5.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정을 묻는 질문에 아베 내각은 일관되게 정치문제화하는 대신 역사가나 지식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6월 12일 공산당 다무라 도모코와의 질의에서도 반복된다. 다무라 의원이 2014년 6월 2일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의향을 물었다. 해당 자료들은 고노 담화 발표 이후 발굴된 자료 529건을 묶은 것으로 이 중에는 야전주보규정개정 등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아베 신조는 고노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하는 주장에 "말하자면 얼마나 이게 확실한 자료인지는 분석을 포함해서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지 않을까"라 답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50]

제2차 아베 내각이 시작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자, 아베 내각은 비판담론을 포섭하기 위해 담론의 장을 정치영역과 학술 영역으로 이분화한다. 여기서 학술영역은 논증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초당적인 반면, 정치영역은 주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당파적인 양 표상된다. 즉, 새로운 가설 등은 초당적인 학술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신조의 주장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또한 학술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정치적 장에서는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치부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답변할 의무, 즉, 정치적 책임을 소거시키며 일본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입장과 관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발언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아베 내각은 논의를 단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무관한 존재로 표상하기 시작했다. 즉, 아베 제1정권 당시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정치화·외교문제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51]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또한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셈이다.[52] 대

50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2014. 6. 12.

51 『중의원 예산위원회』, 2006. 6. 12. 및 2006. 10. 5~11.

52 사실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인식은 2014년 2월 28일 국회에서 야마다 히로시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마다는 '일본군'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야 한다'고 가차없이 발언하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 대외홍보비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공표하고, 분쟁하 성폭력방지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로비를 진행한다.

하지만 2013년 6월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의 망언 사태를 필두로, 2013년 7월 30일 미국 글렌데일시에 평화비가 건립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더욱 확산되었다.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53]을 느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해나갔다. 2013년 11월 21일 일본유신의회는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歷史問題檢證プロジェクト·チーム)'을 결성하고 12월 '고노 담화 증언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54]

2) 고노 담화 검증의 의미: 비정치적 행위로 표상하기 위한 '학술'

앞서 언급했듯 아베 신조는 고노 담화 재검토를 자민당 대표 공약으로 삼았고, 일본 보수진영은 아베 신조의 총리 지정과 함께 일본 보수진영의 고노 담화 재검토에 대해 요구하기 시작했다. 『산케이 신문』은 2013년 10월 16일 고노 담화 작성 당시 한국 정부가 제출한 16명의 증언자에 대한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언집에 증언자들의 생년월일, 출신지가 기록되지 않거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증언의 뒷받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

만, 다른 의원들은 야마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별달리 비판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부장관 또한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답할 뿐이다. 하지만 성노예설에 관해서는 아베 내각의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베 내각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매춘부'라 직접적으로 언어화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매춘론을 지지한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53 河添惠子 · 杉田水脈, 2016, 『「歷史戰」はオンナの闘い』, PHP研究所.

54 「河野談話の撤回要求へ維新, 年明け署名 参考人招致も」, 『産經新聞』, 2013년 12월 28일,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31228/plt1312280006-n1.html(검색일: 2020. 10.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서 고노 담화와 '위안부' 증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55] 이 와중에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2014년 2월 20일 고노 담화 작성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이시하라 노부오를 국회에 초청한다.[56] 일본유신의회 야마다 히로시가 이시하라에게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묻자 이시하라는 '한국 정부와 조정 과정이 있었다'고 밝힌다. 또한 증언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열여섯 명의 증언을 일본 측 담당관이 듣고 이것을 기록해서 돌아왔습니다만, 이 이후 증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裏づけ)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1997년 아베 신조가 제기했던 의혹이 당시 관방부장관의 입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더 제기되면서 고노 담화 재검토에 대한 주장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4년 2월 24일 『산케이신문』과 FNN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고노 담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하였으며, 23.8%는 재검증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57]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이 설문 결과를 여러 번 인용하면서 고노담화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결과 2월 28일 기시다 국무대신은 국회 질의에서 고노 담화가 "한국 측을 배려하는 중에 이 담화가 작성"되었으며, "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따라 일한관계라 말하는 것은 좋아진 것"이라 설명하면서 고노 담화 검증팀을 발족했다.[58] 검증팀 발족과 함께 일본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고노 담화 검증팀 발족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59] 미국 정부는 이전 일본 정권에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

---

55 후루하시 아야, 2017,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한국여성학』 33권 1호, 280쪽.

56 村上智博, 2014. 2. 20, 「維新, 慰安婦問題の對應强化へ」, 『産經新聞』, sankei.com/politics/news/140220/plt1402200005-n1.html(검색일: 2020. 10. 18.).

57 「「河野談話」見直し6割が贊成 産經・FNN合同世論調査 集團的自衛權の行使容認47%」, 『産經新聞』, 2014년 2월 24일,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40224/plt1402240019-n1.html(검색일: 2021. 1. 7.).

58 『참의원 내각위원회』, 2014. 3. 13.

59 외교부, 2014. 2. 28,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주려 하는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굳건한 관계를 만드는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60] 고노 담화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자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는 여전히 계승하며 검증팀은 재검토(見直し) 대신 검증(檢討·檢討) 한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재검토와 검증 간 차이에 대해 질문하고 아베 내각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오노 지로: 고노 담화 제정 과정에 대해 정부가 새삼 검증한다고 되풀이하면서, 동시에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단언은 내외부 누가 보아도 알기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다시 한번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시다 후미오: 지적하신 고노 담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누차 관방장관 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차 아베 내각 시대의 각의 결정된 답변서 등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이시하라 전 관방부장관이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에 한국 측과 의견을 맞추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고노 담화 발표로 일단 매듭지어졌던 일한 간의 과거 문제가 최근 다시 한국 정부로부터 제기당하는 상황을 보고, 동시에 일본 정부의 선의가 살아나지 않은 게 정말 아쉽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거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 작성 경위에서 한국 측과 의견을 맞추었다는 가능성이 대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관점에서 당시 실태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 정부 안에 극비 검토팀을 만들고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 조작(取扱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한편 전 위안부로부터 증언청취조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가로서 기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9501(검색일: 2021. 1. 7.).

60 미국 국무부, 2014. 3. 10, “Daily Press Briefing”, https://2009-2017.state.gov/r/pa/prs/dpb/2014/03/223197.htm(검색일: 2021. 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베 내각은 검증보고서팀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른 '의문'은 여전히 학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학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무시한다. 즉, 아베 정권은 정보를 선별하고 일부 의혹만 수용하면서 고노 담화 재검증을 시도한다.

게다가 고노담화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모든 학술적 행위가 비정치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 전제한다. 하지만 고노 담화를 검증하는 행위, 혹은 검증을 위해 대상과 방법, 위원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다. 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자는 사회적 구성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구, 조사물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61] 역으로 연구물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인식론 및 방법론이 연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고노 담화 검토와 관련해 검토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증의 내용과 방식은 물론 검토가 고노 담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될 수 없었다.

2014년 6월 20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예산위원회에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는 우선 고노 담화 계승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노 담화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의 일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였다는 것이 이 검증으로 나타났다"고 답하며 고노 담화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한일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양 발언했다.[62] 하지만 고노 담화 검증 대상은 1990년대 전반부터 국민기

61 Sharlene Nagy Hesse-Biber, Patricia Leavy, and Michelle L. Yaiser, 2004, "Feminist Approaches to Research as a Process Reconceptualizing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Method",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62 일본 외무성, 2014. 6. 24, 「岸田外務大臣會見記錄」,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095.html#topic4(검색일: 2021. 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금 해산까지의 기간 동안 한일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국민기금 사업의 경위로 한정되어,[63] 고노 담화 내용과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고노 담화에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나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존의 고노 담화 재검토파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시하라가 발언했던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문안 조정 사실이 있다는 점만 밝혔을 뿐, 조정의 결과 등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64] 즉,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주장하던 사실은 허위로 나타나거나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특히 고노 담화 내용은 틀리지 않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였다고 간단하게 발언할 뿐이다. 대신 고노 담화와 관련해서는 굳이 한일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덧붙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와 합치하는 지점만 강조한다. 즉, 아베 정권은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해서 강조한다. 고노 담화에 대한 맥락이 소거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인정한 논의는 부정 담론 속으로 포섭되어버린다.

아베 내각은 제2차 내각 초기 학술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 원칙은 실상 편파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질문에 선별적으로 응답하고 논증이란 방식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을 공고히 다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학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지만, 고노 담화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단행했다. 그리고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여 고노 담화 자체가 정치적 결탁인 양 표상했다. 일본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인용한 결과, 고노 담화의 부인을 주도한 세력은 '학술'이라는

63 河野談話作成過程等に關する檢討チーム, 2014,『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經緯』, 2쪽.

64 남상구, 2014,「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일관계사연구』, 460~46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듯한 존재로 대체되고, 고노 담화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였다는 이미지만 남겨졌다. 고노 담화 검증이 끝나고 아사히 신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거짓이었다는 분위기가 횡횡하고 아베 내각은 일본 국내에서 과거 일본 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시도한다. 이는 크게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리더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2. 탈진실의 정치

1) 관용-도덕적 주체로서 일본 정부

2012년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일관계는 급히 경색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은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이유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65] 이에 우익 정치인들은 아베 내각이 한일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요구했다. 5월 13일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즈나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북에 대한 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시다는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에 맞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노력'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소연했다.

> ○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 혹은 한국에 있는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요구(를 보자면), 예를 들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혹은 한국의 위안부였던 분들의 요구에는 다양한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구체적인 요구는 명확하지 않

65 김외현, 2014. 8. 13,「20개월 동안 양자회담 외면 … 끝 안 보이는 한-일 갈등」,『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51096.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로서 우선 한국에 일본 측의 입장과 지금까지 일본이 어떤 노력을 지속해왔는지, 이를 제대로 받아주기를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국 측에서도 이것들을 제대로 받아주시고, 중층적이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세우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66]

기시다는 아베 내각이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한국 측이 노력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또한 이미 샌프란시스코협정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없음에도 '정부는 이미 고령이 된 전 위안부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위해' 국민기금을 개설했다고 설명한다.[67] 하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협정에선 중국, 대만, 한반도 조선이 제외되었고, 배상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68]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며, 개인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69]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 즉 배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는 1990년대 초반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수요시위의 요구사항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특히 2000년 법정 판결을 필두로[70] 2014년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66 『중의원 외무위원회』, 2014. 5. 14.

67 일본 외무성, 「歷史問題Q&A」,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2_002287.html(검색일: 2019. 6. 11.).

68 하종문, 2001, 「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식 '과거극복' 과정의 세 계기」, 『亞細亞硏究』 44권 2호, 139~140쪽.

69 김창록, 2009,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31호, 354쪽.

7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7, 『히로히토 유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71] 심지어 UN, ILO 등 국제사회에서 나온 다양한 권고문, 결의문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명백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추상적'이라 주장하면서 다시금 검증되어야 할 존재로 격하시켰다.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했다. 고노 담화 검증 당시 한국 정부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자 아베 내각은 '일본의 선의가 활용되지 않는 것'이라 표현했다. 즉, 미야자와 내각이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강제성과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한다.[72] 하지만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담화인 동시에 시민사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한 조사 활동, 증언채록, 다양한 대중운동이 없었다면 고노 담화 발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담화가 외교 행위로 가볍게 치환되면서 고노 담화 발표에서 한일 양 정부가 주요한 주체였던 양 논의되고 시민사회의 노력은 비가시화된다.

고노 담화의 가치가 소거되면서 다양한 수행자가 참여하던 논의의 장은 외교라는 이자 구도로 바뀐다. 그리고 아베 내각은 이자 관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배려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자신들을 '선의'와 도덕적 우위를 가진 존재로 자연스럽게 표상한다. 웬디 브라운은 제국이 관용이라는 담론을 통해 정의, 평등의 문제를 감성과 존중의 문제로 전치시키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과정은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적 '고통'은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버린

71 정의기억연대, 2014. 6. 1,「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http://womenandwar.net/kr/%EC%9E%90%EB%A3%8C%EC%8B%A4/?mod=document&pageid=1&keyword=%EC%95%84%EC%8B%9C%EC%95%84&uid=104(검색일: 2019. 4. 1.).

72 『참의원 내각위원회』, 2014. 7.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73] 마찬가지로 고노 담화 작성에 대해 아베 내각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라는 정의를 위한 과정을 존중의 문제로 바꾸어버린다. 이 속에서 한국 정부는 '선의를 잊은' 존재로, 배은망덕하거나 비합리적인 대상으로 구성되고, 식민지, 전쟁책임에 대해 물어왔던 노력들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2) 국제사회를 겨냥한 탈진실 정치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관용적인 일본이란 이미지를 피력했다면 아사히 신문 사태 이후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2014년 8월 5일 아사히 신문은 1991년에 보도한 요시다 세이지 인터뷰 기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요시다 세이지는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977년 『조선인위안부와 일본인(朝鮮人慰安婦と日本人)』, 1983년 『나의 전쟁범죄(私の戰爭犯罪)』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요시다 세이지는 조선의 제주도에서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다.[74] 하지만 이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해당 증언을 인용한 혹은 인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고노담화, 우에무라 다카시가 작성하였던 『아사히신문』 기사, 쿠마라스와미 담화는 일본 우익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약 20년 뒤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인용한 기사를 취소한다는 보도 정정 기사를 내보내 『아사히신문』에 대한 비난이 솟구쳤다. 이후 일본 사회 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심지어 『아사히신문』 절독을 권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더불어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이미지의 보도를 지속했다. 이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2014년 10월 6일 야

73 웬디 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 2010, 『관용』, 갈무리.

74 秦郁彦, 2016, 『慰安婦問題の決算: 現代史の深淵』, 株式會社PHP研究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다 히로시는 『아사히신문』이 편파보도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일본 국민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베 신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 아베 내각총리대신: 보도에 대해 읽었습니다. 개별 보도기능의 기사에 대해 원래는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만, 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오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슬프고, 그리고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관계에 큰 영향, 그리고 심적 충격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일본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오보를 인정했으니, 이 기사로 상처받은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아베 신조는 오보로 인한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자세를 취하기는 꺼렸다. 아사히신문 사태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기시다 대신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고노 담화는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노 담화 검증, 아사히신문 사태 이후 급변한 일본의 여론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들어 백악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오바마는 아베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 시 거의 매번 '위안부' 문제의 조정을 요구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75]

국제사회의 추궁이 있는 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

75 이타가키 류우타, 2018,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관해」, 김부자 외, 『'위안부'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발언하는 대신 〈내각총리대신담화(이하 아베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 신조는 담화가 전후 50년을 기해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 2005년 발표된 고이즈미 담화에 이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담화 제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생략하여 개인의 입장이 아닌 일본 내각의 입장임을 강조했다.[76]

아베 담화는 ① 전쟁의 발발 원인, ② 전쟁 피해의 양상, ③ 전쟁 피해에 대한 동정 혹은 동감, ④ 현재와 같은 평화에의 의지, ⑤ 식민지, 침략국에 대한 메시지, ⑥ 식민지, 전쟁 범죄를 논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신조는 전쟁 발발의 원인을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해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된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해 대한 피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지난 대전에서는 300여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을 빌면서 전쟁터에서 산화한 분들. 종전 후 혹한의, 또는 작열하는 먼 이국땅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의 폭격,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무참히도 희생되었습니다.
>
> 교전국들도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섬 등 전쟁터가 된 지역에서는 전투뿐만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희생되었습니다.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 (밑줄: 인용자)

76 아베 총리는 2016년 2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를 포함, 역사인식에 간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고 공표했다. 또한 일본 외무부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베 담화는 역사인식에 관한 담화로서 같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참고: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ホームページ, 「歴史問題Q&A」, http://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QnA.html(검색일: 2018. 1. 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피해에서 중심이 되는 피해자는 대동아전쟁에 참여했던 일본인, 연합국 공격에 의한 피해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죽음의 방식, 그리고 전쟁터에서의 마음 혹은 생각까지 표현된다. 전사자가 실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또한 시민의 죽음, 식량난 등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유추되는 문구의 경우 '전쟁터의 뒤안'이라는 장소에 위치하며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표현될 뿐 앞선 표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아베 담화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관련 범죄,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는 적절한 유추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일본군'위안부'피해의 존재 자체는 부정된다. 더불어 식민지 지배, 전쟁 침략에 대한 책임, 침략전쟁을 위해 여성을 군사무기화하고 성폭력을 제도화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 또한 소거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면서 역사를 단순 해석의 문제로서 치환시킨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반화하거나 개별 행위자의 문제로 바꾸는 역사수정주의가 통용되는 구실을 마련한다.

담화의 다음 단락에서는 일본이 전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는가를 서술하고 전시여성폭력문제에 관련해서도 발언한다.

> 우리는 20세기 전시하에 수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군'위안부'피해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고노담화 검증, 아사히 신문 사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아베 담화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를 언급하면서,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아베 내각은 제2차 내각 초기부터 전시여성폭력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전시성폭력 근절에 관한 G8 선언'이행을 위해 215만 달러를 기부하고, 상위 공여 국가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유엔에서 전시여성폭력문제에 관해 "분쟁의 무기로 성폭행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77] 또한 2017년 이반카 트럼프가 조성 중인 여성 기금에 약 570억 원을 기부하겠다 밝히고[78] 국제여성회의 와우![79] 등을 통해 성인권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진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일본군'위안부'피해의 맥락을 설명하기보다 피해 존재 자체를 비가시화하고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지원하여 여성인권 이슈 자체를 탈정치화기 때문이다.

아베 담화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위치성을 삭제하고 제도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식민지 문제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큰 예이다. 그리고 아베 담화는 아베 정권이 이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관용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관용을 베풀기'를 서슴지 않고 시행한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인정이 이어지던 와중에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기시다는 일본 정부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일본 정부 예산 거출을 통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77 일본 수상관저, 2013. 9. 26,「第68回國連總會における安倍內閣總理大臣一般討論演說」,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26generaldebate.html(검색일: 2017. 12. 31.).

78 *The Asahi Shimbun*, "Abe committing $50 million to Ivanka-led fund to help women", 2017년 11월 4일,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711040011.html(검색일: 2018. 5. 19.).

79 일본 외무성,『國際女性會議WAW!』, https://www.mofa.go.jp/mofaj/fp/pc/page23_002346.html(검색일: 2021. 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기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자제하고 소녀상과 관련해 적절히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한일합의가 발표된 뒤 일본 정계에서는 한일합의의 성격과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이행 및 사죄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이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사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베 내각은 강하게 사죄가 아니며 사죄 의사 또한 없음을 내비쳤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아베 내각은 2015년 한일합의가 한일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2015년 한일합의 직후 미국 국무부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일본 혹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심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응답하듯 한국은 일본에게 '전략적 파트너'라 칭했다.[80]

2015년 한일합의라는 틀 속에서 한국 정부는 책임 이행의 대상으로 전치된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를 이전 혹은 폐기하라는 요청을 반복하면 아베 내각은 일본 측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리고 아베 내각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은 일체 불가하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소요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평화비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합의라는 고리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요구되던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이행된 것이다.

80 일본 외무성, 2016. 1. 6,「日米外相電話會談」, 報道發表,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1454275/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2827.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베 신조는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역사인식 문제와 연관된 활동을 지속했다. 아베 신조는 취임 전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살려 강제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아베 신조는 제 1차 내각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했다. 제2차 아베 내각 초기 일본 정부는 학술과 정치라는 이분화된 틀을 구성하고, 자의적으로 틀을 적용한다. 특히 고노 담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인 행위인 양 표상하여 일본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치환시켰다. 그리고 고노 담화는 정치적 합의나 일본의 도덕적 관용에 따른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후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의 도덕성이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자신들을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과 무관한 존재로 재이미지화했다. 그리고 전시여성폭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미지세탁을 시도했다.

아베 내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부인의 공식을 완성해간다. 즉, 아베 정권의 탈진실 정치의 방식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① 학술영역과 정치영역이라는 이분화를 통해 특정 논의만 선별하고, ② 선별되지 않은 논의는 무시되거나 간과되며, ③ 책임과는 무관한 일본 정부의 의도 혹은 도덕성이 계속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구 등은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되거나 논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심정만 강조된다.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의 탈진실 정치의 양상은 더욱 명백해진다. 한일합의의 틀 안에서는 피해생존자 의견 반영 여부, 일본 정부의 배상 여부, 책임 인정 여부는 더 이상 주요한 논점이 아니다.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만 주요한 논리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용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연구의 맥락을 무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므로, 탈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 수행자의 의도와 목적을 계속해서 추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아베 정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재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의 국가 브랜딩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쿨재팬 등을 통해 역사 왜곡을 감행해왔다.[81] 더군다나 아베 정권은 브랜드재팬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다. 따라서 탈진실 정치가 담론 수준을 넘어 실제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1 정연욱, 2019,「일본의 영상문화콘텐츠 국가브랜딩 전략과 전쟁기억의 망각 연구」,『일본어문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김부자 외, 2018, 『'위안부'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민속원.

나카노 고이치, 2016, 『우경화하는 일본정치』,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다카하시 데쓰야 외 지음, 임성모 옮김,2009,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송연옥 외, 2017,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스탠리 코언 지음, 조효제 옮김,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창비.

야마구치 도모미 외, 2017,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어문학사.

요시미 요시아키 외, 2014,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웬디 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 2010, 『관용』, 갈무리.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7, 『히로히토유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년사편찬위원회, 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日本の前途と歷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 1997, 『歷史教科書への疑問』, 日本の前途と歷 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

中村粲 他, 1995, 『大東亞戰爭の總括』, 歷史·檢討委員會編集, 展轉社

秦郁彦, 2016, 『慰安婦問題の決算: 現代史の深淵』, 株式會社ＰＨＰ硏究所.

俵義文, 2013, 『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 かもがわ出版.

河野談話作成過程等に關する檢討チーム, 2014,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經緯』.

河添惠子, 杉田水脈, 2016, 『「歷史戰」はオンナの鬪い』, PHP硏究所.

Yaiser, et al., 2004,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김부자, 2017,「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한국여성학』33(3).

김수진, 2013,「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여성학논집』30권 1호.

김창록, 2009,「일본군 '위안부'헌법소원」,『법학논고』31호.

남상구, 2014,「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일관계사연구』.

니시노 루미코, 2005,「일본에 있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과 싸움」,『과거청산 포럼 자료 집』.

박정애, 2019,「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페미니즘연구』19권 2호.

이나영, 2016,「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한국사회학』50권 5호.

이상훈, 2019,「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정치적 언설의 영향」,『日本硏究』.

이종국, 2016,「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의 "합의" 형성과 한계- 주요 "담화"를 소재로」,『한일군사문화연구』21호.

정연욱, 2019,「일본의 영상문화콘텐츠 국가브랜딩 전략과 전쟁기억의망각 연구」,『일본어문학』.

정진성, 2003,「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한국여성학』19권 2호.

조윤수, 2018,「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중심으로」,『日本硏究論叢』48호.

하종문, 2001,「천황제,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식 '과거극복'과정의 세 계기」,『亞細亞硏究』44권 2호.

함동주, 2003,「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 인식」.『일본역사연구』17권 1호.

후루하시 아야, 2017,「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문제 인식」,『한국여성학』33권 1호.

横田 一, 2007,「安倍總理の「原点回歸」-「慰安婦」の强制性をめぐって」,『世界』765號.

Motoyama, Hisako, 2018, "Formulating Japan's UNSCR 1325 national action plan and forgetting the "comfort women"",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olitics.

Suiter, J, 2016, "Post-truth Politics", *Political Insight*, 7(3).

일본 국회 회의록

『중의원 예산위원회』, 2006. 6. 12; 2006. 10. 5~11.

『중의원 예산위원회』, 2013. 2. 7.

『중의원 외무위원회』, 2014. 5. 14.

『참의원 결산위원회제2분과회』, 1996. 5. 27.

『참의원 내각위원회』, 2014. 3. 13.

『참의원 내각위원회』, 2014. 7. 14.

『참의원 내각위원회』, 2014. 7. 14.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2014. 6. 12.

『참의원 북한납치 등에 의한 특별위원회』, 2007. 6. 28.

『참의원 예산위원회』, 2013. 5. 15.

신문

김외현, 2014. 8. 13,「20개월 동안 양자회담 외면 … 끝 안 보이는 한-일 갈등」,『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51096.html(검색일: 2020. 11. 15).

박용채, 2006. 6. 19,「굳어지는 아베 대세론」,『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6191800341&code=970203(검색일: 2021. 1. 15).

신경렬, 2007. 4. 28,「아베, "위안부에 연민"어정쩡한 사과」,『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49593&plink=OLDURL(검색일: 2021. 1. 15).

「아베: 아베신조일본총리사임발표」,『BBC코리아』, 2020년 8월 28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943673(검색일: 2020. 11. 15).

이수민·문재연, 2016. 2. 2,「[아베, 위안부강제연행부정논리는①] 日 '軍관여'는 강제연행과 다르다?」,『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2000539. 검색일: 2018. 5.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재준, 2006. 9. 14,「일본 차기총리 아베 지지 54% … 요미우리 여론조사」,『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179264(검색일: 2021. 1. 15).

「世論調査「安倍首相いつまで？」回答者の45%が辭任求める」,『毎日新聞』, 2020년 7월 24일, https://mainichi.jp/articles/20200724/k00/00m/040/117000c(검색일: 2020. 11. 15).

「安倍首相辭任表明 小田嶋隆さん, 荻原博子さん, プチ鹿島さんの話」,『毎日新聞』, 2020년 8월 29일, https://mainichi.jp/articles/20200829/ddm/041/010/082000c(검색일: 2020. 11. 15).

村上智博, 2014. 2. 20,「維新, 慰安婦問題の對應强化へ」,『産經新聞』, sankei.com/politics/news/140220/plt1402200005-n1.html(검색일: 2020. 10. 18).

「河野談話の撤回要求へ維新, 年明け署名 參考人招致も」,『産經新聞』, 2013년 12월 28일,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31228/plt1312280006-n1.html(검색일: 2020. 10. 18).

「河野談話」見直し6割が贊成 産經・FNN合同世論調査 集團的自衛權の行使容認 47%」,『産經新聞』, 2014년 2월 24일,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40224/plt1402240019-n1.html(검색일: 2021. 1. 7).

"Abe committing $50 million to Ivanka-led fund to help women", *The Asahi Shimbun*, 2017년 11월 4일,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711040011.html(검색일: 2018. 5. 19).

웹 사이트

리 매킨타이어, 2019,『포스트트루스』, 두리반, 전자책 인용, http://www.yes24.com/Product/goods/78234458.

박명섭, 2020. 9. 3,「日 차기 총리, 스가 요시히데 유력 …"아베노믹스 지속"」,『문화저널21』, URL: http://www.mhj21.com/134454(검색일: 2021. 3. 2.).

외교부, 2014. 2. 28,「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주려 하는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49501(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색일: 2021. 1. 7.).
정의기억연대, 2014. 6. 1,「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http://womenandwar.net/kr/%EC%9E%90%EB%A3%8C%EC%8B%A4/?mod=document&pageid=1&keyword=%EC%95%84%EC%8B%9C%EC%95%84&uid=104(검색일: 2019. 4. 1.).

首相官邸, 2020(令和 2年). 9. 16,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kantei.go.jp/jp/99_suga/statement/2020/0916kaiken.html(검색일: 2021. 3. 2.).

일본 수상관저, 2013. 9. 26,「第68回國連總會における安倍內閣總理大臣一般討論演說」,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26generaldebate.html(검색일: 2017. 12. 31.).
일본 외무성,「國際女性會議WAW!」, https://www.mofa.go.jp/mofaj/fp/pc/page23_002346.html(검색일: 2021. 1. 15.).
_____,「歷史問題Q&A」,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2_002287.html(검색일: 2019. 6. 11.).
_____, 2007. 3 16,「衆議院議員辻元清美君提出安倍首相の「慰安婦」問題への認識に關 する質問に對 する答弁書」,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24_000308.html(검색일: 2018. 5. 13.).
_____, 2014. 6. 24,「岸田外務大臣會見記錄」,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095.html#topic4(검색일: 2021. 1. 15.).
_____, 2016. 1. 6,「日米外相電話會談」, 報道發表,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1454275/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2827.html(검색일: 2019. 6. 11.).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ホームページ,「歷史問題Q&A」, http://www.kr.emb-japan.go.jp/rel/r_postwar/r_postwar_QnA.html(검색일: 2018. 1. 27.).

미국 국무부, 2014. 3. 10, “Daily Press Briefing”, https://2009-2017.state.gov/r/pa/prs/dpb/2014/03/223197.htm(검색일: 2021. 1.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백시진

이 연구는 아베 정권의 국회 회의록, 기자회견 자료 및 청서 등의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는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역사인식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했다. 제1차 내각에서는 강제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한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 제출,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과 무관한 존재로 재이미지화한다.

아베 정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학문과 정치를 이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나 정보를 선별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성을 소거하고, 일본 정부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전시여성폭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미지세탁을 시도했다. 이 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은 소거되는 등 탈진실 상태에 빠지고 만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탈진실, 고노 담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운동, 아베 담화, 책임이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be and Post-Truth Politics: Den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Responsibility

Paek Sijin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be Shinzo's posi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fter he worked actively on the historical issue, he became a prime minister in 2006. He passed a resolution which deny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while he raised a discussion about coercion. But he turned direction with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second Abe administration, as verifying Kono Statement, adressing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he emphasized the moral statu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imaged Japan as unrelated to responsibility.

Abe government represented the academic as irrelevant to the politics, selecting information biased, emphasizing moral status instead of responsibility, and supporting on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issue to wash their image.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ponsibilities have been eliminated and discussion became a phenomenon of “Post-truth”.

Keywords: “comfort wom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Post-Truth politics, Kono Statement, Abe statement, responsibility, “comfort women” movemen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한의 경계·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김선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I. 머리말
II. 해방 직후 북한의 경계 인식
III. 중국내전과 국경경비체계
IV. 국경관리와 국경충돌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근대의 국민국가는 일차적으로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되며, 분명하고 틈이 없는 영토적 경계를 통해 탄생한다. 영토와 국가주권이라는 경계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변동되고 재규정된다. 식민화를 통한 국민국가의 확장은 무엇보다 영토의 확장으로 나타나며, 영토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국가주권의 확장을 동반한다. 이로써 영토성이 불안정해지는데, 그로 인해 변화하는 것이 국경(國境)이다. 근대 이전에 '점'으로 존재하던 국경은 근대에 들어서 안과 밖을 구별하는 '선'의 경계로 재규정되었다. 선으로 된 국경은 그 통과지점에 근대적 통제와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독립된 주권의 권역을 확보했다.[1]

근대의 국경과 경계 문제는 학계에서 오랜 연구대상이었다. 최근의 연구는 국경과 경계가 근대에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근대의 기획에서 비롯된 '경계'를 자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경을 비롯한 각종 경계는 근대에 이르러 강고한 선으로 형상화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층위의 인적·물적 교류가 뒤엉켜 있다고 보고 있다.[2] '근대의 기획'을 탐구한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접경(Border Area), 월경(Border Crossing), 변경(Frontier) 등이다.[3]

---

* 투고: 2020년 12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1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2010,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12~213쪽; 고지현, 2010, 「지구화와 국민(민족) 국가-경계의 문제」, 『사회와철학』 19, 3~7쪽.

2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2017, 『제국과 변경』, 혜안, 6쪽.

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외, 2001, 『동아시아의 월경적(越竟的)인 역사와 공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임지현 외,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테사 모리스-스즈키 지음, 임성모 옮김,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경과 경계에 대한 관심은 북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 확정문제, 조·중국경조약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1950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문제를 분석하고 있다.[4] 둘째, 선행연구는 1945~1950년 사이 북한의 중국내전에 대한 지원문제, 38선 접경지역과 월경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북한과 중국, 38선 이남과 이북 사이에 진행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문제를 분석하였다.[5]

이상의 선행연구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해방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1950년 이후 국경이 확정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중관계의 기본적 구조를 해명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1945~1947년 시기에 북한의 경계·국경에 대한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활동에 관한 연구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글

산처럼;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대한민국학술원; 우양호 외, 2014, 『해항도시와 초국경 네트워크: 새로운 월경지역의 형성』, 선인;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2017, 앞의 책; 이세연 엮음, 2018,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혜안.

4 박선영, 2005, 「비밀의 해제-조선과 중국의 국경 조약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8; 노영돈,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82; 박아름, 2011, 「'조-중 국경조약 분석'」, 『북한학연구』 7-1; 심지화·박종철, 2012,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19-1; 이상숙·宋文志, 2012, 「1950~1960년대 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북·중 협력」, 『북한연구학회보』 16-1; 강주원, 2013, 「중조 국경의 다층적 의미」, 『역사문화연구』 45; 윤휘탁, 2017, 「중국과 북한의 국경 관리실태-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10; 이종석, 2017,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세종연구소; 이상우·정영철, 2018, 「1961년 조중조약에 대한 재조명」, 『북한학연구』 14-1.

5 백학순, 1994,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10-1, 263~281쪽;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 243~247쪽; 이종석, 1999,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52~77쪽; Kim Sang Won, 2014,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7(1); 이상숙, 2016,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硏究學會報』 20-1; 김선호, 2017,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軍史』 102; 김재웅, 2007,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한국사학보』 28; 김재웅, 2016, 「북한의 38선 월경 통제와 월남 월북의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이후에 '경계'와 '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둘째, 이들은 실제로 국경을 어떤 체계로 경비했으며, 국경의 경비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글은 1945~1947년 북·중 접경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의식의 일단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국가건설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북한의 경계·국경 개념과 국경경비의 원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국경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美軍鹵獲文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 『정로(正路)』, 주한미군 정보보고서(*ISNK, G-2 Weekly Summary*) 등이다.

Ⅱ. 해방 직후 북한의 경계 인식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해외에 있던 정치세력들은 한반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당시 해외의 정치세력은 한반도로 돌아오는 행위를 대부분 "환국(還國)" 또는 "귀국(歸國)"이라고 생각했다. 김구(金九)와 이승만(李承晩) 등은 주로 "환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6] 북한지역으로 돌아온 정치세력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연안(延安)에 있다가 38선 이북지역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의 주석 김두봉(金枓奉)은 "입국(入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가 말하는 국(國)은 "조국(祖國)"이었다.[7] 1945년 10월 13일에 조직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은 김일성(金日成)의 입북을 "조국

6 「本報重刊과 各方面祝辭-李承晩博士의 말씀」·「國民에게 보내는 主席 金九閣下의 말슴」, 『동아일보』, 1945년 12월 1일.

7 金枓奉, 「朝鮮獨立同盟의 回顧와 展望(一)」, 『正路』, 1946년 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완전한 해방을 전취하기 위하야 조국에 도라오게"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8]

해외에서 돌아온 한국의 정치세력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로 들어오는 행위를 조국으로 돌아온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만주(滿洲)[9]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통과해 38선 이북지역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바다를 통해 38선 이남지역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모두 귀국으로 이해했다. 이와 달리 정치세력들은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하고 있던 38도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지리적 '경계'로 인식했다. 가령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을 "북부조선", 남쪽을 "남부조선"이라고 인식하였다.[10]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38선을 기준으로 2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이들의 해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해방을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조선민족은 해방되엿다. 그러나 해방은 자체의 힘에 의한 해방이 아니고 외래의 압력에 의한 해방이다. 이것이 조선혁명의 첫째 특수성이다. 또 외래의 힘은 '한'힘이 아니다. 즉 사회주의국가인 적위군(赤衛軍)의 힘과 자본주의국가인 영미(英米)의 힘으로 해방되엿다. 이것이 둘째 특수성이다."[11]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가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이라는 두 세력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두 세력의 구분점으로 38선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주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와 38선을 지리적으로 사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사고했다. 해방 직후에 북한지역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세력에 따라 한반도와 38선을 사상적으로 다르게 사고하였다. 첫째, 1945년 10월에

---

8 「金日成同志의 빗나는 鬪爭史」, 『正路』, 1945년 12월 21일.

9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이후에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주"를 사용하였다. 「鴨綠江沿邊에서 日敗殘兵을 擊碎」, 『正路』, 1945년 12월 14일.

10 朝鮮共産黨中央委員會 代表 朴憲永, 「朝鮮民族 統一戰線 結成에 對한 朝鮮共産黨의 主張」(1945. 10. 30), 『正路』, 1945년 11월 7일.

11 西北五道黨代表者及熱誠者大會, 「政治路線確立組織擴大强化에 關한 決定書」(1945. 10. 13), 우리文化社 編, 1945. 11. 7, 『産勞特輯: 옳은路線을 爲하야』, 우리文化社, 59~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 집결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김일성 등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오기섭(吳琪燮) 등 국내공산주의자, 김용범(金鎔範) 등 소련 공작원으로 구분된다.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한반도 전체지역을 "조선"으로 인식했고, 중국 동북(東北)지역을 "만주"로 인식했다.[12] 이들은 1946년에 들어서면서 38선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을 "북조선"으로, 남쪽은 "남조선"으로 규정했다.[13]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에 조선공산당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북위삼십팔도를 경계로 한 자본주의국가 미국군과 무산계급독재의 나라 소련군의 남북에 진주라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14] 그는 38선을 지리를 구분하는 위도이자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한 군사적 경계선으로 인식했으며,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구분하는 사상적 경계이자 새로운 냉전질서의 경계로 이해했다.

그런데 북조선분국에 집결한 공산주의자들이 경계로 주목한 것은 38선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성이었다. 김일성은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해방이 가져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우리 朝鮮이 蘇·美兩軍이 地理的 進駐됨을 따러 國際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特殊性을 띄이고 잇다. 따러서 南北部朝鮮地域에도 兩側의 地理的 特殊性이 잇다. 그럼으로 朝鮮에 잇어서 地理上 또는 政治的으로나 中心地인 京城에 黨中央이 잇서 南北朝鮮의 事業을 置重함은 正當하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北部

12 「黨의 進路明示 政治路線確立 組織擴大强化」, 『正路』, 1945년 11월 1일(창간호).

13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북한관계사료집』 9권, 국사편찬위원회, 230쪽. 『북한관계사료집』은 다음부터 『사료집』으로 표기하고 간행정보를 생략한다.

14 金日成 將軍 述, 1946. 3,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야』, 朝鮮共産黨淸津市委員會, 10쪽. 이 책자는 1945년 10월 13일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을 청진시당에서 출판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朝鮮의 特殊性을 따러 모든 行政其建黨의 政策을 實現식힘에 잇서 더욱 黨中央과의 密接한 指導와 連絡이 要求되는 同時에 五道의 行政上統制를 必要로 함에 따라서 北部朝鮮에 黨北部分局設置의 必要로써 黨中央에 直屬된 分局을 設置할 것이다.[15]

김일성은 미군·소련군의 분할점령이 가져온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북부조선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표면적으로 행정상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북조선분국을 설치한다고 설명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울의 당중앙과 병립하는 지휘부를 건설하려는 의도였다. 김일성의 사고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38선이라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남북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이었다. 북한지역은 소련군에 의해 공산주의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남한지역은 미군에 의해 공산주의 활동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민주주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북조선지역에서만이라도 위선 국제적 협정으로서 예견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토대를 닦으므로서 북조선을 조선 민주발전의 근거지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과업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6] 즉 이들은 북한지역이 한반도 혁명의 근거지라는 민주기지론(民主基地論)을 주장하기 위해 지리적·사상적 경계로서 38선에 주목한 것이다.

둘째,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은 북조선분국에 집결한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와 38선을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는 1945년 11~12월 사이에 「건국청년운동론-진영내의 토론을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17] 이 문건은 독립동맹이 해외·국내의 좌익 진영에 제

15 金日成, 「黨組織問題報告」, 우리文化社 編, 1945. 11. 7, 앞의 책, 53쪽. 원문에는 보고자의 이름이 없지만, 당조직문제 보고자는 김일성이었다.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159쪽.

16 「당건설(강의요강)」, 『사료집』 10권, 671쪽.

17 朱明, 「建國青年運動論-陣營內의 討論을 爲한 草案」(1945. 11~12), 『사료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한 혁명의 전략노선이었다. 이 문건의 핵심취지는 독립동맹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조직하고 이에 기초해 독립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18] 이 문건에는 조선독립동맹이 가지고 있던 한반도와 경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 三十八度 境界線은 死滅하여가는 帝國主義와 前進하는 社會主義와의 東亞에서 第一 深刻하고 尖銳한 前哨線이다. 三十八度 境界線은 비록 朝鮮을 南北으로 兩分하는 一線에 지나지 못하나 그 延長은 혹은 顯然히 혹은 隱然히 全東亞를, 全世界를 貫通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一線이 如何한 方法으로 撤廢되는가에 依하야 朝鮮의, 東亞의, 나아가 世界의 運命이 決定되는 것이다. (생략) 聯合國 軍政은 어느때 撤廢될 것인가? 그것은 深刻히 對立하는 兩大陣營(蘇米)이 朝鮮內에 扶植한 力關係가 兩大陣營 各自를 滿足식힐 程度에 到達할 때 까지는 實現되지 않을 것이다.[19]

조선독립동맹은 38선을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초선으로 이해했으며, 38선에 투영된 대립구도가 동아시아와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미국과 소련을 동일한 연합국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양대진영"으로 이해했다. 이 양대진영은 단순히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세 인식은 이들의 경계 인식에도 투영되었다. 독립동맹은 38선을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선과 지리적 경계선뿐만 아니라 "국토우에 심각한 국경

26권, 33~40쪽.

18 염인호, 2010,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410쪽.

19 朱明, 「建國靑年運動論」, 『사료집』 26권, 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38도선"이라고 인식했다.[20] 38선이 국경선이라는 인식은 1945년 12월 당시 조선공산당 중앙당이나 북조선분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례다. 또한 독립동맹은 해방 후 만주지역을 일관되게 "동북"이라고 표현했다.[21] 이 용어는 명확히 중국공산당의 관점이 투영된 용어다. 조선독립동맹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진영이 분할하고 있는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한 반면, 만주를 중국 대륙의 동북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경계 인식 아래 조선독립동맹이 혁명을 위해 주목한 지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였다. 이들은 '조선혁명'의 기지를 북한지역이 아니라 만주지역에 구축하려고 계획했으며, "38도 이북조선은 국제적·국내적 관계로 병참기지가 될 수 없음"이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는 북한지역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련이 1945년 8월 14일 중국국민당과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 소련이 포츠담회담을 고려해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조선의용군의 입북을 불허한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22]

반면에 조선독립동맹은 "동북의 혁명기지성"을 강조하면서 만주가 조선혁명을 위한 기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중국공산당(팔로군)이 만주를 영도하고 있다는 점, 독립동맹(조선의용군)과 중국공산당(팔로군)의 관계, 만주에 거주하는 300만 동포의 역량, 만주가 무력양성과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었다. 독립동맹은 만주를 조선혁명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국공관계의 악화"에 의해 만주정세에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장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동북의 혁명기지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조선혁명의 여하한 전략도 발으게 수립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23]

---

20 朱明,「建國青年運動論」,『사료집』26권, 35쪽.

21 위의 문건에서 "만주"라는 용어는 일제시기 강제징용의 장소를 설명하는 부분에 한 번 등장한다. 해방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모두 "동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2 염인호, 2010, 앞의 책, 413~4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독립동맹의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경계인식에 따라 만주가 아니라 중국 대륙의 동북지역으로 인식한 반면, 북·중 접경지역을 체제와 민족의 경계로 인식한 중국공산당과 달리[24] 조선혁명의 동질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북·중 접경지역은 국경이 아니었으며, 동북지역은 한반도혁명의 근거지였다.

조선독립동맹이 '동북혁명기지론(東北革命基地論)'을 주창한 배경에는 해방 전에 형성된 독립동맹·조선의용군의 친중국공산당 성향과, 해방 후에 만주지역 활동과 입북과정에서 갖게 된 소련에 대한 반감이 놓여 있다. 독립동맹과 의용군은 1943년부터 진행된 정풍(整風)운동의 과정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론을 깊이 수용했으며, 의용군은 독립동맹이 지도하는 민족혁명의 군대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八路軍)의 군대로 변화했다.[25] 또한 독립동맹·의용군은 해방 이후에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팔로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으로 진출했고,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강화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 결집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38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지역과 38선 이북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북조선분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건너편을 일제시기와 마찬가지로 '만주'로 인식한 반면, 조선독립동맹은 이 지역을 중국 대륙의 '동북'으로 인식하였다.

---

23 朱明, 「建國青年運動論」, 『사료집』 26권, 37쪽.

24 대표적으로 중국공산당은 1946년에 북·중 접경지역을 통과해서 전략물자를 수송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9월에 정권 차원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화물수송협정」을 체결하였다. 길재준·리상전, 2008,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7쪽.

25 염인호, 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193~22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중국내전과 국경경비체계

해방 직후 북한의 정치질서는 19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결성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서울에 조직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당중앙으로 인정하면서도 평양에 독자적인 지도력을 확립하려고 계획했다.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0월에 당지도기관을 창설한 이후부터 소련군사령부에 적극 협력하면서 북한지역의 행정기관에 참여했다.[26] 이들은 11월 19일에 북조선행정10국(北朝鮮行政十局)이 조직되었을 때, 농림국장, 재정국장, 교육국장, 보안국장 직을 차지하였다.[27]

이와 달리 조선독립동맹은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11월까지 입북이 거부되면서 정치질서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 대신 만주에서 중국공산당과 결합해 조선의용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동북혁명기지론을 실현하려고 구상했다. 이들은 소련군이 동북지방에서 억류하고 있는 50,000명 이상의 일본군 출신 조선인 청년들을 장악·조직해서 군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28] 독립동맹은 이 계획에 따라 11월 9~10일경 조선의용군 제1지대·제3지대·제5지대를 각각 요녕성(遼寧省)·흑룡강성(黑龍江省)·동만주(東滿洲)로 파견하였다.[29]

조선독립동맹 지도부는 무장부대를 동북지역에 잔류시킨 채 12월 13일에 입북했고,[30] 두 그룹으로 나눠 조선신민당을 창당하는 한편 조선공산당 북조선

---

26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시기 정치질서의 주도세력에 대해 선행연구는 소련 주도설(소비에트화론), 소련의 원조·조력설, 북한정치세력 주도설(자력혁명론) 등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북조선분국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국내공산주의자 주도설과 동북항일연군 주도설로 의견이 갈린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김광운, 2003, 앞의 책, 17~26쪽;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57~93쪽; 기광서, 2018,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30~32쪽.

27 전현수, 2016, 「북조선 행정10국의 조직과 활동」, 『대구사학』 123, 16~18쪽.

28 朱明, 「建國青年運動論」, 『사료집』 26권, 35쪽.

29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1992, 『승리』, 민족출판사, 30쪽.

30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5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국에 입당해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반도 정세를 새로 판단한 결과 동북혁명기지론을 추진하는 대신 북조선분국의 민주기지론을 흡수하면서 좌우합작·토지개혁·정권수립문제에 집중하였다.[31] 그리고 1946년 8월 조선신민당이 조선공산당과 합당함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경계·국경인식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이들의 동북혁명기지론도 민주기지론으로 대체되었다.[32] 그 결과 해방 직후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체계는 소련군사령부와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해방 당시 북한지역과 만주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다. 두 지역은 1909년에 청과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間島協約)에 따라 국경으로 분리되었다.[33] 북한 방향에서는 평북 신의주부터 함북 남양까지 만주지역과 접해 있었고, 만주 방향에서는 안동(安東)부터 도문(圖們)까지 북한지역과 접해 있었다. 양쪽의 접경은 800km에 달했으며, 수로교통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북한의 북부지역은 남만주와 북만주를 연결하고, 중국 산해관(山海關)의 안팎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34]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38선을 지리적 경계로 인식한 것과 달리, 북·중 접경지역을 "국경"으로 인식했다. 대표적으로 북조선분국은 1945년 12월 14일에 기관지 『정로』에 게재한 논설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국경 압록강연안"이라고 표현했다.[35] 북한정치세력은 북·중 접경지역을 국경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

31 독립동맹은 북조선분국과 대립하는 대신 1946년 2월에 "북조선"에 "전국적 민주주의임시정부"를 건설할 조직이 설립되었다면서 민주기지론을 수용하였다. 金科奉, 「朝鮮獨立同盟의 回顧와 展望(一)·(二)」, 『正路』, 1946년 2월 13~14일.

32 해방 이후 동북혁명기지론의 실현여부와 민주기지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염인호, 2010, 앞의 책, 428~432쪽.

33 최덕규, 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동북아역사재단 편,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64~265쪽.

34 丁雪松 外, 「回憶東北解放戰爭時期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1988,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624쪽.

35 「鴨綠江沿邊에서 日敗殘兵을 擊碎」, 『正路』, 1945년 12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라 만주지역을 중국의 국경으로 인식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총무부장은 1946년 7월에 "중국국경에 처해있는 압록강 대안(對岸)인 함경남북도 급 평안북도의 국경경비" 방식을 전환하라고 훈시했다.[36] 북한정치세력은 국민국가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을 한반도에 건설할 국민국가와 중국의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압록강은 이들의 사고 속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국경선이었다.

해방 직후에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담당한 주체는 소련군이었다. 북한주둔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И. М. Чистяков) 상장은 8월 29일 평양에 군정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지역의 각 도·시·군에 경무사령부를 설치했다.[37] 경무사령부의 사령관은 소련군 장교가 맡았고, 부사령관은 동북항일연군 간부가 맡았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평남경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김책(金策)은 함흥경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동북항일연군 간부들이 도·시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배치되었다.[38]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안인 만주지역도 소련군이 관할하였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에 대일전(對日戰)을 개시해 만주 전역을 점령해 나갔으며, 스탈린(И. В. Сталин)은 8월 23일에 대일전 승리를 선언했다.[39] 이로써 만주 전역과 북한지역은 공식적으로 소련군이 관할하게 되었다.[40]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은 북한지역과 비슷하게 주요도시마다 경비사령부를 설치했다. 사령관은 소련군 장교가 맡았고, 부사령관은 주로 동북항일연군 간부가 맡았다. 가령 동북

36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 7. 16), 『사료집』 9권, 267~269쪽.

37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13쪽.

38 김국후, 2008,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78쪽.

39 스탈린, 「자바이칼전선, 극동군 제1전선, 극동군 제2전선의 부대와 태평양함대의 함정과 부대에게 내린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명령」(1945. 8. 23),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譯, 1987, 『蘇聯과 北韓의 關係』,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35~36쪽.

40 치스짜코프 대장, 「第25軍의 戰鬪行路」,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발행, 國土統一院 譯, 1988, 『朝鮮의 解放』,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항일연군교도려(東北抗日聯軍教導旅)의 여단장 저우바오중(周保中)은 장춘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고, 정치위원 리자오린(李兆麟, 일명 張壽錢)은 하얼빈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다.[41] 강건(姜健)은 연길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고,[42] 최광(崔光)은 왕청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다.[43]

1945년 9월부터 만주지역과 북한지역은 모두 소련군이 관할했고, 두 지역은 각각 설치된 소련군 사령부의 조직계통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 또한 접경지역에 주둔한 남만주·동만주의 소련군 경비사령부와 소련군 평북·함북경무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가 담당했다.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입북하는 세력은 반드시 소련군 경무사령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적으로 소련군이 담당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경비체계는 12월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권기관과 관련 있다. 소련군사령부는 군정업무를 보조할 조선인 정권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1945년 11월 19일에 북조선행정10국을 설치했다.[44] 행정10국 중 보안국은 12월 1일부터 최용건(崔庸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시작했다.[45] 보안국 경비부는 경비과와 수상과로 구성되었는데,[46] 경비과는 북·중 접경지역, 38선, 철도, 주요 산업시설 등의 경비를 책임

41 소련군 극동사령부 참모부 정찰부대장 소장 치브린, 「소련원수 바실레프스키 앞」(1945. 7. 6), 러시아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장자료(김국후, 2008, 앞의 책, 54~55쪽에서 재인용).

42 리창역, 「강신태의 군대생활」,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2000, 『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294쪽.

43 최광, 「동북땅에 소문났던 조선인 〈무쇠련대〉」,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1,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1, 조선로동당출판사, 8쪽.

44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582쪽.

45 HQ, USAFIK, *ISNK*, No.39(1947. 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이하 한림대),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6쪽.

46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사료집』 9권, 234~2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졌고, 수상과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경비를 책임졌다. 북한정치세력이 1945년 12월부터 주목한 지역은 북·중 접경지역과 38선, 해안지역이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방식이 처음으로 변화한 시점은 1945년 11월 말이다. 그 배경에는 만주지역의 정세변화가 놓여 있다. 중국국민당은 1945년 가을부터 만주 전역에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47] 국민당군대는 11월 16일에 산해관(山海關)을 장악했고, 11월 26일에는 만주의 대문인 금주(錦州)를 점령했다.[48]

북한정치세력은 만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1945년 12월경 평안북도 보안부는 북·중 접경지역의 상황을 보안국에 보고하였다. 당시 평안북도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하고 있고, 서해를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국민당 당원의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49] 김일성은 "동북지방이 장개석의 영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50]

김일성은 11월 27일에 평북도당 책임비서에게 "국경경비대(國境警備隊)"를 책임지고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국경경비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국민당군대가 금주를 장악한 다음 날이었다. 국경경비대는 무엇보다 국민당군대의 국경침범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국경경비대의 또 다른 임무는 수풍발전소를 경비하고, '불순분자·반동분자'를 적발하고 방지하는 것이었다. 경비대 본부는 평북 신의주에 설치되었고, 의주·수풍·용암포에 각각 1개 중대가 배치되었다.[51] 국경경비대를 조직한 인물은 11월 말부터 평북도당 책임비서를 맡은 김일(金一)이었는데,[52] 그는 김일성이 "나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만큼 직계

47 嚴永植, 1969, 『아시아近世史』, 미네르바社, 324~325쪽.

48 염인호, 2010, 앞의 책, 46쪽, 103쪽.

49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사료집』 9권, 241쪽.

50 김일성, 1998, 『세기와더불어』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62쪽.

51 김일성, 1992, 「국경경비대를 조직할데 대하여」(1945. 11. 27), 『김일성전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351~352쪽.

52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67)-내가 먼저 처치해 버릴 것을」, 『동아일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물이었다.[53] 따라서 국경경비대의 창설작업은 1945년 12월부터 본부와 3개 중대가 편성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경경비대는 국경경비 임무와 함께 신의주지역에 대한 정치보위 임무를 위해 창설되었다. 김일성이 평북도당 비서에게 국경경비대 창설을 지시한 11월 27일은 그가 신의주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신의주시군중대회에 참석한 직후였다. 그는 국경경비대가 보안기관과 협력해 신의주에서 발생하는 '불순분자,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적발해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4] 실제로 평안북도에서는 반탁학생연맹의 관련자, 백의사(白依社), 한국광복군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55] 북한정치세력이 국경경비대를 창설한 목적은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경계짓기이자, 이질적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내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경경비대의 창설은 1946년으로 넘어갔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3월 4일에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경비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국경·38도선·철도"를 경비하는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했다.[56]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경비부대 창설을 허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6년 5월에 북·중 접경지역을 경비하기 위한 국경경비대 창설을 허가하였다.[57] 따라서 국경경비대는 1945년 12월부터 부분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1946년 5월에 공식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국경경비대는 평북도당이 직접 지도하였다. 경비대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은 평안북도가 보유하고 있

1962년 7월 20일.

53 김일성, 1995, 『세기와 더불어』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61~269쪽.

54 김일성, 「국경경비대를 조직할데 대하여」(1945. 12. 7), 1992, 앞의 책, 352쪽.

55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사료집』 9권, 242~244쪽.

56 「조선공산당북선분국 제5차 집행위원회 결정서」(1946. 3. 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3, 『朝鮮共産黨文件資料集(1945-46)』, 한림대학교 출판부, 223쪽; 김광운, 2003, 앞의 책, 570쪽.

57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조선에서의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자료(서동만, 2005, 앞의 책, 252쪽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것을 먼저 지급했고, 부족한 무기와 탄약은 평북도당이 중앙당에 요청해서 해결했다.[58]

북·중 접경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의 명칭에 "국경"이라는 용어가 부여된 반면, 38선을 경비하는 부대의 명칭에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 38선을 경비하는 부대도 북조선분국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창설되었다. 이 부대의 명칭은 "38경비보안대"였다. 38경비보안대는 1947년 7월에 "38경비대"로 개편되었다.[59] 북한정치세력은 38선을 경비하는 부대에 위도를 의미하는 '38'이라는 숫자 이외에 다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1946년에 들어서 북·중 접경지역이 "국경"으로 인식된 데 비해, 38선은 여전히 지리적 경계이자 군사적 분할선으로 인식되었다.

국경경비대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조직되었고, 평북·함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서 관할했다. 초창기에 국경의 제1선은 국경경비대가 경비를 맡았고, 제2선은 소련군이 경비를 맡았다. 초기에는 주로 대로(大路)를 중심으로 경비하였다.[60] 1946년 중반까지 북·중 접경지역의 제1선을 국경경비대가 경비한 것은 1946년 1월 10일에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이 정전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만주지역의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61]

북한의 국경경비방식은 1946년 7월에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배경이 된 사건은 중국내전이다. 소련군은 1946년 3월부터 5월 3일까지 여순

---

58 김일성, 「국경경비대를 조직할데 대하여」(1945. 12. 7), 1992, 앞의 책, 352쪽. 북한의 내부문서에 "국경경비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1946년 3월 4일 북조선분국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다. 그러나 1945년 12월 14일자 『正路』에 "국경 압록강연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북한정치세력이 12월 시점에 국경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鴨綠江沿邊에서 日敗殘兵을 擊碎」, 『正路』, 1945년 12월 14일.

59 김광운, 2003, 앞의 책, 571쪽.

60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 7. 16), 『사료집』 9권, 274쪽.

61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9. 7. 15, 『중국정세』, 北朝鮮勞動黨出版社, 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旅順)·대련(大連)을 제외한 만주 전역에서 철수했다. 소련군이 철수하자, 1946년 4월 15일부터 장춘(長春)에서는 공산당군대와 국민당 지방군대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었다. 공산당군대는 제1차 장춘전투에서 승리했으나, 4월 18일부터 국민당 정예군과 격돌한 '사평전역(四平戰役)'에서 패배했다. 국민당군대는 4월 말에 송화강(松花江) 이남의 만주 중심부를 장악하게 되었다.[62] 이전까지 북·중 국경지역은 만주지역의 소련군 경비사령부와 북한지역의 소련군 경무사령부가 군대의 연락체계를 기반으로 협의해 경비했다. 그러나 만주의 중심부를 국민당군대가 장악함에 따라 국경경비체계도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보안국 총무부장은 1946년 7월 16일에 각 도보안부 감찰과장에게 국경경비방식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로(大路)를 중심으로 경비했으나 앞으로는 소로(小路)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경비하라고 명령했다.[63] 또한 이날 보안국장 최용건은 접경지역 도보안부 감찰과장에게 국경경비의 주체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제1선은 "적군"이 맡고, 제2선은 "국경경비대"가 맡도록 하였다.[64] 국경경비대가 7월 이전까지 제1선을 경비한 것은 대안에 공산당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7월부터 소련군이 제1선을 경비한 것은 대안에 국민당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당군대가 만주의 중심부를 장악한 이후에 경비주체를 변경한 것은 창설 초기의 국경경비대가 국민당 정규군을 대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국경경비체계는 1947년 2월 22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재편되었다. 보안국이 내무국으로 개편되면서 국경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내무국 경비처는 경비부와 국경경비부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국경경비부는 국경경비과, 밀수방지과, 사찰과로 구성되었다.[65]

---

62 염인호, 2010, 앞의 책, 49~50쪽.

63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 7. 16), 『사료집』 9권, 267쪽.

64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 7. 16), 『사료집』 9권, 274쪽.

65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 박일우, 「사업한계에 관한 지시」(1947. 11. 23), 高麗書林 編, 1998, 『(美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2권, 高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경경비부의 주요 업무는 국경경비, 해안경비, 해저통신 및 등대 보호, 항행(航行)선박 보호, 어선 보호 및 밀어(密漁) 단속, 국경자위대 조직, 국경사찰 등이었다.[66] 북한정치세력은 1947년에 들어서 북·중 접경지역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조직함으로써 국경관리업무를 독립시켰다. 이들이 국경으로 인식한 공간은 북·중 접경지역과 해안지역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내전에서는 국민당군대가 승리하고 있었다. 국민당군대는 1946년 7월부터 1947년 6월까지 장춘, 심양(瀋陽), 길림(吉林), 안동 등 요녕성·요북성(遼北省)·안동성(安東省)의 대부분 지역, 황하강(黃河江) 이남의 공산당 해방구, 만리장성 이북지역을 대부분 점령하였다.[67] 공산당과 국민당이 만주를 장악하는데 주력한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소련·몽골과 맞닿은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주지역은 일제시기에 중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강철의 경우 중국 전체 연간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68]

만주가 내전의 중심지로 격화되자, 북한정치세력은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방식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1947년 6월부터 국경경비대가 아니라 인민집단군 보병부대를 국경지역으로 전면 배치하기 시작했다. 북한정치세력은 1947년 5월 17일에 경찰지휘부로 위장했던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개편해서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를 창설했다. 집단군총사령부는 제1경보병사단, 제2경보병사단, 제3독립혼성여단을 보유하였다.[69]

書林, 217~220쪽.

66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 기구 및 사무분장」, 『사료집』 9권, 69~70쪽.

67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9. 7. 15, 앞의 책, 16쪽.

68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중국공산당역사』 1권 하, 서교출판사, 410쪽.

6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韓國戰爭史』 1(解放과 建軍),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682쪽;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1977, 『韓國戰秘史』中卷, 兵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민집단군은 7월부터 소련군으로부터 국경경비임무를 인수했다. 국경경비에 투입된 부대는 평북 신의주의 제1사단 제1연대, 평북 강계의 제1사단 제3연대, 함북 회령의 제2사단 제4연대였다.[70] 각 부대의 국경지역 배치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사단 제3연대 제3대대는 7월 15일에 국경경비임무를 부여받고 8월 1일에 부대배치를 완료했다. 제3대대는 평북의 강계군·만포군·중강군과 함남의 삼수군에 예하 중대를 배치했다. 제1사단 제1연대는 평북 신의주부터 평북 초산까지 국경경비임무를 부여받았다. 제2사단 제4연대는 평북 중강진부터 함북 경흥군 아오지까지 국경경비를 담당했다. 인민집단군이 국경경비임무를 넘겨받은 이후, 이 지역에 국경을 경비하는 소련군은 없었다.[71]

인민집단군의 국경경비 임무는 1948년 11월 초에 완료되었다. 인민집단군을 대신해 국경경비임무를 맡은 부대는 내무국 독립여단이었다. 독립여단은 9월 24일부터 북·중 접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부대 이동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제1대대는 함북 온성군 남양면, 제2대대는 자강도 초산군, 제3대대는 만포진, 제4대대는 의주에 주둔했다. 이 중 제4대대는 다른 3개 대대의 예하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편성하였다. 독립여단이 국경경비임무를 넘겨받음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부대는 경비임무에서 벗어나 그들의 모부대로 복귀했다.[72] 북한정부가 1948년 11월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인민집단군을 철수시키고 내무국 독립여단을 투입한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동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만주지역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73]

社, 30~31쪽.

70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63(1948. 10), 한림대,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472쪽.

7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24(1948. 1), 한림대,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42~43쪽.

7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64(1948. 11), 한림대,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4, 503쪽.

73 중국공산당은 1948년 3월까지 만주지역 총면적의 97%를 점령하였다.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2016, 앞의 책, 575~57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국경관리와 국경충돌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5월에 국경경비대를 공식적으로 창설해서 북·중 접경지역을 경비했고, 1947년 7월에 인민집단군을 전면 배치해서 소련군으로부터 국경경비임무를 인수했다. 그런데 이들은 국경을 관리하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월경(越境)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각각 다른 정책을 구사했다.

북한의 국경관리정책은 국경의 반대편에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첫째, 이들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공산당군대에는 국경을 개방하고 입국을 허용하였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국공산당군대도 북·중 접경지역을 허가를 받아야 넘어갈 수 있는 경계로 인식하였다. 요녕군구 사령원 겸 정치위원 사오화(蕭華)와 김일성은 공산당군대에 대한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1월 29일에 안동에서 회담했다. 김일성과 사오화는 안동회의에서 동북전쟁에 관한 긴급문제를 논의했는데, 양측은 북한지역을 공산당군대의 이동경로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74] 이에 따라 1946년 11월의 경우 약 10,000~20,000명의 공산당군대가 만주에서 북한지역으로 넘어왔다.[75] 물론 중국공산당군대의 입북은 북한 주둔 제25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정치세력은 중국공산당의 군대뿐만 아니라 고위간부와 군수공장의 이동·이전도 허용했다. 예를 들어 1946년에 중국공산당 정치위원 12명이 만주로 들어갈 때, 이들은 북한의 신의주를 경유해서 이동했다.[76] 1946년 초에는 중국 대표들이 입북해서 만주에 있던 군수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군수공장을 함경북도 아오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77] 북한은

74 길재준·리상전, 2008, 앞의 책, 173~175쪽, 182~183쪽.

75 HQ, USAFIK, *ISNK*, No. 25(1946. 11), 한림대,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391쪽.

76 정현수 외, 2006,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32쪽.

77 길재준·리상전, 2008, 앞의 책, 312~3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46~1947년 동안 계속해서 북부지역을 공산당군대의 교통로와 후방기지로 제공했으며, 국경을 넘어온 피난민, 1만 8,000여 명의 부상병·가족·후근인원, 23만여 톤의 전략물자를 받아들였다.[78]

그런데 북한정치세력은 공산당군대가 사전에 협의나 통보 없이 북·중 접경지역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경경비대를 통해 제재했다. 동북민주연군(東北民主聯軍) 요녕군구(遼寧軍區) 길동분구사령부(吉東分區司令部)는 1946년 겨울에 심각한 소금 부족문제에 봉착했다. 길동분구사령부 경위중대는 소금을 얻기 위해 평북 중강진에 주둔해 있던 팔로군 군의소에 경위대원을 파견했다. 그러나 경위대원들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북한의 국경경비대 대원들에게 체포되어 강계로 압송되었다. 다행히 이들은 길동분구 사령원이 써준 신임장을 제출해 석방되었다.[79]

둘째, 북한정치세력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중국국민당군대에는 국경을 폐쇄하고 월경을 저지했다. 국민당군대는 1946년 4월 1일부터 공산당과 체결한 정전협정을 깨고 만주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공산당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화북(華北)·화중(華中)지역에 있는 공산당의 해방구를 향해 진공을 개시했고, 7월에는 전면적으로 대규모 내전을 감행했다.[80] 가령 국민당 제71군은 6월 7일에 압록강의 대안에 있는 남만주의 길림성 교하현(蛟河縣) 일대를 공격했다.[81]

국경충돌사건은 국민당군대가 북·중 접경지역인 남만주를 침공한 이후부

78 김선호, 2017,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동북아역사논총』 57, 219~226쪽.

79 김덕천, 「잊을수 없는 나날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1, 앞의 책, 271~272쪽. 김덕천은 이때 파견된 경위대원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1946년 4월 이후에 군사시설 중 일부를 북한지역으로 이전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2000, 앞의 책, 250~258쪽.

80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9. 7. 15, 앞의 책, 13~14쪽.

81 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 편찬, 1989, 『중공연변당조직활동년대기』, 연변인민출판사, 292~29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당군대는 압록강 대안까지 밀고 나와 중국 안동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시로 월경해 북한의 국경경비대원과 보안대원들을 살해하고 주민들을 약탈했다. 몇 가지 국경침범사건을 살펴보자. 1946년 12월 25일 강계군 만포의 압록강 대안에서 국민당군 6명이 월경해 민가의 쌀가마니와 닭을 약탈했다. 1947년 1월 13일에는 의주군 영진면 압록강 대안에서 국민당 중앙군 약 300명이 기관총 10대를 가지고 월경해 북한 보안대와 교전했다. 교전 결과 보안대원 2명이 중상을 입고, 자위대원 1명과 주민 1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1947년 2월 21일에는 중앙군 12명이 압록강을 넘어와 만포군 관내 보안분주소의 보초막을 방화하고 퇴각했다. 1947년 3월 4일에는 의주군 청송동 다리 위에서 경비하는 소련군에게 강 건너에 있던 중앙군이 총을 발사해 소련군 병사가 즉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82]

1946년 11월부터 1947년 3월까지 국민당군의 국경침범사건은 압록강변의 접경지역에서 매달 5~6회꼴로 발생했다. 〈표 1〉은 1947년 5월 7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동아시아부에서 조사한 국민당군의 "각 군별(郡別) 불법행위 통계표"이다.

국민당군의 국경침범은 압록강에 접해 있는 평안북도의 모든 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1946년 11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북·중 접경에서 발생한 국경침범사건은 불법월경 9회, 불법발포 26회, 불법월경 후 교전 7회, 비밀정찰 2회였다. 북한 측은 보안대원·자위대원·주민들이 부상당했고, 일부 주민이 납치되기도 했다. 또한 농가와 보안분주소 보초망이 방화로 소실되었고, 쌀과 가축 등 각종 물품을 약탈당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부대의 자동차가 피격되거나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소련군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경충돌은 국경침범이나 총격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당군과 북한 국경수비대·보안대 간의 직접

82 北朝鮮人民委員會 外務局 東亞部 崔英,「鴨綠江對岸 '中國國民黨 中央軍' 非法行爲調査」(1947. 5. 15),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1949. 7. 22,『〈극비〉 1947年度 중국관계』, 외무성 문헌과, 17~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각 군별 불법행위통계표(1947. 5. 7)[83]

군명	불법 월경	불법 발사	불법월경교전	비행 정찰	피해상황
강계군	6	2		1	인민 1명 부상, 보안분주소 보초망 방화, 소련사령부 자동차 피격, 물품(쌀·닭) 탈거(奪去), 국민당군 4명 즉사
초산군	1				중학생 1명 불법체포 당함
위원군	1	4			부녀자 1명 부상
삭주군				1	
의주군		19	2		소련군 1명 즉사, 보안대원 2명 중상, 자위대원 1명 부상, 인민 1명 부상, 농가 방화, 물품 탈거
용천군	1	1	5		보안대원 2명 부상, 물품 탈거 2회, 국민당군 2명 즉사
합계	9	26	7	2	

적인 교전으로 격화되었다. 5개월 동안 양측 간에는 총 7회의 교전이 발생했다. 교전은 모두 의주군과 용천군에서 발생했다. 무력충돌이 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큰 충돌이 발생한 지역은 평북 용천군 황초평(현재 황금평)이다. 황초평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충적섬으로 면적은 10,400,000 m^2, 경지면적은 9,200,000m^2이며,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다.[84] 해방 이후 행정구역 명칭은 평북 신도군 황초동이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평북 용천군이 있고, 북쪽에는 중국 안동시 아민촌이 있다.[85] 황초평은 중국과 거리

83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1949. 7. 22, 앞의 자료, 20쪽. 피해상황만 원문에 서술된 내용을 토대로 요약했고, 나머지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84 박선영, 2005, 「자료해제: 북한과 중국의 비밀 국경조약」, 『중국사연구』 34, 391쪽.

8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2005, 「황금평리」, 『조선대백과사전』, 삼일포정보센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20m도 되지 않을 만큼 위치상 거의 중국 땅에 붙어 있었다.[86]

황초평은 일제시기부터 소유권을 다투던 계쟁지(係爭地)였다. 원래 황초평은 조선시대 말까지 신도진(薪島鎭)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에는 일진회(日進會)가 이권을 획득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황초평을 중국인에게 대여하고 대부료를 징수했다. 그러다가 대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1928년에 경관을 파견해 총독부 직영으로 전환하였다.[87] 황초평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해방 이후 중국국민당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중국국민당은 황초평 등 압록강의 섬들을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해 국민당은 황초평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각종 문헌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88]

국민당군대의 황초평 월경사건은 1947년에 발생한 국경충돌사건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이었다.[89] 황초평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데, 주민의 80%가 화교(華僑)였고, 조선인은 20%에 불과했다.[90] 국민당군과 만주의 '토비(土匪)'들은 1946년 말부터 황초평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월경하기 시작했다. 1946년 12월 20일 황초평 대안의 국민당군 약 40명이 "중앙기빨과 성정부(省政府)기빨을 들고 황초평으로 월경"해서 주민의 물품을 약탈하

86 「北-中 합작개발설 나도는 신의주 황금평에. 中, 이중철조망 설치」, 『동아일보』, 2010년 11월 18일.

87 「警官卅名이 黃草坪을 包圍」, 『동아일보』, 1928년 11월 2일; 「查探權利 風勢에 딸하 左右되든 韓淸間의 係爭地」, 『동아일보』, 1931년 1월 2일.

88 『韓國疆域研究』, 臺灣外交部檔案館(097. 1-0004), 182~190쪽(심지화·박종철, 2012, 앞의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심지화는 이 문서를 1948년에 대만 외교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89 흥미롭게도 황초평 국경충돌사건은 현재 세 가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첫째는 19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동아부(東亞部)에서 생산한 극비문서이고, 둘째는 조선로동당출판사가 2011년에 발간한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이며, 셋째는 1947년 당시 평북 보안부에 근무하면서 황초평사건을 직접 목격한 김석형의 구술이다.

90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 선인, 20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황초평을 "중국영토"라고 주장했다. 1947년 1월 3일에는 "중앙군 약 100명이 지방불량배 270명과 함께 불법내습"해서 보안대와 1시간 동안 교전했다. 2월 1일에는 국민당군 약 30명이 월경해서 교전해 국민당군 1명이 즉사했으며, 2월 6일에는 국민당군과 "지방불량배" 60명이 월경해서 교전해 "적 불량배 1명"이 즉사하였다.[91]

결국 국민당군대와 '토비'들은 1947년 초에 황초평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당시 황초평은 국경경비대 1개 소대가 경비하고 있었는데 국민당군대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그후 국경경비대는 황초평에 1개 대대를 파견해 다시 탈환하였다. 그리고 국경경비대는 황초평 점령에 대한 응전으로 국경경비대의 정예대원 30여 명을 선발해 안동에 주둔한 국민당군대의 사단사령부를 습격했다. 이 습격작전은 김책이 지시했고, 내무국 경비처 간부 전윤필이 계획하고 실행했다. 경비대원들은 안동으로 잠입해서 사단사령부에 수류탄을 투척해 사령부 건물을 폭파하고 귀환했다.[92]

한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9~10월경에 평북지역의 국경을 관리하기 위해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 "도강계(渡江係)"를 신설했다. 도강계장은 희천군보안서 문화부장이던 김석형이 맡았다. 도강계에서는 중국공산당군대의 후퇴를 보장하는 군수지원업무와 북한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에 대한 피난대책업무를 담당했다.[93] 도강계장 김석형은 1947년 겨울에 국민당군대가 황초평에 침입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민당군대가 황초평에 침입해서 조선인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했는데, 국경경비대가 반격하자 약탈한 물건을 얼어붙은 강 위에 두고 도피했다. 이 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평북인민위원회, 소련군 평북경무사령부, 국민당군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91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1949. 7. 22, 앞의 자료, 19쪽.

92 전윤필, 「위인의 숭고한 뜻은 동북해방작전의 갈피마다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1, 앞의 책, 96~99쪽.

93 김석형, 2001, 앞의 책, 207~2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련군하고 저짝 국민당군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놓고 설라무네 흥정하는거야. 국경선을 침범했다 안했다. 거 애매하거든. 그거. 강이 얼어붙었으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근데 그 국경선을 따지는 건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따졌어요. 압록강 물줄기가 제일 깊은 데를 갖다가 국경선으로 맨들었어요. (생략) 만약 그때 우리가 에이 이거 시끄러우니까 내삐리자 그랬으면, 그거야 앞으로 우리가 중국 연안군이 승리할 때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두 수치거든. 국민당에 그걸 준다는 거. 그래서 정치사령부에서 막 동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국민당군에서두 간부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판결하는거야. 근데 그 이제, 옛날 지도를 가지고 나오고 다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조선땅이라는 거 증명하고, 물건 가지고 가다가 강에다 내삔 거는, 이걸 갖다가 자로 재고 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소련군이 그거 하나는 잘해주는 거야. 그 얼름판이니까 말이야, 될 수 있는대로, 우리짝에 침입했다는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 있는 데로 발로 갖다가 탁 차 설라무네, 모두 우리 가까이에다. (생략)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국민당들이 손들고, "인정한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요. 소련군한테다가 사과를 하고.[94]

김석형의 구술내용에는 국경선의 설정과 국경의 개념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 1947년 당시 소련군 평북경무사령부·평북인민위원회·국민당군대는 모두 황초평과 만주지역 사이의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합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경선 근처에 놓여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되자, 함께 국경선에 나와서 측량을 통해 소유권 결정을 협의했다. 둘째, 평북인민위원회는 압록강을 분명한 "국경선"이라고 인식하고, 고지도까지 동원해서 황초평이 북한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셋째, 평북인민위원회 간부가 국경선 판정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국경선에 대한 판정은 소련군과 국민당군대가 결정했다.

1947년 당시 소련·북한·중국국민당은 북·중 접경지역을 북한과 중국을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국가적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94 김석형, 2001, 앞의 책, 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권기관은 역사적 영토개념에 입각해 이 지역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했고, 소련과 중국국민당도 국경선 논의에 북한 정권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건설기에 북·중 접경지역을 '내재적 국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국경은 소련·중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북한은 이 같은 경계·국경 인식에 따라 이 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에 '국경경비대'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국경을 경비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던 것이다.

Ⅴ. 맺음말

해방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한 38선을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구분하는 사상적 경계이자 새로운 냉전질서의 경계로 인식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 결집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38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지역과 38선 이북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38선을 지리적 경계로 인식한 것과 달리, 북·중 접경지역을 한반도에 건설할 국민국가와 중국의 국경으로 인식했다. 즉 북·중 접경지역은 이들의 사고 속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국경선이었다. 이들은 북·중 접경지역을 국경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에 "국경"이라는 용어를 부여했다. 반면에 38선을 여전히 지리적·사상적 경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에는 위도를 의미하는 "38"이라는 숫자만 부여했다. 북한정치세력이 국경경비대를 창설한 것은 주권의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경계짓기이자, 이질적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주권의 내부에 경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한의 국경경비방식과 국경관리방식은 중국내전의 전황에 따라 변경되었다. 접경지역의 대안에 공산당군대가 있을 때에는 국경경비대가 경비했고, 국민당군대가 있을 때에는 소련군과 인민집단군이 경비했다. 또한 이들은 공산당군대에는 월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중국국민당군대에는 월경을 불법으로 간주해 군사적으로 저지하였다. 1945~1947년 당시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과 중국에 모두 국민국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국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지역을 '내재적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을 한반도와 만주를 구별하는 국경으로 인식했지만,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는 강고한 선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공산당군대의 월경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평북·함북지역을 교통로와 후방기지로 제공했다. 북한과 중국은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을 국경을 넘어서 추진했으며,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했다.[95] 따라서 북한의 국경은 국민국가 수립 이전에 내재적으로 출현하였다.

95 Kim Sang Won, 2014, *Ibid.*, pp. 91~113; 이상숙, 2016, 앞의 글, 209~2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차 자료

『동아일보』, 『正路』.

高麗書林 編, 1998, 『(美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2권, 高麗書林.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9·1990·1990·1997, 『북한관계사료집』 7·9·10·26권, 국사편찬위원회.

金日成 將軍 述, 1946. 3,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야』, 朝鮮共産黨淸津市委員會.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9. 7. 15, 『중국정세』, 北朝鮮勞動黨出版社.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 1949. 7. 22, 『〈극비〉 1947年度 중국관계』, 외무성 문헌과.

우리文化社 編, 1945. 11. 7, 『産勞特輯: 옳은路線을 爲하야』, 우리文化社.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1·2·3·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_____, 1993, 『朝鮮共産黨文件資料集(1945-46)』, 한림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2005, 『조선대백과사전』, 삼일포정보센터.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韓國戰爭史』 1(解放과 建軍),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土統一院 調査硏究室 譯, 1987, 『蘇聯과 北韓의 關係』, 國土統一院 調査硏究室.

기광서, 2018,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길재준·리상전, 2008,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광운, 2003,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김국후, 2008,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_____,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2001,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 선인.
김일성, 1992, 『김일성전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95·1998, 『세기와더불어』 6·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2010,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발행, 國土統一院 譯, 1988, 『朝鮮의 解放』, 國土統一院 調査硏究室.
嚴永植, 1969, 『아시아近世史』, 미네르바社.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2000, 『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염인호, 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_____, 2010,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이세연·정면·조원 엮음, 2017, 『제국과 변경』, 혜안.
정현수 외, 2006,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2011,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1, 조선로동당출판사.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1977, 『韓國戰秘史』中卷, 兵學社.
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 편찬, 1989, 『중공연변당조직활동년대기』, 연변인민출판사.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1988,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저, 홍순도·홍광훈 역, 2016, 『중국공산당역사』 1권 하, 서교출판사.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1992, 『승리』, 민족출판사.

논문

고지현, 2010, 「지구화와 국민(민족) 국가 – 경계의 문제」, 『사회와철학』 19.
김선호, 2017, 「1945~1947년 북·중관계의 형성과 북·중혈맹의 근원」, 『동북아역사논총』 57.
박선영, 2005, 「자료해제: 북한과 중국의 비밀 국경조약」, 『중국사연구』 34.
심지화·박종철, 2012,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1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숙, 2016,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硏究學會報』 20-1.
전현수, 2016, 「북조선 행정10국의 조직과 활동」, 『대구사학』 123.

Kim Sang Won, 2014,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북한의 경계·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 (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

김선호

해방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38선을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구분하는 사상적 경계이자 새로운 냉전질서의 경계로 인식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38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지역과 38선 이북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는 1945년 9~11월 동안 소련군이 전담하다가 12월부터 북한정치세력이 조직하기 시작한 국경경비대가 담당했다. 접경지역의 제1선은 1946년 6월까지 국경경비대가 담당했으나, 1946년 7월부터 중국국민당이 접경지역을 점령하자 소련군이 담당했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 1947년부터 중국국민당이 동북지역을 대부분 점령하자 국경경비대 대신 인민집단군을 접경지역에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터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월경행위에 대해 각각 제한적 허용정책과 전면적 저지정책을 구사하였다.

북조선분국은 38선을 한반도의 지리적 경계로 인식한 것과 달리 북·중 접경지역을 한반도에 건설할 국민국가와 중국의 국경으로 인식했으며,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이 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에 "국경"이라는 용어를 부여했다. 1945~1947년 당시 북·중 접경지역은 국제법상의 국경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이 지역을 '내재적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은 국민국가 수립 이전에 내재적으로 출현하였다.

주제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조선독립동맹, 동북항일연군, 민주기지론, 만주, 38선, 인민군, 중국내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North Korea's Perception of Border and Security Activities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and China, 1945~1947: Focusing on the Border Guards

Kim Seonho

At the time of liberation, Korean political forces thought the 38th parallel to be the boundary of the Cold War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capitalism camp and the socialism camp. The North Korean Branch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NKB) emphasized the spatial identity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base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Independent League(KIL) emphasized the spatial identity of Manchuria and the north of the 38th line according to the Manchurian revolutionary base theory. Under such a perception of boundaries, the NKB recognized the 38th parallel as a 'boundary line', and the KIL recognized the 38th parallel as a 'border line'.

The NKB recognized recognized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the border of the national state to be built o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n peninsula.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a border line that existed in the minds of the NKB. Since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considered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as borders, it gave the unit guarding the area the term “border”.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have established border guards to create a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of sovereignty.

The border security system of North Korea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China civil war. North Korea allowed menstruation in the Chinese communist army, but stopped menstruation in the Chinese nationalist army. Between 1945 and 1947,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not a border for international law, but North Korea recognized the region as an ‘immanent border’. However, North Korea did not regard it as a solid line that could not cross the border. The border of North Korea appeared intrinsicall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state, and it was not a solid boundary but a cracked boundary.

Keywords: Keywords: North Korean Branch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Korean Independent Leagu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North Korean Base Theory, Manchuria, 38th Parallel, North Korean Army, Chinese Internal W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대만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 변화

– 101과강 『선수역사(選修歷史)』와 108과강 『역사(歷史)2』 비교 분석

김유리 | 전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II. 고조선~고려
III. 조선
IV. 근대
V. 일제~현재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역사교과서는 대표적인 공적 담론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역사교과서가 공적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때,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외국사는 해당 사회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 대한 연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사 내용은 대만사회가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만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한국사가 서술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주로 중국문화의 전파와 전쟁을 통한 한중관계사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대부분 중국사나 일본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1] 한중관계사뿐 아니라 한국사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사용된 고등학교 선택과정 『선수역사(選修歷史)(上)』였다(이하 '선수역사'). 2011년 반포된 101과강에 따라 『선수역사』는 '조선'에 관한 소제목을 설정하여 조선왕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2] 이를 통해 대만 학생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서술 내용이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서술 분량도

* 투고: 2020년 12월 8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이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린리웨, 2008, 「개혁과 변화: 타이완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연민수 등,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121~129쪽;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19~226쪽.

2 教育部, 2011, 「普通高級中學歷史課程綱要」(이하 '101과강'), 25~26쪽. 101과강에 따른 『선수역사』는 상·하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통형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3학년 1·2학기에 사용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남일판과 삼민판 고등학교 『역사2』에서 중국과 동아 각국의 서술 분량[3]

	융합	중국	일본	한국	월남	동남아	총 면수
남일서국	36(21.7%)	97(58.4%)	11(6.6%)	**11(6.6%)**	7.5(4.5%)	3.5(2.1%)	166(100%)
삼민서국	83(38.4%)	104(48.1%)	14(6.5%)	**10(4.6%)**	5(2.3%)	0(0%)	216(100%)

출처: 楊維眞 等, 2020; 薛化元 等, 2020.

5쪽 내외에 불과했다.[4] 무엇보다 『선수역사』가 고등학교 3학년 선택과목이었으므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한국사 학습이 가능했다.

2020년 초에 발행된 고등학교 필수과정 『역사2』는, 2018년 반포된 108과강에 따라 '중국과 동아'를 학습범위로 설정함으로써,[5] 한국사 서술 분량이 크게 늘었다. 필자가 『역사2』의 국가별 서술 분량을 확인해본 결과,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일본과 한국이었다(위의 〈표 1〉 참조).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간 대만을 식민통치했고, 역대 민진당정부의 역사과정 개혁은 '탈중국'·'친일본'으로 요약되었으므로[6] 일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한 바와 같지만 한국에 대한 서술 분량이 일본에 필적할 정도로 많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특히 남일서국 판본의 경우, 한국전쟁에 관한 2쪽의 펼침자료까지 포함하면,[7] 한국 관련 내용은 총 13쪽에 달하여 일본을 능가한

3 '융합'은 교과서의 서론, 각 장절의 도입부, 종합탐구 및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국과 동아 각국을 통합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중국'은 101과강 고등학교 필수과정 『역사』에서 1.5책 분량을 차지했으나, 108과강에서는 『역사2』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1.5책 분량이었던 것이 0.5책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4 김유리, 2016, 「대만의 세계사 교육과 한국사 인식」, 『서양사론』 131, 99~103쪽.

5 教育部, 2018,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國民中小學暨普通型高級中等學校-社會領域」('12年國教(108課綱)歷史課綱'. 이하 '108과강') 108과강에 따른 필수과목 『역사』는 총 3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통형 및 종합형 고등학교의 1학년에서 사용된다.

6 김유리, 2015, 「대만의 정권교체와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歷史教育』 134 참조.

7 펼침자료는 쪽수 표시가 없으므로, 〈표 1〉의 서술 분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108과강『역사2』에서 한국사 서술 분량의 확대는 주목할 만한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2』가 이처럼 한국사를 비중 있게 설명한 것은, 108과강이 '동태적인 분역(分域)구조'를 표방하고 '동아사의 맥락에서 본 중국사'를 강조하여, 각 주제별로 중국 외에 일본·한국·월남 등 '동아 각국'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8] 단, 역사과가 포함된 108과강 '사회영역'은 논란이 많아 다른 영역에 비해 1년 늦게 반포되었고, 그중『역사2』는 학습범위가 기존의 '중국사'에서 '중국과 동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각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9] 따라서 각 출판사별로『역사2』의 '동아 각국'에 대한 서술 비중이나 서술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10] 어쨌든『역사2』가 사용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대부분의 대만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학습하게 되었다.[11]『역사2』의 한국사 내용은 현재 대만 학계의 한국사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대만인의 한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역사2』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필자는 기존 101과강『선수역사』의 한국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108과강『역사2』의 한국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역사2』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

---

8 108과강, 110~114쪽. '동태적인 분역구조'와 '동아사의 맥락에서 본 중국사'에 대해서는 김유리, 2019,「대만, '중국과 동아', 세계: 2018년 대만의 중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歷史教育』151, 232~247쪽 참조.

9 김유리, 2020,「'중국과 동아': 108과강에 따른 대만의 고등학교『역사2』교과서 비교분석」,『歷史教育』155, 149~153쪽.

10 吳昆財는 2020년 출판된 5종의『역사2』교과서 가운데 '동아 각국'에 대한 서술은 龍騰版>泰宇版>三民版>南一版>翰林版의 순서로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吳昆財, 2020,「驢頭不對馬嘴的高中歷史教科書-新編108年東亞史評釋」,『海峽評論』349, 2020-1.

11 대만의 고등학교는 보통형과 기술형,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종합형으로 나뉘는데,『역사2』는 보통형 고등학교의 교재이다. 기술형 교재는 별도의 주제로 구성되며, 종합형 교재는 보통형 교재의 내용을 축약한 형태로,『역사2』의 경우 3개의 학습주제 가운데 '인구이동'만 다룬다. 따라서『역사2』의 한국사 내용은 보통형 및 종합형 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2]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역사교과서의 내용 변화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대만의 한국사 인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101과강에 따른 『선수역사』와 108과강에 따른 『역사2』 교과서이며, 판본은 채택률과 인지도 면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남일서국과 삼민서국 교과서이다.[13] 두 판본 중에서도 한국사 분량이 많고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남일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삼민판은 남일판과의 비교를 위해 살펴보고자 한다.[14] 서술의 편의상 한국사 관련 내용을 고조선~고려, 조선, 근대, 일제~현재로 시기를 구분하고, 남일판 『선수역사』와 『역사2』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2』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남일판 『역사2』와 삼민판 『역사2』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남일판 『역사2』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 교과서의 목차 구성은 〈표 2〉와 같다.

필자는 그동안 대만 역사과정 개혁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으며, 최근에는 108과강이 표방한 주요 내용들이 실제 『역사2』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했다.[15] 이 글에서 다룰 『역사2』의 한국사 내용 분석은 '탈중국'과 '친일본', '대만정체성' 강화로 대변되는 민진당정부의 역사과정 개혁에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 108과강 역사과정은 2019년 9월 신학기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0년 현재는 이행기이므로 108과강 『역사2』 초판본이 1학년에서 사용되고 있고, 101과강 『선수역사』 二版本이 3학년에서 사용되고 있다.

13 남일판은 역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최상위이며, 삼민판의 채택률은 2위이다. 卯靜儒, 2013, 「選什麼? 如何選? 爲何而選? 高中教師選擇歷史教科書之研究」, 『教育科學研究期刊』 58-2, 128쪽.

14 楊瑞松 等, 2014·2019, 普通型高級中學 『選修歷史(上)』, 南一書局; 陳元朋 等, 2014, 普通型高級中學 『選修歷史(上)』, 三民書局. 楊維眞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南一書局; 薛化元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三民書局.

15 김유리, 2020, 앞의 글, 149~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101과강 『선수역사』와 108과강 『역사2』의 한국사 관련 목차 비교[16]

101과강 남일판 『선수역사』	108과강 남일판 『역사2』	108과강 삼민판 『역사2』
없음	緖論. 중국과 동아	序篇. 중국과 동아의 만남 동아사에서 중국을 보다
一篇. 화하문명과 동아문화 교류 1장. 화하문명의 탄생 1.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 2. 선진사상의 발전 2장. 진한~수당의 문명발전 1. 학술사상과 종교 **2. 문화발전과 중외문화 교류** 3장. 당말~송대문명의 신면모 1. 당송의 학술사상과 사회생활 2. 당송시기의 과학기술문명 4장. 원명청시대의 문명변화 1. 중국근세의 문화변천 **2. 근세 동아의 문화** 5장. 근현대의 문명도전과 계기 1. 중국문화의 調適 **2. 동아문화의 신국면** 二篇. 서구문명(이하 생략)	一篇. 국가와 사회 1장. 국가의 통치 1. 전통 정치권위의 유형 **2. 동아 각국 전통정권의 발전** 3. 호적·토지·부역과 국가통치의 관계	一篇. 국가와 사회 1장. 국가의 통치 **1. 동아 국가의 통치 유형** **2. 제국의 통치기술**
	2장. 사회조직 1. 종교성의 사회조직 2. 혈연성 및 호조성의 사회조직	2장. 사회조직 **1. 종교조직과 민간사회** 2. 형형색색의 사회조직
	二篇. 인구의 이동과 교류 3장. 근대 이전 중국인의 이동과 교류 1. 13세기 이전의 인구이동과 교류 2. 13~19세기 인구이동과 교류	二篇. 인구의 이동과 교류 3장. 근대 이전 중국과 동아 인구이동 1. 변동하는 중국사회 **2. 동아 해역 각국의 상호작용과 교류**
	4장. 근대 이후 동아 인구의 이동과 교류 1. 중국인의 이동과 교류 **2. 일본, 조선의 인구이동** **3. 동아 인구이동의 영향**	4장. 근대 이후의 동아 이민 1. 華人의 해외이사 **2. 일본, 조선의 인구이동**
	三篇. 현대화의 여정 5장. 전통과 현대의 만남 **1. 서양문화 동아 전파의 영향** **2.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동아 국가의 대응** **3. 민간사회와 현대화의 격동**	三篇. 현대화의 여정 5장. 전통과 현대의 만남 **1. 서양 충격에 대한 동아 국가의 대응** **2. 현대 동아 국가의 형성**
	6장. 전쟁과 평화 **1. 전쟁하의 동아** **2. 동아 공산정권의 발전** **3. 동아지역의 협력과 충돌**	6장. 전쟁과 평화 **1. 동아와 제2차 세계대전** **2. 동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 **3. 동아와 새로운 국제상황**
없음	역사고찰	역사고찰편

출처: 楊瑞松 等, 2014 · 2019; 楊維眞 等, 2020; 薛化元 等, 20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고조선~고려

1. 남일판 『선수역사』

101과강에 따른 남일판 『선수역사』에서 한국사 내용은【제1편. 화하문명과 동아문화 교류】,《2장. 진한~수당의 문명발전》,〈2절. 문화발전과 중외문화 교류〉, '二. 동아지역 간의 문화전파와 교류'의 '㈠ 조선, ㈡ 일본, ㈢ 월남'에서 처음 등장한다.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절의 주제는 중국문화가 동아지역에 전파되는 상황이다. 도입부는 "… 정치종속관계에서 보자면 조선과 월남의 일부 지역은 일찍이 중국의 통치를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다. '㈠ 조선'에서는 "조선반도와 중국의 문화교류는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나라 유민이 조선으로 이동하여 기씨왕조를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 한무제시기 서북조선 부분을 한이 병합하여 중국문화 전파의 중심이 되었다. 그 후 조선반도에 **백제·신라와 고구려 등 삼국이 형성**되었다"고 서술했다(선수, 33)[17] 이어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유학·불교 및 전장제도(典章制度) 등을 받아들였는데, 고구려는 동북아 불교전파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백제는 일본에 유학을 전파했으며, 신라는 통일 이후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당화(唐化)의 정도가 매우 깊어 '군자국(君子國)'으로 칭해졌다"고 마무리했다(선수, 34).

『선수역사』는 세부항목의 제목인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18] 본문에서는 '조선'으로 '조선반도'를 지칭하거나 '조선반도 지역에 성립된 역대 왕조'를 통칭

16 교과서의 장절 구성은【篇】→《章》→〈절〉→ 소제목 一 二 三 → 세부항목 ㈠ ㈡ ㈢ → ① ② ③으로 구분했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한국사가 포함된 장절이다. 삼민판 『선수역사』의 목차는 남일판과 유사하므로 생략했다.

17 楊瑞松 等, 2019, 普通型高級中學 『選修歷史(上)』, 南一書局, 33쪽. 이하 본문에서 (선수, 쪽수)로 표기함.

18 대만의 역사교과서는 국호를 대체로 '조선'으로 호칭한다. 1995년 高中歷史課程標準에 의거한 『世界文化(歷史編)』는 동아문화권을 설명하면서 '중국·일본·한국·월남'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古偉瀛 外, 2002·2007, 『世界文化(歷史編)』(下), 三民書局, 89쪽)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즉, '조선'에 기씨조선, 삼국, 고려, 조선을 모두 포함했으며, 조선왕조는 '이씨조선'이나 '이조'로 지칭했다. '조선'이나 '이조'의 명칭은 101과강에 따른 것으로, 삼민판 등 다른 판본도 마찬가지였다.[19] 『선수역사』가 '조선'의 활동무대를 '조선반도'에 한정시키고, '조선'의 상고시대를 중국에 종속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등 한국고대사를 시종일관 중국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은 이전의 교과서들과 마찬가지이며,[20] 한국의 연구성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삼국의 형성과정을 '백제·신라와 고구려'라고 서술한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한국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4장. 원명청시대의 문명변화》,〈2절. 근세 동아의 문화〉에서 등장한다. 『선수역사』는 조선을 '一.이씨조선의 정치와 문화', '二. 이조의 과거제도와 유학'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대만의 역사교과서에 처음으로 한국사가 별도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21] '一. 이씨조선의 정치와 문화'는 조선건국의 배경으로 삼국과 고려를 1쪽 분량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2쪽에서 조선에 대해 설명했다. 첫 문장은 "서기 4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392년 이씨왕조가 건립되기까지, 조선의 정치국면은 삼국분립·신라통일·후삼국분립·고려통일의 4개 시기를 거쳤다"(선수, 66)고 하여, 마치 '4세기 말'부터 삼국시대인 것처럼 서술했다. 4세기 말은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여 전진(前秦)과 직접 교류한 내물마립간 시기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쪽 하단의 '그림 4-11. 조선정권 변천도'에서는 '조선삼국시대'를 427년부터 668년까지로 표시했다.[22] 427년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19 101과강, 25쪽; 陳元朋 等, 2014, 『選修歷史(上)』, 三民書局, 69~71쪽.

20 이성제, 2008, 「중화권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사 서술과 그 경향」,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42~47쪽; 박성현, 2009, 「타이완·홍콩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고대사 서술」, 송요후 등,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103~118쪽 참조.

21 김유리, 2016, 앞의 글, 99~100쪽.

22 2014년 남일판 『선수역사』 초판본은 보조단에 '표 4-1 조선정권 年代簡表'를 제시했는데, '三國鼎立'을 '57년~668년'으로 기재했다(선수, 초판본, 68쪽). 傅樂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때인데, 이때부터 '조선삼국시대'가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사를 중국과 한국이 공유한다는 이른바 '일사양용(一史兩用)'론(論) 가운데 평양천도를 기점으로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볼 수 있다는 탄지샹(譚其驤)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23] 앞서 삼국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백제·신라와 고구려 등 삼국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 것도, 고구려는 427년 평양천도 이후부터 '조선'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 뒤에 위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정권변화도'는 남일판 『선수역사』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사양용'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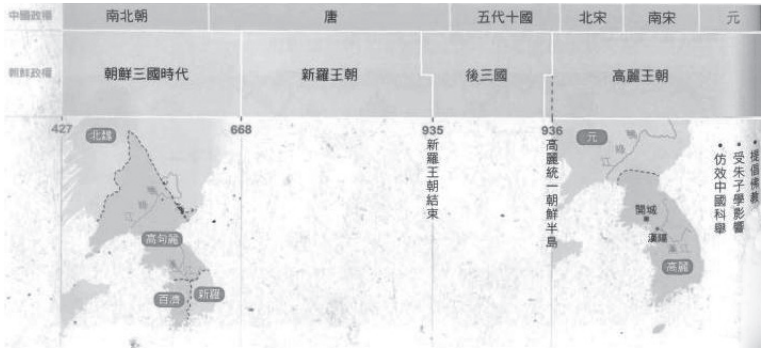


그림 1 101과강 『선수역사』(남일판)의 '조선정권변화도'

출처: 楊瑞松 等, 2019, 66쪽.

成의 『中國通史』 등에 따라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건국연대인 '漢 宣帝 五鳳元年'을 삼국정립의 기점으로 잡은 듯한데(박성현, 2009, 앞의 글, 115쪽), 문제는 오봉원년이 '기원전 57년'이라는 점이다. 2판본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조선정권변천도'로 대체한 것이다.

23 '一史兩用'을 주장하는 탄지샹은 고구려가 압록강 이북 集安縣에 도읍했던 시절은 중국 강역으로 처리하고, 5세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에는 이웃 나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譚其驤, 1994, 『長水集續編』, 人民出版社, 8~9쪽; 송기호, 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249~2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 『선수역사』는 "중국에 불교가 성행했을 때 **조선**도 불교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정토종·천태종과 선종은 **조선**에서도 상당히 유행했다. 그러나 송대에 불교의 영향력이 감소하자 **조선**도 그에 따라 변화했다"고 서술했다(선수, 66). 앞에서 '조선'은 조선반도를 의미하며, 시기적으로는 고려에 해당하는데 모두 '조선'으로 표기했다. 곧이어 "**고려왕조**는 958년 과거고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숭유중문(崇儒重文)의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 고려왕은 중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중국의 역사서와 유가경전을 대량 구매하여, 유가가 **한국**에서 정통지위를 확립했다"고 서술했다(선수, 66). 앞에서 '조선'으로 지칭하던 '고려왕조'를 뒤에서는 '한국'으로 지칭하는 등 『선수역사』에서 왕조(혹은 국호)의 호칭은 혼란이 극심했다. 〈2장 2절. 문화발전과 중외문화 교류〉에서 언급한 삼국 이전과 〈4장 2절. 근세 동아의 문화〉의 고려·조선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한국사의 왕조변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고려·한국 등의 호칭이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2. 남일판과 삼민판 『역사2』

108과강에 따른 남일판 『역사2』[25]에서 한국사는 【제1편. 국가와 사회】, 《1장. 국가의 통치》, 〈2절. 동아 각국 전통정권의 발전〉의 '一. 일본, 二. 조선, 三. 월남'에서 처음 등장한다. '二. 조선'이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절의 주제는 '조선' 지역에 성립했던 전통정권의 발전과정이다. 중국문화의 전파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던 『선수역사』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二.조선'의 도입부는 "오늘날 남·북한 정부는 모두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전설

24 2000년대까지 대만의 중국사 연구서에서 고구려는 백제·신라와 나란히 서술되어 한국사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박성현, 2009, 앞의 글, 120~139쪽), 남일판 『선수역사』의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의외이며 주목할 만하다.

25 楊維眞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南一書局. [이하 본문에서 남일판 『歷史2』는 (역사2, 쪽수)로 표기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단군조선' 시기까지 소급시켜, '단군조선'을 조선의 첫 번째 왕조로 삼는다. 그 뒤에 중국에서 온 '기씨조선'과 '위씨조선'이 있다"고 설명했다(역사2, 25).

바로 옆 보조단의 읽기자료인 '설서인(說書人): 단군조선'에서는 단군신화의 내용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13세기 고려왕조 때 만들어진 『삼국유사』에 고조선 시조인 단군의 신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반도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24세기에 형성된 단군이라고 한다. 단군의 개국 시기는 중국 신화전설의 요순시대보다 더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史籍에 있는 箕子에 관한 역사기록보다도 이르다. 이에 따르면 단군조선은 동아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된다. 현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군신화의 출현은 4세기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한다. 고려왕조가 단군신화의 시기를 기원전 24세기로 설정한 이유는,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높임과 동시에 조선의 역사가 중국으로부터 형성 발전되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었다.(역사2, 25)

이처럼 남일판 『역사2』는 '단군조선'은 신화전설에 근거한 것이며, 그 의도는 '조선' 역사의 유구성과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단의 '그림 1-12 조선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 연표'에는 '고조선시대'에 '단군조선·기씨조선·위씨조선'을 모두 포함시켰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남일판은 '단군조선'을 역사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당사국인 '남북한 정부의 주장'을 존중하여 고조선에 포함시켜 연표를 구성했다고 생각된다.

이어 『역사2』는 "조선반도 일부지역은 역사상 한(漢)·당(唐) 시기에 중국의 통치를 받았으나, 대부분 시기에 조선은 모두 자주정권이었고, 오랫동안 중국의 제도·학술과 종교 등 문화를 흡수했다"고 설명했다(역사2, 25). 남일판 『역사2』가 한·당을 제외한 시기 '조선은 자주정권'이었다고 명시한 것은, '중국의 직접통치'를 강조했던 『선수역사』와 명확히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삼민판 『역사2』[26]

---

26 薛化元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三民書局. [이하 본문에서 삼민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하 '삼민판')가 "4세기 이후 조선은 한으로부터 자립했지만, 단 후대 왕조도 중국과의 번속(藩屬)관계를 단속적(斷續的)으로 발전시켰다"(삼민판, 84)고 설명한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남일판『역사2』는 한·중 연구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번속관계'를 언급하지 않고,[27] 역대 '조선' 정권의 자주성을 강조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남일판『역사2』는 3쪽 분량의 '二. 조선'을 '㈠ 고대조선과 중국의 관계', '㈡ 고려왕조와 그 문화', '㈢ 조선왕조와 그 문화'로 나누어 설명했다.『선수역사』가 조선왕조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구성했던 데 비해,『역사2』는 고대조선·고려·조선으로 삼분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㈠ 고대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한 무제 시 출병하여 위씨조선을 멸하고 4군을 설치하여 조선반도 북부를 영유했다. 그중 낙랑군은 조선과 한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요지가 되었으며 남부의 나라들도 신복(臣服)했다. 4세기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의 3개 정권이 성립되어, 조선역사상 '삼국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25~26).『선수역사』에 비해『역사2』는 한사군 설치와 낙랑군의 위상을 강조했다. 고조선부터 한국사에 포함시켰으므로 고구려도 당연히 집안(集安)에 도읍했을 때부터 한국사에 포함되지만, '4세기 이후 삼국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선반도 북부'에 설치된 낙랑군이 313년에 축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비로소 한반도에 '자주정권'인 삼국이 정립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역사2』는『선수역사』에서 18줄에 걸쳐 설명되었던 중국 유가문화와 도교·불교의 전파과정은 4줄로 축소하고, 통일신라시기 "당조(唐朝)는 조선북부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은 새로 추가했다(역사2, 26).

『歷史2』는 (삼민판, 쪽수)로 표기함]

27 남일판은 '번속관계'라는 용어 대신 '宗藩·조공관계'를 사용하되, 한국사에서는 그마저도 언급하지 않았다. 월남의 경우에서 "북부지역이 중국의 통치를 받다가 10세기 독립하여 문화주체성을 추구했으며, 왕조가 교체되어도 중국과 종번·조공관계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楊維眞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歷史2』, 南一書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2 108과강 남일판 『역사2』의 '조선과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 연표'

출처: 楊維眞 等, 2020, 25쪽.

25쪽 하단의 '그림 1-12 조선과 외부세계의 상호작용 연표'(그림 2 참조)는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왕조로 이어지는 왕조변천표를 제시함으로써, 전통 왕조의 변천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역사2, 25). 〈그림 2〉에 제시된 연표는 단군조선을 기씨조선, 위씨조선 앞에 위치시키고, 이 셋을 모두 포함한 '고조선시대'를 중국 주대에 비정했다. '삼한시대'도 별도로 표기했다. 또 삼국시대를 4세기 진대(晉代)에 비정함으로써, 『선수역사』가 '조선삼국시대'의 시작을 427년으로 잡고 남북조시기에 비정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에 제시된 연표는 『선수역사』의 '조선정권변화도'에 비해 확 달라진 남일판 『역사2』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고려왕조와 그 문화'에서는 고려가 신라 쇠퇴 이후 조선반도를 재통일했으며, 불교의 도움으로 건국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는 대장경을 새겼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한문(漢文)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소개했다. 보조단에 '그림 1-13 해인사와 고려대장경' 사진을 게재하고 "고려대장경은 남한 해인사에 현존하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26). 『선수역사』가 중국문화의 전파과정에 주목했던 데 비해 『역사2』는 '고려왕조와 그 문화'라는 소제목에 걸맞게 고려대장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어 "고려는 유교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과거제를 실시하고 국자감을 설립했는데, 원래의 지방호족과 신흥유사(儒士)가 음서와 과거제도를 빙자하여 관직을 농단하고 연혼(聯婚)방식을 통해 서로 제휴하여 중국의 세족문벌과 유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26). 이로써 지방호족·신진사대부·문벌귀족 등 고려사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남일판 『역사2』는 이전 『선수역사』와는 달리, 고대조선에서는 '단군조선'을 언급하며 단군신화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고, 연표에서는 단군조선을 기씨조선·위씨조선 앞에 병렬시켰다. 한·당을 제외한 대부분 시기 '조선은 자주정권'이었다고 명시했으며, 삼국정립은 4세기로 앞당기고, 중국 문화의 전파과정은 1/4 이상 축소했다. 고려왕조에서는 고려사의 주요 개념과 고려대장경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고려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선수역사』가 101과강에 따라 '중국문화의 전파과정'을 설명한 반면, 『역사2』는 108과강에 의거하여 '동아 각국 전통정권의 발전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108과강에 따른 『역사2』 교과서라 하더라도 모두 남일판과 같은 방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삼민판 『역사2』는 남일판과는 달리, 108과강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주제별로 나누어 중국과 동아 각국을 설명했다.[28] 한국사는 〈1장 1절. 동아 국가의 통치유형〉, '五. 동아 기타지역정권의 통치정당성: 일본, 조선과 월남', '㈡ 조선'에 처음 등장하며, 1쪽 분량으로 고대~고려를 설명했다. 삼민판은 각각의

28 남일판 『역사2』가 전근대시기 동아 각국에 대한 설명을 〈1장 2절. 동아 각국 전통정권의 발전〉에 몰아서 설명한 것과 달리, 삼민판 『역사2』는 〈2장 2절. 형형색색의 사회조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에서 중국과 동아 각국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설명했다. 김유리, 2020, 앞의 글, 158~16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제에 따라 '조선'의 경우를 설명하다보니, 서술 분량은 많지 않다. 이 주제에서 남일판이 '전통정권의 발전과정'에 주목한 반면, 삼민판은 108과강에 규정된 또 다른 요소인 '전통정권의 통치정당성'에 주목했으므로 서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조선은 … 일찍부터 중국과 왕래했으며 한 군현의 통치를 받다가 4세기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삼국이 제제국가(帝制國家) 형태로 진입했다. 삼국은 중앙집권식 국가체제를 건립했고, 군주는 통치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천제(天帝)의 아들 혹은 그 대리인을 자처했으며 음양오행사상을 운용했으니, 이 점에서 중국 황제가 채용한 방식과 서로 유사했다"(삼민판, 19)고 설명했다. 삼민판에는 단군조선이나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다. 또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조선이 4세기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마치 4세기 이전에는 조선반도 전체가 중국의 통치를 받은 것처럼 서술했다. 삼국이 '제제국가(帝制國家)' 형태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통치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음양오행사상을 이용했다는 것도 한국학계의 연구와는 다르다.[29] 고려의 경우,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고려 창업이 부처의 보살핌과 출신지 지덕(地德)의 소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고려가 통치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음양오행설을 지덕설로 확충하고 불교의 도움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삼민판, 19), 이 역시 음양오행설보다는 도참설이나 도참사상이 적합할 것이다. 삼민판은 역사 사실을 설명하는데 세심하지 못했으며, '전통왕조의 통치정당성'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다보니, 적절치 못한 설명이 군데군데 나타났다.

29 삼국은 대체로 건국신화와 불교를 통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했으며, 유교적 정치이념도 활용했으나 오행사상보다는 역사서 편찬·유학교육기관 설립·제사체계의 정비 등을 이용했다. 조경철, 2016, 「정신세계와 지배 이데올로기」,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②』, 푸른 역사, 164~2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조선

1. 남일판『선수역사』

전술한 대로『선수역사』는〈4장 2절. 근세 동아의 문화〉의 '一. 이씨조선의 정치와 문화' 및 '二. 이조의 과거제도와 유학'에서 조선시대를 2쪽에 걸쳐 상세히 서술했다. "이씨조선은 건립 후 정치적으로는 명과 종속관계를 유지했으며, 문화적 교류를 가속했다. 정주리학(程朱理學)이 조선정부가 추숭하는 정통학설이 됨에 따라 조선학자들은 불교·노장사상을 배척하고, 양명학을 적대시했으며 이학(異學)으로 보았다. 세종 때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이후 대량의 중국 서적이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 민간에까지 유통되었다. 세종은 명나라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모방하여 삼강행실도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한화(漢化)' 정책을 펴서 조선에서 '해동요순(海東堯舜)'이라는 미명(美名)을 얻게 되었다"고 서술했다(선수, 66~67).『선수역사』는 조선왕조에 대한 설명에서도 '명과의 종속관계', '한화'정책, '해동요순의 미명(美名)' 등 중국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조선에 대한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조했다.

'二. 이조의 과거제도와 유학'에서는 "이씨조선의 과거제는 명대 과거제에 비해 제한이 많아 일반인은 응시하기 어려웠고 '양반'이라고 불리는 귀족가정에게 농단되었기 때문에, 과거제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다. 정주리학 위주의 유학사상이 과거제의 주요 내용이자 지식계층의 주요 사상이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사림파는 서원을 통해 삼강오상(三綱五常)의 윤리교화를 가정윤리로 널리 보급하고,『주자가례』를 선양하여 가정의 일상의례로 규범화했다. 과거제와 유교윤리는 통치계급으로서 양반의 지위를 강화했으며 19세기 말 현대화 개혁에 와서야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성균관을 설명하면서 "'성균'이란 말은 주례에서 연원했으니, … 이로써 '소중화'를 자임한 조선이 중국 유가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수, 67~68). 여기서도 성리학과 '소중화' 등 조선사회에 널리 퍼진 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의 영향을 강조했다. 또 '양반'의 귀족가정이 과거제를 농단하고 유교윤리를 통해 지위를 강화하여 조선은 19세기 말까지 사회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조선사회를 보는 구미 학계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30]

2. 남일판과 삼민판 『역사2』

남일판 『역사2』는 전술한 〈1장 2절. 동아 각국 전통정권의 발전〉, '二. 조선'에서 '㈠ 고대조선과 중국의 관계', '㈡ 고려왕조와 그 문화'에 이어 '㈢ 조선왕조와 그 문화'를 1쪽 분량으로 설명했다. 조선왕조에 대한 설명이 『선수역사』의 절반가량으로 축소됨에 따라 중국문화와 유학에 관한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축약되었다. 또 조선과 명의 종속관계, 양반귀족의 과거제 농단과 유가윤리를 통한 지위 강화 등 한국과 국제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제되었다.

특히 남일판 『역사2』는 조선왕조를 '이씨왕조'·'이조'가 아닌 '조선'으로 호칭함으로써, 왕조명에 관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조선'으로 조선반도를 지칭하기도 했지만, 조선왕조와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시기별로 대한제국·한국 등의 호칭도 적절히 사용했다. 이는 108과강이 조선왕조를 '조선'으로 지칭함에 따른 것이다.[31] 필자로서는 이전 『선수역사』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던 '조선'의 호칭을 정리한 것이 남일판 『역사2』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㈢ 조선왕조와 그 문화'에서는 『선수역사』에서 각주로 처리되었던 이성계의 조선건국과 한양정도를 맨 앞에 설명함으로써 한중관계사가 아닌 한국사체제를 분명히 했다. 조선 건립 후 문화와 법치가 주자학에 기초했다는 설명에 이

30 존 B. 던컨, 1997, 「미국 내 한국 전근대사 연구경향」, 『역사와 현실』 23, 179~186쪽.

31 108과강, 1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세종 때 국가체제를 완비하고, 음운을 연구하도록 명하여 ‘언문(諺文)’을 창제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자”라고 설명했다. 보조단의 ‘그림 1-14 언문’에서는 “백성이 정확하게 독음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창제했으므로 ‘훈민정음’이라고 칭했다”고 설명했다. ‘신(信)·편지(便紙)·편지·pyeonji’의 방식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중문·한국한자·언문·라틴병음을 비교 설명했다(역사2, 27). 한글의 모양과 발음이 중국어나 한자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전 『선수역사』가 훈민정음 언해본 사진을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설명방식이다.

이어 조선정부가 중앙에 성균관을 설립하고, “지방에는 향교와 사학에 속하는 서원을 설립했다”고 추가했다. “유가의 삼강오상을 정부가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유자사인(儒者士人)이 널리 보급했으므로 인심에 깊이 심어져 가부장적 관념도 점점 농후해졌다. 정부는 양천(良賤)을 구별하는 신분제도를 건립했다. 양인 가운데 양반은 지위가 최고이며 고급관리가 되어 특권을 향유했다. 그 외 양반의 기층관원을 협조하는 자를 중인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역사2, 27). 『선수역사』에서 강조되었던 양반의 지위 강화를 『역사2』는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대신 양천제의 신분제도와 중인계층을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남일판 『역사2』는 『선수역사』에 비해 성리학과 삼강오륜, 과거제와 성균관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줄이고, 명과 종속관계· 양반귀족의 농단 등 논쟁이 되는 부분은 모두 삭제했다. 반면 이성계의 조선건국, 세종의 한글창제, 향교·서원·중인 등 조선사의 핵심 내용들은 새로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왕조에 대한 설명 분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훨씬 짜임새 있는 구성이 되었다.

삼민판 『역사2』는 전술한 대로 한국사를 각 주제별로 분산시켜 서술했다. 〈1장2절.제국의 통치기술〉 ‘一. 중앙집권제도’ ‘㈢ 관리선발제도’ ‘④ 동아 기타 지역의 과거제도’는 조선의 과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이 과거제를 실시한 기간은 약 10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로 중국 다음으로 길다. 중국 과거제와 달리, 14세기 이후(조선왕조시대) 과거제는 점차 귀족자제들에게 농단되어 귀족의 통치지위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삼민판, 26). 조선에서 과거제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세기부터 귀족들에게 농단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를 지목하는 한국학계의 연구경향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32]

'三. 율령제도의 시행' '㈁ 일본·조선이 율령국가가 되다'에서는 "**조선**에서 율령국가체제의 시행은 7세기 중엽 이후 신라통일시기에 시작되었는데,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신라는 율령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귀족을 행정관료로 만들어 왕권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8세기 중엽 이후 **조선귀족**이 율령체제에 반대하여 왕권약화를 의도했다. 그 후의 고려왕조와 **이씨조선** 왕조도 모두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국내 귀족세력이 강대하여 결국 왕권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는 건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삼민판, 33).

인용문에서 '조선'은 조선반도를, '조선귀족'은 통일신라귀족을 의미한다. 삼민판은 '조선'으로 역대 왕조를 통칭하고,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으로 칭하는, 왕조 호칭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복했다. 108과강에서 '이씨조선'이 '조선'으로 수정되었음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통일신라시기에 율령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3~4세기에 백제와 고구려가, 6세기에 신라가 율령제를 도입했다고 보는 한국학계의 연구와는 맞지 않는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족세력이 강대하여 왕권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구미학계의 주장도 여전히 나타났다.[33] 결국 삼민판 『역사2』의 조선시대 서술은 중·일 및 구미학계의 연구에 의존해온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국학계의 동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똑같이 108과강에 의거한 교과서라 해도, 삼민판 『역사2』는 남일판 『역사2』와 한국사 인식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32 차미희, 2004, 「조선후기에는 왜 과거제도의 폐해가 발생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16, 155~164쪽;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科擧)』, 소명출판.

33 존 B. 던컨, 1997, 앞의 글, 179~1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근대

108과강에 따른 『역사2』는 《4장. 근대 이후 동아 인구의 이동과 교류》에서 〈2절. 일본·조선의 인구이동〉을 독자적인 절(節)로 구성함으로써, 남일판·삼민판을 막론하고 대만 역사교과서의 권두 목차에 처음으로 '조선'이 등장했다. '인구이동과 교류'는 108과강에 새로 포함된 학습주제이므로 101과강 『선수역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34] 남일판 『역사2』는 〈5장 1절. 서양문화 동아 전파의 영향〉 '二. 서양문화의 동아에 대한 영향'에서도 조선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 또한 『선수역사』에는 없던 내용이다. 『선수역사』는 〈5장 2절. 동아문화의 신국면〉에서 개항부터 병탄까지 다루었을 뿐이다. 따라서 우선 『역사2』에 신설된 '조선의 인구이동'과 '서양의 영향'을 남일판 『역사2』에서 확인하고 삼민판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개항 이후 병탄까지는 다시 『선수역사』와 남일판·삼민판 『역사2』의 내용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1. 인구이동

남일판 『역사2』는 〈4장 2절. 일본, 조선의 인구이동〉, '二. 조선의 인구이동'을 3쪽 분량으로 설명했다. "19세기 조선은 정치경제 국면이 불안하고 자연재해가 빈발함으로써 민변이 계속 발생했고, 19세기 후반에는 일본까지 침입하여 궁핍한 인민들이 살기 위해 중국 동북변경으로 이동했다"고 전제한 뒤 '19세기 독립시기'와 일본식민통치시기로 양분하여 설명했다.

'㈠ 19세기 독립시기의 이민'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통상항구를 개방하고 일본화폐의 유통과 관세감면 등을 허가하자, 일본인들이 조

34 다만, 2005년 반포된 '95잠강'에 따른 『선수역사(하)』에 'I. 화교에서 해외화인으로'라는 주제로 중국인의 해외이민에 다룬 내용이 있었으므로, 『역사2』의 〈4장 1절. 중국인의 이동과 교류〉의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으로 들어왔다. 당시 서양 각국의 상품이 대량으로 조선에 들어와 전통수공업에 충격을 주고 농촌경제의 쇠퇴를 가속시켰으므로,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는 조선 빈민이 날로 늘었으며,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 변경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역사2, 94). 개설적인 설명이지만, 19세기를 '독립시기'로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 일본식민통치시기의 이민'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했다. "1910년 일한합병(日韓合併) 이후 일본당국이 대량의 농지와 식량을 침탈하자, 조선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선적(朝鮮籍) 일본공민(日本公民)'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생계를 도모했다. 제1차 세계대전 폭발 후 일본은 군수산업이 발흥하자 조선노동자를 대거 모집하여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중에는 혈혈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취직하는 형식도 적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은 1921년에 3만여 명, 1931년 30만 명, 1945년에는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역사2, 95).

> … 단, 값싼 조선노동자는 일본 현지의 노동자에게 배척당했고,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이 독립항쟁분자가 잠입할까 봐, 조선인의 일본 취업을 제한했다. 그러자 한국 독립운동인사들은 일본 국경 밖으로 진출하여, 상해조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항일운동을 지속했다. 중일전쟁이 폭발하고 전면전쟁 단계로 진입하자 일본 국내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졌다. 우선 조선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모집해 일본으로 데려가고, 태평양전쟁 후에는 강제적인 노동력징발(징용)도 실시하여,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28만여 명에 달했다.
>
> 이 외에도 일본제국의 확장에 따라 많은 조선인민들이 정치 동원되거나 강제 징용당하여, 일본제국 각지에 이주하여 생계를 도모했다.* 동북지역은 1931년 9·18사변 이후 일본이 만주의 농공생산을 촉진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인을 동원하여 동북에 이주시켜 간척하게 했다. 19세기 이후 계속된 이주로 인해 동북지방의 한국인 후예가 적지 않으므로, 현재 중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치하여 언어와 문화전통을 보호하고 있다.(역사2, 95~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해서는 따로 보조단에서 ‘일본제국 경내 조선인의 이동’에 대한 통계에 의거하여, 1940년 전후 재일조선인은 200만 명, 만주에 150만 명, 일본 점령하의 중국 각지에 10만 명, 사할린에 약 1만 6,000명, 대만에도 2,000여 명이 있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일본식민통치시기의 조선인 인구이동은 일본 측 자료와 연구에 의거했을 것이다. 단, 본문 하단의 참고자료인 ‘조선의 쌀 생산과 분배의 변화’표는 “李元淳·詹卓穎 譯, 『韓國史』, 臺北: 幼獅文化, 1987, 334쪽”에 근거했음을 밝히고 있어(역사2, 95),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도 활용했음을 보여주었다.

남일판 『역사2』는 〈4장 3절. 동아 인구이동의 영향〉에서도 조선의 사례를 언급했다. ‘一. 문화의 교류’ ‘㈠ 고향에서 타향으로’에서는, “중국 동북변경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홋카이도의 내한성 볍씨를 들여와 재배함으로써 대두·고량을 주로 키우던 동북지역에 논이 출현했으며, 거주지를 정하여 고향문화를 보존하는 대표적인 중국조선족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98). ‘二. 정체성의 변화’ ‘㈠ 현지사회의 배척’에서는 1923년 동일본의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가 퍼져 재일조선인과 중국인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설명했다(역사2, 100). ‘㈡ 이민의 국가정체성’에서는 “이민의 민족정체성(國族認同)은 개인의 주관적 선택 외에 현지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은 다민족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적취득이 쉬워진 반면, 일본·한국은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외교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민자들과 그 후예들이 국가정체성(國家認同) 면에서 곤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역사2, 102).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일 양국의 정서와 중국수교·대만단교로 인한 대만인들의 불만이 이민자들의 국적취득을 어렵게 했다는 설명이다.

삼민판 『역사2』는 〈4장 2절. 일본·조선의 인구이동〉 ‘二. 근대조선의 이민’을 무려 4.5쪽에 걸쳐 설명했는데, 이는 한국사 전체분량의 1/3에 해당한다.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민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외 지역으로의 이민도 추가하여 설명했다. ‘㈠ 19세기 중엽 이후의 이민’은 “… 1870년 약 7만 7,000여 명의 조선인이 동북으로 이주했는데, 청조는 이들을 위한 개간구역을 획정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리단위를 설립한 뒤, 조선인도 변발과 만주복장을 한 뒤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면 토유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한편 청조는 조선과의 무역왕래를 강화하기 위해 1882년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과 1884년 인천화상조계장정(仁川華商租界章程)을 체결하여, 화상(華商)의 조선이주를 촉진했다"(삼민판, 124)고 설명했다. 19세기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중국 상인의 조선이민에 대한 삼민판의 설명은 남일판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㈡ 일본통치시기의 조선이민(20세기 초기)'은 1910년대 이후 중국동북으로의 농업 이민과 일본으로의 노동자 이주를 설명했다.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폭증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재일조선인의 귀향률은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니, 그들이 일본에서 받았던 불공평한 대우와 관련된다. 일본에 남아 일본국적을 선택한 조선인도 적지 않았으나, 이들 역시 완전히 공평한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삼민판, 125~127).

'㈢조선인의 기타지역 이민'에서는 20세기 초반 하와이 이주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민을 설명하면서, 1950~1964년까지 대략 1만 5,000여 명의 남한인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이후에도 남한인 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이민의 경우 1919년 이후 대만의 기륭(基隆) 등지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조선인과, 일본에 의해 노동자나 군인으로 징발되어 대만에 온 조선인이 총 3,000~4,000명인데, 제2차 세계대전 후 400~500명가량만 대만 북부에 남았다고 설명했다(삼민판, 127~128).

인구이동의 경우, 삼민판(4.5쪽)이 남일판(3쪽)에 비해 분량도 많고 내용도 상세하다. 남일판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에 주목했다면, 삼민판은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조선인에 주목하는 한편, 하와이·미국·대만으로의 이민까지 소상하게 설명했다. '조선인의 인구이동'에 관한 한 삼민판의 설명은 남일판에 못지않았다. 이처럼 '근대 이후 조선인의 인구이동'이라는 주제가 역사교과서에서 3~4쪽에 걸쳐 소상하게 다뤄진 적은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없었다. 한국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도 '인구이동'이라는 주제가 있지만,[35] 고대부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세기 무렵까지만 다루고 근대 이후는 다루지 않았다. 근대 조선의 인구이동에 관한 『역사2』의 설명이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2. 서양의 영향

남일판 『역사2』는 〈5장 1절. 서양문화 동아전파의 영향〉 '二. 서양문화의 동아에 대한 영향'을 '㈠ 16~18세기 동서교류'와 '㈡ 19세기 서양세력 충격'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각 조선의 경우를 포함했다. '㈠ 16~18세기 동서교류', '② 조선'은 0.5쪽 분량으로 "17세기 서양의 종교와 지식이 주로 중국에서 한역(漢譯)된 서양서적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서양 선교사는 조선에 (교단)조직을 건립하지 못했다. 18세기 후반 처음으로 조선학자가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전교했다. 천주교의 평등박애관은 재야인사와 하층계급에게 일정한 흡입력이 있었으나, 전통 유가체제와 충돌함으로써 정부의 금지와 박해를 받았고 서학의 전파는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역사2, 114). 보조단의 참고자료인 '소보첩(小補帖): 조선의 금교(禁敎)'는 천주교도 윤지충의 순교와 조선정부의 서양서적 수입 금지를 추가 설명했으며, 하단의 읽기자료인 '설서인(說書人): 첫 번째 한국인 신부'는 조선 출신 최초의 신부이자 최초의 순교 신부인 김대건(1821~1846)의 일생과 1984년 성인추대를 소개했다.

'㈡ 19세기 서양세력 충격', '②조선'은 1쪽 분량으로 "19세기 전반 조선정국은 권신과 외척에게 장악되었고 재해와 민변이 빈발했으나, 실학을 중시하는 관원들은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일 양국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통상하게 했으나, 조선의 관신(官紳)은 여전히 화이(華夷)의 구분을 중시하

35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에서는 〈Ⅱ-1. 인구이동과 교류의 증대〉, 50~51쪽;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에서는 〈Ⅱ-1. 인구이동과 전쟁〉, 46~48쪽;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에서는 〈Ⅱ-1. 인구이동과 정치·사회변동〉, 47~48쪽 참조. 안병우 등, 2012, 2014, 2019,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개방통상이 국가의 안전을 위급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조선은 프랑스와 미국을 격퇴한 뒤 쇄국척화 정책을 더욱 강조했다. 서구화개혁 후의 일본이 1876년 무력으로 조선을 압박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뒤, 조선은 서방문명을 들여올 수 있었으나 열강의 쟁탈 목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117). 117쪽 하단의 '그림 5~6 개항 전의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견지·통상거절 → 1866년 병인양요(조선 승리)·1871년 신미양요(조선 승리) → 척화비 건설과 쇄국정책 강화 → 강화조약 체결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했다. 두 차례 양요(洋擾) 부분에 '조선 승리'를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삼민판『역사2』는 16~19세기 서양의 영향을 중국과 일본의 경우만 설명하고, 조선과 월남은 생략했다. 남일판이 조선·월남은 물론이고 동남아까지 서술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3. 개항~병탄

1) 남일판『선수역사』

개항에서 병탄에 이르는 과정은『선수역사』에도 1쪽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다. 〈5장 2절. 동아문화의 신국면〉, '二. 조선이 현대문명의 도전에 직면하다'라는 소제목으로 1910년까지를 다루었다. "조선은 1876년 개항 당한 후 변법개혁을 시작했으나, 현대화의 방향에 대해 급진적 개혁노선을 주장하는 개명파와 완만한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보수파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선수, 85). '개명파'라는 용어도 부적절하지만, '완만한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보수파'는 보수파가 아니라 온건개화파에 해당한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으로 대표되는 개명파는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해외로 망명했으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의 지지를 받고 권토중래하여 1894~1897년 이른바 '갑오개혁'을 진행했다. 갑오개혁은 중국과의 조공관계와 불평등무역조약을 중지하고, 조선 내부의 사회계급도 대폭 개혁하여 정치권위가 더 이상 양반계급에게 농단되지 않도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으며, 현대적 법률제도를 건립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보수세력이 반대하고, 특히 조선왕실이 보수적인 러시아와의 합작을 선택하여, 갑오개혁 중 친일적 색채가 강한 조치들을 다수 폐지함으로써, 개명파의 현대화 정책들은 다시 한번 좌절되었다. 조선은 개항 이후 현대화 정책을 통하여 독립자주국가 건립이라는 이상을 달성하려 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해 겸병된 후 파멸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선수, 86).

이처럼 『선수역사』는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와 김홍집 등의 온건개화파를 구분하지 않고 '개명파'로 통칭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모두 김옥균·박영효 등 '개명파'가 주도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리고 '개명파'의 '현대화정책'이 '보수세력의 반대'와 '보수적인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인해 좌절된 것처럼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선수역사』가 '참고자료: 갑신정변의 역사의의'에서 "갑신정변은 한국 근대화 운동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정강에 포함된 개화사상은 이후 1894~1985년 갑오개혁 … 등으로 계승되어 점차 실현되었다"는 '李元淳等著, 『韓國史』(臺北, 幼獅, 1987, 頁277)'를 인용했지만, 정작 본문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36]

보다 중요한 점은 『선수역사』가 일본의 야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본이 개명파의 현대화 정책을 지지했다', '친일적 조치들을 폐지함으로써 현대화 정책들이 좌절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친일적 조치가 곧 현대화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소제목에서 조선이 직면하게 된 '현대문명의 도전'이란 것이 결국 서양과 중국·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제목부터 다분히 제국주의 침략, 특히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86쪽 보조단의 '그림 5-16 명성황후' 사진[37]이나 '그림 5-17 대한제

36 李元淳 等 著, 詹卓穎 譯, 1987, 『韓國史』, 臺北: 幼獅文化, 268~277쪽 참조. 역자인 詹卓穎은 역자서문에서 이원순·최병헌·한영우 공저의 방송통신대학 교재를 번역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1983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에서 발행한 『國史』 교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37 주한 이탈리아 공사였던 카를로 로제티의 『꼬레아 꼬레아나, 1904년』에 실린 궁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 흥선대원군(좌)과 고종(우)' 사진[38]은 모두 진본이 아니므로 사실 오류에 해당한다.

2) 남일판과 삼민판 『역사2』

남일판 『역사2』는 〈5장 2절.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동아 국가의 대응〉에서 개항부터 병탄까지의 시기를 '三.조선이 자주독립을 추구하다'로 명명했다. 『선수역사』의 '조선이 현대문명의 도전에 직면하다'와 뚜렷이 비교된다. 분량은 『선수역사』와 같지만 본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 조선이 강제로 개항당한 후, '개화'사상을 지닌 관원이 점차 늘어났으며 온건파와 급진파로 구분되었다. 온건파는 청조의 자강운동을 본받아 전통정치체제 및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東道西器'의 기술개량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므로 '親華派'였다. 급진파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방하여 구습을 타파하고 '군주입헌'의 정치체제 개조를 시행하자고 제창했으므로 '친일파'였다.
>
> 1894년 청일전쟁 폭발 후 친일파가 장악하고 있던 조선내각은 과거제와 신분제도 폐지, 단발 강제, 서력 채용을 선포했다. 1897년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으로 개칭했으며, 군권을 강화하여 열강에 저항하고자 했다. 단,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하여 점점 주권을 상실하고 1910년 일본에 併呑되어 식민지가 되었다.
>
> 문호개방 이후 조선 왕실은 정쟁이 끊이지 않았고, 청·일·러시아 및 열강의 영향을 받았으며, 외세에 반항하고 서구화를 배척하는 민간항쟁도 있었다. 현대적인 체제를 건립하려는 시도에는 누차 대립이 발생했으나, 국가의 자주지위 확보를 호소한 점에는 일치했다. 마침내 망국의 아픔으로 인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復國

여인 사진이다. 한때 한국의 교과서에도 실렸으나, 1990년대 초 사진 속 주인공이 궁녀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삭제되었다.

38 사진 속 인물은 興親王 李載冕(完興君)과 그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운동으로 초점이 전환되었다.(역사2, 125~126)

'개화'사상,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일본의 간섭'과 '병탄' 등의 용어를 통해, 이원순 등 『한국사(韓國史)』[39]의 내용을 본문 서술에 적극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단, '친화파'·'친일파'의 표현은 『한국사』가 아니라, 대만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다.[40] 『선수역사』가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정식으로 겸병된 후 파멸을 선고했다"(선수, 86)고 설명한 데 비해, 『역사2』는 "일본에 의해 병탄되어 식민지가 되었다"(역사2, 125)로 서술함으로써, '겸병'·'병합'이 아닌 침략에 의한 강점, 즉 '병탄'이었음을 명시했다. '병탄'은 『역사2』가 일본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관점에 유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이다. 또 정쟁 뿐 아니라 일본의 간섭과 외세의 영향, 민간 항쟁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조선인들이 누차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주지위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125쪽 보조단과 하단에는 '그림 5~9 근대조선의 변혁'이라는 줄연표를 배치하여 '1863년 흥선대원군의 권력장악'에서 '1910년 일본의 조선병탄'에 이르는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역사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 '1897년 고종칭제' 항목에 첨부된 사진자료도 고종의 사진으로 교체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남일판 『역사2』의 개항에서 병탄까지의 설명은 한국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졌다.

이 외 남일판 『역사2』는 〈5장 3절. 민간사회와 현대화의 격동〉에서도 중

39 李元淳 等 著, 詹卓穎 譯, 1987, 앞의 책, 268~325쪽 참조.

40 張玉法의 『中國近代現代史』(1978/2001), 傅樂成의 『中國通史』(1979) 등에서는 "舊黨(사대당)은 親華를 주장하고, 新黨(개화당)은 親日을 주장했다"는 식으로 갑신정변을 설명한다. 이은자, 2009, 「타이완의 대학 역사교재 분석」, 송요후 등,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40~2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일본과 함께 조선의 상황을 소개했다. '一. 서양문화의 환영·거부'에서는 19세기 동아 각국이 서양으로부터의 학습(向西方學習)을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 전통문화의 견지' '③ 조선' 항목에서는 "청조가 들어서자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정통유학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다. 서양세력이 밀고 들어오는 19세기에 '위정척사'를 강조하며 전통문화 보존을 견지하는 지식분자가 있었으며, 1894년 '동학당사건'이 발생하자, 민간역량과 결합하여 서양세력에 대항했다"고 설명했다(역사2, 129). '동학당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추가 설명했다. '㈁ 신지식분자의 출현'에서는 "조선과 월남은 과거제 폐지 후 서학이 점차 전통유학을 대체했으며, 지식분자들은 서양문명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부분 민족국가의 부흥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역사2, 129). '三. 서양 물질문명의 도입'에서는 1920~1930년대 상해가 현대적인 소비도시로 변모함을 설명하면서, 조선도 한성 외에 통상항구인 인천에 서양식 생활풍습이 보급되었다고 설명했다(역사2, 132). 짧은 설명이지만 중국·일본과 아울러 한국을 빠짐없이 거론한 점이 주목된다.

반면에 삼민판『역사2』는 남일판과는 달리 〈5장 1절. 서양 충격에 대한 동아 국가의 대응〉에서 중국·일본만 설명하고 조선은 생략했다. 조선은 청일전쟁의 배경으로 언급되었을 뿐인데, 주목할 점은 "조선은 원래 청제국의 번속국(藩屬國)이었다. 1884년 조선의 친일파들이 정변을 일으키자, 일본이 출병하여 간섭했다. 사후에 청·일은 조선에 사건이 발생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출병하기로 약정했다. …"(삼민판, 144)고 설명한 것이다. 삼민판은 앞서 "4세기 한으로부터 자립한 후에도 조선의 역대 왕조는 중국과 번속관계를 단속적(斷續的)으로 발전시켰다"(삼민판, 84)고 설명한 데 이어, 또다시 "조선은 원래 청의 번속국"이라고 설명했다. 삼민판은 이전『선수역사』에서 "1275년 고려는 몽고에 칭신(稱臣)하여 원조(元朝)의 번속(藩屬)이 되었다"(선수, 69), "이조는 건국 이래 중국을 종주국으로 받들었다"(선수, 89)고 서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역사2』에서도 중국과의 '번속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삼민판은 조공책봉 관계에서 '신속(臣屬)'을 강조하는 대만 학계의 연구경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반영하며,[41] 중화주의적·대국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42] 한편,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이른바 '번속이론'이 주장되고 있어 '번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43] 삼민판이 '번속이론'까지 수용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번속'·'번속국'이 한·중 간에 큰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했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나 연구성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44] 또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해전이 폭발했다'고 서술하여, 일본의 야욕과 전쟁도발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삼민판은 조선의 개항 이후를 〈5장 2절. 현대 동아 국가의 형성〉, '一. 19세기 말·20세기 초 각국의 정치발전'에서 설명했는데, 제목은 '㈢조선이 일본식 민통치를 받다'였다. 그중 병탄까지의 과정은 '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에서 단 6줄로 축약했다. "조선은 국제정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 중

41 대만에서는 1970~1980년대 張存武·林明德 등에 의해 청말 '종번관계'의 강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려가 원에 칭신했다"는 서술은 傅樂成의 『中國通史』(1960)에서 보인다. 조공책봉관계를 실질적인 '臣屬'관계로 이해한 것은 高明士의 『中國通史』(2007)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송요후 등, 2009,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131~139쪽, 156쪽 참조.

42 대만 대학 교재의 조선사 서술을 분석한 송요후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을 분석한 장희흥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중화의식·대국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요후 등, 2009, 위의 책, 219쪽; 장희흥, 2009, 「중국계 역사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대만·홍콩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47, 222~223.

43 최근 중국에서는 黃松筠 등이 이른바 '藩屬理論'을 주장하면서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신라·고려·조선까지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맺고 있던 한반도의 역대 왕조가 모두 중국에 臣屬하는 '藩屬國' 혹은 '속국'이었다고 주장했다.이석현 등,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17~56쪽, 197~228쪽.

44 1880년대 청이 전통적인 '上國-屬邦' 관계를 근대적인 '종주국-속국'의 관계로 치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조선이 강하게 반발했음은 물론 서양 각국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선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189~194쪽; 김형종, 2017,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 『동양사학연구』 140, 223~27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엽이후 개화파가 구미국가들과 통상을 개방하려 했다. 그러나 개화파와 보수파의 정쟁이 끊이지 않아 정국이 불안했다. 게다가 1876년 일조수호조약(日朝修好條約)을 체결한 이후 일본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다. 1897년 이씨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일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1910년 일본과 일한병합조약(日韓併合條約)을 체결하게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간단히 서술했다(삼민판, 152). 남일판이 '조선이 자주독립을 추구하다'로 명명했던 시기를 삼민판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로 명명하고, '이씨조선'·'일조(日朝)수호조약'·'일한(日韓)병합조약' 등등 일본에 편향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108과강으로 바뀌었어도 삼민판 『역사2』의 한국사 인식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V. 일제~현재

101과강 『선수역사』에는 1910년 이후 한국사 내용은 없으며, 다만 〈5장 2절〉의 마지막 소주제인 '지구화 속의 현대 동아문명'에서 남한을 '아시아의 네 마리 소룡'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이다(선수, 89~90). 이에 비해 『역사2』는 108과강이 '20세기 동아 인민의 중대 전쟁경험'과 '동아에서 공산주의 발전여정'을 학습주제로 규정함에 따라,[45] 3·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위안부 피해, 한국전쟁과 북한의 동향을 새로 추가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남일판 『역사2』와 삼민판 『역사2』의 서술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45 108과강, 113쪽; 김유리, 2020, 앞의 글, 177~18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3·1운동과 임시정부

남일판 『역사2』는 〈6장1절. 전쟁하의 동아〉 '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동아' '㈢ 조선'에서 1쪽 분량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세계대전 후 민족자결주의가 동아 각국에 유행했다. 조선은 일본에게 겸병된 후,[46] 해외의 민족운동지지자들과 국내의 반일세력들이 연락 호응하여 조선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 민족자결주의가 제출된 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조선은 독립 국가이며 조선인은 자주 인민'이라고 주장했다. 1919년 3월 1일 많은 민중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3·1운동'이다. 거대한 항의성명에 직면하여 일본이 군대로 진압하자, 민중이 대량으로 다치거나 죽었으며 운동은 실패했다.
>
> 3·1운동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독립운동의 의식을 응집시켰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민주헌법을 제정했으며, 조선 각지에 연락망을 건립하여 자금을 모으고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동시에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시야를 넓히고 각국과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대부분 임시정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오직 북벌통일 후의 국민정부만 지원하여 자원을 제공하고 황포군관학교에 한국학생을 수용했다.(역사2, 141)

본문 내용은 『한국사』[47]나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과 유사하다. 108과강이 표방한 '인민을 주체로 한 관점'에 따라,[48] 조선 인민의 자주독립 의

---

46 남일판 『역사2』는 1910년 이후 줄곧 '조선병탄'이라고 서술하다가, 일본식민통치 시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겸병' 혹은 '日韓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학계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집필자가 부주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7 李元淳 等 著, 詹卓穎 譯, 1987, 앞의 책, 328~331쪽.

48 '인민주체의 관점'은 '동태적 分域구조'와 더불어 108과강이 표방한 가장 중요한 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를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남일판은 특히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오직 장개석의 국민정부만 임정을 지원하여 자원을 제공하고 황포군관학교에 한국인을 입학시켰음을 명시했다. 1960~1980년대 걸쳐 대만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중국국민당과 국민정부의 조선 독립운동 지원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서술한 것이다. 앞서 '㈁ 일본식민통치시기의 이민'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했던 것도 결국 '국민정부만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술내용은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이루어진 갑작스런 대만단교 당시, "임정을 지원해준 것은 장개석의 국민정부뿐이었는데, 한국은 배신자"라며 한국정부의 처사에 극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던 대만 사회의 불만을 떠올리게 한다.[49] 하지만 2020년 현재에도 대만의 분위기가 여전히 그런지는 의문이다.

본문 하단의 줄연표는 '1910년 일본의 조선병탄'과 '1919년 조선의 3·1운동' 등을 표시하고, 안중근과 유관순의 사진과 행적을 자세히 소개했다. 안중근에 대해서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영웅이 되었다. 단, 이토는 조선을 점진적으로 점령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 거사가 오히려 일본의 조선병탄 속도를 가속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삼민판 『역사2』는 '20세기 동아 인민의 전쟁 경험'이라는 108과강의 규정을 〈6장 1절. 동아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시기를 좁혔기 때문에, 남일판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조선'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삼민판은 다만 전술한 〈5장 2절. 현대동아 국가의 형성〉, '一. 19세기 말 20세기 초 각국의 정치발전', '㈂ 조선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다', '②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20세기 초 조선의 상

징이다. 108과강은 '20세기 동아 인민의 중대 전쟁경험'에서 "인민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 동아 인민이 겪은 중대 전쟁 경험"에 대한 학습을 강조했다. 108과강, 113쪽; 김유리, 2020, 앞의 논문, 174쪽.

49 「특별기획 한중수교 25년, 한국-대만 단교 25주년 … "한국은 배신자"」, 『신동아』, 2017. 8.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황을 설명했다. "최고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군사·입법·행정·사법권을 옹유했다. 식민지의 역할은 식민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니, 일본식민지 대만의 상황과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조선에도 여러 가지 현대화·공업화 건설을 실시하여 자원을 약탈(掠取)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이 시기 조선은 일본 과잉인구의 거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식량·광산·원료 등을 일본에게 제공했고 일본공산품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경제가 자주권이 없음을 의미하며 … 이러한 현상은 많은 식민지들이 차후 정치적으로 독립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서술했다(삼민판, 153).

이어 '二. 민간사회와 현대화의 격탕', '㈠ 지식분자의 응변도강(應變圖强)의 길', '② 동아 각국 지식분자의 구망도존(救亡圖存) 방법'의 소항목인 '조선-반일운동'에서 3·1운동을 9줄 분량으로 설명했다. 3·1운동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3·1 독립운동'은 조선근대사상 최대 규모의 반일운동"이라고 평가한 뒤 "사후 일본은 통치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매우 가혹했다"(삼민판, 158~159)고 결론지었다. 삼민판은 3·1운동의 경과와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나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남일판이 108과강의 '20세기 동아 인민의 전쟁 경험'이라는 주제에 따라,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조선 인민에 의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했다면, 삼민판은 108과강의 규정을 수정하여 '5-2. 현대 동아 국가의 형성'이라는 절을 설정하고,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의 상황을 서술했다. 그러다보니 삼민판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 '일본의 식민통치', '조선의 반일운동'이라는 기존의 방식대로 서술하게 된 것이다. 남일판이 강조했던 조선 인민의 '자주독립' 의지보다는, 일본의 식민통치방식을 상술하고 조선을 대만과 연관시키면서 식민지경제의 종속성을 강조한 점이 삼민판 『역사2』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위안부’

남일판『역사2』는 ‘인민의 각도에서 본 전쟁 피해’를 강조하는 108과강에 따라 〈6장 1절. 전쟁하의 동아〉, ‘三. 전쟁하의 민중피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아 각국의 민중피해 양상을 7가지로 열거했으며 그중에 ‘㈦ 위안부’를 포함했다.[50]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전쟁과정 중에 여성을 모집(徵招)하여 위안부로 삼았는데, 그 범위는 일본 본토·조선·중국·대만 및 동남아에 모두 있었다. 대다수의 위안부는 강제로 징발되거나, 속임수, 협박을 당해서 왔으므로 심신이 모두 크게 피폐했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타인의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전후 동아지역의 위안부들이 일본에 항의했지만, 일본은 2015년 남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을 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정식 사과와 배상조차 하지 않았다.(역사2, 149)

본문 하단에는 부산 일본대사관 앞의 ‘그림 6-14 한국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교류협회 앞에서 시위하는 ‘그림 6-15 대만출신 위안부’ 사진을 큼직하게 게재하여 거의 1쪽 분량으로 구성했다. 본문 내용과 두 장의 컬러사진을 통해 감성적 효과까지 극대화시켰다. 남일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소상하게 다루고, 특히 한국의 배상요구를 특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한국의 사례가 동아 각국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예감하게 될 것이다.

삼민판『역사2』는 〈6장 1절. 동아와 제2차 세계대전〉, ‘三.전쟁의 잔혹과 성찰’에서 ‘㈢ 전쟁 중의 무고한 희생자’로 ① 남경대학살, ② 위안부, ③ 대만인 징용징병 피해자를 거론했다. ‘② 위안부’의 경우 “일본정부가 전쟁 기간 동안

50 남일판이 열거한 ‘전쟁하 민중피해’의 양상은 공습·학살·원자탄·통화팽창·피난민·징용징발·위안부 등 총 7개 항목이다. 楊維眞, 2020, 앞의 책, 146~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내 및 식민지 여성을 강제로 징발했는데, 일본·조선·대만·중국 및 동남아 등지를 포괄하며, 이들을 전장에 보내 '위안부'로 충당했다. 이러한 폭행은 전쟁 종결 후 온갖 비난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두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했다(삼민판, 176). 거의 1쪽 분량으로 내용을 구성했던 남일판 『역사2』에 비하면 매우 단출하다. 이 절에서 삼민판은 일본군의 기습에 의한 전쟁 확대, '대동아공영권', 일본의 항복과정은 7쪽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상술한 데 비해, 108과강이 강조했던 '동아 인민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는 2쪽 남짓을 할애하는 데 그쳤다. 삼민판이 108과강에 유의하면서도 기존의 서술방식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학계의 연구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한국전쟁

108과강에 새로 규정된 '동아에서 공산주의 발전여정과 그 영향'은 대만의 현재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108과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남일판 『역사2』는 〈6장 2절. 동아 공산정권의 발전〉에서 중국과 동아 공산국가의 상황을 총 17쪽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중 '二. 냉전시기 동아지역의 충돌'은 '㈠ 한국전쟁(1950~1953)'과 '㈡ 월남전(1955~1975)'으로 구성되었으며, 1쪽으로 구성된 한국전쟁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 1946년 소련은 북한을 김일성이 영도하는 공산당정권에게 돌려주었고,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남한은 미국의 지지하에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소련의 지지하에 북한은 1950년 6월 출병하여 한국전쟁이 정식으로 폭발했다. 공산진영 국가도 파병하거나 물자를 보내 협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대가 연합국(UN) 안보리의 결의 후 출병하여 남한을 지원했으며, 중공도 군대를 조직하여 대응했다. 이로부터 한국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1953년 중국·북한·연합국이 판문점에서 조선정전협정을 서명함으로써 조선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는 분열국면이 확립되었다.(역사2, 154)

본문 하단의 '그림 6-20 한국전쟁'에는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다. '정전선' 이북의 북한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지원이 화살표로 표시되었고, 이남에는 연합국과 중화민국이 표시되었다. 그중 중화민국에는 "미국에 의해 참전을 거절당했으나, 전쟁포로의 관리에 협조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남일판 『역사2』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대만의 역할을 적극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사실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은 대만을 공산화하려던 중국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게 했을 뿐 아니라,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군사방공망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대만학자들도 한국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들은 대만해협 양안에서의 전쟁이 방지되어 대만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봤으며, 한·중 혹은 한·대만 관계사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므로[51] 한국인의 고통이나 한반도의 전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52]

하지만 108과강이 '인민주체의 관점'에서 본 '동아 인민의 중대 전쟁 경험'을 강조함에 따라 『역사2』는 한국인의 전쟁 피해도 상술했다. 남일판 『역사2』는 본문 외에 따로 첨부한 2쪽짜리 펼침자료[53]에서 '요원한 38도선'이라는 제목하에 "(한국) 전쟁은 쌍방군대에게 백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

51 대개 '95잠강'에 의거하여 2007년 발행된 역사교과서부터 한국전쟁이 중국국민당을 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지훈, 2008, 「중국과 타이완 교과서 속의 현대 한국」,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98~306쪽 참조.

52 신주백, 2009, 「타이완·홍콩 대학의 역사교재에서 근대Ⅱ와 현대 한국·한국사」, 송요후 등,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92~294쪽 참조.

53 글자 크기만 작을 뿐 본문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펼침자료는, 뒷면의 '17도선의 피와 눈물'이라는 2쪽짜리 베트남전쟁에 관한 자료와 쌍을 이루고 있다. 이하 특별한 주가 없는 한 펼침자료의 내용이며 쪽수는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을 발생시켰으며, 재산 손실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고 서술했다. '한국전쟁 시의 생명 손실' 도표에는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 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중공군, 연합군의 인명 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했다.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 수치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54] 한반도의 전쟁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 진영의 제1차 국지열전(局地熱戰)이었다. 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20세기에 영향이 극심했던 전쟁에 대해 이해해보자"고 전제한 뒤, '전쟁포로'와 '탈북자'에 대해 설명했다. '전쟁포로'에서는 본문의 '한국전쟁 지도'에 작게 표기되었던 대만정부의 '전쟁포로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 당시 중화민국정부는 반전(反戰)포로 대책으로, 많은 공작원을 파견하여 남한의 포로수용소에 진입케 한 뒤, 원래 국민당에 가입했던 군인[일부 국군(國軍) 중에는 국공내전에서 포로가 된 후 공산당군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다]과 연합하여 반공진영을 형성하고 통제하게 했다 …(역사2, 펼침자료)"고 설명했다. 남일판은 이전 〈6장 1절 전쟁하의 동아〉 '三. 전쟁하의 민중피해, '㈥ 인원과 물자징용'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 대만 출신 (일본군) 사병이 (중국군) 포로가 되면, 전후 (중화민국) 국군이 되었다. 국공내전 기간에 다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고, 그후 (인민) 해방군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이러한 다중적 신분전환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만의 국민정체성(國族認同)의 충돌문제를 상징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역사2, 148). 이처럼 남일판이 중화민국 국군(국민당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휘말리면서 정체성이 뒤바뀌는 과정을 상술한 것은, 국민정체성 혹은 국가정체성 문제가 대만의 역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55] '탈북자'에

54 일반적으로 남한의 민간인 피해자는 99만여 명, 군인은 6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남일판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의 숫자가 뒤바뀌었으며, 군인의 99만을 9만 9,000으로 표시했다.

55 대만의 역사교육과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는 안지영, 2011, 「일본침략 및 강점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 한·중·대만 고등학교 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도망치는 '탈북자'들의 탈북 이유와 경로, 남한에서의 정착과정 등을 설명했다. 한국전쟁 이후 고착된 분단체제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민의 전쟁피해를 '탈북자'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민판『역사2』도 〈6장 2절. 동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 '二. 냉전 중의 열전'에서 '㈠ 한국전쟁'을 3쪽 분량으로 상술했다. '① 조선반도의 분열', '② 한국전쟁 폭발', '③ 중국의 항미원조'로 나누어 설명했으며(삼민판, 185~187), '④ 전쟁하의 인민'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조선반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사상했는데, 그중 남한 군인 사망자가 약 100만 명이었다. 또 미군은 전쟁 기간 북한에 대해 융단폭격을 진행하여 100만 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북한인민 사상자를 빼고도, 약 천만 명의 이산가정이 생겼으며 조선반도 토지의 80%가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삼민판, 187).

삼민판도 108과강이 강조한 '인민주체의 관점'과 '동아인민의 전쟁 경험'에 유의하여 한국전쟁의 배경·경과·결과를 꼼꼼하게 설명했으며, 남북한 인민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군에 의한 융단폭격과 그로 인한 북한인민의 피해도 아울러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다만 남일판이 '국민정체성의 충돌'을 강조한 데 비해, 삼민판은 '중국의 항미원조'를 강조하여 기존의 시각을 유지했다.

4. 북한

남일판『역사2』는 〈6장 2절. 동아 공산정권의 발전〉 '四. 냉전 후기의 발전'에서 북한에 대해 설명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56] 108과강에 새로 포함된 '동아 공산정권의 발

사교과서를 중심으로」,『역사교육연구』13, 69~73쪽; 김유리, 2016, 앞의 글, 73~75쪽 참조.

56 남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중학교『사회』지리영역에서 서술되어왔다. 김지훈, 2008, 앞의 글, 323~173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과 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남일판 『역사2』는 중국·월남·북한·캄보디아로 나누어 서술했다. 그중 '㈃ 북한'은 0.5쪽 분량으로,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냉전시기 북한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발전시키고 그의 사상을 '주의(主義)'로 만들어 헌법에 포함시켰으며, '적대계급'을 부단히 진압함으로써 민중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외교상으로는 중·소 양국과 우호관계였으며, 1960년대 소련의 원조 하에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한때 남한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던 식량과 에너지 등 원조물자가 정지되었으나, 북한은 개혁개방에 착수한 다른 공산국가와는 달리, 여전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전제(專制)체제를 유지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인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렸으므로, 발전이 더디고 물자가 부족하며 1990년대에는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민생보다 핵무기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현재 동북아 불안의 중요요인 중 하나다.(역사2, 161)

남일판은 북한이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이나 월남과는 달리, 여전히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전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열중함으로써 '동북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1쪽 하단의 '그림 6-28 북한 김씨정권의 개인숭배'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 사진을 제시한 뒤 "북한 김씨정권의 개인숭배는 강렬하여, 전국 각지에서 김씨 가족의 조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민판 『역사2』는 남일판과는 달리 〈6장 2절. 동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한국전과 월남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공산세력에 대한 설명은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Ⅵ. 맺음말

현행 대만의 고등학교 필수과목 『역사2』에 한국사가 10쪽 이상 서술되었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러한 예는 대만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대만 『역사2』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남일판 101과강 『선수역사』와 108과강 『역사2』의 내용을 비교 분석했으며, 남일판 『역사2』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삼민판 『역사2』도 아울러 분석했다.

남일판 『선수역사』와 비교하여 『역사2』는 한국사 분량이 2배 이상 늘었을 뿐 아니라, 교과서의 구성방식, 한국사를 보는 시각, 서술 내용, 자료 활용 등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선수역사』에서 설명되었던 기자조선~고려, 조선, 개항~병탄 부분은, 『역사2』에서 서술의 시각과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선수역사』가 '종속관계', '한화'정책, '소중화' 등 중국 위주의 시각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남일판 『역사2』는 '전통왕조의 발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고대조선에는 기자조선·위만조선 앞에 단군조선을 새로 추가했으며, '427년 조선삼국시대'를 '4세기 이후 삼국시대'로 수정했다. 조선의 국호를 '이조'에서 조선으로 변경했으며, '종속관계' '소중화' 등 논쟁이 되는 부분은 삭제했다. 개항~병탄 부분은 '조선이 자주독립을 추구했으나, 일본에 의해 병탄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삼민판 『역사2』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청의 번속국'이던 '이씨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기존의 설명방식을 답습했다.

한편 남일판 『역사2』는 주제사로 구성된 108과강의 규정에 따라 조선의 인구이동, 17~19세기 서양의 영향, 3·1운동과 임시정부, '위안부' 피해, 한국전쟁, 북한의 현황 등을 새로 추가했다. 조선의 인구이동에 대해 남일판 『역사2』는 '19세기 독립시기'와 일제식민통치시기로 나누어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을 설명했으며, 중문으로 번역된 이원순 등의 『한국사』도 적극 이용했다. 삼민판 『역사2』도 근대 조선의 이민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만주·일본 외에 하와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국·대만으로의 이민도 추가했다. 서양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일판 『역사2』가 17~18세기 중국을 통한 서학과 천주교의 전파 및 19세기 병인양요·신미양요에 대해 설명했지만, 삼민판 『역사2』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만 설명하고 조선은 생략했다.

또 남일판 『역사2』는 '인민주체의 관점'을 강조한 108과강의 규정에 따라, 3·1운동으로 드러난 조선 인민의 자주독립 의지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서술했으며, 임시정부에 대한 장개석의 지원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민중피해를 열거할 때는 일본군'위안부'를 강조하여 2015년 한국의 배상요구를 특기했으며,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게재하는 등 거의 1쪽 분량으로 구성했다. 반면 삼민판 『역사2』는 상해 임시정부나 그에 대한 장개석의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안부'에 대한 설명도 단 두 문장으로 끝냈다.

그 밖에 남일판 『역사2』는 '동아에서 공산주의 발전여정과 그 영향'을 규정한 108과강에 따라, 한국전쟁과 최근 북한의 동향을 추가했다. 한국전쟁은 본문뿐 아니라 '요원한 38도선'이라는 제목의 펼침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인명피해 규모를 상술하고, 대만 국민당정부가 추진한 국군(국민당군) 포로송환과 북한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의 현황에 대해서는 1990년대 경제사정이 악화일로에 있으면서도 개혁개방보다는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동북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민판 『역사2』도 한국전쟁을 3쪽 분량으로 상술하며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중국의 항미원조'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는 등 중국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북한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생략했다.

남일판 『역사2』 한국사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108과강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지만, 삼민판 『역사2』와 비교해보면 남일판은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일판 『역사2』는 '단군조선', '이조' → '조선', '병탄' 등 한국의 연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삼민판이 강조한 '번속관계'·'번속국' 등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술을 피했다. 두 판본의 차이는 단순한 한국사 내용 서술의 차이를 넘어,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일판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사를 서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남일판 『역사2』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아직 다른 판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만에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자는 특히 남일판 『역사2』가 '한·당을 제외한 대부분 시기 조선은 자주정권이었다'고 기술하고, 19세기를 '독립시기'로, 개항에서 병탄까지는 '자주독립을 추구한 시기'로 명명하며,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자주독립 의지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대만정체성'을 강조하며 '일국양제(一國兩制)'식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민진당정부의 현재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57] 최근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진당정부는, 역사적으로 중국·일본에 대해 자주독립을 추구했고 현재는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동병상련의 감정이 없을 수 없다. 남일판 『역사2』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장개석의 지원을 강조한 것도 예전처럼 '한국은 배신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탈중국'·'대만정체성' 강화로 대변되는 민진당정부의 역사과정 개혁에서 108과강 남일판 『역사2』는 한국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고 21세기 '동아시아 공산정권'에 맞서는 동반자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57 물론 교과서는 출판사나 집필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전공학문 영역 외에도 제반 교과서 편찬 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섣부르게 속단하기는 어렵고, 차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신동아』.

안병우 등, 2012·2014·2019,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古偉瀛 外, 2002·2007, 『世界文化(歷史編)』, 三民書局.

教育部, 2011, 「普通高級中學歷史課程綱要」.

_____, 2018,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國民中小學暨普通型高級中等學校-社會領域」.

卯靜儒, 2013, 「選什麼? 如何選? 爲何而選? 高中教師選擇歷史教科書之研究」, 『教育科學研究期刊』 58-2.

薛化元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三民書局.

楊瑞松 等, 2014·2019, 普通型高級中學 『選修歷史(上)』, 南一書局.

楊維眞 等, 2020, 普通型高級中學 『歷史2』, 南一書局.

吳昆財, 2020, 「驢頭不對馬嘴的高中歷史教科書-新編108年東亞史評釋」, 『海洫評論』 349, 2020-1.

李元淳 等著, 詹卓穎 譯, 1987, 『韓國史』, 臺北: 幼獅文化.

陳元朋 等, 2014, 普通型高級中學 『選修歷史(上)』, 三民書局.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科擧)』, 소명출판.

송기호, 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송요후 등, 2009, 『타이완·홍콩 대학에서의 역사교육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이석현 등,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상선 등, 2008,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②』, 푸른 역사.

譚其驤, 1994, 『長水集續編』, 人民出版社.

논문

고석현·박민수, 2020, 「'중국사관'에서 대만사관'으로-108과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정씨정권' 서술변화」, 『中國學報』 94.
김유리, 2009, 「대만사, 중국사, 세계사: 2004~2008년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歷史教育』 109.
_____, 2015, 「대만의 정권교체와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歷史教育』 134.
_____, 2016, 「대만의 세계사 교육과 한국사 인식」, 『서양사론』 131.
_____, 2019, 「대만, 중국과 동아, 세계: 2018년 대만의 중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歷史教育』 151.
_____, 2020, 「'중국과 동아': 108과강에 따른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2』 교과서 비교분석」, 『歷史教育』 155.
김지훈, 2008, 「중국과 타이완 교과서 속의 현대 한국」,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형종, 2017,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 『동양사학연구』 140.
린리웨, 2008, 「개혁과 변화: 타이완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연민수 등,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안지영, 2011, 「일본침략 및 강점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 한·중·대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13.
이성제, 2008, 「중화권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사 서술과 그 경향」,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008.
장희흥, 2009, 「중국계 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대만·홍콩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47.
차미희, 2004, 「조선후기에는 왜 과거제도의 폐해가 발생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존 B. 던컨, 1997,「미국 내 한국 전근대사 연구경향」,『역사와 현실』23.

웹사이트

教育部國民及學前教育署, 新課綱推動相關法令規定. https://www.k12ea.gov.tw/ap/class_schema.aspx.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최근 대만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 변화
– 101과강 『선수역사(選修歷史)』와 108과강 『역사(歷史)2』 비교 분석 –

김유리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대만 역사교과서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남일판 101과강 『선수역사』와 108과강 『역사2』의 한국사 서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또 남일판 『역사2』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삼민판 『역사2』도 아울러 분석했다. 남일판 『선수역사』에 비해 『역사2』는 한국사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교과서의 구성방식, 한국사를 보는 시각, 서술 내용, 자료 활용 등이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108과강에 따른 것이지만, 남일판 『역사2』는 삼민판에 비해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남일판은 '단군조선', '병탄', '자주독립' 등 한국 학계의 연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삼민판이 강조한 '번속관계'·'번속국' 등에 대해서는 서술을 피했다. 두 판본의 차이는 단순한 한국사 내용 서술의 차이를 넘어, 한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일판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사를 서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남일판 『역사2』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대만에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대만, 역사교과서, 한국사 인식, 12年國教(108課綱)歷史課綱, 101課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ce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aiwanese History Textbooks': A Comparative Analysis of Taiwan's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According to the History Course in 2011 & 2018

Kim Yuryee

In this paper, I compared and analyzed the descriptions about Korean history in *Elective Course History (2014/2019)*, and *History2 (2020)* published by Nani Book Enterprise co. in order to explore the changes in perception about Korean history in the recent Taiwan history textbooks. In addition, I analyzed *History2 (2020)* of the Sanmin Book Company (Sanmin version) in order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y2 (2020)* Nani version.

Compared to *Elective Course History*, *History2* Nani version has not only the amount of pages describing about Korean history more than doubled, but also the textbook structure, the perspective of Korean history, the content, and the use of materials significantly have changed. Although the changes in *History2 was* based on the History Course 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8, Nani version had a very large change compared to Sammin version. That is, Nani version actively accepted Korean studies such as 'Dangun Joseon,' 'Byeongtan', and 'independence', while avoiding descriptions of the 'Vassal relationship' and 'Vassal state' emphasized in Sammin version.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Nani version is in that it describes Korean history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s stance on issues that are controversial internationally. *History2* Nani version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aiwan has begun to change.

Keywords: Taiwan, history textbook, the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the 12-year national education history course in 2018, History course in 20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택과 적응

– 6세기 후반 상장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심영신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소그드인의 상장(喪葬) 의례와 납골기
III. 중국 소그드인의 상장(喪葬) 풍습과 석장구
IV. 맺음말: 상장(喪葬)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소그드인은 실크로드상에서 동서의 문화교류를 주도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주역들이다. 이들은 상업목적과 본토의 전란을 피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정착지를 이루었는데 신강의 쿠차, 언기, 투르판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들어와 살았다. 구미 학계에서는 19세기 전반부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나 연구가 탄력을 받고 활성화된 계기는 약 20년 전 서안(西安)과 태원(太原)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의 소그드인 무덤의 발굴이었다. 무덤에서는 묘지(墓誌)와 함께 석장구(石葬具)가 출토되었다. 석장구란 무덤 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마련한 석제 관곽(棺槨)을 말하며 크게 석관상(石棺床)과 석당(石堂)으로 나눌 수 있다. 석장구들과 무덤의 구성방식은 6세기 후반 중국 내 소그드인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주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소그디아나에서의 장례는 살이 제거된(肉脫) 뼈를 소형 납골기에 넣어 지상의 묘에 안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물·불·대지·공기를 오염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원소로 보는 반면 시신은 부정(不淨)한 것이어서 접촉하는 것을 오염시킨다고 여겼다. 따라서 장의의 핵심은 시신이 이를 접촉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과 신성한 원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하고 오염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시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그디드(sagdīd, 犬示)를, 신성한 원소의 오

---

* 투고: 2021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175). 또한 2020년 11월 28일 한국 슬라브·유라시아 학회 주최 〈정체성과 국제협력과 갈등: 지역학 발전과 미래〉 학술대회의 인문과학분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한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염을 막기 위해 시신의 살을 제거하는 노출(exposure) 의례를 행하고 매장·화장·수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들이 따르고 있는 당시 북중국의 지하 묘제와 석제 관곽의 사용은 소그드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당시 소그드인들이 채택한 북중국의 장례방식에 대해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소그드인들의 한화(漢化, sinicization) 혹은 동화(同化, assimilation)의 결과로 판단해왔다. 중국에 정착한 소그드인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 결국 자기동일성, 즉 소그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그드인들이 비록 지하 무덤을 썼지만 당시 북조의 묘는 벽돌로 축조하였고 시신을 석관에 봉안함으로써 시신이 대지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석관상이나 석당은 전통적인 중국의 관곽이 아니라 유목민족 북조에서 출현한 새로운 방식의 장례도구였다. 게다가 이 관곽들은 납골기의 확대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소그드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의 묘제와 석장구를 '한화'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상장(喪葬) 문화를 통해 소그드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례방식 자체보다는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친 상장관의 변화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소그드인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차선으로 놓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고유의 전통이 현지의 문화와 상충될 때 갈등이나 대립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현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소그드인들이 따른 북조의 묘제가 자신들의 상장관을 견지한 채 '선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중국 상장관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그 묘제까지 '한화'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변별되는 자신들만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라 여겼을까. 6세기 후반 중국 내 소그드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을 지탱해온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를 주도했던 당사자도, 역사 기록의 담당자들도 아니었다. 그런데 소그드인의 석장구에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종교에 관한 풍부한 서사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소그드의 전통 상장의례와 사후세계관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소그드인의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들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시각자료인 상장 미술과 묘제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소그다아나와 중국, 양 지역에서 행해진 소그드인 상장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정착지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상장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그드 전통의 상장의례를 살펴본 뒤 중국 소그드인의 묘제와 석장구의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그 상장풍습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그드인들이 정착지 북중국의 묘제를 따르면서도 보존하고자 했던 소그드인으로서의 자기 동일성의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주민으로서의 선택과 적응이 상장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규명에 한 발 다가가보고자 한다.

Ⅱ. 소그드인의 상장(喪葬) 의례와 납골기

장례문화는 당시인들의 세계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그드의 전통적인 상장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세계관을 제공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장례와 사후세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그디아나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장례법은 조로아스터교의 믿음 및 장례 규칙과 관련되며 이는 『아베스타(Avesta)』의 「비데브다드(Vidēvdād, "악령을 끊는 법")」에 의한다.[1] 이들의 장

1 『아베스타』는 여러 시기에 걸쳐 쓰여진 조로아스터교 텍스트를 모은 아베스타어 성서로, 여러 책으로 구성되며 각 책은 장으로 세분된다. 현존 아베스타는 전례 기도문인 야스나(Yasna), 비스페라드(Visperad, 모든 후원자들), 코르다 아베스타(Korda Avesta, 小 아베스타), 쉬로자(Sīrōza, 매월 30일), 야쉬츠(Yašts, 주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례법은 죽음과 시신에 관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 그들은 죽음을 악령 앙그라 마이뉴(Angra Mainyu)가 불러온 악으로 간주하였다.[2] 또한 조로아스터교의 여자 악령인 나수(아베스타어 nasu-, 팔라비어 nasā)는 사람과 동물이 죽어 의식을 잃자마자 즉시 시신으로 들어가 시신뿐 아니라 이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나수가 차지하게 된 시신 또한 극도로 부정(不淨)한 것, 즉 나수라고 하였다.[3]

신들에 대한 찬가), 아프리나간(Āfrīngān, 감사) 비데브다드(Vidēvdā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스나는 하오마(haoma) 성주(聖酒)의 준비와 공양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낭송된다. 비스페라드는 일종의 주문(呪文)으로 야스나를 보완한다. 비스페라드, 쉬로자, 야쉬츠 등은 순수한 의례집들로 대체로 시적인 형태로 쓰여 있으며, 조로아스터교가 생겨난 배경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비데브다드」는 「벤디다드(Vendidad)」라고도 하는데 원래 세계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후에 좋은 조로아스터교도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다양한 종교 규칙과 규정들을 담게 되었다(J. Kellens, 2011, "AVESTA i. Survey of the history and contents of the book", *Encyclopaedia Iranica*, III/1, pp. 35~44, 다음 온라인에서 이용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vesta-holy-book; Javier Martínez and Michiel de Vaan, 2014, "Texts" in *Introduction to Avestan*, Brill Introductions to Indo-European Languages, Volume 1, Leiden: Brill, p. 107). 『아베스타』의 역사에 대해서는 James Darmesteter, trans., *Zend-Avesta* III, pp. xx-xxxvi, 특히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 W. Bailey, 1943, *Zoroastrian Problems in the Ninth-Century Books*, Oxford, pp. 149~76을 참조.

2 죽음은 비록 창조신의 산물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영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와 함께 조로아스터교도들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Jamsheed K. Choksy, 1998, "Aging, Death, and the Afterlife in Zoroastrianism", *How Different Religions View Death and Afterlife*, edited by Christopher J. Johnson and Marsha G. McGee, Philadelphia: Charles Press, p. 253.

3 따라서 조로아스터교도들은 모든 죽은 것을 혐오하게 된다. 최악의 악은 가장 순수한 존재인 정의로운 조로아스터교 사제의 시신에서 비롯된다(Vd. 5.28). 살아 있을 때 그의 몸과 영혼은 순결하므로 그의 주변 세상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매개자였다(Mary Boyce, 2012, "Cleansing i. In Zoroastrianism", *Encyclopaedia Iranica*, Vol. V, Rasc.7, pp. 693~700. 다음 온라인에서 이용.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leansing-i). 나수에 대해서는 Mahnaz Moazami, 2016, "NASU",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을 참조. 나수에 의해 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악으로 인식되는 죽음 및 극도의 오염원인 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시신을 처리하는 상장례 과정에서 시신을 통한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시신의 오염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나갔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공기·물·불·대지를 신성한 원소로서 절대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화장이나 토장, 수장을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장례의 핵심은 오염의 방지와 오염의 정화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는 사그디드와 노출(exposure) 의례로 구현된다.

사그디드란 시신을 선량함과 정의를 대표하는 개에게 보이는 의식으로, 시신이 살아 있는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나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다.[4] 9~10세기의 조로아스터교 백과사전으로, 『아베스타』 다음으로 조로아스터교의 믿음과 관습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덴카르드(*Denkard*)』에 의하면 시신의 얼굴을 볼 때 개의 시선은 시신 속 악령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 나수의 탈출을 막아 살아 있는 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5] 조로아스터교의 장례는 사흘 낮밤을 기도와 의식으로 진행하는데 견시는 이 기간 동안 세 차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사그디드는 죽음으로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행한다.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3일째 되는 날 시신을 씻고 의례의 불을 점화한 후 행한다. 4일째 되는 날 시신은 노출을 위해 다크마(dakhma, 아베스타어 daxma, "침묵의 탑")로 운반되는데 장송행렬이 침묵의 탑에 이를 때 마지막 사그디드가 행해진다.[6]

염된 개인은 자격을 갖춘 정화자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되찾을 수 있으나(Vd. 0.4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화의식을 실시하려고 하면 나수는 더 강력해져서 역경을 증가시킨다(Vd. 9.48). 『아베스타』에서는 특정 구절의 가타는 두 번, 다른 구절은 네 번 암송하는 것과 나수에게 몸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바라놈(Barašnom)과 같은 정화의식의 조합을 추천한다.

4 Mahnaz Moazami, 2016, 위의 글.

5 D. M. Madan, ed., 1911, *The Complete Text of the Pahlavi Dinkard*, 2 vols., Bombay, p. 463(Mahnaz Moazami, 2016, 위의 글, 재인용).

6 현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크마가 묘, 무덤, 가족묘 또는 묘석 등을 의미하기도 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신이 살아 있는 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장의(葬儀)로는 사그디드 외에 노출 의례가 있다. 노출이란 시신의 살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수리와 같은 새나 개에게 맡겨 육탈(肉脫)의 과정을 행한다.[7] 새나 개는 부패할 수 있는 살을 제거하고 깨끗한 뼈만 남기게 된다(「벤디다드」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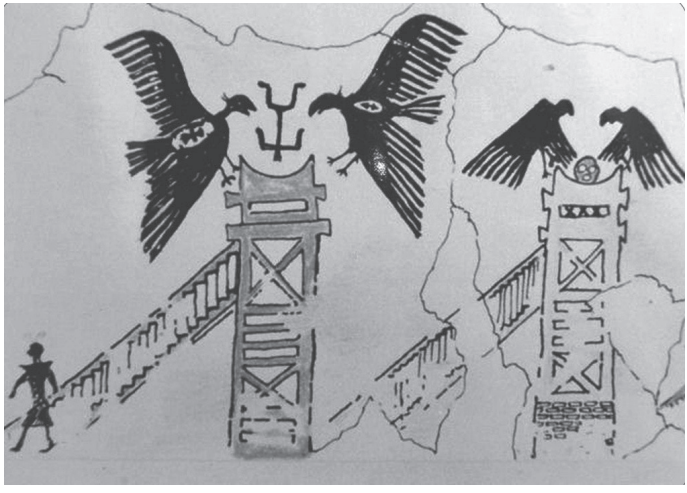


그림 1 노출 장면 벽화–복원도, 차탈회이크

출처: Kazim Abdullaev, 2017, "Funerary Tradition of the Ancient East in Examples From Anatolia and Bactria–Margiana: Origins or Parallels?," *TÜBA–AR* 20, fig. 9.

다[T. N. Kary-Niyazov and A. K. Borovkov, ed., 1941, *Uzbek-Russian Dictionary*, Tashkent. p. 118(Kazim Abdullaev, 2017, "Funerary Tradition of the Ancient East in Examples From Anatolia and Bactria-Margiana: Origins or Parallels?", *TÜBA-AR* 20, p. 36 재인용)]. 그러나 시신을 노출하는 높은 대라는 기본 가치는 잃지 않고 있다.

7 육탈자로서 개를 기르는 것은 아케메네스 시대부터 사산조 후반까지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 등지에서 행해진 것이 증명되지만 서부 이란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Mary Boyce, 2011, "Corpse", *Encyclopædia Iranica* Vol. VI, Fasc. 3, pp. 279~286. 다음 온라인에서 이용.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orpse-disposal-of-in-zoroastrian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7). 또한 태양과 비에도 노출되어(「벤디다드」 7.49-51), 1년 뒤에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의식은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매장 관행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아나톨리아 차탈회이크(Çatal Hüyük)의 신석기 시대 벽화에는 이러한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1).[8] 노출은 원래 산이나 언덕과 같은 특별 구역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묻는 자라투스트라의 질문에 아후라 마즈다는 "가장 높은 곳에, 자라투스트라여, 늘 시체를 먹는 개와 시체를 먹는 새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이라고 답한다.[9] 노출 장면이 새겨진 박트리아의 인장 두 점에는 공통적으로 돌기가 표현되었는데 노출이 벌어지는 장소인 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2). 인장에서 시신은 다리를 구부린 채 손을 배에 대고 누워 있는 자세이다. 이 자세 또한 "마즈다의 숭배자들은 (다크마에) 사자의 두 눈이 태양을 향하도록 눕힌다"고 하는 「벤디다드」의 기술과 통한다.[10] 산은 다크마와 같은 인공 건조물이 출현하기 이전, 노출의식을 행하던 장소였을 것이며 두 방식은 일정 기간 공존하였을 것이다.[11]



그림 2 박트리아 출토 인장

출처: Kazim Abdullaev, 2017, "Funerary Tradition of the Ancient East in Examples From Anatolia and Bactria-Margiana: Origins or Parallels?," *TÜBA-AR* 20, fig. 15.

8 Kazim Abdullaev, 2017, 앞의 글, pp. 27~49. 신석기 시대에는 육탈된 뼈를 방(차탈회이크의 성소)이나 무덤(박트리아)에 묻었다.

9 "Vendidad," Fargard VI, V, 45(93)(Kazim Abdullaev, 2017, 위의 글, p. 39 재인용).

10 "Vendidad," Fargard V, III, 13 (44)41(Kazim Abdullaev, 2017, 위의 글,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기원전 550~330)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나크쉐로스탐(Naqsh-e Rostam)의[12] 절벽 꼭대기에서는 노출을 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되었다(그림 3). 중세의 다크마 출현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3] 평지에서는 초라스미아(Khorazmia)의 칠피크테파(Chylpyktepa)에서와

---

11 벤디다드(7. 45-51)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크마는 원래 "무덤"을 나타내는 아베스타어였다(K. Hoffman, 1965, "Daxma," *Kuhn's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79, p. 238). 그렇다면 이는 고대 이란에서는 토장이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Mary Boyce, 1975,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 The Early Period*, Leiden: Brill, p. 109; A. Sh. Shahbazi, 2011, "Astōdān," *Encyclopædia Iranica*, Vol. II, Fasc. 8, pp. 851~853(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stodan-ossuary 재인용). 노출과 관련한 고고학적 증거는 이란 동부의 경우 구소련의 발굴에 의해 납골기에 뼈를 보존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특히 초라스미아의 기원전 5~4세기의 예들이 있다. 그러나 이란 서부의 경우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뼈를 모으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던 듯 아케메네스 시대의 그리스어 문헌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사산조 이전의 전형적인 조로아스터교의 관행으로서의 뚜렷한 흔적은 없다. Frantz Grenet, 2000, "BURIAL ii. Remnants of Burial Practices in Ancient Iran", *Encyclopædia Iranica*, Vol. IV, Fasc. 5-6, pp. 559~561. 다음 온라인에서 이용.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rial-ii.

12 다리우스 1세(기원전 522~486), 크세르크세스 1세(기원전 486~465),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기원전 465~424), 다리우스 2세(기원전 423~404)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다리우스 1세의 무덤은 동반된 아람어 비문에 의해 명확히 그의 무덤으로 확인된다. 아케메네스의 왕실 무덤은 「벤디다드」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무덤들은 납골기로 분류되어야 한다(A. Sh. Shahbazi, 1975, *The Irano-Lycian Monuments*, Tehran, p. 127). 비문에는 "아리안 가문의 아리안, 파르시의 아들인 파르시"("parsa parsahya puthra ariya ariyachitra")라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비문에는 납골기인 아스토단에 해당하는 'stwd'라는 용어가 보인다고 한다(A. Sh. Shahbazi, 2011, 위의 글, pp. 851~853)그러나 정확히 'stwd'보다는 'stw'라 읽히는 글자들이 있고 그다음 글자는 -r- 또는 -n-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다(R. N. Frye, 1982, "The "Aramaic" Inscription on the Tomb of Darius," *Iranica Antiqua* 17, p. 88). 이란의 여러 지역 특히 페르세폴리스 지역에는 암굴 아스토단이 많이 있으며 이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르티아인들은 노출을 행했지만 매장도 함께 행했다고 한다.

13 Jamsheed K. Choksy, 2015, "Religious Sites and Physical Structure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Zoroastrianism*, eds. Michael Stausberg and Y.S.-D.Vevaina, New Jersey: John Wiley & Sons, p. 3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노출 장소, 나크쉐 로스탐 절벽 위

출처: Jamsheed K. Choksy, 2015, "Religious Sites and Physical Structure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Zoroastrianism*, eds. Michael Stausberg and Y.S.-D.Vevaina (New Jersey: John Wiley & Sons, fig. 24.1



그림 4 칠피크테파 다마크-자연언덕

출처: Kazim Abdullaev, 2017, "Funerary Tradition of the Ancient East in Examples From Anatolia and Bactria-Margiana: Origins or Parallels?," *TÜBA-AR* 20, fig.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같은 자연언덕을 이용하였다(그림 4).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히 높은 대가 세워지는데 에르쿠르간 지역에서 이 같은 예를 볼 수 있다.[14] 『아베스타』에서는 인공 구조물로서 벽으로 둘러싸인 개방된 구조물인 다크마를 언급한다. 다크마는 시신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대지의 오염을 막는 구조물이다.[15]

노출의식은 조로아스터교가 확산되면서 이란에 의해 서서히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16] 이를 처음 언급한 이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투스(Herodotus, 기원전 484~425)였다.[17] 이렇게 하면 모든 종류의 악이 함께하는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18] 노출을 통해 육탈된 뼈는 납골기에 넣게 되므로 노출 의례는 납골

---

14 Kazim Abdullaev, 2017, 앞의 글, p. 40.

15 다크마에 대한 기록이 9세기 말 마누슈치르 서간(Epistles of Manushchihr)에서 보이기 때문에 다크마는 생각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했다고 본다. Mary Boyce, 1979,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pp. 156~162. 박트리아 아이하눔(Āy K̲ānom) 발견의 극장 무대는 그리스인들이 떠난 후 시신의 노출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이슬람시대까지 다크마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로아스터교 시대에는 노출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둘러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Richard N. Frye, 1984, *The History of Ancient Iran*, Munich: C.H. Beck, p. 190.

16 Mary Boyce, 1982,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I: Under the Achaemenians*, Leiden: Brill, p. 26. 비데브다드에는 노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Vendidat VI, 44-51. Dietrich Huff, 2003, Archaeological Evidence of Zoroastrian Funerary Practices, in *Zoroastrian rituals in Context*, edited by Michael Stausberg, Leiden: Brill, p. 593. n. 5 참조). 건조하고, 높고, 버려진 장소에서 노출이 행해진다.

17 Herodotus, *Histories* 1,140. 헤로도투스는 이를 페르시아의 문화로서 언급하였다(Mary Boyce, 1982, 위의 책, p. 160). 시신의 분해를 통해 신성한 원소들의 오염을 막는다고 하는, 관행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서구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모멸적인 방식으로 보고되었다. Dietrich Huff, 2003, 위의 글, p. 593. n. 2 참조.

18 사산조 말기에 정화 관행에 대한 새로운 열성도 장례 풍습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시체가 다크마에 안전하게 봉안될 때까지 나사를 통제하고 분리하려는 격렬한 노력 속에서 장례 풍습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Mary Boyce, 1975, 앞의 책, pp. 294~324). 조로아스터교의 주된 정화의식인 바라놈은 「벤디다드」 9.1-37에서 개략적으로, 8.37-72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의 존재를 통해 이란 동부와 서부에서 기원전 5~4세기부터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19] 또한 「벤디다드」에서는 뼈를 "개, 여우, 늑대가 닿지 않을, 위로부터 떨어지는 빗물에 닿지 않을 납골기"에 두라고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노출 장소에 그대로 두라는 말도 있으므로 납골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뼈들은 노출 장소에 그냥 남겨졌을 가능성도 있다.[20] 다크마와 8세기 이후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도인 파르시(Parsis)들은 현재까지 노출을 행하고 있다. 이란의 야즈드(Yazd) 다크마와 인도 뭄바이의 파르시 다크마 중앙에는 실제로 구덩이가 마련되어 이곳에서 유골이 해체되도록 한다(그림 5, 6). 개방된 구조로 높이 쌓은 원형극장처럼 생긴 다크마는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곳곳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21]

사산조하에서 노출은 널리 퍼졌으며 이방인들이 이를 채택한 것은 조로아스터교로의 개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귀족들과 왕족들은 시신을 방부처리하고, 관 속에 넣은 뒤 고인의 귀한 물건과 함께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 무덤을 그들은 다크마 혹은 아스토단이라 불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매장으로 인한 대지의 오염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시신을 대지와 접촉하게 하는 매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여겨졌다.[22] 아스토단(astōdān)은 납골기(아베스타어 uzdāna)를 뜻하는 팔라비어로, '뼈'를 뜻하는 ast-("oss")와 용기를 뜻하는 -dāna로 이루어져 있다.[23] 아스토단은 크기가 다양한데, 30×45cm에 깊이 50cm의 작은

19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orpse-disposal-of-in-zoroastrianism

20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의무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곽 없이 뼈를 땅에 놓고 태양 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A. Sh. Shahbazi, 2011, 앞의 글, pp. 851~853. 다음 온라인에서 이용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stodan-ossuary

21 우즈벡의 셰이바니드(Sheibanid) 왕조를 연 무함마드 셰이바니(Muhammad Sheibani, 1451~1510)의 중세 다크마는 원형이 아닌 방형으로 높은 단상과 비석, 묘석을 갖추었다. Kazim Abdullaev, 2017, 앞의 글, fig. 11.

22 Shahbazi, 1975, 앞의 책, pp. 128~129, pp. 154~157.

23 아스토단이라는 용어는 리미라(Limyra)의 페르시아인 관리 'Arziphius'의 아들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야즈드 다크마 내부, 이란

출처: https://imgur.com/gallery/oNXgQ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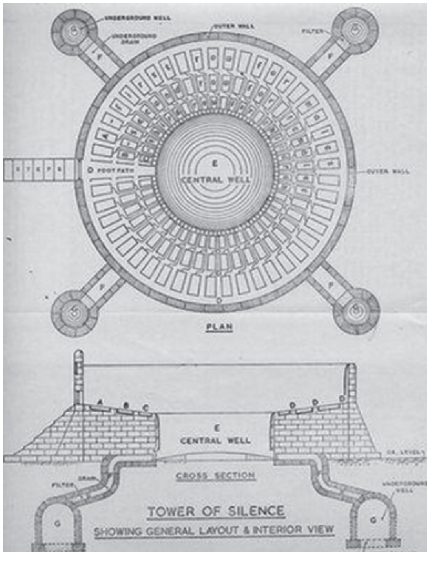


그림 6 파르시 다크마 구조, 뭄바이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jan/26/death-city-lack-vultures-threatens-mumbai-towers-of-silenc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멍에서부터 소규모의 묘실과 파르스(Fārs)의 거대하고 복잡한 타드반(Tādvān) 묘에 이른다. 비샤푸르(Bīšāpūr)의 동굴은 샤푸르(Šāpūr) 1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24]

소그디아나에서는 「벤디다드」의 지침대로 불과 대지와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화장, 매장, 수장을 행하지 않았다.[25] 남부 호라즘(Khwarezm, Chorasmia)에서는 꽤 근래까지 죽은 사람을 지상에 놓은 석관(sagona)이나 상자(sandyk)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한다. 땅에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고인에 대한 "자비(아람어 šafaqat)" 때문이었다.[26] 사후 넷째 날 해돋이 직후에 행해지는 차하롬은 시신이 햇살을 받는 것으로, 심판의 순간에 받는 영혼의 축복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땅에 묻힌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어두운 저승에서 우울한 영원을 맞게 된다고 보았다.[27]

605년 직후 사마르칸트에 대한 여행기를 쓴 중국인 위절(韋節)은 이들의 독특한 장례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28]

'Artima'의 기원전 4세기 초 아람어 비문에 처음 보인다. A. Sh. Shahbazi, 2011, 앞의 글, pp. 851~853.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stodan-ossuary

24 M. T. Moṣṭafawī, 1954, *Eqlīm-e Pārs*, Tehran, pp. 86~87; R. Ghirshman, 1962, *Persian Art: The Parthian and Sasanian Dynasties*, New York, p. 166(A. Sh. Shahbazi, 2011, 위의 글, pp. 851~853 재인용).

25 A. Sh. Shahbazi, 2011, 위의 글.

26 G. P. Snesarev, 1969, Relikty domusul'manskikh verovaniĭ i obryadov u Uzbekov Khorezma, Moscow, pp. 148~151(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rial-iii 재인용).

27 Mary Boyce, 1975, *History of Zoroastrianism I The Early Period*, Leiden: Brill), pp. 325~330. 땅에 묻히는 일이 정통 조로아스터교도에게는 극도의 혐오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악한 자들에 대한 벌로 여길 정도였다. 비데브다드에는 화장과 토장을 죄로 보고, 이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으며 화장한 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Vd. 3.36-42.

28 위절은 수 大業 1년(605)경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파견되었는데 수양제의 서역경략 구상을 위한 사전조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귀국 후 여행기인 『西蕃記』를 저술하였으나 소실되었고, 『隋書』나 『通典』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전한다. 그는 여러 가지 서역문물을 가져왔으며, 이는 후일 장안의 호풍 문화 형성에 일정한 기여했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성 밖에는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이백여 가구로 구성된 별도의 공동체가 있다. 별도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개들을 사육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서 시신을 거두어 이 건물 안에 놓고 개들에게 이를 먹도록 한다. 살이 완전히 제거되면 해골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만 관곽은 사용하지 않는다(國城外別有二百餘戶, 專知喪事, 別築一院, 有院內養狗, 每有人死, 卽往取屍, 置此院內, 令狗食之, 肉盡收骸骨, 埋殯無棺槨)."[29]

상장례를 전담하는 장의사(不淨人)들이 성 밖에 따로 거주하는 방식은 페르시아의 장례 풍속을 전하는 중국의 다른 사서의 기록과 일치한다.[30] 고대 페르시아의 '부정인(不淨人)'에 대한 기사는 『위서(魏書)』, 『주서(周書)』, 『북사(北史)』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으며,[31] 이 외에도 페르시아에서는 '시신을 산에 버린다'고 쓰고 있다.[32]

소그디아나에서의 장례는 육탈을 거쳐 깨끗해진 뼈를 수거하여 납골기(아베

것으로 평가된다. 정수일 편, 2013, 『실크로드 事典』, 창비.

29 수나라의 서행 사신 韋節의 『西蕃記』를 인용한 글이다. 『通典』 권 193, 邊防 康居條(浙江古籍出版社, 1988), 1039쪽. http://hyperstition.abstractdynamics.org/archives/003625.html

30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직업적으로 시체를 다루는 이들을 가장 불결한 인간 집단 중 하나로 보았다. 벤디다드에서는 이들을 나수-카샤(nasu-kaša)로 불렀으며, 후대에는 나사-살라르(nasā-sālār, "시체의 주인")로 불렀다. 직업의 특성상 계속 나사와 접촉해야 하므로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은 이들을 기피했고, 수많은 금기가 부과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가난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다. 메리 보이스 저, 공원국 옮김, 2020,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민음사, 396~398쪽.

31 "死者多棄屍于山, 一月理服/著服(魏書). 城外有人別居, 唯知喪葬之事, 號爲不淨人, 其入城市, 搖鈴自別."(『通典』 권193, 波斯條, 1024쪽). 그러나 육탈을 위해 개를 기르는 것은 아케메니드 시대부터 사산조 후반까지 박트리아와 소그디아 히르카니아에 대해 증명되지만 이란 서부 지역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32 위의 『通典』외에 『周書』 卷50, 『隋書』 卷83, 『舊唐書』 卷198, 『新唐書』 卷221의 「波斯傳」 및 『大唐西域記』 卷11 「波剌斯國」 등. 林悟殊, 1994, 「中亞古代火襖教葬俗」, 張志堯 主編, 『草原絲綢之路與中亞文明』,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2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타어 uzdāna, 팔라비어 astōdān)에 담고, 이를 지상의 납골당인 나우스(Naus)에 안치함으로써 끝나게 된다.[33] 귀족들은 뼈를 담는 개인 용기가 있었으므로 다른 가족의 납골기와 함께 나우스에 봉안되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가족들의 뼈를 커다란 용기에 함께 담았다. 이러한 장례법은 소그드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대표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다.[34]

납골기는 금속공예 및 종교조각과 함께 소그드 미술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유물로 4~5세기에 사산조(224~651) 페르시아의 영향이 커지면서 제작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소그디아나와 호라즘(Chorasmia) 및 차흐(Chach), 박트리아 등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300여 점의 납골기가 발견되었다.[35] 동일한 장례 풍습이 존재했던 이란에서는 납골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별로 없다.[36] 그런데 이란의 한 고고학 팀은 2006년 페르시아만의 카르크(Khark 또는 Kharg)섬의 한 절벽에서 사산조시대의 아스토단 바위 무덤 106기를 발견하였다. 무덤은 바위를 파고 만든 동굴로 다크마에서 육탈된 뼈를 안치하였다.[37] 페르시아에서는 나크쉐 로스탐과 같은 왕릉뿐 아니라 일반 무덤들도 바위를 이용하여 조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란 지역에서 납골기의 출토예가

---

33 민병훈, 1999, 「西투르키스탄의 諸異宗遺蹟 및 出土遺物」, 『미술사연구』 13, 162~165쪽 및 도 7, 8; 민병훈, 2009, 「異宗教間의 習合과 共存-조로아스터教와 佛教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78, 167쪽 및 도 12.

34 陳海濤, 2001, 「從葬俗的變化看唐代粟特人的漢化」, 『文博』 3, 47~52쪽.

35 하지만 완형은 매우 적어서 300여 점은 대부분 단편이다. L. V. Pavchinskaia, 1994, "Sogdian Ossuarie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Vol. 8, pp. 209~225.

36 이에 대해 소그디아나 납골기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파로 인한 지역적 변용의 한 예로서 중앙아시아 특유의 문화로 보기도 한다. 민병훈, 1999, 앞의 글, 166쪽.

37 http://www.heritageinstitute.com/zoroastrianism/death/ossuary.htm 4개의 기둥으로 된 궁륭형 건물지와 함께 배화사원지도 하미드 자레이(Hamid Zarei)가 이끄는 같은 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2010년에는 파르스(Fars) 남부의 모어(Mohr)시 부근 5,000년 된 유적지에서 사산조로 추정되는 7기의 다크마와 여러 점의 납골기가 보고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7 물라 쿠르간 납골기, 7세기,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박물관

출처: https://sogdians.si.edu/mulla-kurgan-ossuary/



그림 8 샤리사브즈 납골기, 6~7세기, 샤리사브즈, 샤리사브즈 박물관

출처: https://sogdians.si.edu/believers-proselytizers-translator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로 없는 것은 이와 같은 무덤의 사용에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8]

소그드 납골기는 도제(陶製)로, 성형하여 만들어지는데 펜지켄트에서는 예외적으로 설화석고(雪花石膏, alabaster) 재질의 한 점이 출토된 바 있다.[39] 기본적으로 사각 상자형과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간혹 사람이나 건물 등의 독특한 형태도 있다(그림 7, 8). 뚜껑은 납작하거나, 피라미드 모양, 혹은 궁륭형 등이 있다. 납골기의 몸체와 뚜껑 등 표면 전체에는 단일 모티프에서부터 주제가 있는 장면 등 다양한 도상이 새겨져 있다. 이는 동식물 문양과 기하학 문양 등의 작은 회화적 모티프, 배화단과 제관, 신들과 같은 상징적 모티프 및 영혼의 심판과 천국에서의 부활 등 하나의 완결된 주제를 가진 장면에 이른다. 이들을 통해 소그드인들의 생활과 조로아스터교 신앙활동 및 내세관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40] 신강(新疆)에서는 소그디아나에서와 같은 납골기들이 출토되고 나우스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굴되는 정황으로 보아 신장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출의례를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소그드 장례법이 용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 이에 비해 중국 소그드인의 무덤은 지하에서 발견되었으며,[41] 아직 납골기가 발굴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42]

---

38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들은 아케메네스조의 이란과 아나톨리아 및 기원전 4세기의 이라크 쿠르디스탄(Kurdistan)의 키즈 카판(Qyz Qapān) 등에도 유사한 예들이 있다. E. Porada, 1965, *The Art of Ancient Iran*, New York, pp. 138~39. 이 무덤들은 크기가 작아 관절이 꺾이지 않은 시신 전신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납골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쿠르디스탄의 무덤 정면에는 나크쉐 로스탐에서와 같은 불의 제단 양옆에 사제가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나크쉐 로스탐을 모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A. Sh. Shahbazi, 1975, 앞의 책, p. 133.

39 납골기는 소그드인들의 장례풍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두 연구를 참고하였다. L. V. Pavchinskaia, 1994, 앞의 글; Galina Pugachenkova, 1994, "The Form and Style of Sogdian Ossuarie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pp. 227~243.

40 납골기에 표현된 성스러운 불 앞에서의 예배장면은 그들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음을 보여준다.

41 2015년까지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은 100기가 넘으며 위진남북조에서 수당대에 걸쳐 중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馬曉玲, 2015, 「中古時期人華粟特人墓葬的發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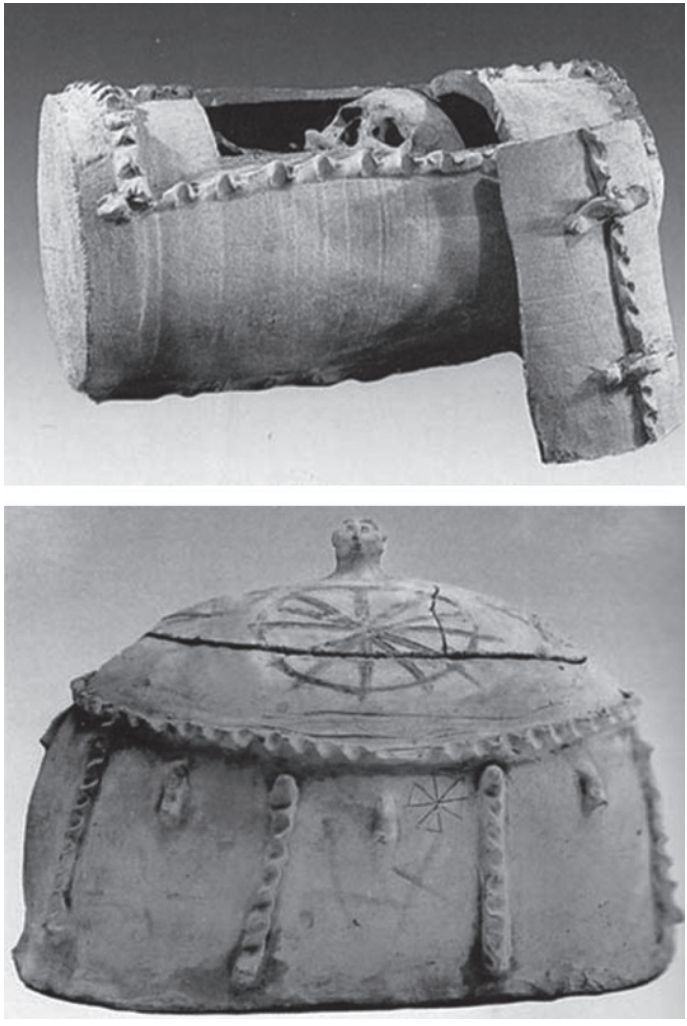


그림 9 신장 출토 납골기, 7세기 후반~8세기 전반

출처: Li Yusheng, 2016, "Study of Tombs of Hu People in Late 6th Century Northern China," *Newsletter di Archeologia CISA*, Volume 7, fig. 29.

與研究」, 『中國史研究動態』 3, 35~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중국 소그드인의 상장(喪葬) 풍습과 석장구

소그드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무역을 하면서 지금의 신강(新疆)과 하서(河西)는 물론 중국 내에 거류지 촌락을 형성하며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다.[43] 중국에 이주한 소그드인들의 상장례는 그들이 정착한 곳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소그디아나에서의 상장 의례는 『아베스타』의 「벤디다드」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 소그드인의 장례가 어떤 식으로 거행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의 구조와 무덤 출토 석장구의 장례 장면을 통해 그 풍속을 엿볼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출토 소그드인 무덤 중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중국 북부에서 발굴된 소그드 살보의 무덤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소그드 석장구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9년 태원에서 발견된 우홍묘(592년), 2000년 서안에서 발견된 안가묘(579년), 2003년 사군묘(580년), 2004년 강업묘(571년)가 그것이다.[44] 이들이 소그드인 살보의 무덤이라는 것은 다양한 장면을 새긴 석장구와 함께 출토된 묘지를 통해 확인된다.[45] 이 외에도 20세기 초반

---

42 투르판보다 동쪽에는 소그디아나와 같은 장례 기록이 없다. 影山 悦子, 2014, 「ソグド人の墓と葬具-中國とソグディアナ」, 森部豊 編, 『ソグド人と東ユーラシアの文化交涉』, 東京: 勉誠出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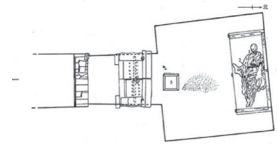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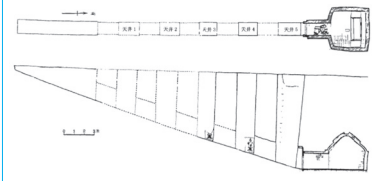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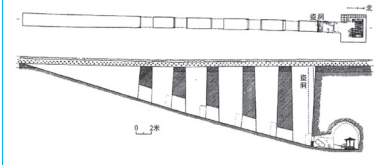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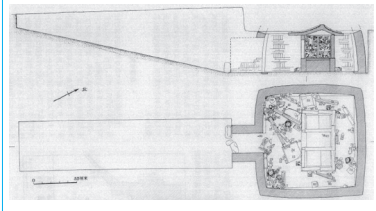
43 榮新江, 1999, 「北朝隋唐粟特人之遷徙及其聚落」, 『國學硏究』 6, 27~85쪽.

44 서윤경, 2007, 「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北朝시기 西域民族의 石葬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97~127쪽; 정완서, 2010,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中央 아시아 硏究』 15, 327~350쪽. 구미와 일본에서의 소그드 석장구 연구에 대해서는 각기 다음을 참조. 심영신, 2020, 「소그드 石葬具 발견 현황과 歐美의 硏究史」, 『중국사연구』 129, 39~78쪽; 서남영, 2020, 「일본의 소그드 연구 동향-주요 연구와 미호뮤지엄 소장 석관상위병 검토」, 『동양미술사학』 11, 7~29쪽.

45 심영신, 2020, 위의 글, 표 1 참조. 석장구는 석관상과 가옥형인 석당의 기본 형식과 석관상에 궐문이 첨가되는 형식이 있는데 영하회족 자치구 고원의 사씨(史氏) 무덤에서는 석상을 둘러싼 석판이 없는 형식도 출토되었다. 정완서, 2010,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소그드 살보무덤의 구조와 평면

묘주(묘의 조성)	발굴위치(시기)	묘의 구조 및 평면
강업 묘 (북주 천화 6년, 571)	섬서 서안(2004)	 출처: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8, 「西安北周康业墓发掘简报」, 『文物』 6, 도 2.
안가 묘 (북주 대상 원년, 579)	섬서 서안(2000)	 출처: 陕西省考古研究所, 2001, 「西安发现的北周安伽墓」, 『文物』 1, 도 2.
사군 묘 (북주 대상 2년, 580)	섬서 서안(2003)	 출처: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 「西安北周史君石椁墓」, 『考古』 7, 도 2.
우홍 묘 (수 개황 12년, 592)	산서 태원(1999)	 출처: 山西省考古研究所 · 太原市考古研究所 · 太原市晋源区文物旅游局, 2001, 「太原隋代虞弘墓清理简报」, 『文物』 1, 도 2.

330쪽 및 각주 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1991년 그리고 2003년 중국에서 유출된 소그드 석장구가 구미의 미술 시장에 등장하였다. 강업묘 석장구에서는 비단옷이 입혀진 시신이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노출의례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살보들의 무덤은 남북방향으로 배치된 단실묘로 경사진 긴 묘도를 지나 수평의 용도를 통과하여 묘실로 이르게 되는 구조이다(표 1).[46] 이는 당시 북조에서 일반적으로 썼던 묘의 구조와 평면이다.[47] 묘도 역시 당시의 북조 무덤에서처럼 벽화로 장식했던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흔적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묘실은 궁륭형 천정으로 묘실 내부는 벽돌로 방을 만들었다.

소그드 석장구에는 다양한 도상들이 나타나는데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소그드인들이 등장하여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대체로 연회와 출행, 수렵, 춤과 악대 혹은 의장대, 안장을 얹은 무인마, 묘주부부가 표현되고, 대상행렬, 조로아스터교 장례 의례와 묘주의 승천 장면이 묘사되기도 한다(그림 10, 11). 이 중 대상과 장례 및 승천 장면을 제외한 도상들은 모두 당시 북조의 다른 무덤에서도 벽화로 많이 그려진 제재이다. 그러나 인물과 복식, 기물 및 제작 기법에서의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당시 북조의 다른 무덤에서는 정면향의 묘주 혹은 묘주 부부가 묘실 북벽에 그려지는 데 비해 소그드인 무덤에서는 이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소그드 석장구에서 조로아스터교 장례 장면을 처음 발견한 이는 1990년대 초부터 소그드 석장구를 연구해온 주디스 러너(Judith Lerner)로, 미호박물관

46 산서성 삭주 수천량에서 출토된 북제 무덤은 등급이 비교적 낮아 경사진 긴 묘도가 없는 것을 보면 살보 무덤은 꽤 높은 등급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주 왕조의 계급에 따르면 그들의 지위와 무덤의 규모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Li Yusheng, 2016, "Study of Tombs of Hu People in Late 6th Century Northern China", *Newsletter di Archeologia CISA*, Volume 7, p. 94.

47 고분의 구조와 석장구의 형식이 북조의 묘제와 유사하고, 고분의 위치가 귀족고분이 집중해 있는 장안성 동교의 용수원에 위치한 점 등에서 살보의 상장례 물품을 조정에서 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서윤경, 2017, 「중국 北朝 시기 家屋形 石葬具의 建築意匠 연구」, 『미술사논단』 44, 246쪽 및 각주 52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0 미호박물관 석관상의 견시 장면, 6세기 후반, 사가현, 미호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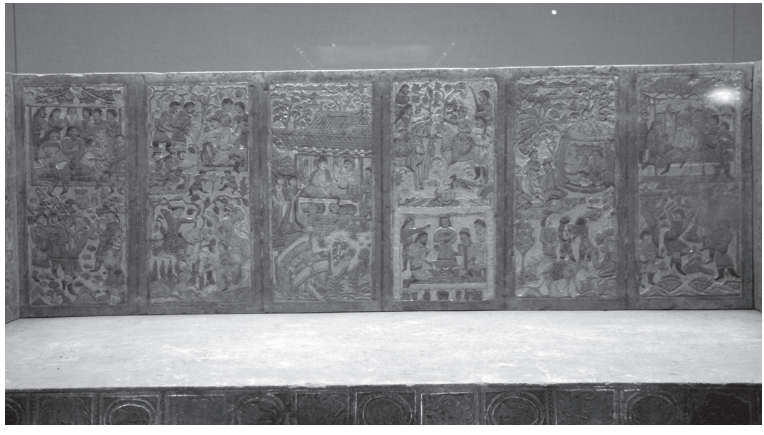


그림 11 안가묘 석관상 병풍석, 579년, 서안, 섬서역사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2 산동성 청주 부가촌묘 출토 화상석 9번, 573년

출처: 정옌 저, 소현숙 역, 2019, 『죽음을 넘어-죽은 자와 산 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중국 고대 무덤의 세계』, 知와 사랑, 217쪽, 도 11.

석관상 부조에서 개에게 시신을 보이는 사그디드 의식을 찾아냈다(그림 10).[48] 조로아스터교 장례의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찰한 러너는 산동성 청주(青州)의 부가(傅家)묘에서 출토한 제9화상석 또한 세 번째 견시 장면으로 추정하였다(그림 12).[49]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영혼이 3일간 지상에 머문다고 믿었으며 장송 직전 영혼에게 재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한다.[50] 이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세도스(sedōš) 의식으로 세 번째 밤의 자정부터 다음 날 동이 트는 사이에 거행된 견시이다.[51] 의식의 마지막에 음식과 의복이 봉헌되는데 의복은 세드라(sedra) 혹은 사브리르(šavgīre)라고 하며, '새 옷' 또는 '새로 세탁'

48 Judith A. Lerner, 1995, "Central Asian in Sixth Century China: A Zoroastrian Funerary Rite," *Iranica Antiqua* 30, pp. 179~197.

49 Judith Lerner, 2011, "Zoroastrian Funerary Beliefs and Practices Known from the Sino-Sogdian Tombs in China", *The Silk Road* 9, pp. 18~25.

50 이 의식은 죽은 지 30일째, 그리고 다음 30년 혹은 대략 한 세대 정도 매년 행해지는데 조로아스터교 이전의 유산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준수되어온 의식이므로 조로아스터교 이후에도 금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death-1

51 가장 오래된 의례로 여겨지며 "새벽의례"라고도 한다. H. A. Anquetil du Perron, 1771, *Zend-Avesta*, 3pts, 2vols., Paris, p. 587(https://iranicaonline.org/articles/death-1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3 안가묘 용도 앞 석문의 인두조신, 579년, 서안, 섬서역사박물관

한 것이어야 한다.[52] 음식은 육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가 봉헌되었으며,[53] 가족들은 3일간 육류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배화단 뒤에서 다리 쪽을 향해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것이 봉헌의복 세드라로 추정된다(그림 10). 배화단 우측 아래는 음식도 보인다.

견시와 함께 소그드 석장구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배화단과 이 앞에서 의례를 행하는 사제의 모습이다(그림 13). 사제는 석장구마다 차이가 있어 사람뿐 아니라 인두조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54] 배화단 앞에 음식을 가득 차려

52 Mary Boyce, 1977, *A Persian Stronghold of Zoroast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54. 의식 후에 의복은 사제의 것이 되었는데 사제는 이를 갖거나 고인의 가족들과 공유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

53 따라서 의례를 위한 음식(gōšodā)은 계란으로 대표된다.

54 소그드 무덤이나 석장구에 표현된 인두조신의 사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Frantz Grenet, Pénélope Riboud, and Yang Junkai, 2004, "Zoroastrian Scenes on a newly Discovered Sogdian Tomb in Xi'an, Northern China", *Studia Iranica*, Vol. 33, pp. 278~279; Pénélope Riboud, 2011, "Bird Priests in Central Asian Tombs of 6th-Century China and Their Significance in the Funerary Realm",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21, pp. 1~25; Pénélope Riboud, 2019, "Priests and Other Xian 祆 Ritual Performers in Medieva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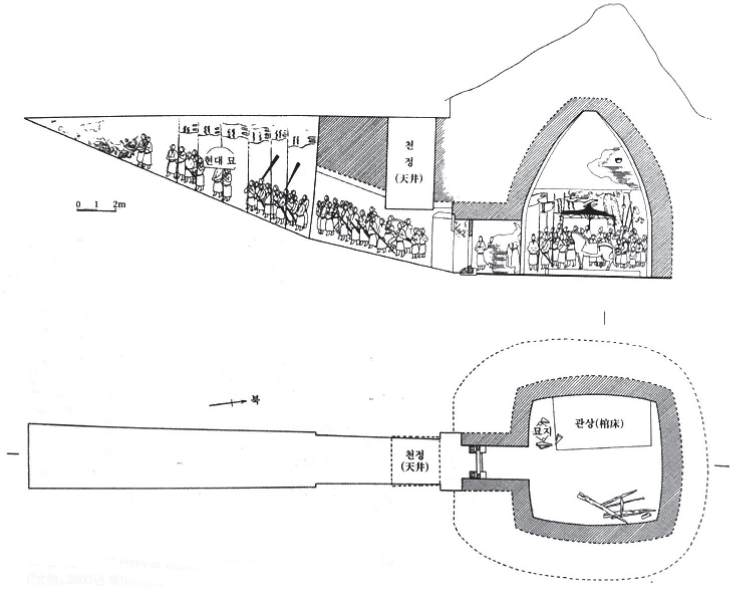


그림 14 서현수묘 평면도와 단면도, 산서성 태원시, 북제

출처: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3,「太原北齐徐显秀墓发掘简报」,『文物』10, 도 3.

놓은 상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배화의례가 소그드 장례에서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크쉐 로스탐 왕릉들의 입구 상방에도 배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다음으로는 서현수(徐顯秀)묘와 삭주(朔州)시 수천량(水泉梁)묘와 같은 북조시대 다른 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 소그드인 무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북조의 무덤에서는 묘도와 용도 및 묘실에 모두 벽화가 그려진다(그림 14).[55] 장례 도상은 동위와 북제에서 규정한 상장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묘주의

China", *Early Midieval China*, 25, pp. 100~120.

55 소그드인 장례에 영향을 끼쳤을 북조의 장례절차에 대한 세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소략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장례의 규모는 매우 컸다고 한다. 북위 신구 2년(519) 임성왕 원징의 장례 물품과 장례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조수의 부친상에 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5 서현수묘 묘실 정벽 묘주 부부도

출처: https://zh.wikipedia.org/wiki/徐顯秀墓

신분에 따라 묘도의 벽화 제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56] 묘도에는 대체로 의장 행렬이 그려지고 끝에는 열극(列戟)이 그려진다. 묘도의 양 벽에 그려진 의장 행렬은 용도를 지나 묘실 내 남벽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묘실 좌우 벽으로 이어진다. 이 행렬 앞에는 각기 우거와 안장을 얹은 무인마가 있고, 정벽인 북벽에는 묘주상(그림 15), 천장에는 천상도가 배치된다.[57]

정옌에 의하면 묘도의 구조와 벽화는 모두 장례 때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

한 기록은 그 규모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옌 저, 소현숙 역, 2019, 「장례葬禮와 도상圖像」, 『죽음을 넘어-죽은 자와 산 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중국 고대 무덤의 세계』, 知와 사랑, 225쪽 각주 69.

56 정옌 저, 소현숙 역, 2019, 『죽음을 넘어-죽은 자와 산 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중국 고대 무덤의 세계』, 知와 사랑, 224쪽.

57 楊泓, 2000, 「南北朝墓的壁畵和拼鎭磚畵」, 『漢唐美術考古和佛敎藝術』, 北京: 科學出版社, 4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6 서현수묘 묘도에서 바라본 묘실

출처: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北齊徐顯秀墓』, 文物出版社, 도 1.

으로 추정된다.[58] 영구 운반 행렬이 묘실로 향해 갈 때 벽화 속 의장 행렬은 운구 행렬 양쪽에 늘어서게 된다. 묘도의 바닥은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데 벽에 그려진 의장행렬은 묘도 바닥의 각도와 일치한다. 또한 벽화 행렬 속 인물의 크기가 등신대로 그려져 있다. 묘도의 너비는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넓지 않다. 따라서 벽화 속 인물들은 묘도 너비의 한계로 인해 묘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들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그림 16). 또한 이 행렬을 따라 묘실로 들어가면 결국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는 정벽의 묘주상을 만나게 되고, 묘실과 묘도의 벽화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례를 구성하게 된다.

북조 무덤의 벽화가 장송의례를 위해 쓰였고 그 정점에 묘주상이 위치한다고 해석하면 소그드인 장송의례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소그드인 무덤의 묘실 정벽에는 묘주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묘주 혹은 묘주 부부의 도상은 묘실 정벽이 아니라 석관상에 그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은 북조의 묘주상이 정면향으로 앉아 신상과 같은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그림 15) 서사의 한 역할을 맡은

58 정옌 저, 소현숙 역, 2019, 앞의 책, 227~231쪽. 정옌은 특히 경사진 긴 묘도가 북조 후기의 특정한 장례의식을 위해 설계되었고 벽화 또한 의식과 묘제에 따라 변화되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북제 후기에 오면 벽화가 장례의식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상실한 채 시각적 효과만 증가시킨다. 그러나 묘도의 벽화는 계속해서 장례 속의 '도구'로 기능했다(2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장인물들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11). 소그드인 무덤의 묘도에도 벽화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 당시에 훼손된 상태로 내용은 알 수 없다. 만일 의장행렬이 그려졌다 해도 묘실 벽에는 벽화가 없기 때문에 행렬은 묘실 내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서현수묘에서와 같은 방식의 장례의식은 상상하기 어렵다.

시신을 불결하게 보는 소그드인의 인식은 시신을 존중하는 중국 전통문화와는 대립되는 관점에 있다.[59]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지는 노출의례는 중국의 문화풍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그드인 혹은 그 후손들이 중국식 묘제를 선택한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즉, 중국식 묘제를 통해 소그드의 전통적인 상장례관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소그드인의 기본적인 묘제가 당시 북중국에서의 방식이라 해도 소그드 전통 상장례관과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관을 지하에 묻는 방식이지만 무덤을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시신이 대지와 접촉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출을 통한 정화 의식은 없었을지라도 시신을 석장구에 안치함으로써 시신이 대지와 접촉하는 일은 재차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석장구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를 벽돌 무덤에 매장함으로써 당시 북중국의 묘제를 택한 듯 보이지만 이는 결국 대지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소그드 전통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인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개나 새와 같은 맹금류에 의해 시신이 찢기기 전까지 페르시아인 남자의 시신은 절대 묻히지 않는다고 한다. 마기가 이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시신은 밀랍으로 덮인 뒤 땅에 묻힌다.[60]

---

59 陳海濤, 2001, 앞의 글, 47~52쪽. 당나라 때 소그드인의 장례에는 위와 같은 식의 장례는 없었으며 고고학적으로 보면 모두 토장을 하고 관이 있다.

60 Herodotus 1.140, A. Sh. Shahbazi, 2011, 앞의 글, pp. 851~853. 노출을 행하지 않았던 부자들은 먼저 시체를 방부처리하여 단단한 관에 넣어준 뒤 종종 바위 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노출을 행하지 않을 경우 시신이 땅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면 토장도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데브다드」에 나오는 '무덤이 파여진 땅은 50년 만에 다시 깨끗해졌다'고 하는 구절 또한 이를 확인시켜준다.[61]

소그드의 전통 상장례 의식 가운데 견시는 중국에서도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석장구에 표현된 견시 장면은 중국 소그드인들이 실제로 행했던 의례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62] 중국의 문화 풍토에서는 다크마를 세우고 육탈을 행하는 노출의례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견시를 행하는 것은 장애가 없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신을 다루는 과정은 견시를 통해서 정화가 보장될 수 있다. 소그드 석장구에서는 출행이나 수렵, 묘주 부부도 등의 장면에 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우홍 석당, 사군 석당 및 미호박물관 석관상에서 두드러진다.[63] 소그디아나 장례의식에서 개는 정화의 역할을 하는데, 북방 유목족인 오환에서도 개는 사자의 영혼을 내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64] 이러한 역할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개의 영적 판별력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65]

덤에 안치함으로써 불, 물, 대지의 신성한 창조물들의 오염을 피했다.

61 Vd. 5.14. Frantz Grenet, 2000, 앞의 글(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rial-ii 재인용).

62 정옌 또한 이들이 중국의 관곽을 사용하면서도 견시의 풍속이 존재했던 것이 비교적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 보았다(정옌 저, 소현숙 역, 앞의 책, 223쪽). 그러나 관곽의 사용과 견시의례는 문화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63 이를 조로아스터교 장례의 견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장례가 아닌 일상 장면이기 때문에 그 여부는 해당 장면에 대한 맥락이 해석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4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桓鮮卑東夷傳 烏桓.

65 전호태는 진묘와 영혼인도의 능력이 개의 민감한 후각에 기인한다고 본다(전호태, 2020, 「고구려 고분벽화의 개」, 『한국고대사연구』 97, 100쪽). 영혼인도견에 대한 신앙은 고대 동아시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전호태, 2020, 위의 글, 95쪽). 우리나라에서도 수호신, 잡귀와 요괴를 물리치는 벽사, 그리고 재난을 경고하는 예지 기능의 개가 고구려 고분벽화와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최석규, 2008, 「유물과 고문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토종개의 고찰」, 『경주문화논총』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런 측면에서 석장구는 당시 소그드인들에게 납골기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장구였을 수도 있다. 게다가 석장구의 한 유형으로 가옥형 석장구가 있는데[66] 이는 납골기의 확장된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다. 중국고궁박물원 소장 건축형 납골기는 사군 석당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소그드 납골기와 중국식 석당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형태로 볼 수 있다. 납골기는 육탈을 통해 정화된 뼈를 담는 용기인데 중요한 것은 육탈을 통해 시신을 정화하는 것이고, 대지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북조의 무덤에서는 묘실을 흙으로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를 오염시킬 염려가 없다. 견시를 통해 정화된 시신을 납골기를 대체한 석장구에 봉안하여 벽돌로 쌓은 묘실에 매장하는 것은 성스러운 원소를 오염시키지 않는 적절한 장례방식이었을 것이다.

소그드인들이 중국에서 행한 상장례 의식에서 중국 전통 묘제와의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는 지하 무덤과 관곽의 사용보다는 시신의 방향에 있다. 소그드인의 무덤은 남북방향의 중국식이지만 시신은 동서방향으로 배치하여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보이기 때문이다.[67] 소그디아나에서는 육탈된 뼈를 수거하여 납골기에 넣고 나우스 내부의 벤치에 봉안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시신 혹은 납골기의 정해진 방향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앞에서 언급한 페르시아만 카르크섬의 납골기형 암굴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서안 근교 강업과 안가 및 사군의 묘 부근에서 발견된 이탄의 묘에서도 석관은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68] 이탄은 인도에서 이주해 온

202~203쪽). 고구려 고분벽화의 개에 대해서는 전호태, 2020, 위의 글, 87~106쪽 참조. 신라와 백제에서도 기록을 통해 영물로서의 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석근, 2017, 「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연구」, 『국제언어문학』 36, 69~100쪽.

66 2016년까지 발견된 북조의 가옥형 석장구는 총 8점이다. 그 연원과 제작 시스템 및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서윤경, 2017, 앞의 글, 229~255쪽 참조.

67 강업의 예를 보았을 때 머리는 서쪽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68 程林泉, 2006, 「西安北周李誕墓的考古發現與研究」, 『西部考古』 1, 391~4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바라문으로 소그드인은 아니다. 시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동서방향으로 놓는 이유나 연원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당시 중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시신을 놓는 방향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고 소그드인들은 이를 고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6세기의 돌궐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사당은 동(남)향이라는 점[69] 또한 이와 연관하여 참고해볼 만한 사실이다.[70]

Ⅳ. 맺음말: 상장(喪葬)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이제까지 소그드의 전통 장례의식과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의 장례풍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글은 6세기 후반 중국의 소그드 석장구 연구사를 통해 대두된 소그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6세기 후반 소그드인들의 무덤은 당시 북조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석제 관곽에 지하무덤을 썼고, 이는 그동안 소그디아나 본토에서의 장례문화와의 현격한 차이로 파악해왔다. 서구 학계에서는 6세기 후반 중국의 소그드인 묘제와 석장구를 바탕으로 그들이 한화(漢化, sinicization) 혹은 중국문화에 동화(fusion 또는 assimilation)되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중국 학자들이 석장구 연구에 합류하면서 더욱 강화되어갔다.[71] 문제는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중국 중심

69 박아림 · 낸시 S. 스타인하트 · L. 에르덴볼드, 2018, 「6-8세기 몽골 초원의 제사유적과 석인상 연구」, 『中央아시아硏究』 23호 2권, 145쪽.

70 비한족 무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은 석장구가 출토된 북조의 무덤에서도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보강하기로 하겠다.

71 Albert E. Dien, 2014, "The Sogdian Experience in China: Sinicization or Accommodation", ed. by Dorothy Wong and Gustav Heldt, *China and Beyond in the Mediaeval Period: Cultural Crossings and Inter-Regional Connections*, New York: Cambria Press, p. 119. 제시카 로손(Jessic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소그드인들이 채택한 묘제와 석장구를 기반으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 즉 실제 이를 선택한 중국 소그드인의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당시 소그드인들은 중국 사회 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소그드인 정착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그드인 공동체 내에서 그들은 중국인과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랐을 것이고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되었을 정체성은 특히 상장관에서 중국인들과 큰 차이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본토 소그드인들과도 일정 정도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했으리라 본다.[72]

소그드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현지의 묘제를 따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벽돌로 쌓은 지하무덤에 석장구를 채용함으로써 이민족 정권에 의해 수립된 북조의 무덤 방식은 전통적인 중국식과는 차이가 있다.[73] 또한 묘실 내 벽화의 배치, 석장구 장면의 배치와 제작기법 등에서는 북조식 무덤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신을 놓는 방향은 중국 고유의 남북방향과 완전히 다른 동서방향인 점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 다루었던 소그드인 분묘에서는 공통적으로 묘지가 출토되었는데 석제 묘지를 무덤에 봉안하는 것은 중국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는 소그드인의 한화 경향의 증거로 채택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관습이 북위 시대 탁발족에 의해 발전되었고, 남조의 한족 무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그드인들은 한의 관습이 아니라 선비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기도

Rawson)은 소그드 무덤과 석장구에 나타난 장례문화를 漢化로 파악했던 대표적인 학자이다.

72 중국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의 소그드인 석장구를 구미에서는 sino-sogdian art라 부른다. 6세기 후반 당시의 소그드인들 역시 스스로를 중국인도 아니며 본토의 소그드인들과도 다른 'sino-sogdian'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73 이 글이 발표된 2020년 11월 28일 당시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았던 서윤경 선생에 의하면 북조 무덤에서 채용한 석장구의 기원이나 연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74]

이를 통해 우리는 소그드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혹은 의도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따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이 선택한 중국 북조의 방식은 마치 그들의 전통을 '대체'한 듯 보이지만 실상 자신들의 믿음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그들이 거주지역의 문화풍토에 '적응'하는 방식이었다.[75] 적응을 위한 선택은 소그드인들이 지역민(중국인)과 문화적으로 '융합'해서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던 소그드인들과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중국인들의 죽음과 시신 및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르다. 이러한 관점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조식의 벽돌무덤과 석장구만 가지고 소그드인들이 한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소그드인들은 시신을 오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화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76] 이에 비해 『예기(禮記)』에서 주 문왕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을 산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文王之祭也, 事死者如事生)"고 하였다. 중국 고대에는 사람

74 Shing Müller, 2008, "Sogdier in China um 600 n. Chr.: Archäologische Zeugnisse eines Lebens zwischen Assimilation und Identitätsbewahrung",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Hamburg* 183/184, pp. 117~148(Albert E. Dien, 2014, 앞의 글, p. 120 및 n. 17 재인용). 뮐러는 묘지 매납이 중국의 관습으로 확고하게 발전한 것은 당대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보았다.

75 줄리아노와 러너는 중국식 지하 매장법과 석장구의 '선택(choice)'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중국)에 널리 퍼져 있는 매장형식으로의 '적응(adaptation)'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았다. Annette L. Juliano and Judith A. Lerner, 2001, "iho Couch Revisited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 *Orientations* Vol. 32, p. 59.

76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혼의 운명은 오로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달려 있으며 천국에 도달한 뒤에는 어떤 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death-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죽음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무엇인가로 변형되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믿음이 있었다.[77]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요순시대에 사후 세계와 연결되는 조상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은대에는 조상이 죽더라도 그 영혼은 신이 되어 자손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여겼고, 이러한 믿음에서 조상숭배의 전통이 나오게 되었다.[78]

새로운 정착지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 차선책은 그 지역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것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화라는 해석은 소그드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동질성을 저버린 채 이를 중국문화로 대체했다는 것인데, 소그드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소그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믿음을 보수적으로 유지했다기보다는 거주지에서의 문화에 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79] 이들은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당했을 때도 저항하기보다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황에 대처한 사람들이었다. 어디에서든 지리·기후·역사·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 기꺼이 '적응'해서 살았으며[80] 석장구는 이러한 적응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77 진영아·양회석, 2008, 「신화에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 『중국인문과학』 40, 669~688쪽.

78 임병식, 2018, 「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23쪽. 그러나 이는 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에 국한된 것이었다. 박지현, 2002, 「중국의 영혼 관념과 혼백설」, 『中國文學』 38, 34쪽.

79 보리스 마샥은 소그드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와 같은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신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하거나 힌두의 신을 섬겼던 것으로 보인다(Boris I. Marshak, 2002, "The Sogdian in Their Homeland," *Monks and Merchants: Silk Road Treasures from Northwest China. Gansu and Ningxia, 4th-7th Century*,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p. 233). 또한 전통 조로아스터교와 달리 신상을 조성하여 숭배하고, 건물 내벽에는 신상을 그려 넣기도 했다. 影山悦子, 2011, 「ソグド人の壁畵」, 曾布川 寬·吉田 豊 編, 『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 京都: 臨川書店, 126~131쪽.

80 다이언은 '漢化'나 'assimilation' 대신 'adaptation(채택), accommodation(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 할 수 있다.[81]

이런 점에서 이들의 중국문화로의 '동화' 혹은 '한화'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의 가치나 우열의 문제를 떠난 '적응'의 개념이 당시 소그드인들의 삶의 태도와 석장구 미술의 성격을 더욱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중국식 고분에 석장구를 사용하고, 여기에 본토의 풍속과 신앙의 도상을 묘사한 북조시기 서역인의 석장구를 상장문화가 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제의 장구라 보는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82]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다른 민족과 문화 간의 상호교류와 영향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져간 이민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과 문화가 몇 세기 동안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알버트 다이언의 말을 빌리면 소그드인을 자신의 입장을 가진 한 집단이라는 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중국에서의 그들의 역사와 거주가 몇 세기 동안 미친 중요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83]

응), acculturation(변용), hybridization(혼성) 등의 개념을 제안한다. Albert E. Dien, 2014, 앞의 글, p. 119.

81 석장구에 표현된 부조의 주제와 표현을 북조 벽화묘와 비교하는 추후의 연구 및 이 글에서 다룬 살보 외의 소그드인들의 묘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그드인의 정체성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82 서윤경은 이어 북조시기 가옥형 석장구는 수당대 상장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서윤경, 2017, 앞의 글, 249, 251쪽.

83 Albert E. Dien, 2014, 앞의 글, p. 1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三國志』, 『通典』.

단행본

메리 보이스 저, 공원국 역, 2020,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민음사.

정수일 편, 2013, 『실크로드 事典』, 창비.

정옌 저, 소현숙 역, 2019, 『죽음을 넘어-죽은 자와 산 자의 욕망이 교차하는 중국 고대 무덤의 세계』, 知와 사랑.

張志堯 主編, 『草原絲綢之路與中亞文明』,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5, 『北齊徐顯秀墓』, 文物出版社.

Anquetil du Perron, H. A., 1771, *Zend-Avesta*, 3pts, 2vols., Paris.

Bailey, H. W., 1943, *Zoroastrian Problems in the Ninth-Century Books*, Oxford.

Boyce, Mary, 1975,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 The Early Period*, Leiden: Brill.

_____, 1977, *A Persian Stronghold of Zoroast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79, *Zoroastrian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_____, 1982, *A History of Zoroastrianism II: Under the Achaemenians*, Leiden: Brill.

Frye, Richard N., 1984, *The History of Ancient Iran*, Munich: C.H. Beck.

Ghirshman, R., 1962, *Persian Art: The Parthian and Sasanian Dynasties*, New York.

Kary-Niyazov, T. N. and Borovkov, A. K., ed., 1941, *Uzbek-Russian Dictiona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ashkent.
Madan, D. M., ed., 1911, *The Complete Text of the Pahlavi Dinkard*, 2 vols., Bombay.
Moṣṭafawī, M. T., 1954, *Eqlīm-e Pārs*, Tehran.
Porada, E., 1965, *The Art of Ancient Iran*, New York.
Shahbazi, A. Sh., 1975, *The Irano-Lycian Monuments*, Tehran.

논문

강석근, 2017,「신라개와 신라개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연구」,『국제언어문학』36.
민병훈, 1999,「西투르키스탄의 諸異宗遺蹟 및 出土遺物」,『미술사연구』13.
_____, 2009,「異宗教間의 習合과 共存 - 조로아스터教와 佛教를 중심으로」,『미술자료』78.
박아림·낸시 S. 스타인하트·L. 에르덴볼드, 2018,「6-8세기 몽골 초원의 제사유적과 석인상 연구」,『中央아시아硏究』23호 2권.
박지현, 2002,「중국의 영혼 관념과 혼백설」,『中國文學』38.
서남영, 2020,「일본의 소그드 연구 동향 - 주요 연구와 미호뮤지엄 소장 석관상위병 검토」,『동양미술사학』11.
서윤경, 2007,「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北朝시기 西域民族의 石葬具를 중심으로」,『미술사논단』24.
_____, 2017,「중국 北朝 시기 家屋形 石葬具의 建築意匠 연구」,『미술사논단』44.
심영신, 2020,「소그드 石葬具 발견 현황과 歐美의 硏究史」,『중국사연구』129.
임병식, 2018,「중국 유학의 생사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호태, 2020,「고구려 고분벽화의 개」,『한국고대사연구』97.
정완서, 2010,「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中央 아시아 硏究』15.
진영아·양회석, 2008,「신화에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중국인문과학』40.
최석규, 2008,「유물과 고문서, 고분벽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토종개의 고찰」,『경주문화논총』11.

馬曉玲, 2015,「中古時期人華粟特人墓葬的發現與硏究」,『中國史硏究動態』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考古研究所·太原市晋源区文物旅游局, 2001,「太原隋代虞弘墓清理简报」,『文物』1.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西安北周史君石椁墓」,『考古』7.
_____, 2008,「西安北周康业墓发掘简报」,『文物』6.
陝西省考古研究所, 2001,「西安发现的北周安伽墓」,『文物』1.
楊泓, 2000,「南北朝墓的壁畵和拼鎭磚畵」,『漢唐美術考古和佛教藝術』, 北京: 科學出版社.
榮新江, 1999,「北朝隋唐粟特人之遷徙及其聚落」,『國學研究』6.
林悟殊, 1994,「中亞古代火襖教葬俗」, 張志堯 主編,『草原絲綢之路與中亞文明』,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程林泉, 2006,「西安北周李誕墓的考古發現與研究」,『西部考古』1.
陳海濤, 2001,「從葬俗的變化看唐代粟特人的漢化」,『文博』3.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3,「太原北齐徐显秀墓发掘简报」,『文物』10.

影山 悦子, 2011,「ソグド人の壁畵」, 曾布川 寬·吉田 豊 編,『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 京都: 臨川書店
_____, 2014,「ソグド人の墓と葬具 - 中國とソグディアナ」, 森部豊 編,『ソグド人と東ユーラシアの文化交涉』, 東京: 勉誠出版.

Abdullaev, Kazim, 2017, "Funerary Tradition of the Ancient East in Examples From Anatolia and Bactria-Margiana: Origins or Parallels?", *TÜBA-AR* 20.
Boyce, Mary, 2011, "Corpse", *Encyclopædia Iranica* Vol. VI, Fasc. 3.
_____, 2012, "Cleansing i. In Zoroastrianism", *Encyclopaedia Iranica*, Vol. V, Rasc.7.
Choksy, Jamsheed K., 1998, "Aging, Death, and the Afterlife in Zoroastrianism", *How Different Religions View Death and Afterlife*, edited by Christopher J. Johnson and Marsha G. McGee, Philadelphia: Charles Press.
_____, 2015, "Religious Sites and Physical Structure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Zoroastrianism*, eds. Michael Stausberg and Y.S.-D.Vevaina, New Jersey: John Wiley & S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ien, Albert E., 2014, "The Sogdian Experience in China: Sinicization or Accommodation", ed. by Dorothy Wong and Gustav Heldt, *China and Beyond in the Mediaeval Period: Cultural Crossings and Inter-Regional Connections*, New York: Cambria Press.

Frye, Richard N., 1982, "The "Aramaic" Inscription on the Tomb of Darius", *Iranica Antiqua* 17.

Grenet, Frantz, 2000, "BURIAL ii. Remnants of Burial Practices in Ancient Iran", *Encyclopædia Iranica*, Vol. IV, Fasc. 5-6.

Grenet, Frantz, Riboud, Pénélope, and Yang, Junkai, 2004, "Zoroastrian Scenes on a newly Discovered Sogdian Tomb in Xi'an, Northern China", *Studia Iranica*, vol.33.

Hoffman, K., 1965, "Daxma", *Kuhn's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79,

Huff, Dietrich, 2003, "Archaeological Evidence of Zoroastrian Funerary Practices", in *Zoroastrian rituals in Context*, edited by Michael Stausberg, Leiden: Brill.

Juliano, Annette L. and Lerner, Judith A., 2001, "The Miho Couch Revisited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 *Orientations* Vol. 32.

Kellens, J., 2011, "AVESTA i. Survey of the history and contents of the book", *Encyclopaedia Iranica*, III/1.

Lerner, Judith A., 1995, "Central Asian in Sixth Century China: A Zoroastrian Funerary Rite", *Iranica Antiqua* 30.

_____, 2011, "Zoroastrian Funerary Beliefs and Practices Known from the Sino-Sogdian Tombs in China", *The Silk Road* 9.

Marshak, Boris I., 2002, "The Sogdian in Their Homeland", *Monks and Merchants: Silk Road Treasures from Northwest China. Gansu and Ningxia, 4th-7th Century*,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Martínez, Javier and Vaan, Michiel de, 2014, "Texts" in *Introduction to Avestan*, Brill Introductions to Indo-European Languages, Volume 1, Leiden: Brill.

Moazami, Mahnaz, 2016, "NASU",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Müller, Shing, 2008, "Sogdier in China um 600 n. Chr.: Archäologisc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Zeugnisse eines Lebens zwischen Assimilation und Identitätsbewahrung",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 Hamburg* 183/184.

Pavchinskaia, L. V., 1994, "Sogdian Ossuarie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Vol. 8.

Pugachenkova, Galina, 1994, "The Form and Style of Sogdian Ossuaries",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Riboud, Pénélope, 2011, "Bird Priests in Central Asian Tombs of 6th-Century China and Their Significance in the Funerary Realm",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21.

_____, 2019, "Priests and Other Xian 祆 Ritual Performers in Medieval China", *Early Midieval China*, 25.

Shahbazi, A. Sh., 2011, "Astōdān", *Encyclopædia Iranica*, Vol. II, Fasc. 8.

Yusheng, Li, 2016, "Study of Tombs of Hu People in Late 6th Century Northern China", *Newsletter di Archeologia CISA*, Volume 7.

웹사이트

http://hyperstition.abstractdynamics.org/archives/003625.html

https://imgur.com/gallery/oNXgQmO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stodan-ossuary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rial-ii.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rial-iii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leansing-i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corpse-disposal-of-in-zoroastrianism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death-1

https://sogdians.si.edu/believers-proselytizers-translators/

https://sogdians.si.edu/mulla-kurgan-ossuary/

http://www.heritageinstitute.com/zoroastrianism/death/ossuary.htm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vesta-holy-book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nasu-dem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jan/26/death-city-lack-vultures-threatens-mumbai-towers-of-silence
https://zh.wikipedia.org/wiki/徐顯秀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선택과 적응

– 6세기 후반 상장 미술을 통해 본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

심영신

이 글은 6세기 후반 중국의 소그드 석장구 연구사를 통해 대두된 당시 중국 소그드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소그드인들은 사업상의 목적이나 본토의 전란을 피해 본토 소그디아나를 떠나 동쪽으로 이주해서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 2세기 이후 중국 본토에까지 진출한 소그드인들은 고대 중국의 문화사에 큰 족적을 남겨놓았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중반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 전후 중국 서안과 태원에서 묘지와 석장구가 출토된 6세기 후반 소그드인 묘의 발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묘는 벽돌로 쌓은 지하무덤에 석제 관곽을 안치하는 방식이었다. 소그디아나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부정한 시신이 살아 있는 사람들과 물·불·대지 등 신성한 원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 번의 견시(sagdid)를 행한 뒤 다크마(dakhma)로 옮겨 새와 개가 시신에서 살을 제거하는 노출(exposure) 과정을 거친다. 육탈된 뼈는 납골기에 담아 지상의 묘당인 나우스에 안치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굴된 6세기 후반 소그드인의 묘제를 소그드인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거나 한화된 결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그드인의 정체성 문제는 중국의 시각이 아니라 소그드인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그드인의 묘제와 석장구를 재검토하였다. 우선 묘제가 한화의 결과라면 이들의 상장관이 먼저 한화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6세기 후반 중국 소그드인의 묘제는 소그디아나 본토에서의 상장관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었다. 벽돌로 쌓은 무덤과 석장구는 시신이 대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대지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더구나 벽돌식 지하무덤과 석장구는 전통적인 중국식이 아니라 북조에서 채택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여기에 소그드인 무덤에서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시신을 놓는 남북방향이 아니라 동서방향으로 석장구가 놓여 있었다. 즉, 이주민으로서 중국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의례를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상장관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소그드인의 묘제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거나 '한화'된 결과라기보다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소그드인, 정체성, 조로아스터교, 석장구, 상장 의례, 묘지, 남북조시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oice and Adaptation: The Identity of Sino-Sogdians in the Late Sixth Century Seen Through Sino-Sogdian Funerary Art

Yeoung shin Shim

The article deals with the Sino-Sogdians' identity, which emerged through studies on Sino-Sogdian art in the late 6th century. A full-fledged study of the Sogdians, who left Sogdiana and settled in mainland China after the 2nd century, was triggered by the four Sogdian tombs' excavations in the late 6th century around 2000. They built underground tombs with bricks and laid a tomb epitaph and a funerary monument, such as a sarcophagus or a stone couch. In Sogdiana, the funeral's core was to prevent the body from contaminating the world where it lives. Three rounds of *sagdid* and exposure in *dakhma* during the funeral period were performed for this purpose. The flesh-removed bones are placed in an ossuary and placed in a ground-based family tomb called *Naus*.

In previous scholarship, the Chinese way of tombs of the Sogdia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late 6th century, which was excavated in China, was taken as evidence of the tendency toward sinicization, or *Hanhua*. In this article, I reconsidered the Sogdians' tomb and funeral furniture, judging that the view of the Sogdia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view of the Chinese to consider the issue of Sogdian identity. First of all, if the tombs of Sino-Sogdians in the late 6th century were the result of sinicization, *Hanhua* should have been preceded in thoughts of death and funeral. However, the tombs were a way to maintain and protect their own perspective. Brick tombs and stone couches can prevent contamination of the ground by preventing the body from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ground. On top of this, in the Sogdian tomb, the body was placed in the east-west direction, not in the north-south direction, the traditional Chinese style. In other words, as migrants, they held funeral ceremonies in a way that did not go against their own customs while avoiding the rituals that caused conflicts with Chinese people. Thus, it was judged that the tomb of the Sogdians at the time was not a result of being "assimilated" or "sinicized" to Chinese culture, but rather a "choice" to "adapt" to the unfamiliar environment.

Keywords: Sogdians, identity, Sino-Sogdian art, Zoroastrianism, funeral rites, funerary monuments, funerary couches, Sarcophagus, epitaphs, Nanbei chao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미 학계의 '청조(淸朝)' 인식과 서술

– 『케임브리지 중국사 9권,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조』를 중심으로

박민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I. 머리말: '시간과의 경쟁'
II. 『청조』의 '중국'사: 내지와 변경
III. 『청조』의 '동아시아'사: 종속과 독립
IV. 『청조』의 학술·문화사: 전통과 혁신
V. 맺음말: 단절과 연속의 '이중변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시간과의 경쟁'

서양의 언어로, 서양의 연구자에 의해, 서양의 독자를 위해 쓰인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과연 비영어권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2002년에 출판된 9권의 제1부 『1800년까지의 청제국』(이하 『청제국』)[1]과 함께 이른바 '전근대' 청사의 서술을 완성하는 9권의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조』(이하 『청조』)가 2016년 5월에 출판되었다.[2] 5권 송대와 더불어 권수(Volume)의 변화 없이 동일 왕조의 서술이 제1부(Part One)와 제2부(Part Two)로 나뉜 청대의 두 권은 언뜻 헷갈리기에 십상이나,[3] 눈썰미가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두 책의 제목이 "청제국(Ch'ing Empire)"에서 "청조(The Ch'ing Dynasty)"로 바뀌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사를 연구하고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변화의 의미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그것도 "청조"에서 "청제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청제국"에서 "청조"로 바뀐 용어의

---

* 투고: 2021년 1월 17일, 심사 완료: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3월 3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0년 12월에 개최한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기획연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는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비평뿐만 아니라 학술회의에서의 토론,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의견을 공유해준 권나래, 송수연, 안제희, 이다영, 황유나 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1 Willard J. Peterson, ed., 200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One: The Ch'ing Empire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Willard J. Peterson, ed., 201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모든 왕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략 하나의 왕조가 두 권으로 나뉘어 서술되는데, 제1부의 경우에는 정치나 제도에 대한 설명이 위주가 되고, 제2부에는 외교·경제·문화 등에 관한 내용이 많다. 대신 제1부와 제2부는 권수를 달리하는데, 예컨대 수당의 경우 3권 제1부·4권 제2부이고, 명은 7권 제1부·8권 제2부이며, 청 말은 10권 제1부·11권 제2부로 나뉘는 방식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전' 현상을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4]

『청조』의 책임 편집자인 윌러드 피터슨(Willard J. Peterson)은 1970년대 이래 구미 학계를 지배했던 이른바 '페어뱅크적 시각'에서는 확실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피터슨은 현재 미국 내 중국 역사학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열정적이며 후학 양성에도 적극적인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도교수였던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와 더불어 저명한 선배 연구자들, 예컨대 양롄성(楊聯陞 Yang Liensheng, 1914~1990), 매리어스 잰슨(Marius B. Jansen, 1922~2000), 프레더릭 모트(Frederick W. Mote, 1922~2005), 그리고 그의 멘토이자 『케임브리지 중국사』를 처음 기획한 데니스 트위첫(Denis C. Twitchett, 1925~2006) 등과 함께 구미 학계에서 중국 전반의 역사를 정리해왔다.

피터슨은 『청조』의 서문(Introduction)인 「청조, 청제국, 그리고 대청일통(大淸一統)」에서 청을 진시황(秦始皇)과 이사(李斯)의 일통을 이어온 '왕조'로 보기도 하고, 전혀 이질적인 오랑캐의 일통을 보여주는 '제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청조』는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전근대'와 '근대' 청사의 전체 시리즈를 완결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피터슨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전 시리즈가 '제국'이라는 말을 비판 없이 써왔다고 언급하거나(2~6쪽), '왕조'나 '대일통'과 같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개념을 새삼스레 다시 언급하는 이유도 아마 이전 시리즈의 잘못과 오해를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5] 하지만 "모든 시대적 상황은 상당히 자의적이므로 용어는 '유용성'

4 제2부 『청조』에 대한 중국어 혹은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나 서평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학계 혹은 한국 학계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한편, 2002년에 출판된 제1부 『청제국』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5 실제로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청을 '제국'으로 부르는 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제국'은 근대 이래 중국을 침탈한 존재로서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청제국'이라는 용어 사용과 수용에 대해서는 손성욱, 2019, 「宗藩과 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총 '조선 모델'의 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의해 정의된다"[6]는 피터슨의 평소 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앞으로도 청이라는 하나의 왕조 혹은 제국에 대해 확고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9권 제2부의 제목은 제1부의 "청제국"에서 "청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피터슨은 "이 책에서는 청조로 부르기도 하고 청제국으로도 부를 것이지만, 그것은 '오래된(old)' 제국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질서(new order)를 대변한다"라고 변호한다(10쪽). '제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난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하며 중앙집권화된 청이지만, 18세기 강희-옹정-건륭의 위대한 세 황제가 건설한 '새로운 질서' 또한 결과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결국 『청조』의 시기적 하한선인 1800년 이후 그 질서는 어느새 '구질서(old order)'가 되어버리고, 이는 무려 40여 년 전에 존 페어뱅크가 편집을 맡은 10권(제1부)과 11권(제2부) 『청 말 1800~1911』(이하 『청 말』)로 곧장 이어진다.[7]

시기적으로 바로 뒤에 위치하는 『청 말』 10권(1978)과 11권(1980)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피터슨은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시간과의 경쟁'[8]에 내몰리게 되었다. 『케임브리

능성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66, 122쪽의 설명이 자세하다.

6 Li Yang, 2020, "Interview with Ming Scholars: Questions for Professor Willard Peterson, East Asian Studies and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USA", *Ming Studies* 81, pp. 61~62.

7 John K. Fairbank, ed., 197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198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두 권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총 4권으로 출판되었다. 존 K. 페어뱅크 책임 편집, 김한식 외 옮김, 2007, 『캠브리지 중국사 10(上)·(下), 청 제국 말 1800-1911(1부): 내란과 외환의 시기』, 새물결; K. 페어뱅크·류광징 책임 편집, 김한식 외 옮김, 2007, 『캠브리지 중국사 11(上)·(下), 청 제국 말 1800-1911(2부): 근대화를 향한 모색』, 새물결.

8 이 표현은 민두기, 2001,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중국사』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나중에 출판된 『청조』는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가 역전된 시간 40여 년의 간극을 고려해야만 하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9] 더구나 시기적으로 앞에 위치하는 명대의 시리즈인 『명조, 1368~1644』(이하 『명조』)는 7권 제1부가 1988년에, 8권 제2부가 1998년에 출판되어 '앞 시간'과도 각각 30년과 20년에 가까운 거리감을 극복해야 했다.[10] 이는 아무리 의식적인 봉합 노력이 가해진다고 해도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다.

2020년 은퇴 후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가 된 피터슨은 평소 하나의 사상을 형성해가는 관점을 바탕으로 학문화하는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겼다. 『청조』의 편찬을 위해 직면해야 했던 '앞 시간' 30년, 그리고 '뒤 시간' 40년을 앞뒤에 둔 '시간과의 경쟁'에서 그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지, 그 경쟁에서 과연 어떠한 성적표를 거두었는지, 이하 본문의 정리와 분석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이다.[11]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청조』의 본문 총 15장의 내용을 크게 ① '중국'사, ② '동아시아'사, 그리고 ③ 학술·문화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과 핵심논지를 정리하는 한편, 해당 주제에 관한 저자와 한국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까지 최대한 섭렵하여 제시하기로 한다.[12] 필자의 과문 탓에

판부를 오마주한 것임을 밝혀둔다.

9 2019년 11월에 출판된 2권 『육조, 220~589』가 시기적으로 가장 최신이고, 『청조』가 바로 두 번째 최신본이다.

10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eds., 198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7,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eds., 199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청조』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명조』 및 『청 말』의 저자들과 연구 시대도 다르고 당시 지배적이었던 학술 담론이나 세계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또한 서로 간에 발견되는 인식 차이와 변화 양상,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과 결과 등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은 추후의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리하고 제시하는 연구 목록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의 경향과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거리를 두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청조』의 '중국'사: 내지와 변경

1장 「성(省)의 통치」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명예교수 켄트 가이(R. Kent Guy)가 맡았다. 그는 청대사와 관련한 두 권의 단독 저서를 발표하였는데, 한 권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사고전서(四庫全書)』와 관련된 저술이고,[13] 다른 한 권이 바로 청대 성과 순무(巡撫)에 관한 연구로 이 장을 집필하는 데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다.[14] 중국의 각 왕조에서 최상급 지방 행정구역은 집중된 권한 만큼이나 중앙 정부에 대한 반란의 지리적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황제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의 황제들은 이민족 왕조라는 부담뿐만 아니라 반청 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의 인적·기구적 통치에 깊숙이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가이는 성급 지방 통치를 성의 장관인 순무

12 이 밖에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해당 분야 연구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작업이겠지만, 지면의 제한과 능력의 부족으로 이 글에서는 구미 학계와 한국 학계의 사례를 위주로 제시한다.

13 R. Kent Guy, 1987, *The Emperor's Four Treasuries: Scholars and the State in the Late Ch'ien-lung Era*, Harvard University(켄트 가이 지음, 양휘웅 옮김, 2009, 『사고전서』, 생각의나무). 이 책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14장의 설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4 R. Kent Guy, 2010, *Qing Governors and Their Provinces: The Evolution of Territorial Administration in China, 1644-1796*,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활용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시기별로 ① 순치 연간: 명의 유산, ② 강희 연간: 순무의 권한 강화, ③ 옹정 연간: 중앙의 통제, ④ 건륭 연간: 통제 강화와 부의 징발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각 황제의 개성과 통치 스타일을 잘 반영하여 요령 있게 정리했다.[15]

명의 제도에 청의 개성이 덧붙여진 성의 통치와 순무의 운용을 다채롭게 제시한 가이의 작업을 통해, 청은 명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중화 왕조가 아닌, 민족적 다양성은 물론 지역적 다양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제국으로 등장한다. 기본적인 관료제도나 행정 구획의 측면에서는 명과 유사하지만, 가이는 이러한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과 그 차이를 현실로 나타나게 만든 청 황제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규명하는 데 많은 공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만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청사 서술, 즉 '신청사'적 관점으로 곧바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16] 『청조』의 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청은 분명 명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세력임이 강조된다. 물론, 이렇게 통치방식은 다르지만 정작 성이 설치된 내지(內地)의 범위는 명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청의 독특한 특징은 오히려 뒤이은 '변경(frontier)'의 통치와 관련된 장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장 「18세기 대만부(臺灣府)」의 저자 존 셰퍼드(John Robert Shepherd)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대만 원주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시도해 왔다. 그는 일찍이 대만의 무역망과 상업·농업이 어떻게 대륙의 주민들을 끌어

15 한편, 한국 학계에는 청대 성(省)의 통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청의 중국 통치와 지배체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선민, 2016,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史叢』 88; 송미령, 2005, 『청대 정책결정기구와 정치 세력』, 혜안; 이영옥, 2016, 『견제받는 권력: 만주인 청나라의 정치구조, 1616~1912』, 전남대학교출판부; 차혜원, 2003, 「청대의 인사행정과 現地 지위-題調의 성립을 전후하여」, 『中國學報』 47; 한승현, 2014, 「淸朝의 南·北人 관료임용 정책(1644-1795)」, 『歷史學報』 221.

16 『청조』의 서술과 신청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였는지, 그리고 청이 어떻게 정착민과 원주민의 관계를 중재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증진했는지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17] 대만 섬은 1장에서 다룬 지역과는 달리 명의 통제하에 속한 적이 없는 비한족의 영역이었다. 셰퍼드는 이 장에서 청이 1683년 대만을 처음 정복한 이래 시행한 원주민에 대한 과세 및 행정과 이민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1721년 주일귀(朱一貴)의 반란과 1731~1732년 대갑서사(大甲西社)·오복생(吳福生)의 반란 경과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불거진 대만 식민지화 정책 논쟁, 평포족(平埔族)의 역할, 한족 정착민 사회의 성장 등을 조명하면서, 결국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증거로서 1787년 임상문(林爽文) 사건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 서술된 청의 대만 정책은 일관되게 소극적인 격리 정책 위주이다. 제2의 정씨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정과 치안을 위한 정치적 필요성이 어떠한 경제적 이윤이나 전략적 기회도 모두 차단해버리는 형국이다. 그 결과 셰퍼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독자는 대만이 앞서 1장에서 성으로 통치되는 내지의 영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공간이라는 점을 눈치채게 된다. 물론 옹정 연간 남정원(藍鼎元)과 같은 관료는 대만에 내지와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가족 이주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지만(88~90쪽), 이 과정은 문자 그대로 "식민(植民)" 작업으로서 결코 한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제국의 사업이었다. 어떠한 정책도 현지의 갈등,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으며, 관대한 강희제, 합리적인 옹정제, 그리고 통합의 상징인 건륭제까지 그 누구도 성공적인 대만 통치를 달성하지 못했다.[18]

---

17 John Robert Shepherd, 1993, *Statecraft and Political Economy on the Taiwan Frontier, 1600-1800*,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 밖에도 그는 중국 여성의 전족(纏足)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John Robert Shepherd, 2019, *Footbinding as Fashion: Ethnicity, Labor and Status in Traditional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John Robert Shepherd, 2016, "The Qing, the Manchus, and Footbinding: Sources and Assumptions under Scrutiny",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1(2).

18 한국 학계의 청대 대만 관련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명기, 2018, 「한국의 대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결과 대만의 통치 시스템은 앞선 1장의 내지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3장의 몽골·신강·티베트 지역에 대한 정책과 직접 연결된다.

3장「몽골·신강·티베트에 대한 청의 통치 확대, 1636~1800」은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가 집필했다. 그는 고대 중국과 내륙 아시아의 관계사는 물론 몽골어 및 만주어 자료에도 능통한 연구자로, 연구 분야는 초기 유라시아 유목민, 몽골 제국, 만주 제국 등의 역사이다.[19]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내륙 아시아로 확장하는 청의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① 누르하치-홍타이지 시기 차하르 몽골 정복, ② 강희 연간 준가르 갈단과의 대결, ③ 옹정-건륭 연간 준가르 공략과 이번원(理藩院) 설치, ④ 건륭 후반 신강 정복과 지배 등으로 나누어 장대한 흐름을 유려하게 서술한다. 다음으로 이번원의 구조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장된 영토에 대한 청의 독특한 통치 방식-회유와 통제의 양면성에 대해 주목한다. 이는 곧 1장의 내지 통치와는 확연히 다른 청 통치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디 코스모는 청의 변경 지역에서 명멸했던 다양한 세력의 복잡한 계보와 줄거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지역으로의 확장과

사 연구, 1945~2017」, 제4회 한·중 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문명기, 2010,「清代 臺灣 地方財政史를 통해 본 兩岸關係의 역사적 맥락-臺運·臺餉과 福建協餉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13; 문명기, 2010,「계약문서를 통해 본 청대 臺灣의 一田兩主 慣行의 형성과 변용」,『역사문화연구』35; 손준식, 2000,「清朝의 臺灣 認識과 政策」,『근대중국연구』1; 조세현 지음, 2017,『해양 대만과 대륙 중국: 대만을 둘러싼 역사논쟁』, 부경대학교출판부; 채경수, 2019,「清朝의 包攝 政策과 鄭氏 隸下 海上集團의 轉向-臺灣遠征隊 구성원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明清史研究』52.

19 Nicola Di Cosmo and Michael Maas, eds., 2018, *Empires and Exchanges in Eurasian Late Antiquity: Rome, China, Iran, and the Steppe, ca. 250-7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cola Di Cosmo, 2002, *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s in East Asi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니콜라 디 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2005,『오랑캐의 탄생: 중국이 만들어 낸 변방의 역사』, 황금가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치가 청조 혹은 '중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국의 통치와 운영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불안 요소를 가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몽골·신강·티베트 통치를 기본적으로 "정복 후의 변경 정책"(143쪽)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시각, 즉 '신청사'적 관점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20] 이는 오히려 40년 전에 출판된 10권 『청 말』의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가 집필한 8장 「몽골·신강·티베트에 대한 청 질서의 전성기」[21]와 묘한 짝을 이루며 현재 21세기보다 과거 20세기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

Ⅲ. 『청조』의 '동아시아'사: 종속과 독립

청조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는 바로 조선이다. 4장 「1800년까지 조선-청 사이의 조

20 최근 한국 학계의 청대 몽골·신강·티베트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성수, 2018, 「1686년 쿠룬·벨치르 회맹을 통해 본 17세기 내륙아시아의 회맹체」, 『몽골학』 55; 김성수, 2018, 「불교적 예의를 통해 본 17세기 내륙아시아」, 『明淸史硏究』 50; 김성수, 2013,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만주-호르친, 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82; 노기식, 2001,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 노기식, 2000, 「홍타이지의 反 릭단 만몽연맹 확대와 이용」, 『中國學論叢』 13; 유정아, 2009, 「옹정년간(1723-1728) 티베트지배像에 대한 재고찰」, 『明淸史硏究』 31; 유정아, 2009, 「준가르부 침공기간(1728-1733)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中國學報』 59; 이선애, 2019, 「盟誓와 書信, 인장으로 본 청대 만몽 관계의 변화」, 『역사학연구』 75; 이선애, 2015, 「外國(Tulergi Gurun)에서 外藩(Tulergi Golo)으로」, 『明淸史硏究』 43; 조병학, 2016, 「갈단의 할하몽골 공략考」, 『몽골학』 46.

21 Joseph Fletcher, 1978, "The Heyday of the Ch'ing Order in Mongolia, Sinkiang and Tibet", in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 관계」는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장인데, 공교롭게도 한국 학계의 한국 학자에 의해 쓰였다. 저자 임종태(Lim Jongtae)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자연 지식의 혼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국과 조선 지식인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구적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전통적 질서 및 사고체계와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친다는 그의 이해는 『청조』에서 조선·청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22]

병자호란 이후 만주의 지배자들이 외교 관계의 변화를 강제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조선과 청의 '조공 관계(Tributary relations)'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그 본질을 해명하려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조선은 과연 청에 조공국의 전형적인 모델인가?"(153쪽) 여기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조공 관계'의 실제 현실과 조선의 분열된 인식, 그리고 문화 교류의 주역으로서 연행사와 조선과 청 사이의 무역 상황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18세기 조선으로의 문화적 전파와 영향을 서학(西學)과 북학(北學)의 유행을 통해 설명한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미 클리셰가 되어버린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146쪽)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청의 관계가 이전 조선·명의 관계와 결정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조공 관계'도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페어뱅크와 전해종(全海宗) 등이 주장한 가장 전형적인 '조공 관계'는 전

22 임종태의 연구는 과학사 일반, 서구의 과학기술과 조선 지식인과의 상호작용, 세부적으로는 북학론, 역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이 중에서 4장의 집필과 직접 관련된 조선·청 관계의 연구성과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임종태, 2020, 「조선 후기 北學論의 修辭 전략과 중국 기술 도입론」, 『한국문화』 90; 임종태, 2016, 「實學에서 中國의 문제로: 전근대 한국 과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 『歷史學報』 231; Lim Jongtae, 2012, 「Learning "Western" Astronomy from "China": Another Look at the Introduction of the Shixian li 時憲曆 Calendrical System into Late Joseon Korea」, 『한국과학사학회지』 34(2); 임종태, 2004, 「이방의 과학과 고전적 전통-17세기 서구 과학에 대한 중국적 이해와 그 변천」, 『동양철학』 22; 임종태, 2004, 「서구 지리학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지리 전통의 반응: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경우」, 『한국과학사학회지』 2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쟁과 정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3] 조선·청 관계의 특수성은 바로 전투와 항복이라는 1637년 삼전도의 세러머니에서 기인한다. 청의 인식 속에서 조선은 처음부터 모호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 1644년 이후 청이 입관(入關)하여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형성해간 '중국 질서' 이전에 조선과 청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독특한 '만주 질서'였다. 저자는 조선·청 관계를 단순히 조선·명 관계의 연장선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조선·청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는 관점에서 본문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그 변화는 청의 경우 정복자 만주라는 정체성이, 조선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이 긴 시간을 두고 시대 상황과 호응하고 타협한 결과였다.[24]

구미 학계 페어뱅크의 '중국적 세계질서',[25] 한국 학계 전해종의 '조공체제',[26] 일본 학계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책봉체제론'[27]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논의되어 온 조선·청의 관계는 저자의 설명을 거치면서 이제 전혀 전형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 이제 독자는 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청은 과연 조선에 책봉국의 전형적인 모델인가?" 청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중요한 만큼 조선의 눈에 비친 청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

23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론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논의는 홍면기, 2018,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 『동북아연구』 33(2)를 참조.

24 이러한 조선·청 관계의 특징은 흥미롭게도 조선·명의 조공 관계를 다룬 이전 시리즈의 서술과 확연히 비교된다. Donald N. Clark, 199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John King Fairban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26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27 西嶋定生, 1962,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岩波講座日本歷史 第2卷 古代2』, 岩波書店; 西嶋定生, 1970, 「東アジア世界の形成」, 『岩波講座世界歷史 第4卷 古代4』, 岩波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단하지만 자명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청조』의 4장은 구미 학계에는 물론, 한국과 중국 학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28]

하지만 이에 반해 '동아시아'의 또 다른 구성원인 베트남에 관한 서술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아직 요원해 보인다. 5장 「베트남 국가의 출현」에서 베트남의 역사는 철저하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설명되고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가 깜빡 잊고 혼동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는 바로 『청조』에 수록된 다양한 주제들이 바로 다름 아닌 청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장은 중국 역대 왕조와의 정치·경제·문화·군사적 관계하에서 베트남의 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실제로 공동 저자인 존 위트모어(John K. Whitmore)와 브라이언 조톨리(Brian A. Zottoli)는 모두 베트남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구체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국경 지역 등에 주목하는 연구자이다.[29]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문장에서부터 두 저자는 명확하게 이 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19세기 초 청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determined)."(197쪽) 이어 17세기 레(黎) 왕조의 분열 이후 다양한 정권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청조와의 접촉이 국가 수립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이후 베트남 국가의 발전은 물론 사회경제적 동력과 정치적 위기 또한 모두 청조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19세기 새로운 베트남 국가를 건국한 응우옌 왕조는 그 최종적인 결실이었다.

---

28 최근 한국 학계의 조선·청 관계에 관한 연구 경향도 이전과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필자의 역량과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인 양상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다종다기한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김영식의 저서를 참고할 만하다. 김영식, 2018,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조선 후기 중국 인식의 전개와 중화 사상의 굴절』, 아카넷.

29 John K. Whitmore, 1985, *Vietnam, Hồ Quý Ly, and the Ming (1371-1421)*, Council on Southeast Asia Studies; Brian A. Zottoli, 1999, "Roots of Nineteenth Century Vietnamese Confucianism: Scholarship and Statesmanship under the Gia Long Emperor", Midwest Conference on Asian Affairs(Michig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응우옌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도 청과의 상업 네트워크는 베트남 경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청의 정치 시스템은 물론 고증학과 경세치용학까지 베트남 사회에 도입되었음을 강조했다.[30]

하지만 정작 응우옌 왕조의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의 개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청의 역할과 영향만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서술이라고 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 앞선 4장의 내용이 아주 민감한 것처럼, 만약 베트남 학계의 연구자와 독자들이 5장의 내용을 접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새삼 걱정되는 부분이다. 만약 4장 조선·청 관계의 역사가 5장 응우옌 왕조의 서술 방식대로 쓰였다면, 아마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 학계의 한국 학자가 조선·청 관계를 집필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과 오해의 소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구미 학계의 연구자가 조선·청 관계사를 서술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새삼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조』 베트남사의 서술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상상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일본사의 서술에서 다시 한번 반전된다.

6장 「1800년까지 도쿠가와 막부와 청 사이의 문화 이동」의 저자는 9권의 제1부 『청제국』에서 이미 「청 초기와 중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집필한 벤저민 엘만(Benjamin A. Elman)이다. 그는 명·청 시대 과거제도, 청대 고증학에 대한 걸출한 업적을 발표한 이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청의 고증학·의학·과학 등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지식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30 한편, 한국 학계의 베트남사 연구는 유인선의 선구적인 연구성과들이 대표적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이후에도 정력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완결된 단행본 저술에 힘쓰고 있다. 유인선, 2018, 『베트남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산; 유인선, 2016, 『베트남: 역사와 사회의 이해』, 세창출판사; 유인선, 2014, 『근세 베트남의 법과 가족: 17·18세기 베트남 북부 지방의 가족제도와 전근대 사회의 특징』, 위더스북;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장은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쓰인 논문으로 보인다.[31] 도쿠가와 막부는 만주족의 중국 정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는 곧 국내의 정치 지형은 물론 학문과 문화,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 경전의 선택적 도입과 이토 진사이(伊藤仁齊)·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등의 "Japanized"(248~249쪽) 작업을 통해 이룩한 일본 한학(漢學)의 발전은 "중국에서 죽어버린 경전이 일본에서 다시 소생하였다"(261쪽)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룩했다.[32]

6장도 앞의 조선·베트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을 중심으로 한 교류사 혹은 청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장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청과 일본의 구체적인 접촉과 교류의 양상보다는 오히려 청의 문화와 영향이 일본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독자적인 발전으로 나아갔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베트남처럼 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4장 조선의 조공 관계나 5장 베트남의 국가

31 Benjamin A. Elman, ed., 2014, *Rethinking East Asian Languages, Vernaculars, and Literacies, 1000-1919*, Brill; Benjamin A. Elman,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njamin A. Elman, 1984,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Social and Intellectual Aspects of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32 이와 관련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지은, 2019, 「韓日 儒學史에 나타난 '古學'의 차이-오규소라이·이토진사이·허목·조익의 예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61; 박홍식, 2011, 「오규소라이(荻生徂徠)의 〈中庸解〉에 나타난 사상적 독자성」, 『東洋哲學研究』 65; 서광덕, 2018, 「동북아해역에서 근대학술 성립의 양상-일본 중국학의 탄생과 현재」, 『중국학』 65; 심경호, 2017, 「방법으로서의 에도-조선후기 학술과 에도 문화지성사의 다섯 가지 비교」, 『漢文學論集』 48; 이기원, 2020, 「이토 진사이의 고의학적 방법과 『맹자』 독해-천하공공의 도와 왕도적 실천」, 『人文科學』 78; 이새봄, 2018, 「포스트-소라이학(徂徠學)의 맥락으로 읽는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의 논점」, 『일본비평』 19; 이인화, 2017,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유교 개념 정의에 나타나는 古義學의 체계와 이념-『論語古義』의 개념 분석과 송유 비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5; 임옥균, 2012,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논어』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9; 하우봉, 2012, 「18세기 일본사상의 전개양상과 성격」, 『歷史學報』 2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립과 같은 정치적 화두보다는, '문화 이동'이라는 문화적·사상적 현상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결과 조선·베트남을 서술할 때는 청과의 정치적 관계, 심지어는 종속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학술적 성취와 독자적인 발전을 강조한 일본의 서술은 어느덧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인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그려진다.

결국 어떠한 화두와 주제로 청조와 연결되는지가 '동아시아' 해당 국가의 인상과 정체성을 크게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예컨대 5장 베트남에서는 정치적 혼란 및 분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과의 전략적 관계가 주로 서술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정치적 독립성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속성이 강조되고, 특히 광둥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조로 인해 심지어 베트남의 역사를 비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6장 일본에서는 중국과 상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서술 내용으로 인해, 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청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4장 조선의 경우에는 한국인 저자 임종태의 노력으로 기존 조선·청 관계의 '종속성'을 희석하는 데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청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가 어떠한 화두와 주제로 서술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미 학계의 연구자와 독자들에게는 해당 국가의 이미지가 결정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수록된 '동아시아'의 엇갈린 운명이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 청과 접촉하여 영향을 주고받은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해양 무역을 통한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다. 7장 「유럽 해양 세력과 청의 관계」는 광둥 무역 체제를 중심으로 청과 유럽 해양 세력의 교류 양상을 시기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정리한다. 존 윌스 주니어(John E. Wills, Jr., 1936~2017)와 존 크랜머 빙(John L. Cranmer-Byng, 1919~1999)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이 중 윌스 주니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페어뱅크의 지도를 받고 17세기 중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네덜란드의 초기 접촉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글로벌 해양사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사실 『청조』에 수록된 이 장은 그가 2011년에 편집을 맡은 『1500~1800년 중국과 유럽 해양 세력』의 제4장인 「유럽 해양 세력과의 무역과 외교」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다.[33]

『청조』의 편집자인 피터슨은 과연 어떤 의도로 이 두 원로 연구자의 기발표 논문을 그대로 수록했던 것일까. 『청조』의 저자들이 다른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집필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페어뱅크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름 아닌 청과 유럽의 '만남'과 '충돌'을 설명하는 장에서 가장 페어뱅크와 가까운 두 연구자의 글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19세기의 아편전쟁은 18세기의 청이 해양 유럽의 상업 무역체제에 편입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오만함의 결과였다"(325쪽)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장은, 기존의 케케묵은 근대화론이나 오리엔탈리즘에서 조금도 나아진 점이 없어 보인다. 이어지는 10권과 11권의 『청 말』 시리즈와의 연결고리를 고민해야 했던 9권의 편집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구미 학계의 '동아시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기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지난 196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34]

---

33 John L. Cranmer-Byng and John E. Wills, Jr., 2011, "Trade and Diplomacy with Maritime Europe", in John. E. Wills, Jr. ed., *China and Maritime Europe, 1500-1800: Trade, Settlement, Diplomacy, and Mis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하지만 이 책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연구의 결과가 아니며 여전히 유럽 중심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을 받기도 했다. Kent Deng, 2012, "Book-review: *China and Maritime Europe, 1500-1800*",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6, p. 285.

34 물론 피터슨과 두 원로 연구자가 현재 구미 학계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지만,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한국 학계의 유럽 해양 세력과 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기수와 홍성화의 논문 외에 두 권의 번역서를 참고할 만하다. 박기수, 2017, 「18世紀 廣州에서의 公行의 設立과 解散-廣東行商과 東印度會社의 대립, 그리고 廣東地方當局의 개입」, 『東洋史學研究』 141; 박기수, 2015, 「淸代 廣東行商 怡和行 伍秉鑒(1769-1843)의 활동과 그 위상-英國東印度會社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97; 박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청조』의 학술·문화사: 전통과 혁신

8장 「가톨릭 선교사들, 1644-1800」의 저자 존 위텍(John W. Witek, 1933~2010)은 순치 연간에서 건륭 연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유럽의 선교사들을 소개한다.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부베(Joachim Bouvet) 등 선교사 개인의 주요 활동은 물론,[35] 이미 잘 알려진 역법(曆法) 논쟁, 전례(典禮) 문제, 의학과 지도 제작 기술 도입 등 청조정과 빚은 갈등과 성과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36]

수, 2011, 「갈등·협력·예속-청대 광동대외무역중의 행상과 동인도회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36; 홍성화, 2017, 「16-17세기 포르투갈의 對동아시아 무역의 성쇠」, 『역사와 경계』 105; 데이비드 문젤로 지음, 김성규 옮김, 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대항해시대 중국과 유럽은 어떻게 소통했을까』, 휴머니스트; 리궈룽 엮고지음, 이화승 옮김, 2008, 『제국의 상점: 중화주의와 중상주의가 함께 꾼 동상이몽 광주 13행』, 소나무.

35 John W. Witek, 1994, *Ferdinand Verbiest(1623-1688): Jesuit Missionary, Scientist, Engineer and Diplomat*, Steyler Verlag; John W. Witek, 1982, *Controversial Ideas in China and in Europe: A Biography of Jean-Francois Foucquet, S.J., 1665-1741*, Institum Historicum Societatis Iesu.

36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및 조선으로의 서학 전파와 관련된 한국 학계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의식, 2007, 「康熙帝의 天主敎 認識」, 『중국학논총』 24; 신익철, 2013,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한국한문학연구』 51; 신주현, 2018, 「'改宗'에서 '融合'으로-近世 동아시아에서 초기 天主敎 수용문제의 사상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 『東洋史學硏究』 144; 심종혁, 2012, 「예수회 중국 선교사들의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 『신학과 철학』 20; 안대옥, 2010, 「淸代 前期 西學 受容의 형식과 외연」, 『中國史硏究』 65; 이준갑, 2019, 「건륭년간 천주교 탄압의 실제와 천주교 공동체」, 『明淸史硏究』 52; 이준갑, 2017, 「白銀, 商人, 宣敎師-淸代 天主敎 傳播에 나타난 聖과 俗」, 『明淸史硏究』 47; 임종태, 2009, 「'極東과 極西의 조우': 李器之의 『一菴燕記』에 나타난 조선 연행사의 천주당 방문과 예수회사와의 만남」,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임현수, 1993, 「예수회 선교사들의 우주론이 중국의 전통적 우주론에 미친 영향」, 『한국종교연구회회보』 4; 장정란, 1992, 「明末 淸初,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1592-1666)의 中國 활동」, 『성신사학』 10; 정태식, 2007, 「중국에서의 전례논쟁과 가톨릭 박해에 대한 일고찰」, 『현상과 인식』 31(3); 조현범, 2015,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어 9장 「역학(曆學)과 의학(醫學), 1600-1800」에서는 유럽 선교사의 업적 중에서도 중국 사회에 가장 많은 균열을 일으킨 역학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9장의 저자인 대만 중앙연구원의 주핑이(祝平一, Chu Pingyi)는 종교와 자연과학 등을 소재로 이질적 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수용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활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왕성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7]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역법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단순히 전통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황제 통치권의 실질적·이념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소재이다. 또한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이 가지는 중심성이 바로 역서(曆書)의 반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점에서도 역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법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이기도 하다. 청 황제는 서로 다른 중국과 서양 지식 간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황제 권력과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알아채고, 역법을 단순한 과학이 아닌 정치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역법과 의학은 모두 16세기 말 이후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인의 개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활용했던 최신 지식이었다. 하지만 역법과는 달리 해부학과 물질 의학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최신 의학은 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서양의 최신 지식이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보인 역법과 의학이 하나의 장에서 논의된 이유는, 결국 수용자 청의 선택과 필요가 전적으로 중요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중국(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중앙 권력과 지식인 사회의 권위이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역법과 의학은

37 Pingyi Chu, 2017, "Family Instructions and the Moral Economy of Medicine in Late Imperial China",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24(1); Pingyi Chu, 2015, "Numerology and Calendrical Learning: The Stories of Yang Guangxian and Liu Xiangkui",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 정확성이나 효용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18세기 청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38]

반면, 10장 「도교(Taoist), 1644-1850」는 전통의 토착 사상이자 가장 중국적인 신앙으로서 도교가 청대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추적한다. 저자 빈센트 구사에르트(Vincent Goossaert)는 파리 4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의 중국 종교 및 도교와 중국 종교의 역사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39] 이 장에서는 청대 도교(道教)·도장(道藏)·도사(道士)·도관(道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청대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조명했다. 단순히 도교의 융성과 쇠퇴를 살피려는 목적보다는, 아편전쟁 전까지 도교의 위상과 주요 변화를 개관했다. 앞선 8권 『명조』에 수록된 15장 「명 문화 속의 도교(Taoism)」와 묘한 짝을 이루며,[40] 청대 도교가 무관심이나 천시의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생명력을 계속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41]

---

38 청대 역법과 의학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강영심, 2005, 「17, 18세기 조선의 외국 역법 서적 수입과 문화변동: 서양 역법인 시헌력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김대기, 2018, 「전근대 중국의 해부와 신체관」, 『연세의사학』 21; 김문용, 2011, 「서양 의학 전래 이후 인체관 변화의 향방-청대 왕굉한과 왕청임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대와철학』 22; 전용훈, 2013, 「19세기 조선에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의 성격: 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5(3); 전용훈, 2010, 「17세기 서양 歲差說의 전래와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 전용훈, 2002, 「17~18세기 서양과학의 도입과 갈등: 시헌력 시행과 절기배치법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7; 조정은, 2018, 「의학지식의 수용과 변용-種痘法의 전래와 한문 牛痘書를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49.

39 Vincent Goossaert, 2011, *The Religious Question in Moder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incent Goossaert, 2007, *The Taoists of Peking, 1800-1949: A Social History of Urban Cleric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40 Judith A. Berling, 1998, "Taoism in Ming Culture",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 청대 도교에 대한 한국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는 일부 개괄적인 번역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정석도, 2015, 「晩淸시기의 道家연구와 문화계몽」, 『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장부터 13장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엮어 마치 '책 속의 책'처럼 보이는 청대 학술사는 모두 『청조』의 총괄 기획자이자 편집자인 피터슨의 작품이다. 런던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고염무(顧炎武)를,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방이지(方以智)를 고찰한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면서, 명 말·청 초 시기의 중국 학술사를 주로 연구했다.[42] 11장·12장·13장은 모두 그의 주요 논문과 평소 강의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후술할 그의 독특한 역사적 관점과 입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우선 11장 「청 초 직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문에 대한 논쟁」에서는 명 말 유종주(劉宗周)로부터 시작된 심학(心學)의 계보가 청 초 진확(陳確), 손기봉(孫奇逢), 황종희(黃宗羲)를 거쳐 어떻게 계승되고 단절되는지, 그리고 이후 도덕적 자기 수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인식론은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는지를 서술한다. 명 말 이래 이어져오는 기존의 지식구조에 회의를 느끼고 청 초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과도기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철학 체계와 생존의 이유를 모색하는 절실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배움과 실천에 대한 논쟁은 결국 기존의 주자학과 양명학을 넘어 새로운 사상적 근거를 필요로 했다. 청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살아내야 했던 유민(遺民)들의 시행착오가 모여 청 초 특유의 학술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43]

洋哲學硏究』 83.

42 Willard J. Peterson, 1979, *Bitter Gourd: Fang I-chih and the Impetus for Intellectual Change*, Yale University Press; Willard J. Peterson, 1968, "The Life of Ku Yen-wu(1613-1682)",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8.

43 한국 학계의 본격적인 양명학 연구는 한국양명학회의 학술지 『陽明學』에 집약되어 있다. 이 중 청대 양명학에 관한 일부 연구성과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희, 2019,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 『陽明學』 52; 신현승, 2010, 「道統論에서 본 陽明學의 實像과 虛像」, 『陽明學』 26; 이호영, 2005, 「청대 고증학자 戴震의 陸王 비판과 양명학적 반론」, 『陽明學』 15; 진성수, 2001, 「王夫之의 陽明學 批判에 관한 연구」, 『陽明學』 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어 12장 「청 초 학문의 발전: 세 가지 사례」에서는 방이지·고염무·왕부지(王夫之)의 사상과 학문 연구의 관점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44] 청대 고증학의 기초를 마련한 세 사람을 문자 그대로 '고증학'에 가깝게 실증적으로 서술한 피터슨은 고증학을 순수한 학문 탐구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서술 방향은 "만주족 정권의 통치와 한족 탄압이 계속되자 현실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의 실증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고증학이 유행했다"라고 간주하는 기존의 이해와는 확실히 다른 경향을 보이면서,[45] 학문 분야로서의 고증학과 정치를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앞선 11장에 이어 12장도 명 말·청 초의 학술 경향을 학문 그 자체로 보려는 피터슨의 입장에 따라, 청 초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최소화하면서 청조에 대한 평가에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청조』의 편집자로서 그의 이러한 '고증학'적인 태도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그의 편집 의도와 편집 결과로 드러난 『청조』의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맺음말 부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13장 「강희 연간 위로부터 학문의 통제」는 청 초의 학문 발전을 크게 국가-고위 관료-개인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흠정(欽定)'을 명목으

44 한국 학계의 방이지·고염무·왕부지에 관한 연구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김경천, 2001, 「고염무의 학문론」, 『동양철학연구』 27; 김경천, 1998, 「顧炎武 고증학의 성격과 의의」, 『중국어문논총』 15; 김진근, 2016, 「왕부지의 노자 비판과 그 의의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 46; 박용태, 2015, 「왕부지 사상에 나타난 주기론적 경향과 화이론」, 『동서철학연구』 78; 안재호, 2015, 「왕부지의 正義觀 試論」, 『철학탐구』 37; 우심화, 1999, 「王夫之의 華夷觀」, 『ACTS 神學과 宣敎』 3; 윤대식, 2004, 「일지록에 내포된 중국실학의 정치적 의도와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 『동양학』 36; 이윤화, 2018, 「王夫之 史論에 보이는 '道統論'의 역사성」, 『中國史硏究』 114; 임종수, 2007, 「방이지의 자연인식」, 『동양철학연구』 49; 조병한, 2011, 「청대 중국의 실학과 고증학」, 『한국사시민강좌』 48; 진성수, 2012, 「명말, 청초 고증학의 연원 고찰-황종희, 고염무, 왕부지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72; 함현찬, 2011, 「王夫之의 格物致知 理解-『讀四書大全說』과 『張子正蒙注』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5.

45 청대 학술사에 관한 국내·외의 대다수 연구는 고증학의 발전을 이러한 민족적·정치적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진성수, 2012, 앞의 글, 20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이루어진 국가의 선택(collecting)과 배제(excluding), 표준화(standardizing), 확립(establishing)과 통제(suppressing) 등을 통해 청 초 학문의 범위와 성격이 규정되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고위 관료와 재야 학자는 각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46] 명을 멸망시킨 '오랑캐' 왕조로서 청이 학술사·문화사 측면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단절'을 어떻게 '연속'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결국 11장부터 13장까지 무려 150페이지에 걸쳐 표출된 피터슨의 일관된 관심은 명말·청 초 시기 지식과 학문의 '단절'을 어떻게 '연속'으로 만들 것인지였고, 이는 더 나아가 『청조』 전체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처럼 보인다.[47]

또한 13장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명사(明史)』 편찬도 바로 청조의 '단절'과 '연속'의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사(正史) 편찬은 '연속'을 지향하는 중국 역대 왕조의 가장 상징적인 세러머니이자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24개 정사인 소위 '24사'의 개별적인 편찬 과정과 체례적 특징은 각기 다르지만, 직전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요사(遼史)』·『송사(宋史)』·『금사(金史)』를 모두

---

46 명·청 교체 이후 청 황제와 지식인의 갈등과 협력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중국의 학술서들은 최근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楊念群, 2010, 『何處是'江南'?: 清朝正統觀的確立與士林精神世界的變異』,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양녠췬 지음, 명청연구모임 옮김, 2015, 『강남은 어디인가: 청나라 황제의 강남 지식인 길들이기』, 글항아리); 趙園, 1999,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자오위안 지음, 홍상훈 옮김, 2017, 『증오의 시대-명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1』, 글항아리; 자오위안 지음, 홍상훈 옮김, 2017, 『생존의 시대-명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2』, 글항아리).

47 이러한 '단절'과 '연속'에 대한 『청조』의 화두는 맺음말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피터슨은 흥미롭게도 이미 8권 제2부 『명조』에서도 11장과 12장 연속으로 장장 130페이지에 걸쳐 명 말 지식과 학문에 관해 서술한 바 있다. Willard J. Peterson, 1998, "Confucian Learning in Late Ming Thought"; "Learning from Heaven: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and Other Western Ideas into Late Ming China", in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08~8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사로 인정하고 편찬한 원조, 몽골의 유산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가장 빠른 기간에 『원사(元史)』를 완성한 명조, 그리고 입관 후 명실상부한 중국 통일에 수십 년이 걸렸고 『명사』의 편찬을 위해서는 그보다 두 배 가까운 오랜 시간을 투자한 청조는 그 정치적 의도와 영향, 그리고 효과 면에서 모두 다른 평가를 받는다. 그중에서도 『명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단절'을 선언하고 청조에 등을 돌린 명 말의 지식인과 그 제자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저술되었다(579~589쪽).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지식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와 통제는 점차 강화되었고, 다음 살펴볼 14장 학문과 사상의 검열에서 절정에 달한다.

14장 「청대 문화 영역에 가해진 정치적 압력」의 저자 왕판썬(王汎森, Wang Fansen)은 청조의 문화적 영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역사적 의미를 탄압 이상의 것으로 보고자 했다.[48] 지금까지 청조의 사상통제는 만주족 통치자의 종족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개' 혹은 '야만'의 통치를 비판하는 한족의 사상을 검열하고 탄압하기 위해 문자옥(文字獄)이나 『사고전서』 편찬을 시도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49]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술의 주안점을 관료·신사·일반 대중의 자기 검열(self-censorship)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에 맞춘 점은 그간의 서술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왕판썬이 199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부사년(傅斯年) 등 5·4운동의 지식인 집단이 현실의 정치 권력에 대응하며 겪은 성취와 좌절에 주목한 것처럼, 청 초의 지식인들은 문자옥과 『사고전서』 편찬이라는 현실에 수동적으로 굴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그 결과 청조 또한 원래 의도하지 않은

48 王汎森, 2020, 『啟蒙是連續的嗎?』, 香港城市大學出版社; 王汎森, 2018, 「明清以來的輿論社會」, 『漢學研究通訊』 37-3; 王汎森, 2004, 『晚明清初思想十論』, 復旦大學出版社.

49 옹정제의 사상통제에 관한 조너선 스펜스의 흥미로운 저작은 일찍이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Jonathan D. Spence, 2001, *Treason by the Book: Traitors, Conspirators and Guardians of an Emperor*, Viking(조너선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 2004, 『반역의 책: 옹정제와 사상통제』, 이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향과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50] 사실 1장의 저자인 켄트 가이가 1981년 하버드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논문 또한 『사고전서』의 편찬사업에 관련된 연구이다.[51] 하지만 켄트 가이가 편찬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세력의 대결과 갈등 양상, 특히 한족 관료들의 성장과 정치적 역할 등과 같이 주로 청조의 상층부에 시선을 좁혀 집중하였다면, 왕판썬은 시선을 하층부로 내리고 시야를 좀 더 넓혀 당시 현실을 살아내고 이겨냈던 다양한 개개인의 생존 방식과 타협의 양상을 조명했다.[52] 또한 순치-강희-옹정-건륭 연간의 문자옥은 시기별로 발생 경향과 빈도, 통제 대상과 성격 등이 모두 달랐고, 전혀 일관적이거나 균질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이민족 왕조의 사상통제로 뭉뚱그려 일반화하는 것이 몰역사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점을 왕판썬은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53]

『청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15장 「1720년대~1830년대 지방 엘리트의 역할 변화」는 또 한 명의 한국인 저자 한승현(Han Seunghyun)이 지속적으로 고민해

---

50 왕판썬은 사상사와 생활사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상황·도덕적 이상·권력 등과 같은 다양한 힘들이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고 조정되는 현상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푸코의 개념을 차용하여 '권력의 모세관 작용'이라고 표현했다. 물에 유리관을 꽂았을 때 외부적 자극이 없이 물이 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관을 꽂은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 분자 자체가 가진 내재적 성향 때문인 것처럼, 청조의 사상통제 역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청 황제의 정책이 선한 것이었는지 악한 것이었는지 원래의 의도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 王汎森, 2013, 『權力的毛細管作用: 清代的思想, 學術與心態』, 聯經出版事業公司.

51 R. Kent Guy, 1981, "The Scholar and the State: The Politics of the 'Ssu-k'u Chuan-shu' Project",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52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켄트 가이가 『청조』에서 『사고전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다면, 아마도 정치 중심의 분석이 되었을 것이고 자연히 해당 장은 좀 더 앞부분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53 한편, 청 황제의 사상통제와 관련한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인주, 2020, 「雍正帝의 사상투쟁 -『大義覺迷錄』의 華夷論과 '中外一統' 이론」, 『人文科學』 77; 이동욱, 2019, 「『大義覺迷錄』에 나타난 청 옹정제의 滿漢갈등 해소 논리」, 『중앙사론』 50; 차혜원, 2004, 「18세기 청조의 언론통제와 관료사회」, 『동방학지』 125; 한승현, 2006, 「18世紀 淸朝의 地方志, 地方文獻 統制策과 章學誠의 方志論」, 『歷史學報』 1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온 문제의식의 산물이다.[54] 하버드 대학에서 「지방 전통의 재창조: 19세기 초 소주(蘇州)의 정치, 문화, 그리고 지방 정체성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한 그는 중국 근세사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시기인 19세기에 지방 엘리트층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전 18세기의 양상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검토했다.[55] 그러다 보니 15장에서는 『청조』 시간의 하한선인 1800년을 넘어 가경·도광 연간의 상황이 많이 설명되고,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옹정·건륭 연간과 대비되어 국가 권력의 공백과 그 틈을 메우는 강남 지역의 지식인·신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낙선호시(樂善好施)"로 대표되는 지방 엘리트의 기부 행위와 재해 구제 등 공공영역 참여의 확대와 제도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56] 이를 통해 18세기 국가 중심적 통치 질서의 구축 과정과 그 논리를 분석하고, 이것이 19세기 초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체되어가며 새로운 질서를 향해 변화해갔는가를 조명

54 15장의 집필에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을 그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승현, 2006, 「清代 '樂善好施' 旌表, 議敍制度의 成立: 乾隆年間을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26; 한승현, 2006, 「明淸時代의 名宦·鄕賢 入祠 樣相의 變化와 그 意味」, 『中國學報』 54; 한승현, 2006, 「19세기초 '樂善好施' 장려제도의 변화와 그 의미」, 『東洋史學硏究』 95.

55 Seunghyun Han, 2005, "Re-inventing Local Tradition: Politics, Culture, and Identity in Early 19th Century Suzhou",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그의 박사논문은 최근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 Seunghyun Han, 2016, *After the Prosperous Age: State and Elites in Early Nineteenth-century Suzhou*, Harvard University Press.

56 한국 학계에서는 '지방 엘리트'라는 표현보다는 '신사(紳士)'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착되었다. 신사는 현직·휴직·퇴직 관료와 진사(進士)를 포함하는 관직 경력자와 거인(擧人)·공생(貢生)·감생(監生)·생원(生員) 등 미입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는, 과거제·연납제·학교제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 정치·사회적인 지배 계층을 일컫는다. 명·청 시대 신사계층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오금성(吳金成)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뛰어난 연구들이 축적되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吳金成, 2007, 『國法과 社會慣行-明淸時代 社會經濟史 硏究』, 지식산업사, 제2편 제1장 「明代의 國家權力과 紳士」와 제2장 「王朝交替와 紳士의 向背」를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가 활동주의(state activism)"의 쇠퇴와 "지방 엘리트 활동주의(local elites' activism)"의 대두로 설명하고 있다(650쪽).

앞서 피터슨의 11~13장 및 왕판썬의 14장에서 묘사된 강력한 중앙 국가 권력의 통제와 탄압을 견뎌낸 지식인 계층이 결국 19세기 초에 국가의 역할과 권력의 공백을 대신하게 된다는 내러티브의 연결은 언뜻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는 결국 10권 『청 말』과의 '연속'을 염두에 둔 피터슨의 '신의 한 수'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청 말과 곧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배치는 결국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과 같은 청 말의 혼란을 야기한 국가 권력의 쇠퇴와 이를 대신하고 전복하는 지방 엘리트의 부상을 예고하는 『청조』의 마침표로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57]

V. 맺음말: 단절과 연속의 '이중변주'

지금까지 『청조』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미 학계의 청사 인식과 서술의 특징을 추출해보았다.[58]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맺음말에서는 '단절과 연속'을 화두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신청사'와의 단절과 연속이다.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신청사(新清史, New Qing History)'는 1990년대 이래 미국 학계

57 물론 한승현은 내용적으로 19세기 초 지방 엘리트의 사회적 활동을 재평가하면서 기존 국가 권력의 쇠퇴와 엘리트 활동 증대라는 단순한 구도를 타파하고, 엘리트의 사회적 활동이 흔히 태평천국 및 그 후 복구과정에서 확대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통설에 대한 수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피터슨의 의도적인 배치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길항관계'로 오독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58 엄밀히 말하면 『청조』의 집필에 참여한 총 15명의 저자 가운데 4명은 한국과 대만 학자로서 이들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연구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4명 모두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방문학자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청사 연구 경향을 가리킨다. 기존의 청사 연구와 비교하여 신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청의 통치집단인 만주족에 대한 관심과 '한화(漢化)'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59] 내륙 아시아적·지구사적 시각의 도입과 만주어·몽골어·티베트어 등 비(非)한문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만주의 민족적 정체성(ethnicity)을 강조한 신청사는 구미 학계가 중국사 연구에 기여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청사의 도입에 따라 청은 단순히 명의 뒤를 이은 중원 왕조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제국으로 재조명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역사 서술로 밝히지 못한 만주-청의 특징들이 훨씬 풍요롭고 다채롭게 제시되었다. 즉, 청사와 중국사에서 '단절과 연속'의 측면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2010년을 전후로 중국 학계 또한 신청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연구자와 일반 대중을 불문하고 칼럼, 블로그, 기사, 서평, 논문, 단행본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청사를 비판하는 빈도와 강도가 거세졌다.[60] 중국 학계는 신청사 학파의 방법론적인 전환은 물론, 만주어 사료에 대한 중시와 효용성 또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미 학계의 신청사가 역사를 왜곡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사학'으로서 중국의 민족 분열과 영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59 한국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팔기(八旗)의 제도적 분석, 청 초 황제 권력의 특징 등을 주제로 만주의 독자적인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된 논쟁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한국 청사 연구의 독자성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민, 2016,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史叢』 88; 윤영인 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윤욱,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등을 참조.

60 중국 학계의 신청사 이해와 비판을 모은 대표적인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汪榮祖 主編, 2014, 『淸帝國性質的再商榷: 回應新淸史』, 中央大學出版中心; 劉鳳雲·董建中·劉文鵬 編, 2012, 『淸代政治與國家認同』(上·下),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鳳雲·劉文棚 編, 2010, 『淸朝的國家認同: "新淸史"研究與爭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鍾焓, 2018, 『淸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淸史"觀點的反思爲中心』, 中央民族大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이처럼 중국 학계의 반응이 차분하고 냉정한 학술적 비판으로 수렴되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공세나 인신공격 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61] 분명 신청사의 장래는 앞으로의 청사 연구는 물론 새로운 조선·청 관계사의 전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권 제1부 『청제국』의 서평은 2005년에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이,[62] 제2부 『청조』의 서평은 2018년에 패멀라 크로슬리(Pamela K. Crossley)가 발표했다.[63] 주지하다시피 하버드 대학의 엘리엇과 다트머스 대학의 크로슬리는 구미 학계는 물론 중국 학계에도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신청사 연구자이다.[64] 두 평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선학들의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실제 내용은 예상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문제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65] 물론 신청사적 관점의 누락에 대해서는 직접

61 김형종,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동북아역사논총』 53, 128~134쪽.

62 Mark C. Elliott, 2005, "Review: The Ch'ing Dynasty to 1800, Vol. 9, Part. 1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by Willard J. Peters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4.

63 Pamela Kyle Crossley, 2018, "Review Essay: In the Parlor with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The Ch'ing Dynasty to 1800, Part 2*,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78(2). 관견에 한한 『청조』에 대한 서평은 아직 이 한 편이 유일하다.

64 하지만 신청사 학파의 대표적 연구자인 엘리엇과 크로슬리가 팔기와 만주족의 민족성, 기인과 통치 이데올로기, 제국의 발전과 구성원의 정체성 문제 등에 있어서 서로 큰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史叢』 74의 설명이 자세하다.

65 구체적으로 크로슬리는 2016년에 출판된 『청조』가 1979년에 출판된 3권 『수당사』와 더불어 여성 저자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실 구미 학계의 청사 연구자 중에는 크로슬리 본인 외에도 이블린 로스키(Evelyn S. Rawski)나 수잔 나퀸(Susan Naquin)과 같은 걸출한 여성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청조』와 비슷한 시기를 다루지만 사뭇 다른 논조를 보이는 18세기 청대 사회에 관한 연구서를 편찬한 바 있다. Susan Naquin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새로운 청사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두 학자의 날 선 서평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청사 시리즈의 모호한 위상을 잘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조』의 책임 편집자 피터슨은 구미 학계의 신청사적 관점에 대해서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좀 더 냉정하게 꼬집자면 일부러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가 원래 그의 개인적이고 학문적인 신념 때문인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의도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모습이 청 초 정치적 비판과 분쟁을 피하면서 객관적인 진리 탐구와 역사 검증을 추구한 방이지·고염무·왕부지(12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연구 대상에 추체험과 감정이입을 하는 그의 모습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명을 비판하면서도 청을 따르지는 않은' 그의 연구 대상들처럼, 현재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학계에 대한, 그리고 청사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호응이나 비판도 직접 표출하지 않는 미국 학자의 '신중한' 자세가 『청조』의 편집 방향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2016년에 출판된 『청조』는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새롭게 읽히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가 2020년 퇴임을 앞두고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역사 연구에서 좀 더 큰 그림(some bigger picture)과 맥락(some bigger context)을 강조한 것

Evelyn S. Rawski, 1989, *Chinese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수잔 나퀸·이블린 S. 로스키 지음, 정철웅 옮김, 1998,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하지만 현대 여성 연구자는 『청조』 편찬에 초대되지 못했고, 청대 여성은 10장 「도교」에서 여자 도사로만 잠깐 등장할 뿐이다. 참고로 앞선 9권 제1부 『청제국』에서는 크로슬리가 6장 「청 제국의 정복 엘리트」를 집필하였고, 거트러드 로스 리(Gertraude Roth Li), 메들레인 젤린(Madeleine Zelin), 수잔 만(Susan Mann) 등의 여성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 밖에도 크로슬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웨이드-자일스(Wade-Giles) 표기 방식, 생소한 영국식 제목 스타일과 호칭, 무심한 시대 구분, 구태의연한 각주의 연구성과와 참고문헌 등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와 더불어, 환경사적 관점의 부재, 문학과 종교 등 사회상에 관한 서술 미흡 등 내용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처럼,[66]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정치 분쟁과 위기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중국학에 대한 학문적 자세와 지향이 바로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주자학과도, 양명학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던 명 말·청 초의 지식인들처럼, 피터슨은 구질서의 중국학으로부터 신질서의 중국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중국학자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는 학술서로서 『청조』가 최근 구미 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제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맺음말의 부제이기도 한 단절과 연속의 '이중변주'이다. '이중변주'는 중국의 근현대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독특한 표현이다. 바로 리쩌허우(李澤厚)가 『중국현대사상사론』(1987)에서 20세기 중국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핵심 논지로 제시한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啓蒙與救亡的雙重變奏)"에서 나온 말이다.[67] 서구 열강의 핍박과 압력으로부터 중국을 구해야 한다는 '구망'의 임무가 결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를 추구한 '계몽'을 압도했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을 변용하여, '계몽'에 '단절'을, '구망'에 '연속'을 대입해보았다. 즉, 『청조』의 청사 인식과 서술은 때로는 '단절'의 선율이 흐르면서도 때로는 '연속'의 선율이 연주되지만, 결국 '연속'이라는 주제가 '단절'이라는 주제를 압도했음을 의미한다.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2016년 9권 제2부 『청조』에서 조명된 18세기 강희-옹정-건륭 연간에 형성된 '새로운 질서(new order)'는 아이러니하게도 1978년 10권 『청 말』의 19세기 서양 열강의 개입을 초래한 '구질서(old order)'로 회귀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전근대'의 청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진출에 대응하지 못하고 강요된 '근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전통적인 구미 학계의 '단절'적 관점이다.

피터슨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는 2016년 『청조』의 편찬을 통해 『케임브

66 Li Yang, 2020, 앞의 글, pp. 73~74.

67 리쩌허우 지음, 김형종 옮김, 2005,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9~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체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구미 학계의 중국사 연구 경향의 연속성까지 증명하고 담보해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는 단순히 '중용' 혹은 '중간'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연속'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가미되어야 했다.[68] 그 과정에서 『청조』 서술의 '연속'이라는 임무가 청의 특징과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절'의 시각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피터슨의 본래 학문적 견해이건, 뒤죽박죽 꼬인 『케임브리지 중국사』 출판 시점의 실타래를 풀고 '시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건 간에 『청조』의 청사 인식과 서술은 '신청사'와 청제국으로 대표되는 '단절'보다 전통적인 왕조사로서 청조의 '연속'을 조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다시 한번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을 비추는 거울로서,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 앞에 섰다.

68 '단절'과 '연속'이라는 표현은 공교롭게도 피터슨의 초기 연구를 확인하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Willard J. Peterson, 1982, "Making Connections: The Commentary on the Attached Verbalizations in the Book of Chang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식, 2018,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조선 후기 중국 인식의 전개와 중화 사상의 굴절』, 아카넷.

리쩌허우, 김형종 옮김, 2005,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민두기, 2001,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출판부.

수잔 나퀸·이블린 S. 로스키 지음, 정철웅 옮김, 1998,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윤영인 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영옥, 2016, 『견제받는 권력: 만주인 청나라의 정치구조, 1616~1912』, 전남대학교출판부.

王汎森, 2013, 『權力的毛細管作用: 清代的思想, 學術與心態』, 聯經出版事業公司.

汪榮祖 主編, 2014, 『清帝國性質的再商榷: 回應新清史』, 中央大學出版中心.

劉鳳雲·董建中·劉文鵬 編, 2012, 『清代政治與國家認同』(上·下),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劉鳳雲·劉文棚 編, 2010, 『清朝的國家認同: "新清史"研究與爭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鍾焓, 2018, 『清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清史"觀點的反思爲中心』, 中央民族大學出版社.

Fairbank, John K. ed., 197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irbank, John K. and Liu, Kwang-Ching eds., 198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te, Frederick W. and Twitchett, Denis eds., 198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7,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1*, Cambrid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University Press.

_____, 199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8,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terson, Willard J. ed., 200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One: The Ch'ing Empire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1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김선민, 2016,「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史叢』88.

김선민, 2011,「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史叢』74.

김형종, 2016,「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동북아역사논총』53.

손성욱, 2019,「宗藩과 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총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동북아역사논총』66.

윤욱, 2015,「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역사와 세계』47.

진성수, 2012,「명말, 청초 고증학의 연원 고찰-황종희, 고염무, 왕부지를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72.

홍면기, 2018,「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동북아연구』33(2).

馬子木, 2020,「這是什麼樣的"中國中心觀"?-《劍橋中國淸代前中期史》讀後」,『歷史評論』, 2020-1.

王俊義, 2010,「從"沖擊—反應論"到"中國中心觀"的歷史轉變-《劍橋中國淸代前中期史》述評」,『社會科學戰線』, 2010-12.

Crossley, Pamela Kyle, 2018, "Review Essay: In the Parlor with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The Ch'ing Dynasty to 1800, Part 2*,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78(2).

Elliott, Mark C. 2005, "Review: The Ch'ing Dynasty to 1800, Vol. 9, Part. 1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by Willard J. Peters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4.

Li, Yang, 2020, "Interview with Ming Scholars: Questions for Professor Willard Peterson, East Asian Studies and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USA", *Ming Studies* 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구미 학계의 '청조(淸朝)' 인식과 서술

– 『케임브리지 중국사 9권,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조』를 중심으로 –

박민수

이 글은 『케임브리지 중국사(*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시리즈 중, 2016년에 출판된 9권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조(The Ch'ing Dynasty to 1800)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구미 학계가 청사를 보는 관점을 심도 있게 규명했다. 이를 통해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을 비추는 거울로서, 중국과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진다. 이 글은 특히 새로운 청사 연구 경향인 '신청사'와의 관계, 그리고 청사에서 '단절'과 '연속'의 주제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 건설적 균열과 비판적 시각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5장의 내용을 크게 '중국'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학술·문화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각 장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지를 정리하는 한편, 해당 주제에 관한 저자와 한국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까지 최대한 섭렵하여 제시했다.

주제어: 『케임브리지 중국사』, 청조, 청제국, '신청사', 구미 학계, 조선·청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meric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Qing History: A Critical Analysis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Park Minsu

This article i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Two, The Ch'ing Dynasty to 1800*, which was recently publish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it will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how the American and European academia perceives the history of the Qing. Second, it will also examine how the work understands the Joseon-Qing relationship and its perspective on Jose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series, with its long tradition and well-established authority, serve as a mirror to understand the American and European academia's perspective of the Chinese History. Thus, it holds a significant position on both Korean and Chinese readers, from professional researchers to the public.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n scholarship on the Qing, I will primaril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work and the so-called New Qing History, the significance of both "continuity" and "change" within the fields of Qing studies.

For this review, I have reorganized the fifteen chapters into three broad themes, which also are the three sections of this article. Namely, "Chinese History," "East Asian History," and "Scholarship and Culture in the Qing." Each section will summarize each chapter of the work, examine the previous scholarship that formed the chapters themselves, and introduce how the recent Korean scholarship has engaged on each theme.

Keywor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Qing Dynasty, Qing Empire, "New Qing History(新清史)", American and European Academia, Joseon-Qing Relati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씨제 정비와 일본의 『신찬성씨록』

– 역주 『신찬성씨록』(동북아역사재단, 2020) 상·중·하 출간에 부쳐

노중국 |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I. 역주 『신찬성씨록』 상·중·하의 출간과 그 성과
II.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씨제 정비와 『신찬성씨록』의 특징
III. 한국고대사와 『신찬성씨록』
IV. 백제의 8대성, 북위의 8성, 신라의 8품 성골, 일본 천무조의 8색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역주『신찬성씨록』상·중·하의 출간과 그 성과

『신찬성씨록』은 간무(桓武) 연력 18년(799)에 시작하여 사가(嵯峨) 홍인 6년(815)에 완성된 일본 씨성에 대한 계보서이다. 이 계보서에는 왕경과 기내 지역에 거주하는 1,182씨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천황가와 연결되는 황별(皇別) 씨성은 335씨, 일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에서 출자(出自)했다고 하는 신별(神別) 씨성은 404씨,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왜로 건너간 도왜인(渡倭人: 외국계) 계통인 번별(蕃別)의 씨성은 326씨, 그리고 조상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된 미정잡성(未定雜姓) 씨성이 117씨였다.

1,182씨성 가운데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외국계 가운데 중국계와 한반도계는 반반이다. 한반도계 가운데는 백제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계 성씨들 가운데 각국의 왕으로부터 출자하였다고 하는 씨성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성씨의 조상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다.

『신찬성씨록』은 일본고대사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신찬성씨록』에 주목하고 폭넓고도 정치한 연구 성과를 내었다. 대표적인 연구자가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이다.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보면 일본고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황별이나 신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번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번별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의 연구는 몇몇 주목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왕인(王仁)이나 귀실씨(鬼室氏) 또는 길전련(吉田連) 등에 관심을 가진 정도였을 뿐 『신찬성씨록』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이번 역주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연구 성과는 본 역주본에 부록으로 수록된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찬성씨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찬성씨록』에 대한 역주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역주서는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준 것이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한 역주 『신찬성씨록』 상·중·하이다. 연민수 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실장을 책임연구자로 하여 김은숙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이근우 부경대 교수, 서보경 한성대 특임교수,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등 다섯 연구자가 7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맺은 결실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선뜻 손대지 못한 것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 역주서는 『신찬성씨록』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주서이다. 역주자들은 최초의 역주라는 사실 자체와 일본 연구자들의 성과와 차별화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진 것 같다. 책 전체를 보면 이러한 고민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고민한 결과 이 역주서는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면서 특히 한국과 관련한 성씨들을 새롭게 정리한 성과를 담아낼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런 좋은 역주서를 발간한 것을 축하하며, 아울러 역주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 역주서는 역주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사에키 아리키요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일본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한국 관련 성씨들을 밝혀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성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역주서의 해제에서는 『신찬성씨록』의 편찬 배경과 목적, 편찬 과정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신찬성씨록』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연구의 흐름과 현재의 연구 수준이 어떠한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각 성씨와 인물들에 대한 주석은 세밀하면서도 폭이 넓다. 성씨와 관련한 여러 사서를 폭넓게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 자료, 금석문 자료, 목간 자료 등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또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간략히 해제를 붙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아보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셋째, 황별이나 신별 또는 중국계 성씨 가운데 150씨는 본래 한반도계 성씨였음을 밝혀내 정리하였다. 새로 밝혀낸 한반도계 성씨는 황별에서 12씨, 신별에서 3씨, 중국계에서 100씨, 미정잡성(未定雜姓)에서 35씨였다. 이 역주서 하권 부록에는 150씨족을 정리한 표가 "『신찬성씨록』에서 새로 발굴한 한국계 씨족"이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면 외국계 성씨 가운데 한반도계는 80%를 넘게 된다. 이는 일본고대사회에서 한반도계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 역주서의 출간을 계기로 한반도계 성씨집단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씨제 정비와 『신찬성씨록』의 특징

1. 성과 씨

인간은 혈연과 지연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혈족집단을 나타내주는 것이 성(姓)과 씨(氏)이다. 중국에서는 성과 씨는 처음에는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성은 천자가 유덕한 사람을 등용하면서 그 사람의 덕을 현양하기 위해 출신지의 지명에 의거하여 수여한 것이다. 씨는 천자가 자신의 신하에게 일정 지역을 봉토(封土)로 지급하고 제후로 임명하면서 수여한 것이다. 족(族)은 제후가 자신의 신하 가운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다.[1] 그러나 전국시대에 이르러 성과 씨는 구별되지 않고 성씨(姓氏)라 하였다.[2]

---

1 『춘추좌씨전』 은공 8년조의 "無駭卒 羽父(公子翬)請謚與族 公問族於衆仲 衆仲對曰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爲謚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公命以字爲展氏" 참조.

2 안광호, 2014, 「한국 본관제도의 기원과 '토성 분정'설에 대한 검토-'토성 분정'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는 중국식 성씨의 영향을 받아 한자식 성씨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성과 씨는 구별 없이 성을 이름 앞에 붙여 동계혈연집단(同系血緣集團), 즉 부계출자집단(父系出自集團)을 나타내었다.[3]

그러나 일본 고대사회에서는 '씨'와 '성'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씨는 '우지'라 하였는데, 혈연관계, 즉 실질적인 혈연관계든 의제적인 혈연관계든 혈연 또는 혈연의식으로 맺어진 수많은 가(家)로 구성된 동족집단을 표시하였다. 성은 '가바네'라 하였는데 그 자체가 정치적 신분이면서 대왕에 봉사하는 정치적 집단을 표시하였다. 이를 씨성제(氏姓制)라 한다.[4] 씨성제는 한국이나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 고대 일본의 특징이다.

중국이나 한국 및 일본 고대사회에서 성씨는 최고 엘리트층에 속하는 집단이 가졌다. 민은 이름만 있고 성씨는 없었다. 따라서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지배층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성씨집단은 정치 운영과 사회 운영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관료를 선발하는 모든 고선(考選)에는 비록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선에 들 자격이 없도록 하였다.[5] 신라에서도 관료를 등용할 때 개인의 능력에 앞서 출신과 가문을 따졌다. 이를 "논골품(論骨品)"이라 하였다.[6]

이 과정에서 성씨집단과 성씨집단 사이에 또는 같은 성씨 내에서도 집단에

에서 언급된 중국 역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44집, 전북대학교 사학회.

3 이순근, 1980,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6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4 이근우, 2019,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과 신찬성씨록의 개성」, 『한일관계사연구』 64집, 한일관계사학회.

5 『일본서기』 권29 천무기 11년조의 "八月己未 … 且詔曰 凡諸應考選者 能檢其族姓及景迹 方後考之 若雖景迹行能灼然 其族姓不定者 不在考選之色" 참조.

6 『삼국사기』 권제47 열전제7 설계두전의 "薛一本作薩罽頭 亦新羅衣冠子孫也 嘗與親友四人 同會燕飮 各言其志 罽頭曰 新羅用人 論骨品 苟非其族 雖有鴻才傑功 不能踰越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 사회적 지위의 고하가 생겨났다.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성씨제이다. 이렇게 정리된 성씨 체계가 흐트러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국왕은 이 성씨집단들을 재편제하여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그 목적에서 나온 것이 성씨제의 정비이다.

2.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씨제 정비

1) 북위와 당의 성씨제 정비

(1) 북위 효문제의 '정성족'

북위는 선비족의 하나인 탁발부가 화북에 건국한 왕조이다. 효문제(471~499)는 풍태후(馮太后)의 개혁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화(漢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낙양 천도를 단행한 후 관료들에게 호복 대신 한족 복장을 하도록 하고, 한어(漢語)를 공식어로 지정하였다. 낙양으로 이주한 선비인들은 모두 낙양적(洛陽籍)을 두게 하고, 장례는 반드시 낙양에서 치르도록 하고, 선비와 한족의 통혼을 장려하였다. 대북인(代北人)들에게 한족사회에 맞는 문벌을 부여하기 위해 선비식의 복성(複姓)을 단음인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성을 칭하는 족단과 족을 칭하는 족단을 정하였다. 이를 '정성족(定姓族)'이라 한다. 성족을 정한 목적은 효문제가 태화 9년(485)에 내린 조서의 서문에[7] 나와 있다.

성과 족을 정할 때 효문제는 태조(도무제: 371~409) 이래로 공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목(穆), 육(陸), 하(賀), 유(劉), 루(樓), 어(於), 계(嵇), 위(尉) 등 8성(八姓)에 대해 하급 관리(猥任)로 등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당시 한족의 대문벌인 사성(四姓: 范陽 盧氏, 青河 崔氏, 滎陽 鄭氏, 太原 王氏)과 동등한 대우

7 『위서』 권113 지제19 관씨지 태화 19년조의 "詔曰代人諸胄 先無姓族 雖功賢之胤 混然未分 故官達者 位極公卿 其功衰之親 仍居猥任 比欲制定姓族 事多未就 且宜甄擢 隨時漸銓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받도록 하였다. 팔성 이외의 다른 사족(士族)들에 대해 원래 삭토(朔土) 출신으로 황시(皇始: 도무제) 이래 예부터 부락의 대인이었는지의 여부와 직계 조상과 본인이 소유한 관직과 작위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높게 평가되는 사족에 대해서는 '성'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고, 낮게 평가되는 사족에 대해서는 '족'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8] 그 결과 사족들의 높고 낮음(昇降)이 구별되어 문지(門地)를 자랑하고 숭상하게 되었다고 한다.[9]

(2) 당 태종의 『씨족지』 편찬

618년 당나라는 수를 대신하여 중국대륙을 통일하였다. 이때 관롱지역(關隴地域: 섬서성) 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이 건국되기 이전에 성세(姓勢)를 자랑하던 산동의 구 문벌(舊閥)들의 위상은 꺾이지 않았다. 당 태종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당 태종이 "일찍이 산동 사인들은 벌열(閥閱: 門閥)을 숭상하여 비록 가세가 쇠하여도 자손들은 오히려 가문의 위망을 등에 업고 혼취함에 반드시 많은 재물을 취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혼(賣婚)이라고 하였다"[10]고 한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당 태종은 『씨족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명을 받은 고사렴(高士廉)과 위정(韋挺) 등은 천하의 보첩을 모으고 사전(史傳)을 참고하여 진위를 검정한 후 『씨족지』를 편찬하여 바쳤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만들어 올린 『씨족지』는 산동 문벌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 결과 최간(崔幹)의 가문이 당 황실이나 황실의 외척보다도 앞서는 제1성이 되었다. 이는

8 『위서』 권113 지제19 관씨지 태화 19년의 "自此以外 應班士流者 … 原出朔土舊爲部落大人 而自皇始已來 有三世官在給事已上 及州刺史鎭大將 及品登王公者爲姓 … 諸部落大人之後 而皇始已來官不及前列 而有三世爲中散監已上 外爲太守子都 品登子男者爲族 …" 참조.

9 『신당서』 권108 열전제20 高儉傳의 "先是 後魏太和中 定四海望族 以寶等爲冠 其後矜尙門地" 참조.

10 『신당서』 권108 열전제20 高儉傳의 "初 太宗嘗以山東士人尙閥閱 後雖衰 子孫猶負世望 嫁娶必多取貲 故人謂之賣昏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태종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 당 태종은 "나는 현재의 관직과 작위를 기준으로 등급의 고하를 삼고자 한다"고 하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씨족지』가 새로 편찬되자 이를 천하에 반포하였다.[11] 이 『씨족지』에는 당 황실이 제1성으로, 외척이 제2성으로, 최간의 최씨가 제3성으로 나오는데 293성, 1,651가(家)가 9등급으로 구분되었다.

2) 백제, 신라, 고려의 성씨제 정비

(1) 백제의 '대성8족' 선정

554년 백제 성왕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와 관산성에서 대회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백제는 성왕 자신과 4명의 좌평이 죽고 3만에 가까운 사졸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였다. 이에 신라 정벌을 반대하였던 원로귀족(耆老)들은 여창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 결과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대성8족(大姓八族)'이 대두하였다.

대성8족은 사씨(沙氏)·연씨(燕氏)·협씨(劦氏)·해씨(解氏)·진씨(眞氏)·국씨(國氏)·목씨(木氏)·백씨(苩氏)를 말한다. 이 가운데 진씨, 해씨, 목씨 등은 한성기부터 성립한 기성귀족가문이고, 사씨, 연씨, 백씨 등은 웅진 천도 이후 두각을 나타낸 신진귀족가문이다. 그러나 대성8족이 선정된 기준과 절차 등은 자료가 없어 분명히 하기 어렵다.

8족 가운데 사씨, 연씨 등이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해씨와 진씨는 중간 부분에, 목씨는 후반에 위치한다. 이러한 서열은 관산성전투 패전 이후 귀족 사이

11 『신당서』 권108 열전제20 高儉傳의 "帝曰 我於崔盧李鄭無嫌 顧其世衰 不複冠冕 … 齊據河北 梁陳在江南 雖有人物 偏方下國 無可貴者 … 太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其次有爵 爲公卿大夫 世世不絕 此謂之門戶 今皆反是 豈不惑邪 朕以今日冠冕爲等級高下 遂以崔幹爲第三姓 班其書天下"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일어난 역 관계의 변화 결과이다.[12] 그러나 무왕 대에 좌평을 배출한 왕효린의 왕씨 가문이나 최근에 묘지명이 소개된 예식진(禰寔進)의 예씨(禰氏) 가문은 대성8족에 들지 못하였다. 이는 대성8족 선정이 위덕왕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신라 흥덕왕의 골품제 정비령

신라의 신분제는 골품제였다. 골품은 '골(骨)'과 '두품(頭品)'으로 이루어졌다. 골은 성골과 진골로, 두품은 6두품~1두품으로 구분되었으므로 모두 8등급이다. 진골과 두품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그래서 신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골품을 논하였다(論骨品)".

그러나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골품제 운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성골과 하위 두품인 1~3두품은 없어지고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만 남게 되었다. 재지세력인 촌주들 가운데 외진촌주(外眞村主)는 5두품의 대우를, 차촌주(次村主)는 4두품의 대우를 받음으로써[13] 지방인과 왕경인 사이의 신분적 구별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식 성씨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성장 때문이었다. 흥덕왕이 즉위 9년(태화 8, 834)에 내린 교서에서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야함을 혐오하였다"고[14] 한 말이 이를 보여준다.

흥덕왕은 이러한 변화를 신분질서의 문란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흥덕왕은 교서에서 "신분에 따른 예의(禮數)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

12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406~415쪽.

13 『삼국사기』 권제33 잡지제2 기용·옥사조의 "外眞村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 참조.

14 『삼국사기』 권제33 잡지제2 색복조의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골품제 정비령을 내렸다. 이 정비령에는 의복, 수레, 그릇, 집 등에 이르기까지 재질과 색깔 등등 매우 세세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 방향은 구장(舊章), 즉 통일 이전인 진덕왕 대의 복식 관련 법률을 따르는 것이었다.[15] 이는 통일 이전의 신분질서로 되돌아가겠다는 일종의 복고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고려 태조의 '분정토성'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새 왕조의 새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기본 방향은 신라의 골품제를 청산하고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통일하는 데 참여했던 여러 세력을 새로운 지배신분으로 편제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에서 태조 왕건은 즉위 23년(940)경에 전국의 군현에 토성(土姓)을 분정(分定)하였다.

군현토성은 읍치(읍내)의 지배성단(支配姓團)인 인리성(人吏姓)과 촌락의 지배성인 백성성(百姓姓)으로 구성되었다. 이 성씨집단은 후삼국시대에 성주, 촌주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지방을 대표했던 이른바 호족이었다. 이들은 고려의 개국과 후삼국 통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개국관료(開國官僚)가 되고, 삼한공신(三韓功臣)이 되었다.

태조 왕건은 이들에게 출신지 또는 거주지별로 성(姓)과 본관(本貫)을 나누어 정해주었다. 이리하여 주, 부, 군, 현의 토성이 성립되었다. 토성 출신자들은 상급 향리층을 구성하여 군현을 실질적으로 지배해갔다.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에 수록된 토성집단은 바로 읍사를 구성했던 인사들의 성씨였던 것이다.[16]

3) 일본의 『신찬성씨록』 편찬

『신찬성씨록』은 헤이안교(平安京)의 좌경과 우경 그리고 기내 5국에 거주하는

15 이순근, 1980,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6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6 이수건, 1991, 「나의 책을 말한다. 한국중세사회사연구」, 『한국사시민강좌』 8집, 일조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82씨의 출자를 정리한 계보서이다. 편찬의 시작은 간무천황이 연력 18년(799)에 각 씨족에게 본계장(本系帳)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부터였다. 편찬의 총책임은 만다친왕(萬多親王) 등 6명이 맡았고, 실무를 맡은 자는 정6위상 행치부성소승(行治部省少丞) 이시카하노아소미쿠니스케(石川朝臣國助) 등 8명이었다. 그리고 16년 뒤인 사가천황 홍인 6년(815) 7월에 완성되었다.

편찬 배경에 대해 『신찬성씨록』 서문에는 "… 천지천황이 동궁에 있을 때 경오년적(庚午年籍)을 만들어 인민의 씨성이 마땅함을 얻었다. 그러나 승보(勝寶) 연간에 특별히 은혜로운 명령을 내려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성을 내려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있던 성과 뒤에 받은 성을 나타내는 문자가 같아지고, 외국과 일본의 씨족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각지의 서민들이 고귀한 신분의 후손이라 내세우고, 삼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 신의 후손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 이에 간무천황은 정명(正名)을 간절히 생각하여 이에 명령을 내려 본계를 편찬하고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17]

이 역주서 해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씨족들에게 씨상(氏上)의 검정을 거친 본계장(新系帳)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구기(舊記, 舊史, 舊文)와 고기(古記) 등과 대조하여 삼체(三體)와 삼례(三例)에 따라 정리하였다. 삼체는 원래 생겨난 바(元生)를 근본으로 하여 같고 다름을 구별하고 앞뒤의 순서를 매기는 것인데 천신지기(天神地祇)의 후손을 신별, 천황과 황자의 지파를 황별, 대한(大漢)과 삼한(三韓: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족속을 제번으로 구별한 것을 말한다. 삼례는 원근과 친소를 보여주는 것인데 본종에서 갈라져 나와 특별히 가문을 세운 선조는 '출자(出自)', 고기와 본계에 모두 실려 있거나 혹은 고기에는 실렸지만 본계에 빠졌거나, 본계에는 실려 있으나 고기에는 빠져 있는 경우는 '동조지후(同祖之後)', 고기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선조를 세운 것에 잘못이 없고 단지 본지(本支)의 관계가 의심스러우면 ~지

17 『신찬성씨록』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는 서보경, 2012, 「신찬성씨록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연구』 41집, 한일관계사학회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之後)라고 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들지 않는 성씨는 미정잡성(未定雜姓)이라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편찬자들은 성씨의 기원을 자세히 연구하고 여러 주장을 모아 옳고 그른 것을 골랐다. 옛 기록의 번잡함을 잘라내고, 새로운 요점만 뽑아 모았다. 새로운 계보의 덧붙인 내용은 없애고, 과거와 통하도록 절충하였다. 이리하여 전체 1,182씨가 수록된 『신찬성씨록』이 완성되었다. 편찬자들은 "『신찬성씨록』은 인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요령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18]

3. 『신찬성씨록』의 특징

동아시아 각국에서 행해진 성씨의 정비는 각국의 지배체제의 정비 및 국왕권의 강화와 짝하여 이루어졌다. 이 점은 공통이다. 그러나 『신찬성씨록』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역주서의 해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찬성씨록』은 성씨록 편찬 목적, 편찬 시기, 편찬 과정과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비교 검토, 편집 기준, 편집 분류, 편찬자, 성씨의 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성씨록이다.

둘째, 성씨를 황별, 신별, 번별, 미정잡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신별은 신화 속의 신들을 조상으로 한 성씨이다. 신별을 설정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편찬자들은 각 씨족이 제출한 본계장을 『일본서기』, 『고사기』 등과 같은 구사(舊史)나 관부 문서와 같은 구기(舊記) 등은 물론 황실 도서실에 비장(秘藏)되어 있는 자료까지 섭렵하여 대조한 후 각 씨족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18 『신찬성씨록』 序의 "凡一千一百八十二氏 惣爲三十卷 勒成三部 名曰新撰姓氏錄 … 抑亦人倫之樞機 國家之隱栝也"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검정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검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찬성씨록』이 유일하다.

넷째, 성씨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황별, 신별, 번별의 삼체와 출자, 동조지후, 지후의 삼례를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신찬성씨록』의 특징이다. 북위는 8성 이외의 다른 사족들을 '성'과 '족'으로 분류할 때 황시(皇始, 396~398) 연간 이래 3세대에 걸쳐 일정한 벼슬에 올랐느냐의 여부로 네 가지 기준을 정하였다.[19] 이는 『신찬성씨록』 다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신찬성씨록』에는 모든 성씨의 조상이 기재되어 있다. 북위의 경우 성족을 정하면서 선비식의 성을 중국식의 단자 성으로 바꾼 것만 기록하였을 뿐 각 성의 조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당의 경우 293성의 조상은 물론 293성 각각의 성씨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백제의 경우 대성팔족의 성씨는 알 수 있지만 그 조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고려 태조는 군현의 토성만 분정하고 조상은 기록하지 않았다. 각 성씨의 조상을 일일이 밝힌 것은 『신찬성씨록』이 유일하다.

여섯째, 『위서』 관씨지에 보이는 북위의 성의 수는 118여 성에 불과하다. 당의 『씨족지』에 수록된 성은 293성이다. 백제의 경우 8대성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신찬성씨록』에는 무려 1,182씨가 수록되어 있고 성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다. 이는 『신찬성씨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미정잡성은 각 씨족이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성씨가 구기나 구사 그리고 본계장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성씨였다. 그럼에도 이 성씨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수록한 것은 『신찬성씨록』의 특징이라 하겠다.

---

19 『위서』 권113 지제19 관씨지 태화 19년의 "… 自此以外 應班士流者 尋續別敕 原出朔土 舊爲部落大人 而自皇始已來 有三世官在給事已上 及州刺史鎭大將 及品登王公者爲姓 若本非大人 而皇始已來 職官三世尙書已上 及品登王公而中間不降官緖 亦爲姓 諸部落大人之後 而皇始已來 官不及前列 而有三世爲中散監已上 外爲太守子都 品登子男者爲族 若本非大人 而皇始已來 三世有令已上 外爲副將子都太守 品登侯已上者 亦爲族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한국고대사와 『신찬성씨록』

『신찬성씨록』에 수록된 한반도계 성씨는 모두 163씨인데 백제계가 104씨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고구려계는 41씨로 25%이며, 나머지 신라계와 임나계(가야계)는 10% 정도이다. 이 가운데 왕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은 백제계는 도모왕, 무령왕, 의자왕, 초고왕, 귀수왕 등 29씨이다. 고구려계는 추모왕, 호태왕 등 5씨이고, 임나는 하라하실왕 등 4씨에 불과하다. 이는 삼국 가운데 백제계가 일본고대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컸음을 보여준다.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백제계 씨족은 좌경 번별에는 백제 도모왕의 18세손 무령왕의 후손인 화조신(和朝臣)이 필두에 있다. 화조신은 간무의 외척으로 당시 도왜(渡倭) 씨족 가운데 최고 위치에 있었다. 우경 제번 하에서는 의자왕을 출자로 하는 백제왕씨(百濟王氏)로부터 시작한다. 의자왕의 아들 선광의 후손이 백제왕씨를 칭하며 특별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한반도계 사람들이 왜로 건너간 시기나 건너가게 된 배경 등은 가지각색이다. 이들은 왜에 거주하면서 유학, 시문 등을 비롯하여 불교, 의술, 역법, 군사, 예능, 건축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여 두각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왜 조정의 관료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663년 부흥백제국이 멸망한 후 왜로 망명한 유민 가운데 법관대보(法官大輔)였던 여자신(餘自信)이 대금하(大錦하) 관위를, 학직두(學職頭)였던 귀실집사(鬼室集斯)가 소금하(小錦下) 관위를, 병법에 밝은 곡나진수(谷那晉首) 등이 대산하(大山下) 관위를 받은 것이 그 예이다.[20] 이에 왜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성씨를 사여하였다. 『신찬성씨록』 서(序)에 "승보(勝寶) 연간(749~751)에 특별히 은혜로운 명령을 내려 제번 출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20 『일본서기』 권27 천지기 10년조의 "正月 … 是月 以大錦下授佐平餘自信 沙宅紹明(法官大輔) 以小錦下授鬼室集斯(學職頭) 以大山下授達率谷那晋首(閑兵法) …"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을 내려주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 기사는 한반도계 유민들이 일본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유민씨족 가운데 일부는 황별이나 신별 또는 중국계로 출자를 개변하기도 하였다. 이 역주서에는 황별, 신별 또는 중국계라 한 씨족 중에 원래 한반도계였던 씨족을 150씨나 찾아내어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상을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씨족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근래에 백제 멸망 당시 웅진방령(熊津方領)이었지만 의자왕을 사로잡아 당군에 항복한 후 당에서 벼슬을 한 예식진(禰寔進)과 그의 아들 예소사(禰素士), 손자 예인수(禰仁秀)의 묘지명이 소개되었다. 예식진의 묘지명에는 그 조상이 '백제 웅천인'이라 하였지만 아들과 손자 묘지명에는 '그 조상은 중국인'이라 하였다. 이는 유민 2세대, 3세대에 와서 조상의 출자를 바꾼 것을 보여준다. 일종의 가문 세탁을 한 것이다.[21] 이러한 가문 세탁은 왜로 들어간 유민들이 자신의 조상을 바꾼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왜로 들어가거나 당으로 들어간 유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유민사가 정리되었으면 한다.

Ⅳ. 백제의 8대성, 북위의 8성, 신라의 8품 성골, 일본 천무조의 8색성

씨성제는 고대 일본사회의 특질이다. 관리 등용에는 씨성이 일차적 기준이었다. 그래서 관료를 선발하는 모든 고선(考選)에는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선에 들 자격이 없도록 하였다.

이 씨성제는 7세기 중반까지는 신성(臣姓)과 연성(連姓)을 중심으로 이루어

21 권덕영, 2012, 「백제유민 예씨 일족 묘지명에 대한 단상」, 『사학연구』 105집, 한국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졌다. 그러나 684년 천무조(天武朝)가 팔색성(八色姓)을 제정하면서 이 씨성제는 크게 변하였다.[22] 8색성은 진인(眞人), 조신(朝臣), 숙녜(宿禰), 기촌(忌寸), 도사(道師), 신(臣), 연(連), 도치(稻置)를 말한다. 이 역주서의 해제에 의하면 팔색성 제정의 목적은 종래의 족성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유력 씨족들을 황권에 예속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종래 서열의 선두를 점하였던 신과 연이 6위와 7위로 처지게 되었다.

이 씨성제 개혁에서 주목되는 것이 성의 수를 여덟(八色姓)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이다. 하필이면 8색성으로 개편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 배경으로 주목되는 것이 백제의 8대성이다. 일본은 4세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백제와 교섭과 교류를 하면서 백제로부터 유교와 불교, 율령을 비롯하여 사찰 건축, 의약, 역법 등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대성팔족이 보여주는 '8(八)'을 신성시하는 관념이 일본에 영향을 주어 일본열도를 '8주(八洲)' 또는 '대8주(大八洲)'로 인식하게 되었고[23] 이러한 인식이 천무조의 8색성 제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정해 둔다.

백제의 8대성은 북위의 성족 분정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많다. 첫째, 중요 성씨 집단을 여덟으로 정하였다. 둘째, 복성을 중국식으로 단성화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북위는 황실의 성인 탁발씨(拓拔氏)를 원씨(元氏)라 하였고, 백제는 왕성인 부여씨(扶餘氏)를 여씨(餘氏)라 하였다. 셋째, 북위는 황실의 성인 원씨를 8성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백제도 왕실의 성인 부여씨를 8대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당 태종의 『씨족지』에 황실의 성인 이씨가 포함된 것과는 다르다.

---

22 『일본서기』 권29 천무기 13년조의 "冬十月己卯朔 詔曰 更改諸氏之族姓 作八色之姓 以混天下萬姓 一曰眞人 二曰朝臣 三曰宿禰 四曰忌寸 五曰道師 六曰臣 七曰連 八曰稻置" 참조.

23 『일본서기』 권1 제4단 본문의 "故名之曰淡路洲 迺生大日本(日本 此云耶麻騰 下皆效此)豊秋津洲 次生伊豫二名洲 次生筑紫洲 次雙生億岐洲與佐度洲 世人或有雙生者象此也 次生越洲 次生大洲 次生吉備子洲 由是始起大八洲國之號焉"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공통성은 백제가 북위의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사실 백제는 남조와 교섭, 교류를 많이 하였지만 북조와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북위의 문물을 받아들였다.[24] 16관품제가 북위의 18품제를 본으로 하였다는 것, 사비도성의 정림사 위치가 북위의 수도 낙양의 영녕사가 주작대로 변에 위치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 관북리 유적 출토 금동광배는 북위 보태 2년(532) 명문이 있는 금동광배와 유사하고,[25] 정림사지 출토 납석제 삼존불상은 산동성 용흥사지(龍興寺址) 출토 북위 영안 2년(529)명 석조삼존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26] 등이 그것이다. 이로 미루어 백제의 8대성은 북위의 8성제를 본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백제는 본래 5부-5항, 5방, 5좌평 등이 보여주듯이 5를 신성한 숫자(聖數)로 생각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8'도 신성하게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1두품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골품제는 성씨집단을 8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삼국유사』 탈해왕조의 "8품성골(八品姓骨)"이 이를 보여준다. 신라는 박, 석, 김의 삼성(三姓)이나 6부, 6두품 등에서 보듯이 3이나 3의 배수를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골품은 8등급으로 하였다. '8'이 강조된 것이다. 8등급으로 이루어진 골품제는 진평왕 대에 정비되었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신라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이라는 설화에서 보듯이 한때는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라는 백제 8대성의 영향을 받아 골품제를 8등급으로 편제하지 않았을까 한다.

성씨제 정비는 지배체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대동아시아에서 성씨제 정비가 이루어진 나라는 북위, 당, 백제, 신라, 일본이다. 시간 순으로 보면 북위의 8성이 먼저이고, 다음이 백제의 8대성이고, 다음이 신라의 8품 성

24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83~286쪽.

25 곽동석, 2007, 「웅진기 중국과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6 김춘실, 2007, 「불교수용 초기(4~6세기) 불상」, 『백제의 미술』(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골이고, 다음이 당이고, 가장 늦은 것이 일본의 8색성이다. 한족 왕조가 아닌 이 나라들의 성씨제 정비에서 공통점은 성씨를 여덟 등급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 매개 고리 역할을 한 것이 백제이다. 앞으로 성씨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8성, 8대성, 8품 성골, 8색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지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1호(2021. 3)

초판 1쇄 인쇄 2020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3월 31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